

2020. 11.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제9권 제5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편집위원회(가나다순)

---

편집위원장	김선정(계명대)
편집위원	김소희(교통대), 김호정(서울대), 남부현(선문대), 박인옥(강원대), 신규리(서울과기대), 안도희(중앙대), 오장근(목포대), 이병준(부산대), 이승권(조선대), 장은영(서울교대), 조상식(동국대)
편집간사	최유성(인하대)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윤리위원회(가나다순)

---

윤리위원장	손영화(인하대)
윤리위원	박종도(인천대), 안도희(중앙대), 오장근(목포대), 조상식(동국대)
윤리간사	정경희(인하대)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9권 제5호

ISSN 2287-2825

인쇄 : 2020년 11월 28일

발행 : 2020년 11월 30일

발행인 : 김영순

편집인 : 김선정

발행처 :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5호관 남-171호

전화 : 032) 860-8741(다문화융합연구소)

E-mail : kaice2011@naver.com

홈페이지 : www.kaice.kr

인쇄처 : (주)카피테크이십일

●●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임원진 (가나다 順)

<b>회 장</b>	김영순(인하대)
<b>고 문</b>	김광규(삼육보건대), 김성엽(목원대), 김용호(광주대), 양희석(교통대), 오장근(목포대), 윤영득(부산대), 이영실(인천다문화교육연구소), 임배근(동국대), 최영은(인하대)
<b>부 회 장</b>	김남용(신한대), 김선정(계명대), 박종도(인천대), 손영화(인하대), 오영훈(목포대), 이승권(조선대)
<b>상임이사</b>	총무이사: 최승은(인하대) 기획이사: 김정은(문화다움), 이미정(중앙대) 연구이사: 손동기(호남대), 오영섭(인하대), 윤현희(한국교육개발원), 정경희(인하대) 정보이사: 김성영(양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영진(광주대), 방현희(인하대) 편집이사: 박미숙(인하대), 박봉수(디아스포라연구소) 홍보이사: 황혜영(인하대)
<b>국 제 이 사</b>	강현민(독일, 하이텔베르크대), 픽셀 튀르키췌(터키, 예지에스대), 기진욱(중국, 중앙민족대), 김지혜(영국, 랭커셔대), 김태호(일본, 코난대), 막시모바 알렉산드라(러시아, 극동연방대), 쇼이라 우스마노바(우즈베키스탄, 동방대), 쉬르머 안드리아스(체코, 파라스키대), 안토니오 도메빅(스페인, 말라가대), 장연연(중국, 산둥여자대), 정소민(이탈리아, 로마대), 정수봉(중국, 산둥공상대), 정연권(일본, 간사이외대)
<b>이 사</b>	강석태(수원대), 고광혁(인하대), 권형남(대한마리나산업진흥원), 권화숙(세명대), 김남용(신한대), 김미강(BHA 국제학교), 김병문(연세대), 김상열(인천시립박물관), 김성수(계명대), 김인숙(조형연구소), 김창아(서울시교육청), 김태후(의료관광재단), 남부현(신문대), 노용(이화여대), 딜노자(호남대), 박순덕(경기도교육청), 박정례(한양여대), 배경임(인하대), 봉미경(연세대), 서영덕(추계예술대), 서정매(부산대), 송운석(단국대), 신지혜(이화여대), 안진숙(서정대), 엄기홍(GFK Korea), 오세경(인하대), 오지연(서대문박물관), 왕금미(에듀인연구소), 윤동훈(인하대병원), 윤보섭(인하대), 윤영(호남대), 윤희진(백석대), 이문정(중앙대), 이재홍(인하대), 임성범(단국대), 임지혜(안동대), 임한나(청소년활동진흥원), 조연경(이화여대), 조영철(인천교육청), 조위수(부산외국어대), 조진경(인천교육청), 최권진(인하대), 최상희(경향신문), 최희(인하대), 황재동(한일장신대)
<b>감 사</b>	이병환(순천대), 정지현(서정대)

●● 차례

- 1 오지혜 코로나 19 이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23 김수혜 미국의 직업교육과 사회이동에 관한 종합적 고찰  
-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VET) 프로그램 효과와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 53 채보근 우리나라 재정착난민의 사례연구 정책에 대한 고찰
- 83 조위수 · 한강우 내·외국인 학생의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에 관한 소고
- 103 배정옥 · 박윤배 · Philippa Coleman 예비교원들의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해외교육연수
- 141 김순남 학교생활기록부 국제 비교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 169 배경임 신학대학교 다문화강좌 운영 실태 및 방향 탐색  
- 개신교 신학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
- 203 전경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자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 229 유승희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관련 요인,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 255 신혜숙 · 박주형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 275 김현정 · 유두련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자이존증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303 이보람 · 박미숙 선교사 자녀의 유학생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 329 전영국 낭트-순천 한불 국제문화교류 사례 탐구 : 순천만 콘텐츠 중심으로
- 351 김윤정 공감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 연구
- 377 김혜균 K-뷰티 문화코드를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 광고이미지 제작 연구
- 393 강남미 · 박현순 · 이신영 · 김옥진 · 김상진 · 문길남 · 이찬희 한국 조산사 자연출산관리 교육의 표준화지침 구축을 위한 임상실무 프로토콜 분석
- 423 왕용리 · 김선정 한국어 보조용언과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연구
- 451 윤영해 언어권별 삽입모음의 유형과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ㅡ’ 모음의 발음 양상 연구
- 471 이현종 · 박성권 한반도 후기구석기시대 현생인류의 수렵도구 다양성 연구

# 코로나 19 이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오지혜\*\*

## 국문초록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국내외로 정치, 경제, 사회, 보건,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는 코로나 19 이후의 정책 및 제도 수립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며, 소위 '지방 분권 및 자치 강화와 지방 도시 소멸 시대'의 흐름 속에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방향 설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 연구는 코로나 19 이후 지역문화예술의 명맥을 유지하고 나아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국제 사회와 국내의 문화 및 지역문화 정책들을 고찰하는 한편, 국내외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이후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digital), 휴먼(human), 그린(green), 상호(inter)의 네 측면을 고려한 공간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 사람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 콘텐츠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코로나 19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역문화 환경, 지역문화예술 창작자와 향유자, 지역문화예술 콘텐츠가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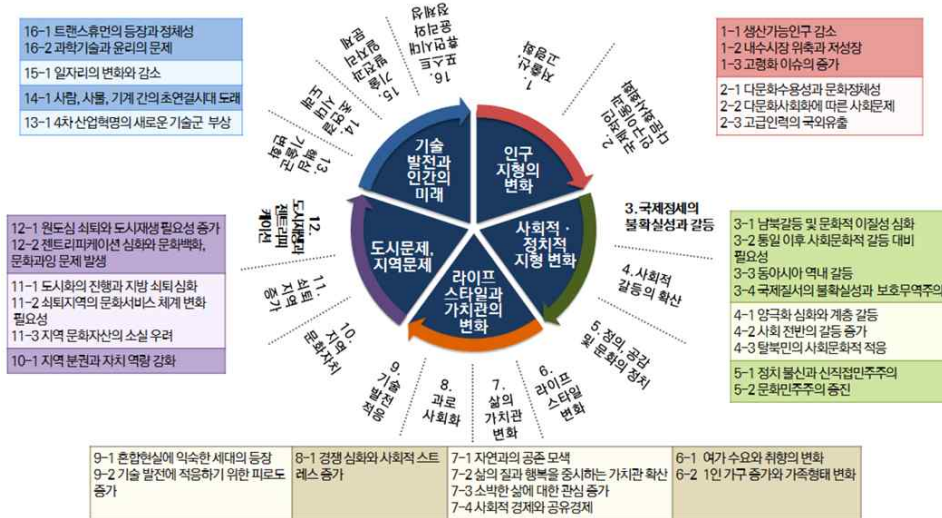
**주제어** 코로나 19, 지역문화예술, 디지털 기반, 휴먼 기반, 그린 기반, 상호 기반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부교수

## I.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격렬한 논의한 이루지기 시작한 이래로 최근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 지구적으로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크게 인구 지형, 사회적·정치적 지형,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 도시 및 지역 구조에 있어서 나타난다.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국제적인 인구이동 증가와 다문화 사회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적·정치적으로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갈등 양극화, 계층 갈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의 확산, 정의, 공감 및 문화 기반의 정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있어서 세대, 계층, 개인들의 개성이 중시되고 변화하고 있으며, 도시 및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한편, 쇠퇴 지역 증가,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이상열·정종은, 2017).



[그림 1] 거시환경 분석에 의한 환경 변화 1차 도출 이슈(이상열, 정종은, 2017: viii)

이에 따라 전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보건,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서 뉴노멀 시대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소위 ‘지방 분권 및 자치 강화와 지방 도시 소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그리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전제로 코로나 19 이후 문화 분야, 특히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방향 설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보았다. 이에 지역문화예술의

명맥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I 장에서는 유엔(UN) 및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의 문화 또는 지역문화와 관련한 정책 및 조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또는 지역문화 정책,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등과 함께 문화 및 지역문화, 문화예술 유관기관의 정책보고서를 검토, 분석하여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국내외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고찰<sup>1)</sup>

### 1. 국제 사회에서의 문화 정책

유엔(UN)은 2015년 유엔총회에서 인간, 지구 및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으로서 2030년 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 2015)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향후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목표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채택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의 이행 기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 아래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절대적 빈곤은 물론 문화, 교육, 젠더 및 주거 등에서 비롯된 상대적 빈곤의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에서 ‘문화’ 분야는 17개 세부 목표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세부 정책 과제로 ① 문화다양성 ② 문화유산의 보존 ③ 지속가능한 관광 ④ 평화의 문화 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국의 문화 정책은 주로 다음 보고서의 내용 중 관련 부분을 발제한 것임을 밝힌다.  
이상열·정종은(2017),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림 2]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다음으로, 주거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국제회의(The UN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인 제3차 유엔 해비타트 회의(UN-HabitatⅢ)에서는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한 바 있으며,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① 공공(문화)공간의 확대 및 접근성 강화 ② 자연 및 문화유산의 활용 ③ 문화다양성 존중 등의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해비타트 Ⅲ 신도시의제(NUA) 내 문화 관련 조항<sup>2)</sup>

신도시의제 조항	주요 내용
37. 공공(문화)공간의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포용적이고 접근성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양질의 공공(문화)공간 확대 - 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포용, 문화적 표현 및 다양한 사람과 문화 간 대화 촉진
38. 자연 및 문화유산의 활용	- 도시와 인간 정주에서 유 무형 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활용 - 문화기반시설 및 유적지, 박물관, 원주민 문화 및 언어, 전통적 지식 및 예술보호를 위해 노력 - 이 과정에서 도시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 사회적 참여와 시민권 행사에 있어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 강조
40. 문화다양성 존중	- 도시 및 인간 정주에서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 또 사회통합, 문화 간 대화와 이해, 관용, 상호존중, 양성평등, 혁신, 기업가정신, 포용, 정체성과 안전,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 점점 다양하고 다문화적으로 변모하는 사회에서 각 지역의 제도가 다원성과 평화적 공존을 증진하도록 노력

2) 자료: 해비타트 Ⅲ 신도시의제(The New Urban Agende)(번역: 국토연구원)에서 발췌.



한편, 문화와 예술의 세계적인 교류와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 단체인 국제예술문화기관 연맹(IFACCA)이 개최하는 세계문화예술정상회의(WSAC)에서는 문화의 주체, 문화를 위한 공간, 문화 네트워크에서의 변화, 확장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공동체, 거버넌스, 리더십, 산업, 디지털과 관련하여 창조, 융합, 혁신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표 2〉 세계문화예술정상회의(WSAC) 의제와 내용

회차	의제	내용
제1회(2000)	외교, 다양성 및 민간 부문 지원에 있어 문화의 역할	다양한 영역과의 관계에서 문화의 역할
제2회(2003)	연결 만들기: 예술적 창의력을 위한 정부 지원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연계
제3회(2006)	장소 변형, 삶의 변화	물리적, 사회적 환경 및 경제의 재생
제4회(2009)	문화회의: 예술을 통한 의미 창조	예술의 도구화와 이문화 간 대화
제5회(2011)	창조적 교차점	장소와 공동체
제6회(2014)	창조시대: 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	창조경제, 창조산업과 문화
제7회(2016)	21세기 문화리더십, 기로에 서 있는가?	문화리더십과 관련한 거버넌스
제8회(2019)	모바일 마인드: 문화, 지식, 그리고 변화	지식, 문화, 예술적 실천, 창조적 공간, 혁신 및 디지털 혁명

또한 UN 회원국 193개 중 140개의 1,000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구가 참가하고 설립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제1차 문화정상회의(2015)에서는 <문화 21(Culture 21: Agende 21 for Culture)>를 채택하였으며, 여기에서 설정한 가치는 ① 문화, 권리 그리고 시민권, ②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요인, ③ 지방정부의 특별한 책무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정부의 문화 정책과 관련한 책무로서 문화권·문화유산, 다양성 및 창조성·문화와 교육·문화와 환경·문화와 경제·문화,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포용·문화, 도시 계획 그리고 공공 공간·문화, 정보 그리고 지식·문화 거버넌스의 아홉 가지를 제안하였다.

〈표 3〉 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 21 실천의 9대 책무(이상열·정종은, 2017:44)

연번	책무	내용
1	문화권(Cultural rights)	'지역의 문화정책은 문화권에 기반' 등 총 10개 과제
2	문화유산, 다양성 및 창조성(Heritage, diversity, and creativity)	'지방정부는 문화적 책임성을 다하는 수준에서 문화예산 확보' 등 총 9개 과제
3	문화와 교육(culture and education)	'지방정부는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을 연계한 지역정책을 가져야 함' 등 총 9개 과제
4	문화와 환경(Culture and environment)	'지역의 문화적 요소는 지역환경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통합되어야 함' 등 총 10개 과제
5	문화와 경제(Culture and economy)	'지역경제 개발 전략은 문화경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등 총 12개 과제
6	문화,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포용(Culture,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지역 사회정책은 모든 유형의 차별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문화를 포함' 등 12개 과제
7	문화, 도시계획 그리고 공공 공간(Culture, urban planning, and public space)	'지역 도시계획은 문화이슈와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등 총 12개 과제
8	문화, 정보 그리고 지식(Culture, information, and knowledge)	'법률은 예술적 표현, 의견개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문화다양성과 사생활 존중 등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등 총 10개 과제
9	문화 거버넌스(Governance of culture)	'지방정부는 Culture21에 기반한 문화정책을 실행해야 함' 등 총 11개 과제

## 2. 국내 문화 및 지역문화 정책

그동안 정부에 따른 문화 정책을 살펴보면, 각 정부의 문화 정책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방 분권의 부각, 문화 격차 해소, 지역의 문화 역량 강화,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생활 속 문화 확산, 국민의 주체적인 문화 참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확대 등에 관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상열·정종은, 2017: 29).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문화 분야 국정과제 중 지역문화 관련 세부 과제는 여섯 개 분야에 걸쳐 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국민의 기초 문화 생활 보장, ② 동네 생활 문화 환경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③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④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 및 문화 다양성 확보, ⑤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⑥ 문화 분야에 대한 자원 확대 및 매개 인력 확충을 포함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정책의 경우, 문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환경과 문화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개발,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신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 공감 문화 정책,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의 네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거점별 문화 도시, 문화 특화 지역(문화 도시, 문화 마을), 지역 거점 문화 도시 조성 사업,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살펴보면,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 아래 자치, 포용, 혁신의 세 가지 가치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서 ①자치와 분권의 원리를 견지하여 지역의 권한과 다양성을 보장하되, 낙후, 쇠퇴 지역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②촘촘한 생활 속 문화 환경 조성으로, 어느 개인과 지역도 뒤처짐 없는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 ③창의성과 지속가능성의 존중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 혁신과 내생적 발전 추구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문화 정책이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 자치적 문화 역량 결집을 강조하면서 지역별(시군별) 차별화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중앙 정부 의존적인 것에서 벗어나 권역별 중점 추진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문화 재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 인재(전문 인력) 육성에서 나아가 활용하고,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문화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행정적인 낭비를 축소하는 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가치 및 목표

국내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은 경제·산업, 인구·사회, 정치·국제의 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로 귀결된다.

〈표 4〉 거시환경 변화와 지역문화 정책 이슈(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43)

	경향	정책 이슈
경제·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실업</li> <li>산업구조 조정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li> <li>대안경제로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문화 소비 위축,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li> <li>문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li> <li>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 지역문화 정책 대응력 강화</li> <li>문화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li> </ul>
인구·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출산·고령 사회</li> <li>지역쇠퇴, 생활사막화 우려</li> <li>일과 삶의 균형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쇠퇴에 대응한 문화적 지속가능성 확보</li> <li>지역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발전</li> <li>지역 간 균형 있는 국민의 삶의 질 보장</li> <li>생활권 중심의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li> </ul>
정치·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요구 확산</li> <li>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자치분권 및 균형적 지역문화 가치 확산</li> <li>정책 추진의 민간 참여 확대 및 참여 방식 다양화</li> <li>지역문화 환경의 포용성과 형평성 확보</li> <li>지역 주민의 문화적 권리 및 다양성 보장</li> </ul>

이상을 바탕으로 할 때, 국외와 국내의 문화 분야에서 강조되는 가치는 자생·자율, 감성, 다양성, 고유성, 창의성, 혁신성, 상생 등의 용어로 정리할 수 있겠다.

### Ⅲ. 코로나 19 이후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방향

코로나 19 이후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몇 가지 물음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 19 이전과 코로나 19 이후의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전면적으로 달라져야 하는가, 둘째, 코로나19 이전의 지역문화예술 정책과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셋째, 기존의 지역 사회의 쟁점 즉, 저출생 및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쇠퇴, 지역 간 문화(인프라, 향유) 격차, 사회적 불평등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으며, 또한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이러한 질문들은 코로나 19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에게 여전히 당면한 과제이다. 다만,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었을 뿐이다.

특히 코로나 19이후 생태계 변화로서 우리는 다음의 문제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뉴

미디어 의존 강화, 세계화, 언택트, 생활 반경 축소 및 생활 문화 중심, 문화적 획일화, 일과 삶의 균형 추구, 삶의 불안정성, 저성장, 에너지, 기후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을 ‘공간’, ‘사람’, ‘콘텐츠’의 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 경우, 문화예술이 생산되고 - 유통되고 - 소비되는 생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공간’, ‘사람’, ‘콘텐츠’ 관점의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예술에서의 개발·창작·제작 → 유통·전시 → 소비·활용 측면에서 IT기술, 인간, 환경, 사회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Digital), 휴먼(Human), 그린(Green), 상호(Inter)의 네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Digital) 측면에서 지역문화예술은 지역문화예술 콘텐츠의 소통, 전파, 보급 방식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정책이 필요로 한다. 기존에도 디지털 기술과 문화 자원 간 융합적 관점에서 문화 기술(CT: Culture Technology)<sup>3)</sup>이 논의된 바 있으나, 향후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 뉴미디어, 가상 및 증강 현실(AR/VR), 빅데이터, 아카이브,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등의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휴먼(Human) 측면에서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지역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 또는 창작에 있어서 감성, 공감의 정서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감성, 공감 등의 가치는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소스 기반의 문화 콘텐츠의 집단 창작뿐만 아니라 나아가 글로컬, 트랜스 로컬리티(trans-locality) 차원에서 집단 지성을 통한 창의성, 상생의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그린(Green) 측면에서 지역문화예술은 자연 생태계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으로서 환경 지향적인 정책을 필요로 한다. 최근 들어 지역 환경과 문화를 연계하여 문화와 지역 공간의 융합, 즉 문화적 도시 재생 정책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도시 재생이 공간, 시설 중심이었다면, 문화적 도시 재생은 사람, 활동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시 재생뉴딜 정책이 지역문화 정책과 연계하여 물리적 환경 정비 중심에서 점차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재생의 융합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상열·정중은, 2017: 219).

넷째, 상호(Inter) 측면에서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공간’, ‘사람’, ‘콘텐츠’ 요소에서 모두

3) ‘문화 기술(CT: Culture Technology)’이라는 용어는 2005년 ‘문화강국(C-Korea) 2010 비전’ 선포 이후 디지털융합시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문화 기술 개발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람 중심 기술(인공지능, 빅 데이터, 5G 기술) 개발로 변화하였다(해피문화홍보원, 2020: 35).

상호 교류적이고 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먼저 공간 측면에서 지역문화예술 콘텐츠는 지역을 넘어, 트랜스 로컬리티(trans-locality), 세계화를 지향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람 측면에서 지역문화예술의 창작자, 소비자, 향유자의 경우, 문화적 다수자와 문화적 소수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문화예술 정책이 사람 간의 연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해 준다. 또한 콘텐츠 측면에서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문화 예술의 장르 간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예술과 대중 문화 예술 간에 있어서 융합을 통한 문화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 IV. 코로나 19 이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sup>4)</sup>

이 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포함한 지역문화예술 정책을 정리,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재 또는 추진 예정 중인 지역문화예술 사업을 대상으로 ‘공간’, ‘사람’, ‘콘텐츠’의 세 관점에서 지역문화예술 사업의 사례<sup>5)</sup>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관점의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은 디지털(digital), 휴먼(human), 그린(green), 상호(inter)의 요소를 기반으로 살펴볼 수 있다.

##### 1. 공간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 지역문화 창작·유통·소비

지역문화 공간 관점에서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예술의 생태계 조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공간’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공간 조성, 공간 연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역 특화의 네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 조성으로서 유휴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중소 도시 내 유휴 공간으로서 산업 단지 또는 폐산업 시설을 이용한 문화 재생 사업 또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물리적 도시 재생은 ‘문화’와의 융합적 접근에서 추진되고 있다. 성공적인 사례로서, 영국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Collection), 중국의 다산쯔(大山子) 798 예술구, 청주의 수

4) 이 장에서 다루는 국내 지역의 사례는 연구자가 속한 충청북도 북부권 지역의 문화예술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5) 지역문화예술 사업의 사례는 국외 지역과 함께 국내의 경우, 충청북도 지역을 주로 살펴보았다.

장형 미술관을 들 수 있다. 테이트 모던(Tate Modern Collection)은 영국 런던에 있는 현대미술관으로서 1981년에 폐쇄된 발전소를 개조하여 템스강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0년 조성 개관하였다. 또한 다산쯔(大山子) 798 예술구는 베이징 다산쯔 지역에 위치한 중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예술특화지구로서, 원래 이곳에 있던 공장의 일련번호가 798이었던 데서 '다산쯔 798예술구'라는 명칭이 탄생하였다. 청주의 수장형 미술관은 2018년에 5층짜리 연초제조창 창고를 리모델링한 문화 공간으로서 이와 비슷한 문화 재생 사업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부터 지역 내 쇠퇴한 장소를 문화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의 경우 시범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은 4곳이며, 2019년에는 19곳(충북 지역은 없음)이 선정되었다.

또한 공공디자인과 문화 콘텐츠 결합을 통합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예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광주광역시 금남로 지하상가 안내체계 개선, 경상남도 김해의 '숲속 마사티널' 통합문화 공간 조성, 전라남도 강진만의 '생태문화놀이장터' 편의시설 등이 있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충주시의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사업인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안전한 체육시설 안내사인 만들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문화 공간을 보다 생활 밀착형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일상의 생활 문화에 지역의 고유성을 연계한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 사업으로서 마을 미술 프로젝트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와 같은 공공 미술 사업 또는 지역 특화 박물관, 미술관 등과 같은 지역 밀착 문화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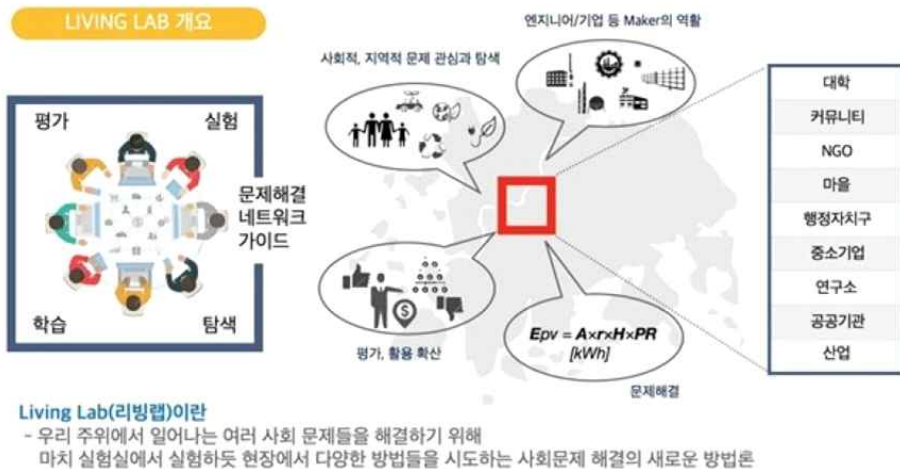
둘째, 지역 내 문화 예술 공간을 연계한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2017~2021) 중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 전략의 중점 과제이기도 하다. 예로서, 지역 내 도서관-박물관-평생학습관을 잇는 연계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 등 특정시기, 중국, 일본, 미국 등 특정 국가의 '문학(문학관, 도서관)'에서 '역사(박물관)', '미술(미술관)', '정치·경제·사회' 등 공간(도서관)을 연계하는 '주제통달' 과정, 또는 문사찰-시서화-음악을 연계하여 특정 시대, 작가, 작품 등을 개관하는 '시대 고전' 과정 등을 들고 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공간 조성은 크게 정보 공유, 창작 및 교육, 문제 해결의 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보 플랫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디지털 공동체 아카이브 즉, 박물관 디지털화(가상·증강 현실, 3D 모델링)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자료의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예로, 서울특별시의 '50+ 마을 기록가 양성사업'과 함께 충청북도 보은·청

주·괴산-충주 구간을 잇는 달래강 인문예술 프로젝트(2018)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온오프라인 정보 플랫폼 및 채널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예술 향유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 ‘온라인 문학진흥 ‘사이버문학광장 사업(www.munjag.or.kr)’을 떠올릴 수 있다. ‘사이버문학광장 사업’은 문학 집배원, 인터넷문에 월간지,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유튜브, 팟캐스트)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작자를 위한 발표 및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아카데미, 콘테스트 등의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문화예술광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일종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으로서, 리빙 랩(Living lab),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의 공간을 통해 가능하다. ‘리빙 랩(Living Lab)’은 특정 공간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혁신 플랫폼을 말한다. 문화예술형 ‘일상 실험실’은 문화와 기술의 융합한 방식으로 주민, 지자체, 전문가,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지역 만들기를 모색하는 공간이다.



[그림 4] 리빙 랩(Living Lab) 개요

자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홈페이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212 재인용)



특히 중소도시의 읍면동 단위에서 현안이 되는 고령화, 범죄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문화예술을 활용한 생활 체감형 또는 활안전 확보형 공공 디자인을 추진함으로써 범죄, 학교 및 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교통 안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연계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창업 연계형 전문창작 공간인 ‘전문’ 랩과 생활 밀착형 창작활동 공간인 ‘일반’ 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 지역의 경우, 청주의 2곳이 선정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화예술, 의료 관련 전문 메이커 교육 및 메이커 강사 양성 프로그램(예: (주)메이킹브라더스) 그리고 상시 창의 융합 북 카페, 개인 메이커 작품 설명회, 아이디어 마켓 전시 등 프로그램(예: 채움플러스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지역 특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공간 조성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 도시, 문화 마을 추진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역 역사·문화·관광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 및 마을 자체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도시형과, 문화 마을형으로 나뉜다. 충청북도 북부권 지역의 경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2014~2019)에서 청주(2016)는 문화도시형<sup>6)</sup>에, 영동(2016), 충주(2017)는 문화 마을형에 선정된 바 있다.

## 2. 사람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 창작자와 향유자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지역문화예술의 창작자와 향유자 즉, 사람에 기반을 것이어야 한다. 즉 ‘사람’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예술인으로서 창작자와 수혜자 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문화 생태계 속에서 창작자, 소비자, 향유자를 대상으로 연계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예술의 가치 확산과 지역문화예술의 수요 충족의 두 축에서 문화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적 취약계층을 포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4차 산업 기술로 인한 인간성 상실에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사람’ 간의 공감과 연대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람’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우선적으로 창작자 양성, 소비자 참여, 소외자 포용,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국제적 네트워크 확보의 네 방향에서 이루질 수 있다.

첫째, 앞으로 지역문화예술이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진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6) 특히 문화 도시 추진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역사전통 중심형, 예술 중심형, 문화산업 중심형,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 자율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제1차 사업은 부천, 원주, 천안, 포항, 서귀포, 부산 영도구, 청주(‘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제2차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오산시, 강릉시, 춘천시, 공주시, 전북 완주군, 순천시, 경북 성주군, 통영시, 제주시가 선정되었다.

때,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 제고, 양성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광역 지자체 중심의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관리 및 운용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문화예술 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대학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의 문화재단은 물론 대학, 지역 출연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 창작자를 위한 양성 기관은 확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전문 인력 양성에서 나아가 이들 전문 인력을 수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대한 대책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일상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라고 할 때,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정책 역시 우리 삶의 주기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즉, 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년 등 소위 '생애주기별'로 접근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 <문화 예술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오픈 랩(Lab)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4차 산업혁명', '50+세대', '유아'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주제로 10개 랩(Lab)을 선정하여, 개발 과정에서 분야별로 전문가 컨설팅, 또는 일대일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셋째, 지역의 중소 도시기는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문화 예술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 내 문화 향유 기반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화 소외 지역의 사회 복지 시설, 농산어촌, 임대 주택, 교정 시설, 군부대, 산업단지 공단 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중소 기업 근로자, 새터민 등과 같은 지역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화 향유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지역문화예술 향유 사업의 사례로서 '방방곡곡 문화 공감', '신나는 예술 여행(舊. 소외계층 문화 순회)' 사업을 들 수 있다.

넷째, 지역문화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트워크의 강화와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1년에 지역 단위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의 거점 문화 예술 기관을 활용하는 것과

7) 2019. 1. 1. 기준으로, 전국 및 충북 북부권 문화 기반 시설, 인구 백만 명 당 문화 시설, 지방자치단체 : 총 예산문화 예산문화 예술 예산-공연 예술예산 지역별 현황, 공연 시설 지역별 분포 현황, 공연 단체 지역별 분포 현황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예상하다시피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와 지역의 중소 도시 간 격차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타 지역에 비해 충북 지역 내 문화기반 시설이 적으며, 충청북도 지역 내에서도 박물관, 미술관 격차가 크며, 충청북도 북부권 내에서도 박물관(대학), 미술관(국공립, 사립)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별도로 지역문화 공동체 내 구성원 간 또는 공동체 간의 협력, 협치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정보를 공유하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창작, 유통, 소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외 사례로서 영국의 <SDGs 기반의 Active Citizen>을 들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사람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꾀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46개국의 693 파트너들이 7,854가지의 프로젝트를 함께 만드는 것과 동시에, 약 21만 명의 'Active Citizen'을 배출해 오고 있다. 또한 개인 간 문화적 차이와 신념, 인식의 차이를 지닌 사람들을 함께 모여, 상호 문화적 이해를 통해 '나와 너', '우리', '사회'로 확산되는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노영순, 2017:45).



[그림 5] SDGs 기반의 Active Citizen

그리고 나아가 지자체 및 지역의 문화 예술 단체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중요성은 2020년 <국제문화교류진흥 시행계획>의 추진 전략 중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점 과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지자체 및 지역 문화 예술 단체의 국제 문화 교류 사업>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업무 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한국문화원(벨기에, 헝가리), 주한덴마크대사관, 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지자체(경상남도, 공주시, 광명시, 순천시, 이천시, 창원시 고령군, 서천군, 영월군, 옥천군), 경운대학교 등 18곳이 있으며, 충청북도 북부권에서는 충주시가 선정된 바 있다.

### 3. 콘텐츠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관점에서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지역적 특수성, 융합, 글로벌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예술 공동체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지역문화예술 ‘콘텐츠’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공재로서 지역문화예술의 공공성을 확장시키며,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적 확산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콘텐츠’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뉴 미디어 활용, 융복합적, 지역 특성화, 지역 브랜드의 국제화의 네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뉴 미디어를 활용한 지역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 관련 창작자, 소비자, 향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뉴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뉴 미디어 또는 IT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창작-보급-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 기획 대상 과제 RFP(안)>에서는 다음을 포함한 32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 5G 기반 실시간 자유 시점 원격 관람이 가능한 다채널 콘텐츠 제작 프로덕션 플랫폼 기술 개발
- 클라우드 기반 실감형 영상콘텐츠 제작 플랫폼 개발
- 공연/전시환경에서 다양한 타입의 미장센 및 무대구성용 유연/투명화 디스플레이 및 실증 기술개발
- 안전한 무대장치 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반 스마트 무대전시 동적 공간 인지형 미디어월 플랫폼 기술 개발
- 소극장용 실감형 공연 콘텐츠 제작을 위한 포터블 기반 혼합현실 패키지 기술 개발
- 실감형 스마트 공연 자막 시스템 개발
- 미술품들의 디지털 데이터 확보 및 과학기반 미술품 가치(신뢰도)분석 지원시스템 개발
- 재활용 필라멘트 기반의 3D 프린팅 입체형 조형물 제작 기술 개발
- 전통 먹 소재 기반 K-Black 잉크 및 디지털 인쇄 기술 개발
- 직조가 및 일반인을 위한 전통 직조 기반의 수직기 시물레이션 및 개량 기술 개발
- 지역문화 스토리 기반 지능형 문화브랜드 창작기술 개발
- 청각장애인 위한 지능형 전시해설 문자/한국수어 변환 기술 개발
- 시각장애인의 스마트 관람을 위한 멀티모달 전시안내 단말 및 저작 기술 개발

- 실감형 문화유산 체험을 위한 애셋 기반 지능형 큐레이션 및 서비스 운영 기술 개발

둘째, 지역문화예술 콘텐츠는 문화 분야 이외에 사회의 다른 영역과의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즉, 지역의 문화예술을 교육, 복지, 건축, 종교, 과학기술, 보건 등 영역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융·복합적인 지역문화예술 사업으로서 ‘융합형 창작 실험’이 있는데, 이는 신진예술가 또는 단체의 탈장르적이고 융합적인 창작 실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융·복합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장르 간 융·복합적 관점에서 창작자, 소비자, 향유자 간에 지역 사회 내 소통, 공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의 핵심은 지역문화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콘텐츠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우수 콘텐츠 발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콘텐츠의 특성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지원 공모 사업>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기초지자체의 우수 문화 자원 발굴 및 국제 문화 교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제천(2020)의 ‘한방(약초)자연치유의 예술적 만남’, 충주(2019)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택견 & 사물놀이 한·폴란드 국제 문화예술 교류’, 옥천(2019)의 ‘제9회 일본 지용제’가 선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대표 공연 예술제 사업으로서 영동의 ‘제51회 영동난계국악축제’와 같은 지역 특성화 문화 예술 콘텐츠가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선 ‘문화의 날’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충청북도 청주의 ‘숲속에서 책보고 빵 먹고’((주)충청리뷰사 ‘숲속 책방’)는 원도심 속 공원에서 방문자들에게 이색적인 경험과 추억 제공하는 원도심 특수성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동네 책방과 골목 빵집들이 참여하는 마켓과 지역 농민들이 참여하는 마켓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진천의 문화 공감 흥 ‘생거 진천 문화 짱날’은 문화 여행지별 문화콘텐츠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진천 문화 여권을 중심으로 진천 문화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화가 있는 날’ 지역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를 위한 지역민의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데, 지역 특성화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충청북도 북부권에서는 충주의 ‘달빛야행’((사)민족미술인협회 충주지회)과 ‘그리움... 희망의 꽃을 피우다 감자꽃 증창단’(충주열린학교), 제천의 ‘악자지결! 인생이야기’(예술놀이터 혜음)가 운영되고 있다.

넷째, 지역문화예술을 지속가능하게 계승하고 나아가 글로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문화를 브랜드화, 국제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문화 브랜드의 세계

화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로 <유네스코 창의 도시>와 <루트(Route) 기반의 관광 자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 창조 도시 조성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현재까지 경기도 이천(2010, 공예와 민속 예술), 서울(2010, 디자인), 부산(2014, 영화), 전북 전주(2012, 미식), 경기 부천(2017, 문학), 원주(2019, 문학), 광주(2014, 미디어아트), 경남 통영(2015, 음악), 대구(2017, 음악), 경남 진주(2019, 공예-민속예술) 등의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 <루트(Route) 기반의 관광자원 사업>은 등록 문화재 중심에서 생활 전통 문화로, 보존 중심에서 활용 지향의 문화유산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권역별 또는 주제별로 나눈 20개의 유형, 무형, 천연기념물, 명승을 아우르는 광역형 문화유산 루트로써 ‘케리티지-루트(Keritage-Route)’를 개발하여 관광 자원화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 V. 나오며

이 연구는 코로나 19 이후 지역문화예술의 명맥을 유지하고 나아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 사회와 국내외 문화 및 지역 문화 정책들을 고찰하는 한편, 국내외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이후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정책이 크게 공간, 사람, 콘텐츠의 세 축에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공간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 사람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 콘텐츠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서 사례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의 정책은 디지털(digital), 휴먼(human), 그린(green), 상호(inter)의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간’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지역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본 것으로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공간 조성, 공간 연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역 특화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공간 조성’은 유희 공간 활용, 도시 재생, 공공 디자인, 생활밀착형 공간을, ‘디지털 플랫폼 구축’은 정보 공유, 문제 해결, 창작 및 교육의 공간을, ‘지역 특화’는 문화 도시와 문화 마을이라는 지역문화 공동체 공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둘째, ‘사람’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지역문화예술의 창작자와 향유자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는 창작자 양성, 소비자 참여, 소외자 포용,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 확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창작자 양성’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소비자 참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소외자 포용’은 문화소외지역 제작 및 향유를,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 확보’는 지역문화의 교류와 전파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셋째, ‘콘텐츠’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지역문화예술 콘텐츠의 발굴, 개발, 국제화의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문화예술 공동체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이 지역의 자치 역량을 제고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뉴 미디어 활용, 융·복합, 지역 특성화, 지역 브랜드의 국제화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기반의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뉴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는 뉴 미디어 또는 IT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융·복합적’ 콘텐츠는 지역문화예술을 교육, 복지, 건축, 종교, 과학기술, 보건 등의 다른 사회 영역과 연계한 콘텐츠, ‘지역 특성화’ 콘텐츠는 지역문화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콘텐츠, ‘지역 브랜드의 국제화’를 위한 콘텐츠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지역의 브랜드화, 세계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 참고문헌

- 김양식(2012). 문화예술 동향과 충청북도의 대응방안. 충북발전연구원.
- 노영순(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 (2019). 문화권 선언 2030 방향 설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9).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2018 문화예술 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_\_\_\_\_ (2017a).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_\_\_\_\_ (2017b).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 \_\_\_\_\_ (2018).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 \_\_\_\_\_ (2019).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문화체육관광부.
- 양혜원(2018).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정책 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 발전을 위한 창의성 증진 문화정책의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_\_\_\_\_ (2019).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위 위한 교육-학습목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상열·정종은(2017).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광호(2017).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쟁점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차민경(2019). 공연예술분야 공공-민간 상생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보연(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충북문화재단(2020). 2019 충북문화재단 연차보고서. 충북문화재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ABSTRACT〉

**Direction of Policy for Vitalizing Local Culture and Art  
after COVID-19**

Oh, Jihye

While experiencing the COVID-19 pandemic, discussions to establish policies and systems after COVID-19, and to seek action are actively taking place at home and abroad in all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health, and education. The cultural field is no exception, it is more urgent than ever to set a direction for local culture and art in the so-called 'era of decentralization and local self-government as well as the disappearance of local cities'.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direction to retain life and further vitalize local culture and art after COVID-19. To this end, this study has examined project cases in the field of local culture and art, while considering domestic cultural and local cultural policie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ays to vitalize local culture and art was drawn, with setting the direction of local culture and art policy after COVID-19 based on it. As a result, three directions of policy on local culture and art such as a space-based local culture and art policy, a people-based local culture and art policy, and a content-based local culture and art policy that consider four aspects of digital, human, green, and inter were suggested. Above all,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local cultural environment, creators and enjoyers, contents of local culture and art are three important factors to vitalize local culture and art, not only before but after COVID-19.

**Key words**

COVID-19, Regional Arts and Culture, Digital-based, Human-based, Green-based

논문 투고일	2020. 10. 18
논문 심사일	2020. 11. 06
게재 확정일	2020. 11. 06



# 미국의 직업교육과 사회이동에 관한 종합적 고찰

–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VET)

프로그램 효과와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수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국 내 직업교육과 사회이동성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고찰하여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미국 사회 맥락에서 직업교육의 기능과 한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정리하고, 직업교육과 사회이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미국 교육통계청(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의 대규모 교육자료인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1972(NLS-72), High School and Beyond (HSB),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urvey of 1988 (NELS: 88),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NLSY)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Adult Competencies(PIAAC)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VET) 프로그램 효과를 실증한 연구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탐색하였다. 아울러 직업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미국 내 직업교육훈련(VET)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결론에 제시하였다.

**주제어** 직업교육, 사회이동, 미국, 프로그램 효과, 정책 사례

\*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9년 연구과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연구임.

\*\* 강릉원주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며

19세기 미국의 공교육제도 수립을 주창한 호레이스 만(Horace Mann)은 ‘위대한 평등 장치(great equalizer)’로써 학교교육(schooling)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이후 반세기 동안 그의 교육사상이 미국 전역에 전파되어 20세기 초 현재와 같은 교육제도가 정립되었으며, 교육의 보편화가 평등사회를 촉진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이 굳건히 자리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의 학교교육은 별도의 직업교육 트랙을 두는 것이 아닌 모든 학생이 대학교육까지 진학할 수 있는 종합교육체제(comprehensive system)를 따른다. 다시 말해 미국의 교육제도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과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음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 가능한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Brint, 2006).

사실 산업사회 발전과 함께 학교교육은 능력과 소질을 파악하여 개인을 사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중등교육 과정 내 학업성취 결과에 따라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교육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돕는 직업교육으로 계열(tracking)이 분화되는 것은 범국가적으로 포착되는 교육제도의 특징 중 하나이다(Benavot et al., 2007; UNESCO, 2011, 2014, 2016). 계열분리의 정도에 따라 각국의 교육체제를 구별하는 개념 틀에 따르면 미국의 교육체제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계열분화가 뚜렷하지 않은 종합교육체제로 정의된다(Bol & Van de Werfhorst, 2013; Brint, 2006). 반대로 계열분리가 엄격한 이중교육체제(dual education systems)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종합교육체제는 개방성과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기대 또한 사회적으로 높게 형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군의 학자들은 계열별 분리와 조기선발이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키며(Benavot et al., 2007; Bol & Van de Werfhorst, 2013; Bol et al., 2014), 이중교육체제(dual education systems) 속에서 교육 불평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담론을 제시한다(Brunello & Checchi, 2007). 이중교육체제는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Bol & Van de Werfhorst, 2013).

하지만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구사회의 교육과 사회이동의 관계를 조망한 연구들은 종합교육체제가 사회이동의 개방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Holtmann, 2016; Lipset & Bendix, 1991; Shavit & Müller, 2000). 최근 OECD가 제공한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Adult

Competencies, PIAAC) 자료를 활용하여 직업교육 이수와 인지적 역량의 관계를 탐색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직업교육은 학력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있으며, 대졸자의 경우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업교육의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Brunello & Rocco, 2015). 사회이동성의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국가 수준 대규모 교육자료가 수집되어 직업교육의 참여와 그 성과를 통시적 접근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보고되는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보다 미국 사회 내 직업교육의 효과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취약계층의 직업교육 참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Dalton, 2015; Levesque et al., 2008).

전술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미국의 직업교육과 사회이동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둔다. 특히 1980년대부터 국가수준의 대규모 중등교육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의 참여와 성과에 대한 풍부한 학술 및 정책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직업교육과 사회이동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교육팽창을 이뤄낸 한국 사회에서 직업교육이 사회적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일반교육의 효과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1963년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주도의 실업교육 진흥 정책이 추진되며 2020년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인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인 한국의 교육체제 발전경로를 고려해봤을 때, 미국의 직업교육과 사회이동에 관한 종합적 고찰은 다음과 같은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먼저 이러한 시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열망이 크고 대학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이른 한국 사회에서 직업교육의 역할과 한계를 선형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략 40년 동안 미국 내 지위획득 관련 직업교육의 효과를 탐색한 실증연구를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다. 나아가 직업교육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해온 미국의 정책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 II. 직업교육에 대한 이론적 이해

### 1. 직업교육의 기능에 대한 설명

구조적 관점에서 직업교육을 미국 사회 내 체제로서 그 역할에 대한 선형적 이해를 주창한 학자는 파슨스(Parsons, 1961)이다. 구조기능론자인 파슨스에 따르면 분업화와 전문화로 점철된 현대 사회에서 ‘역할 사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서 역할 사회화는 뒤르켐이 정의한 특수 사회화 즉 특수한 직업 환경이 요구하는 사회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은 역할 사회화를 제공하는 장(field)으로서 역할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봉건제도의 쇠퇴와 함께 산업사회는 개인의 출신배경과 관계없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발하여 사회적 지위가 분배되는 구조가 학교교육을 통해 작동된다. 파슨스는 자본주의 미국 사회 내 학교교육이 사회적 선발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중등교육 단계에서 분화된 형태의 교육(differentiated form of education)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학교의 선발기능은 현대 사회의 성취지향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서 학업성취를 개인의 업적으로 간주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 신념이 기저에 자리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능력을 판별하는 시험제도는 업적주의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평가로서 학교교육에 따른 사회이동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파슨스와 유사한 기능론적 관점에서 호퍼(Hopper, 1968)는 학교의 선발기능이 사회이동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선발시기에 따라 계층별 사회이동의 열망이 다르게 형성되는데, 조기선발인 경우 상대적으로 가정 내 문화적 교육적 자원이 부족한 취약 계층의 상승열망을 증폭시키기 어려운 반면 만기선발인 경우 취약계층 또한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상승열망이 가열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사회구조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좀 더 깊게 탐색해보면, 소수정예 인원을 선발하여 엘리트지향 교육을 추구하는 체제에서는 후원이동(sponsored mobility)을 통해 중상류계층의 상승열망이 지속되기 쉬운 반면 평등주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경쟁이동(contest mobility)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상승이동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신념을 견지한다. 호퍼에 따르면 미국은 경쟁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만기선발을 통해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열망을 모든 계층에게 심어주는 교육체제를 운영한다.

이처럼 종합교육체제(comprehensive education system)를 따르는 미국에서 학생들

은 대학진학까지 공정경쟁을 거치며 교육과정 또한 직업훈련 보다 일반교육에 방점을 둔다. 중등교육 과정 내 계열분류가 뚜렷하지 않으며 대학진학에 대한 열망이 보편적으로 높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학력은 사회이동의 핵심기제로서 교육을 개인의 업적으로 여기는 기능론적 관점이 비교적 확고하다(Allmendinger, 1989; Blau & Duncan, 1967). 그 결과 사회이동과 직업교육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통적으로 높지 않을 뿐더러 대학 교육을 통한 상향이동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직업교육은 대학이나 일반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도제 혹은 이중 교육시스템(dual system of schools and apprenticeships)이 작동 중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가나 기업의 제도적 관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보고된다(OECD, 2010). 다시 말해 직업교육 및 훈련의 참여 동기가 사회제도적으로 형성되기보다 인적자원개발의 경제적 접근에서 구조화되기 쉽다.

전술한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은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의 틀 안에서 그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적자본론은 노동시장에서 교육 및 훈련의 영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재단하는 개념으로서 인간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체득하는 지식, 기술, 창의력이 노동의 생산성과 질을 제고시킨다는 입장이다(Schultz, 1961). 직무역량을 높이는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즉 고용상태나 임금 또한 향상된다는 것이 바로 인적자본론의 주요 골자이다(Becker, 1975; Bishop, 1989). 인적자본론은 직업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함께 교육수준과 차이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라본다. 이는 계열별 교육결과에 따른 인력배치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주창한 기능론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동시에 학업적 혹은 직업적 역량을 일종의 기능의 차이로 간주한다(Shavit & Müller, 2000).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은 개인의 적성과 역량의 차이에 기인하며 우열이 없을뿐더러 계열별 교육에 따른 지위격차 또한 기능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보상체제의 결과로 이해된다.

## 2. 직업교육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

갈등주의 시각에서 학교교육은 ‘위대한 평등장치’라는 제도적 정당성(legitimacy)을 근간으로 재생산의 기능을 은폐한다(Bourdieu, 1977; Bowles & Gintis 1976). 특히 Bowles & Gintis (1976)는 ‘자본주의 미국의 학교교육(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에서 파슨스의 입장을 전면으로 비판하며 산업사회 속 미국의 학교가 인재를

공정하게 선별하여 사회에 배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자본의 요구에 구조적으로 상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교가 위계적인 분업구조에 맞게 ‘단순 노동자’와 ‘관리자 및 경영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제공하며 이는 곧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재생산과 연결됨을 주장한다. 학교를 계열에 따라 구분하고 지식을 과목별로 나누어 가르치는 것 또한 자본주의 분업화 양상과 상응하는 것으로 경제구조 재생산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는 계급 불평등을 존속시키고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며 능력주의 교육관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재생산론(reproduction theory)에 근거하여 교육의 수평적 불평등 문제에 천착하는 연구들은 가정배경에 따라 계열선택이 다르고 계열별 교육에 따라 지위획득에도 격차가 엄존함을 지적한다(Benavot, 1983; Müller & Jacob, 2008; Shavit & Müller, 2000; Schührer, Carbonaro, & Grodsky, 2016).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은 학업성취가 낮은 열악한 가정배경의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사회 불평등을 존속시키는 합리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별 교육은 정보와 기술의 끝없는 발전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면서 세분화된 직업기술 습득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제도화 되었다(Bol & Van de Werfhorst, 2013). 특히 교육체제 내 중등과정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지적 역량과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로 다수의 선진국에서 계열별 교육은 정도와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목도된다(Benavot et al., 2007; Bol & Van de Werfhorst, 2013; Brunello & Checchi, 2007).

이에 각국의 교육체제에 따라 계열별 교육이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 특히 종합교육 체제를 따르는 미국의 경우 학교 간 계열분리(between school tracking)가 아닌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수업 선택의 차이(different course-taking pattern)가 뚜렷한 편이다(Allmendinger, 1989; Bulle, 2011; Breen & Buchmann, 2002). 비교적 엄격한 계열분리를 통해 직업별 기술 교육에 방점을 두는 이중교육 체제와 다르게 종합교육체제에서 일반교육의 기회는 구조적으로 제약이 덜하다. 무엇보다 종합교육 체제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업기술에 비해 일반교육의 학위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며, 직업교육 이수자 학업적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낙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Breen & Buchmann, 2002). 이에 미국 내 종합교육 개혁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의무화하였지만, 이는 전통적인 직업기술 및 지식 습득 보다 학문적 지식습득과의 통합을 요구한다(Castellano, Stringfield & Stone, 2003).

계열별 교육과 사회 이동성의 관계를 교육 체제 내에서 조망한 학술적 논의는 계열 간 수직적 차별화가 엄격할수록 사회계급 간 불평등을 영속화시킨다고 지적한다(Benavot



et al., 2007; Bol & Van de Werforst, 2013; Bol et al., 2014). 계열분리가 뚜렷한 제도 하에서 학생은 학업적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Brunello & Checchi, 2007). 이러한 계열별 분리 교육은 특권층이 학문 중심 교육의 접근을 암묵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줄인다(Bol & Van de Werforst, 2013). 요컨대 조기선발과 이중교육 체제가 불평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위스, 일본, 덴마크, 이탈리아 등 9개의 산업사회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Lipset & Bendix (1991)는 종합교육체제의 미국 사회가 이중 교육체제의 유럽 사회보다 사회이동의 개방성이 더 보장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Shavit & Müller (2000)는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미국 13개국에서 직업교육이 실업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에는 유효하지만 동시에 직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비숙련 직종에 종사하기 쉬움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직업교육의 혜택이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세분화된 직업기술 훈련을 제도화한 국가에서 뚜렷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00-2012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35개국을 대상으로 교육체제가 인지적 역량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Holtmann(2016)은 보다 사회통합적인 체제 하에서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를 거두기 쉬운 반면 유복한 환경의 학생들은 체제와 관계없이 성취 수준이 높음을 밝혔다. 전술한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이중체제와 종합체제에서 모두 사회적 배경에 따라 학교가 분리되는 환경이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에 주목하며 학교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상술한 국제비교연구들은 실증 데이터에 기반하여 국가별 교육체제에 따라 직업교육과 지위획득의 관계 또한 상이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시사한다. 교육의 수평적 불평등을 경험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은 교육체제와 사회 불평등에 대한 선험적 논의와 다르게 종합교육체제에서 목도되는 교육과정 이수 차이에 주목한다(Blossfeld et al., 2016; Schiller & Muller, 2003; Schiller et al., 2010). 이러한 학술적 담론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미국 내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지위획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례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 Ⅲ. 미국의 직업교육과 지위획득에 대한 실증연구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직업교육은 종합교육 체제 내 별도의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 이에 직업교육의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연구들은 프로그램 참여와 이후 노동 시장 성과의 관계를 탐색한다. 이어지는 소절에서는 분석결과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수준 및 국제데이터를 활용하여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행된 주요 연구결과를 통시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논문목록집인 Educational Resource Information Center(ERIC)의 Thesaurus of ERIC Descriptors, CIJE(Current Index to Journals in Education), RIE(Resource in Education)과 Google Scholar를 활용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미국의 직업교육과 지위획득의 관계를 탐색한 실증연구이며, 문헌 선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동료평가가 된 학술지(peer review journal)와 미국 교육통계센터(NCES)가 발행한 보고서를 위주로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에 포함된 문헌들은 198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증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의 직업교육 효과를 탐색한 연구물들 중에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의 검색 및 선정은 총 3차례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진로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임금(income), 노동시장(labour market),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역량(skill),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 사회이동(social mobility)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1차 검색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검색엔진에서 도출되는 동일한 문헌을 배제하고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직업교육과 지위획득의 관계를 조망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을 검토하여 지위획득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임금, 취업률, 학력, 인지적 역량에 대한 직업교육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접근에 따른 문헌고찰은 방대한 문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결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일컬어진다(Petticrew & Roberts, 2008).

#### 1. 1980년대

미국 교육통계청(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에서 처음으로 제공한 대규모 교육데이터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1972(NLS-72)를 활용한 주요 연구는 중등교육 기간 직업교육 관련 수업 이수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Meyer(1982)는 직업교육 수업 개수를 연속변수로 삼고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였는데, 특정 분야에서 미미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재학기간 사무직종의 훈련을 받은 여성들은 졸업 후 7년 동안 13% 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 및 산업 관련 직업교육을 받은 남성의 경우 2.8% 정도 높은 임금을 받았다. 한편 Rumberger & Daymont(1984)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이수 이수가 고용 가능성과 임금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며, 실업 기간을 줄이는 데에도 작지만 실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직업교육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Meyer & Wise,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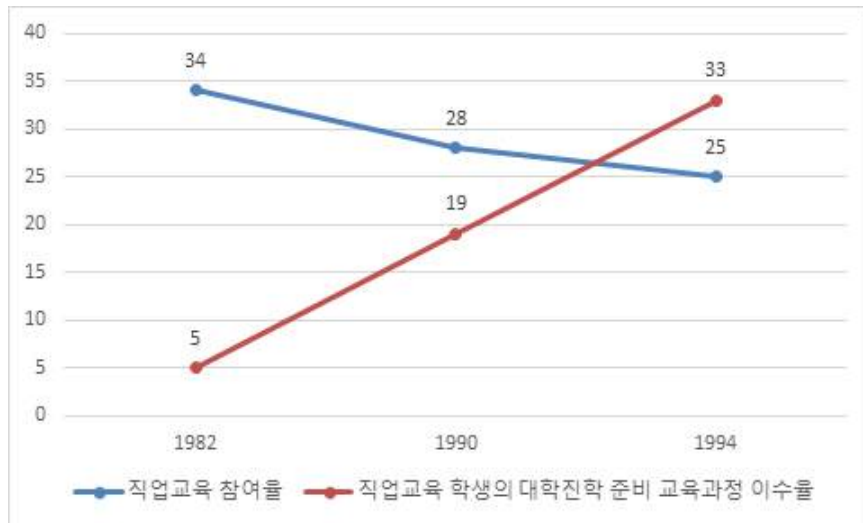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1979년 14세-22세 청소년들 대상으로 수행한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NLSY) 또한 중단적 접근을 통해 초기 교육단계에서 이수한 직업교육과 지위획득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다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Rumberger & Daymont(1984)는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 이수가 직업교육에 집중된 졸업생의 경우 고용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3%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직업교육에 따른 임금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ampbell & Basinger(1985)에 따르면 후기중등교육 기간 동안 이수한 직업교육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등 이후의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단계에서도 직업교육의 효과는 동일한 직종에서 뚜렷하게 포착되었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직업교육은 백인 여성에 대한 노동력 참여의 증가를 담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인구통계학적 집단에 대해서는 직업 교육과 고용 안정 사이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 2. 1990년대

미국 교육통계청(NCES)에서 두 번째로 수행한 High School and Beyond (HSB)조사는 NLS-72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교육종단 연구로서 청소년들의 교육, 직업, 그리고 개인적 개발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전국 단위의 대표성을 충족하는 HSB 자료 분석을 토대로 다음의 연구들은 미국 내 직업교육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먼저 Hotchkiss(1993)는 직종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고등학교 재학 시 직업훈련 수업을 이수한 경우 졸업 직후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쉽다고 밝혔다. 다만 직종을 통제한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이러한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직종별 효과는 Arum &

Shavit (1995)에 의해서도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전문직 및 관리직의 직업지위를 획득하는 데 고등학교 과정 내 직업교육 수업 이수가 부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등학교의 직업훈련 관련 수업 이수는 실업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학진학의 의사가 없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은 어느 정도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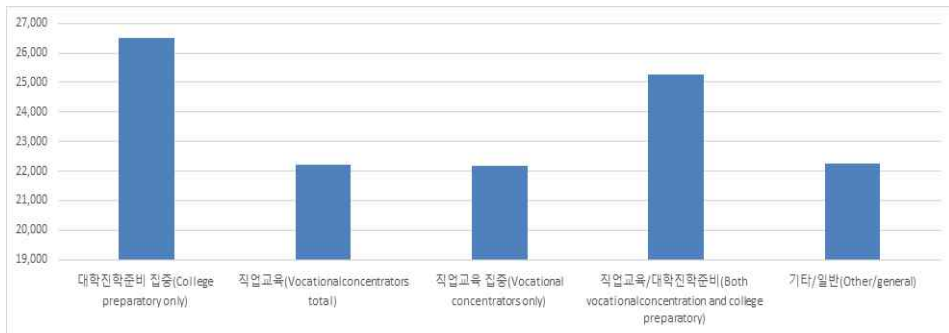
HSB 이후 미국 교육통계센터에서 세 번째로 수행한 전국 단위의 교육종단연구는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urvey of 1988(NELS:88)이다. Mane(1998)은 HSB와 NELS:88을 활용하여 미국 고졸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노동시장의 성과 추이를 다음과 같이 비교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1972년, 1980년, 1992년 고졸 코호트의 일반 및 직업 과목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1972년과 1980년 사이에 직업교육의 임금효과가 단기 및 중기적 수준으로 증가하여 1992년에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미국 고졸자의 일반교육 수업 이수는 직업교육 수업이수 보다 노동시장에서 받는 경제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주들이 일반교육 이수자들을 선호할 것이란 통념과 상반되는 것으로 대학진학의 계획이 없는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기술 훈련을 이수하는 편이 노동시장에서 나은 성과를 거두는 데 유리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 1982~1994년 직업교육 참여와 직업교육 학생의 대학진학 준비 경향<sup>1)</sup>

1) 출처: Levesque et al. (2000).

미국 교육통계센터(NCES)는 기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Vocation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1969-1990 (Hoachlander, Kaufman, & Levesque 1992)를 시작으로 하여 Vocation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Early 1990s (Levesque et al., 1995)과 Vocation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oward the Year 2000 (Levesque et al., 2000)을 각각 1992년, 1995년 그리고 2000년에 발행하였다. 2000년에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90년대 직업교육 참여와 성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미국 고등학생의 직업교육 참여율은 1982~1994년 감소추세였으나, 직업교육에 참여한 미국 고등학생이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비율은 1982~1994년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되었다(그림 1 참조). 아울러 고등학교 재학 시 직업교육에 집중(vocational concentrators only)한 집단과 대학진학준비에 집중(college preparatory only)한 집단의 졸업 후 10년 내 임금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아래 [그림 2] 참조).



[그림 2] 1982년 고졸 성인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1991년 연봉(미 달러)<sup>2)</sup>

### 3. 2000년대

미국 교육통계센터(NCES)가 2008년 발행한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1990 to 2005’는 생애발달 주기를 고려하여 중등, 중등이후 교육 및 성인 교육 단계를 아우르는 진로기술교육(Career Technical Education, CTE)에 초점을 두고 직업교육 참여실태와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Levesque et al., 2008). 이 보고서는 1990년~2005년에 이룬 진로기술교육의 현황과 효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2002년 진로기술교육 전담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진로기술교육 전담고등학교(full-time CTE high school)는

2) 출처: Levesque et al. (2000).

무료급식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학생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관측된 반면에 일반 종합학교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포착되었다(아래 <표 1> 참조). 이러한 결과는 열악한 가정배경의 학생들이 진로기술교육 전담학교에 주로 재학 중임을 시사한다.

<표 1> 학교별 무료급식 대상학생 비율

무료급식 대상학생 비율	전체	진로기술교육 전담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진로기술교육제공)	종합고등학교 (진로기술교육제공안함)
0-10%	20.2%	15.9	25.4	16.2
11-30%	38.8%	22.6	38.5	40.8
31-50%	21.6%	52.1	18.6	20.9
50% 이상	19.4%	9.4	17.5	22.1

출처: Levesque et al., (2008)

한편 주요과목 수업 이수와 관련하여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직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한 학생과 전혀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격차는 차츰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표 2><sup>3)</sup>). 이러한 배경에는 [그림 1]에서 살펴봤듯이, 직업교육 이수 학생들의 대학진학 준비 경향이 뚜렷한 것과는 무관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 주요과목 수업 이수 격차

주요 일반교과목(Core academic subject)	1990	2000	2005
전체(Core academics, total)	2.44	1.43	1.21
영어(English, total)	0.31	0.18	0.15
수학(Math, total)	0.67	0.41	0.31
과학(Science, total)	0.95	0.59	0.57
사회(Social studies, total)	0.51	0.24	0.18

출처: Levesque et al.(2008)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 1992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재학 기간 더 많은 직업교육을 수강한 경우 2000년 정규직에 종사하기 쉬우며(<표 3>),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게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 재학 시 직업교육 수업 이수학점과 1999년 남성 정규직 종사자 임금의 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같은 코호트의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직업교육 수업을 더 많이 이수할수록 임금이 낮게 나타났다(<표

3) 격차는 직업교육집중 졸업생(이수학점이 최소 4학점 이상)과 직업교육 수업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주요 일반교과목 이수 학점(credits)의 평균 차이로 추정됨(Levesque et al., 2008).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미국사회 내 직업교육 혜택에도 성별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상당함을 시사한다.

〈표 3〉 1992년 고졸 성인의 2000년 고용률(%)

고등학교 재학시 직업교육 과목 이수	전체		남성		여성	
	정규직 (Full-time)	비정규직 (Part-time)	정규직 (Full-time)	비정규직 (Part-time)	정규직 (Full-time)	비정규직 (Part-time)
없음	76.4	17.2	76.7	21.2	76.2	14.5
0.01-1.99 학점	77.9	19.6	85.9	16.8	71.8	21.8
2.00-3.99 학점	80.3	18.6	85.1	14.6	75.4	22.8
4 학점 이상	84.8	13.9	91.8	12.9	75.2	15.4
모든 고졸자	80.4	17.6	86.9	15.1	74.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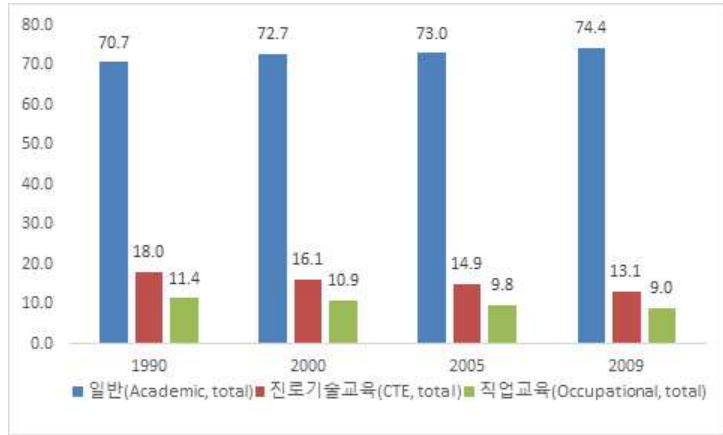
출처: Levesque et al., (2008)

〈표 4〉 1992년 고졸 성인의 1999년 연봉

고등학교 재학시 직업교육 과목 이수	남성		여성	
	정규직 (Full-time)	비정규직 (Part-time)	정규직 (Full-time)	비정규직 (Part-time)
없음	\$32,400	\$16,700	\$ 27,000	\$ 18,100
0.01-1.99 학점	\$30,700	\$19,300	\$ 26,000	\$ 18,700
2.00-3.99 학점	\$31,500	\$20,900	\$25,000	\$16,600
4 학점 이상	\$33,000	\$27,200	\$22,100	\$17,600
모든 고졸자	\$31,800	\$21,700	\$ 24,900	\$17,700

출처: Levesque et al., (2008)

2000년 중반 이후 진로기술교육 참여와 성과 관련 주요 실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0년 이후 2009년까지 중등교육 과정 내 진로기술 및 직업교육 참여 추이를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반면 직업교육에 참여한 2004년 고졸자의 경우 1992년 고졸자와 비교했을 때, 중등이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에 등록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학위를 취득하는 비율은 낮았다(아래 <표 5> 참조).



[그림 3] 중등교육 과정 내 진로기술 및 직업교육 참여 추이<sup>4)</sup>

<표 5> 1992년과 2004년 공립 고등학교 졸업생의 직업교육 이수에 따른 학위 취득률

(기준연도 2000년/2012년)

고등학교 재학 시 직업교육 과목 이수	중등이후 교육학위(post-secondary credential)					
	등록한 적 있음		준학사(Certificate or associate's degree)		학사이상(Bachelor's or higher degree)	
	92년 졸업생 (2000년)	04년 졸업생 (2012년)	92년 졸업생 (2000년)	04년 졸업생 (2012년)	92년 졸업생 (2000년)	04년 졸업생 (2012년)
없음	92.0%	94.4%	6.7%	12.2%	66.1%	50.4%
0.01-1.99 학점	89.5%	90.2%	11.0%	19.0%	54.1%	41.4%
2.00-3.99 학점	85.5%	90.9%	17.0%	20.7%	44.2%	36.1%
4 학점 이상	70.3%	82.8%	22.0%	23.6%	25.4%	25.1%
모든 고졸자	83.2%	89.3%	15.0%	19.6%	45.7%	37.3%

출처: 미국 교육통계센터(<https://nces.ed.gov/>) 2019. 5. 30 인출

전술한 학력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에 참여한 고졸자의 노동시장 성과는 코호트에 따라 다소 다르게 파악되었다. 아래 <표 6>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남성의 경우 1992년 고졸자의 직업교육 이수학점이 높을수록 2000년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코호트(2004년)에서 이러한 양상은 관측되지 않았다. 여성 코호트의 경우 2000년과 2012년 모두 정규직 취업과 고등학교 재학 시 직업교육 이수학점의 관계는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겪고 있는 경제침체 상황(Great Recession)으로 노동시장 여건 자체가 악화된 까닭에 직

4) 출처: 미국 교육통계센터(<https://nces.ed.gov/>) 2019. 5. 30 인출.



업교육의 효과가 이전 세대에 비해 뚜렷하지 않음을 논의한 담론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Dalton, 2015).

〈표 6〉 1992년과 2004년 공립 고등학교 졸업생의 직업교육 이수에 따른 취업률

(기준연도 2000년/2012년)

고등학교 재학 시 직업교육 과목 이수	정규직 취업(Employed full time)			
	남성		여성	
	92년 졸업생 (2000년)	04년 졸업생 (2012년)	92년 졸업생 (2000년)	04년 졸업생 (2012년)
없음	86.9%	76.6%	74.1%	63.8%
0.01-1.99 학점	76.7%	75.6%	76.2%	64.4%
2.00-3.99 학점	85.9%	75.0%	71.8%	64.2%
4 학점 이상	85.1%	74.5%	75.4%	63.9%
모든 고졸자	91.8%	81.1%	75.2%	62.2%

출처: 미국 교육통계센터(<https://nces.ed.gov/>) 2019. 5. 30 인출

#### 4. 국제비교 동향

최근 미국의 직업교육과 사회이동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국제비교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히 탐색되는 중이다. 먼저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Adult Competencies, PIAAC) 자료는 24개국 성인의 기초역량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결과와 함께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OECD, 2015). 이처럼 직업교육과 지위획득의 관련성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실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여러 OECD 국가에서 직업교육의 효과를 다양하게 규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Brunello & Rocco (2015)는 PIAAC 데이터를 활용하여 OECD 국가 간 단계별(중등/고등) 직업교육이 성인의 인지적 역량(literacy&numeracy), 역량 활용(use of skills), 노동시장 성과(임금, 취업 여부, 니트족 유입, 근속 기간, 직업 만족도), 직업훈련 참여 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먼저 직업교육 체제에 대한 비교분석에 있어 전술한 연구는 1) 커리큘럼 사이의 차별화 유형, 2) 학교 커리큘럼을 직업(vocational) 및 일반(academic)교육으로 구분하는 시기, 3) 직업교육 학습의 기간, 4) 직업교육 학교에 등록하는 학생의 비율에 따라 국가 간 차이가 크다고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직업계 학교와 일반계 학교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직업교육은 종합고등학교, 중등이후 교육, 대학교육에서 진로기술교육(CTE)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연구는 각국의 교육체제를 비교하기 위해 고안된 UNESCO의 국제표준 교육 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를 활용하여 후기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ISCED 3, 4) 단계와 대학교육(ISCED 5) 단계에서 제공되는 직업교육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실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성향점수 매칭방법을 활용하여 OECD 국가의 직업교육 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적 역량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직업교육(vocational program)을 이수한 성인(25-64세)의 PIAAC 수리력 평가 평균 점수는 일반교육(academic program) 이수 성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7> 참조). 인지적 역량에 대한 직업교육의 정적인 효과가 남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포착된 사례는 미국의 후기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ISCED 3, 4)에서만 확인되었다. 미국 성인 남성의 수리력 평균점수는 후기중등 및 중등교육 단계(ISCED 3, 4)에서 직업교육을 이

〈표 7〉 PIAAC 수리력 점수에 대한 직업교육 효과

	ISCED 3-4		ISCED 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Australia	-0.061***	-0.021	-0.082***	-0.084***
Australia	-	-	-0.060***	-0.072***
Canada	0.021***	0.004	-	-
Czech Republic	-0.081***	-0.069***	-	-
Estonia	-0.031***	-0.017**	-0.097***	-0.072***
Finland	-0.063**	-0.069***	-0.034***	-0.076***
France	-0.103***	-0.100***	-0.029**	-0.049***
UK	-0.040***	-0.050***	-0.074***	-0.080***
Germany	-	-	-0.080***	-0.065***
Ireland	-0.015	-0.014	-0.065***	-0.072***
Japan	0.013	-0.002	-0.069***	-0.088***
Korea	-0.001	0.014	-0.062***	-0.052***
Netherlands	-0.044*	-0.099***	-0.057***	-0.029*
Norway	-0.048***	-0.065***	-0.057**	0.001
Poland	-0.039	-0.032***	-	-
Spain	-0.092***	-0.018	-0.078***	-0.076***
US	0.066***	0.024*	-0.074***	-0.094***

출처: Brunello & Rocco (2015)

수한 집단이 일반교육을 이수한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7> 참조). 이러한 경향성은 여성에게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표 7> 참조). 하지만 미국 또한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육(ISCED 5)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성인의 수리력 평가 평균점수는 일반교육을 받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전술한 미국 성인의 직업교육 효과는 노동시장 성과에도 유사하게 포착되었다. 교육 단계별 직업교육에 따른 시간당 임금 차이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우 후기 중등 및 중등 이후 교육(ISCED 3, 4) 단계와 대학 교육(ISCED 5) 단계에서 직업교육의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수리력 격차와 마찬가지로 후기 중등 및 중등이후 교육(ISCED 3, 4) 단계에서 직업교육은 성인 남성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에 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만, 고등교육 단계(ISCED 5)에서 직업교육의 효과는 부적으로 확인된다(<표 8> 참조).

<표 8> 시간당 임금에 대한 직업교육 효과

	ISCED 3-4		ISCED 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Australia	-0.004	-0.111***	-0.215***	-0.208**
Austria	-	-	-0.110**	-0.163**
Canada	0.083***	0.059*	-	-
Germany	-	-	-0.129***	-0.247***
USA	0.230***	0.160*	-0.232***	-0.296***
Czech	-0.158	-0.066	-	-
Estonia	0.018	-0.042	-0.253***	-0.276**
Finland	-0.012	-0.079*	-0.203***	-0.213***
France	-0.068**	-0.145***	-0.171***	-0.126***
UK	0	-0.185***	-0.248***	-0.193***
Ireland	-0.033	0.033	-0.260***	-0.334***
Japan	-0.015	-0.024	-0.223***	-0.329***
Korea	-0.032	0.121*	-0.134***	-0.216***
Netherlands	-0.147**	-0.02	-0.126	-0.108**
Norway	-0.063**	-0.046*	-0.072*	-0.023
Poland	-0.017	-0.012	-	-
Spain	-0.180**	-0.053	-0.24	-0.359***

출처: Brunello & Rocco (2015)

이와 같은 실증결과는 앞서 살펴본 미국 중학교육 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후기중등교육 과정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미국 성인층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고등학교 재학 시 직업교육을 이수한 동일 연령층에 비해 일반교육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보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지적 역량이나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대학 교육단계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교양 교육보다 특정 직업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집중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다른 국가의 직업교육 이수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적 역량이나 시간당 임금이 낮게 관측되는 것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다.

정리해보면 PIAAC에 참여한 국가에서 25-64세 성인의 계열에 따른 인지적 역량과 임금의 격차는 실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산론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이 직업교육이 지위획득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후기중등교육과 중등이후 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성인의 인지적 역량이나 임금 수준이 일반교육을 이수한 성인에 비해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곧 미국의 종합교육체제가 적어도 고졸 집단의 역량습득 및 노동시장 성과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유효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실증연구의 결과는 직업교육을 진로기술교육(Career-Technical Education, CTE)으로 그 저변을 확대한 미국의 교육정책 기조와 함께 생각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기존의 직업교육 대신 진로기술교육으로 명칭을 바꾸고 제도 내에서 진로기술교육을 확대 시행하며 직업교육에 대한 담론의 변화를 꾀하는 중이다. Gewertz (2019)는 최근 미국 내 진로기술교육(CTE)을 받는 학생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미국 내 뿌리 깊게 자리한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직업교육이 진로기술교육(CTE)으로 외연을 확장한 미국 내 직업교육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적 개입이 사회이동에 주는 함의를 결론에서 논의하겠다.

## IV. 미국 내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VET) 정책 사례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헌법을 확정하며 연방제(Federal system)에 근거한 국가 시스템을 정립하였다. 미국의 연방제는 각 주가 독자

적 헌법과 삼권분립체제 등 완전한 정부형태를 갖추며 연방정부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주정부의 독자적 권력을 허용한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 또한 이와 같은 연방제 안에서 연방 교육부와 주 교육부가 모든 교육을 광범위하게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연방 교육부는 국가의 교육정책 기반을 법안으로 상정하고 주 교육부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주 교육부는 주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주 고유의 교육 법안을 제정할 수도 있다. 미국의 교육시스템은 철저한 지방분권주의에 따라 주 교육부는 관할 지역 학교의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주 단위의 교육정책을 시행을 관리하지만, 교육행정의 많은 부분은 지방교육당국에 위임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교육시스템 안에서 미국의 직업교육 관련 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내에서 매우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개별 주정부의 교육정책 권한이 상당하며 진로기술교육(Career Technical Education, CTE) 시스템이 주 단위로 제공되는 까닭에 프로그램 간 편차도 적지 않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로기술교육(CTE) 정책은 다음과 같이 발전을 거듭하였다.

먼저 연방 정부에서 1984년 상정된 칼 퍼킨스 직업 및 기술교육 법(Carl D. Perki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ct)은 미국의 대표적인 직업교육 정책이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었던 퍼킨스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직업교육의 질을 제도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에 근거하여 법안을 입안하였으며, 퍼킨스법은 1990년, 1998년, 2006년, 2018년에 개정이 되었다. 2018년 7월에 다섯 번째 개정된 ‘21세기 진로기술교육 강화 법안(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Perkins V Act)’은 양질의 진로기술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를 추구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9).

이러한 당위성을 근거로 연방 교육부는 중등교육과 중등이후 교육단계에서 퍼킨스법 시행에 따른 진로기술교육 프로그램 성과를 다음의 핵심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결과를 공표한다(그림 4 참조). 가장 최근 2018년에 발행된 보고서는 2014-15년 성과를 기술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 주에서 진로기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숫자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소폭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수준에서 진로기술교육 수업을 집중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록한 분야는 예술(arts), 시청각 기술(audio-visual technology), 경영 및 관리(business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와 건강과학(health science)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등교육 이후 교육 단계에서 가장 많이 등록한 진로기술교육 수업은 건강과학(health science), 경영 및 관리(business

<i>Perkins IV Sec. 113(b)(2)(A)</i> Secondary core indicators	<i>Perkins IV Sec. 113(b)(2)(B)</i> Postsecondary core indicators
Academic attainment—reading/language arts	Technical skill attainment
Academic attainment—mathematics	Credential, certificate, or degree
Technical skill attainment	Student retention or transfer
Secondary school completion	Student placement
Student graduation rates	Nontraditional participation
Secondary placement	Nontraditional completion
Nontraditional participation	
Nontraditional comple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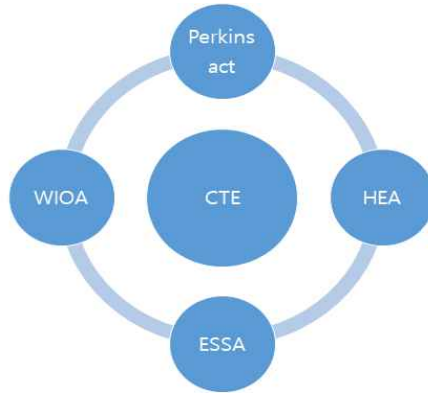
[그림 4] 진로기술교육 프로그램 성과 핵심지표

출처: 미국 연방 교육부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와 법률과 공공안전 및 보안(law, public safety, and security)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례 보고서 이외에도 미 연방 교육부는 'Perkins Collaborative Resource Network(PCRN)'라는 온라인 플랫폼(<https://cte.ed.gov/>)을 통해 진로기술교육 관련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공개한다. 이 플랫폼 안에는 인과관계 추정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직업기술교육의 효과를 더욱 엄밀히 규명하는 CTE Research Network가 구축돼 있다. 현재까지 4개의 연구팀에서 유사실험설계(a quasi-experimental design)에 따라 뉴욕시, 코네티컷주, 노스캐롤리나주의 진로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실행 중이다. 상술한 연구 네트워크는 퍼킨스 법안에 의거한 진로기술 교육정책의 현황 및 실태를 넘어 제도적 개입의 효과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며 4개의 연구 중 가장 빠르게 종료되는 시기인 2020년 이후부터 실증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진로기술교육 시스템의 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적 연대로 Advance CTE의 사례를 들 수 있다. Advance CTE는 앞서 살펴본 PCRN과 다르게 주 정부의 진로기술 교육 책임자끼리 모여 상향식(bottom-up) 접근을 통해 국가 진로기술교육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 멤버십에 근거한 플랫폼을 제공한다(<https://careertech.org/who-we-are>). 하지만 Advance CTE에서 관심을 두는 제도적 의제는 Advance CTE's Federal Policy Agenda로서 연방교육 정책 간 상호보완성에 방점을 둔다([그림 5] 참조).

진로기술교육(CTE)은 교육, 노동력과 경제개발 사업 및 프로그램들 간 제도적 연계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퍼킨스의 진로기술교육법과 함께 Advance CTE's Federal Policy Agenda는 모든 학생 성공 법안(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고등교육 법안(Higher Education Act, HEA)과 인력 혁신과 기회 법안(Workforce Innovation and



[그림 5] Advance CTE’s Federal Policy Agenda(출처: Advance CTE)

Opportunity Act, WIOA)의 정책을 토대로 진로기술교육의 제도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에 Advance CTE는 양질의 진로기술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학습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발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진로기술교육 커뮤니티에게 법안의 내용을 공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퍼킨스의 진로기술교육법 이외에 Advance CTE’s Federal Policy Agenda에 해당하는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학생 성공 법안(ESSA)은 1965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안(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의 2015년 개정법이다. 변경된 법안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ESSA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K-12)의 교육을 국가에서 보조하고 교육 접근의 평등성과 책무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ESSA는 각 주에서 진로기술 교육(CTE)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전인교육(well-rounded education)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특히 이 법안은 진로기술 교육과 직업준비도(career readiness) 성과 측정을 주의 책무성 체제 안으로 포함시킬 정책적 필요성에 주목한다. 동시에 ESSA는 주정부가 진로기술 교육(CTE), 인력개발과 고등교육 사이의 서비스를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강조한다. 2017년 발행된 ‘Advance CTE and Education Strategy’ 보고서에 따르면 49개의 주정부에서 ESSA 실행 계획안에 직업 준비도를 향상시키려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책무성(accountability)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5개 주정부에서 고등학교 책무성 평가 체제 내 직업에 초점을 맞춘 지표를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 7개 주정부는 공적 보고체계(public reporting system)에서 평가지표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책무성을 위한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36개 주정부는 이러한 계획안에 전인교육을 강조하며 연방재정 지원이 진로기술 교육과 직업 준비도 향상을 도모하는 데 활용될 것임을 명문화하였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HEA)이다. 이 법안은 처음 1965년 고등교육의 재정적 지원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이후 2008년 고등교육 기회법(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ct)으로 개정되었다. 2017년 국회에 교육개혁을 통한 진정한 기회, 성공, 번영 증진법(Promoting Real Opportunity, Success, and Prosperity through Education Reform Act, PROSPER Act)으로 개정안이 연장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이에 Advance CTE는 2017년 PROSPER Act를 지지하는 성명과 2019년에는 개정안 연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제출하였다. 성명서는 “2020년 미국 내 경제활동 직업군의 65%가 중등이후 교육 이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최소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채용공고가 35%”라는 Carnevale, Smith, & Strohl (2013)의 실증분석 결과에 주목하여 고등교육이 국가 인력개발 핵심 동력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PROSPER Act는 직업교육 관련, 중고등학교 수준의 진로기술 교육과 함께 지역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과 기술 전문대학(technical college)과 같은 중등이후 교육단계의 진로기술 교육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하며, 이에 Advance CTE에서는 K-12의 모든 학생 성공법안에서 PROSPER Act로 이어지는 유기적 연결성에 방점을 두고 공통의 성과 매트릭스 도입을 촉구한다. 아울러 역량 중심 학습(competency based learning)이 중등이후 진로기술 교육에서 긴요함을 강조한다.

인력 혁신과 기회 법안(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은 순서상 마지막 단계의 제도적 개입으로 볼 수 있다. 1998년에 인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 WIA)으로 처음 도입된 이 법안은 2014년 국회에 승인을 얻어 2018년 각 주정부는 법안 계획의 수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며 2019년까지 정식으로 인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WIOA는 성인층과 청소년층 난민 노동자의 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자금 마련을 위한 법적 조치로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퍼킨스법 및 고등교육법과의 제도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진로기술 교육과 인력개발 사이의 조화를 강조하며 중등이후 진로기술 교육이 지역기반 파트너가 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 정부 단위에서 WIOA 핵심 프로그램과 최소 하나 이상의 여타 연방 프로그램의 계획 요건을 충족하는 합동 계획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Advance CTE는 퍼킨스법과의 연계성에 주목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가이드라인(Coordinating Across Perkins V and the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을 제공하였다.



## V. 요약 및 논의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직업교육과 사회이동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합교육체제를 따르는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학진학에 대한 열망이 강하며 일반교육 과정 내 진로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선택 지향적 학업구조(choice-driven academic structure)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종합교육 과정에서 모든 학생은 이후 상급학교 진학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2006년 개정된 퍼킨스법에서 진로기술교육(CTE)이 미국의 직업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대두된 이후 제도적 차원에서 초중등교육에서 성인계속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직업교육이 시행 중이다. 퍼킨스법을 중심으로 모든 학생 성공 법안(ESSA), 고등교육 법안(HEA)과 인력 혁신과 기회 법안(WIOA)은 진로기술교육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으며 진로기술교육을 통해 계속교육 및 취업에 요구되는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 연방 교육부는 ‘Perkins Collaborative Resource Network’를 통해 이러한 제도적 노력의 성과를 실재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대학 연구부설 기관을 중심으로 진로기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인과연구(causality study)가 수행 중이며 2020년 이후 유사실험설계에 근거한 실증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진로기술교육 참여와 그 성과에 대한 시계열적 추이를 기초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보다 진로기술교육 참여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평균수명 연장과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학 기술(engineering)과 건강관리(health care)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가 맞물리면서 진로기술교육의 지형 또한 변화하는 중이다. 과거와 다르게 일반교육의 학업적 능력만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진로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미국의 초중등 및 고등교육 법안에서도 진로적성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전술한 미국의 정책사례는 한국의 직업교육 관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후기중등교육 단계에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대변되는 직업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이동의 측면에서 불리한 경로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주도하여 직업교육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직업

계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주로 목도되며(오승환·김광혁, 2012), 직업교육 참여에 따른 상향이동의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남재욱 외, 2019).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한국의 직업교육은 현행 직업계고 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체제 개편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진로기술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과 전 생애에 걸친 직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령기 정규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아동기와 성인기를 아우르는 평생직업교육 체제 확립과 제도의 발전이 요구된다.

한편 사회이동성의 측면에서 미국 사회 또한 진로기술교육(CTE)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합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Gamoran & Bruch, 2017). 앞서 정리한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로기술교육이 노동계층에게 최소한 실업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안전장치로써 기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명망 있는 대학으로의 진학이나 전문직으로의 입직은 어렵게 만드는 선택이기도 하다. 미국 사회에서 소위 괜찮은 직업(decent job)을 얻기 위해 고등교육 학위가 필수조건으로 간주됨에 따라 진로기술교육 정책 또한 4년제 대학 진학률과 일반교과(읽기, 수학, 과학)의 성취를 주요 성과 지표로 삼고 있으며, 대학 및 직업 준비도(college and career readiness)는 미국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한다. Gamoran & Bruch (2017)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내 직업교육의 사회이동에 대한 실재적 영향력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진로기술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미국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의 체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대학진학의 욕구가 보편화 돼 있는 한국에도 충분히 적용될 소지가 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봤을 때, 서열화된 교육구조 안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사례로부터 직업교육의 참여와 성과를 적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해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실증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기반정책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현실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업교육 실태 및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관련 정책의 상호보완성이 적실성 있게 추구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남재욱 · 류기락 · 김영빈 · 변영환 · 최승훈 · 크리스티나 히슬(2019). 직업교육과 사회이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승환 · 김광혁(2012). 가족빈곤이 고교진학 유형이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4), 1-20.
- Allmendinger, J. (1989). Educational systems and labor market outcom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5(3), 231-250.
- Becker, G. (1975). *Human capita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navot, A. (1983). The rise and decline of vocational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56(2), 63-76.
- Bishop, J. (1989). Occupational training in high school: When does it pay off?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8(1), 1-15.
- Blau, P. M., &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Son.
- Blossfeld, H. P., Buchholz, S., Skopek, J., & Triventi, M. (2016). *Models of secondary education and social inequal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Bol, T., & Van de Werfhorst, H. G. (2013). Educational systems and the trade-off between labor market allocation and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7(2), 285-308.
- Bol, T., Witschge, J., Van de Werfhorst, H. G., & Dronkers, J. (2014). Curricular tracking and central examinations: Counterbalancing the impact of social background on student achievement in 36 countries. *Social Forces*, 92(4), 1545-1572.
- Bourdieu, P. (1977).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J. Karabel & A. H. Halsey(eds.),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pp. 487-511). New York: Oxford.
- Bowles, S., & Gintis, H.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society*. New York: Basic.
- Breen, R., & Buchmann, M. (2002). Institutional variation and the position of young people: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80(1), 288-305.
- Brint, S. (2006). *Schools and societies*.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 Brunello, G., & Checchi, D. (2007). Does school tracking affect equality of opportunity? New international evidence. *Economic Policy*, 22(52), 782-861.
- Brunello, G., & Rocco, L. (2015). *The effects of vocational education on adult skills and wages: What can we learn from PIAAC?*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68), Retrieved from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

- migration-health/the-effects-of-vocational-education-on-adult-skills-and-wages\_5jrxfmjvw9bt-en.
- Bulle, N. (2011). Comparing OECD educational models through the prism of PISA. *Comparative Education*, 47(4), 503-521.
- Campbell, P. B., & Basinger, K. S. (1985). *Economic and noneconomic effects of alternative transitions through school to work*. Retrieved from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254638.pdf>.
- Carnevale, A. P., Smith, N., & Strohl, J. (2013). *Recovery: Job growth and education requirements through 2020*. Georgetown University Center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
- Castellano, M., Stringfield, S., & Stone III, J. R. (2003). Secondary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nd comprehensive school reform: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3(2), 231-272.
- Dalton, B. (2015). *Eight-year postsecondary outcomes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students from the high school class of 2004*. 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US Department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580321.pdf>.
- Gamoran, A., & Bruch, S. K. (2017). Educational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Can we reverse the tide?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30(7), 777-792.
- Holtmann, A. C. (2016). Excellence through equality of opportunity-Increasing the social inclusiveness of education systems benefits disadvantaged students without harming advantaged students. In H. P. Blossfeld, S. Buchholz, J. Skopek, & M. Triventi (Eds.), *Models of Secondary Education and Social Inequality* (pp. 61-76).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Hopper, E. I. (1968). A typology for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systems. *Sociology*, 2(1), 29-46.
- Hotchkiss, Lawrence (1993). Effects of training, occupation, and training-occupation match on wag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8(3), 482-496.
- Levesque, K., Laird, J., Hensley, E., Choy, S. P., Cataldi, E. F., & Hudson, L. (2008).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1990 to 2005*. Statistical Analysis Report, NCES 2008-035.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Levesque, K., Lauen, D., Teitelbaum, P., Alt, M., & Librera, S. (2000). *Vocation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oward the Year 2000*. Statistical Analysis Report.
- Lipset, S. M., & Bendix, R. (1991). *Social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y*.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Mane, F. (1998). *Trends in the payoff to academic and occupation-specific skills: The*

- short and medium run returns to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courses for non-college bound students (CAHRS Working Paper #98-07)*. Ithaca: Cornell University.
- Meer, J. (2007). Evidence on the returns to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6(5), 559-573.
- Meyer, R. H. (1982). Job training in the schools. In R. Taylor, H. Rosen, & F. Pratzner (Eds.), *Job Training for Youth* (pp. 307-344). Columbus: The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Meyer, R. H., & Wise, D. A. (1982). High school preparation and early labor force experience. In R. B. Freeman & D. A. Wise (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pp. 277-34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üller, W. and Jacob, M. (2008). Qualifications and the returns to training across the life course, In K. U. Mayer & H. Solga (Eds.), *Skill Formation* (pp. 126-17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10). *Learning for jobs*. Retrieved from [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Learning%20for%20Jobs%20book.pdf](http://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Learning%20for%20Jobs%20book.pdf)
- Parsons, T. (1961). The school class as a social system: some of its functions in American Society, In P. Halsey, P. Broadfoot, M. Cross, D. Osborn., & T. Abbott (Eds.), *Education, Economy and Society* (pp. 434-455). London: Collier/Macmillan
- Petticrew, M., & Roberts, H. (2008). *Systematic reviews in the social sciences: A practical guide*.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Rumberger, R., & Daymont, T. N. (1984). Economic value of high-school vocational training acquired in high-school. In M.E. Borus(Ed.), *Youth and Labor Market: Analyses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pp. 157-192). Michigan: The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Schiller, K. S., & Muller, C. (2003). Raising the bar and equity? Effects of state high school graduation requirements and accountability policies on students' mathematics course taking.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5(3), 299-318.
- Schiller, K. S., Schmidt, W. H., Muller, C., & Houang, R. T. (2010). Hidden disparities: How courses and curricula shape opportunities in mathematics during high school. *Equity & Excellence in Education*, 43(4), 414-433.
- Schührer, S., Carbonaro, W., & Grodsky, E. (2016). Reproduction of inequality in educational attainment through curricular differentiation in secondary school—a case study of the USA. In H. P., Blossfeld, S. Buchholz, J. Skopek, & M. Triventi (Eds.), *Models of Secondary Education and Social Inequality* (pp. 249-268).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17.

Shavit, Y., & Muller, W. (2000). Vocational secondary education. *European Societies*, 2(1), 29-50.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9, 01). *The Carl D. Perki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ct of 2006, as amended by the 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 (Perkins V): Guide for the submission of state plans*. Retrieved from [http://www.ncsl.org/Portals/1/Documents/Labor/2018\\_Perkins\\_V\\_State\\_Plan\\_Guide.pdf?ver=2019-01-18-091727-390&timestamp=1547828377985](http://www.ncsl.org/Portals/1/Documents/Labor/2018_Perkins_V_State_Plan_Guide.pdf?ver=2019-01-18-091727-390&timestamp=1547828377985)

UNESCO (2011). *The hidden crisis: Armed conflict and education*. UNESCO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 Paris: UNESCO.

\_\_\_\_\_ (2014). *Teaching and learning: Achieving quality for all*. UNESCO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 Paris: UNESCO.

\_\_\_\_\_ (2016). *Education for people and planet: Creating sustainable future for all*. UNESCO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Paris: UNESCO.

〈ABSTRACT〉

**A Comprehensive Review on Vocational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the US: Antecedent and Consequence of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VET) Program and Policy**

Suehye Kim

This study aims to review scholarly and policy discussions on what vocational education has brought in terms of social mobility in US and to provide insight for a Korean society. For this, I first put two contrasting perspectives, functionalism and conflict theory on vocational education in the US context and synthesize key literature which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particular, time-series approach is applied for exploring antecedent and consequence of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VET) program by reviewing empirical studies drawing on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1972(NLS-72), High School and Beyond (HSB),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urvey of 1988 (NELS: 88) and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NLSY). Also, I scrutinize the contemporary research on vocational education effect of the American adult population using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Adult Competencies(PIAAC). Lastly, I study how the US federal government has intervened in the field of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VET) and present implications of the US case for Korea.

**Key words**

Vocational Education, Social Mobility, US, Program Effect, Policy Case

논문 투고일	2020. 10. 10
논문 심사일	2020. 11. 09
게재 확정일	2020. 11. 18





# 우리나라 재정착난민의 사례연구 정책에 대한 고찰\*

채보근\*\*

## 국문초록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난민문제의 항구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재정착난민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함에 따라, 태국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거주 중이던 미얀마 난민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회에 걸쳐 16가족 86명을 수용하여 지역사회 정착하고 있다. 정착한지 3년 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NGO 단체와 협력하여 이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주거, 직업, 보건, 의료, 교육, 아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선천적 장애인 출생 및 후천적 신체장애 소지자 문제,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 문제, 직장 부적응자 문제, 고교 입학 및 졸업에 따른 향후 진로 지도 문제, 다출산에 따른 가족계획 문제, 통합 정책에 따른 정체성 문제, 시혜적 지원정책에 따른 자립심 상실 문제 등 자립적 정착에 대한 장애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할 방안으로, 2019년 1년 기간 동안 재정착난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 전반을 살펴보는 사례관리 정책을 시행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사례관리정책에 대해 고찰해 보고 다음과 같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년간의 사례관리 정책으로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부, 지자체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 중 1년이란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향후 3년에서 5년 또는 10년에 걸쳐 관찰하고 꾸준히 해결책 모색해야 하는 난제도 발견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첫째, 각 사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소요 기간에 따른 체계적인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전문가로서 문제를 지속적 관찰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문제 사안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주제어** 재정착난민, 사례관리, 문제점, 지원정책

\* 이 논문은 저자가 30년간(1989년~2019년)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지원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천 부평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재정착난민에 대한 정착지원업무를 수행했던 정책 실무를 바탕으로 연구한 것임.

\*\* 한국이민재단 본부장

## I. 서론

### 1. 난민 동향과 연구 목적

인류가 선사시대부터 이 지구상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당시 인류는 열악한 도구를 가지고 종족의 먹을 것을 찾아 수렵, 어로, 채취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주거지 없이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인간은 처음에 가족단위의 소규모 집단으로 모여 살며 인간 보다 강한 맹수를 극복하거나 피하고, 의식주 해결을 위해 집단 내에서 분업화하기 위해 좀 더 큰 규모로 집단화 해나갔을 것이며, 인구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식량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 부족을 정복하고 약탈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피정복 인간들은 본인이 원치 않은 가운데 피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일컫고 있으며, 난민이라는 용어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기서 발생한 전쟁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규정<sup>1)</sup>을 만들면서 비로소, 난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으로 난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난민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 시기는 2010년 ‘아랍의 봄’<sup>2)</sup> 이후 이 지역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 속에 발생한, 시리아 내전, 예멘 등 북아프리카 국의 내전, 2017년 시작된 미얀마의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sup>3)</sup> 등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 일부지역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여 UNHCR<sup>4)</sup> 추산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강제이주민을 포함 총 7,4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sup>5)</sup>, 우리나라도 2018년 제주도 예멘 527명 집단난민신청<sup>6)</sup>으로 전국적으로 난민이 이슈화 되어, 현재까지 난민에 대한 국민여론이 찬반양론으로 팽배한 상태에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이민자 관련 중 난민 문

1)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난민협약’)」.

2) 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9E%8D%EC%9D%98\\_%EB%B4%84](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9E%8D%EC%9D%98_%EB%B4%84)

3) SBS 뉴스리포트, 피와 눈물의 로힝야족 역사, 2018. 11. 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18580&plink=ORI&cooper=DAUM](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18580&plink=ORI&cooper=DAUM).

4)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로서 정식명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라고 하고 유엔난민기구라고도 함. UNHCR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음. 한국대표부는 1997년 UNHCR 일본 대표부의 감독 아래 서울의 UNDP 사무소 내 UNHCR 데스크 개소하였고, 2001년 연락사무소 설립, 2006년 UNHCR 한국대표부로 승격되었다(UNHCR Homepage, <http://www.unhcr.org/pages/49c3646c2.html>).

5) 2018년 유엔난민기구 연례보고서,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2.html>.

6) 2018. 6. 2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보도자료.

제는 최대의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92년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를 가입하고,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조항을 신설하고 국제사회에 난민보호의 의지를 보였으며, 2012년 2월 난민법 제정과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에 대한 대 전환점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7).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은 2010년 423명에 불과하던 난민신청이 난민법 제정 2013년도에 1,574명이 난민신청을 한 이후, 난민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 한해만도 16,173명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2019년도에는 15,451명이 난민신청을 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sup>8)</sup> 이러한 폭발적인 난민신청 증가세는 한국의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에 따른 난민에 대한 친인권적 분위기와 2015년 말 이후 유럽의 경제 악화 지속, 영국의 브렉시트 등 유럽의 난민 유입 통제 정책의 영향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증가 등 이주의 흐름이, 아시아권으로 이동<sup>9)</sup>하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나라 난민신청 급증의 한 요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10)</sup>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단일 난민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데, 난민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 방안으로 재정착난민에 대해 유엔난민기구에서 적극 추천을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 난민법에는 구 출입국관리법상 난민관련 조항에는 없던 ‘재정착희망난민(이하 재정착난민)’에 대한 조항이 2013년도부터 시행 중인 난민법에 신설되었고,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2017년 2년에 걸쳐 재정착난민 16가족 86명이 입국하여, 인천 지역에 정착<sup>11)</sup>하고 있다.

재정착난민은 일반 난민인정자와는 다르게 국내에 입국하면서 바로 난민체류자격을 부여받아서 거주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 난민인정자는 난민 신청 후 2 - 3년에 걸쳐

7) 장복희(2009).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97~298쪽.

8) 법무부(2020. 4). 외국인 통계 현황.

9) 전 세계 인구 이동의 추세가 변하고 있고, 미국·유럽으로 향하던 발길이 줄고 아시아·중동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가난한 아시아 국가에서 성장세 높은 아시아 나라로 ‘역내 이동’하는 경우도 늘었다. 국민일보(1018), 급변하는 세계 인구이동...아시아 드림 시작됐다. 2018. 4. 2.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6516&code=11141100&cp=nv>, 2018. 5. 30. 최종 검색).

10)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상에 난민인정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독립된 난민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16년 한해 10,901명이 난민신청하였고, ‘15년 7,586명에 비해 44%가 증가한 수치이다.

11) 2017년 12월 출입국외국인센터 자료 제공.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직업을 찾고, 주거, 교육 등 체류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나, 재정착난민의 경우 입국 초기부터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에 의해 정부의 지원으로 입국함에 따라, 국내 스스로 적응을 위한 적응기간이 생략됨에 따른 초기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NGO 단체와 협력하여 이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주거, 직업, 보건, 의료, 교육, 아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재정착난민들이 지역사회 정착한지 3년 정도 시점에서 대부분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있으나, 선천적 장애인 출생 및 후천적 신체장애 소유자 문제,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자 문제, 직장 부적응자 문제, 고교 입학 및 졸업에 따른 향후 진로 지도 문제, 다출산에 따른 가족계획 문제, 통합정책에 따른 정체성 문제, 시혜적 지원정책에 따른 자립심 상실 문제 등, 자립적 원활한 정착에 대한 장애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하기 위해, 2019년 1년 기간 동안 16가족 86명에 대한 생활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정책 참여자들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정책을 시행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 정착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들 생활 전반에 대해 전체적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이들의 정착을 위해 각 분야에서 지원되고 있는 정책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적인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치유하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책인 사례관리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 본 연구자가 재정착난민들에 대한 이민통합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책실천 사례에 경험을 토대로 연구하게 되었다. 연구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착난민과 관련된 각종 회의 및 행사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다. 회의 종류로는 재정착난민 실무협의체 회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재정착난민 입·퇴소식 행사 자료, 유관 사회단체에서 개최한 회의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에서 생산한 자료와 교육센터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셋째, 각 가정에 지정되어 매주 방문하여 생활지도를 맡고 있는 멘토들의 SNS를 통한 멘토 활동사항 및 매일 제출되는 활동보고서, 분기별 간담회시 발표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넷째, 26세대 86명 전반에 걸쳐 1년간 시행한 사례관리 정책에 따라 활동한 사례관리사들이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섯째, 재정착난민들이 취업한 회사 관계자들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여섯째, 재정착난민들이 참석한 세계인의 날 행사, 명절 체험행사, 생일파티, 카렌 설날, 고궁체험 등 각종 행사현장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사례관리 정책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재정착난민 이민통합정책에 참여하는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관계자들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 3. 재정착희망난민의 정의

난민에 대한 정의는 1951년 난민협약(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1967년 난민의정서(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나타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 난민법에서도 같은 협약과 의정서에서 나타나는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난민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난민협약 제1조 제A항제2호<sup>12)</sup> 및 난민법 제2조제1호<sup>13)</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이란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우리나라 난민법은 제2조에서 제1호는 ‘난민’에 대한 정의규정과 제2호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난민인정자’ 개념을 개별적으로 정의하여 별도로 두고 있고<sup>14)</sup>, 난민인정심사

12)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에 따라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그리고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

13)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14)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는 「난민협약」상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는 '난민'에 대해 면접과 사실조사를 거쳐 진술의 신뢰성, 박해 가능성, 대안적 피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난민법 제18조 제1호<sup>15)</sup>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난민협약에서 정하는 보호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약국이 협약상 난민요건의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형식이나 절차는 각국의 국내법으로 정할 문제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난민법 제2조에서 구 '출입국관리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재정착희망난민(이하 재정착난민)'<sup>16)</sup> 등의 개념을 신설해 재정착난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재정착은 출신국 또는 상주국으로부터 피난하여 이웃나라의 난민캠프 등에서 비호를 받고 있는 난민을, 새로이 수용을 합의한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1차 비호국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에 대한 인권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정착난민은 난민이 비호를 신청한 국가로부터 해당 난민의 영주권 보유를 인정해주기로 한 제3국으로 난민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재정착난민에 대해 강제 송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재정착된 난민과 그 가족에게 정착 국가 국민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재정착국의 국민으로 귀화할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sup>17)</sup>

정부는 제16대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재정착난민 수용<sup>18)</sup> 시범사업을 심의·확정하여 2015년~2017년 3년간 시범사업으로 태국 난민캠프에 있는 86명의 미얀마 난민이 한국에 재정착하였다. 2018년~2019년 2년간 시범사업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미얀마 도시 난민 중 총 120명을 수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sup>19)</sup>

---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15)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16) 난민법 제2조(정의) 5.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7) 국제기톨릭이주위원회(ICMC) Welcome to Europe: A Comprehensive Guide to Resettlement, 2013. p.15.

18) 난민법 제24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허가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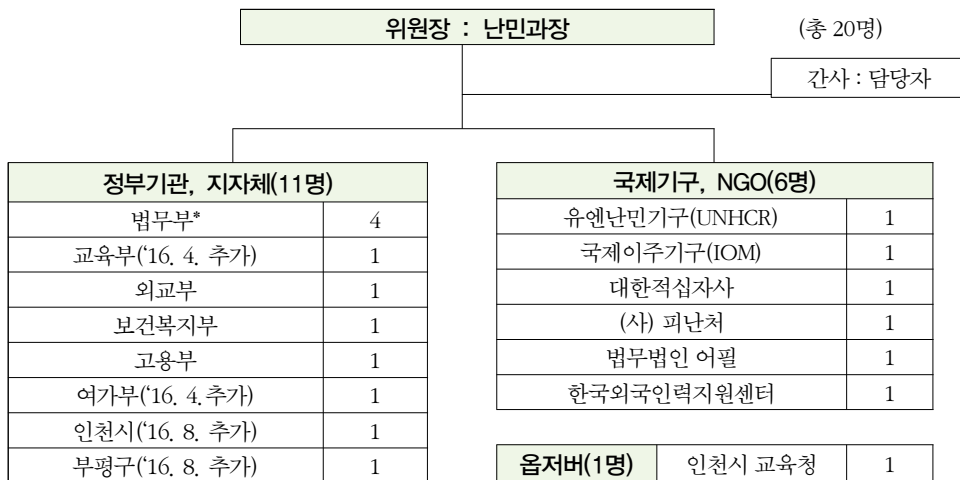
19)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제2차 재정착희망난민실행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18. 5. 21. ~ 24.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서면회의가 진행되었고, 상반기 내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동 안건이 심의·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2차 재정착희망난민실행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18년~'19년 2년간 30명 범위로 4회 추진, 총 120명의 말레이시아 내 등록된 도시 난민 중 미얀마인을 수용할 예정이며, 가족 단위 수용을 원칙은 유지하되 자립 가능성이 높은 개인도 일부 수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 II. 재정착난민 사례관리 정책

### 1. 지원정책 부서

현재 우리나라 난민업무의 주요 부서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sup>20)</sup>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재정착난민 정책은 난민법 시행령 제22조와 난민협의회 규정 제9조에 의한 재정착실무협의체를 2015년 구성하였고, 매년 2~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재정착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는 14개이며, 그 주요 역할은 ① 법무부 : 재정착난민 제도 운영과 지원센터 초기 정착지원, 지역사회에서 사회통합지원 ② 교육부 : 아동에 대한 교육 ③외교부 : 여행증명서 및 사증발급 도움, 국제적 보호 ④ 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⑤ 고용부 :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 구직 등 고용알선 ⑥ 여가부 : 여성 직업훈련 ⑦ 인천시 ⑧ 부평구 : 지자체 지원 가능 일체 ⑨ 유엔난민기구 :대상자 추천 ⑩ 국제이주기구 : 사전교육, 출국지원, 건강검진 ⑪ 대한적십자사 : 생활지원 봉사, 지역사회 연결 ⑫ 사단법인 피난처 : 상담, 인식개선 캠페인, 사례관리 ⑬ 공인법센터 어필 : 법률상담, 각종 정보제공 ⑭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한국외국인인력지원센터) : 고충상담(근로 및 생활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1)</sup>

〈그림 1〉 재정착실무협의체 조직표



난민정책과 1, 이민통합과 1('16. 9. 추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

20) 난민법시행령 제22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 법무부, 2018년 제1차 '재정착실무협의체' 회의자료 2p (2018.1.12.).

〈표 1〉 재정착실무협의체 부서별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법무부	재정착 난민 제도 운영, 지원센터 초기정착지원, 지역사회 정착 사회통합지원	유엔난민기구(UNHCR)	대상자 추천
교육부	교육 지원	국제이주기구(IOM)	사전교육, 건강검진, 출국지원
외교부	여행증명서, 사증발급 지원 및 국제적 보호 지원	대한적십자사	생활도우미, 지역사회 연계, 결연, 봉사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복지의료 및 긴급의료 지원	(사)피난처	사례관리, 상담, 인식개선 캠페인, 통역지원
고용부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 구직 및 고용알선	(사)공익법센터 어필	법률 상담, 각종 정보제공
여가부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한국외국인인력지원센터	근로관계, 생활법률 등 고충상담
인천시/ 부평구	지자체 지원 가능 일체		

법무부 자료 제공(2018)

## 2. 지원정책 유형

재정착난민에 대한 지원정책 유형으로 이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6개월(1기 9개월) 정도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시설에서 함께 거주 하면서 기초 생활 교육을 받는 초기지원 정책, 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경제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생계 수단인 취업지원정책, 성인들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및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정책, 이들의 가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의료 및 보건 지원정책,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선주민인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과 더불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통합지원정책, 마지막으로 이들의 개개인이 가족과 함께 이 모든 정책의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부적응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례관리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 중 마지막 정책으로 분류되는 사례관리 정책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기로 하겠다.



### 3. 사례관리 정책

사례관리<sup>22)</sup>는 사회복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일련의 연속적인 노력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재정착난민에 대한 사례관리는 가족들이 우리나라의 각종 지원정책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해 가는 과정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독립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 차원의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착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피난처에서 지역사회 정착 후 1, 2주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방문하여 그 동안 한국생활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착난민실무협의체 회의 때 발표하고, 피드백을 하는 장치로써의 역할로 진행되었고<sup>23)</sup>, 또한 이들의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한 정착 실태를 점검하고 각 지원정책에 대한 각 사례를 '2018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sup>24)</sup>를 통해 발간하였다.

또한 2017.12 유엔난민기구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재정 시범사업 평가보고<sup>25)</sup>는 사)피난처에서 실시한 모니터링을 난민전담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 재정착난민제도에 대한 평가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지원정책 시행에 대한 전반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두 기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과 평가보고는, 사례관리 정책 중 일부 기능인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점검과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재정착난민 지원정책에 대한 피드백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관리는 대상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짧은 기간 관찰 즉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발견과 정책 평가로 피드백을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착난민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다문화관련 사회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어울림이끌림 및 국제 구호기구 플랜코리아와 협력하여<sup>26)</sup>, 2019년 2월부

22)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장기적이며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원조계획을 세워 클라이언트 자신의 자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인 자원, 그리고 각종 수당과 급여와 같은 공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클라이언트의 복지추구와 기능의 강화, 서비스의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체계를 말하며, 사례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23) 법무부, 2017년 재정착실무협의체 회의자료, p2 기관별 주요역할(2017.3.27.).

24) 이호택(피난처 대표), 2018 법무부 용역보고서(2018.11).

25) 나오키 오비(Naoko Obi) Senior Officer, 유엔난민기구, 2017.12.

26) 국제뉴스((2016),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안복지재단-어울림이끌림과 MOU, 2016.11.2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2913572676398>.

터 12월까지 11개월간 부평에 거주하는 재정착난민 1,2,3기 16가족 92명에 대한 사례관리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예산상의 한계로 비록 11개월 기간에 불과한 사례관리 정책이었으나, 11개월간 전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많은 문제점을 해결했고 또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1) 사단법인 피난처<sup>27)</sup> 사례관리

재정착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피난처는 재정착난민 가족들이 지역사회 정착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하고 부평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기<sup>28)</sup>에 대해 2016. 11. 21. ~ 2016. 12. 2. 기간, 2기<sup>29)</sup>에 대해서는 2017. 3. 31. ~ 4. 28. 기간, 3기<sup>30)</sup>에 대해서는 2017. 11. 17. ~ 17. 12. 15. 기간 동안 한국 생활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만족도 부분에서 '미국으로 간 많은 사람들 보다 한국에 온 자신들이 더 행복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생활교육 9개월이 길고, 빨리 일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했다. 지역사회 정착을 시작한 후 직장생활은 전혀 해보지 못한 경험으로 힘들었으나, 회사 동료들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하고 있으며, 식당에서 점심 식사 중 일반직원들과 간부직원들이 차별 없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에서 계급 없는 평등사회로 느낌이 좋다고 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주 1회 (6시간 경기글로벌센터<sup>31)</sup>)에서 진행하고, 주1회 토요일 방문하는 생활밀착형 멘토링 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최대의 관심은 자녀교육으로 학교 교육이외에 2016.11.2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사회적협동조합 어울림이끌림<sup>32)</sup>,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움으로 방과 후 돌봄 활동으로 과학, 인성, 음

27)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마산로76(대표 이호택), 2009.8.12. 설립된 난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비영리 단체임.

28) 4가족 22명으로 2015. 12. 23. 입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생활교육을 마치고, 2016. 9. 29. 퇴소 부평지역 거주.

29) 7가족 35명으로 2016.11.2.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생활교육을 마치고, 2017.6.9. 퇴소 후 인천 부평지역에서 거주 중임.

30) 6가족 30명은 2017.7.25. 입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생활교육을 마치고 2018.2.27. 퇴소 후 인천 부평 지역에서 거주 중임.

31)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경인로 133번길 10 소재하는 사단법인 단체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 지정되어 인근 거주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중도입국자녀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임.

32)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77-7(대표 이병철), 다문화 관련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0.5.20. 연극 프로그램, 합창프로그램 등 재정착난민 아동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 공모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약, 운동 등을 가르쳐 주고 있다. 어린이들이 따돌림 없이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밝고 건강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중고생들은 교복에 대한 많은 애착을 보여 학생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거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친절하게 대해 줘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생활 안내 도움을 주는 법무부 멘토들과 대한적십자사 부평지역 봉사자들이 좋은 이웃이며, 통역자로 같은 카렌족 출신 김\*\*씨는 멘토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sup>33)</sup> 또한 2018년 10월 같은 단체에서 재정착난민 1,2,3기 전 가족에 대한 정착실태 사례조사연구<sup>34)</sup>를 실시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취업과 재정, 주거, 건강, 성인 및 아동에 대한 교육, 언어와 문화, 참여, 안전, 지역사회 연결, 난민들 간 결속 등 10개 지표에서 좋게 고른 정착지표를 보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지표인 언어, 교육, 취업 지표는 카렌 난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미국 Denver 지역 Rise 조사와 캐나다 Langley 지역 정착 척도 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정착난민 지원정책이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35)</sup>

우리나라에 정착한지 3년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위에서 열거한 정착에 필요한 10개 항목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취업, 교육, 언어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서 이들이 비교적 취업이 용이하며, 또한 이들의 취업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지역사회단체가 적극 연계하여 노력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언어와 교육 지표 또한 우리나라가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좋음에 따라 이 항목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왔다고 판단된다.

## 2) 유엔난민기구(UNHCR)<sup>36)</sup> 사례관리

2017년 12월 유엔난민기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착 중인 재정착난민들에 대한 정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1개월 정도에 걸쳐 재정착난민 각 가정, 관련 사회단체, 직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생활 멘토 등을 방문하고 관련자들과 면담한 후 우리나라의 재정착난민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내 놓았다.

우수하다고 평가한 부분은 첫째, 우리나라 재정착난민 관련 정책이 분명한 명시적 법규정 난민법 제24조<sup>37)</sup>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이민자를 위한 7년간

33) 법무부, 2017년 제1차 재정착실무협의체 회의자료(2017.3.27.), 2018년 제1차 재정착실무협의체 회의자료(2018.1.12.).

34) 이호택(2018. 11). 2018 재정착난민 정착실태 점검의 위한 사례조사연구.

35) 같은 책, p.233.

36) 서울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7층(대표 제임스 린치), 난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정치적 기구.

37)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①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험으로 재정착난민 지원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역 내 지원 자원을 네트워크화 하여 재정착난민 정착지원에 적극 활용하였다. 셋째, 재정착난민의 한국어 공부와 일상 생활에 대한 도움은 법무부 및 대한적십자사 생활 멘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재정착난민의 정착지원 정책으로 한국어 학습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개선적인 의견으로는 생활비가 높고 가족 수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성인들의 근로시간이 길어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할 시간 및 한국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학교에서 부모와 난민 아동들과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엔난민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착난민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먹고 살기에 바빠 미래를 설계할 여유가 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비단 재정착난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또한 과거에 주로 경제적인 문제였지만 어떤 이유로 오랫동안 정들어 살던 고향을 등지고, 낯선 도시로 이주해오면서 초기 정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유엔난민기구에서 지적하는 재정착난민에 대한 염려는 누구나 초기 정착시기에 경험하는 일반적인 삶의 한 여정이라고 판단된다.

### 3. 2019년도 사례관리

재정착난민 1, 2, 3기가 순차적으로 인천 부평지역에 정착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지자체,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16세대 86명 전체에 대해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정착난민에 대한 가장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고 있는 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어울림이끌림이 주관하여 플랜코리아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사례관리사 2명을 채용하여, 2019년2월부터 12월말까지 11개월간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sup>38)</sup> 사례관리사들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가정별 생활 멘토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사례관리를 진행하였다.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 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허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정착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연합뉴스(2019), 플랜코리아, 재정착난민 지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2019.01.29.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9140600848?input=1195m>.

### 1) 기수별 가족 현황

사례관리 대상자인 각 기수별 가족현황을 살펴보면, 1기 4가정 24명은 성인 11명, 영유아 4명, 초등학생 7명, 고등학생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기 7가정 38명은 성인 17명, 영유아 7명, 초등학생 4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기 5가정 30명은 성인 11명, 영유아 4명, 초등학생 8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재정착난민 1,2,3기에서 성인 및 부모는 총 39명이며, 자녀는 총 53명으로 영유아 15명, 초등학생 19명, 중학생 9명, 고등학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재정착난민 1,2,3기 86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현황에서는 그 보다 6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이유는 이들이 한국에 입국 후, 6명의 신생아를 출산한 결과로 1기에서 2명, 2기에서 4명이 각각 출생하였다.

〈표 2〉 재정착난민 기수별 가족 현황

구 분		성인	영,유아	초	중	고	합계
1기	4가정/24명	11명	4명	7명	-	2명	24명
2기	7가정/38명	17명	7명	4명	5명	5명	38명
3기	5가정/30명	11명	4명	8명	4명	3명	30명
합 계		39명	15명	19명	9명	10명	92명
부모+성인 39명		자녀 : 53명					

출처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자료제공(2019.9.16)

### 2) 가족별 경제 활동 등 현황

가족별 경제활동인(비경제인), 월수입(임대료),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 종교, 생활적응정도 등 현황을 살펴보면, 1기 4가족 22명은 2015.12.23.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기초생활교육을 마친 후 2016.9.29.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정착을 시작하였고, 쿠\* 가족 8명은 가족 구성원 중 경제활동인은 5명이고 비경제활동인은 3명이며, 월수입은 520만원 상당이며, 월 임대료는 65만원이고, 성인 한국어 학습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은 부모는 2단계, 자녀는 5단계 수준이며, 종교는 부모는 불교, 자녀는 기독교이고, 가족이 한국에 적응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푸\* 가족 구성원 4명 중 경제활동인은 1명이며 비 경제인이 3명이며, 월수입 220만원 상당이며 월 임대료가 30만원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은 5단계이며, 종교는 불교, 한국생활 적응정도는 보통으로 파악되었다. 떼\*\*가족 구성원은 7명으로 경제활동인이 1명, 비경제활동인이 6이며, 월수입이 210만원 상당이며, 월 임대료가 40만원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은 부모가 2단계 수

준이며, 종교는 기독교이며 사회적응 정도는 보통으로 파악되었다. 나\*\* 가족 구성원은 5명으로 경제활동인은 1명이고, 비경제활동인은 4명이며, 월수입은 210만원 상당이고, 월임대료는 40만원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은 5단계이며, 종교는 기독교이고 생활적응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기 7가족 34명은 2016.11.2.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기초생활교육을 마친 후 2017.6.9.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킨\* 가족은 6명으로 경제활동인은 2명이고 비경제활동인은 4명이며, 월수입은 4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40만원이고, 부모 및 성인자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등급은 2단계이며, 종교는 불교, 생활적응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씨\*\*\*\* 가족은 4명으로 경제활동인은 1명, 비경제활동인은 3명, 월수입은 210만원 상당, 월임대료는 40만원, 부모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정도는 5단계 이수, 종교는 기독교, 생활적응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멩\*\* 가족은 10명으로 경제활동인이 1명, 비경제활동인이 9명, 월수입은 220만원 상당, 월임대료는 40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은 부 4단계, 모 1단계, 종교는 불교, 생활적응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 가족은 4명으로 경제활동인이 1명, 비경제활동인이 3명, 월수입은 170만원 상당, 월 임대료는 40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은 부 5단계, 모 4단계, 종교는 불교, 생활적응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는 가족이 3명으로 경제활동인이 1명, 비경제활동인이 2명, 월수입은 220만원 상당, 월임대료는 30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은 부 4단계, 모 5단계, 종교는 불교, 사회적응 정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와\*\* 가족은 5명으로 경제활동인이 2명, 비경제활동인이 3명, 월수입은 400만원 상당, 월임대료는 30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은 부모가 각각 4단계, 종교는 기독교, 사회적응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가족은 6명으로 경제활동인이 3명, 비경제활동인이 3명, 월수입은 600만원 상당, 월 임대료는 50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은 부모 각각 4단계, 종교는 부모 불교, 자녀 기독교, 생활적응 정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3기는 5가족 30명은 2017.7.25. 입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기초 생활교육을 마치고, 2018.2.27. 퇴소하여 지역정착을 시작하였고, 미\*\* 가족은 7명으로 경제활동인이 1명, 비경제화동인이 6명, 월수입은 210만원 상당, 월 임대료가 60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은 부모 각각 1단계 수준, 종교는 불교, 사회적응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 가족은 6명으로 경제활동인 2명, 비경제활동인 4명, 월 수입 400만원 상당, 월 임대료 65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은 부 1단계, 모 4단계, 종교는 이슬람, 생활적응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 가족은 4명으로 경제활동인이 1명, 비경제활동인이 3명, 월수입은 180만원 상당, 임대료는 60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은 부 3단계, 모 5단계,

종교는 기독교, 생활적응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 가족은 7명으로 경제활동인이 1명, 비경제활동인이 6명, 월수입은 210만원 상당, 월 임대료는 60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은 부 2단계, 모 4단계, 종교는 불교, 생활적응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 가족은 6명으로 경제활동인은 1명, 비경제활동인이 5명, 월수입은 200만원 상당, 월임대료는 60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은 부 4단계, 모 3단계, 종교는 불교, 생활적응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표 3〉 재정착난민 기수별 경제활동 등 현황

구 분	가구명 (인원)	경제인수 (비경제인)	월수입 (임대료)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교	적응 정도
1기 (2015. 12. 23. 입국, 2016. 9. 29. 지역정착)	쿠*(8명)	5명(3명)	520만원(월 65만원)	부모 2단계, 자녀 5단계	불교/ 기독교	높음
	푸*(4명)	1명(3명)	220만원(월 30만원)	부모 5단계	불교	보통
	떼**(7명)	1명(6명)	210만원(월 40만원)	부모 2단계	기독교	보통
	나**(5명)	1명(4명)	210만원(월 40만원)	부모 5단계	기독교	높음
2기 (2016. 11. 2. 입국, 2017. 6. 9. 지역정착)	킨*(6명)	2명(4명)	400만원(월 40만원)	부모 및 성인자녀 2단계	불교	낮음
	짜****(4명)	1명(3명)	210만원(월 40만원)	부, 모 5단계 이수	기독교	높음
	명**(10명)	1명(9명)	220만원(월 40만원)	부 4단계, 모 1단계	불교	낮음
	아*(4명)	1명(3명)	170만원(월 40만원)	부 5단계 이수, 모 4단계	불교	높음
	예**(3명)	1명(2명)	200만원(월 30만원)	부 4단계, 모 5단계	불교	보통
	와**(5명)	2명(3명)	400만원(월 30만원)	부모 4단계	기독교	높음
	주*(6명)	3명(3명)	600만원(월 50만원)	부모 4단계	불교/ 기독교	보통
3기 (2017. 7. 25. 입국, 2018. 2. 27. 지역정착)	미*(7명)	1명(6명)	210만원(월 60만원)	부모 1단계	불교	낮음
	아**(6명)	2명(4명)	400만원(월 65만원)	부 1, 모 3단계	이슬람교	낮음
	에**(4명)	1명(3명)	180만원(월 60만원)	부 3단계, 모 5단계	기독교	높음
	파*(7명)	1명(6명)	210만원(월 60만원)	부 2단계, 모 4단계	불교	낮음
	파**(6명)	1명(5명)	200만원(월 60만원)	부 4단계, 모 3단계	불교	보통

출처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자료제공(2019. 9. 16)

### 3) 사례관리 대상자 구분

사례관리의 주요 목적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므로 16가정을 구분하여 일반관리 가정, 단기집중관리가정, 집중관리가정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일반가정의 경우는 스스로 적응성이 있어 일반적인 사례관리 외의 특별한 사례관리가 필요 없고, 단기집중관리가정은 단기적으로 시급한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으로 주로 자녀들의 진학, 단기 질병 가족 등 가정이 여기에 속하고, 지속 집중관리 가정은 가족 중 부적응자, 환자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총 16개 가정 중 일반관리 가정은 1기 3가정, 2기 4가정, 3기 2가정으로 총 9가정이 여기에 속했고, 단기집중관리 가정은 1기 1가정, 2기 2가정, 3기 3가정으로 6가정, 장기 집중관리 가정은 알콜중독 및 생활부적응자가 있는 가정을 말하며 2기 가정 중 1개 가정이 여기에 분류되었다.

〈표 4〉 재정착난민 사례관리 구분

구분	일반관리 가정	단기집중관리가정	장기 집중관리 가정	합 계
1기	3가정	1가정	-	4가정
2기	4가정	2가정	1가정	7가정
3기	2가정	3가정	-	5가정
합계	9가정	6가정	1가정	16가정

출처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자료제공(2019.9.16.)

### 4) 분야별 사례관례

#### (1) 경제적 지원

2019.1월 한국마사회 인천부평지사<sup>39)</sup>의 지원을 받아 삼산경찰서<sup>40)</sup>에서 재정착난민 부평공고에 재학중인 키\*\*와 부평여고에 재학 중인 에\*\* 2명에게 매월 10만원씩 10개월 간, 부평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에\*\*에게 30만원의 장학금을 제공 받도록 지원을 하였다. 2019. 7월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sup>41)</sup>의 지원으로 부평여고에 재학 중인 에\*에게 20만

39) 인천 부평구 장제로 54 소재한 단체로 수익금의 일부로 청소년 지원, 이민자아동 지원 등 후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기관이다.

40) 인천시 부평구 굴포로 104 경찰민원 콜센터 182 소재한 경찰관서로 한국마사회와 2019.5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민자 아동지원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어울림이끌림과 자매건연 기관임.

41)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03(십정동) 십정1동 주민센터 7층 소재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운영되



원씩 5개월 지급 및 인천생활예술고에 재학 중인 킨\*\*에 대한 장학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9.27. 한국마사회 부평지사의 지원으로 삼산경찰서로부터 440만원 상당의 재정착난민 아동 합창단 ‘하울림’ 단복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42)</sup>. 그리고 부적응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재정착난민들의 취업을 위한 상담을 5회 실시하고 부평구청 일자리지원센터<sup>43)</sup>와 연계를 하였으며, 인천선린교회 바자회와 2회 연계하여 64명이 참여하여 싼 가격의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각종 후원자들로 부터 지원을 받은 물품을 재정착난민 16가족에게 추석선물로 제공하였다.

## (2) 정서적 지원

정서적 지원으로는 2019. 4월 북한이탈주민 자녀 돕기를 위한 하울림 합창단 공연 및 5월 20일 제12회 세계인의 날 행사 축하공연<sup>44)</sup>을 지원하였으며, 5월 재정착난민 가족 25명 참석하여 반디 어린이도서관 숲체험 활동 지원<sup>45)</sup>, 2019. 8월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가족 청소년 22명이 참석하여 영화관람 지원하였다. 또한 춤에 취미 있는 청소년 6명을 선정하여 방송 댄스 동아리를 구성하여 2019.6~7월간 총 10회에 걸쳐 취미활동을 지원하였다.

## (3) 의료 지원

앞의 의료지원 정책 부분에서 기술한 1기 가족의 자녀 중 선천성 구순구개열<sup>46)</sup> 장애 아동 치료를 위해 인천 길병원과 연계하였고, 2기 중 알콜 중독자 T\*\*의 치료<sup>47)</sup>를 위해 한마음정신과의원, 부평구중독통합관리센터<sup>48)</sup>와 연계하여 원활한 치료를 진행하였다.

2018. 5. \*\*. 1기 재정착난민 F\*\*\* 가족의 딸 J\*\*이 선천성 구순구개열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으나 수술비용이 큰 문제

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회적협동조합 어울림이끌림과 업무 협약기관임.

42) 삼산경찰서(2019), 삼산서, 한국마사회 업무협약에 따른 어울림 사회적협동조합 후원, 2019.9.27.

[https://www.icpolice.go.kr/board/rg4\\_board/view.php?&bbs\\_code=ss004&bd\\_num=34487](https://www.icpolice.go.kr/board/rg4_board/view.php?&bbs_code=ss004&bd_num=34487).

43) 부평구청(2019), 부평구청 홈페이지, 구인네트워크, 2020.11.11. 검색

[https://www.icbp.go.kr/main/life/economy/work\\_worknet.jsp](https://www.icbp.go.kr/main/life/economy/work_worknet.jsp).

44)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2019), 세계인의 날, 모두 하나가 되어요, 2019. 5. 23.

<https://blog.naver.com/mlittlegrass/221545057121>

45) 어울림이끌림 홈페이지(2019), 반디어린이 숲체험 활동, 2019. 5. 24.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111](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111)

46) 위와 같은 자료.

47)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 자료 제공(2019).

48) 부평구 마장로 410번길 5 청천동 주민센터 3층 소재 알콜중독자 치료를 위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임.

이며, 수술은 성인이 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던 중 재정착난민아동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어울림이끌림 단체에 자진해서 시설지원을 하고자 방문한, 불우 아동 지원 국제단체인 플랜코리아<sup>49)</sup>에 이런 어려운 사실을 알렸고, 이 단체는 흔쾌히 ‘자신들의 단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난민아동을 돕는 것이 본연의 일이라고’ 하고,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영상 촬영 등 소정을 절차를 거친 후, 이 아동에 대한 수술비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3,000만원 상당을 모금한 후 전액을 이 아동에 대한 수술과 재정착난민 아동 교육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회적협동조합어울림이끌림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같은 해 이 아동은 1차 수술을 받았고, 외형상 많이 좋아져 부모와 재정착난민 이웃들이 많이 기뻐했다. 이것을 계기로 재정착난민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2019. 1. 28.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청장 안규석), 플랜코리아(대표 이상주) 및 사회적협동조합어울림이끌림(대표 이병철) 등 3개 기관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재정착 난민 2기 중 T\*\*(30세)은 2017. 6월부터 남동공단 내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주)P\*\*\*에 부모, 동생 등 4명이 함께 취업을 하였으나,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여 수시로 지각, 조퇴를 일삼으며, 근무 중 성실하지 못해 1개월여 만에 같은 직장으로로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 받고,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근하기를 희망을 하여, 회사 측과 협의 하고, 본인에게 직장의 규칙을 잘 지킬 것을 약속한 후 다시 출근하여 적응의 기회를 주었으나, 근무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아 회사근무에 적격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여 집에 머물면서 한국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부모로부터 용돈을 얻어 인근 마트에서 술을 구입해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다. 부모와 성인 동생이 모두 직장에 나가 평일 낮에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머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매주 토요일 오후 6시경, 멘토가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를 중심으로 멘토링을 진행 할 때에는 이미 만취가 되어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부모를 통해 추후 술을 절제하고 직장에 나갈 것과, 멘토링에 참여할 것을 강력이 권했으나 전혀 응하지 않게 되었다. 2018. 1월 인천출입국사회통합위원 중 교육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박\*\*를 활용하여 주 1회 총 5회기에 걸쳐 심리상담을 실시한 결과, 태국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회과목 교사 역할을 하며 보람 있는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정시에 출퇴근하면서 회사에 취업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일하

49) 플랜코리아 홈페이지(2019). 2019년 연간활동보고서, 2020. 11. 11. 검색  
<https://www.plankorea.or.kr/news/report>.

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하고,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부모에게 너무 죄송하고, 또한 술만 먹게 되어 취업을 하고 싶다고 호소하였다. 5회기에 걸쳐 실시한 심리상담 결과에 따라 술을 절제할 것과 직장생활을 잘 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2018. 7월, 정상 출퇴근 하는 직장보다 환경이 전혀 다른 자연과 함께하는 본 연구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에 있는 한 사과 과수원 농장을 소개하였다. 농장 첫 방문 때에는 부모와 어울림이끌림 관계자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는데, 본인 및 부모가 매우 만족해하였고, 본인은 거기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을 함에 따라, 과수원에서 술의 절제와 직장을 얻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된 것으로 당시 판단되었다. 그러나 농장 관계자에게 T\*\*의 근무 상태를 확인해 보니, 술을 어디서 구했는지 수시로 술을 먹고 늦잠을 자고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작업에 참여 한 때에는 작업 내용을 익히고, 지시에 응하고 해야 하나 극히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어도 잘 통하지 않아 과수원 근무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았다. 결국 1개월도 되지 않은 같은 해 7월말 부평 소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후 집에 혼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술을 먹게 되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 인천 요식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회통합위원 이\*\*의 추천으로 2019. 3.월 인천역 인근 생선구이식당에 취업하였으나, 매일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알코올 중독으로 의심으로 1주일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부평구청과 어울림이끌림의 경제적 도움으로 2019. 4. 23. 부평 한\*\*신경정신과 병원진료 결과 알코올중독 소견이 나왔으며, 5. 01. 같은 병원에 3개월 입원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입원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조현병 증상은 태국 난민캠프에서 우리나라의 마약으로 분류되는 약을 수시로 복용, 환청증상이 있었으며, 과거 10년 전부터 경험했던 이상한 증상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대상자는 퇴원 후에도 약복용을 꾸준히 하지 않았고 수시로 술을 마셨고, 현재까지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자는 재정착난민 1, 2, 3기 성인 중 한국사회 적응에 가장 부적응한 자이나, 아직 나이가 30세 정도로 젊고, 또한 잘 해보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 차츰 호전되어, 언젠가는 정상인으로 행복한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 (4) 자녀 학습 지원

2019.07~08.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인천북부교육지원청<sup>50)</sup>의 도움으로 초등학교 방학교실을 운영<sup>51)</sup>, 초등학교 19명이 참여한 한글교실, 체육, 미술, 수학, 물놀이, 영화관

5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53번길 35(부평동) 소재 부평구 관할 교육지원청임.

51) 어울림이끌림 홈페이지(2019). 여름방학교실, 2019.8.06.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15](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15)

람<sup>52)</sup> 등을 지원하였고, 같은 기간 중, 고등부 10명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인초청 미용, 요리, 제과 제빵 등 직업과 관련된 학습<sup>53)</sup>을 지원하였다. 또한 미디어 특강으로 '나도 유튜버' 2주간 운영, 학교 담임교사와 고교 진학 등 상담 등 학습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9.4~12월까지 부평구청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아동 12명이 참여하는 태권도 교실을 지원하였다.

### (5) 부모 교육 지원

부모들의 금융관련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금융전문가를 강사로 하여 '재무설계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길병원 외과의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 위생을 위한 청결 교육<sup>54)</sup>을 1회, 감정 코칭 교육 2회, 한국생활 적응하기 교육 1회 등 부모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였다.

### (6) 자원 연계

재정착난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장애인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을 위해 플랜코리아가 참여하였으며, 자녀들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한국마사회 부평지부와 삼산경찰서 및 부평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참여하였고, 바자회를 통해 값싼 생필품 구입을 위해 인천선린교회가 참여하였다.

### (7) 재학생 상담 사항

초, 중, 고등학생이 취학하고 있는 12개 학교에 상담실시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전체학생 38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19명 초등학생에 대한 상담결과로는 학생의 학생의 성향의 따라 교우관계 형성 및 교사 관심 높았고, 대체로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학교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대부분이 예체능 과목을 더 선호하며, 학교생활에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나 일부 무기한 학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중학생 9명에 대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학교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초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예체능과목

52) 어울림이끌림 홈페이지(2019). 여름방학영화관람, 2019.8.06.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13](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13).

53) 어울림이끌림 홈페이지(2019). 직업전문인초청, 2019.8.06.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12](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12).

54) 어울림이끌림 홈페이지(2019). 카렌족 부모 위생교육, 2019.8.06.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08](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08).

을 더 좋아하고 재능을 보이는 학생도 있으며, 교사들이 억압과 차별의 학교 폭력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10명에 대한 상담 내용을 살펴 보면, 대체로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학교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우관계가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편은 아니며, 대부분 진학 및 진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재정착난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으로써,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아동 교육과 교사 및 학생자원봉사자 연계 등을 위한 교육지원청, 생활관련 정보제공과 재정적 지원을 위한 부평구청, 장학금 지원을 위한 삼산경찰서 등의 기관이 재정착난민의 정착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유관기관으로써는 다문화프로그램 연계 및 정보제공을 위해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정서지원사업을 위해 인천청소년협의체, 경제적 지원 및 상호 정보공유를 위해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시설 제공을 위한 북부교육문화회관, 장학금 지원과 합창단 지원을 위한 한국마사회 인천부평지사, 생활도움을 주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로서는 장애아동 치료비와 사례관리사업비 지원을 위한 국제구호개발 NGO플랜코리아가 참여하고 있다.

#### (9) 사례관리 실적

##### 가) 방문상담

사례관리자가 난민 16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생활환경을 살피고,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각 가정을 월 1회 방문하는 것으로 총 160회 방문을 목표로 하여 실시한 결과, 목표 방문회수인 160회를 훨씬 상회하는 총 403회를 방문하고 생활환경과 적응 상태를 살폈다.

##### 나) 전화 상담

방문상담과 병행하여 매주 1회 16개 가정에 전화로 어려움을 찾아내고 도움 요청사항을 파악하고자 총 640회의 목표를 세웠으며, 실제 860회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다.

##### 다) 하울립 합창단

재정착난민 아동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시작한 합창단 연습은 매주 1회 총 41회로 계획

을 하였고, 계획에 맞게 41회 연습을 하였고, 정기발표회 1회<sup>55)</sup>와 5회의 공연발표회<sup>56)</sup>를 가졌다

라)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중도입국청소년 한글 및 영어 교육으로 주 3회, 총 120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총 108회 시행되었다.<sup>57)</sup> 방학교실로서는 여름과 겨울에 4주 16일 실시할 것을 계획하여 목표와 같이 시행하였다.<sup>58)</sup> 다문화 과학반은 주1회 총 40회 계획을 하였고, 총 30회 시행하였다.<sup>59)</sup> 또한 미안마 카렌어학당 교실을 주1회 총 41회 계획하고 실제 32회 실시하였다.<sup>60)</sup>

마) 정착지원 프로그램

정착지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sup>61)</sup>를 년 1회 계획하고 부평구청 강당에서 실제로 1회 실시하였고, 멘토, 멘티 화합의 날을 년 1회 계획하고 상정고등학교에서 실제 1회 실시하였고, 한가위 날 대잔치를 년 1회 계획하고 실제 어울림이끌림 사무실 인근 야외 근린공원에서 1회 실시하였다.

바) 사례관리 자문회의 개최<sup>62)</sup>

재정착난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의 바람직한 진행을 위해 인천대학교 교수,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기관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상, 하반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실제 년 2회 개최하였다.

---

55) 어울림이끌림 홈페이지(2019), 하울림합창단 제2회 연주회, 2019.10.17.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88](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88).

56) 어울림이끌림 홈페이지(2019), 2019 인천합창대축제, 2019.9.18.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45](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45).

57) 어울림이끌림 홈페이지(2019), 재정착난민 청소년 영어수업, 2019.04.17.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8&document\\_srl=5021](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8&document_srl=5021).

58) 어울림이끌림 홈페이지(2019), 여름방학교실, 2019.8.06.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15](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15).

59) 어울림이끌림 홈페이지(2019), 과학 멘토링 수업, 2019.9.17.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37](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37).

60) 어울림이끌림 홈페이지(2018), 카렌어 학당 수업, 2018.12.30.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10&document\\_srl=4817](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10&document_srl=4817).

61) 어울림이끌림 홈페이지(2019),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2019.9.17.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33](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33).

62) 어울림이끌림 홈페이지(2019), 재정착난민 사례관리 자문회의, 2019.4.16.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9&document\\_srl=4999](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9&document_srl=4999).

〈표 5〉 재정착난민 사례관리 실적

프로그램명	운영방식		비고	
	내용	횟수		
		목표		실적
방문상담	사례관리자가 난민 16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생활환경을 살피며 어려움을 알아봄.	월1회 / 년160회	403건	
전화상담	매주 전화 방문을 통해 대상자들의 생활 및 적응상황을 확인함.	주1회/년640회	860건	
하울림 합창단	대상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합창을 통한 정서지원을 실시함. 정기발표회 : 년 1회 네트워크 공연 : 년 5회	주1회/년 41회	41회	장소: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도입국청소년 한글, 영어교육	주3회/년120회	주3회/년108회	강사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
	방학교실(어름,겨울)	4주/16일	4주/16일	
	다문화 학생 과학반	주1회/년40회	30회	
	미안마 카렌어학당	주1회/년41회	32회	
정착지원 프로그램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년1회	1회	부평구청 강당
	멘토, 멘티 화합의 날	년1회	1회	상정고등학교
	재정착 난민 한가위 대잔치	년1회	2회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자문위원회 구성	지역사회 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례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얻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년2회	2회	수시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

출처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자료제공(2019.9.16.)

### Ⅲ. 결론

#### 1. 사례관리 정책 평가

2016년 10월부터 부평지역에 순차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재정착난민 1,2,3기 16가족 86명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으로 생활멘토를 중심으로 각 가정별 멘토링을 진행해 왔으

나, 이들 전체 세대를 동일 관점에서 일정기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살펴 볼 수가 없고, 단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멀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세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지원정책으로 진행이 되어 오던 것을 2019년 1년간 사례관리 정책을 계기로 16가정 86명(6명 실행아 출생 92명)에 대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었고, 가정별 현황 정리와 문제점 파악 및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개입을 통한 다양한 문제들의 최소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사례관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례관리사 2명은 기존 2년 이상 활동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생활 멘토와 협업하고, 그간의 활동 기록은 서로 밴드를 통해 공유하고, 단독방을 통해 함께 소통하면서 각 세대에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소 흩어져서 각각 지원을 하던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집약성 있는 사례관리를 통해 통일성을 가지고 견고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으며, 특히 전체 학생들 및 담임 교사들과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현재 상태와 이들에 대한 장래에 대한 진학지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사례관리 진행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현직교사들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재정착난민들의 3년 정착 시점에서 비록 1년간 사례관리 정책을 통해 대부분은 원활하게 잘 정착을 하고 있었으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작은 문제점이 더 많이 발견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착의 장애 요인으로 발견된 큰 문제점으로 구분되는 선천적 장애인 출생 및 후천적 신체장애 소지자 문제,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 문제, 직장 부적응자 문제, 고교 입학 및 졸업에 따른 향후 진로 지도 문제, 다출산에 따른 가족계획 문제, 통합정책에 따른 정체성 문제, 시혜적 지원정책에 따른 자립심 상실 문제 등 중에서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 문제, 직장 부적응자 문제, 시혜적 지원정책에 따른 자립심 교정 등 문제는 하루아침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라고 보기가 힘들다.

## 2. 사례관리 이후 발전 방안

사례관리 정책이 예산의 한계로 인해 2019년 1년간 진행되었고, 또한 각 가정별 활동했던 생활 멘토의 활동도 출입국외국인청의 계획에 의해 만 2년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정착 초기에 불과한 재정착난민들에 대한 멘토링을 대체할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 문제, 직장 부적응자 문제, 시혜적 지원정책에 따른 자립심 교정 문제, 특히 자녀들의 학습 및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지



속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은 사회적응이 성인들에 비해 빠르지만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응의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년간의 사례관리 정책으로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부, 지자체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 중 1년이란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향후 3년에서 5년 또는 10년에 걸쳐 관찰하고 꾸준히 해결책 모색해야 하는 난제도 발견되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 첫째, 각 사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소요 기간에 따른 체계적인 사례관리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방법을 동비하고, 셋째, 문제 사안의 해결에 수단되는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국제가톨릭이주위원회(ICMC)(2013). Welcome to Europe: A Comprehensive Guide to Resettlement.
- 나오코 오비(Naoko Obi)(2017). Senior Officer. 유엔난민기구. 2017.12
- 법무부(2017a). 2017년 재정착실무협의체 회의자료. 기관별 주요역할. 2017.3.27.
- \_\_\_\_\_ (2017b).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자료 제공.
- \_\_\_\_\_ (2018a).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보도자료. 2018.6.29.
- \_\_\_\_\_ (2018b). 2018년 제1차 '재정착실무협의체' 회의자료. 2018.1.12.
- \_\_\_\_\_ (2019). 인천출입국외국청 면담 자료. 2019.9.16./18/20
- \_\_\_\_\_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통계 현황. 2020.4.
- 이호택(2018). 2018 재정착난민 정착실태 점검의 위한 사례조사연구, 2018.11
- 장복희(2009).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 UNHCR(2018). UNHCR 연례보고서
- 국제뉴스(2016).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안복지재단어울림이끌림과 MOU, 2016.11.22.  
<http://www.guk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247>
-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2019). 세계인의 날, 모두 하나가 되어요, 2019.5.23.  
<https://blog.naver.com/mlittlegrass/221545057121>
- 부평구청(2019). 부평구청 홈페이지, 구인네트워크, 2020.11.11. 검색  
[https://www.icbp.go.kr/main/life/economy/work\\_worknet.jsp](https://www.icbp.go.kr/main/life/economy/work_worknet.jsp)
- 삼산경찰서(2019). 삼산서, 한국마사회 업무협약에 따른 어울림 사회적협동조합 후원, 2019.9.27.  
[https://www.icpolice.go.kr/board/rg4\\_board/view.php?&bbs\\_code=ss004&bd\\_num=34487](https://www.icpolice.go.kr/board/rg4_board/view.php?&bbs_code=ss004&bd_num=34487)
- 어울림이끌림 홈페이지(2018), 카렌어 학당 수업, 2018.12.30.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10&document\\_srl=4817](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10&document_srl=4817)
- \_\_\_\_\_ (2019), 재정착난민 사례관리 자문회의, 2019.4.16.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9&document\\_srl=4999](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9&document_srl=4999)
- \_\_\_\_\_ (2019), 재정착난민 청소년 영어수업, 2019.04.17.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8&document\\_srl=5021](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8&document_srl=5021)

- 
- (2019), 반디어린이 숲체험 활동, 2019. 5. 24.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111](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111)
- 
- (2019), 카렌족 부모 위생교육, 2019.8.6.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08](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08)
- 
- (2019), 직업전문인초청, 2019.8.6.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12](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12)
- 
- (2019), 여름방학영화관람, 2019.8.6.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13](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13)
- 
- (2019), 여름방학교실, 2019.8.6.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15](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5&document_srl=5315)
- 
- (2019),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2019.9.17.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33](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33)
- 
- (2019), 과학 멘토링 수업, 2019.9.17.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37](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37)
- 
- (2019), 2019 인천합창대축제, 2019.9.18.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45](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45)
- 
- (2019), 하울림합창단 제2회 연주회, 2019.10.17.  
[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88](http://auliklim.cafe24.com/xe/index.php?mid=board_IUMu42&page=4&document_srl=5388)
- 연합뉴스(2019). 플랜코리아, 재정착난민 지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2019.1.29.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9140600848?input=1195m>
- 위키백과. 아랍의 봄, 2020.11.11.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9E%8D%EC%9D%98\\_%EB%B4%84](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9E%8D%EC%9D%98_%EB%B4%84)
- 플랜코리아 홈페이지(2019). 2019년 연간활동보고서, 2020.11.11. 검색  
<https://www.plankorea.or.kr/news/report>
- SBS 뉴스 리포트(2018). 피와눈물의 로힝야족 역사, 2018.11.15.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2913572676398>

SBS 뉴스(2018). 학살침묵 아웅산수치 인권상 박탈... 피와눈물의 로힝야족 역사, 2018. 11. 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18580&plink=ORI&cooper=DAUM](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18580&plink=ORI&cooper=DAUM)

〈ABSTRACT〉

## A Consideration of a Case Study Policy on the Resettlement Refugees in Korea

CHAE, BOGEUN

It has housed 86 people from 16 families and settled in the local community three times from 2015 to 2017. For three years since its settlement, the government has worked with local governments and NGOs to implement support polici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housing, jobs, health care, medical care, education and children's education, for early settlement of Korean history. Among them, however, obstacles to self-reliance have continuously occurred, such as birth and acquired physical disabilities, alcohol addiction due to maladjustment in society, maladjustment in workplace, future career guidance problems due to high school admissions and graduation, family planning problems due to multiple births, identity problems caused by integrated policies, and loss of self-reliance due to the policy. Therefore, as a way to fin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we implemented a case management policy for all resettlement refugees during the one-year period of 2019.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iscuss this case management policy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s follows. Although the one-year case management policy has found many of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has helped to solve them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t has also found that one of the problems mentioned in the agenda cannot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at it must be observed over the next three to five or 10 years and steadily sought solutions. The first solution to this problem. Who is needed to resolve each issue? A systematic case management plan is established over time and secondly, a professional case manager exclusively responsible for case management is employed so that the problem can be solved by continuous observation as an expert. Thirdly, establishing the necessary budget according to the issue seems to be an important factor.

### Key words

Resettlement Refugees, Case Management, Problems, Support Policies

논문 투고일	2020. 10. 18
논문 심사일	2020. 11. 06
게재 확정일	2020. 11. 06

# 내·외국인 학생의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에 관한 소고\*

조위수\*\* · 한강우\*\*\*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탄뎀 학습을 지역 사회로 확산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탄뎀 학습과 캡스톤 디자인을 접목한 수업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도입 20여 년의 탄뎀 학습을 보다 정교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어 이외의 다양한 전공으로 탄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다문화 교육을 전공하는 내국인과 국제학부 한국어문화교육트랙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공 간 탄뎀 학습을 시도하였다. 수업 설계를 위해 탄뎀 학습과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B대학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지역사회의 공조 체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B대학이 부산시와 진행 중인 다문화동백 사업(다문화이해교육 서포터스, 한국어 표준 발음 클리닉)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수업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은 내·외국인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과 개발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본 연구의 수업 모형은 실제 현장에서 운영해 보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탄뎀 학습의 확장형 모델 개발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역사회 연계, 탄뎀, 캡스톤 디자인, 한국어다문화교육, 다문화동백 사업

\* 이 논문은 2020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1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 교신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 I. 서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한 이론 지식을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교육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던 수업이 교실 밖으로 확장되고 학문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 수업이 늘어나며,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같은 측면에서 한순희(2018)에서는 대학 교육과정이 내용 지식에서 역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한다.<sup>1)</sup> 이는 언어로 명시된 지식, 정보의 전달보다는 역량, 성과, 실제적 적합성을 갖는 지식,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 습득을 더 강조함을 뜻한다.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대학교육은 현실사회가 당면하는 현장적 삶의 문제에 좀 더 깊숙이 개입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현실사회를 선택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정용교, 2018). 그 한 예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증가하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 과제를 실시하여 대학에서 일정 부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산·학·관·민이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모델이 제시될 수 있었다.

현장 중심의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에서도 도입·적용될 필요가 있다. 박은숙(2019)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선택이 인문 계열(12.5%) 중심에서 사회 계열(42.3%)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전공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언어 능력+전문성’ 함양을 지향하는 쪽으로 유학생들의 사고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팀을 이루어 지역사회의 현안과 과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수업 운영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 사회 학령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떠오름과 동시에 전공 수업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내국인 중심의 학부에 자리한 소수의 외국인은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도 벅차, 내·외국인 팀을 이루어 과업을 성취해 가는 일은 내국인 학생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교육을 담당하는 각 교육기관에서는 보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 방법과 수업 활동을 고안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

1) NCS(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국가직무표준) 기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기초 능력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와 수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의 총 10개 영역에 걸쳐 있다(김혜영 외, 2019).



수업에서 유학생들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학생이 적극적으로 내국인 학생과 교류하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활발하게 교류하며 교육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탄뎀 학습(Tandem learning)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 운영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sup>2)</sup>

## II. 수업 운영을 위한 고찰

### 1.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실천

김태현 외(2015)에서는 대학 자체가 교육, 연구, 봉사라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설립된 기관인데다 전문지식을 가진 풍부한 인적 자원, 경제적 자원 등 지역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는 연계 교육 방안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부 등 정부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를 유도한다.

실제로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프레임을 경쟁 구도에서 공유·협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교육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발표, 2020.9.9). 이에 따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지표에 ‘지역사회 협력기여, 타 대학과의 연계·협력’ 실적이 포함된다. 특히 지역 대학의 공유·협력 촉진 차원에서 2020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이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참여 플랫폼 3개를 선정할 데 이어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20). 이는 대학과 지역의 연계 교육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2) 탄뎀 학습은 유럽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로는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 중에 있다. 탄뎀 학습에서는 서로 다른 모어 화자 두 명이 상대방의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상대방의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인 동시에 상대방의 학습을 도와주는 교수자의 역할을 맡는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은 탄뎀 활동을 통해 모어 화자와의 의사소통 기회를 획득함으로써 말하기 기술 향상과 외국어 구사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모델은 정용교(2018)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독일 고등교육의 상황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교육은 대학생들이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턴십과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정과 취업 역량을 기르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 측면에서 한국 사회도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교육 실천을 위해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탄뎀 학습과 캡스톤 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내·외국인의 자발적 학습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탄뎀 학습(Tandem learning)을 실무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 함양에 초점을 둔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과 연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연구의 중심 이론이 되는 탄뎀 학습과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탄뎀 학습

‘Tandem’은 1968년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어로 ‘둘이 타는 자전거’를 뜻하는 탄뎀은 두 사람 이상의 협력 관계, 협동을 뜻하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활동 수행을 위해 서로 다른 모국어 학습자 두 명이 있어야 한다. 탄뎀 학습은 이들이 상대방의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마치 2인용 자전거를 타듯이, 2인 1조의 팀을 구성하여 상대방의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인 동시에 상대방의 학습을 도와주는 교수자의 역할도 함께하는 자기 주도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이다.

이러한 탄뎀 학습은 언어와 문화 학습, 그리고 민간외교 차원의 국제교류가 함께 융합된 것으로 교육학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 주도로 상호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는 수업의 주도권이 학생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획일화된 교재 없이 학습자가 학습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황에 맞는 학습 자료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 수업의 목표가 단순히 언어 학습의 차원을 넘어 이(異)문화 간의 이해까지 높일 수 있다. 이 밖에도 탄뎀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 언어의 모국어 화자와 사귀게 되고 강의실 이외의 장소와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은 탄뎀 학습만이 가지는 장점일 것이다. 어떠한 교수법도 개인차가 다양한 학습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학습자의 선택과 결정에 기반한 탄뎀 학습은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고취할 수 있

는 것이다.

국내·외 탄뎀 관련 연구에서는 탄뎀 학습을 통해 말하기의 유창성 향상(Pemberton & Kassten, 1999), 참여자의 학습 동기 부여 및 상호 문화 이해(Son & O'Neill, 1999; 진광호, 2010; 서상범, 2011), 학습자의 효율성 지각과 언어 능력 향상(Lee & Song, 2009), 성공적인 상호 작용과 학습 증진(Lee, 2010; 나복순 외, 2010) 등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 효과에도 불구하고 탄뎀 학습이 목표 언어 학습에 반드시 성공적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탄뎀 학습은 파트너 조합의 문제, 평가 방법, 수업의 질적 측면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국내 도입 20여 년의 탄뎀 학습을 보다 정교화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서상범(2011)의 논의와 같이 체험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는 문제기반학습(PBL)과의 접목 등 새로운 형태의 탄뎀 학습 모델이 필요하다. 근래에는 플립 러닝(양춘기, 2016; 김미승, 2018), 서비스러닝(이효영, 2018) 등과 연계한 탄뎀 수업에 대한 사례가 발표됨으로써, 탄뎀 학습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형 캡스톤 디자인을 탄뎀 학습에 적용함으로써 확장형 탄뎀 모델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내국인과 외국인의 파트너 조합에 중점을 둘 것이다. 탄뎀 학습은 목표 언어 학습자와 원어민 화자 간 짝을 이루어 진행되는 활동이어서 파트너의 조합에 따라 말하기 능력 관점에서 상호작용 활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목표 언어 모어 화자의 개인별 능력, 파트너 간 친밀도, 언어학습 욕구와 대화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도 등에 따라 원어민 화자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손양현(2017)에서는 탄뎀 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전문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닌 일반 학생이어서 문법, 발음, 어휘, 억양 등의 올바른 사용은 물론 상황적 맥락과 분위기 등에 맞는 어휘어투 선택 등의 관련 학습에 대한 지도·교습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전공하는 내국인들과 사회계열 전공 외국인 유학생들이 팀을 이루는 수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sup>3)</sup>

## 2) 캡스톤 디자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의 공학교육이 복잡한 현대기술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

3)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 중심의 한국어문화학부(한국어교육트랙, 다문화교육트랙)와 외국인 중심의 국제학부(한국어문화교육트랙)의 탄뎀 수업 모형을 논의할 것이다. 본문의 '한국어·다문화 교육'에서 '한국어'는 한국어문화학부의 한국어교육과 국제학부의 한국어문화교육을 중의적으로 나타낸 것임을 밝힌다.

한 이론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관련 분야의 교육은 이전의 이론 교육에 더하여 산업현장에서 유용한 실무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Dutson, Todd, Magleby & Sorensen, 1997; 김인영, 2017:445 재인용).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은 기업이나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문제, 활동 등을 학습자에게 교육 과제로 제시하면 학습자는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협력과정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학 교육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sup>4)</sup> 문제 해결 대상자는 개인이나 팀이 되며 지도교사, 문제 해결을 요구한 기업, 실무자와도 협력할 수 있다. 캡스톤 디자인은 학습자의 실제적 문제 해결, 팀워크, 자율성, 자기주도성, 자기관리, 효능감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Thomas, 2000; 한순희, 2018: 8 재인용).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실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효과적이므로 공학계열에서 시작한 후로 인문, 어학, 예체능 분야에서도 적용을 넓혀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다문화 전공자들이 전공 영역에서 실천적이고 자발적인 형태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캡스톤 디자인을 인문·사회 계열 수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캡스톤 디자인 적용 수업에서 학습자는 교육의 중심이 되어 교수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균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산학협력의 한 유형으로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사회가 요구하는 사안을 연구하는 캡스톤 디자인은 한국어·다문화 교육 전공자들이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전공 영역을 특성화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캡스톤 디자인은 학습자의 학습동기, 태도, 효능감 등 정의적인 영역을 중시하고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높일 수 있으므로 소극적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 유형에는 대학과 사회의 연계 교육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연계형을 비롯하여 경영, 제품,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도출하는 기업 연계형, 여러 학문 전공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학제 융복합형,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3D 프린팅,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혁명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창의혁신형 등이 있다(서연화·심현애, 2016). 본 연구에서는 내·외국인 학생들이 지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지원하는 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가운데 학습동기 등 정의적인 영역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의 전공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형 캡스톤 디자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4) 캡스톤 디자인은 공학 계열의 학생에게 졸업 논문을 쓰게 하는 대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작품을 기획·설계·제작하게 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과정(표준국어대사전, 1999)으로, 최근에는 인문사회 계열의 교육과정에도 적극 반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형은 지역사회, 기관, 비영리기구가 참여하여 학습자와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서연화·심현애, 2016),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역 사회 구성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이를 통해 봉사 정신과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고, 학문적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과업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여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다.

2.2절에서는 탄뎀 학습과 캡스톤 디자인의 개념과 주요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탄뎀 학습과 캡스톤 디자인은 학생, 혹은 관련자가 팀을 이루어 과업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상호 교류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두 학습 방법의 차이점을 꼽으면 탄뎀 학습은 서로 다른 모어 화자가 팀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활동 과정에서 상호 언어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캡스톤 디자인의 경우는 참여자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현안과 과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자율성과 상호 교류를 기본 토대로 탄뎀 학습과 캡스톤 디자인의 주요 특성을 반영하여 수업을 운영한다면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전공 실무 역량, 문제해결 능력, 협업 정신, 봉사 정신 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맞이하는 지역사회의 기관에서도 하나의 동력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대학과 기관이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성장해 가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Ⅲ. 내·외국인 학생의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의 구성

#### 1.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

여기서는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부산 지역 한 대학의 사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B대학의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사업은 2015년 7월 북한이탈주민의 발음, 억양 교육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자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 지방대학특성화 사업(CK-1)의 지원을 받아 B대학 내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이 구성되면서 지역의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sup>5)</sup>

조완철·조위수(2018)에 의하면 B대학에서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이스트레이

5) B대학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은 2014년에 시작하여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이 마무리되는 2019년까지 운영되었다.

닝 프로그램은 시청, 하나센터, 경찰서,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재단 등 총 6개의 기관이 MOU를 체결한 후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존중하면서 성과와 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상호간 협력(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의 모습을 보여 준다. 다음은 제3차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 기관별 담당 업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제3차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기관별 담당 업무

기관	담당 업무
학 (B대학)	교육과정 설계와 관리 주강사와 보조강사 선발 및 파견
산 (S희망재단)	사업비 지원 취업 관련 정보 제공
관 (K경찰서)	대상자 모집과 관리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민 (K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관리 대상자 모집과 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사후 관리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제3차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사업은 B대학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담당할 주 강사와 보조 강사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K종합사회복지관이 K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를 모집·관리하고,<sup>6)</sup>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다. 제3차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사업은 산·학·관·민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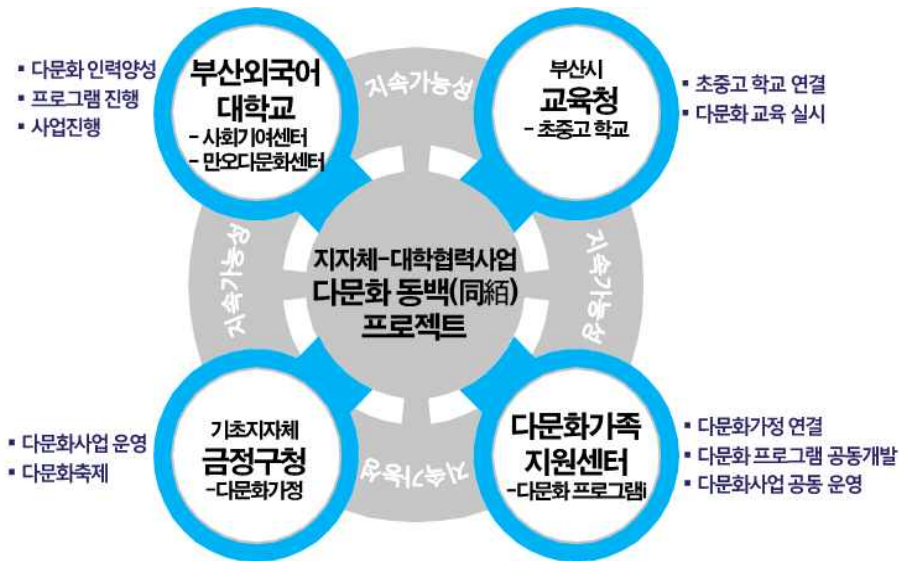
또한 B대학의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사업은 2015년 10월부터 대학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해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초·중등학교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자녀와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발음·역양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서는 발음·역양 전문 강사와 더불어 학습자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B대학 소속 학생들이 보조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보조 강사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소통하며 다문화 수용 능력을 함양하게 되고, 이들의 언어 학습에 도움을 준다.<sup>7)</sup>

2020년 B대학은 지역사회와의 다문화 연계 활동을 보다 본격화하기 위해 만오다문화

6) K경찰서 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담당관들의 지원을 받아 대상자 모집과 관리가 이루어졌다.

7) 보조강사 선발은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이 운영되는 시기에는 사업단에서 선발·파견 절차를 밟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회기여센터에서 선발·파견하고 있다. 파견 학생은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수료한 후 현장에 투입된다.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다문화간담회,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멘토링,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오다문화센터에서 진행 중인 다문화동백 프로젝트의 일부 사업을 활용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동백 프로젝트는 2020년 부산시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사업>으로 부산지역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시·대학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지원한다.<sup>8)</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내·외국인 학생의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을 구성하는 데 적합한 사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이 사업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의 구성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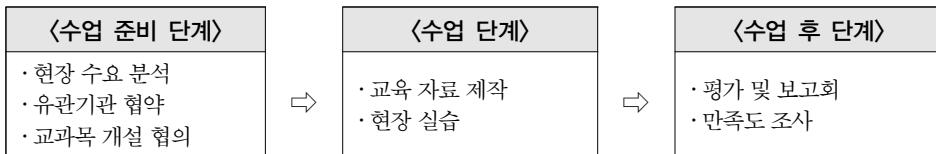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동백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 체계

B대학은 지방특성화사업이 시작된 2014년 이후 매년 2회 이상 다문화 분야의 유관기관 사회공헌 자문위원회(산학관협의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협력과 공헌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이러한 협조 체계는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8) 다문화사업에 '同緝'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부산 지역에서 '동백'이라는 의미가 남다른 때문이다. 동백꽃은 부산의 시화이고, 부산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도 '동백전'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 2.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 운영 절차

이 연구에서는 내·외국인 학생들이 언어 교육에서 나아가 전공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확장형 탄뎀 학습의 모델을 보여 주고자 지역사회 연계형 캡스톤 디자인을 연계한다. 그리고 탄뎀 학습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된 탄뎀 파트너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어·다문화교육 내국인 전공생과 한국어문화교육을 전공하는 유학생 간 탄뎀형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구성해 보기로 한다.<sup>9)</sup> 본 수업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업 준비 단계>, <수업 단계>, <수업 후 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2] 내·외국인 학생의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 운영 절차

### 1) 수업 준비 단계

대학에서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본 연구자가 참여한 협의회에서 유관기관의 요구 사항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sup>10)</sup>

<표 2> 유관기관 수요 분석

기관	날짜	내용
G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018.04.02 2019.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초중고 및 아동센터 다문화이해교육 필요</li> <li>· 내국인, 외국인 학생 보조강사 파견 요청</li> <li>· 다문화이해교육자료 개발 필요</li> </ul>

9) B대학은 학부생의 전공 실무능력 함양을 위하여 3학년 2학기과 4학년 1학기에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국어·다문화교육과 국제학부 한국어문화교육트랙의 전공 간 탄뎀형 캡스톤 디자인은 개설된 적이 없음을 밝혀 둔다.

10) 본 연구자는 2014년부터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 실무위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며 지역의 다문화·탈북 유관기관과 교류해 오고 있다. <표 2>의 수요 분석은 부산 OO구 다문화유관기관협의회(2018 1/4분기, 2019 3/4분기), 부산O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2020 1/4분기), B교육청-B대학 부산지역 초중고 파견 보이스트레이닝 예비 모임(2020 하반기), 남북협력기획단-G종합사회복지관-B대학 북한이탈주민 표준어 교실 준비 모임(2020 하반기)에서 언급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옮긴 것이다.



기관	날짜	내용
B여성회관	2020.01.19	·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협조 · 결혼이민자 대상 보이스트레이닝 협업 요청
B교육청	2020.08.19	· 초·중고 학교에 훈련된 보조강사 파견 요청 · 멘토링 사업 요청(내국인 학업 도우미, 외국인 엄마 나라 언어 학습)
남북협력기획단, G종합사회복지관	2020.07.01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도 보이스 프로그램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 ·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강사 역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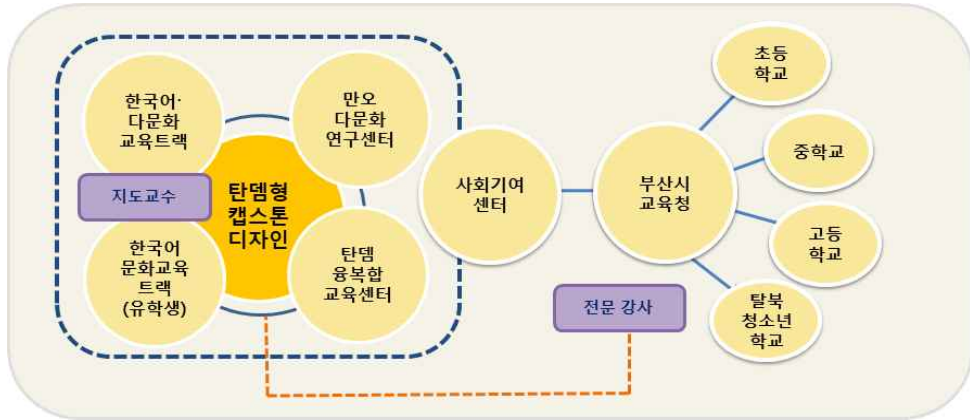
지역사회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선(先)주민의 다문화 수용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1)</sup> 또한 대상자 맞춤형 수업 운영을 위해 다문화이해교육, 이중언어교육, 보이스트레이닝 비대면 교육 콘텐츠 등의 교육 자료 개발과 훈련된 보조강사 파견 요청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1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동백 프로젝트의 일부를 내·외국인 학생의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에 응용해 보기로 한다.<sup>12)</sup> 본 연구에서 다문화동백 프로젝트를 수업에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문화동백사업에는 2015년부터 노하우가 축적된 보이스트레이닝(한국어 표준 발음 클리닉) 사업을 비롯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다문화동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협업 사례가 축적되어 있다.
- 다문화동백 프로젝트는 다문화 사회 공헌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 통합 공동체 가치 구현 및 대학-지역사회 상생·협력 기반 글로벌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되어, 본 연구가 추구하는 수업의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이 수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유관기관 협약과 더불어 학부 간 합의를 비롯하여 교내 만오다문화센터 및 사회기여센터, 탄뎀융복합교육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은 지역사회 연계 수업 운영을 위한 교내·외 협력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11) 여기서 선주민은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구분하고자 하는 용어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일반 주민을 의미한다.  
12) 다문화동백 사업은 대학, 기초지자체, 초·중등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다문화 교육지원사업과 다문화문화공유사업을 진행한다. 다문화 교육지원사업에는 초·중고 다문화교육지원, 다문화가정 학습 도우미, 한국어 표준 발음 클리닉이 있고, 다문화 문화공유사업에는 다문화축제, 다문화 시민강좌 등이 포함된다.



[그림 3] 지역사회 연계 탄뎀형 캡스톤 디자인 교내·외 협력 체계

## 2) 수업 단계

지역의 유관 기관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사회적 갈등과 문화 충돌을 막기 위하여 한국 사회 선주민들의 다문화 수용력이 함양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토대로 내·외국인 학생의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교내·외 기관 협의 후 탄뎀형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 개설되면 수강생을 대상으로 본 수업의 진행 방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강좌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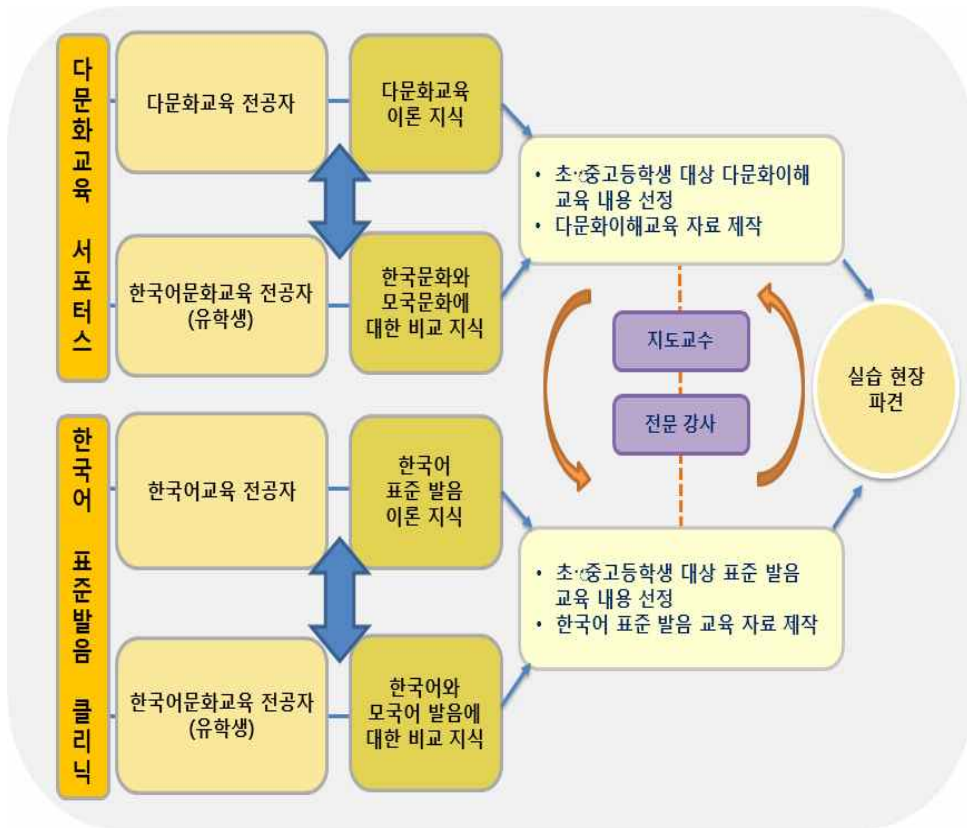
본 강좌는 한국어·다문화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은 정해진 프로젝트를 팀 단위로 수행하게 된다. 수강생들은 대상자를 고려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과 한국어 표준 발음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스스로 개발하고, 다문화 교육 현장에 파견되어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이 수업은 강좌의 개요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내·외국인 학생이 보조강사로 파견될 기관에서 사용하게 될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활동과 현장 실습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본 수업에서는 한국어·다문화 전공 학생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데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다문화동백 프로젝트에서 대학생이 보조 강사로 파견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다문화 교육 서포터스, 한국어 표준 발음 클리닉 등이 있다. 다문화교육 서포터스 사업은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타문화 존중의 의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sup>13)</sup> 이 사업에서는 전문 강사와 더불어 다문화교육 내·외국인 서포터스가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어 표준 발음 클리닉은 지역 다문화 구성원(다문화가정자녀, 중도입국자녀, 탈북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발음·억양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내·외국인 학생을 서포터스로 활용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 설계가 가능하다.

다음은 다문화·한국어교육 탄뎀형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내·외국인 학생의 상호학습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다문화 · 한국어교육 탄뎀형 캡스톤 디자인 상호학습 내용

13) 상호문화교육은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토대 위에서 다른 문화권의 인간과 그들의 가치관, 삶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고와 태도로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정기섭 역, 2014: 5).

내·외국인 학생은 다문화 이해 교육 및 다문화 가족 대상 발음·억양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다문화교육 전공생과 한국어문화교육 전공 유학생의 탄뎀형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는 다문화교육 서포터스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전공생과 한국어문화교육 전공 유학생의 탄뎀형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는 한국어 표준 발음 클리닉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본 수업에서 내국인 학생들은 실제 한국어 학습자를 접해 봄으로써 한국어·다문화 전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공자에게서 한국어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탄뎀 학습에서 문제로 드러난 파트너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내·외국인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가운데 서로에게서 전문적인 영역을 학습하고, 실습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교육 자료를 개발하게 된다. 교육 자료의 내용은 대상자의 모어, 연령, 한국어 숙달도 수준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제작될 것이다. 학생들이 만든 교육 자료는 지도 교수와 현장 전문 강사의 의견과 피드백을 통해 더욱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교육 자료가 완성되면 수강생들의 현장 실습을 진행한다. 현장 실습은 사회기여센터의 서포터스(보조강사) 파견 형식으로 운영되고, 실습 기간과 운영 방식은 B교육청과 만오다문화센터가 협의한 내용에 따른다. 현장 실습의 경우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팀이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수강생들이 실습의 전 과정을 실습 일지에 작성하도록 한다. 내·외국인 학생들은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표준 발음과 억양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공 실무역량뿐만 아니라 협업과 봉사 정신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하며 선주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돕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의적인 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 3) 수업 후 단계

<수업 후 단계>에서는 내·외국인 수강생과 교육 현장의 실습 대상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향후 수업에 환류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의 예이다.

2017-1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가장군 북만달피 교정 아카데미) 수강자 만족도 조사					
○ 일정 : 2017. 04.15. - 07. 15.			○ 장소 : <u>가장군</u> 종합사회복지관		
성 별	남 / <u>0</u> / 여	남한 거주 기간	<u>9</u>		
○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강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유익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보조강사의 역할에 만족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이번 특강으로 남한에서 사용하는 표준어 억양과 발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특강의 시간과 장소, 기타 시설에 만족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향후 다른 프로그램이나 행사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6.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개설되거나 개설했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u>이제 더 많은 외국인 수업</u>					
7. 이번 특강에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 개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u>생생적이야 하면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하면 보조강사도 함께 강사라고 해서 더 인센티브로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u>					

2017-1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가장군 북만달피 교정 아카데미) 수강자 만족도 조사					
○ 일정 : 2017. 04.15. - 07. 15.			○ 장소 : <u>가장군</u> 종합사회복지관		
성 별	<u>0</u> / 여	남한 거주 기간	<u>10</u> 개월		
○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강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유익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보조강사의 역할에 만족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이번 특강으로 남한에서 사용하는 표준어 억양과 발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특강의 시간과 장소, 기타 시설에 만족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향후 다른 프로그램이나 행사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6.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개설되거나 개설했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u>한국어 약과 화법에 대해서 듣기 하고 그걸도 알아보고 화법교과서 직접 읽어 배우고 방언의 기원 이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u>					
7. 이번 특강에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 개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u>이번 특강이 한국어 화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좋았으면</u>					

[그림 5] 만족도 조사 예시

본 수업은 아직 개설된 적이 없어 실제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5]는 2017년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답변 내용에는 보조강사가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교육 현장에 참여해 준 데 감사를 표하며, 보조강사와 1:1 수업을 더 늘려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양한 학습자 변인이 존재하는 교육 현장일수록 보조강사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내·외국인 수강생의 수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수업의 방법(탄뎀 학습, 캡스톤 디자인 학습법), 탄뎀 파트너와의 호흡, 제작한 교육 자료에 대한 만족 정도, 현장 실습 진행과 결과, 역량 함양 등에 대한 항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업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건의 사항 등을 서술형으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점검하고, 향후 수업 설계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만족도 조사와 함께 <수업 후 단계>에서는 내·외국인 학생들이 제작한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현장 실습 결과를 수강생들 앞에서 발표하게 함으로써 수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나 탄뎀 활동 보고회 등에 참여하여 수업의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학습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도 참여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3장에서는 내·외국인 학생의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 구성을 위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단계별 수업 구성 방안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립성 있는 한국형 지역사회 공헌 모델을 창안하고 학생들의 전공 실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사회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장을 제공해 주

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법과 수업 활동이 개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탄뎀 학습은 서로 다른 모어 화자 두 명이 상대방의 언어·문화를 학습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말하기 유창성을 높이고 학습 동기를 고취시킨다. 수업 유관 탄뎀, 수업 무관 탄뎀, e 탄뎀 등 다채로운 탄뎀 학습이 제시되고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탄뎀 학습을 지역 사회로 확산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탄뎀 학습과 캡스톤 디자인을 접목한 수업 구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는 탄뎀 학습을 더욱 발전시키고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탄뎀 학습의 확장형 모델 개발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탄뎀 학습을 현장 실무 중심의 캡스톤 디자인과 연계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 B대학이 부산시와 진행 중인 다문화동백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한국어교육과 한국어문화교육, 다문화교육과 한국어문화교육이라는 인문 사회 계열 간 다학제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지역 사회 연계 가능성을 B대학에서 구축한 내·외부 공조 체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외국인 학생의 지역 연계형 수업 구성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공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교내·외적으로 협력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향후 실제 수업 운영 사례에 대한 논의와 더 발전적인 탄뎀형 캡스톤 디자인 모델이 개발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미승(2018). 자기주도학습 기반 독일어 문법교육 개선 방안-거꾸로 수업과 탄뎀외국어학습법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81, 29-52.
- 김인영(2017).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을 적용한 영작문 수업모델의 개발. *학습자중심교육연구*, 17(15), 443-466.
- 김태현 · 이태희 · 윤기학(2015).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2-3.
- 김혜영 · 백송이 · 윤재희 · 박인우(2019).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에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취업준비생의 인식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7), 133-144.
- 나복순 · 정기영 · 하수권(2010). 한국어-일본어 탄뎀 수업 사례-코스 디자인과 수업 만족도조사. *일본어교육*, 54, 65-84.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박은숙(2019). 중국 고등학교 국제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베이징의 사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상범(2011). 한국어-러시아어 탄뎀학습법을 이용한 수업모델 연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36, 363-385.
- 서연화 · 심현애(2016). 시각디자인 전공 학생들을 위한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17(2), 183-194.
- 손양현(2017). 탄뎀 활동이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춘기(2016). 플립 러닝 방식을 접목한 중국어-한국어 탄뎀 수업모형 제안. *중국학*, 57, 71-92.
- 이효영(2018). 서비스러닝을 활용한 중국어 탄뎀(Tandem) 수업 사례 연구. *중국언어연구*, 77, 359-384.
- 정영교(2018). LINC+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OO대학 캡스톤 디자인 강좌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7(2), 99-114.
- 조완철 · 조위수(2018).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발음·억양 교육 실천사례 특성 분석. *현대북한연구*, 21(1), 208-241.
- 진광호(2010). 중국어-한국어 Tandem 학습법의 도입. *중국학*, 36, 31-48.
- 한국대학신문(2020). 대학혁신지원사업부터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까지 대학 혁신 드라이브.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5231>
- 한순희(2018). 국제표준에 준거한 캡스톤 디자인 교수모형 개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Holzbrecher, A. (2004). *Studium Kompakt:Interkulturelle Pädagogik*, 정기섭 외 역(2014).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서울: 북코리아.
- Lee, E. J. & Song, H. S. (2009). A study of perceived efficacy Of one-on-one English

- conversation with native speaker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6(1), 29-52.
- Lee, J. Y. (2010). Role of Dyadic Language Proficiency: Qualitative Analysi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Conversations with Their Conversation Partners. *한국어교육* 21(2), 247-268.
- Pemberton, R. & Kasten, K. (1999). Language learning in language exchange partnerships: an exploratory study. Language analysis, description and pedagogy,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ed by Language Centre, HKUST.
- Son, J. B. & O'Neill, S. (1999). Collaborative E-mail Exchange: A Pilot study of Peer Editing. *The Journal of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2), 69-87.
- Thomas, J. W. (2000). A review of research on roject-based learning. The autodesk Foundation. Retrieved from <http://www.bie.org>.



〈ABSTRACT〉

## A Study on Community-Connected Class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ents

Cho, Wisu · Han, Gang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lesson model that incorporates tandem learning into a capstone design to spread tandem learning around the community and help colleges and universities contribute to the solution of local issues. It has been approximately 20 years since tandem learning was introduced to South Korea. It is now necessary to develop a tandem model in various areas of specialization other than foreign languages for its further sophistication and development. Thus,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tandem learning between different areas of specialization with a group of Korean students majoring in Korean language and multicultural and a group of foreigners in the Korean culture education course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Literature about tandem learning and capstone design was reviewed to create a lesson model. Cases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re analyzed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universities and the community. Based on the results, the investigator discussed specific lesson procedures and methods around the Dongbaek Multicultural Project (support for the education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a clinic for standard Korean pronunciations), a joint project betwee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Busan City. Tandem-style capstone lessons would take the forms of native Korean students and overseas students forming a team and developing educational materials; then, they would do practical train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with the educational materials they developed. Even though the lesson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was not managed in the actual field, it holds some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an expanded model for tandem learning.

### Key words

Connection to the Community, Tandem, Capstone Design, Korean Langua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Dongbaek Multicultural Project

논문 투고일	2020. 10. 08
논문 심사일	2020. 11. 04
게재 확정일	2020. 11. 11

---

조위수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20206009@bufs.ac.kr

한강우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hangang@bufs.ac.kr

# 예비교원들의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해외교육연수\*

배정옥\*\* · 박윤배\*\*\* · Philippa Coleman\*\*\*\*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예비교원들의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을 신장하고 교육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해외교육연수 모형을 전개하고 이 모형이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교육연수에 적용된 사례를 평가하고 연구한다. 이를 통해 시사점을 논하고 타 교원양성 대학교들이 유사연수를 시행하고자 할 때 참고와 응용이 되고자 한다. 세 개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 향상도와 연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주말 사전 프로그램과 본격적 프로그램을 만족 내지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동료들에게 적극 권장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높이 평가된 영역은 지역 학교 방문, 호주 특색의 인근 장소 방문, 동료 대상 마이크로-티칭, 홈스테이, 기관 위치와 시설, 교사 및 직원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이었다. 사전-사후 글로벌·다문화 향상도는 유의미하였으며, 영어능력과 자신감도 향상되었다. 참가자들의 의견 서술에서는 호주의 문화·교육적 환경, 한국의 교육,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 교수에 대한 성찰이 풍부하게 관찰되었다. 미래 몇 가지 수정사항을 반영한다면 더 훌륭한 해외교육연수의 시범 모델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글로벌·다문화 교원전문성 신장의 한 모델과 그 사례로써 유사 해외교육연수를 준비하는 교원양성기관들에게 유용한 참조와 응용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해외교육연수 모형과 사례, 예비교사, 글로벌 교육 역량, 다문화 교육 역량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경북대학교 연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저자들은 본 연수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유진 & Chai Isarabhakdi 님께 감사함.

\*\* 제1저자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교수

\*\*\* 공동저자, 경북대학교 교수

\*\*\*\* 공동저자,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cademic Manager

## I. 서론

국제화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어 따라, 한국의 교육도 대내외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절실하다. 국내적으로 2019년부터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고, 학령 인구가 놀랄만한 속도로 감소 추세를 보여 폐교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강원식, 2020). 이로 인해 국내 교원 임용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학생들의 진로에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다.

동시에 한국이 선진화 되면서 동남아를 비롯하여 타 대륙에서 노동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대도시 공장 지역에 위치한 일부 학교와 농어촌 학교의 교실에는 다문화 출신 국가의 학생 수가 늘어나 잘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정서적(박신영·어용숙, 2019), 언어적, 학습적 문제들이(교육부, 2020) 일어날 잠재성이 있다. 이와 같이 국제화와 다문화 교육 사회 현상에 국가와 사회 그리고 대학들이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Alvarez & Bali, 2009; Gay, 1997; Mitchell, 2009; Sleeter, 2001).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예비교원들의 글로벌 다문화 감수성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K대학교와 퀸즐랜드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행한 해외교육연수 사례를 소개·평가하고, 유사 연수를 준비하는 타 교원양성기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 1) K대학교가 개발한 해외교육연수의 일반적인 모형, 그리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된 퀸즐랜드대학교 교육연수의 목표, 교육과정, 홈스테이, 지원시설과 교통, 그리고 절차를 소개한다.
- 2) K대학교-퀸즐랜드대학교 연수에 대한 평가적인 피드백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 3) 위의 결과로 유사 연수를 준비하고자 하는 타 교육기관들이 이 연수 모형과 사례를 참조·응용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이 연구의 결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교육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양성기관들이 교원 전문성 신장, 특히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신장하고자 해외교육연수를 하고자 할 때 본 모델과 사례연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1) 국내에서 급속도로 다문화 되어 가고 있는 교실에 예비교사들을 준비시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2)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국외에서도 가르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하여 교원 해외 진출의 지평을 넓히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글로벌·다문화 역량의 정의, 필요와 가치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글로벌·다문화화 되고 있다. UN에 의하면 한 국가 인구의 5%가 다문화 국가 출신자로 구성될 경우 다문화 국가라고 불리며, 그 때부터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교육부(2020)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9년을 기준으로 245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도 곧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로 분류·인식될 것이다(김정우, 2017; 배정옥, 2018). 또한 교실 내에서 다문화 국가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최근 5년 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19년에는 13만 명을 초과하였으며(교육부, 2020), 지방 학교 교실에서 더 밀도 높은 현상을 보이고, 광역시에서도 다문화 밀집 지역의 몇 학교에서는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교육이 한국 사회에 절실하게 되었다. 다문화 교육이란 Banks와 Banks(2013)의 정의를 따르면 다양한 민족, 인종, 성별, 지역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집단들의 문화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 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그러면 다문화 교육 역량이란 문자 그대로 이러한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 상당한 수의 연구들이 다문화 교육 역량에 대해 연구하고 정의를 내려 왔다. 박정희(2014)와 장원순(2009)은 다문화 교육 역량을 다문화적 상황을 인식하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탈피 개선하여 학생들의 서로 다른 문화적 요구나 상황에 부응하여 수업을 전개하고 다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는 능력이라 했다. 비슷하게 소연희(2018)는 다문화 교육 역량을 한국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문화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여러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다문화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운영하는 능력이라고 했다. 전세경(2018)은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다문화교육 역량의 범주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으니, 이들은 다문화 교육을 위한 지식,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기술, 그리고 다문화 교육을 위한 인식과 태도이며, 각 범주의 특색에 대해 논하였다.

이외에도 수십 편의 연구에서 다문화 교육 및 교육 역량이 정의되었는데, 표현의 차이는 있어도 그 취지와 목표는 대등소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다문화 교육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문화 교육 역량이란 교사 자신들이 한국의 다양해지고 있는 문화적 양상을 이해하고 이들 문화들에 대해 지식, 감수성, 이해력과 포용력

을 가지며,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동료들과 평등하고 조화롭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습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 역량을 넘어,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을 교육 연수의 목표로 다룬다.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을 정의하면 문자 그대로 다문화 교육 역량과 글로벌 교육 역량을 병행하는 것으로, 다문화 교육역량이 주로 (예비)교사들이 국내 다문화 현상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글로벌 교육 역량은 해외 다문화로 지평을 넓혀 해외에서 자국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다. 후자 또한 다문화 교수 역량과 마찬가지로 지식, 기술, 태도가 기저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 역량에 더하여 글로벌 교육 역량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신창원(2018)은 세계시민성과 영어능력을 주시하고, 이 둘을 주력으로 하는 해외 교육들을 언급하였다. 예컨대, 최윤희(2013)는 예비교사들이 교환학생 후 영어가 향상되었으며, 해외에서 영어로 가르쳐 지는 수업과 교수법을 체험함으로써 영어의사 소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글로벌 교육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사양성 기관들은 해외 현장 경험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왔다. 그 종류로는 교환학생, 어학연수, 해외봉사, 해외 교육연수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러한 해외 현장 경험을 통해 타문화에 노출되어 경험자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문화적 가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이 소수인(minority)이 되는 경험을 해 봄으로써 문화적 이해와 감수성을 기르게 된다(Bennett, 2005). 예비교사라면 해외 현장 경험을 통해 글로벌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고민해보게 되며(박인심, 2019), 자연스럽게 국내의 교수학습에 대한 사색으로 연결된다.

국내 상황을 보면, 일선 학교 교사들을 위한 직무연수와 예비교사들을 위한 교원양성 기관들의 글로벌·다문화 교육의 실시는 미흡한 실정이다(Banks, 2008). 특히, 예비교사 양성기관들이 글로벌·다문화 교육을 위해 예비교사들에게 해외 현장 체험과 교육을 하게 해주는 기회가 적으며(박인심, 2019), 이 결핍은 해외와 국내 현장 모두에 해당한다(모경환, 2009).

한편, 학령 인구 감소와 더불어 교원의 국내 임용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어서 예비교사들의 진로가 제한되어 교사양성 기관들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농어촌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초·중등학교 폐교가 지방을 넘어 부산, 울산, 대구 등 광역시에서 통폐합과 줄 폐교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어 폐교 쓰나미를 예고하고 있다(강원식, 2020).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 발표에 의하면 10년 후인 2030년에는 초등학교 수의 감소가 예상보다 빠른 46만 명이 되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의 탓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교육부와 양성기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조아름, 2020).

한국은 국가와 지방 자치 정부적 차원에서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기르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오고 있다(김정우, 2017).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 다문화 국가에 비하면, 아직 글로벌·다문화 사회에 대한 역량은 질적·양적 성장의 여지가 크다.

## 2. 예비교사들을 위한 해외교육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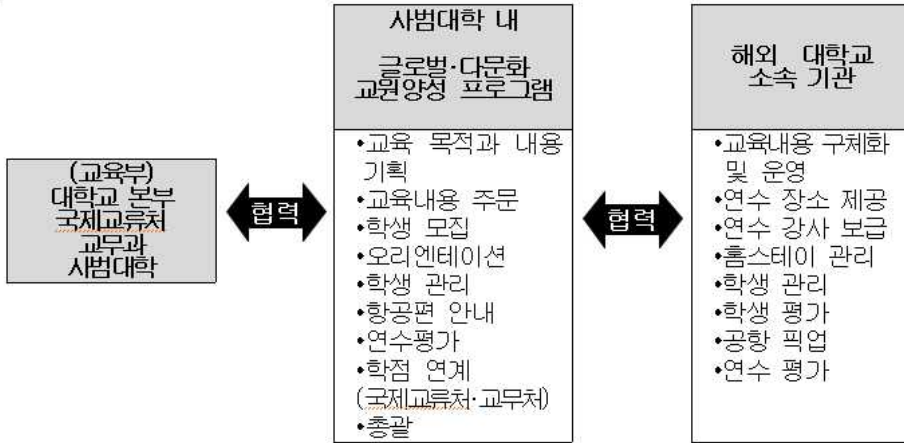
본 장은 해외 현장 경험 중 예비교사들을 위한 해외교육연수에 집중한다. 앞 장에 묘사한 국내 교원의 임용 기회의 감수 추세에 대한 현실적인 출구의 하나는 교원의 해외진출이다. 예비교원들에게 글로벌 교육시장에 대한 안목과 지평을 넓혀 해외에서 가르치거나 해외 교육 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줄 시스템의 보급이 필요하다.

2012년 이래 교육부는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업단, 일명 Global Teacher's University(약칭 GTU)라는 사업을 창안하였다. 이 사업의 취지는 장차 한국의 예비교원들이 해외에서 그리고 다문화 국가 출신 구성원들이 있는 국내의 교실에서 가르치게 되리라는 전망 하에 예비교원들의 글로벌·다문화 역량의 함양을 지원하고자 했다. 현재 전국 4개 대학(경인교육대학교, K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제주대학교)에서 각각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창안 아래, 전국 네 개 대학교는 해외교육연수의 개발과 운영을 추진하여 글로벌·다문화 현장에 대한 지식, 경험, 감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력해왔다(강정진, 2019; 권상철·김성백, 2015; 신창원, 2018). 이들 해외교육의 목적은 교육·사범대학의 일부를 글로벌 교원양성 과정으로 체질 개선하여 교원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해외 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교육·사범대학의 글로벌·다문화 역량의 증대를 유도하는 교육협력 거점을 형성하려는 것이다(권상철·김성백, 2015). 교육부와 GTU 거점대학교들은 타 양성기관으로 글로벌·다문화 교육 모델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K대학교에서도 2013년 이래 사범대학 주최로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업단(GTU)를 운영해 오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해외교육연수와 관련하여, K대학교 GTU는 해외교육연수들을 ‘교육전문성 신장’이라는 목표 하에 해외 초·중·고 교육 현장 참관과 실습, 해외수업을 위한 외국어 현지 훈련, 그리고 문화 체험학습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은 K대학교 GTU의 주도하에 예비교원들의 글로벌·다문화 역량과 교육전문

성 신장을 위해 개발된 해외교육연수 모형으로, 주 기관들의 역할과 협력 체계가 명시되어 있다.



[그림 1] K대학교 사범대학의 해외교육연수 모형

해외교육연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신창원(2018)은 교사양성 과정에서 글로벌·다문화 함양을 위해 2018년을 기준으로 유성상(2015)을 비롯하여 10개 내외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 리뷰에 의하면 해외교육연수는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예비교사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연수,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 정부 주도의 GTU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기르는 연수이다.

신창원의 리뷰에 나타난 연수들 외에, 류민정(2017)은 해외 교육봉사를 통한 교육이 예비교사들의 수업역량, 인간관계 역량, 심리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8년 이후에는 한재영·서혜애·차정호·홍준의(2019)가 예비교사들이 니카라과에서의 수행한 봉사활동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분석하고 봉사활동의 발전 방안을 논하였다. 강정진(2019)은 미국 중서부와 서부 지역에서의 예비교사 해외연수와 글로벌 역량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박인심(2019)은 예비교사들의 필리핀 교육봉사 참여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가 해외교육연수나 해외교육봉사와 관련하여 실행되었으나, 글로벌·다문화 역량의 시급성과 시의성에 견주어 보면 더 활발한 연구가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학습의 수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대학들의 재정 지원에 대한 관심과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 3. 호주에서의 해외 연수의 가치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수의 대상 국가로 호주에 주목한다. 호주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35배이며 총 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 1인당 GDP는 약 6만 달러(세계 10위)이다.

호주는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문화가 호주 내에 공존하고 있다. 미국의 뒤를 잇는 다문화 국가로 발전하였으며, 정부의 다문화적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한 국가 강령 등의 안정된 정책 아래 훌륭한 사회 환경을 자랑하는 선진국이자 다인종 국가의 모델이 되었다(곰돌이 Co., 2006; 신숙희, 2019; 호주정부관광청, 2020; 위키백과, 2020). 다문화주의에서는 문화를 독자적인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증식된 지식, 가치, 그리고 신념의 결과물로 보며, 한 국가 안에서 모든 문화는 이해받고 평등하며, 그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정책을 편다(Mushi, 2004; 박선미, 2011), 이러한 정책 하에서는 이민자들에게 굳이 출신 문화를 버리고 주류 문화에 동화(assimilation)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출신 문화의 유지를 지원하기도 한다(김연권, 2010). 이러한 다문화주의 정책을 펴는 호주는 본 연수의 취지를 반영하기에 좋은 국가로 간주되었다. 유사한 다문화주의를 펴는 국가 중 미국도 주목을 받아왔으나, 호주는 비자와 관련한 출입국 절차가 간소하여 연수 국가로서의 우위점을 지닌다.

호주 내에서 본 연수가 시행한 연수 장소는 퀸즐랜드 주의 주도인 브리즈번 시에 위치한 퀸즐랜드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UQ)이다. 브리즈번의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250만이며, 이중 약 32%가 외국 태생인 다문화 도시이다. 브리즈번에는 가장 많은 마천루가 있는 세계 도시 중 하나로 시드니와 멜버른 다음으로 국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다(제이민, 2019). 기후는 여름은 습도가 높고 더우며 겨울은 건조하다. 브리즈번에 있는 퀸즐랜드대학교(The University of Queensland, UQ)는 퀸즐랜드 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세계 대학 순위 조사들에서 50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수에서 위와 같이 호주를 연수 국가로 선택함으로써 참가자들은 선진 다문화주의 국가가 어떻게 자국 내에서 글로벌·다문화를 추구해 나가며 관련 쟁점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 1. 퀸즐랜드대학교 연수

앞 장에서 보여 준 해외교육연수 모형(그림 1) 하에 K대학교 GTU 글로벌·다문화 양성 프로그램은 현재 2~3개의 해외연수를 개발하여 2017년 이래 매년 운영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해외연수 중 K대학교와 퀸즐랜드대학교(UQ)에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개발한 퀸즐랜드대학교 4주 연수를 그 사례로 들어 조명한다.

퀸즐랜드 대학교내 구체적 담당 기관은 평생교육 & 영어교육원(이하 ICTE-UQ, Institute of Continuing & TESOL Educ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홈페이지: <https://icte.uq.edu.au/>)이었다. K대학교에서는 교육 목적과 취지, 내용을 기획하고 ICTE-UQ에 주문하였으며, ICTE-UQ는 이를 교육과정 디자인으로 구체화 하였다.

##### 1) 연수 참여자와 선발 배경

K대학교-퀸즐랜드대학교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은 K대학교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 중인 학생들로서 총 14명이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GTU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이다. 사범대학 소속이 아니라도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이면 GTU가 주관하는 교육의 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공고되었다.

모집 인원은 14명으로 이 숫자는 퀸즐랜드대학교의 연수기관(ICTE-UQ)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인원(12명)을 충족시키고 K대학교 GTU의 재정상황에 맞추어 절충된 숫자였다. 모집 인원의 약 3배수가 지원하였으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근거로 최종 14명을 선발하였다. 서류심사에서는 성적과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영어능력과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였으며, 면접에서는 지원동기의 구술 표현이 중시되었다. 면접관은 2명의 사범대학 교수들이었다. 성적순으로 최종 14명이 선발되었으며, 14명 중 약 86%(12명)의 학생들이 사범대학 소속, 나머지 14%(2명)는 인문대학과 생활과학대학 소속이었다. 학년의 범주는 2012 ~ 2017이며 2016과 2017학번이 가장 많았다(각 4명, 5명). 성별은 남학생 5명(35.7%), 여학생 9명(64.3%)이었다.

이들의 소속 전공은 12가지였는데, 영어교육(3명), 교육학, 국어교육, 불어교육, 수학 교육, 역사교육, 영어영문, 지리교육, 체육교육, 화학교육, 그리고 식품영양학을 전공(각 1명)이었다. 이 다양성은 선발 시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연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의도한 결과였다. 이들 선발된 14명 전원이 연수에 참여하였고, 양적 그리고 질적 분석의 대

상이 되었다.

## 2) 교육과정 목적

K대학교 사범대학 글로벌·다문화 교원양성 프로그램에서 주관하는 해외교육연수의 목적은 글로벌·다문화 관련 역량과 교육전문성의 신장이다. 이 목적 하에 퀸즐랜드대학교 교육과정의 이름은 ‘전공영역을 영어로 가르치기 위한 영어, 문화, 교수법(The English, Culture and Methodology for Teaching Specialised Content in English)’ 로 지어졌다. 본 연수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전공은 다양하였으므로, 이들이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각자의 전공영역과 관심영역을 가르치는데 도움 되도록 개발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의 영어능력을 몰입 교육 환경에서 향상시키고, 대규모 수업이나 영어 능력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사들에게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영어 교수법을 소개함.

둘째, 예비교사들이 배운 교수법을 수업을 같이 듣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모의 수업을 진행해보고, 그 동료들과 담당교사로 부터 피드백을 받음.

셋째, 교사가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자료와 활동들을 습득할 수 있게 함.

넷째, 지역 중등학교 방문을 통해 호주의 교육환경과 기풍(ethos)을 관찰함.

다섯째, 브리즈번과 퀸즐랜드대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합하여 호주 문화를 체험함.

## 3) 교육과정 구성 요소

전공영역을 영어로 가르치는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은 여섯 개로, 영어기술, 교수법, 동료 가르치기와 피드백, 프로젝트 중심 학습, 학교방문, 그리고 문화 활동이다<표 1>.

〈표 1〉 전공영역 영어로 가르치기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요소

<b>영어기술</b> (English Language Skills)	이 영역에서는 영어 실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에 집중한다. 참가자들은 수업 계획, 교사 직업의 개발, 그리고 문화 쟁점과 같은 영어 사용 주제에 대해 연구한다.
<b>교수법</b> (Teaching Methodology)	이 영역에서 참가자들은 퀸즐랜드대학교의 영어교육원 교사들이 모델로 보여주는 워크숍과 수업 시연에 참여한다. 광범위한 활동들을 경험하며, 교사·학습자 관점에서 수업을 분석한다. 이 영역에서는 교실 전략들을 개발·실천한다. 영어를 매체로 사용하여 전문화된 콘텐츠를 가르치는 혁신적 방식을 쓴다. 참가자들은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모든 자료와 활동들은 참가자 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된다.

<b>동료 가르치기와 피드백</b> (Peer Teaching and Feedback)	이 영역은 소규모 그룹과 동료 교수법을 통한 교수 전략과 기법을 적용한다. 참가자들은 교실에서 전공과목별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 미니 레슨을 계획, 준비하고 동료들에게 전달한다. 과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 활동을 소개할 때 영어로 설명하는 연습을 함, - 전공영역 내용(예: 생물교육, 지리교육, 물리교육, 한국어교육 등)을 가르침, 동료 교수법에는 그룹 피드백이 뒤따름. 참가자들은 자신과 동료들의 가르침을 숙고함으로써 피드백 부문에 기여함. 또한 교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음.
<b>프로젝트 중심 학습</b> (Project-based Learning)	이 영역에서 학생들은 브리즈번 공동체와 교류하여 실생활 언어를 경험할 수 있다. - 소규모 그룹으로 캠퍼스 가이드와 함께 도시견기투어를 기반으로 발표 준비 - 짝을 이루어 호주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언어 기반의 작문 과제 완수하기 - 소규모 그룹을 이루어 일반 대중, 홈스테이 가족 또는 학교 커뮤니티 내 호주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담은 짧은 동영상 제작 - 개별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기(수업 설계 포스터 과제)
<b>학교방문</b> (School Visits)	영어로 진행되는 초중고의 수업을 관찰하고 호주와 자국의 교수방법을 비교한다. 학생들은 수업 관찰 중 완수할 과제가 든 책자와 관찰 내용을 기록할 일지를 제공 받는다.
<b>문화활동</b> (Culture activities)	각 그룹의 관심사에 따라 학생들이 1일 또는 반나절 문화 활동을 한다. 예시 별도 제공.

#### 4) 홈스테이

ICTE-UQ에서 제공하는 홈스테이는 연수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가구가 비치된 참여자 자신의 방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집의 모든 생활 공간에 드나들 수 있게 해준다. 홈스테이 가족들은 호주의 가정 인구 통계를 반영하여 주로 다국적 혹은 한 부모 가정이다. 집들은 퀸즐랜드대학교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있다.

홈스테이 배정은 한 가정 당 1~2 명의 참가자를 기준으로 한다. 두 참가자가 한 가정에서 함께 지낼 때, 긍정적인 이점이 있다. 새로운 문화와 가정환경을 접하는 참가자들은 서로 의지하며 참가자들이 가정 구성원들과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주말에 가족 활동이 없을 때 참가자들끼리 독립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된다.

## 2. 사전 주말 교육과정

본 장에는 본격적 연수 직전에 행해진 사전 주말교육과정이 묘사된다. 6월 말경 월요일에 시작하는 본격적 교육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학생들은 퀸즐랜드대학교가 있는 브리즈번에 연수 시작 직전 주말에 도착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말이라는 시간을 선용하여 본격적 교육과정 시작 전 이틀 정도 브리즈번 일대를 조사해 보는 것이 유익하겠다고 평가

하여 3일 간의 사전 주말 교과과정을 개발·실행하였다. 사전 주말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야간비행의 피로를 하루 동안 정비한 후 홈스테이에 들어가도록 준비함.
- 2) 호주에서의 원활하고 적절한 학교와 홈스테이 가족과의 생활을 위해 호주의 문화를 하루 이틀 미리 체험하고 배움으로써 본격적인 연수에 대비함.
- 3) 브리즈번 강 일대를 탐방하고, 시내의 교통 체제를 경험함으로써 호주 생활에 대비함.
- 4) 브리즈번 인근 도시인 골드코스트(Gold Coast)와 빈리(Beenleigh)를 탐방함.
- 5) 빈리에서 "Spirit of the Red Sand (<https://spiritsredsand.com/>)" 라는 연극을 인터랙티브 실내의 극장을 이동하면서 관람함. 이 연극은 호주 원주민들이 유럽 개척민과의 접촉에서 겪은 갈등, 애환, 융화의 과정을 담은 이야기이며, 관람 후 관객들은 원주민 후예들인 연극 배우들과 식사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호주 역사를 이해하게 됨.
- 6) 연수 참가 학생들이 친해지고 서로에 대해 파악하게 됨.

### 3. 교육과정 기간과 수행 절차

전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8년 3월~6월에 걸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양 기관 협정서를 교환하였다. 4월에서 6월 사이 참가자를 모집하고 선발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6월 22부터 브리즈번으로 이동, 이틀 간 사전 주말교육을 실시하였다.

본격적 프로그램은 6월 25일부터 4주간 실시되었다. 이 기간은 호주의 겨울에 해당한다. 한국 대학에서는 여름방학 기간 중이지만, 파트너 기관인 ICTE-UQ에서는 대학생들의 학기와 상관없이 사업들이 운영되며, 브리즈번 시의 중등 학교에서는 정규학기 기간 중이어서 참가자들의 중등학교 방문이 가능한 기간이었다.

### 4. 측정도구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도구들이 사용되었다. 이들은 (1)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사용하도록 요구한 “교육역량 향상도” 설문지와 (2) K대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설문지, 그리고 (3) 퀸즐랜드대학교에서 개발한 설문지로 상세사항은 아래에 있다.

### 1)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설문지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향상도 설문지는 부록 1에 실려 있다. 이 설문지는 2016년 한국교원대학교 GTU에서 개발한 것이다. 문항 수는 총 45문항으로 글로벌 역량 25문항, 다문화 역량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개의 대답 옵션을 가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를 사용하였다.

### 2) K대학교와 ICTE-UQ 자체 설문지

K대학교 설문지는 부록 2에 실려있다. 이 설문지는 (1) 사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2) 본격적 프로그램 평가, (3) 홈스테이에 관한 평가, 그리고 (4) 총평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옵션은 5개 점수를 가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그렇지 않다(1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였다.

ICTE-UQ가 제작한 설문지의 내용은 (1) 총평, (2) 세부 영역 프로그램, (3) 방문 학교, (4) 영어쓰기와 말하기 평가, (5) 홈스테이, (6) 시설, 직원 및 교사에 대한 참여자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옵션은 4개 점수를 가진 리커트 척도(Unsatisfactory, Satisfactory, Good, Excellent)를 사용하였다.

## 5. 설문 수집 절차

교육역량 향상도 설문지는 교육과정 사전과 사후에 수집되었다. 사전 수집은 제 1회 오리엔테이션 직전 내지 직후 무렵이었으며, 사후 수집은 4주 교육과정 종료 후가 되었다.

K대학교 자체 개발 설문지는 사후에만 수집되었다. 참가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설문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답변을 한 다음 전자메일로 제출하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프로그램 마지막 무렵 K대학교 GTU에서 연수용으로 운영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그 동안 배운 점, 느낀 점 및 소감들을 서술하여 공유하도록 요청되었다. 이들은 두어 문단으로 답변을 요약 서술하여 참가자들과 GTU 운영진이 공감할 수 있게 하였다. ICTE-UQ 자체 개발 설문지는 프로그램 마지막 날 자체 운영 계획에 의해 1회 일괄 수집되었다.

이러한 설문에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은 “설문의 정답은 진술한 답입니다. 개인의 응답은 공개되지 않으며, 응답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도 없습니

다.” 라고 안내되었다. 인원수는 K대학교 수집의 경우 참가자 전원(14명), ICTE-UQ의 경우 총 13명이 참가하였다(1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집 당일 미참석이었다).

## 6. 데이터 분석

설문지 응답의 분석은 ICTE-UQ에서는 자체 평가 전문 요원과 연수 담당 인력에 의해 평균분석과 엑셀 그래프 분석, 그리고 서술형 답변 정리와 분석으로 실행되었다. 결과는 보고서의 형태로 K대학교 GTU 측에 email로 전달되어 왔다.

K대학교 GTU에서는 설문 응답 자료를 SPSS와 Excel을 사용하여 평균분석, paired t-test, 그리고 그래프 분석을 실행하였다. 교육역량 향상도 설문 응답의 분석에는 모든 수치를 보고용으로 해석의 편리성을 위해 백분율로 환산하였으며, 평균분석과 대응표본 t 검정을 실행하였다. 서술 응답은 질적으로 분석 되었으며, 내용은 질문의 내용 범주 별로 일차 분류되었다. 이어 서술 응답들은 본 연수의 주요 교육 관심사에 따라, 다문화 교육 역량의 향상, 글로벌·국의 교육 역량의 향상, 그리고 아쉽거나 차년도에 삭제되기를 원하는 부분의 세 가지 영역으로 추출되고 분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된 의견은 제외되었고 의견의 다채성을 살렸으며, 문미 표현(예: 존댓말)은 수정하여 일관성 있는 어조로 정리하였다. 종합된 의견은 결과의 총평 장에 분류하였다.

##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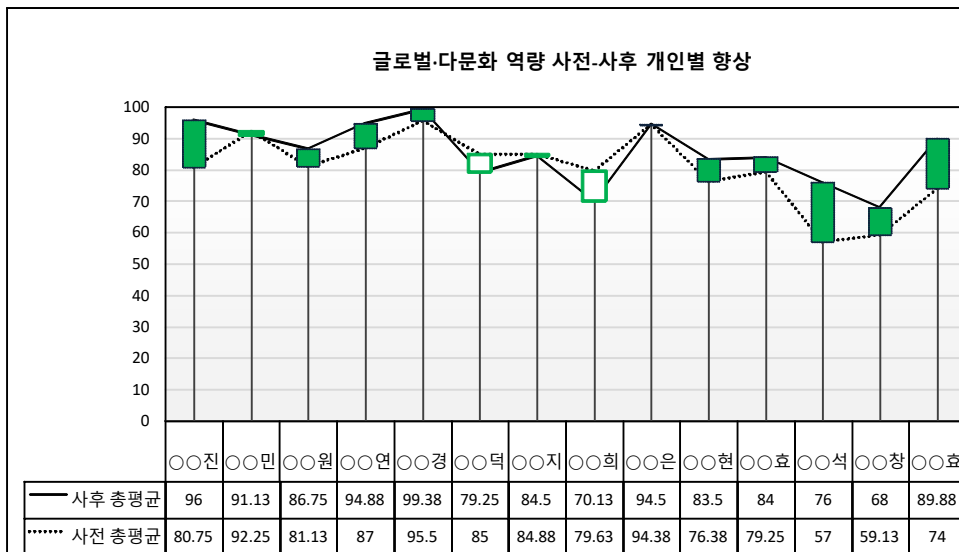
### 1.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향상도 설문 결과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향상도의 측정 결과는 <표 2>에 나와 있다. 이 표는 세부역량별 평균, 그리고 총평균을 사전과 사후 결과로 보여준다.

[그림 2]는 개인별 사전·사후 교육 역량 향상도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 직사각형 상자의 세로 길이가 사전·사후 향상도의 크기를 나타낸다. 상자의 진한색은 사전·사후의 향상을, 무색은 감소를 나타낸다.

〈표 2〉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향상도(사전 & 사후 N = 14)\*(백분율 사용)

구분	세부 역량	문항수	사전 평균	사후 평균	향상도
글로벌 역량	해외교육제도와 문화이해	5	85.00	88.21	3.21
	한국교육제도의 국제화 필요성	5	68.93	74.29	5.36
	글로벌 영어 교수 능력	5	65.71	77.86	12.15
	외국어 효능감	5	88.93	88.21	-0.72
	문화 간 이해/의사소통	5	78.93	82.86	3.93
	소계 평균	25	77.50	82.29	4.79
다문화 역량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필요성	10	89.46	92.86	3.40
	다문화교육 교수 의지 및 역량	10	77.32	84.80	7.48
	소계 평균	20	83.39	88.84	5.45
전체 총평균		45	80.45	85.56	5.11



[그림 2] 개인별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향상도

〈표 2〉를 보면, 사전·사후 교육 역량의 향상치는 5.11이었다. 이 수치는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유의미한 증가였다( $t = 2.35, df = 13, p = .035, N = 14$ ). 유의미성의 여부를 가늠하는  $p$  계수가 0.5 보다 낮아 연수 종결 무렵의 교육 역량이 연수 시작 시점의 역량보다 유의미한 정도로 향상되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수치는 기준치 0.5보다 크게 작지 않아, 이 유의미성은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샘플 사이즈가 적은 점을 감안하면, 이 유의미성은 차년도 GTU의 해외 교육 연수 결과로 혹은 타 대학교의 유사 연수의 결과로



확인되거나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제한 가운데서나마 세부 향상치를 보면, 향상치가 훨씬 큰 세부 영역은 ‘글로벌 영어 교수 능력’과(12.15) ‘다문화교육 교수 의지 및 역량’ 영역이었다(7.48). 이 향상은 참가자들의 후기 의견 서술에서 그 신빙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의 진술에서 동료 가르치기를 해 보고, 전공영역을 호주 교실에서 영어로 가르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스스로 놀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서술이 빈번하였다.

향상치가 가장 낮은 영역은 ‘외국어 효능감’과(-0.72)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었다(3.40). 왜 이 영역에서 교육 역량의 향상이 낮아졌는지는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유추를 해 보면 이 영역들에서 사전 점수가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사전과 사후 모두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에서(예: 조현주, 육경민, 2016) 나타난 결과와 부합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은 [그림 2]의 진한 색 직사각형 상자의 세로 길이를 보건대 14명 중 대부분의 학생들에게서 교육 역량이 향상하는 패턴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 중 3명은 특히 긴 직사각형의 길이에서 보듯 두드러진 향상을 보였다.

무색의 직사각형은 사전-사후 감소를 나타내는데, 세 명의 학생에게서 나타났다. 이들 세 명의 학생은 사후점수가 사전점수 보다 낮아져(즉, 마이너스 향상치를 보여) 이상한 케이스(outlier)가 되었다. 이 세 명이 귀국보고서와 인터뷰에서 서술한 내용을 보면 배운 점이 많았으며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하였다. 그런데 사후 설문지의 수치적 반응이 이 서술과 상응하지 않아 이상치로 보였으며 해석의 어려움을 던져주었다. 추정해 보건대, 사후 측정에서 더 낮아진 점수의 원인은 동일인 내 측정일관성(intra-person measurement reliability)(예: Putnick & Bornstein, 2016)의 결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척도 점수인 1, 2, 3, 4에 대한 개념의 기준점이 동일인 내에서 사전-사후 달라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개인 내 측정일관성의 쟁점인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의 샘플 수가 더 많았다면, 이러한 잡음을 무색하게 할 뚜렷한 추세를 관찰하는데 유리했을 아쉬움이 있다.

또한 문항의 내적신빙도(internal consistency) 계수인 크론바크 알파(Cronbach's alpha)를 구해볼 수도 있었으나, 현재의 샘플 수인 14는 알파 계산에 필요한 샘플 숫자가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산정 계수 자체의 감쇠(attenuation)과 관련한 신빙도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용 시도를 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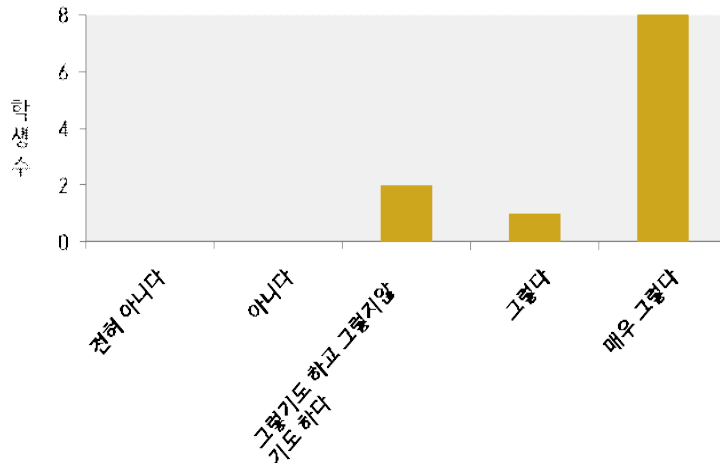
## 2. K대학교 개발 설문과 UQ 개발 설문 결과

### 1) 주말 사전 교육과정(골드 코스트 탐방 외) 평가

주말 사전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은 K대학교에서 조사하였다. 응답 대상자는 프로그램 공식 시작 이틀 전인 금요일 한국에서 출발하여 브리즈번 일대에서 토, 일 과정을 모두 참여한 11명의 학생들이었다.

첫 번째 설문 문항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작 전에 골드코스트, 빈리, 브리즈번 강 일대를 함께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사전 활동 기간이 유용하거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였다. 결과는 평균 3.55(“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중간)이었다. [그림 3]의 히스토그램은 개인별 응답 분포를 보여준다.

사전 교육과정(골드코스트, 빈리 등 활동)이 유용하고 도움되었는가?



[그림 3] 개별 인원 별 결과

설문 2는 이 사전 활동 기간이 내년 연수에도 존재하는 것을 권장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평균: 3.36/4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중간)이었다.

### 2) 4주 본격적 교육과정의 평가

본격적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본격적 교육과정의 평가는 K대학교 자체 설문과 ICTE-UQ 자체 설문 조사를 통해 별도로 진행되었으나, 양 기관 간 내용이 공통인

것들이 있어 본 장에서는 편리상 유사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병렬하거나 병합하여 정리하였다.

(1) 세부 활동 영역

본격적 연수의 4주간 수업 시간표에 있는 내용 중 가장 좋았던 부분, 그리고 차년도에도 꼭 포함 혹은 삭제를 원하는 부분을 든다면 무엇인지를 물었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좋았던 부분·유지하기 바라는 부분에 대한 서술 응답 요약

프로그램 활동		KNU 조사(14명)		UQ 조사(13명)	
		추천 학생 수	삭제 권장 학생 수	Excellent 라고 평한 학생 수	
영어 기술	프로젝트 중심 학습	Mojo project	1	-	
		Campus guide to International Students	1	2	7
	교수법, 동료가르치기와 피드백	Peer teaching(Micro Teaching)	9		8
	학교 방문	School Visit	7		-
	문화지식 습득과 활동	Culture & History of Australia	1		-
		Stradbroke Island Day Trip	8		11
		City tour with UQ student	3		10
		Lone Pine Koala Sanctuary	3		12
		Sports Club	1	1	-
		Join Chorus	-	3	7

참여자들에게 반응이 가장 두드러지게 좋았던 영역은 호주의 특색이 잘 묻어난 Lone Pine Koala Sanctuary 방문과 Stradbroke Island 방문이었다. 그 다음 City Tour와 마이크로 티칭이었다. 인원수가 매우 소수였으나, 삭제가 권장된 영역은 스포츠 클럽과 코러스 클럽에 참가하는 활동으로 이 결과는 삭제를 권한 참가자 개별 취향이 스포츠와 합창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다고 본다. 또한 UQ에 처음인 외국인들에게 UQ 캠퍼스 투어를 시켜 주는 것 역시 삭제 권장되었는데, 참가자 자신들도 UQ의 방문자였기 때문에 UQ의 소개자가 되기에는 아직 적절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 (2) 현지 학교 방문

두 학교 방문에 대한 의견은 UQ에서 물었다<표 4>. 여기에서는 각 범주를 점수화 시키지는 않고 응답자 수로 계산하였다. 응답자 13명 중 6~8명이 각 학교에 대해 “Excellent”라고 답하였고 낮게 평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몇 학생들이 학교 방문을 1주일로 연장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학교방문의 유용성을 시사하였다.

〈표 4〉 학교 방문 만족도

	Unsatisfactory	Satisfactory	Good	Excellent
High School A	1	2	4	6
High School B			1	8

## (3) 영어쓰기와 영어말하기 능력 향상

참가자들의 영어쓰기와 영어말하기 능력을 UQ 담당교사가 학습 첫날(pretest)과 프로그램 끝 무렵(posttest)에 평가하였다<표 5>.

〈표 5〉 영어쓰기와 영어말하기 향상도

참가자	영어쓰기		영어말하기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현				
○○원				HA
○○연				HA
○○희		HA		HA
○○민				
○○석				
○○호	HA	HA		HA
○○지		HA	HA	HA
○○진		HA		HA
○○은				
○○영				
○○창	HA	HA		HA
○○덕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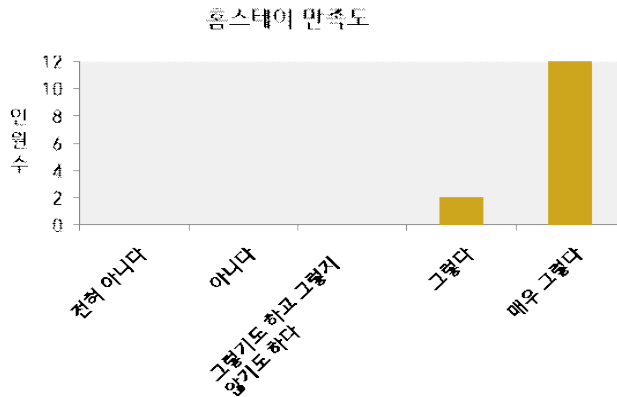
HA: High Achievement ≥ 82%, SA: Satisfactory Achievement ≥ 63% ~ < 82%,

LA: Limited Achievement < 63%

<표 5>에서 보듯, 영어쓰기의 경우, 14명 중 3명이 Satisfactory Achievement(SA) 에서 High Achievement(HA)로 향상을 보였고, 영어 말하기에서는 6명이 SA에서 HA로의 향상을 보였다. 나머지는 원 레벨을 유지하였다. 영어 쓰기와 말하기 영역은 표현능력이라 4주간에 향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향상은 괄목할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선발 시 영어능력이 어느 정도 높은 학생들이 뽑혔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학생들은 증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향상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홈스테이

홈스테이에 대한 설문은 두 개였다. 먼저 K대학교 조사로, 홈스테이 경험이 만족할 만한 것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은 평균 3.86/4 (“매우 그렇다”에 월등히 가까움)이었다. 그림 4는 개별 응답의 분포이다.



[그림 4] 개별 응답 분포

UQ에서는 홈스테이 세부 영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표 6>. 응답자 13명 중 9~12명이 가족과의 상호작용, 음식, 집안 시설, 위치 편리함, 프라이버시 정도, 그리고 총평에서 “Excellent” 라고 평하였고, 불만족하거나 별로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서술 형식으로 홈스테이 기간 중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를 물었다. 한 두 명이 겨울 난방이 잘 안 되어 한기가 느껴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애로 사항이 없었으며 대체로 매우 만족하였다.

그러므로 차년도에도 비용이 더 나가는 아파트 거주 대신 홈스테이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프로그램 측은 경비도 절약하고, 학생들은 만족스러운 가정환경에서 호주 문화와 영

어사용의 체험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도록 권장된다.

〈표 6〉 홈스테이 만족도

	Unsatisfactory	Satisfactory	Good	Excellent
홈스테이 가족과의 상호작용		1	1	11
음식		1	3	9
집안 시설			2	11
위치의 편리함	1		3	9
프라이버시 정도			1	12
총평			2	11

### (5) 위치, 시설, 직원

UQ에서 실시한 설문인 위치, 시설, 그리고 직원에 대해 의견이다. 브리즈번 도시, UQ 캠퍼스, 연수 건물, 교사들, 컴퓨터와 도서관, 행정직원들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13명 중 9~13명의 학생들이 “Excellent” 라고 평가하였고, 낮게 평가한 학생 수는 매우 미비하였다 <표 7>.

〈표 7〉 위치, 시설, 직원에 대한 만족도

	Unsatisfactory	Satisfactory	Good	Excellent
브리즈번 도시				13
UQ Campus			2	11
ICTE-UQ 건물		1	2	10
컴퓨터와 도서관		2	2	9
ICTE-UQ 교사들			3	10
ICTE-UQ 행정직원들				13

### (6) 총평 서술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에 대한 결과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에게 본격적 연수 4주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유용하거나 도움이 되는지 설문한 결과, 이에 대한 응답은 K대학교 조사의 경우 “매우 그렇다” 쪽에 근접하였다. UQ의 경우 응답자 13명 중 10명(약 77%)의 학생들이 “Outstanding” 이라고 답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동료들에게 권장하겠는지에 대한 답변은 13/13명(100%)의 학생이 “Yes” 라고 답

하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총평으로 연수 마지막 무렵에 설문지(부록 2)와 단톡방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변화된 점, 그리고 향후 진로에 관한 의견을 서술하도록 요청되었다. 그 결과는 표 8-10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의 서술에서 다문화 역량의 향상이 시사되는 점을 정리하였으며(표 8), 글로벌·국내 교수 역량의 향상을 엿볼 수 있는 서술<표 9>, 그리고 아쉽거나 차년도에 향상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을 정리하였다<표 10>.

〈표 8〉 다문화 교육 역량과 관련한 소감

다문화 교육 역량과 관련한 소감

- 사전 기간 덕분에 호주 원주민 역사를 선행 학습하고 호주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골드코스트를 여유롭게 둘러봄으로써 호주에 대해 좋은 첫인상을 가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 호주에 처음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당황할 수 있는데, 본격 연수 전 골드코스트에서 활동하면서 호주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호주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을 건널 때 버튼을 눌러야만 한다는 점을 미리 숙지했기 때문에 브리즈번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다.
- 호주의 교육문화, 호주 교사들의 교수법,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 활동이었다.
- 호주의 대자연을 토대로 형성된 호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 섬 투어를 통해 지리적 소양을 키울 수 있었다. 나의 전공과 관련되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야생 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좋았다.
- Lone Pine Koala Sanctuary, Stradbroke Island 등 지역 일대를 현지인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며 브리즈번 곳곳을 다녀볼 수 있어 문화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현지인으로부터 유래와 특성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 홈스테이에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평생 갈 정도의 인상 깊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감사하다.
- 홈스테이 가족 모두가 저를 손녀처럼, 딸처럼 대해주셔서 4주가 행복했다.
- 피자과 같은 맛있는 음식을 해 주었고, 주말에 캥거루 농장도 구경시켜 주었다.
- 답례로 한국에서 가져간 라면과 떡국을 만들어 드렸고 좋아하셨다.
- 한국어 이름쓰기 놀이로 한국어를 소개하였다.
- 호스트 가족 모두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이들의 다년간의 홈스테이 경험으로 제가 불편할 부분, 어려워할 부분을 먼저 파악하여 조치해주었다. 또한 저와 같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 친절하고 사려 깊은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지내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다른 학우들에게 홈스테이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표 9〉 글로벌·국내 교육 역량 향상과 관련한 소감

## 글로벌·국내 교육 역량 향상과 관련한 소감

- 14명의 학우들 각자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Peer Teaching을 한 활동이 제일 좋았다. 5~10분정도 앞에 나가 무언가를 직접 가르쳐 본 것,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만든 14개의 짧은 강연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담당교사의 세심한 feedback을 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 굉장히 유익한 활동이었다.
- 수업시연을 하는 대상도 다른 전공의 친구들이라 이들이 실제 중고등학생이라고 가정하고 하니 도움이 되었다. 피드백도 자세히 받아서 좋았다. 수업시연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Peer teaching 주제가 전공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 자유로웠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급우들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에 자신감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교사의 자질과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교수법, 수업 설계 방법 등 많은 것을 배웠다. 교사가 되었을 때나 교생실습을 나갔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교수법을 익혔다.
- 교수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봄으로서 해당 교수방법의 장단점을 직접 체험하며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장차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교사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정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지루할 수도 있는 교육학을 다양한 예시와 실습, 활동들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되어 다들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였던 것 같고, 지식도 더 오래 남는 것 같다.
- 고등학교 탐방은 실제 외국의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너무 수평적이어서 약간 언짢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인상 깊고 의미있는 기회였다.
- 호주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학생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직접 호주 학교수업에 참관하는 동안 한국의 강의식 수업에 한계를 체감했고,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수업 방식의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 호주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바로 나 스스로가 동기가 없어서였다. 그래서 나는 돌아오는 학기 휴학을 선택했다. 부족한 영어랑 중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었다.
- 큰 가르침은 우리를 담당한 선생님들과 동료 예비교사들에게서 이루어졌다.
- UQ의 선생님들한테서 많이 배웠는데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학생을 우선시 하고 모든 수업을 학생들의 관점에서 생각했다.
- 호주의 교육문화, 호주 교사들의 교수법,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었다.
- 호주에 초, 중,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호주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학교시설과 수업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 tv나 책으로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달랐다. 하지만 나의 전공과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된다.
- 한국과 호주 교육방식의 차이점을 깨닫게 되었다. 호주 교육현장에서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듯 했다. 한국에서 가르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방향을 잡게 된 것 같다.
- 교과서가 없어서 학생들이 미리 조사해오거나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해나가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더 좋았던 것 같고 학생들도 자유로운 생각을 표출하는 것 같아서 인상 깊다.
- 역사, 문학, 토론 수업을 참관했는데 학생들의 창의성을 많이 볼 수 있었다.



---

### 글로벌 · 국내 교육 역량 향상과 관련한 소감

---

- 외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 오트레일리아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상당히 학생들의 자율성과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을 시킨다는 점이 기억에 깊이 남았다. 이 곳의 교사들은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그들이 스스로 지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학교 측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점과 이를 엄격히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참관 시 학생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지 말라는 사전의 약속을 받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과 초상권이 지켜졌다.
  -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부분이 수능을 위해 교실에 앉아 공부하는 것에 반하여 그 학교에는 다양한 진로 준비를 지원해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안에 농장이 있었고 스튜디오 운동기구 등 여러 분야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 체육 종목의 다양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뉴 스포츠를 이미 이 나라에서는 보편화되어 수업을 하고 있었고 호주에서만 할 수 있는 종목을 수업에 활용하여 호주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게 했다. 호주에서 활용하고 있는 몇몇 종목(AFL, rugby, oztag)은 한국에서 내가 체육 선생님이 되어서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교실이 과목별로 분화되어 백 개가 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교실 속에 꼭 차서 선생님께서 열도하시는 것을 조용히 받아 적는 학생으로 가득찬 교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아이들은 열심히 자기를 표현하고, 참여했다. 체육관과 댄스실, 도자기실, 프로그래밍 실 등 학생들은 12학년이 되면 점점 대학교의 전공과 같이 적성에 따른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다.
- 

### <표 10> 아쉽거나 차년도에 삭제되기를 권하는 부분

---

#### 아쉽거나 차년도에 삭제되기를 권하는 부분

---

- Lesson design project은 주로 영어교육과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인 것 같아 한계점이 느껴졌고, 학생들 대부분이 어려워했던 프로젝트였다.
  - School visit의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교실 활동들을 일정에서 줄이고, School visit을 1~2회 더 늘린다면 좋겠다.
  - 이론 수업이 많았는데 우리나라의 교직이론 수업 같았다.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교직을 많이 들은 고학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교직수업을 많이 듣지 못한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따라가는데 힘들기도 했다.
  - Chorus 와 Sports 프로그램은 합창과 3개 정도의 체육 프로그램을 주로 하였는데, 이 영역에 관심없는 학생들은 지루하게 여겼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 Mojo 프로젝트는 영상편집 기술과 내용 중 어느 것이 주안점인지 분명하지 않았고, 대만에서 새로운 UQ 학생들을 가이드해 주는 프로그램은 단발성에 많은 것이 요구된 것이라 좀 더 구조적 정련을 요한다.
-

## V.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은 K대학교에서 교원전문성 신장의 일환으로 예비교원들에게 현재 시급한 글로벌 다문화 역량을 함양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해외교육연수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 하에 개발되고 운영된 퀸즐랜드대학교와의 해외교육연수를 조명하였다. 앞장의 결과를 근거로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K대학교-퀸즐랜드대학교 교육연수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타 교원양성기관들이 유사 해외연수를 계획할 때 참고, 응용, 개선이 되도록 본 프로그램의 한계, 그리고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한다.

### 1. 본 연수에 대한 평가

첫째, 본격적 4주 프로그램 직전 하루 정도 시행된 사전 교육과정에 대해 참가자들은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정도를 평균적으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중간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사전 프로그램을 본격적 프로그램 전에 적극 시행할 것이 권장된다.

둘째, 본격적 4주 교육과정에 대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매우 그렇다” 내지 “Outstanding” 쪽에 가까웠으며, 참가자 전원이 이 프로그램을 타 동료들에게 권장할 수 있겠다고 했다.

세부 교육과정 사항으로, 먼저 브리즈번 시의 두 개 학교 방문에 대한 경험은 77%의 참여자들이 “Good” 내지 “Excellent”하다고 느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반응이 두드러지게 좋았던 영역은 호주의 특색이 잘 담긴 Lone Pine Koala Sanctuary 방문과 Stradbroke Island 방문이었으며, 그 다음 City Tour와 마이크로 티칭이었다. 이러한 영역들을 다음 해에도 유지하도록 권장된다.

극소수의 참가자들이 몇 개 영역을 다음 해에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이 영역은 스포츠 클럽과 코러스 클럽에 참가하는 활동, 또한 UQ에 처음인 외국인들에게 UQ 캠퍼스 투어를 시켜 주는 활동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활동은 후년 도에 삭제하도록 권장된다.

또 다른 수정 사항으로 School Visit 내용을 최소 1주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영역의 유용성을 가늠할 수 있는 응답으로 연장이 권장된다.

영어쓰기와 말하기능력에서는 각 21%와 43%의 학생들이 향상을 보였다. 이는 표현능력이며 4주 단기간이란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만한 증가라고 할 수 있겠다.

홈스테이에 관한 평가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매우 그렇다” 쪽에 가까웠

다. 세부사항으로 가족과의 상호작용, 음식, 시설, 위치, 프라이버시 존중 등에 대해서는 72~92%의 학생들이 “Excellent” 하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의 수정 제안은 사실상 없었다. 현 홈스테이 체제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홈스테이의 재운영은 아파트 옵션보다 강력 권장된다.

위치, 시설, 교사와 직원에 대한 평가는 불만족하다는 참여자는 없었다. 약 15%의 학생들이 “Good”으로, 69~100%의 학생들이 “Excellent” 로 평하였다.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의 사전·사후 조사에서 참여자들의 역량 향상도는 유의미하였다. 그 중 특히 향상치가 큰 영역은 자신들이 느끼는 ‘글로벌 교수 능력’의 향상과 ‘다문화 교육의 의지와 역량’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느낀 점, 배운 점, 향후 진로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였다. 이 서술을 종합해 볼 때, 본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지식, 관찰, 체험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연수의 유의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보람과 감사로 충만하였다. 다문화 교육 역량의 향상과 관련하여 이들은 사전 교육이 호주의 실생활 대비에 유용하였다고 하였으며, 호주의 자연과 도시 환경에 대해 그 가치를 감상하고 지식을 늘렸으며, 교사와 홈스테이를 통한 호주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문화적 지식을 늘리고 한국의 문화를 교류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 시간들에 감사하였다.

참석자들의 진술은 글로벌·국내 교육 역량의 향상이 시사되는 표현들로 풍부히 쏟아져 나왔다. 참가자들은 퀸즐랜드대학교 교실에서 동료들을 영어로 가르쳐 보는 수업 실연을 통해 영어로 해외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현지 고등학교 탐방에서는 호주 학교에서 전개되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 수평적 관계, 대학 진학 외의 진로에 대한 학교의 지원을 직접 보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학교 상황과 비교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장차 교사로서의 수업 설계를 호주에서 얻은 지식과 체험과 관련하여 설계해보게 되었으며, 해외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신감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로써 앞서 선행 연구들이 해외 현장 교육에서 관찰하였듯이, 본 연수는 예비교원들의 영어실력과 세계시민의식 고취(신창원, 2018; 최윤희, 2013), 자국 문화와 교수법에 대한 고찰과 비판적 성찰(Bennett, 2005), 글로벌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가능성 고찰(박인심, 2019)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퀸즐랜드대학교를 통한 교육 체험은 자기 발견과 성찰, 시야 확대의 시간이 되었음이 명백하였다.

이외, 참여자들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에 자신들이 연수기간 동안에 찍었던 사진을 외부와 활발히 공유하였다. 또한, 본문에서는 실지 않았으나, 연수 종료 후 이어진 참여

자들의 귀국보고회 또한 퀸즐랜드대학교와 호주 체험에 대한 향수와 성취감과 자긍심으로 가득 찼다.

마지막으로, 퀸즐랜드대학교 평생교육 및 영어교육원과의 해외교육연수가 K대학교 글로벌교원양성 프로그램과 연수를 공동 개발하고 운영해준 퀸즐랜드대학교의 영어교육원(ICTE-UQ)은 시종 프로페셔널리즘을 발휘해 주었으며, 친절한 매너와 신속하고 원활한 일처리로 K대학교의 우수한 파트너가 되었다.

## 2. 한계, 시사점과 제언

본 장에서는 퀸즐랜드대학교 해외연수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동시에 글로벌·다문화 역량 함양을 위해 유사 해외교육연수를 상상하는 타 양성기관들에게 제언과 코멘트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대학교로서 퀸즐랜드대학교를 선정하여 그 사례를 연구하였으나, 타 기관들은 퀸즐랜드대학교 뿐 아니라 다른 유망 대학교들을 선정하여 글로벌·다문화교육과 교원전문성 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본 연수의 결과는 참가자 14명이라는 샘플의 한계 안에 내려진 것이지만, 타 대학교들이 유사 연수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활발하게 공유할 때, 해외 연수 결과의 타당도와 신빙도는 그 확립이 건실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연수 국가로 특정 국가에 대한 기대사항이 없다면 호주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호주는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다문화 선진국이다. 예비교원들은 그 나라의 풍부한 다문화적 경험과 적극적인 대처를 체감하며 한국이 처할 다문화 교실과 타민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호주 내 기관이나 지역에 대한 특수 조건이나 요청이 없다면, 브리즈번 시에 위치한 퀸즐랜드대학교의 평생교육 & 영어교육원을 적극 추천한다. 세부적인 교육 콘텐츠는 쌍방 토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기관의 프로페셔널한 매너로 신뢰 속에 일을 진행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저자들은 퀸즐랜드대학교 연수가 학생들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주었으며, 타 양성기관들도 동일한 수준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리라고 확신한다.

연수 평가를 마무리하며 본 프로그램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모색을 빠뜨릴 수 없다. 참가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한편 아쉬워하는 부분이 호주의 학교 현장에 대한 체험이 짧았다는 것, 그리고 본인 전공과 관련한 수업을 참관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본 연수에서는 브리즈번 지역의 두 고등학교를 각 1일 간 방문하였다. 학생들이 초중고

학교를 고루 참관하고, 참관 일수를 늘린다면 호주의 교육현장을 자연스럽게 한국과 비교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볼 기회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 방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UQ 캠퍼스 내의 영어와 교수법 및 교육학과 관련한 교실 수업의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와 교수법 그리고 교육학은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며, 호주 학교의 현장 학습이야말로 호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비중 변경은 지역 학교와의 연계를 필요로 하여 행정관리와 재정의 부담을 수반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현지 연수 기관의 이해와 지역 네트워킹의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편 참가자들은 자기의 전공과 관련한 수업을 보고 싶어 했지만, 이는 본 연수에서는 앞으로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의 전공은 열 개 이상으로 다양하지만, 이들 전공을 다 반영할 만큼 많은 교실의 참관을 주선하는 것은 주어진 기간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는 참가자들에게 모든 전공 관련 교실 참가는 연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인지시켜 참가자들의 기대사항을 선제적으로 조율시킬 필요가 있다.

미래 연수는 또한 현장에서 최소 한 차시동안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 보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는 해외기관이 현장학교의 허락과 협조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교육실습이야말로 연수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글로벌 환경에서의 교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자기를 발견하게 해 줄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습과 학교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후반 2-3주를 할애할 수 있을 것이며, 전반 1-2 주는 해외 주관기관의 교실 학습으로 호주에서 생존에 필요한 기본 생활영어, 에티켓, 교육제도와 문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실습의 추가는 앞서 언급한 행재정적 부담의 증가 외에 예비교사들이 호주 교실에서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 중급 이상의 영어 실력을 요구한다. 참가자들 모두가 영어 실력이 높은 학생들로 뽑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해외 기관에서도 지역에 따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예비교사들이 자신들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꺼려하는 교육 문화도 있으므로 해외 기관과의 협의와 선호에 대한 조절을 요하는 부분이다. 본 퀸즐랜드대학교에서의 첫 연수는 학교 현장 방문과 현장 실습의 수준을 맞보기 형식에 그쳐야 했지만, 이 대학교와의 처음 연수 시도로서는 충분히 다른 좋은 점들이 있었다. 미래 유사 연수는 연수 대학교에서의 교실 수업과 현장 연계 학습의 비중 조절에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재정 지원과 관련한 시사점이다. 본 연수 사례는 교육부와 K대학교의 재정적 지원 하에 개발되고 운영되었다. 교육부의 지원이 모든 대학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교육부 지원의 확대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대학교 당국이 글로벌·다문화 역량 양성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이러한 해외연수를 위해 재정 할당을 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대부분 대학교들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화 지수를 올리려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 내 양성 기관들이 내용적 필요성에 의거, 연수 내용을 기획한다면, 대학 본부의 원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국내 다문화 교실에 대해 예비교원들이 슬기롭게 대응하고, 예비교원들에게 국내 교원 임용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해외 진출이라는 판로를 개척해 주어 그들이 해외에서 교육에 종사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비교원들을 위한 해외교육연수의 실행은 교원전문성 중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함양한다는 목적의 성취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행복한 다문화 교실이 되게 하여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더라도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어려운 시점마다 이 대의명분을 상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하나씩 달성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톱다운(Top-down) 접근에서 보면, 교육부, 국회, 대학본부 측에서 글로벌·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아낌없이 재정 원조를 제공하여 이 해외교육연수가 활성화 되고 보편화 된다면, 한국은 선진국들이 앞서 겪은 다문화 관련 고통과 문제들을 정부와 대학의 주도 하에 선제적으로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바텀업(Bottom-up)적으로는, 교원양성기관들이 교직이수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그들의 장래 직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연수를 창안(initiatives)하고 상부에 요구하며, 시행 후 결과 보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모두 상상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에 대해 등을 돌리지 않고, 건실한 국가 사회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교육 백년대계에 동참하는 것이다.

## 부록

### 1.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 측정 설문지와 참가자 응답 샘플

〈글로벌 교육 역량 평가지〉

영역	질문 (샘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해외교육 제도 및 문화의 이해 (5문항)	1. 해외 교육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다.	○				
	2. 해외 교육제도 및 문화에 관한 지식이 교육활동에 있어 도움이 된다.	○				
	3. 국가별 교육제도와 전략이 다른 것은 문화간 차 때문이다.		○			
	... (지면 상 문항 생략) ...					
한국교육 제도의 국제화 필요성 (5문항)	1. 나는 우리나라 고유의 우수한 교육제도를 알고 있다.			○		
	2. 나는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이해 한다.		○			
	3. 나는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해 이해 한다.	○				
	... (생략) ...					
글로벌 교수능력 (5문항)	1. 나는 글로벌 교육에 적합한 학습 자료를 개발·활 용할 수 있다.	○				
	2. 나는 글로벌 이슈를 교육과 연결시켜 지도할 수 있다.	○				
	3. 나는 글로벌 교육을 위해 교육내용을 재구성할수 있다.	○				
	... (생략) ...					
외국어 효능감 (5문항)	1. 외국어가 재미있다.	○				
	2.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있다.	○				
	3. 원어민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 참여하겠다.	○				
	... (생략) ...					
문화 간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 (5문항)	1. 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				
	2. 나는 다른 문화권의 특성(매너 등)을 감안하여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				
	3. 나는 주도적으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의 대화를 이끌 수 있다.		○			
	... (생략) ...					

〈다문화 교육 역량 평가지〉

영역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10문항)	1. 나는 국내 교육의 다문화화 현상에 따른 다문화 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				
	2. 나는 향후 교직원활동 시 학급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존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3.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	○				
	4. 다양한 인종 및 민족 집단의 문화적 특성(의식주 문화 등)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				
	... (생략) ...					
	10. 문화적 편견의 극복을 통한 인종 간 차별 해소 기 다문화 교육의 목표이다.	○				
다문화 교육 교수 의지 및 역량 (10문항)	1. 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업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2. 나는 다양한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도록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다.	○				
	3. 나는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수법(비언어적 표현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			
	4. 나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그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적극성이 있다.	○				
	... (생략) ...					
	10. 나는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찾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2. 해외 교육연수 참가 결과보고서

<b>1</b>	<b>이 교육연수에 참가하게 된 동기</b>
<b>2</b>	<b>활동내용 및 후기</b> ※ 주별 묘사 권장
<b>3</b>	<b>맺음말</b>
<input type="checkbox"/> 느낀 점, 변화된 점, 향후 진로 등 <input type="checkbox"/> 본격적 연수의 4 주간 수업 시간표에 있는 내용 중 가장 좋았던 부분, 그래서 차년도에도 꼭 있기를 권장하는 부분을 두세 가지 든다면 무엇입니까? 이유도 있다면 적어 주세요.	



- 본격적 연수의 4 주간 수업 시간표에 있는 내용 중 다음 해에는 삭제해도 좋을 부분을 한두 가지 꼽는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이유도 있으면 적어 주세요.
- 홈스테이 기간 중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 홈스테이 경험은 만족할 만 한 것이었습니까?
  - 0 전혀 아니다 ( )
  - 1 아니다 ( )
  - 2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 )
  - 3 그렇다 ( )
  - 4 매우 그렇다 ( )

**4**

**사전 교육 연수(6월 23~24일) Pre-program studies**

본격적인 연수 시작 전 주말에 골드코스트, 빈리, 브리즈번 강 일대를 함께 경험해 보았습니다.

- 이 사전 활동 기간이 유용하거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0 전혀 아니다 ( )
  - 1 아니다 ( )
  - 2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 )
  - 3 그렇다 ( )
  - 4 매우 그렇다 ( )
  
- 이 사전 활동 기간이 내년도 퀸즐랜드 연수에도 존재하는 것을 권장합니까?
  - 0 전혀 아니다 ( )
  - 1 아니다 ( )
  - 2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 )
  - 3 그렇다 ( )
  - 4 매우 그렇다 ( ○ )
  
- 사전 기간 내용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든다면 무엇입니까? 이유도 있으면 적어주세요.
- 사전 기간 내용에서 차년도 수정용으로 권장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유도 적어 주세요.

### 3. 시간표 샘플(ICTE-UQ에서 개발)

#### Week 1

Monday 25 June	Tuesday 26 June	Wednesday 27 June	Thursday 28 June	Friday 29 June
8:15 – 10:15 <b>Orientation</b>  Welcome to ICTE-UQ Course Overview Building Tour	8:15 – 10:15 <b>Project-based Learning</b>  Places to Go in Brisbane Explore Brisbane task set up	8:15 – 10:15 <b>English</b>  Mini Talks: Explore Brisbane Preparation & Presentations (Entry Speaking)	8:15 – 3:30 <b>Activity</b>  School Visit 1	8:15 – 10:15 <b>Methodology</b>  Reflection on School Visit 1 Goals & Expectations
<b>Break</b>				
10:45 – 12:45 <b>Culture</b> Getting to Know You / Life in Australia Group photo	10:45 – 12:45 <b>English</b> Portfolio 1 - My Teaching story (Entry Writing)	10:45 – 12:45 <b>English</b> Explore Brisbane: Peer & Tutor feedback Prep for School Visit 1	<b>Activity</b> School Visit 1	10:45 – 12:45 <b>English</b> UQ Campus Exploration: Conversation with UQ Students
<b>Lunch</b>				
Join the ICTE-UQ Chorus	1:45-4:45 <b>Activity</b> City Walking tour with UQ Guide and UQ students	Independent Learning	<b>Activity</b> School Visit 1	Free Sports – Swimming or Tennis

#### Week 2

Monday 2 July	Tuesday 3 July	Wednesday 4 July	Thursday 5 July	Friday 6 July
8:15 – 10:15 <b>Culture</b>  Mobile Journalists in Indigenous Communities: MoJo Task	8:15 – 10:15 <b>Methodology</b>  Managing Cognitive & Linguistic Demands in a CLIL setting	8:15 – 10:15 <b>English</b>  Australian Animals: Adapting course texts	8:15 – 10:15 <b>English</b>  Education in Australia: Adapting course texts	8:15 – 10:15 <b>Methodology</b> Peer Teaching 1: Giving Instructions in English (Micro-teaching)
<b>Break</b>				
10:45 – 12:45 <b>Methodology</b> Giving Instructions in English (Input & SetUp) Rugby Field	10:45 – 12:45 <b>Methodology</b> Prep for Peer Teaching 1: Giving Instructions in English Preparation	10:45 – 12:45 <b>Methodology</b> Teaching Skills: Analysis & Reflection	10:45–12:45 <b>Project-based Learning</b> Intro to Lesson Design Task Peer Teaching 1 preparation	10:45–12:45 <b>Methodology</b> Peer Teaching 1: Giving Instructions in English (Micro-teaching)
<b>Lunch</b>				
Join the ICTE-UQ Chorus	Independent Learning: Peer Teaching 1 preparation	1:45 – 4:45 <b>Activity</b> Lone Pine Koala Sanctuary with UQ Student Guide Meet L2 foyer at 1:30 Depart Lone Pine 4:30	<b>Conversation Club:</b> with ICTE-UQ students and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Meet in L2 Foyer	Free Sports – Football, basketball, or Tennis

#### 4. 활동 사진 샘플



## 참고문헌

- 강원식(2020. 1. 28.). 인구절벽이 만든 '폐교 쓰나미'. 이제 서울까지 덮친다. 서울신문 인터넷판.
- 강정진(2019). 해외교육실습 프로그램 참여가 예비교사의 글로벌 교육역량 함양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35(1), 205-232.
- 곰돌이 Co.(2006). 호주에서 보물찾기. 서울: 아이세움.
- 교육부(2020).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 권상철·김성백(2015). 제주대학교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 지원사업과 발전 방향. *교육과학연구*, 17(1), 43-64.
- 김연권(2010).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 교육의 이해(최충옥·모경환·김연권·박성혁·오은순·한용택·임은미·우희숙·이수미·임정수 공저), 13-38. 과주: 양서원.
- 김정우(2017). 다문화 사회와 삶의 변화. GTU(Global Teacher's University) 2017년 연차 성과 보고 및 포럼에 발표된 자료. 제주: 제주대학교 GTU.
- 류민정(2017). 해외 교육봉사와 국내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을 통한 예비 체육교사의 역량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6(2), 243-257.
- 모경환(2009). 다문화 교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26(4), 245-270.
- 박선미(2011). 다문화교육의 비판적 관점이 지리교육에 주는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91-106.
- 박신영·어용숙(2019). 문화적 다양성 태도, 문화적 공감이 시민의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효과: 김해 시민을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31(1), 183-195.
- 박인심(2019). 해외 교육봉사 프로그램 참여 예비교사의 다문화교육 경험과 인식. *글로벌교육연구*, 11(4), 110-140.
- 박정희(2014). 초등교사의 다문화교육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배정옥(2018). 지티유 사업단 뉴스레터 '나들누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들누리 교육소식*, 3, 1-18.
- 법무부(2019). 출입구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9년 6월호.
- 소연희(2018). 지각된 학교조직 문화지향성과 다문화 교수역량의 관계에서 교사-학생 관계 교사효능감과 교직적응탄력성의 매개효과. *교사교육연구*, 57(2), 279-296.
- 신숙희(2019). 자유와 개성이 넘치는 호주에서, 선진문화 한국을 꿈꾸며. 서울: 희즈북스.
- 신창원(2018). 예비영어교사의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 모델. *영어영문학*, 23(3), 243-271.
- 옥장흠(2009).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6(4), 191-221.

- 위키백과(2020). 오스트레일리아. 월드와이드웹: <https://ko.wikipedia.org/wiki/오스트레일리아> 에서 2020년8월 14일에 검색했음.
- 유성상(2015). 글로벌 사회에서 교사의 역할과 교사 양성의 방향. *교육과학연구*, 17(1), 19-41.
- 이세나·강순미(2013). 다문화 경험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 태도, 다문화교수 효능감에 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 95-124.
- 장원순(2009). 한국 사회에 적합한 다문화교사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48(1), 57-79.
- 전세경(2018). 초등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위한 교사교육 강좌의 실태 및 방향 탐색.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1(4), 155-176.
- 제이민(2019). 호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올루루.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 조아름(2019, 11월 7일). 학생 감소 예상보다 더 빨라져 '교원 구조조정' 불가피. *한국일보 인터넷판*.
- 조현주·육경민(2016).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3), 411-439.
- 채영란(2008).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적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3), 165-190.
- 최윤희(2013). 예비영어교사의 해외 언어 학습: Wales 교환 학생들의 사례연구. *총신대논총*, 33, 469-508.
- 최화숙(2013).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영역 구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원교육*, 29(2), 139-159.
- 한재영·서혜애·차정호·홍준의(2019). 해외 교육 봉사활동 체제에 대한 연구: 니카라과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8(1), 65-80.
- 호주정부 관광청. 월드와이드웹: <https://www.australia.com/ko-kr> 에서 2020.1.10에 검색했음.
- Alvarez, M., & Bali, V. A. (2004). The race gap in student achievement scores: Longitudinal evidence from a racially diverse school district. *Policy Studies Journal*, 32(3), 393-415.
- Banks, J. A. (2007).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 ed.). (모경환·최충옥·김명정·임정수(공역)(2008).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Banks, J. A., & Banks, C. A. M. (2013).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8th ed.).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Bennett, C. (2005). The future of teachers education. *The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6(3), 272-278.
- Gay, G. (1997). Multicultural infusion in teacher education: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72(1), 150-177.

- ICTE-UQ. (2018, 9). Report f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gram evaluation. Unpublished evaluation report, Brisbane: ICTE-UQ.
- Mitchell, L. A. (2009). Becoming culturally responsive teachers in today's diverse classrooms. Dissertation, Santa Barbara, California: Fielding Graduate University.
- Mushi, S. (2004). Multicultural competencies in teaching: A typology of classroom activities, *Intercultural Education*, 15(2), 179-194.
- Putnick, D. L., & Bornstein M. H. (2016). Measurement invariance conventions and reporting: The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irections for psychological research. *Developmental Review*, 41, 71-90.
- Sleeter, C. E. (2001). Preparing teachers for culturally diverse schools: Research and the overwhelming presence of whitenes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2(2), 94-106.

〈ABSTRACT〉

## Overseas Educational Training for Raising Global–Multicultural Competences of Student Teachers

Jungok Bae · Yunebae Park · Philippa Coleman

This study provides an overseas educational model and a case study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the Global Teachers Program of Teachers' College at K University in conjunction with the Institute of Continuing & TESOL Education of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in Australia. The purpose of the overseas education was to cultivate global and multicultural competences as well as generally increase educational professionalism. This paper will (1) introduce the background, the model, and the procedures used in developing this program during its pioneering period, (2) evaluate the results of its implementation, and (3) draw evaluative feedback and offer suggestions for other teachers' colleges wanting to implement similar overseas program for prospective teachers. Three types of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articipants evaluated both the weekend pre-program and the main training as satisfactory to excellent and indicated they would recommend the program to other students. Several highly-appreciated segments included: visiting local schools, visiting places of Australian uniqueness, micro-teaching, home-stays, locations and facilities, as well as the services of teachers and staff. The participants' global and multicultural competencies, English expressive skills, as well as reflections on future teaching produced positive results. Participants offered feedback about modifying a few segments to improve the program.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 overseas educational model provided in this study and the case study with the suggested modifications will be useful for those universities interested in raising prospective teachers' global and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competence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those dreaming similar overseas programs.

### Key words

K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Overseas Educational Model, Prospective Teachers, Global and Multicultural Competences

논문 투고일	2020. 10. 18
논문 심사일	2020. 11. 09
게재 확정일	2020. 11. 24

---

**배정옥**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번지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  
jungokbae@knu.ac.kr

**박윤배**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번지 경북대학교 물리교육과  
ypark@knu.ac.kr

**Philippa Coleman** Institute of Continuing & TESOL Education,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Brisbane Qld 4072 Australia  
p.coleman@icte.uq.edu.au



# 학교생활기록부 국제 비교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김순남\*\*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선진국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비교하여 한국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비교 대상 국가는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 등이다. 비교 대상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과 관리 방식에 대한 것이다.

국제비교 결과 다음과 같은 한국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주는 10가지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학습 및 생활정보 기록과 관리유형에서 ① 학생지도 목적 강화 ② 성적기록에 대한 다양한 방식 제공 ③ 과도한 양 조정 ④ 독서는 교과영역으로 흡수 둘째, 교과 발달상황 면에서는 ⑤ 초등학교 기술식만으로는 정보미흡으로 기록방식 다양화 ⑥ 고등학교 다양한 기록방식 제공 등 셋째, 기재 항목 및 기재 방법 면에서 ⑦ 필수 항목 간소화, ⑧ 기재 내용 간략화 등 넷째, 교육적 활용 면에서 ⑨ 학부모 상시정보활용시스템 활용성 증대 ⑩ 학부모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⑪ 학교급별 연계성 강화하고 진급시 연계 제공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 역량 측정 방법과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란 기록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항목, 교육적 활용성, 기록의 다양성, 부모 맞춤형 서비스, 역량 근거 기록

\* 이 논문은 2014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로서, 생활기록부 기록방식 및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중에서 연구자가 집필한 부분인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을 부분을 발췌하고 확대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2019년부터 학생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인적사항 제외, 진로희망사항은 창체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 수상은 초등은 항목 삭제, 중고는 모두 기재 하나 상급학교제공은 학기당 1개 기재, 대입자료로는 미제공, 중고 자격증은 대입자료로 제공하던 것을 미제공, 일부 서술식 기재 글자 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변경 개선하였지만 그 정도가 일부에 제한되고 미비하여 2014년 수행한 연구의 국제비교 결과를 현 시점에서 제시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논문으로 작성함.

\*\* 신한대학교 교수

## I. 서론

학교생활기록부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학습 및 생활’ 전반에 대해 기록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파악하고 학생이 더욱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초·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장을 기록해 가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적 목적뿐만 아니라 대학으로 진학하는 입시에 학생 부종합전형을 활용한 수시 비중이 활용성이 높으므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입시 자료로서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고 여기에 기록된 사항들은 학생들이 수행한 직접적인 활동들이어야 한다.

최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박균열 외(2015: 81)는 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거시적인 틀만 제공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에 대한 효율적인 연수가 요구되며, 학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의 제한에 대한 검증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석우 외(2009)는 교사들은 학생의 잠재력 판단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보다 교과영역을 신뢰하였다고 분석하고 부장교사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영역 반영에 있어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의 반영에 대해서는 기록 내용의 진정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면접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영임(2017)은 고등학생 대상 독서활동상황 기록에 대한 만족도, 독서활동 기록의 필요성, 독서활동 기록 방법 등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으며 고등학생들의 독서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기록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교육부는 주영효 외(2017)는 정책 연구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요구에 의해 교육부는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을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학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진로희망사항을 창체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 봉사활동의 특기사항만 기재, 수상은 초등학교 삭제, 수상은 중등학교 모두 기재하고 상급학교제공 시 학기당 1개이며 대입자료로 미제공, 자격증은 대입자료로 제공을 미제공, 방과후활동 미기재 등을 포함하여 몇 가지 항목의 기재 글자 수 제한 등에 대한 개선을 하였다. 그러나 개선 정도가 미비한 실정이고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기재 항목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신현석 외(2019:35)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불필요한 행정의 영역을 축소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분화된 지침의 중복 요소를 통합하고 간명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맥락에 적합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민주 외(2020: 38)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실태를 분석하여 성취도 산출 교과에서 일부 등급 솔림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및 교육부 차원에서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이 과다, 교사의 업무가 과다, 고등학교의 경우 바로 대학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서의 신뢰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계속 진행 중이다. 나아가 비교과 활동에 대한 타당성과 효용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대학 입시자료로서의 신뢰성,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들에 대한 타당성,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량의 적절성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현실적, 학문적 요청에 직면하면서 최근 교육부가 생활기록부를 개선하였으나 일부에 그쳐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의 시사점을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의 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에 대해 국제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 비교 준거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관리, 교과 및 교과 외 발달상황 기재 방법, 기재 항목과 방법, 교육적 활용, 최근 기재 방식에 대한 국제적 동향 등을 설정하였다. 국제 비교는 2014년에 수행한 것으로 국제 비교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국가들을 선정한 이유는 어느 한 국가를 탐색하여 시사점 도출하는 것은 편협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선진국을 비교하여 글로벌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비교 준거별로 우리나라 생활기록부 개선 방향 설정에 객관성, 타당성 및 설득력을 얻기 위함이다.

## II.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에 대한 국제 비교

### 1. 학생에 대한 학습 및 생활 정보 기록 관리 유형 국제 비교

#### 1) 학교생활기록부 형태

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 대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의 대상 국가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활용하는 국가는 해외 5개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이다. 미국은 성적표만으로 학생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표 1> 참조).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그리고 호주에서도 학생성적표와 학교생활기록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학생성적표는 단기적인 교과중심의 학생 지도용으로 작성되어 단기적인 결과에 대한 피드백 자료로 학생 성장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학교생활기록부 형태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1) 학교생활기록부로만 기록·관리	-	-	-	-	-	-
2) 성적표로만 기록·관리	-	-	○	-	-	-
3)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표를 통해 기록·관리	○	○	-	○	○	○

## 2) 학교생활기록부(혹은 학생 리포트) 내용

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사용하는 목적은 학생의 지도에 활용하는데 있다. 모든 국가에서 학교는 교원으로 하여금 생활기록부를 학생의 학습 지도용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대학 입시 선발 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인적사항, 출결사항, 교과발달상황은 모두 공통적으로 기재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항은 국가에 따라 다소 다르게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학적사항은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기재하고 있으며, 수상경력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기재하고 있고,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과 진로희망 사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프랑스에서 기재되고 있다. 진로 희망 사항은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에서 기록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서활동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재되고 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기재한다.

〈표 2〉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인적사항	○	○	○(이름 학년번호)	○	○	○
학적사항	○	○	×	○	○	○
출결사항	○	○	○(무단결석과 총결석일수 및 교과별로 표시)	○	○	○
수상경력	○	○(종합소견 및 지도상참고사 항)	×	×	×	×
자격증 및인증취 득상황	○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로 되는 사항)	×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기록)	○	×
진로희망 사항	○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로 되는 사항)	×	기재× (8월인터뷰 통해 확인)	○*	×
창의적 체험활동	○	○	×	×	×	×
교과학습 발달	○	○(관점별 평가와 평정)	○	○	○	○
독서활동	○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사항)	○(일부지역에 서만 필독도서 표시)	×	×	×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	○	○(주로 학습 기술 측면에서 접근함)	×	○	초등학교의 경우에만종 합의견이 제시

\* 프랑스에서 학생 진로는 성적을 기초로 교사 팀이 결정함. 따라서 학생의 진로 '희망'을 기재하지는 않음. 진로 결정(특히 고등학교 진학)에 이의 있을 경우, 교육청(아카데미 장학관)에 이의 제기 가능하며, 교육청에서 최종 결정함.

\*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학생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인적사항 제외, 진로희망사항은 창체진로활동 특시사항에 기재, 수상은 초등은 항목 삭제, 중고는 모두 기재하나 상급학교제공은 학기당 1개 기재, 대입자료로는 미제공, 중고 자격증은 대입자료로 제공하던 것을 미제공하는 것으로 함

### 3)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 주관기관 및 최근 동향

학교생활기록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에 근거하고, 미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규정을 찾을 수는 없고 학부모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표 3〉 참조). 학교생활기록부의 주관 기관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 기구인 주 및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과 및 서술식 기재 항목에 대해 국가적 수준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과 내신 산정 방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

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Maryland주 Fredrick County와 Montgomery County, Washington DC와 New Jersey주 학교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미국에서도 초등학교는 기준근거 학교리포트(standard-based report card)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교과별로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성적표에 기재하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온라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각 학교구별로 온라인으로 학부모들이 직접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교사들은 성적 평가의 세부 사항을 기입한다. 프랑스의 경우 개인역량기록부의 기록 양식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평가 단계를 4단계에서 성취 여부만 확인하는 2단계(예, 아니오)로 수정하였으며, 중학교에서만 시행되고 있던 학교생활평가점수제는 다른 영역과 중복성, 평가의 공정성, 엄밀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폐지하였다.

〈표 3〉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 주관기관 및 최근 동향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지침	학교교육법 시행 규칙 제24조, 제28조	특정한 규정은 없으며, 전반적인 학부모의 권리 규정	각 주정부 교육법에 따라 규정 (예: 헤센주 교육법 § 83) 학생과 부모 개인 자료규정	교육법 전 D. 311-6 ~ D.311-9조 개인역량기록부 명칭, 활용에 관한 명령, 학생기록부의 목적, 내용에 관한 지침	호주연방정부의 학교 재정지원법 (2004)
주관 지원 기관	주관기관: 교육부, 지원기관: 시·도교육청	주관기관: 학교 설립한 교육위원회, 지원기관: 문부과학성	학교구	주관기관: 각 주정부 교육부	주관기관: 교육부 지원기관: 지방의 국가교육청 (아카데미)	6개 주별 교육부
최근 동향	교과, 서술식 기재항목 국가 검토 진행, 진로활동 및 예체능 분야 기재 내실화, 교원채무성 강화, 성취평가 적용 방안 검토	2000년도 개정 때부터 목표에 준거된 평가와 개인 내 평가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	초등은standard-based report card로 변화추세. 교과별로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성적표에 기재, 온라인화, 학교구별 온라인으로 학부모 직접 성적확인 가능, 교사들은 성적 평가 세부 사항 기입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절대평가 방식의 평점 (점수, Noten) 규정 대안 및 보완, 보고 (통지)증명서 (Berichtszugnisse) 시도	개인역량기록부 기록 양식 간소화. 학생평가단계를 4단계에서 성취여부만 확인 2단계(예, 아니오) 수정, 중학교 학교생활평가점수제 폐지. 다른 영역과 중복, 평가의 공정성, 엄밀성 문제제기	A-E 5단계 평정 척도 활용

## 2.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 항목 및 기재 방법 국제 비교

### 1) 일반교과

일반교과의 교과학습발달 상황 기재 방식은 학교급별로 국제 사례를 비교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 방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서술식 기재가 이루어진다. 일본의 경우 관점별 학습상황에 대해 교과마다 평정을 하게 되며, 미국은 등급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점수(평점)를 기재하고, 프랑스의 경우 학교마다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교과별 성적 등급(4등급) 혹은 점수, 교사 의견, 학습사정위원회의 종합 의견 등이 서술된다. 호주에서는 교과별 5단계 평정 등급을 적용하며, 각 교과별 교사의 서술식 의견을 제시하고 생활기록부 말미에 교사 종합의견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중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교과, 성취도(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를 기재하고, 종합의견란을 서술한다. 일본은 교과마다 몇 개로 구성되는 관점별 학습상황을 교과마다 평정하고,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 되는 여러 사항을 서술한다. 미국은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과 종합의견을 기재하고, 독일은 교과별 점수를 기재한다. 프랑스는 교과 및 담당교사, 학생 점수, 학급 평균, 학급 최저-최고 점수, 과목별 교사 의견과 교사위원회의 종합의견 1줄 미만의 단문으로 작성한다. 호주는 수강 교과별 A-E 5단계 평정등급을 적용하고 수강 교과별 교사의 서술식 의견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는 교과,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기재하고 종합의견에 서술한다. 일본은 교과마다 학점수, 평정을 기록하고,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을 서술한다. 미국은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과 종합의견을 기재한다. 독일은 교과별로 점수를 기재한다. 프랑스는 교과 및 담당교사, 단위수, 학생점수, 학급 평균, 학급 최저-최고 점수, 과목별 석차와 전체 평균 기준 학급 석차를 기재한다. 또한 과목별 교사 의견과 교사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서술한다. 의견은 1줄 미만의 단문으로 작성한다. 호주는 교과별 A-E 5단계 평정등급 적용하여 기재하는데, 교과별 교사 서술식 의견을 제시한다. 11학년, 12학년의 경우 수강교과별 백분위 시험점수와 교과별 수강생 대비 개인 등수를 제시한다.

### 2) 예체능 교과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는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일본은 관점별 학습상황을 교과마다 평정하고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사항 서술한다. 미국은 등급 기재, 독일은 점수 기재,

프랑스는 등급 또는 점수, 교사의견을 기록한다. 호주는 일반교과와 같이 5단계 평정을 실시하고 각 교과별 교사의 서술식 의견을 제시하고 종합의견도 제시한다(<표 4 참조>).

중학교의 경우 우리나라는 교과별 과목성취도 기재하고 종합의견을 서술한다. 일본은 관점별로 교과마다 평정하고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을 서술한다. 미국은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과 종합의견을 기재한다. 독일은 교과별 점수를 기재하고 프랑스는 교과 및 담당 교사, 학생점수, 학급평균, 학급 최저-최고 점수를 기재, 교사의 의견을 서술한다. 호주는 일반교과와 동일하게 5단계 평정 사항을 기재하고, 각 교과별로 교사의 서술식 의견을 제시한다. 종합의견도 제시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는 교과, 단위수, 성취도 기재하고 종합의견란에 서술한다, 일본은 교과마다 학점수와 평정을 기록하고 종합의견으로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들을 서술한다. 미국은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과 종합의견을 기재한다. 독일은 교과별 점수를 기재하고, 프랑스는 교과 및 담당교사, 단위수, 학생점수, 학급평균, 학급 최저-최고 점수를 기록하고, 교사의 의견을 서술한다. 호주는 일반교과와 동일하게 5단계 평정 사항을 기재하고, 각 교과별로 교사의 서술식 의견을 제시하고 종합의견도 제시한다. 특히 호주는 11학년 및 12학년의 경우 수강교과별로 백분위 시험 점수와 교과별 수강생 대비 개인 등수를 제시한다.

〈표 4〉 일반교과와 예체능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 방법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반교과	초	서술식	교과마다 몇개로 구성되는 관점별 학습상황, 교과마다 평정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 서술>	등급 기재	점수(평점)기록(헤센주는 첫 두 해는 성적 기재 안함)	학교에 따라 상이함. 기본적으로 교과별 성적 등급(4등급)또는 점수, 교사의견, 학급사정위원회 종합의견 서술(1줄 미만의 단문)	수강 교과별 A-E 5단계 평정등급 적용, 각 교과별 교사의 서술식 의견 제시, 기록부 말미에 교사 종합의견을 제시
	중	성취도(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기재 <종합의견 서술>	교과마다 몇개로 구성되는 관점별 학습상황, 교과마다 평정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사항 서술>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 기재, 종합의견 기재	교과, 점수 기재	교과 및 담당교사, 학생 점수, 학급 평균, 학급 최저-최고 점수, 과목별 교사 의견과 교사위원회의 종합의견 서술(1줄미만단문)	수강 교과별 A-E 5단계 평정등급 적용, 수강 교과별 교사의 서술식 의견제시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예 체 능 교 과	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기재<종합의견 서술>	교과마다 학점수, 평정<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 서술>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 기재, 종합의견 기재	교과, 점수 기재	교과 및 담당교사, 단위수, 학생점수, 학급 평균, 학급 최저-최고 점수, 과목별 석차와 전체 평균 기준 학급 석차, 과목별 교사의견과 교사위원회의 종합의견서술단문	교과별 A-E 5단계 평정등급 적용, 교과별 교사 서술식의견제시, 11, 12학년의 경우 수강교과별 백분위 시험점수와 교과별 수강생 대비 개인 등수 제시
	초	서술식	관점별 학습 상황, 교과마다 평정<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사항 서술>	등급 기재	점수 기재	등급 또는 점수, 교사의견	수강 교과별 A-E 5단계 평정등급 적용, 교과별 교사의 서술식의견제시, 기록부 말미에 교사 종합의견제시
	중	과목성취도 기재<종합의견 서술>	교과별 관점, 교과마다 평정<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 서술>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 기재, 종합의견 기재	교과, 점수 기재	교과 및 담당교사, 학생점수, 학급평균, 학급 최저-최고 점수, 교사의견 서술	수강 교과별 A-E 5단계 평정등급 적용, 수강 교과별 교사의 서술식의견제시
	고	단위수, 성취도 기재<종합의견 서술>	교과마다 학점수, 평정<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 서술>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 기재, 종합의견 기재	교과, 점수 기재	교과 및 담당교사, 단위수, 학생점수, 학급평균, 학급 최저-최고 점수, 교사의견 서술	수강 교과별 A-E 5단계 평정등급 적용, 수강 교과별 교사 서술식의견제시, 11, 12학년의 경우 수강 교과별 백분위 시험점수와 교과별 수강생 대비 개인 등수 제시

### 3) 기재 방식 상의 특징

교과학습발달상황에 대한 기재 방법을 등급식, 점수식, 서술식, 체크리스트식 방법으로 구분하여 국제비교 하였다.

고등학교 등급식 기재 특징을 살펴보면 점수제로 운영되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연구 대상 국가들은 모두 등급제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교과는 성취도(A~E)와 석차등급(1~9등급)으로 입력하고, 전문교과는 성취도(A~E)로 성적을 산출하며, 체육·예술교과는 전문교과를 보통교과로 개설한 경우 3등급으로 처리된다. 일본은 관점별 평가(A,

B, C)와 5단계 평정이 이루어지고, 평정은 초등의 경우 3단계이며, 1-2학년은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은 각 과목별로 등급만을 표시하고 GPA와 석차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호주는 성취도(A-E)와 백분위 시험점수 및 교과별 수강생 대비 석차등급을 제시한다. 독일은 6등급으로 기재된다.

다음으로 점수식 기재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등급뿐만 아니라 점수를 동시에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과목 성적, 평균, 표준편차 등을 통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도입된 성취평가제로 인해 2014년 현재 중학교는 전체 학년이 성취등급, 고등학교는 1학년만 성취등급을 병기하고 있다. 독일은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경우 6등급 점수가 기재되고 체육·예술 교과의 경우 6등급의 점수를 기재하고 자유활동으로 합창을 한 경우 참여/비참여로만 구분된다. 프랑스는 중, 고의 경우 과목성적, 학급평균, 학급 최저-최고 점수, 과목별 석차(고등학교만), 과목 평균을 기준으로 한 학급석차(고등학교만) 정보를 통해 상대적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3학기 성적표는 1학기 학생성적을 모두 기재하여 학생 발달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호주는 11, 12학년은 과목성적, 백분위 점수를 제시한다. 일본, 미국은 점수식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술식 방식의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 서술식 평가로 기재된다. 일본은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을 서술하고 개인내평가의 결과를 교과 외 활동과 종합적으로 기재한다. 프랑스의 경우 과목별 1줄 미만의 간략한 의견을 진술한다. 단, 미사여구는 아니며 학생의 특징, 노력이 필요한 영역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학기, 발전하고 있음, 대화 참여 노력 필요함 등과 같으며, 이는 초, 중, 고 모두에 해당된다. 미국은 등급 제시 후 간략하게 서술식으로 기술하고, 한 두 단어로 교과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서술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객관적 점수로 기재하여 성취도와 학습 향상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방식은 미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활동기록과 행동기록은 해당 항목에 동그라미를 치는 방식이다.

〈표 5〉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 방법의 특징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급 식 기재 의 경우	보 통 교 과	성취도(A~E)와 석차등급(1-9등급) 입력	관점별 평가(A, B, C)와 평정(초등 3단계 <1, 2학년	각 과목별로 등급만 표시 / GPA와 석차도기	6등급 기재	×	성취도(A-E)와 백분위 시험점수 및 교과별 수강생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특징 (고)	전문교과	성취도(A~E)로 성적 산출	아님>, 중·고는 5단계)	재하는 경우 있음	6등급기재, 자유 활동으로 합창을 한 경우 참여/비참여로만 구분	×	대비 석차등급 제시
	체육예술포과						
점수식 기재의 경우 특징 (표준편차 여부 포함)	<중, 고> 과목성적, 평균, 표준편차 등을 통해 상대 평가용이	점수식 기재 아님	점수식 기재는 거의 없음. 표준편차 기록하지 않음	6등급 점수 로만 기재	<중고> 과목성적, 학급평균, 학급 최저-최고 점수, 과목별 석차(고교만), 과목 평균 기준 한 학급석차(고교만) 정보를 통해 상대 위치 파악 가능. 3학기 성적표 1,2학기 성적 모두 기재, 학생발달상황과 악	고등학교 11, 12학년의 경우 과목성적, 백분위 점수 제시	
서술식 기재의 경우 특징 (신뢰성 여부)	<초> 객관화 된 데이터 없이 과목별로 간략하게 입력하는 것은 미사여구의 글임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 서술>에 개인내 평가를 교과와 외 활동 종합적 기재	등급제시 후 간략 서술식 기술. 한 두 단어로 교과에 대한 사항을 간략표현경우 있음	객관적 점수로 기재	<초, 중, 고> 과목별 1줄 미만의 간략한 의견 진술. 학생의 특징, 노력이 필요한 영역을 간략하게 서술(예: 성공적인 학기, 발전하고 있음, 대화 참여 노력 필요 등)	수강 교과별 강의 요목에 대한 성취도와 학습향상도를 종합적으로 기술	
체크리스트식 기재 항목의 특징	×	특별활동기록과 행동기록은 해당하는 항목에 동그라미를 치는 방식	×	×	×	×	

\* 프랑스 초 - 학교에 따라 1-3학기 성적을 모두 기재할 수 있는 성적표 양식 사용. 학급사정위원회에서 최우수, 우수, 격려의 3단계 등급을 결정, 표기하기도 함. 3학기 성적표에는 다음 학년도 진급-유급 여부 기재. 졸업학년도 3학기 성적표에는 상급학교 진학 여부 기재

\* 프랑스 중, 고 - 3학기 성적표에는 다음 학년 진급-유급 여부 기재, 졸업학년도 3학기 성적표에는 진학(중→고) 결정과 날짜 기재

### 3. 교과 외 발달상황 기재 항목 및 기재 방법 국제 비교

#### 1) 교과 외 영역 내용 및 인적, 학적, 출결 사항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교과 외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진로 희망사항,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등을 기재한다. 일본은 외국어활동(초등만), 종합적인 학습 시간, 특별활동, 행동 기록,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 출결 사항을 기록한다. 미국은 협동, 노력 정도, 융통성 및 모험 감수 등 전체적인 학습 기술에 대한 평가 또는 사회적 기술을 평가하는 곳도 있다. 독일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등을 기재한다. 프랑스는 자격증(이수증) 이수 여부와 날짜, 인적사항(성명, 출생일, 부모 주소) 학적사항(진급-유급 여부), 출결사항 등을 기록한다. 호주는 출결사항, 초등학교는 교과 외 교육활동 유형이 추가 표시된다.

인적사항의 경우 우리나라는 학생, 가족사항, 특기사항이며, 이는 누가 기록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와 일치해야 하며, 특기 사항란은 보호자의 동의 후 작성한다. 일본의 경우도 학령부를 참고하여 학생, 학부모가족사항 등을 기재한다. 후리가나(한자의 읽는 법)는 가정조사표 등으로 기재한다. 미국은 학생 이름과 ID, 주소 입력하는 곳도 있다. 독일은 학생과 가족사항을 기재한다. 프랑스는 학생, 부모, 법적 보호자 정보, 비상연락처를 기재하고 부와 모, 법적 혹은 보호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부모와 법적 보호자 친권여부를 표시한다. 호주는 학생이름, 학급 유형, 학년, 담당교사 이름을 기재한다.

학적사항의 경우 우리나라는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특기사항을 기술하며, 특기사항은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일본은 학교명, 교장명, 담임명을 기록하고 사실대로 입력하고 교사명 뒤에 도장 찍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점수용어 하단에 기재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재학 학교 정보인 학교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또한 유, 초, 중, 고의 학적을 누가 기록하지 않으며, 전학시 이전 재학 학교가 기록된다.

출결사항의 경우의 우리나라는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을 서술식으로 기록한다. 특기사항란은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을 입력한다. 일본은 수업일수, 출석 정시·복상, 출석해야 하는 일수, 출석일수, 비고 등을 서술식으로 기록하고 비교란은 결석사유, 징계에 따른 정학처분의 이유 등 입력한다. 미국은 무단결석 일수, 총 결석일수, 지각 횟수, 과목별 결과 횟수 등을 기재하고 숫자 입력 후 출결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기술한다. 독일은 증명서 하단에 지각과 결석을 기재한다. 프랑스는 결석, 지

각을 기록하고 매학기 성적표에 결석, 지각 횟수를 기재한다. 호주는 결석일수, 조퇴일수를 기록하고 학부모의 결석에 대한 사유서 제출 여부를 표시한다.

〈표 6〉 교과 외 영역 내용 및 인적, 학적, 출결사항 기재 항목 및 기재 방법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교과 외 영역 평가 기재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진로 희망사항,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외국어활동(초만), 종합적인 학습 시간, 특별활동, 행동 기록,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 출결 기록	협동, 노력 정도, 융통성 및 모험 감수 등 전체적인 학습 기술에 대한 평가 또는 사회적 기술을 평가하는 곳도 있음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등	자격증(이수증) 이수 여부와 날짜, 인적사항(성명, 출생일, 부모 주소) 학적사항(진급-유급 여부), 출결사항 등	출결사항,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외 교육활동 유형이 추가적으로 표시됨
인적 사항	입력 사항	학생, 가족사항, 특기사항	학생이름, ID, 주소 입력하는 곳도 있음	학생, 가족사항	학생, 부모, 법적 보호자 정보, 비상연락처	학생이름, 학급 유형, 학년, 담당교사 이름
	기재 방법	<누가기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서와 일치, 특기사항란은 보호자의 동의 후 작성	학령부를 참고로 기재. 후리가나(한자의 읽는 법)는 가정조사표 등으로 기재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학생의 이름과 ID 기록	×	부와 모, 법적 혹은 보호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신분증번호, 이메일. 부모와 법적 보호자 친권여부표시*
학적 사항	입력 사항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특기사항	학교명과 담임 교사명 기록. 학교장 이름 기록 있음	학적 처리 사용하는 접수용어 하단기재	재학학교 정보(학교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	재학학교 정보(학교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
	기재 방법	<서술식> 특기사항은 학적변동의 사유 입력	사실대로 입력. 교사명 뒤에 도장 찍음	객관적, 기본적인 사항. 있는 그대로 학생의 담임교사와 재학학교 기록	×	유, 초, 중, 고의 학적 누가 기록하지않음. 전학시이전 재학학교 기록됨
출결 사항	입력 사항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수업일수, 출석정지·상고, 출석해야 하는일수, 출석일수, 비교	무단결석 일수, 총 결석일수, 지각 횟수, 과목별 결과 횟수	증명서 하단에 지각/결석 기재	결석일수, 조퇴일수, 학부모의 결석에 대한 사유서 제출 여부 표시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기재 방법	<서술식> 특기사항란은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입력	<서술식> 비고란은 결 석사유, 징계 따른 정확처 분이 유동 입 력	숫자 입력 후 출결 상황에 대한 전반적 인 의견 기술	×	매학기 성적표 에 결석, 지각 횟수 기재	결석일수와 조퇴 일수 중 학부모의 결석에 대한 사유 서 제출 여부를 산 정해서 표시

## 2)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기재 내용 및 방법

생활기록부에 수상경력과 자격증, 인증취득 상황을 기록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두 개 국가이다. 먼저, 수상경력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입력 사항은 교내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 대상 및 참가인원을 기록한다. 특히 동일 내용이나 동일 작품에 대해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최고 수상경력만 입력한다. 교외상은 입력을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수상경력을 적는 별도 항목이 없다.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 기술하지만 특별한 방식은 없다. 기록은 간결하게 작성하고 교내외 관계없이 기재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등을 입력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에 취득한 기술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는 별도 항목이 없고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특별 방식 없이 간결하게 작성하고, 교내외 상관없이 입력 가능하다. 프랑스는 생활기록부 상에는 기재하지 않지만 별도로 이수증 종류별로 취득 여부, 취득 날짜를 기재한다.

<표 7>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기재 내용 및 방법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수상 경력	입력 사항	교내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별도 항목 없음. 종합소 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 는 여러 사항에 기술. 특 별 방식 없음	×	×	×	×
	기재 방법	<누가기록> 동일 작품이나 내용을 다 수 받은 경우 최고 수준 수상경력만 입력, 교외 상 입력 불가	간결하게 정리해서 작성. 교내, 교외 상관없이 입 력 가능	×	×	×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입력 사항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별도 항목 없음.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에 기술. 특별 방식 없음	×	×	이수증 종류별로 취득 여부, 취득 날짜 기재	×
	기재 방법	<누가기록>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 한해 입력	간결하게 정리해서 작성. 교내, 교외 상관없이 입력 가능	×	×	이수증 취득 여부를 체크하고 이수 날짜 기록	×

### 3) 진로희망,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내용 및 방법

첫째, 생활기록부에 진로 희망과 관련하여 기록을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과 프랑스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학생, 학부모), 희망 사유를 서술식으로 기술하고, 희망사유에는 선택 동기, 이유, 계기 등을 입력한다. 일본은 별도 항목과 방식이 없고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을 기술한다. 프랑스는 학급사정위원회, 교사위원회에서 진로로서 진급과 유급에 대한 결정 사항을 기재한다(예: 5학년 진급).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독일의 일부 주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우리나라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작성한다. 일본의 경우 학급활동,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학교행사(고등학교 제외) 등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학교마다 설정한 간점을 서술하고 ○표를 한다. 고등학교는 완전 서술식이다. 독일의 대부분의 학교는 기재를 하지 않지만, 주에 따라 기재란이 있으며 니더작센 주는 초등학교는 흥미와 능력에 관한 기재란 있다.

셋째, 독서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우리나라는 과목 또는 영역, 독서활동상황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교과별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일본은 별도 항목 없으며,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사항에 서술식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미국은 독서 능력을 표시하고 학생의 능력에 적합한 도서 목록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관련하여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연구 대상 국가에서 기록된다. 우리나라는 행동특성, 종합의견란을 서술식으로 기술한다. 수시 관찰하여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입력한다. 일본은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특별한 방식은 없으며 서술식으로 간결하게 정리

해서 작성한다. 미국은 협동, 노력 정도, 융통성 및 모험 감수 등 전체적인 학습 기술에 대한 평가 또는 사회적 기술 평가하는 곳도 있다. 등급식의 경우 독일은 주별로 상이하  
나, 노동활동과 사회활동을 점수화하여 기재한다. 예를 들어 니더작센 주는 5등급, 헤센  
주는 6등급 점수에 준하여 기재한다. 호주는 초등학교에 국한하여 담임교사의 교과별 성  
취와 노력 및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제시한다.

〈표 8〉 진로희망,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내용 및 방법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진로 희망 사항 (희망 사유 기재 여부 포함)	입 력 사 항	특기 또는 흥 미, 진로희망 (학생, 학부 모), 희망 사 유	별도 항목과 방식 없음. 종 합조건 및 지 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 항을 기술	×	×	학급사정위원 회, 교사위원 회에서 진로 (진급, 유급) 결정 사항 기 재(예: 5학년 진급)	×
	기 재 방 법	<서술식> 희망사유는 선택 동기, 이 유, 계기 등 입 력	간결하게 정 리하여 작성	×	×	해당 항목에 체크함	×
창의적 체험 활동	입 력 사 항	자율활동, 동 아리활동, 분 사활동, 진로 활동	학급활동, 학 생회활동, 동 아리활동, 학 교행사(고등 학교제외)	×	×	보통 기재하 지 않음(주에 따라 기재란 이 있음). 니 더작센 주는 초등학교는 흥미, 능력에 관한 기재)	×
	기 재 방 법	<서술식> 초등학교는 4 개 영역을 통 합하여 작성	<서술식> 학교마다 설 정한 간점을 서술하고 ○ 표함. 고등학 교 서술식	×	×	×	×
독서 활동 상황	입 력 사 항	과목 또는 영 역, 독서활동 상황	별도항목 없 음. 종합조건 및 지도상 참 고 되는 사항 에 기술. 특별 방식 없음	독서 능력을 표시하고, 해 당 학생의 능 력에 적합한 독서 목록 제 시하는 경우 도 있음	×	×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기재방법 <서술식> 교과별 특기 사항이 있는 학생대상 학기말에 입력	<서술식> 간결하게 정리해서 작성	학생읽기 수준에 따라 읽기 수준과 해당 수준에 적합한 추천도서명만 기재	×	×	×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예체능활동 기재 포함 여부)	입력 사항 행동특성, 종합의견	별도항목 없음. 종합소견 및 지도상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에 기술. 특별방식 없음	협동, 노력 정도, 융통성 및 모험 감수 등 전체적 학습 기술에 대한 평가, 또는 사회적 기술 평가하기도함	주별 상이, 노동활동, 사회 활동을 점수화 기재(예: 니더작센 주는 5등급, 헤센 주는 6등급 점수에 준하여 기재)	×	초등에 국한해 담임교사 교과별 성취와 노력, 교과 외활동종합적 의견제시
	기재방법 <서술식> 수시 관찰하여 총체적으로 학생 이해하도록 종합 의견 입력	<서술식> 간결하게 정리해서 작성	등급식	×	×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시

\* 프랑스는 종류별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증권 번호, 학부모회에 정보 공개 여부, 아동의 사진 촬영에 대한 허가 여부 표시

### Ⅲ. 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한 국제 비교

#### 1.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및 전산화에 대한 국제 비교

첫째, 생활기록부 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급학교에서 하급학교의 진로활동 영역에 한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일본은 학생을 지도할 때 대학 학생이 졸업한 학교에서 받아들일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은 성적증명서를 제공한다. 독일은 복선형 학교이므로 상급학교의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가 다르나 중등II단계에서 직업학교로 가는 경우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사례를 보면 학교교육자료와 훈련, 특히 직업훈련, 현장실습 또는 노동행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프랑스의 경우 하급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이관되는 정보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CE1, CM2 학년에서 시행된 국가수준평가, 단계1과 2의 역량 평가결

과, 이수증 취득 정보 등이 중학교로 전달된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관되는 정보는 단계 3 역량평가 결과, 이수증 취득 정보이다. 호주는 전학(또는 진학) 경우에 성적표사본을 전학(진학) 희망학교 행정실에 학생이 제출한다.

둘째, 개인 정보 활용 등의 정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급학교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제공받을 수 있다. 일본은 개시 청구되면 지차체 마다 개인정보보호조례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프랑스는 학생행정기록부의 조사 항목 중 정보 활용(부모 정보제공, 학생 사진 촬영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다.

셋째, 기록 매뉴얼 유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육부가 발간한 2014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를 각 학교에 배부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지를 내고 교육위원회 마다 취급요령을 작성할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기재방법은 학교마다 다를 있음 미국 기록 매뉴얼은 없으며, 학부모 안내 책자 있음 프랑스 개인역량평가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정한 참고표가 제공되고 있다. 역량 영역의 세부 평가 항목별로 목적, 평가 기준을 상세히 제시함.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호주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경우에는 학교평가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각종 정보와 샘플을 탑재한다.

넷째, 전산화 정도에 대해 우리나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전산화되어 있다. 일본은 법적으로 전산화를 인정하고 실제 동경도는 도입하지만 아직 종이에 찍는 방식이 중심이다. 미국은 각 학교구별로 전산시스템이 운영(Illinois 주 경우 PowerSchool 사이트) 되고 있다. 독일의 각 주에서는 정부별 전산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등학교에서 학교 성적표, 알림 사항 등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학교생활기록부나 개인역량기록부는 전산화되어 있으나 종어로 된 문서와 제공되는 정보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산화가 발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2. 교육적 활용 및 연계성 검토 국제 비교

첫째, 학생 지도 연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생활기록부에 1학기과 2학기의 학생 성적을 기록하고, 이를 학생의 교과지도, 생활지도에 활용한다. 정보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된다. 일본은 지도 결과를 돌이켜 보기 위해 학생 활동에 대해 학기말마다 생활통지표를 학생, 학부모에게 배포하여 학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은 각 학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분기별, 학기별로 누가 기록한다. 독일은 1학기, 2학기 성적을 기록하여 통지표로 전달한다. 프랑스 초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중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 결과, 단계1과 2의 역량 평가 결과, 각종 이수증이

중학교로 이관된다. 초등학교에서 성취하지 못한 역량은 중학교에서 재평가 받는다. 초등학교 단계용 이수증 취득 시 중학교 단계용 이수증도 취득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교사, 학부모 연계 도구로 활용된다. 호주는 1학기, 2학기 성적기록을 학부모에게 발송한다.

둘째, 학생 진로 진학 지도와 연계하여 우리나라는 상급학교에서 하급학교의 진로희망 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한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 연계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학교의 성적뿐 만 아니라, 출결, 봉사활동,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학교생활의 충실도 및 인성, 적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진학 시 원적교는 재학 당시까지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일본은 지도요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조사서를 진학 및 취직을 희망하는 학교와 회사에 제출한다. 조사서 양식은 취직용과 진학용이 있고 진학용은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 등이 결정한다. 독일은 학교성적뿐 아니라, 출결, 학교생활의 충실도 및 인성, 적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프랑스의 경우 학생 진로, 진학은 교사팀에서 결정하며, 그 결과는 3학기 성적표에 기재된다. 이에 대하여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소할 수 있다. 교사팀의 결정은 주로 학생의 성적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성적 외 다른 요소들이 진로, 진학에 반영되지 않는다.

셋째, 대학입시 전형 활용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4년도 대학입시 수사에서 입학사정관제의 명칭이 학생부 전형으로 바뀌면서 생활기록부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일본은 일부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AO입시 때 활용한다. 종종 조사서를 선발자료로 활용하는 대학교가 일부 있어 활용에 있어서 한정적이다. 프랑스 공립대학 진학 시 내신 성적은 반영되지 않으며, 바깥로레아 합격자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 가능하다. 단 중등사립학교 진학이나 학생 선발이 있는 고등교육기관 진학 시 내신 성적이 반영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내신 성적이 대학입시전형의 50%이다.

마지막으로 연계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생활기록부의 학교급별 연계면을 살펴보면,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등에 있어 우수하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경우 초·중·고 기재사항란 및 방식에 차이가 있어 연계의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연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경우 학생기록부와 진학 연계와는 관련 없다. 독일의 우수사항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등이다. 프랑스는 매년도 조사한다는 점에서 우수하지만 학교급별로 특히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간에는 문화적, 역사적 차이로 인해 연계가 약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에서 시행한 단계3 역량 평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고등학교에서 해당 역량 평가를 계속

실시하도록 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계되는 사항은 없다.

### 3. 최근 기재 방식 동향 국제 비교

#### 1) 교과 관련

우리나라 생활기록부의 최근 기재 방식을 살펴보면 교과 기록 면에는 성취도,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을 병기한다. 영역별로 서술식 기재항목의 입력 글자수를 제한하고, 객관적 사실 위주,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잘 드러나기 위한 입력내용 작성 기준을 제시한다. 일본은 관점별 학습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정은 목표에 준거한 평가(절대평가)가 도입되었다. 미국 초등학교는 standard-based report card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각 교과별로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성적표에 기재한다. 독일은 객관적 사실 위주, 절대평가에 기준을 둔 6등급으로 표기한다. 프랑스는 1990년대 후반과 비교할 때, 고등학교성적표 양식이 간소화되었다. 즉 종전의 과목별 점수와 등급을 병기하던 것에서 점수만 기록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학급 학생의 점수 분포 정보(8점미만, 8-12점, 12점 이상 학생수/비율) 삭제하였다. 호주는 교과 성적은 A-E 5단계 평정기준을 적용하며, C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교과별 교사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으며,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다.

#### 2) 비교과 관련

우리나라의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관련 최근 기재 방식을 살펴보면, 수상실적은 교내대회로 한정하고 실제 참가인원을 병기한다. 진로희망사항란에 학생의 진로 희망 사유 기재란을 신설하고, 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통한 예체능 활동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기재 요령을 개선하였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예체능 활동 영역을 설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개인내 평가를 중시하고,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여러 사항은 개인내 평가로 기재한다. 독일은 직업체험활동에 상위학교인 직업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점수화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프랑스는 개인역량평가(교과를 포함하여 기초공통 지식과 역량을 포함) 등급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되었다. 호주는 초등학교만, 교사의 종합의견 제시란이 있다.

### 3) 제도 관련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제도적 관점에서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면서 중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만 기재한다. 일본은 새 학습관에 관련해서 평가도 지도를 위한 평가라는 요소를 중요시한다. 프랑스는 중학교에서 시행되던 학교생활평가점수 항목이 성적표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다른 교과나 역량 영역에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복 문제, 교사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폐지하였다.

〈표 12〉 최근 기재 방식 동향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교과 관련	교과 성적에 성취도,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 병기, 영역별로 서술식 기재항목의 입력 글자 수 제한, 객관적 사실 위주,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잘 드러나기 위한 입력내용 작성기준 제시	관점별 학습평가, 평정은 목표에 준거한 평가 (절대평가)	초등학교는 standard-based report card로 변화 추세, 각 교과별로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성적표에 기재	객관적 사실 위주, 절대평가에 기준을 둔 6등급 점수 표기	고등학교성적표 양식 간소화. 과목 점수와 등급 병기하던 것에서 점수만 기록, 학급 학생의 점수 분포 정보(8점미만, 8-12점, 12점 이상 학생 수/비율) 삭제	교과 성적은 A-E 5단계 평정 기준을 적용, C가 기준점, 교과별 교사의 의견을 제시,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실 적시
비교과 관련	교내대회 실제 참가인원 병기, 진로희망사항란에 학생진로희망사유기재란 신설, 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학교스포츠클럽 등 예체능 활동 기재 요령 개선, 행동특성및종합의견란에 예체능활동영역 설정	개인내 평가중시. 특히 종합소견 및 지도상 참고되는 여러 사항은 개인내 평가로 기재	협동, 노력 정도, 융통성 및 모험 감수 등 전체적인 학습 기술에 대한 평가, 또는 사회적 기술을 평가하는 곳도 있음	직업 체험 활동에 상위 학교인 직업학교에서 필요 하는 부분,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도 점수화 기재	개인역량평가 (교과를 포함하여 기초공통 지식과 역량을 포함) 등급이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됨	초등학교만, 교사의 종합 의견 제시란 있음
제도 관련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만 기재	새 학습관 관련 평가도 지도 위한 평가라는 요소 중요시	초등: Standard-based report card 체제 확대, 중등에 도입하는 곳 있음	×	중학교에서 시행되던 학교생활평가점수 항목이 성적표에서 삭제됨	×

## IV.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

### 1. 학생에 대한 학습 및 생활 정보 기록 관리 유형 상의 시사점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습 및 생활 정보 기록 관리 유형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성 및 활용 목적을 재학 시 학생 지도를 위한 자료로의 목적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은 학생 성적표가 주로 활용되고, 생활기록부는 주로 진학용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은 생활기록부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학생성적표보다 생활기록부에 학생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다. 하지만 학생 지도에 대한 활용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학생 성적표보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생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가 상시 볼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교사의 학생 지도에 있어서 이것이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 교과 성적 기록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성적은 서술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정보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로서의 정확성과 객관성 및 실효성 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최소한 5등급을 기재를 병기하면서 서술식이 보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생활기록부 교과 외 기재 항목이 과도하게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은 다른 국가에 비해 교과 외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 일본의 경우도 항목이 많지만 수상경력, 자격증, 진로 희망은 종합란을 만들어 총괄적으로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교사의 업무 부담을 생각할 때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과도한 수준이고 생활기록부 교과 외 기재 항목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기재 항목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독서활동은 교과영역으로 포함하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독서활동 기재 항목은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항목이다. 필요 이상의 많은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서 상황에 대해 각 교과독서를 통해 교과활동에 포함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 항목 및 기재 방법 상의 시사점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 항목과 기재 방법 상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서술식 기재만의 정보로서의 기능 미흡으로 세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서술식 평가로 기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객관화된 데이터 없이 과목별로 간략하게 입력하는 것은 미사여구의 글에 지나지 않으며, 자녀 지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외국의 경우, 최소한 5등급을 기재하면서 서술식이 보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초등학교에서도 점수를 기재하는 국가도 있다. 기초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초등학교에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누적된 기초 부족으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교과평가에 대한 기록 방식의 다양화와 구체화가 요청된다.

둘째, 고등학교 일반교과의 경우 교과별 다양한 평가결과 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 성취평가 결과 기록과 관련하여 5등급 성취등급이 그대로 대학입시 내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보통교과에서 기존의 석차 9등급을 성취등급 5등급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대학입시 자료는 무엇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5등급을 기재하고는 있지만 미국은 석차백분율과 GPA를 대학에 제공한다. 독일은 6등급으로 기재하고, 프랑스와 호주는 점수와 석차 등을 기재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5등급까지 기재하며, 11, 12학년의 경우에는 백분위, 시험점수, 개인 석차를 제시한다. 또한 호주와 프랑스의 경우 교과별 교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외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절대평가체제의 5등급만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점수와 석차, 그리고 백분위까지 제공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성취등급 5등급만으로 대입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 3. 교과 외 발달상황 기재 항목 및 기재 방법 상의 시사점

교과 외 발달상황 기재 항목 및 기재 방법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 항목 중심으로 기재 항목 간소화가 필요하다.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에 대한 국제 비교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생활기록부에는 과도하게 많은 항목들이 기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과연 이들 항목들이 모두 생활기록부에 꼭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독서에 대해서는 종합의견란에 특기사항으로 적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기록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는 그 항목이 매우 축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필수 항목 중심으로 기재 항목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기재 내용의 간략화가 필요하다. 생활기록부 항목별 기재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다. 이에 따라 교사의 부담이 많으며, 학생들의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재 내용의 간략화 방안을 탐색하고 교육 공급자와 교육 수요자 모두 효율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4. 교육적 활용 및 연계 상의 시사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육적 활용 및 연계 상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활용 면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언제든 볼 수 있는 상시 정보 활용 시스템 제공을 통한 활용성 증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연구대상 국가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이 가장 많고 기재 내용이 가장 구체적인 나라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학생지도에 활용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될 필요가 있고 교사들도 학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급이 달라질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적 활용 면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학생의 평가결과 정보에 대한 찾아가는 정보 서비스가 필요하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행사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학부모들은 학교 행사보다는 학생에 대한 교과 및 교과 외 영역에 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체제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적 연계 면에서 교과 기록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 초, 중, 고 생활기록부의 연계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연계성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초등학교 교과 성적이 중, 고등학교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상급학교로의 교육적 연계 면에서 볼 때 학교급별 및 학년 진급 시 자료 연계가 필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연계를 위해 상급학교로의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이를 학생지도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년이 바뀌면서, 학교급이 바뀌면서 누적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항목의 과다, 항목의 적합성 문제와 생활기록부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제시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선진국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시사점 도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어서 10대 개선 필요사항을 설정하였다. 첫째, 학습 및 생활정보 기록과 관리유형 상에서 ① 학생지도 목적 강화 ② 성적기록에 대한 다양한 방식 제공 ③ 과도한 양 조정 ④ 독서는 교과영역으로 흡수 둘째, 교과발달상황 면에서는 ④ 초등학교 기술식만으로는 정보미흡으로 기록방식 다양화 ⑤ 고등학교 다양한 기록방식 제공 등 셋째, 기재 항목 및 기재 방법 면에서, ⑥ 필수 항목 간소화, ⑦ 기재 내용 간략화 등 넷째, 교육적 활용 면에서 ⑧ 학부모 상시정보활용시스템 활용성 증대 ⑨ 학부모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⑩ 학교급별 연계성 강화하고 진급 시 연계 제공 등이 필요함 등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학습활동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활기록부는 필수 항목들을 중심으로 생활기록부 항목을 재구조화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력 집중화 과제로서 학교생활기록부 효율적 기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장기적 과제로 신뢰롭고 타당한 역량중심 교육활동 기록 방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역량중심으로 교과 생활기록부 기록을 전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세계적 교육의 흐름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교육이 지식보다는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것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역량을 기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 전체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과의 목적과 그 교과가 길러내야 할 학생들의 역량별로 성취도를 산출하고 역량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담아 주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석우·황해익·김아영·김수연·김성숙(2009).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대학입학사정관제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방법 고찰. *교육평가연구*, 22(3), 587-614.
- 김순남·강이화·김병찬·박삼철·유진은·이은송·전명남·조훈희(2013).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평가 정책 연구: 국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OR 2013-09.
- 김순남·정광호·박삼철·박상완·김세덕·노설화·강이화·서원주·이동섭(2014). 대학입시 정책의 국제 비교 연구: 고교 내신 산출 및 대입반영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정광희(2005). 2008대입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활용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 2005-20.
- 박균열·김순남·데와탁카유키·박상완·박선형·박종필·엄준용·유진영(2014).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및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OR 2014-1.
- 박균열·엄준용·주영호(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관리,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육문제연구*, 28(1), 81-107.
- 신현석·이주영·강지영(2019).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복잡화 과정 분석: 복잡계 이론의 적용. *교육행정학연구*, 37(5), 35-68.
- 정민주·최혜미·박해정·권지원(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실태 분석: 대입 전형에 주는 시사점 논의. *교육과정연구*, 38(2), 105-126.
- 주영호·김대영·박종필·류영철·이인수(2017).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 최영임(2017).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인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5-21.
- 교육부. 2019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개선사항 안내 리플렛,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62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2020.9.1.)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 <https://star.moe.go.kr/web/main/intro.do>(2020.9.1.)
- 2019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달라진 점은?, <https://stillbewithu.tistory.com/215>(2020.9.1.)
- 한국교육신문. 학교생활기록부 빛과 그림자,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74891>(2020.8.15.)

〈ABSTRACT〉

##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chool Report and Implication on Korean Education

Kim, soon 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Korean school report with school report of advanced nations and induce improvement on record method and manage method of school report. The comparison nations are Korea, England, Japan, France, Australia, Germany, The comparison contents are record method of subject and activity except subject, reading activity record, management of school report and connection of school levels.

This study suggests 10 implications to Korean school report. First, the implication of learning, record and management on life information area are ① to enforce of student guide purpose ② to provide diverse types of record achievement ③ to coordinate enormous items ④ to change reading to subject area. Second, the implication of subject development area are ⑤ to diversify record type in elementary school report description ⑥ to diversify record type in high school report. Third the implication of record item and method area are ⑦ to simplify necessary items, ⑧ to short record contents. Forth, the implication of educational utility area are ⑨ to promote parent's information use system ⑩ to provide parent adapt service ⑪ to enforce the connection among school level and provide school report to upper school.

Suggestions on midterm and long term plan are added to record method of school report how to measure student's competency and to record competency on school report.

### Key words

School Report, Record Items, Educational Utility, Diverse Record Type, Parent's Adapted Service, Competency Based Record

논문 투고일	2020. 10. 09
논문 심사일	2020. 11. 03
게재 확정일	2020. 11. 18

# 신학대학교 다문화강좌 운영 실태 및 방향 탐색

— 개신교 신학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

배경임\*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신학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강좌의 실태를 분석하고, 신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 인정 57개 개신교 신학대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강좌 개설여부를 확인하고, 그중 5개 신학대학교를 선정 해당 학교에서 운영되었던 다문화강좌의 교육 내용을 다문화 역량 함양의 관점에서 다문화 지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기술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신학대학교에서 운영되었던 다문화강좌는 대부분 국제이해교육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향후 신학대학교의 다문화교육은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상호문화이해교육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둘째, 강의내용의 대부분이 다문화 지식을 함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다문화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다문화 역량에는 다문화 지식뿐만 아니라, 다문화 태도, 다문화 기술의 영역도 포함되므로, 이를 고루 갖출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종교 지도자인 예비목회자의 특성에 맞춘 단계적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예비목회자로서의 신학생의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신학과 목회의 특수성과 다문화를 상호 연계하여 신학생에 맞춘 차별화된 다문화교육의 전문영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다문화와 종교, 신학대학교의 다문화교육, 목회자의 다문화 역량

\* 은평구립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관장,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I. 서론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주자의 유입증가는 인구구조를 다양화시키면서 점차 사회를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인구 구성비의 3.3%인 외국인<sup>1)</sup> 단순 기능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치가·교수·공무원·결혼이민자·유학생·투자가 등 활동 유형별로 다양화되고 있고 이들의 사회적 확장은 다문화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자국민에게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때로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김상섭, 2017; 객석, 2018) 이렇게 다문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미래에 관해서 정부, 시민단체, 학계는 그동안 여러 입장에서 담론을 형성하고 실천적 과제들을 진행해 왔다. 그 중에서도 시민단체의 입장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나는 인권과 복지의 차원에서 이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활동하며 담론을 형성해 가는 쪽이다.<sup>2)</sup>(설동훈, 2009; 이한숙, 2019)

또 하나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주민의 사회적응에 주안점을 두거나, 선교나 포교전략을 갖고 활동하는 종교계의 한 측이다. 정부와 학계의 입장은 다문화사회의 대응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담론 형성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시민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종교집단의 역할과 영향력은 점차 주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발행한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와 종교의 역할’이란 보고서에도 언급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다문화 상황이 시작되었던 초창기에 이주민 지원을 위한 종교집단의 개입이 활발했었고 여전히 ‘이주자와 관련된 시민단체 가운데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보편적 담론을 펼치는 종교단체가 많으나 다문화 관련 지원이 선교나 포교의 경향으로 치우치면서 그 역할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 진입 초기에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종교단체가 앞으로도 시민단체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종교 공동체의 변화된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주민 지원 단체 중 개신교 단체의 비율은 전체에서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것은 한국 국민의 약 43.9%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들 중 다수는 개신교인이며, 개신교는 여러 부문의 사회봉사 실천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지원에 있어서도 개신교의 비율이 높

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총인구는 5,178만 명으로 내국인은 5,005만 명(96.7%), 외국인은 173만 명(3.3%)으로 파악된다.

2) 설동훈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포럼에서 ‘다문화 인권정책의 현안과 과제’를 발표하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다. 2019년 이한숙은 그의 저서 “문화와 인권”에서 이주민의 입장에서 이주민 인권을 강조하는 시민단체가 정부와 대립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sup>3)</sup> 그러나 다문화 관련 단체의 다수를 운영하는 개신교가 다문화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한국사회에 건강한 다문화 담론의 형성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중수, 2010) 이러한 문제는 목회자의 다문화교육 태도에 관해서 연구한 김성영(2014)의 논문과 개신교 신학생<sup>4)</sup>의 다문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인식조사를 진행한 황재동(2018)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다문화 상황에 사회적 실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통해 변화되는 다문화 상황에 긍정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교회지도자인 목회자가 다문화사회를 위한 지도력과 다문화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 김경주·오세일·김우선(2015)은 다문화역량을 가진 목회자의 설교가 교회 안의 다문화 담론의 형성과 다문화 수용성, 교인들의 다문화교육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보았다. 장영신·정상우(2015)는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개신교의 모델을 랄프 윈터 (2000)가 제시한 교회의 이중구조를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양육 중심의 일반교회 형태인 모달리티(modality)형과, 선교회 또는 수도원 등 과업중심인 소달리티(sodality)로 구분하였다. 이주노동자와 관계하고 지원하는 이 두 가지 모델은 개신교 교회의 다문화 지원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델 모두에서 목회자의 다문화 역량과 관련된 다문화 관련 교육의 정도와 인식이 다문화 지원 문제의 개입과 역할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한국사회는 지속적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다수의 종교인이 포함된 개신교의 역할은 여전히 요청되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개신교 목회자와 예비목회자인 신학생의 다문화교육을 통한 다문화역량강화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주요 기관인 신학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강좌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목회자인 신학생이 향후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목회자로서 목회 활동을 실천해 가는데 필요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문화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 형성 과정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내용을 찾아보고자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11월1일 종교현황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종교인구수는 전체인구수 4,905만 명의 43.9%인 2,155만 명이며, 이중 개신교인 967만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개신교 신학생은 이하 논문에서 신학생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다문화사회와 종교

종교는 사회 안에 존재하므로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사회변화는 종교의 사상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종교는 새로운 문화 창조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점에서 종교는 복합적인 문화현상의 하나로서 사회의 가치체계나 문화체계 및 사회적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노길명, 2010). 종교는 사회가 다문화 되어감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다문화 된 사회에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종교와 다문화현상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는 역할이다. 한국의 카톨릭과 개신교는 다양한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종교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반으로 하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 이주한 필리핀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연대하는데 카톨릭 교회를 아주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했다고 보는 김경주·오세일·김우선(2015)의 연구나, 가나와 나이지리아 이주자들이 한국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개신교를 통해 '집단화'하고, 서아프리카 이주자들이 한국 이주 과정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교회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였다는 한건수(2005)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주자들은 이주한 국가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둘째, 다문화사회로 나가는 과정에서 종교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노미(2011)는 이러한 갈등의 사례로 이태원의 예를 들었는데, 이태원 무슬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갈등양상을 살펴보면, 무슬림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민들을 낮설어하고 두려워하는 반면, 주민들은 무슬림을 종교적 갈등을 넘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개신교의 경우 공세주의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성장주의적인 교회관을 내세우는 교계의 지도자들과 선교동원가들은 다문화사회에서 더이상 자신들의 공세적 선교가 통하지 않게 되자 위기 국면을 넘어설 수단으로 “이슬람 쓰나미” 담론을 생산 유포하여 이슬람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이진구, 2011)

셋째,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종교의 사회통합적 역할이다. 오영훈·김성영(2012)이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생활에서 종교의 필요성과 종교생활의 만족도 등 종교생활실태를 조사하니 종교생활을 통해 가족의 통합이 가능해지고 지



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가운데 신 앞에서 평등을 주장하며 이주민을 돕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종교단체이기도 하다(박중수, 2010). 한국의 종교는 다문화 정책과 담론에 있어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적극적인 권리 옹호를 통해 이주민 인권의 측면에서도 사회변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다. (김우선, 2015) 국내 종교인 대화모임은 이슬람권의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관심을 갖고 다문화사회에서 한국 종교계가 종교 간 대화와 현장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신광철, 2010).

한국 내 기존 종교들은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종교적 미션을 재검토하고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내부의 운영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종교기관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른 타자들과 상호 관계를 경험하는데 적합한 장소로서, 문화적·종교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시민적 역량을 배울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장의 역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 2. 한국 신학대학교의 목회자 양성 교육과정

신학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을 일반적으로 신학교라 지칭한다. 신학교라는 명칭은 선지자적 전통을 전승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일반적 용어로, 한국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교육기관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통칭 되는 신학교육기관의 명칭은 그 성격과 형태에 따라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등으로 불린다. 신학대학교는 성직자를 위한 학위과정과 신학 연구자를 위한 학위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신학대학의 신학사과정은 인문학 분야의 학위나 목회학 석사의 준비과정으로 구분된다. 신학석사과정과 신학박사과정은 일반대학원 과정으로 신학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 목표로 하는 자가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목회자가 되기 위한 전문육성과정은 목회학 석사과정과 목회학 박사과정이 있으며, 이는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구별한다.<sup>5)</sup>

현재 한국 목회자 양성과정은 크게 두 경우가 있다. 하나는 대학(University) 속의 단

5)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신학대학교 중에는 종합대학교 내 단과대학 또는 학과로 신학대학, 신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으나, 연구에서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신교 계열의 대학교 및 대학원을 신학대학교라는 대표명칭으로 통합하여 지칭하였다.

과대학으로서의 신학대학(Divinity school)안에서 이루어지는 신학대학교육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분 교단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학대학교(Theological seminary)의 형태이다(박상진, 2017). 이러한 두 교육과정을 특징이 각각 다르다. 첫 번째 종합대학 안에 단과대 형태의 신학대학의 경우 신학대학교육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교육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두 번째 교단 자체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교의 경우는 주로 그 교단의 교리에 따르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목회자 교육과정은 M.Div 과정이고 이 과정은 교역학 석사과정으로 부른다.

M.Div. (Master of Divinity) 학위과정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에서 유래한다.<sup>6)</sup> 이는 목회현장의 요구와 과제와는 달리 과도하게 이론과 학문 중심으로 비중이 커지는 신학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이다. ATS는 1970년 신학대학교육이 목회실천 현장과 좀 더 유기적이고 긴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이 학위를 제안하였다. ATS의 『학위프로그램 표준서』(Degree Programs Standards)에 명시된 M.Div. 학위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목회와 안수목회 및 종교적 리더십의 역량을 갖추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위이며, 이 학위 과정을 마치고 목회학박사(D.Min) 과정의 입학 조건으로 필요한 학위이다.<sup>7)</sup>

한국의 개신교 목회자 양성과정 역시 이러한 M.Div. (Master of Divinity) 과정을 통해 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의 다양한 교파와 관련된 신학대학교의 현실에서 이 과정은 일률적인지 않고 신학대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신학대학교의 M.Div 과정에 공통적으로 성서신학, 역사신학, 교의학, 실천신학의 4개 영역을 포함한다. 성서신학은 다시 구약학과 신약학으로 구분되고, 역사신학은 세계교회사와 한국교회사를 주로 다룬다. 교의학은 신론과 기독교론, 성령론, 교회론 등 교리를 다룬다. 그 밖에 기독교윤리학과 실천신학 부분에서 예배학, 설교학, 목회학, 목회상담학, 교회 행정, 선교신학 등이 포함된다. 각 영역은 교단의 배경과 관련된 신학대학교육의 주안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현유광, 2006; 정일웅, 2006).

### 3. 신학대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개신교는 교회의 특성상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예배를 통

6) ATS. *Degree Programs Standards* (Pittsburgh, PA: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2002), 187.

7) 위의 논문, 187.

해 종교공동체생활을 영위한다. 전국에는 77,966개 개신교 교회가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이중 수도권외의 개신교 교회에 한 명이라도 다문화인이 있다고 조사된 교회는 40%에 달한다(김성영, 2016). 그러므로 개신교 종교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개신교 목회자의 다문화 역량강화를 통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변화 교육은 한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다. 다문화 이주민들이 공동체에 포함된 교회들은 이들과 지역사회의 다문화이주민들을 위하여 교육과 복지 등 여러 차원의 지원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목표는 대체적으로 '신자 만들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다문화가정자녀, 유학생, 난민 등을 선교 대상으로 인식하고 교회부설, 이주민선교기관, 이주민기관 등의 형태로 이주민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고병철, 2018). 이주민을 향한 복지도 선교의 효율적 관점으로 인식되고 있다(최신일·황병준, 2015).

유일신을 섬기는 개신교의 종교적 특성상 개신교 목회자는 다문화 인식에 있어서 부정적인 경향을 갖을 수 있다. 따라서 개신교 목회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인들에 대해 이들을 개종시키려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회 집단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구성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 목회자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목회자의 다문화 역량강화는 필수적이며, 다문화적 신념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적합한 교육적 지원이 요구된다(김성영·오영훈, 2012).

그렇다면 목회자를 위한 다문화교육 내용에는 어떤 점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인가. 먼저 목회자의 구성비율이 남성에게 편중된 한국 개신교의 특성상<sup>8)</sup> 평등을 강조하는 다문화교육의 입장에서 성차별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인 중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한국교회는 보수적 성향의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을 해석하는 목회자의 비중 역시 높다. 다문화주의나 상호문화의 관점에서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목회자 다문화 역량의 개선방안을 염두에 둔 교육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목회자의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외에도 한국개신교 목회자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신학대학교에 재학중 목회현장에 적합한 다문화 인식을 교육받고 목회현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황재동, 2018). 김성원·허계형(2017)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신학대학교 학생들은 교회 안에서 다문화 사역에 노출되거나 다문화 사역의 논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8) 한국 개신교는 목회자의 성별구성비는 남성 94.1%, 여성이 5.9%이다.

하고 있었다. 또 황재동(2018)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학생은 주로 편견 없는 교회공동체형성과 다양한 문화의 공동적 경험 등이 다문화교육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해 신학대학원 과정에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다문화 관련 강좌가 개설되지 않은 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다문화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비목회자 단계의 신학생이 다문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된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을 개인적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목회자의 다문화교육이 신학대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논문에서는 신학생의 다문화교육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 개신교의 교단 현황을 파악하였다. 한국 개신교의 경우, 교단과 교파가 다양하여 그간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연구나 실증적인 탐구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먼저 교단 현황을 파악하고 각 교단별로 운영되고 있는 신학대학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었다. 이에 한국 개신교 관련 대표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sup>9)</sup>와 한국교회총연합<sup>10)</sup>에 가입 교단 중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교단의 명단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총 24개 교단 명단을 확보하였다. 이 24개 교단을 대상으로 해당 교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현재 운영중인 교육기관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교육부인가 여부를 교차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24개의 교단과 해당 교단으로부터 파생된 5개의

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韓國基督教敎會協議會)는 한국 기독교계의 일치정신을 구현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하여 창설된 범기독교 협의체를 말한다. 1924년 9월 24일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 연합 구축을 위하여 결성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일제의 간섭으로 활동하지 못하였다가 1946년 재발족하였다. 약칭은 NCKK(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이며, 현재 8개의 한국 개신교 교단과 한국 정교회 등 총 9개 교단이 가입해 있다

10) 한국교회총연합회(The United Christian Churches of Korea) 약칭 한교총은 한국교회교단장회의를 모태로 출범한 한국교회 교단연합기관이다. 현재 대한민국 최대의 교회협의체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개신교계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개신교계 주요 대형 교단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교단의 규모는 대한민국 전체 개신교인 수의 95%가량에 달한다.

군소교단이 운영하는 교육부 인가 신학대학교 총 57개의 명단을 정리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리한 총 29개 교단 57개 신학대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개설된 다문화강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1차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다문화강좌의 개설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교육과정이 명시되지 않은 학교가 확인되었고, 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목명 자체로 다문화강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학교 대표전화를 통해 다문화강좌 개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담당자를 확인, 담당자에게 전화와 메일을 통해 다음의 구조화된 질문을 하였다.

〈표 1〉 신학대학교 교과목 담당자 대상 질문지

다문화강좌 개설 여부 관련 학과 담당자 질문내용	
공통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귀교는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가?</li> <li>• 과거 귀교는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강좌를 운영한 적이 있는가?</li> <li>• 처음 귀교에서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강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2학기까지를 기한으로 운영되었던 다문화강좌의 과목명, 운영시기, 수강대상, 학점배점은 어떻게 되는가?</li> </ul>
부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교에서 운영한 또는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강좌의 강의계획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li> <li>• 귀교에서 운영한 또는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강좌의 담당교수의 연락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li> </ul>

위의 질문지를 바탕으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신학대학교 교과개설관리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한 결과, 57개의 신학대학교 중 53개교와 전화통화에 성공하였고, 그중 11개의 신학대학교는 학과 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담당자와 통화가 된 42개의 신학대학교가 제공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교담당자와 연락은 되었지만 학교 내부 사정으로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있으나 그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즉 과목명, 담당교수, 강의계획서 등의 사항은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다시 한번 학교 담당자를 통해 다문화강좌를 운영했던 담당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5개 대학 5명의 교수가 인터뷰에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이들에 대한 기본정보는 다음의 <표 2>와 같으며, 인터뷰자의 비공개 요청에 의해 성명과 소속학교는 연구자가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표기하였다.

〈표 2〉 인터뷰 대상자 기본정보

성명	소속대학	학교성격	지역	교수자 전공
가	A대학	사립신학대학 4년제	서울	목회상담
나	B대학	사립종합대학 4년제	서울	상담심리
다	C대학	사립신학대학 4년제	경기도	국제정치
라	D대학	사립신학대학 4년제	경상북도	기독교윤리
마	E대학	사립신학대학 4년제	경상남도	선교

연구자는 인터뷰에 응한 5개 대학 5명의 교수로부터 운영했던 다문화강좌의 강의계획서를 제공받아 그 내용을 분석하였고, 또한 교수를 대상으로 다음의 〈표 3〉 질문에 기초한 FGI를 실시하였다.

〈표 3〉 신학대학교 다문화강좌 운영 경험 교수 대상 FGI 질문지

다문화강좌 담당교수 FGI 질문내용	
공통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li> <li>• 다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li> <li>• 해당 다문화강좌의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셨습니다까?(강의 방법, 평가 방법 등)</li> <li>•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강의를 하시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입니까?(특징, 장단점, 애로사항 등)</li> <li>• 신학대학교에서 다문화강좌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li> </ul>
부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강좌를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십니까?</li> </ul>

먼저 공통항목에 해당하는 질문지를 메일로 작성하여 사전에 메일로 발송하고, 전화인터뷰를 통해 각 질문 항목에 대한 답변과 추가적인 보완 인터뷰를 인터뷰 참여자 별로 각 2회씩 실시하였다. 코로나19 관계로 안전을 위하여 모든 인터뷰의 과정은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 2. 분석의 틀

다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시대에 문화적 상대성을 고려한다면 기독교의 목회는 피할 수 없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목회 환경의 사회적 변화는 목회자의 다문화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2012)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보다 앞서서 낮

은 출산율과 노동인구의 필요성으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독일사회에 존재하는 독일교회 경우에도 “다문화 역량(multicultural competence)” 즉 타문화에 대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목회자의 다문화 역량강화를 중요한 목회적 과제로 여긴다. 다문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목회자는 교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교회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다문화 역량은 자신의 문화적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여 다문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교인들이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목회자의 다문화 역량의 구성요소를 지식, 태도, 기술로 구분하였다<sup>11)</sup>. 목회자는 목회현장에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교인들에게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유은경·장인실, 2014).

첫째, 다문화 지식의 측면에서 목회자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대한 지식과 문화수용을 위한 교육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Banks(2008)는 다문화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교사는 다문화교육의 주요 개념뿐만 아니라 주요 집단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문화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문화교육에서 목회자가 다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함양하는 것은 이를 통해 점차 다문화 구성원으로 변해가는 교인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편견 없이 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태도 면에서 목회자는 모든 교인들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다문화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다문화교육에서 목회자가 문화적으로 소수인 교인들에게 가지는 긍정적인 기대가 교회공동체의 다문화 효능감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Bennett, 2007). 따라서 목회자는 교인들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다문화적 태도와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기술의 측면에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필요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교인들의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기술은 다문화교육환경 기술과 다문화교육방법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목회자의 다문화교육환경의 기술은 목회자가 다수자나 소수자를 구분함이 없이 모든 교인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교회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교육방법의 기술은 목회자가 교인들의 특성과 문화에 적합한 교육을

11) 학자마다 다문화 역량을 이루는 구성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다문화 역량이 인식, 지식, 기술로 구성된다고 보는 관점과(Spanierman, 2008)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된다고 보는 관점(Gay, 2002; Villegas&Lucas, 2002)이다.

실천하고, 그들의 갖고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기술적 노력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비롯하여 교회 안의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 역량의 하위 목표를 좀 더 세분화해서 표로 구성하면 위의 <표 4>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sup>12)</sup>.

<표 4>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다문화 역량

목회자의 다문화 역량	하위 목표
다문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사회 소수 다문화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지식</li> <li>• 소수 다문화 집단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세력에 관한 지식</li> <li>• 교회공동체 안에서 다른 문화들로부터 온 언어, 음식, 의복 등에 대한 지식 설명</li> <li>• 교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집단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보 및 지식</li> <li>• 기독교의 역사 속에 포함된 다문화에 관련된 지식</li> </ul>
다문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교류</li> <li>•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려는 자세</li> <li>•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 할 때 자아정체성을 바탕으로 갖는 자신감</li> <li>•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li> <li>• 교인들의 고정관념적인 태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 태도</li> </ul>
다문화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적으로 편견적인 태도를 가져올 수 있는 목회적 자료 분석 능력</li> <li>•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교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li> <li>•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목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li> <li>• 다문화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li> <li>• 교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편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li> </ul>

본 연구에서는 위의 <표 4>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회자의 다문화 역량으로써의 다문화 지식, 태도, 기술의 측면이 신학대학교의 다문화강좌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란 결국 신학생이 종교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목회자 다문화 역량을 함양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12)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다문화 역량은 전세경(2018), 초등학교사의 다문화 역량을 위한 교사교육 강좌의 실태 및 방향 탐색'에서 제시한 초등학교사가 갖추어야 할 다문화 역량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 참여자의 FGI를 통하여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다문화 역량으로 중요하다가 여겨지는 항목을 수합하여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 IV. 개신교 신학대학교의 다문화강좌 운영현황 및 특성

### 1. 개신교 신학대학교의 다문화강좌 운영현황

#### 1) 교육부 인가 신학대학교 현황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신학대학교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포함하여 총 57개가 있다. 29개의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신학대학교의 세부 현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교육부 인가 신학대학교 현황(2020년 기준)

교단		학교명	비고
장로교	통합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7
	합동	총신대학교, 대신대학교, 칼빈대학교, 광신대학교	4
	합동보수	개신대학원대학교	1
	백석	백석대학교	1
	고신	고신대학교	1
	기장	한신대학교	1
	대신	안양대학교	1
	대신(석수)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1
	합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1
	한영	서울한영대학교	1
	피어선	평택대학교	1
	순장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1
	웨신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1
	제신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1
	계신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1
	중앙	온석대학원대학교	1
	개혁-국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1
	기감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성결	기성	서울신학대학교	1
	예성	성결대학교	1
나사렛성결		나사렛대학교	1

교단		학교명	비고
그리스도의 교회		케이씨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2
침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1
성서침례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1
성공회		성공회대학교	1
루터		루터대학교	1
구세군		구세군대학원대학교	1
순복음	기하성	한세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순복음총회신학대학교	4
초교파		강남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한국성서대학교, 경성대학교, 계명대학교, 호서대학교, 서울여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주안대학원대학교, 핏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배제대학교, 숭실대학교	14
29개 교단			총 57개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총 42개 신학대학교의 다문화강좌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았다. 분석 대상이 된 42개의 신학대학교 중, 학부 과정만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6개교,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6개교, 신학대학원만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0개교였다.

<표 6> 연구대상의 교육과정 운영 형태

학부 과정 운영(6)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운영(26)	대학원 과정 운영(10)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성서대학교, 경성대학교, 호서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총신대학교, 대신대학교, 칼빈대학교, 광신대학교, 고신대학교, 한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 나사렛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루터대학교, 강남대학교, 연세대학교, 계명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주안대학원대학교, 핏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2) 개신교 신학대학 다문화강좌 운영현황

42개 신학대학교의 교과 개설 운영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신학과 또는 신학대학원 차원에서 다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 한 결과 다음 <표 7>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다문화강좌 운영 경험 여부

다문화강좌 운영 경험 有
장로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한장 신대학교, 한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연세대학교, 호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20년 9월 현재,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다문화 관련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총 16개교로, 해당 학교는 신학과 또는 신학대학원이 주체적으로 다문화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답했다. 16개 신학대학교는 각각 교양선택과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다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양선택의 경우에는 신학생뿐만이 아니라 해당 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한 과목임을 언급하였다.

나머지 26개 신학대학교 중, 신학과 학부 과정만을 운영하고 있는 6개 학교와 학부와 대학원 과정 모두를 운영하고 있는 10개 학교의 경우에는 신학과 또는 대학원 과정에 학과차원에서 별도로 다문화강좌를 개설하지 않고 학부 교양 과정에 다문화강좌가 개설되어 있어 학생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교양선택으로 수강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학원 과정만을 운영하고 있는 10개 신학대학교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 중 다문화로 특정지어 운영되고 있는 별도의 교과목은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는 신학대학원 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의 특성 상, 목회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신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중점으로 신학 연구에 집중된 전문화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 이미 학사 과정에서 교양과정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했을 것이라 전제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신학대학교에서 다문화에 관련한 교육은 신학과는 별개의 교양 교육 내용처럼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학과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다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한 경험이 있는 16개 대학 중 학부와 대학원 과정 모두에서 다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한 경험이 있는 학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총 4개의 신학대학교였으며, 서울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울신학대학

교,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연세대학교, 호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11개 신학대학교에서는 학부 과정에, 서울기독교대학교는 대학원 과정에 각각 다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운영횟수를 보면 2000년대 이후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 관계없이 다문화 관련 강좌를 개설 운영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신학대학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총 7개교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신학대학교 매 학년도 1회, 목원대학교는 매 학기 1회씩 다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총 8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6개 신학대학교에서 운영된 다문화강좌를 살펴보면 학부과정에서 운영된 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서울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의 전공선택으로 다문화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이들 5개 신학대학교에서 운영되었던 전공선택 다문화강좌는 과목명에 종교적 교육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반해, 여타 신학대학교에서 교양선택으로 개설된 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명에서 종교적 성격이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신학대학교 다문화강좌의 과목명 예시

전공선택 과목명	교양선택 과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사회 속의 복음(서울장신대학교)</li> <li>• 다문화사회의 신학적 주제들(영남신학대학교)</li> <li>• 다문화사회의 기독교교육(한신대학교)</li> <li>• 다문화교육 주제연구(감리교신학대학교)</li> <li>• 다문화와 기독교교육(호서대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사회의 이해(호남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li> <li>• 영화와 소설로 읽는 다문화(부산장신대학교)</li> <li>• 글로벌다문화이해(서울신학대학교)</li> <li>• 세계시민교육(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li> </ul>

그러나 교양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장신대학교가 개설했던 ‘이주민 선교’, 연세대학교가 개설했던 ‘21세기 다문화신학’ 과목과 같이 과목명에 종교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신학대학교로서의 학교 정체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나온 결과라 할 수 있겠다.

## 1. 개신교 신학대학교의 다문화강좌의 특성

### 1) 학부 과정 수업의 특성

인터뷰에 응답한 42개의 신학대학교 중 5개 신학대학교에서 각각 다문화강좌를 개설

하고 해당 수업은 운영한 담당 교수 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전화를 활용해 비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총 10개 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중 3개 대학에서 학부 과정에 교양선택으로 개설되었던 4개 과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의 성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학교명은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E학교로 대체하여 표기하였다.

〈표 9〉 신학대학교 학부 과정 개설 교양선택 과목

학교명	과목명	교과구분	개설시기	시수
C학교	글로벌다문화이해	교양선택	2017-2019년도 매학기 개설	3
	다문화주의와 글로벌 사회	교양선택	2020년도 매학기 개설	3
E학교	영화와 소설로 읽는 다문화	교양선택	2018년도, 2020년도 1학기 개설	3
D학교	영화와 다문화 사역	교양선택	2019-2020년도 매 매 1학기 개설	3

먼저 C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도 1학기에 학부에 교양선택으로 다문화강좌인 ‘글로벌문화와 다문화이해’ 과목을 개설하고 2019년까지 매 학기마다 운영해 오다가, 2020년도 들어 그 교과명을 ‘다문화주의와 글로벌 사회’로 변경하여 개설 운영하고 있었다. ‘글로벌문화와 다문화이해’ 수업의 강의목표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10〉 C학교의 학부 수업 목표 및 내용 분석

시기	수업목표	내용의 특징
2017-1	세계화와 지식정보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의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의는 다문화 사회와 그것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과 관련된 핵심 개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례 탐색과 분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초국가적인 다문화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 외국인, 난민, 디아스포라 등의 국가중심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교육</li> <li>• 다문화 역량 중 다문화 지식 전달에 중점</li> </ul>
2017-2	- 전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 다문화와 관련 주요 개념을 습득 - 서구사회의 다문화 사례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주소 분석 - 한국 다문화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사례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li> <li>• 한국의 다문화상황에 국제 결혼,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li> <li>• 다문화 역량 중 다문화 지식 전달에 중점</li> </ul>
2018-1		
2018-2		
2019-1		
2019-2		
2020-1		
2020-2		

C학교에서 진행된 교양선택 다문화강좌의 수업목표를 살펴보면 세계화 시대에 맞춰 다문화사회와 되어 가고 있는 전 세계적 흐름, 그 안에서의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 대해 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 간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현상에 주목하여, 이주, 외국인,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디아스포라와 같은 개념에 대한 지식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C학교의 해당 다문화강좌가 A학교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역량 중 다문화 지식 전달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국제이해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D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도부터 매 1학기에 ‘영화와 다문화 사역’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해 왔다. 해당 과목은 2017년도 2학기에 처음 ‘영화와 다문화 선교’라는 과목명으로 개설, 운영되었다가, 2019년도부터 매 학기 개설되면서 과목명을 변경하였다. 해당 과목은 학부 과정에 개설됨과 동시에 대학원 과정에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업 목표와 방식에 있어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수업 모두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는 대중문화와 연계하여 다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수업목표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표 11〉 D학교의 학부 수업 목표 및 내용 분석

시기	수업목표	내용의 특징
2019-1	<p>- 21세기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이다. 저출산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2016년에 이미 180만명의 외국인을 맞이한 한국사회는 더욱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행될 것이며, 한국 사회는 더욱 다양한 외국인들과 이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는 한국 교회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들 및 자녀들은 이젠 더이상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의 구별이 예전과 같은 동일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음을 일깨워주고, 한국 교회가 국내를 찾은 외국인들을 더이상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공존할 대상이자 함께 신앙 생활을 하게될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 자매로 여기고 다가서야 함을 알려준다. 본 과목은 영화를 통하여 그려지는 외국인과 다문화 이주민 그리고 한국인과 한국 사회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들 자신과 이 땅을 찾은 이웃들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하게 한다. 이로써, 다문화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 촉발과 이를 위한 효과적 문화 사역 가능성을 모색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를 통한 사회임기의 개괄적인 내용을 강의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li> <li>•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영화를 감상하고 그에 대한 그룹 토론을 진행하며 감상문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li> <li>• 수업 시간에 거론되는 다문화영화는 신학과의 관련성이 표면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작품(나의 결혼 완정기, 완득이, 뼈와 뼈 등)을 선정</li> <li>• 다문화 역량 중 다문화 태도, 다문화 기술 함양에 중점</li> </ul>
2020-1		

D학교의 해당 강좌의 경우 이론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다문화 상황에 대하여 학생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감상과 토론의 형태를 통해 공유하게 함으로써 다문화 역량에서 다문화 태도, 다문화 기술의 영역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수업 진행 방식이나 평가의 방식에서도 토론 참여율과 개인 감상문의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D학교의 다문화강좌 수업 내용 및 방식은 신학생이 다문화를 바라보는 서로의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다문화 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학교에서 진행된 교양선택 다문화강좌의 수업목표를 살펴보면 다문화에 대한 접근은 영화나 소설과 같이 대학생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D학교의 다문화강좌와 유사함을 보였다.

〈표 12〉 E학교의 학부 수업 목표 및 내용 분석

시기	수업목표	내용의 특징
20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난민)에 대한 영화와 단편소설 읽기를 통해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자 한다.</li> <li>-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다문화(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난민)현실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li> <li>- 이주민의 도래로 인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에 있음을 이해하고 그런 전환과정에 필요한 다문화주의와 그 장단점을 이해하도록 한다.</li> <li>-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우리 자신과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와 소설이라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문화 이주민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li> <li>• 다문화의 문제를 국제이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li> <li>• 다문화와 지역교회의 역할을 연계하여 신학대학교가 지니는 종교적 특성을 반영함</li> <li>• 다문화 역량 중 다문화 지식 전달에 중점</li> </ul>
20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난민)에 대한 영화와 단편소설 읽기를 통해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자 한다.</li> <li>-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다문화(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난민) 현실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li> <li>- 이주민의 도래로 인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에 있음을 이해하고, 그런 전환과정에 필요한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대해 고민하고,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생각한다.</li> <li>-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우리 자신과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2018년도 수업의 교육목표와 크게 차이는 없으나, '선주민'과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우리와 타자를 분리함</li> <li>• 다문화 역량 중 다문화 지식 전달에 중점</li> </ul>

수업목표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E학교의 다문화강좌는 이주, 국제결혼,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디아스포라 등의 국가 간 이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문화현상에 관련된 개념에 대한 지식 전달을 주요한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E학교의 해당 다문화강좌는 똑같이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던 D학교의 다문화강좌와는 달리 목회자의 다문화 역량에서 다문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며, 다문화교육을 국제교육이해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E학교는 교양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에 다문화사회에서 지역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함으로써, 신학대학교가 지니는 종교적 성격이 교과내용에 반영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 2) 대학원 과정 수업의 특성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4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6개의 다문화강좌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신학대학교 대학원 과정 개설 과목

학교명	과목명	교과구분	시수
A학교	교회목회의 실제1(다문화목회)	석박사공통	3
B학교	다문화사회와 한국교회	석사과정	3
	다문화 상담	박사과정	3
D학교	21세기 다문화 신학	석박사공통	3
	다문화 사회의 신학적 주제들		3
E학교	이주민선교	석박사공통	3

A학교의 ‘교회목회의 실제1(다문화목회)’를 살펴보면, 다문화사회화 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수업으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주민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목회자를 초빙하여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방식을 병행하고 있었다.

수업목표에서는 다문화 사역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주민으로 보는 관점이 문화상대주의, 문화다원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상호문화주의 입장에서 다문화는 국적이거나 인종뿐만 아니라 젠더, 연령, 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업 운영 방식에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를 초빙



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답사를 통해 신학생이 이를 체험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다문화역량 중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기술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판단되었다.

〈표 14〉 A학교의 대학원 수업 목표 및 내용 분석

수업목표	수업내용
<p>- 한국 사회는 이미 외국인 거주자가 250만을 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 목회는 더 이상 특수목회가 아니라 일반목회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외된 외국인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앞서 준비하는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수업은 차세대 목회자를 훈련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다문화사역에 이미 오랫동안 헌신하고 경험을 쌓아 온 국내 사역자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그룹활동 등을 통해 수강생들이 다문화사역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다문화사회 사역의 역사와 현실</li> <li>• 외국인 노동자 목회</li> <li>• 결혼이주여성 사역</li> <li>• 이주민 2세 사역</li> <li>• 탈북민 사역</li> </ul>

B학교의 사례는 신학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에서 다문화를 교육하는데 있어 그 구성과 내용을 전문화하고, 단계적으로 심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표 15〉 B학교의 대학원 수업 목표 및 내용 분석

교과목	수업목표	수업내용
<p>다문화사회와 한국교회</p>	<p>- “다문화사회와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사회윤리학의 관점에서,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가 경험할 수 있는 인종적 갈등의 요소를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책임적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시간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위하여, 본 수업에서는 라인홀드 니버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사회/인종 갈등과 폭력의 원인에 대한 윤리학적, 종교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들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보다 먼저 다문화사회가 된 미국에서 1992년 일어난 LA 포궁을 Case Study로 삼아 이론들을 적용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li> <li>• 이로써 학생들은 다문화 사회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위기와 갈등 상황의 제도적 예방 및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로 하여금 이런 위기 상황을 새로운 공존과 공생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역할에 참여하도록 하는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li> </ul>

교과목	수업목표	수업내용
다문화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수업은 인간의 심리를 탐험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상담적인 노력에 있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경험을 탐색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본 수업은 다문화상황에서의 기독교(목회)상담자가 염두해 두어야 할 다문화 대응능력(multicultural competence)과 관련된 상호학문적인 주제를 다루고 구체적인 돌봄과 상담의 모형을 개발하도록 한다.</li> </ul>

먼저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다문화사회와 한국교회’ 과목은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 이론을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윤리학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목은 다문화 지식과 신학의 지식을 연계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학대학교의 종교적 성격을 반영한 신학생에게 특화된 다문화교육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박사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상담’의 경우는 다문화 태도와 특히 다문화 상황에서 필요한 상담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기술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효과적으로 보인다. 석사과정에서는 다문화 지식을 중점에 두고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박사과정에서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 태도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의 심화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B학교 역시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한국 사회에 새롭게 영입된 이주민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편견의 해소, 다문화 상황에서의 갈등 해결 방법과 같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다문화를 상호문화이해의 차원이 아닌 문화상대주의의 국제 이해교육의 차원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D학교의 대학원에서 진행된 다문화강좌를 살펴보면 다문화 지식에 대한 수업과 다문화 태도, 다문화 기술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 수업이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세기 다문화 신학’ 과목에서는 다문화 신학에 관련된 다양한 원서 자료를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다문화와 신학에 관련한 다양한 학술적 지식을 학생이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D학교에 운영하는 ‘다문화 사회의 신학적 주제들’ 과목에서는 이론적인 논의보다 영화, 신문기사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보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업 진행 방식은 석박사과정이지만 다문화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다양한 다문화 이슈에 관한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 보고 그 생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역량 중에서도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기술 함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D학교의 해당 강좌를 담당한 교수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강좌를 대학원 과정에 개설하면서 이론적 논의보다 사회적 이슈를 통해 학생들이 다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시하게 된 데에는, 다문화와 관련해 너무 이론적인 내용에 편중하게 되었을 때 학생의 피드백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이 보다 쉽게 신학과 다문화를 연계하여 사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를 통한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표 16〉 D학교의 대학원 수업 목표 및 내용 분석

교과목	수업목표	수업내용
다문화사회의 신학적 주제들	<p>-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신학의 책임적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시간이다. 이를 위하여, 본 수업에서는 서구의 다문화주의 기초 이론들을 요약 정리해보고, 소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들 이론들의 바탕에서 다문화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게 된다. 이때, 주로 정치학, 종교 사회학, 윤리학의 주요 이론을 동원하여 다양한 이슈들과 케이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다문화 사회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위기와 갈등 상황의 제도적 예방 및 평화적 해결 방안을 신학적으로 모색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로 하여금 이런 위기 상황을 새로운 공존과 공생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역할에 참여하도록 하는 창조적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수자 강의</li> <li>• 영화, 신문기사 등의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자료 제공</li> <li>• 다양한 다문화사회 이슈와 관련한 학생 주제 발표</li> </ul>
21세기 다문화 신학	<p>- “21세기 다문화 신학” 과목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서구 사례를 통해 예측하고, 이의 분석과 해결을 위한 한국 상황에서 설립해야 가야할 기독교 신학이란 무엇인지 탐구하는 시간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위하여, 본 수업에서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주요 정치사회학 이론과 신학 사상을 바탕으로, 1. 현대 다문화주의에 관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기초 이론들을 학습하고, 2. 다문화주의에 관한 전통적 기독교 현실주의 및 현대의 다양한 신학자들의 사상을 학습하여, 3. 21세기 다문화 사회내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창조적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다.</li> </ul>

E학교는 대학원 교과목 선교학에 이주민선교를 하나의 과목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석박사과정 공통 과목인 이주민 선교 과목은 이주민을 이해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는 것을 주요 수업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17〉 E학교의 대학원 수업 목표 및 내용 분석

수업목표	수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알고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li> <li>- 이주민 선교 현황을 부문별(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로 이해하게 한다.</li> <li>- 이주민 선교에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li> <li>- 이주민 선교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사회에 이주민들이 들어온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li> <li>• 우리 사회와 이주민 사이의 문제(법과 제도, 의료, 문화, 가족, 교육 등)를 알게 한다.</li> <li>•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현황을 알도록 한다.</li> <li>• 서구의 이주민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li> <li>• 이주민 선교의 성서적 전거와 이주민 선교신학에 대해 알도록 한다.</li> <li>•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의 당면 과제와 전망을 제시한다.</li> </ul>

이 수업은 선교라는 목회활동에서 실천적 영역에 관련한 과목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이주민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목회자의 사례를 통해 실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민 선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현장을 방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실습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학교의 대학원에 개설된 다문화강좌는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지식보다는 다문화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나 기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다문화의 범주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하고 이주민을 대하는 원주민에 대한 이해, 원주민이 어떻게 이주민을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어 있다. 즉 문화상대주의, 문화다원주의의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이주민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하여 이주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태도, 기술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 4) 개신교 신학대학교 다문화교육의 특성

강의계획서 및 교수 FGI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개신교 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강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와 신학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학생에게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주지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A, B, C, D, E 대학의 가, 나, 다, 라, 마 교수 모두 어떻게 하면 신학생에게 다문화와 다문화사회를 쉽게 이해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에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과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다문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신학대학교 다문화강좌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았다. 둘째, 다문화사회에서 개신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담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다문화강좌 담당 교수는 상담, 국제정치, 선교 등에 관한 전공자로 이미 다문화에 대해 매우 민감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 모두는 다문화사회에서 한국의 개신교가 그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매우 깊게 공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회자를 초빙하여 그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신학생들이 현장에 나가 다문화 상황에 대해 실제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문화 상황에 신학생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준비에 매우 큰 관심을 쏟고 있었다. 셋째,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다문화강좌 수업 내용에 차별성을 두고자 고민하고 있었다. 학부 과정의 수업은 되도록 다문화와 관련된 간단한 이론적 강의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대학원 과정의 경우에는 다문화와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결지어 관련 지식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목회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문화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나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인터뷰 과정에서 D대학의 라 교수와 E대학의 마 교수는 신학대학교의 다문화강좌에서 다문화와 신학을 다루는 비중과 그 내용에 깊이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초기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강좌의 경우, 신학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다른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기때문에 이론의 부분에서 다문화를 중점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업에서 다문화 관련된 이론을 너무 깊게 다루는 경우, 수업내용이 난해하거나 전공과 맞지 않다는 등의 학생의 피드백이 있어 점차 다문화 이론 내용을 수업 전체의 비중에서 축소하고 신학과의 연계를 통한 이론적 논의도 수업 내용에서 점차 축소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신학생의 특성에 맞춘, 신학생에게 필요한 다

문화이론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IV. 결론: 신학대학교의 다문화교육 방향

본 연구는 다문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의 사회통합적 역할에 기여하기 위해 개신교의 예비목회자인 신학생의 다문화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개신교 신학대학교 가운데 교육부 인가 57개 신학대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관련 강좌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내 신학대학교의 다문화교육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제공된 다문화 관련 강좌의 진행과 수업내용, 교수 FGI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신학대학교의 다문화교육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교육에서 의미하는 다문화의 의미를 국제이해교육에서 상호문화이해교육으로 확장하여 인지하고, 상호문화이해 차원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신학대학교에서 개설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타 국가, 타 민족, 인종과 관련한 이해와 문화차이에 대한 다문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와 국경의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상대주의, 문화다원주의를 논하는 국제이해교육의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다문화 지식이다. 그러나 오늘날 다문화 지식에는 국가, 인종, 민족 등의 차이를 넘어 젠더, 연령, 세대, 사회 계층과 같이 국가나 국경의 의미를 초월하여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구성원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문화가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상호문화이해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간 신학대학교의 다문화강좌가 서로 이질적인 문화가 복수로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에 강조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의 다원적 특성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인정하는 방식'도 동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상호문화이해교육은 개인의 정체성과 함께 개개인의 관계를 중시하는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해서 다양한 집단의 문화뿐만 아니라, 문화의 담지자인 개인들의 '관계' 역시 중요시 한다. 따라서 문화 간의 역동적인 관계는 쌍방향성을 지향한다고 본다. 개별적인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무엇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기독교의 종교적 교리와 공동체의 특징에 미루어볼 때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교의 다문화교육은 앞으로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상호문화이해교육으로의 확장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다문화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하는 다문화 역량의 내용을 보다 고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학대학교에서 운영되었던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과목의 강의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대부분이 다문화 지식을 함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다문화 역량은 다문화 지식 뿐만 아니라, 다문화 태도, 다문화 기술의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일부 신학대학교에서는 목회자 초빙 강의나 현장 실습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현장실습이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과목의 과제로 배정되어 있어 심도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목회자에게는 목회현장에서 부딪히는 다문화 상황을 조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평화와 공존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의 충돌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갈등 해결 능력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태도와 기술이다. 갈등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근원에 늘 현실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갈등의 내면에 놓인 현실적이고 미시적 문제를 목회현장에서 다문화 역량을 통해 재구성하는 방안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기술은 향후 예비목회자가 목회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회공동체 안의 다양한 인종, 세대와 계층의 교회구성원이 서로 접촉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문화 태도, 다문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과목도 개설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교 지도자인 예비목회자의 특성에 맞춘 단계적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대상인 5개 대학의 다문화교육 관련 교과목은 대부분의 강의를 전공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특히 학부 강의는 모두 교양선택의 과정이었다. 이는 신학대학교의 특성상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신학대학교 안에 개설된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든 재학생에게 평등한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일반교양의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신학대학교라는 학교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다문화와 신학의 영역을 상호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비목회자들은 향후 목회활동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대, 학력, 계층 등 부딪힐 수 있는 다문화 상황이 무수히 많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다문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종교적인 과제와 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성 영역에서는 교육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신학과에서 다루는 전공 필수인 성서학, 또

는 실천신학 부분의 기독교윤리학, 선교학 목회학 등 여러 가지 신학대학교육 부분과 다문화교육을 연계하여, 목회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회자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교육부 인가 57개 신학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강좌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각 신학대학교를 운영하는 개신교 교단 측에서 신학생의 예비 목회를 위해 실천적 과제로 마련하는 다문화 관련 단기 훈련 교육과정까지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이 아닌, 전화와 이 메일 등을 통해 학교 관계자, 다문화 강좌를 개설한 교수와 접촉하였고, 교육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한 만큼 자료 수집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을 보강하여 신학대학교의 정규 강좌 이외에도 해당 신학대학교의 교단에서 개최한 다문화 관련 훈련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된 이후에 다문화 강좌를 개설한 전체 교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좀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교육 내용을 파악한 후에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운선(2015). 다문화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대학교육관정의 시사점. *동아인문학*, 3, 417-443.

고병철(2018). 현대 한국의종교와 다문화사회, 그리고 다문화교육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36, 33-58.

곽재석(2018). 다문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문화 시민단체의 역할: 영화 “청년경찰”을 통해 본 중국동포 시민단체의 사례.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 643-664.

김경주·오세일·김우선(2015). 이주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다문화교회의 형성 사례연구. *宗教研究*, 75(2), 95-133.

김남국(2005). 다문화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2, 97-121

김상섭(2017). 문화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전개 양상. *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 6, 21-49

김선미(2009). 이주, 다문화 실태와 지원 사업분석-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시민사회와 NGO*, 7, 189-228.

김성영(2014). 한국 개신교 목사의 다문화교육 인식에 관한 통합적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성영(2016). 개신교목회자의 다문화교육 태도에 관한 연구-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2(3), 27-299.

김성영·오영훈(2013). 한국 개신교 목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서울, 경기도, 인천을 중심으로. *宗教研究*, 72, 207-235.

김성원·허계형(2017). 장애통합 사역 지원 요소에 대한 예비목회자들의 인식. *개혁논총*, 43, 127-155.

김우선(2015). 이주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다문화교회 형성 사례연구’. *종교연구*, 75, 95-134.

김정진(2010). 기독교 대학의 다문화교육 도입 방안 연구: 사회복지 전공학생의 다문화감수성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27, 235-262.

노길명(2010). 종교 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종교와사회*, 1, 192-215.

모경환(2009). 다문화 교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26(4), 245-270.

문화체육관광부(2012a).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 연구.  
 \_\_\_\_\_(2012b). *종교현황보고서*.  
 \_\_\_\_\_(2015). *종교현황보고서*.

민경훈(2009). 다문화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예술교육연구*, 7(1), 93-111.

박성혁·모경환·김명정(2009). 다문화 군대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다문화교육 연구와 실천*, 1, 1-14.

- 박성호(2012). 일본의 다문화공생제도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日本研究*, 33, 239-254.
- 박종수(2010). 다문화현상에 대한 한국개신교의 인식과 대응. *종교문화연구*, 14, 83-110.
- 박현준(2015).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종교정책 연구, *신학과 사회*, 29(2), 91-132.
- 변종헌(2016). 다문화 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40, 111-131.
- 서종남(2009).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역할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15(2), 75-104.
- 설동훈(2009). 다문화 인권정책의 현안과 과제-한국사회 다문화담론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발표문, 29-43.
- 신광철(2010). 다문화사회와 종교. *宗教研究*, 59, 1-16.
- 오영훈·김성영(2012). 도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생활 실태조사연구-강화도와 대부도를 중심으로. *宗教研究*, 67, 57-82.
- 유은경·장인실(2014). 초등학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과 실행에 대한 연구. *교육종합연구*, 12, 165-190.
- 이노미(2011) 국내 외국인 소수집단 거주지의 갈등과 연대-이태원 무슬림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1, 237-263.
- 이은성(2012). 공생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독교 다문화교육의 과제. *다문화와 평화*, 6(2), 5-36.
- 이정우(2007).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성과와 과제. *법교육연구*, 2(1), 65-92.
- 이진구(2011). 특집논문 : 다문화사회의 종교를 묻는다; 다문화시대 한국 개신교의 이슬람 인식: 이슬람포비아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9, 163-194.
- 이한숙(2019). 다문화와 인권. *월간 공공정책*, 168, 17-19.
- 장사형(2017).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와 그 적용의 적절성 고찰. *교육철학*, 62, 99-126.
- 장영신·정상우(2015). 다문화사회 이주노동자에 대한개신교 교회의 역할 연구 -랄프 윈터 (Ralph D. Winter)의 개신교 교회의 모델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1, 183-214.
- 전성민(2005). 세계화와 청소년문화. *청소년 문화포럼2005*, 12, 13-26.
- 전세경(2018). 초등학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위한 교사교육 강좌의 실태 및 방향 탐색.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1, 155-176.
- 정상우·박지인(2015). 다문화교육을 위한 법체계 분석과 입법 대안 모색. *教育法學研究*, 27(2), 25-55.
- 정일웅(2006). 한국교회, 신학대학교육 이대로 좋은가-커리큘럼과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40, 1-40.
- 최미희(2017). 다문화상담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다문화와 인간*, 6(1), 1-19.
- 최신일·황병준(2015).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실태 및 선교 방향성 연구. *신학과 실천*, 43, 595-622.

- 한건수(2005). 국내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유입과정과 실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1(1), 215-239.
- 한국일(2011). 이주민 선교를 위한 종교와 문화 이해. *선교와 신학*, 27, 179-208.
- 현유광(2006). 한국신학대학교육 이대로 좋은가-실천신학커리큘럼과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40, 130-157.
- 황재동(2018a).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에 대한 통합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18b). 신학대학원생의 다문화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 *NGO연구*, 13(1), 69-98.
- ATS, *Degree Programs Standards* (Pittsburgh, PA: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2002), 187.
- Banks, J. 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 Ed.)*. 다문화교육입문 (모경환 · 최충욱 · 김명정 · 임정수 역)(2008).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Bennett, C. I. (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6th ed.)*. NJ: Pearson. 김옥순, 김진호, 신인순, 안선영, 이경화, 이채식, 전성민, 조아미, 최성호, 최순종(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Gay (2002). Preparing for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3, 106-116.
- Spanierman, L. B., Poteat, V. P., Wang, Y. F., and Oh, Euna. (2008). Psychosocial costs of racism to white counselors: Predicting various dimension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1), 75-88.
- Sue, D. W., and Sue, D. (2003).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New York : Wiley
- Villegas & Lucas (2002). Preparing culturally responsive teachers: rethinking the curriculum.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3(1), 20-32.

〈ABSTRACT〉

## Exploring the Actual Situation and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Lectures in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Bae, Kyung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lectures in the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theological students. For this purpose, the study examined whether the multicultural classes were opened for 57 Protestant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selected five seminaries,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lectures operated in the school by dividing them into multicultural knowledge,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skills from the perspective of cultivating multicultural compete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most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lectures that were operated in the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were conducted in the dimension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In the future, multicultural education of the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needs to be expanded to inter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based on interculturalism. Second, most of the contents of the lecture focused on cultivating multicultural knowledge. Multicultural competence to be cultivated through multicultural education includes not only multicultural knowledge but also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skills, so the contents of education should be supplemented evenly.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tep-by-step multicultural education customized to the characteristics of pre-pastors who are religious leaders. In order to strengthen the multicultural capacity of theological students as pre-pasto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area of differentiated multicultural education customized to theological students by interconnecting the specificity of theology and pastoral ministry and multiculturalism.

**Key words**

Multiculturalism and Religi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ological Seminary, Multicultural Competence of Pastors

논문 투고일	2020. 10. 18
논문 심사일	2020. 11. 10
게재 확정일	2020. 11. 24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자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전경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민자 급증에 따른 사회통합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며 시행되고 있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실효성에 대한 현실적 요구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인 이민자 8명, 교육 강사 5명과 실무자 3명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참여 전과 과정 중 참여 후 경험을 바탕으로 세부분으로 범주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를 만나 서로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겠다는 참여기대와 언어적 지원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라는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교육과정 및 운영체계를 통해 교육적 효과보다는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좋았으나, 교육 시간에 비해 과다한 커리큘럼은 아쉬움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합격 후 비자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결과에 대부분 만족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은 참여자들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국적자와 소통하면서 대인관계가 확대되었다는 평가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점은 첫째, 교육적 차원에서 기존 교육과정 외 생활적응교육과 직업교육 강화와 둘째, 운영적 차원에서 교육장소의 접근성을 위한 네트워크 확장, 셋째,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태도 점검, 넷째,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근본 목적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구조적 정책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제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회적응, 사회통합

\* 본 연구는 2019년 2월 발표한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강사

## I. 서론

법무부 통계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말기준으로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135,689명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전년 2,524,656명보다 약 15.5% 감소한 상태이나, 2002년 629,006명에서 2019년 2,524,656명으로 불과 18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 통계적 변화는 해가 거듭될수록 장기체류 이민자수의 증가와 함께 정주 현상의 증가로 사회통합문제가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국내 외국인 정주 현상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련하여 새로운 사증발급<sup>1)</sup>을 위한 요건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거주 및 영주와 귀화를 위한 사증 발급에 필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sup>2)</sup>은 이수에 따른 혜택으로 인해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기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취지가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부수적 혜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시범운영과 2010년 본격적으로 실시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 4단계)’, ‘한국사회이해(기본/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든 과정을 이수완료 후 이민자의 비자변경 및 국적 취득을 위한 자격 변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듯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모해 가는 시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가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책적 시행이 현장의 요구보다는 정부 부처의 일방적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담당 실무자나 교육강사 및 이수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최아영, 2018).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학습자와 교육 강사, 거점 및 운영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취지<sup>3)</sup>에 따른 실현정도와 참여자 경험을 통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어떠한지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 이민자의 인식은 어떠한지, 사회통합프로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 7조(사증발급), 제7조의 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제 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시행령(<http://www.law.go.kr>).

2)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3) ①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 ②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기회 부여. ③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④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사회통합정보망,<https://www.socinet.go.kr>).



그럼 참여자(학습자, 교육강사, 실무자)의 경험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민자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보완할 것이며, 이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 II.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 1.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는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정치적·사회적 차별 없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를 말한다(김혜순, 2007). 이는 한 사회 안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 간의 상호영향 및 공존을 의미하며, 20세기 말 다문화에 따른 다양한 양상에 대한 대처로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국가에서 정체성 혼란에 따른 국민통합의 필요성에 의해 등장했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단일한 체제 속에서 소속감을 공유하고 상호간 유대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최영배 외, 2010). 따라서 사회통합은 이민자들의 법적, 정치적 수준에서의 통합을 넘어 정체성, 생활방식 및 교육 등의 공동가치에 대한 통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개념은 나라마다 유사한 의미와 정책을 함축하고 있으나,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방향은 이민자의 사회 부적응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며 이를 위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8)에서 목적(제1조) 및 기본이념(제2조)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선행연구

2000년대 접어들면서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이민자의 사회통합 및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되었으며, 유럽의 이민자 정책 실패에 따른 공언으로 인해 한국 상황에 맞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도입된 사회정책 중 하나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에 관련하여 2009년 시범 실시 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법무부 사

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이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및 정책 연구이다.

조항록(2011)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송은정(2013)은 출입국관리법을 바탕으로 한국 거주 이민자 사증변경에 따른 교육의 의무화와 김일란 외(2008)는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교재분석이다.

한국어 교재 내의 대화 기능을 분석하고 이민자의 특수한 상황이 교재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정호선, 2014), 주요 국가 사례(강휘원, 2010)와 교재 분석을 통해 이민자들의 상호이해와 조화 및 ‘문화 간 소통’의 확대를 위한 문제점의 개선과 효과성을 강조하였다(이래호, 2015).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교육과정 연구이다.

사례분석을 통한 다른 나라 사회통합정책의 강조사항은 이민자의 언어능력을 위한 학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현숙(2014)은 이민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무교육의 하나로서 체계화된 교육과정의 필요(강정향 외, 2020)와 경제자립을 위한 직업프로그램 교육을 제시(김이선, 2012)하고 있다. 원진숙(2017)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지원확대와 교육에 대한 학습자 요구분석을 반영한 교재 개발을 강조하였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채류 및 법제 연구이다.

최근 국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채류 외국인 수와 한국국적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귀화나 영주관련 제도의 편의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와 관심도 늘고 있다. 송소영(2011)은 성공적인 이민정책을 위해 법적지위와 대우의 처우개선 선행과, 영주권 취득 시간의 단축을 제안한 바 있다. 김종세(2017)는 국내 인적구성의 불균형에 의한 외국인 정주화현상의 함의적 제시와 함께 안정적 정착지원과 귀화제도를 위한 인권보호 법률과 실생활 법규 강화를 강조하였다.

다섯째,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양성 방안 연구이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교육의 수혜대상인 외국인 이민자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 반면 이들을 교육하는 강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혜순외(2008)는 ‘이민자와 국민 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적 제언<sup>4)</sup>에서 이민자의

4) 법무부 학술용역 보고서(2008).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신설’을 제시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이해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의 정식명칭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섯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와 소속감 연구이다.

박경래(2013)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방식에 있어 한국어 구사능력과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지필고사와 구술평가 척도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평가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제언과 효율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성순(2010)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정체성 및 소속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민자들이 갖는 어려움과 함께 이를 위한 정책적 제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의 경험과 운영 실무자 및 교육담당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전경미, 2019). 유일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다룬 최배영 외(2012)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성과 및 개선에 대한 연구의 시기적 필요성 제안의 의의는 있으나, 한 기관(10명)의 여성결혼이민자(5명)과 일반 이민자(5명)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다수자의 요구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를 학습자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 강사, 실무자의 경험까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 3.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009년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외국인에 대한 포괄적·통합적 이민정책의 필요성 제기에 따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을 법적 근간으로 이민자를 위한 언어지원이며, 0단계~4단계까지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5단계(기본, 영주과정), (심화, 귀화과정)의 “한국사회이해”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하나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들에게 체류허가와 영주 및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 관련 이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추진배경은 첫째,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필기시험 등의 귀화적격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한국어능력과 기본소양을 평가받아야 하지만 일반귀화 신청자의 경우 예상문제를 단순 암기하는 등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김재욱, 2012). 둘째, 중앙부처를 비롯한 자치단체 외 기관들의 중복적 프로그램지원에 따른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안 집행의 문제점과 함께 이민자들의 안정적 한국 정착을 위한 교육의 효율성과 극대화된 지원사업 성과를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중앙 거점기관은 한국이민재단이며 온라인 화상강의, 기본소양평가관리 업무 수행, 거점운영기관 전담인력 교육과 구술심사관 양성과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은 49개로 운영 기관은 326곳이며(2020년 9월), 법무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거점운영기관은 교육 및 학사관리와 함께 출결과 단계평가 감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일반 운영기관은 강의실의 제공과 이민자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시간/등급) 및 평가체계<sup>5)</sup>

교육명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20시간
평가 유 형	없음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중간 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사전평가 기준점수	구술3점 미만 (필기점수 무관)	3점 ~20점	21점 ~40점	41점 ~60점	61점 ~80점	81점~100점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는 사전평가 점수나 한국어 토픽(TOPIK) 등급 및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입증 사증제시 등 해당 요건에 따라 단계를 배정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연 3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교육은 무료이나 평가 시험은 1단계~3단계는 무료, 4단계~5단계는 3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평가 자격은 과정별 출석률 80%이상 참여한 자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해야 다음 단계로 승급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9월 1일자로 적용되는 최저점수제 도입<sup>6)</sup>에 따라 60점 이하로 불합격 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9),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6) 최저점수제(적용시점) '20.9.1기준으로 4단계 및 5단계를 이수하지 못한 자는 모두 최저점수제 지침이 적용됨(변경사항: 4단계 수료 후 중간평가에서 불합격 후 재수강하여 수료한 자는 중간평가에 응시하여 최저점수(40점)초과 득점 시 4단계 이수, 5단계 수료 후 종합평가에 불합격 후 재수강하여 수료한 자는 최저점수(40점) 초과 득점 시 5단계 이수(5단계 3회 반복 수료 폐지).

제이수(100시간 중 80% 이수), 5단계는 제이수(기본 50시간과, 심화 20시간 중 80% 이수)하여야 하며, 최저점수제(2020.09.01.)에 의해 4단계, 5단계 제이수자는 재시험에 응시하여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다음 단계로 승급된다.

### Ⅲ. 연구 설계

#### 1. 연구방법 선정 및 연구 참여자 특성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사례연구는 학문적 배경으로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역사학을 포함하며(Creswell, 2013), 제한된 체계 혹은 사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분석한다(오영훈, 2018).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그들의 경험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계를 밝혀서 참여자의 만족도 및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향 제시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중 학습자들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시흥, 인천, 부천, 화성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S)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자의 연구기간(2018년 6월 29일~9월 30일) 중의 학습단계를 나타낸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성(학습자)

구분	이름	체류기간	학습단계	성별	비자유형	나이	국적
참여자 S1	불**	3년	4단계	여	D-2	27	몽골
참여자 S2	황**	7년	5단계 완료 (기본) <sup>7)</sup>	여	F-2	27	베트남
참여자 S3	이**	12년	5단계	여	H-2	44	중국
참여자 S4	윤**	5년	5단계 완료 (기본)	여	H-4	28	중국
참여자 S5	샤**	14년	5단계	남	F-6	39	스리랑카
참여자 S6	인**	11년	5단계	남	F-5	44	파키스탄
참여자 S7	하*	9년	5단계 완료 (심화) <sup>8)</sup>	남	E-7	32	베트남
참여자 S8	아*	7년	5단계	남	E-7	26	방글라데시

본 연구의 또 다른 참여자 그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사(T) 5명과 실무자(W) 3명이었다. 교육 강사의 경우 모두 한국어교원 2급 자격과 경력(1년~10년)을 갖춘 자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특성(교육 강사/실무자)

구분	이름	성별	경력	나이	자격 및 업무
참여자 T1	서**	여	7년	56	한국어교원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현재 5단계 강의
참여자 T2	신**	여	1년	45	한국어교원2급, 현재 4단계 강의
참여자 T3	김**	여	6년	52	한국어교원2급, 현재 4단계 강의
참여자 T4	이**	여	9년	50	한국어교원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참여자 T5	김**	여	10년	49	한국어교원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구술심사 자격, 현재 5단계 강의
참여자 W1	K**	여	2년	47	한국어교원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평생교육사
참여자 W2	J**	남	2년	38	*
참여자 W3	E**	여	2년	27	사회복지사 1급

본 연구 참여자 S(1~8)는 한국거주 3년 이상, 4, 5단계 학습자로 한국어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자로 연구대상을 삼았으며, T(1~5)는 한국어교원 자격을 소지하고 T2를 제외한 6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자이다. W(1~3)는 2년차 경력자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경험을 갖고 있으며, W1은 거점운영기관의 W2와 W3는 일반운영기관 실무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16명의 사례연구가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사례연구에서 자료 수집방법은 연구 주제와 연구 수행에 따른 제반적 사항과 연구 참여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심층면담은 2018년 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참여자의 일정과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사전에 참여자의 의사에 따른 조용하고 익숙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의 방식은 개별면담과 직접면담으로 각자 2

7) 5단계 완료 기본이라 함은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5단계 한국사회이해 기본 과정(50시간)을 말함.

8) 5단계 완료 심화라 함은 귀화자격 취득을 위한 5단계 한국사회이해 심화 과정(20시간)을 말함.

회로 시행하였고, 추후 미흡한 정보는 전화면담이 있음을 사전 공지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면담 직후 바로 전사하고 코딩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더 필요한 경우나 모호한 사항은 전화면담을 통해 자료를 보충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공통적 관심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으로 두 사람의 관점이 상호 교환되고 합의되는 과정이다(Kvale, 신경림 역, 1998). 이에 인터뷰 시 최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막고, 참여자의 생각 그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반구조화 된 개방형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 전 연구 목적 과 연구과정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불편을 느끼는 질문에 대해 거부권행사와 면담 중에 중단할 수 있음도 안내하였다. 연구윤리 준수와 연구 참여 동의서는 서명 후 서로 교부하였으며, 면담이 시작됨과 동시에 면담내용을 녹음하였고 면담 후 바로 전사하여 음성자료를 문서화하였다.

#### IV. 연구 결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진술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기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평가의 3가지 상위범주와 9가지 상위범주 핵심주제로 도출되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조직화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범주 및 핵심주제

상위범주	상위범주 핵심 주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참여 의미
	새로운 출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의사소통
	적극적 참여
	사회적응
	교육과정 및 운영체계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참여효과
	불편 요인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안

## 1.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 1) 참여의미

대부분 외국인들이 타국에 거주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언어와 문화 그리고 체류자격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체류자격 연장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비자 유형의 변경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민자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S1,S2,S3). 한국에서 오래 체류하기 위한 비자변경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점에 참여를 결정하였다.

“올 때 D8 비자로 와서 결혼해서 F6 등급 바뀌서 살게 됐습니다. 귀화하고 싶어요. 평소에는 그냥 늙을 때까지 한국에서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외국에서 사업하고 싶어서,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여권 하나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 나갈 때 비자 바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 한국 여권가지고 있으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많아요.” (S6)

“저는 E7인데 한국에 사는데 괜찮지만, E7은 사장님이 다시 계약 안 해주면 우리 바로 비자 취소예요. 다른 회사 가고 싶으면 지금 사장님이 사인해줘야 해요. 그래서 좀 불안해요. 사장님 눈치를 봐야 해요.” (S7)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참여를 선택하기도 한다. 최아영(2018)에 따르면, 이주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이며, 이민자의 언어능력 부족은 사회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의사소통 능력이 낮을수록 가정과 직장 및 사회내의 관계에서 소외되기 쉽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교육시간 부족을 토로하였다.

“한국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서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들으면 비자 바꿀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 생각 없었어요. 그 때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우는 데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문화 어려워요,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선생님이 빨리빨리 나가니까 잘 모르겠어요.” (S2)

“가족들이랑 친구한테 사회통합프로그램 추천해주고 싶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싶은 사람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해야 해요. 50시간 안에 배워야 해서 우리



가 아는 거 명절, 한국에 대한 거 중에서 이런 건 빼고 법이나 한국에서 사는데 필요한 거 이런 거 많이 해야 해요. 부족해요.” (S5)

## 2) 새로운 출발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 참여에 대한 많은 기대보다는 단지 비자변경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 습득으로 인식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의외로 비자 변경이라는 공통 목표 때문인지 다른 국적 이민자들과 친분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 체류기간 동안 불안 요소인 비자 변경을 조건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S4, S2).

“지금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카톡 연결했어요. 지난 번 우리 선생님이 베트남 ㅇㅇ씨 왜 안 와지? 해서 제가 톡 보냈어요. 저는 중국, 홍콩, 베트남 사람들과 점심도 같이 먹어요.” (S8)

“인천에 있는 대학교에서 의상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람들 잘 몰라요. 이거 신청할 때도 선생님한테 물어 봤어요. 지금 같이 공부하는 중국사람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집에도 같이 간 적 있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수업 때도 같이 앉아요. 좋아요.” (S1)

“처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먼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친구가 저 대신 신청해 줘서 어려운 것은 없었어요. 친구가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저보고 너도 잘 할 수 있다고 말해줘서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S3)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민자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수업하는 것에 만족하였다. 참여자들이 서로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 조금 더 개방된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 온 이방인이란 공통분모로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고 있었다. 또한 미리 이 과정을 경험한 친구의 조언으로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 도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2.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 1) 의사소통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사항으로 한국어 능력 부족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결여라고 하였다. 이규용(2015)의 연구에서도 한국 내 기업체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근로를 위한 취업교육 시 가장 필요한 교육이 한국어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 이주해 살면서 돈 벌러 온 이방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항상 위축되고 있으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좀 더 적극적인 생활을 하는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였다.

“의상 공부하러 한국에 왔는데 우리 남편도 한국에서 일해요. 우리 처음에 한국말 잘 못해서 한국문화도 잘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국어 정말 필요해요. 이제는 한국말 배워서 학교에서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여기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말도하고 같이 점심도 먹으러 가자고 하고 좋아요.” (S1)

“한국어 배우고 싶었고,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싶었고, 한국에 귀화하고 싶었습니다. 밀하기 때문에 한국말 많이 공부할 수 없었는데, 귀화하려니까 이거 공부하게 되었어요. 한국말, 한국문화 알게 됐어요. 좋아요.” (S5)

“저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가르쳐 봤어요. 0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가르치면 갈수록 알아들으니깐 신기하면서 뿌듯하죠. ~ (중략) 대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며 질문도 많이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지만, 3단계부터 한자어가 많아지면 또 멘붕이죠. 하하. 동남아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T1)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더불어 다른 나라 문화까지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자국민 보다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확장되었으며, 한국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다는 평가였다.

“저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여기 와서 중국 형님하고, 베트남 친구들도 만나고, 서로 말도 하고 필요한 정보도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S8)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못하고 하니까 회사에서 사람들과 잘 말 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말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으니깐 우리 회사 식당 이모들하고 자주 말해요.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할 때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만나서 말도 해서 좀 재미있어요.” (S2)

“제 학생들 중에는 서로 국적이 다른데도 서로 카톡도 하고, 전화번호도 교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설어서 말도 안하더니, 2~3번 정도 만나면서 서로 식당에도 가

고, 쉬는 시간에는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하하하 (중략). 각자 나라의 언어는 달라도 한국말로 소통하면서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던데요.” (T2)

## 2) 적극적 참여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걱정이자 불안으로 인식되고 있던 것이 바로 비자문제였다. 길강목(2011)은 사회통합은 입국 단계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비자 발급을 시작으로 입국, 체류, 영주 또는 귀화에 이르기까지 이민정책의 전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비자 때문에 고민 중 행정사로부터 안정적인 비자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정을 미리 경험한 친구의 조언으로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친구가 추천해줘서 알았는데 제가 F5받을 때 사회통합프로그램 마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었어요. 이런 거 말해주는데 없어요. 비자 바꾸려면 우리처럼 외국인은 뭘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비자 변경하러 갈 때 말해주면 좋겠어요.”(S5)

“저는 이런 것조차 몰랐어요. 얼떨떨결에 여행사하는 그 동생이 알려줘서 얼떨떨결에 이렇게 해서 국적을 받을 수 있나? 믿겨지지 않았어요. 진짜로”(S5)

“저는 작년에 사회통합프로그램 마쳤고, 이제 F2예요. 요즘은 제가 친구들한테 사회통합프로그램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비자 바꿨지만 내년에 베트남 돌아갈 거예요. 시간 있으면 다시 한국 와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 (중략) 비자가 E9아니니까 그냥 마음이 안 불안해요.”(S2)

매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국가기관에서 정보를 얻기 보다는 주변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정보를 알고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S8의 경우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면서 본인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참여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비자 취득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합격의 성취감과 함께 참여과정의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저는 일요일에 공부했어요. 하루에 8시간 쯤, 일주일 동안 일하기 때문에 주말밖에 시간이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잔업이 있을 때는 힘들어요. 사장님 말하면 안 좋아해요.” (S7)

“가끔 학습자들이 찾아와서 부탁해요. “선생님 ~ 저 회사에서 출장가라고 해요. 그러면 저 80시간이 안되니까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저는 난감해요.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럴 때 남은 시간에 다 와도 80%가 안 되면 이수정지를 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죠.” (T4)

“저희 기관에서 공부하다가 안 보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있었는데 1년쯤 지난 어느 날 다시 와서 사통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때 합격한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지는데다가 주말에 회사 일이 바쁘니까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자는 연장해야 하는데 방법은 없으니까 다시 할 수밖에 없다며 신청하더라고요.” (W1)

연구 참여자들은 집 근처에 본인의 단계와 맞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마감이 되어서 등록하지 못하면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먼 곳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때 수업 신청 여부를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에 따른 다양한 과정의 부재와 인원수 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S1, S4, S5, S7). 이 외에도 주말 반 경우 하루에 8시간의 과도한 수업시간 및 수업량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S2, S4, S7, T3, W1)고 하였다. 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본인이 희망했던 비자 변경의 자격 기회는 좀 더 적극적인 수업 참여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단계 과정 후 평가 시험의 합격은 무엇보다 큰 성취감으로 마음이 벅찼다고 했다.

“4단계 시험 합격하고 너무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 말하니까 축하해 줬어요. 엄마가 뭔가 해 낸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공장다니고, 야근하고, 공부하느라 쉬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하하하” S3)

“합격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시험 끝나고 일주일 지나면 와요. 너무 좋았어요. 5단계도 한 번에 합격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S6)

### 3) 사회적응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은 심리적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었다. 참여자들은 합격을 통해 위촉된 소수자의 인식에서 이제는 좀 더 떳떳한 ‘자존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인터넷, 핸드폰 웨일리로 묶으면 싸다고 하는데 외국인 국적이라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이름으로 했는데, 새 핸드폰 바꿀 때 됐는데 남편이랑 가서 당당

하게 바꿀 수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S4)

“저희 센터에서 공부하던 방글라데시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번 떨어지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 하나였는데 지난번에 5단계 합격했다고 센터에 왔더라고요. 선생님들 너무 고맙다고 우는데 제 맘이 다 찼했어요.” (w3)

연구 참여자들은 시험 통과를 통해 합격이라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본인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S3, S7).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전 사회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경험했던 이민자의 경우 평가 합격 후 본인이 좀 더 사회나 직장에서 당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만족함을 표현했다(S8, S7).

#### 4) 교육과정 및 운영체계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 제안을 통해 비자변경의 편의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은 목적의 취지보다는 비자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법적 부분 등 참여자 요구에 대한 니즈파악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고 있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왜 처음 시작되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비자 바꾸는데 교육받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는 친구들도 그건 잘 몰라요. 그냥 시험에 합격하면 비자 바꾼다고 알고 있어요. (중략) 시험 보면 끝이에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S6)

“한국어 신청하겠다고 센터에 와서 도와달래요. 평일 야간 반이 있으니까 우린 한국어 반에 신청해주죠. 그런데 신청 다하고 들어보면, 사통 애긴거예요. 정말~ 바쁜데... 그냥 와서 등록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전평가 봐야한다고 하면 그건 모른다고 해서 좀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W2)

“5단계 한국사회이해 공부할 때 한국 명절, 계절 이런 거는 제가 한국에서 12년 살아서 다 알아요. 이런 거 말고, 한국 법 이런 거 공부 더 많이 하면 좋겠어요.” (S3)

참여자 면접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재는 그들에게 가장 우선 제공되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W2, T2, T4). 이현숙(2014)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인지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 만족을 위한 교육과정과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저는 지금 토요일에 수업 듣고 있어요. 일요일 반에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중략) 컴퓨터 열어 놔는데 빨리 할려고 했는데 이미 다 뒀어요. 사람 수 상관없이 열어 주면 좋겠어요. 가까운데서 받고 싶은 날 하고 싶어요.” (S5)

“100 시간 안에 다 끝내야 하는데 무으으으으지 무리가 많죠. 하하 4단계부터는 쓰기, 듣기, 말하기 다 포함해야 하는데 문화도 있고 문법도..... 근데 100시간 안에? 그 사람들한테..... 쓰기도 모르지 무리죠.” (T2)

참여자 중 학습자들은 시스템에 대한 개선(S7,S5), 교재에 대한 개선(S1, S2), 을 그 외에는 대부분 만족한다는 답변이었다. 반면 교육 강사는 수업 시간 배정 및 교재 재구성(T1, T5)을 언급하였다.

### 3.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1) 참여 효과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언어적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를 습득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국적 학습자와의 수업은 서로의 입장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어서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정보 교환 등 대인관계의 확장의 장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평가의 부담과 합격의 자존감과 자기만족이 컸다는 참여 효과를 언급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이거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조선족이라 한국말을 듣거나 말하는 거에 다른 나라 애들보다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기 와서 한국 문화를 알고 있던거 말고 더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쓰기도 해서 좋았는데 힘들어요.” (S3)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해서 저는 재미있어요. 저는 매일 회사만 가고 집에 오고 할 일이 없었는데 여기 오면 사람들도 만나고, 말하고, 다른 나라 문화도 배우고 좋아요. 그리고 또 한국말 좀 잘하게 되니까 회사에서 한국 사람이랑 말도 하고 제가 베트남 요리 해서 같이 먹으면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해서 많이 친해

졌어요.” (S2)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계속 시험에 합격했어요. 비자 E7으로 바뀌서 베트남에 있는 아내를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잘했다고 한국에 와서 좋다고 하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고 좀 기분이 좋았어요. 빨리 F2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S7)

## 2) 불편 요인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자의적 또는 타의적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활동의 불편요인으로 개인적, 운영적, 제도적 요인을 언급하였다.

“현재 우리반 학습자 중 한 명은 매일 와서 자요. 야근해서 밤새 일하고 지금 퇴근했다고. 어쩔 수 없잖아요. 비자를 바꿔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휴휴, 어떤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하죠.” (T4)

“수업에 빠지지 않고 꼭 오고 싶죠,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상황이라 힘들어요. 저 다음 주에 필리핀에 출장가야 하는데 회사에다 말하고 토요일 아침에 왔다가 수업하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아직 회사에서 OK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조울 중이에요.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 둘 수도 없잖아요.” (S8)

“이거 낱짜 일요일이 좋은데 다 없어서 토요일에 해요. 저는 안산에서 왔어요 이거 때문에 안산에서 5단계 없어서 부천에서 하는데 이거하고 집에 가면 힘들니까 오기 싫을 때가 있어서 다음에 할까 생각을 많이 해요.” (S6)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시간이 늘어났어요. 우리는 주말에도 일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5단계 50시간만 했는데, 이제는 20시간 또 해야 한 대요. 내 생각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또 시간이 늘어날까봐 걱정이예요.” (S5)

반면 교육 강사 및 실무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업시간과 학생들 관리 부분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었다(전경미, 2019). 특히 교육 강사는 주어진 시간 안에 교재를 끝내기 버거운 단계가 있어서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T1, T2, T3), 수업 외 질문 및 요청을 하는 학생들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다고 토로하였다. 실무자의 경우는 목적 없이 주변사람들의 참여에 덩달아 함께 신청했다가 결국에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W2, W3).

“저는 학생들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가끔은 진짜 짜증날 때가 있어요. 수업하고 있을 때나 밤늦게 질문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경운데, 언제는 저한테 전화 와서 한국 사람을 바꿔주는데(중략), 렌터카 수리비 청구 때문에 경찰서에 CCTV 확인 신청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휴~.” (T5)

“5단계 50시간이 부족해서 요청사항으로 시간을 늘려달라고 했더니 20시간이 추가로 생겼더라고요. 강사들은 50시간 안에 끝내는 게 버겁다는 의미였는데, 50시간은 영주용, 20시간은 추가로 귀화용으로 바뀌어서 학습자들 불만이 더 생겼어요.” (T4)

### 3)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안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에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을 피력하였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 참여자들은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들면서 5단계 다문화이해과정의 이론에 실습과 참여의 과정이 첨부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 가장 원하는 사항은 자신에게 맞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 단계를 열어줄 것을 바라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기관의 적극적 홍보를 원하고 있었다.

“저는 시흥에서 공부했는데 3단계 괜찮았어요. 4단계도 조금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흥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요일에 수업해요. 왜냐하면 일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요일에 수업신청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일찍 마감되니까. 수업 많이 열어 주면 좋겠어요.” (S7)

“5단계 책으로만 공부하면 좀 재미도 없고, 역사나 문화 가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2)

“사회통합프로그램 뭔지 몰랐다가 지인한테 듣고 바로 신청했어요. 출입국에서 이런 거 들은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한테 돈 주고 하죠. 잘 알려주면 좋겠어요.” (S3)

교육 강사와 실무자의 입장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적 지원 및 강사 활동에 대한 처우 그리고 적절한 임금 보장에 관한 부분을 제안하고 있었다. 강사 역량프로그램인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한국어교원 연수’,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외에 인프라구축을 위한



시스템 부재와 공유 사이트 운영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으며, 실무자들이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수업 시 발생하는 행정처리의 불편함을 이유로 교육 강사와 실무자 역할의 분리(T3, W2, W3)를 바라고 있었다.

“저는 2009년 시작 때부터 인천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2만 5천원으로 거의 9년째 오르지 않네요. 강사 경력에 따라 2~3천원 정도는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중략). 강사비 인상이 안 된다면 4대 보험이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꾸준히 일을 주든지 휴휴.” (T5).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보수교육이 필요해요. 아니면 강사 공유 사이트가 있어서 자료나 정보 공유도요. 그리고 강사들은 개인적인 일로 수업에 빠질 수가 없어요. 대체 강사 구하는 게 어렵거든요. 말하는 것도, 이런 사이트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면 좋을텐데. 눈치도 안 보고.” (T2)

“저는 운영기관 선정에 교회같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거긴 좀 아닌 것 같아요. 파견 간 강사들이 시설도 안 좋고, 필요한 물건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를 봤어요. 더한 건 가끔 종교적 색채를 띠면 안 되는데도 자꾸 종교 행사에 나오라고 해서 학생들이 불편해 해요.” (W1)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언어와 문화, 법률, 사회인식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자가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집단 및 지역사회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기회부여로 이민자에게 적절한 지원정책을 반영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자변경에 대한 절차라는 인식과 영주와 비자를 쉽게 받아 가족을 초청함으로써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전경미, 2019), 정책 추진의 허점을 이용한 외국인의 비자 발급에 대한 특혜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사회가 이민다문화사회로 변모해 가는 시점에서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좁게는 가정에서 넓게는 사회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다. 이민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부재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와 안정적인 체류비자 취득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국적의 이민자들과의 교민을 공유하며,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이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교육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파악되었는데, 과정 등록 시스템의 미흡, 과정이수 시간의 부족, 학습자 니즈를 무시한 교사중심 이론 수업, 교육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과 복지제도 결여, 실무자 및 강사의 역할 불분명에 따른 운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점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적 차원에서 기존 교육과정 외 생활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등의 강화이다. 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는 비자 연장과 국적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외에도 한국사회에서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반영한 교육적 지원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과정은 교육 강사 중심 전달 교육이며, 5단계 학습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직업 및 생활적응을 위한 현장체험과 실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적 차원에서 교육장소의 접근성을 위한 네트워크 확장이다. 참여자들은 교육장소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주말 시간의 집중적 수업 참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공단지역과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기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활용함으로써, 사회통합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미숙을 관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막고, 개인 일정에 맞는 등록 및 평가 신청을 통해 이수정지나 제적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을 못하는 다른 이민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셋째,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태도와 지원이다.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방향은 단순히 국적 취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장기적·거시적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 기관과 운영체계의 합의에 의한 시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관계자인 실무자와 교육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역할에 대한 전문성 보장이 필요하며,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은 보다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넷째,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화에 따른 이민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조적 정책개선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취지에서 벗어나 비자변경 및 국적취득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민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사회통합프로

그럼은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불법을 막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보장 지원을 위한 이민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보다 쉬운 국적 취득의 기회를 통해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여 합법을 포장한 불법적 취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례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경험을 통한 개선안을 모색함에 있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 교육 강사, 실무자의 경험과 동일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경험에 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가 제도화되는 시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향 외(2020).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 이민정책학보, 3(1), 1-26.
- 강휘원(2010). 캐나다 이주민 거주지역의 초기 집중과 공간적 확산: 사회통합의 요인 탐색. 한국정책연구, 10(3), 1-19.
- 길강목(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사회연구, 4(2), 135-168.
- 김영순·최승은(2016). 상호문화학습의 실천적 내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어와 문화, 12(2), 1-27.
- 김이선(2012). 다문화가족 정책의 사각지대 분석 :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남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 김혜순 외(2008). 이민자와 국민 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적 제안. 법무부 학술용역 보고서.
- 김일란·김남형(2008).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교육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03-623.
- 김재욱(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에서의 번역 양상 문제. 통번역학연구, 16(1), 39-64.
- 김종세(2017).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국어교육의 역할과 과제. 법학연구, 17(3), 349-368.
- 박경래(2013).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기본소양 평가에 대한 고찰-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단계평가를 중심으로. 영주어문학회, 26, 5-3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9). 2019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서.
- 송소영(2011). 귀화와 영주자격의 연결 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학연구, 8, 47-71.
- 송은정(2013). 국적 취득 희망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 신경림(2004).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심미경(2016).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1065-1082.
- 오영훈(2018).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중국 춘절과 한국의 설에 대한 사례연구. 다문화와 평화, 12(1) 157-179.
- 원진숙 외(2017). 다문화적 한국어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KSL)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원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규용 외(2015).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래호(2015).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구성 체계와 내용 분석. 영주어

- 문, 29, 347-373.
- 이미혜(2016).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3(4), 187-2.
- 이성순(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4), 165-187.
- 이현숙(2014).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제2거점 기관 참여자를 중심으로. 제 11차 한국평화 연구회 국제학술세미나, 한국평화연구학회.
- 전경미(2019). 한국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이해관계자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기선 외(2016). 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 정기섭(2009b). 독일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 외국인 지원 대책 사례 및 시사점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13(3), 99-120.
- 정호선(2014).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분석: 의사소통 상황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2, 305-336.
- 최배영·한은주(2012). 이민자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30(3), 83-103.
- 조항록(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실제와 과제. *다문화와 평화*, 5(2), 5-31.
- \_\_\_\_\_ (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의 확대 실시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50, 235-267.
- 최배영·한은주(2012). 이민자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30(3), 83-103.
- 최아영(2018).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개선 방안: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특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E. 조홍식 외(역)(2015).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Fortuijn, J. D. Musterd, S. and Ostendorf, W. (1998),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thnic segregation: Impacts on urban areas introduction. *Urban Studies*, 35(3): 367-370. immigr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225-249.
- Gibson, M. A .(2001).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 19-23.
- Guyton, E. M. & Wesche, M. V. (2005).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Develop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ility. *Multicultura Perspectives*, 7(4), 21-29.
- Parekh, Bhikhu(2000).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inar Kvale (1998). 인터뷰: 내면을 보는 눈. 신경림 역, 서울: 하나의학사.

〈ABSTRACT〉

##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the KIIP (Korea Immigrants and Integration Program) Participants

Kyungmi, Chun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alistic deman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KIIP program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is being implemented as the main concern of social integration due to the surge of immigrants in Korea. For this purpose,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on 8 immigrants, 5 instructors and 3 practitioners who participated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categorized into three parts based on the experience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Specifically, the expected outcome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s that this program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n effective vehicle to provide the common platform to meet the variety groups of immigrants and share concerns and offer linguistic support to understand one another. The positive outcome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was to help the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cultural differences to bridge the gap between two cultures through its curriculum and operation system, however, the downside of the program was the curriculum overload for the limited course time.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was positive due to the program's flexibility that allows the change of the visa even after acceptance. The implantation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enabled the participants to acquire language and culture, enhanc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e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rengthening of life adaptation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outside the existing curriculum in the educational dimension, second, the expansion of the network for accessibility of educational places in the operational dimension, third, the evaluation of the attitude toward social integration in the institutional dimension, and fourth, the improvement of structural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of the fundamental purpose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the policy dimension.

**Key words**

Korea Immigrants and Integration Program, Social Integration Participation Experience

논문 투고일	2020. 10. 18
논문 심사일	2020. 11. 06
게재 확정일	2020. 11. 18





#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관련 요인,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유승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 관련 요인들과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의 7차 연도(2017)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 인아버지와 외국인어머니로 구성된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서 태어난 고등학생 시기의 청소년 1,047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성취동기는 향상되며, 이는 다시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에 간섭하는 태도를 취할수록 자녀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 진로 관여 부족은 성취동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녀 진로에 대한 지지적 태도는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임으로써 학업적응을 향상시키는 간접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녀의 성취동기는 학업적응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 성취동기, 학업적응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I. 서론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후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초·중·고등학교 학령기에 속하는 다문화학생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령기의 다문화학생수는 2014년 67,806명에서 2019년 137,225명으로 6년 사이에 약2배가량 증가하였다(교육부, 2019a; 교육부, 2019b). 2019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수는 초등학교생 103,881명, 중학생 21,693명, 고등학생 11,234명으로 초등학교생 비중이 가장 높으나,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향후 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학생은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의 자녀로 구분될 수 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교육부, 2019b),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78.8%로 중도입국 다문화학생(6.3%)과,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14.9%)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구성된 가정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중문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된다. 이중문화 환경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향유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언어 능력과 문화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발달 지연, 정체성 혼란, 외국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문화적응 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심우엽, 2009; 최충옥 외, 2009). 또한 국내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 정보나 지지체계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박명희, 2017; 오승환, 2016).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박희훈·오성배, 2014; 이혜숙, 2016). 교육부 자료(2019a)에 따르면, 2017년 초·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1.17%)은 전체학생(0.8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격차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 더 컸다.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생 0.99%, 중학생 1.47%, 고등학생 2.11%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a).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보고서(이혜숙, 2016)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이 학업 중단을 고려하는 이유로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25%), ‘경제적 문제’(11.4%), ‘친구 관계’(9.4%), ‘공부가 어려워서’(8.3%) 등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학업과 관련 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적응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생들의 인지적·동기적 참여과정으로서 학생의 수업 참여에의 적극성, 학교학습을 위한 노력, 학교학습 방해요인 통제, 학교학습에 대한 집중과 지속성 등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한다(문은식·김충희, 2002). 학업적응은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함은 물론,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래의 직업이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이래혁·장혜림, 2018).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학업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은 큰 것으로 보고된다(이래혁·장혜림, 2018; 정택용, 2015). Coleman(1988)의 사회자본이론에 따르면, 가족배경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배경에는 부모의 경제력, 학력,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물질적 자원, 사회적 네트워크, 정보체계가 부족하게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학업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과 관련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부모와 관련된 변수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 부모와의 관계, 양육태도 등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이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민경·김희영, 2015; 박명희, 2017; 임후남, 2020).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부나 모를 구별하지 않고 ‘부모’로 묶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부나 모가 개별적으로 자녀의 학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청소년기 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다문화청소년에게 특히 중요한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지지나 활동과 관련된 변수들이 그들의 학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업적응에 있어서 학생을 둘러싼 외부환경이나 지원 못지않게 학생 스스로 학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같은 내적 동기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취동기는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 있거나 중요한 과업을 우수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청소년의 학업을 비롯하여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금혜, 2008; 이형하, 2020; Hyde & Kling, 2001). 이러한 성취동기는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력, 양육태도 등 부모와 관련된 요인들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운경·도현심, 2005; 현정미 외,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관련 요인이 성취동기와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부모 관련 요인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부모 관련 요인은 부모가 가진 재정자원, 인적자원, 사회자원(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설정하며,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인어머니와 한국인아버지 각각의 특성 및 행위가 자녀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부모와의 활동, 대화,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자녀의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지지나 활동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가진 재정자원은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적자원은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자본(자녀와의 상호작용)은 각각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학업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성취동기는 부모 관련 요인이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분석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국인어머니와 한국인아버지가 각각 어떻게 자녀를 지원하고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학업적응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적응

적응이란 스트레스 상황이나 환경에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개인을 변화시키는 과정

을 말한다(Ployhart & Bliese, 2006).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적응은 학생이 학업을 기본으로 또래, 교사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환경과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도록 기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정승현·심미영, 2014). 학업적응은 이러한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으로서 학교 수업에의 참여,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 및 이를 위한 노력, 수업 과제 해결 능력 등 학교 공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절히 기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문은식·김충희, 2002; 이규미·김명식, 2008).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은 학생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며, 이후 성인기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지표가 되기도 한다(이옥주, 2003; Crosnoe & Elder, 2004).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은 학업중단과 연결되며, 학업중단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이후 성인기의 삶도 순탄하게 영위하지 못하기도 한다(전경숙, 2006). 학교에 부적응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적응 영역 중 수업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최지원·박영숙, 2011),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교부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수업 및 학업 관련 행동을 지목하기도 하였다(이규미, 2004). 한국의 청소년들은 성적이나 학교에서의 인정 등이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들의 삶에서 학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안선정 외, 2013). 따라서 학업적응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비롯하여 학업중단이나 비행 예방, 미래의 진로 및 사회생활을 위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함과 동시에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체성의 혼란, 외국인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 인종차별, 문화갈등 등과 같이 그들의 다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오승환, 2016). 이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기의 혼란과 심리적 부담이 크며,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쉽고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기도 한다(Liebkind et al., 2004). 특히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특성 상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학업적응에 있어서 비다문화가정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배경희·이수천, 2014).

고등학생 시기는 자신의 욕구, 흥미, 가치, 사회경제적 자원 등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토대로 진로 및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학업적응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er et al., 1992).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

(2018)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5%로 초등학생(0.6%)과 중학생(0.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도 2017년도에 초등학생(1%)과 중학생(1.5%)에 비해 고등학생(2.1%)의 학업중단율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이는 전체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1.5%)보다 높다(교육부, 2019a; 한국교육개발원2018). 이러한 교육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결손이 누적되는 정도가 비다문화가정 학생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교육부, 2017). 이혜숙(2016)의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수업이해 정도는 ‘거의 다 이해한다’가 61.9%, ‘절반만 이해한다’와 ‘약간 이해한다’가 36.2%로 나타나 상당수의 다문화청소년이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학교공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 역시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교과수업으로 보았다.

동일한 보고서에서 학업중단을 고려해본 다문화청소년은 14.1%로 나타나 실제 학업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출생 다문화청소년의 10%, 중도입국 청소년의 17%가 학업중단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서 학업적응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출생 다문화청소년은 학령 초기에 한국어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한국어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언어발달의 시기를 지나 한국에 입국하기 때문에 서툰 한국어실력으로 인해 교과수업을 쫓아가는데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친구관계에서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입국 전 부모가 한국에 와 일을 하는 동안 친척집에서 살다가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성장과정에서 부모-자녀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부모가 맞벌이로 바쁜 경우가 많아 자녀의 교육에의 관여에 어려움이 있다(이승미 외, 2017). 이에 반해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가정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와 외모에 있어서 한국인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문화’로 분류되어 지원받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이혜숙, 2016).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달리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한국사회에서 자신이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는 곧 그들이 성장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관련 요인, 성취동기, 학업적응 관련 연구

### 1)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부모

가족은 친밀한 정서적 관계로 형성된 일차집단으로서 가족구성원은 가족 내에서 각각의 위치, 행동, 역할을 가지며, 가족구성원 간 상호의존함으로써 구성원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외부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이인정·최혜경, 2007). 따라서 가족은 인간의 성장발달에 가장 친밀하고 영향력 있는 사회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일차적으로 가족체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차상숙, 2003). 가족 중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최초로 만나는 타인임과 동시에 출생부터 성장기간을 거쳐 성인이 된 후에도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도 부모의 영향은 큰 것으로 보고된다(이래혁·장혜림, 2018; 정택용, 2015). Coleman(1988)의 사회자본이론에서 가족배경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중요하게 나타난다. 그는 가족배경을 재정자본(financi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였다. 재정자본은 가족의 부(wealth)나 소득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자녀의 학업성취를 도울 수 있는 물질적인 도움(집안에서 공부할 장소, 학습보조자료 등)을 제공한다. 인적자본은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자녀의 학습을 돕는 인지적(cognitive) 환경을 위한 잠재력이 된다.

가족의 사회자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지적 활동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과 관련된다. Coleman(1988)은 가족의 사회자본이 자녀의 지적 발달에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비록 자녀가 부모의 인적자본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나 부모의 인적 자본이 오로지 일 혹은 집 밖의 다른 일에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무관할 수 있다. 반면에 인적자본이 낮은 부모일지라도 자녀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활용 가능한 가족의 사회자본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인적자본이 가족 관계 안에서 구현되는 사회자본에 의해 보완되지 않는다면, 부모가 가진 인적자본의 양의 많고 적음은 자녀의 교육과 무관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래혁과 장혜림(2018)의 연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다문화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은 다문화청소년의 행복감을 낮아지게 함으로써 학업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비다문화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에 따라 학업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구인회·김정은, 2015; 김현주·이병훈, 2007).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이중섭·이용교, 2009; 주동범, 2009).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이중섭과 이용교(2009)의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은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비행경험을 줄여줌으로써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Coleman(1988)이 제시한 가족의 사회자본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학습 및 학교적응을 분석한 몇몇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김민경·김희영, 2015; 박명희, 2017; 임후남, 2020). 중·고등학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학습몰입의 관계를 분석한 임후남(2020)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자율성을 지지하며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학습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주도성(변화 준비, 계획 능력, 자원 활용, 의도적 행동)을 높임으로써 학습몰입에 간접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박명희(2017)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모가 감독형 양육태도를 취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감독은 성취동기, 교사관계 만족도, 자이존중감을 높임으로써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소재한 다문화 청소년 관련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학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민경과 김경희(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적응은 재정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과 같은 요인들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재정자본과 인적자본이 일반가정에 비해 부족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있어서 가족의 사회자본은 특히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Coleman(1988)이 강조하였듯이 부모가 가진 재정자본이나 인적자본의 양과 상관없이 사회자본은 부모가 자녀



의 성장·발달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자녀의 교육적 성과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 관련 연구들은 가족의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와의 관계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비단 양육태도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이나 대화시간, 자녀의 성적이나 진로를 위한 활동 등 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주로 외국인어머니와 한국인아버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관련 변수는 부와 모 각각으로 구분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 관련 요인을 재정자본(가구소득), 인적자본(부모의 학력), 사회자본(자녀와의 활동, 대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의 성적 관련 활동, 어머니의 학교 활동 참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진로 관련 행위)으로 구체화하여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적응을 위해 부모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

성취동기는 자신의 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여 우수한 수준에 이르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Hyde & Kling, 2001).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도적적이고 책임감이 높으며 장기적인 인목을 가지고 과업을 이루고자 하는 반면(McClelland, 1963),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크며 과업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낸다(Mehrabian, 1969). 따라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성취동기가 낮다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지만, 능력이나 가진 자원이 다소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성취동기가 높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이래혁·장혜림, 2018). 이처럼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성취동기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박명희, 2017; 이형하, 2020).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박명희(2017)의 연구에서는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 부모가 감독적 양육태도를 취할수록 자녀의 성취동기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와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로 측정된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형하(2020)의 연구에서도 성취동기는 학업적응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이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이 향상됨으로써 학업적응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 관련 요인들이 성취동기를 매개로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 관련 요인들과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부모와 관련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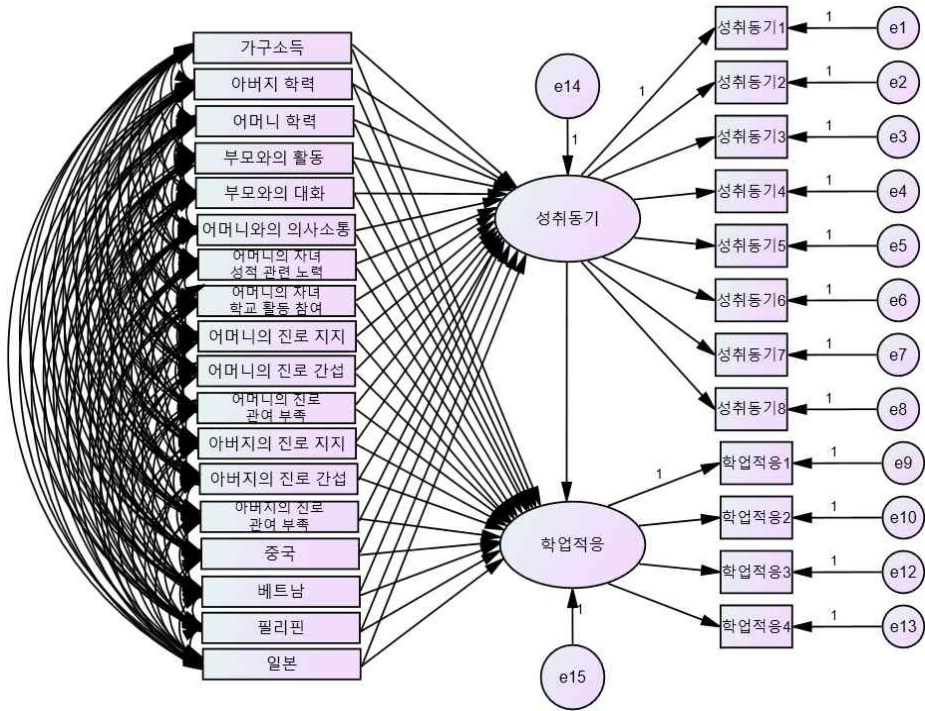
### Ⅲ. 연구방법

#### 1. 조사자료와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의 7차 연도(2017) 학생의 자료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MAPS는 2011년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을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추출하여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를 포함한 총 1,625가구를 조사하였으며, 동일한 패널을 2017년까지 매년 조사하였다. 7차 자료의 원표본 유지는 1,251가구(청소년 1,260명, 학부모 1,227명)이며, 본 연구는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하였고, 한국인아버지와 외국인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1,0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관련 요인,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 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학업적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성취동기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외국인어머니의 출신국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3. 변수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적응은 김정남(2013)의 학교적응척도 중 학업 영역에서 발췌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매개변수인 성취동기는 Yu와 Yang(1994)이 사용한 성취동기 척도를 발췌하여 이를 수정·보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 구성과 측정 방식은 <표 1>과 같다.

<표 1> 종속변수와 매개변수의 하위문항 구성

변수	측정문항	측정방식 / 문항간 신뢰도
학업적응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한다.	전혀 그렇지 않음(1), 그렇지 않은 편임(2), 중간임(3), 그런 편임(4), 매우 그러함(5)  ( $\alpha=0.866$ )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듣는다.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선생님이 내주신 어려운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변수	측정문항	측정방식 /문항간 신뢰도
성취동기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전혀 그렇지 않음(1), 그렇지 않은 편임(2), 그런 편임(3), 매우 그러함(4)  ( $\alpha=0.873$ )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나는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나 스스로 학습목표를 결정한다.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다.	
	나는 가족이나 주위사람의 기대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부모 관련 요인들은 Coleman(1988)이 제시한 재정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재정자본으로서 가구소득을, 인적자본으로서 부와 모의 학력을, 사회자본으로서 부모와의 활동·대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의 성적 관여, 어머니의 학교활동 참여, 어머니의 진로 지지·진로 간섭·진로 관여 부족, 아버지의 진로 지지·진로 간섭·진로 관여 부족 등을 설정하였다. 각 독립변수는 측정문항들을 평균한 값을 변수값으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서 어머니의 출신국을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들의 구성 및 측정방식은 <표 2>와 같다.

<표 2> 독립변수의 하위문항 구성

변수	측정문항	측정방식/ 문항간 신뢰도
가구소득	귀댁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얼마나 되십니까?	단위: 만원
아버지 학력	단일문항	중졸이하(1), 고졸(2), 2~3년제 대학(3), 4년제 이상(4), 대학원 졸업(5)
어머니 학력	단일문항	중졸이하(1), 고졸(2), 2~3년제 대학(3), 4년제 이상(4), 대학원 졸업(5)
부모와의 활동	외식하기	전혀 안함(1), 일년에 1-2회(2), 한학기에 1-2회(3), 한달에 1-2회(4), 일주일에 1-2회(5), 일주일에 3회 이상(6)  ( $\alpha=0.75$ )
	연극, 영화, 뮤지컬 등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여행, 등산, 낚시 등	
	운동	

변수	측정문항	측정방식/ 문항간 신뢰도
부모와의 대화	학교생활(친구관계, 선생님과과의 관계 등)	전혀 안함(1), 일년에 1-2회(2), 한학기에 1-2회(3), 한 달에 1-2회(4), 일주일에 1-2회(5), 일주일에 3회 이상(6)
	나의 흥미와 적성	
	나의 미래 직업(꿈, 희망직업)	
	학교 및 학과 선택(대학)	
	삶의 가치관	
	( $\alpha=0.897$ )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어머니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 됨(1), 안 되는 편임(2), 잘 되는 편임(3), 매우 잘 됨(4)
어머니의 자녀 성적 관련 노력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	전혀 하지 않음(1), 별로 하지 않음(2), 어느 정도 함(3), 자주 함(4), 매우 자주 함(5)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본다.	
	학원에 보낸다.	
	개인과외를 시킨다.	
	시험 때가 되면 평소보다 더 공부를 시킨다.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야단을 친다.	
	( $\alpha=0.715$ )	
어머니의 자녀 학교 활동 참여	담임교사 면담	전혀 하지 않음(1), 일년에 1회(2), 일년에 2-3회(3), 일년에 4회 이상(4)
	학부모 회의 참석	
	학부모 교육 참석	
	진로, 진학 상담	
	( $\alpha=0.86$ )	
어머니의 진로 지지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격려해 주신다.	전혀 그렇지 않음(1), 그렇지 않은 편임(2), 그런 편임(3), 매우 그러함(4)
	나에게 가능한 진로들의 선택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진로 분야의 체험기회에 대하여 나에게 말씀해주신다.	
	( $\alpha=0.863$ )	
어머니의 진로 간섭	나의 진로에 대해 너무 많이 간섭하신다.	전혀 그렇지 않음(1), 그렇지 않은 편임(2), 그런 편임(3), 매우 그러함(4)
	나의 진로를 당신의 생각대로 이루려고 하신다.	
	나의 진로를 특정 방향으로 강요하려 하신다.	
	( $\alpha=0.812$ )	
어머니의 진로 관여 부족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전혀 그렇지 않음(1), 그렇지 않은 편임(2), 그런 편임(3), 매우 그러함(4)
	너무 바빠서 나의 진로 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다.	
	( $\alpha=0.68$ )	
아버지의 진로 지지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격려해 주신다.	전혀 그렇지 않음(1), 그렇지 않은 편임(2), 그런 편임(3), 매우 그러함(4)
	나에게 가능한 진로들의 선택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진로 분야의 체험기회에 대하여 나에게 말씀해주신다.	
	( $\alpha=0.881$ )	

변수	측정문항	측정방식/ 문항간 신뢰도
아버지의 진로 간섭	나의 진로에 대해 너무 많이 간섭하신다.	전혀 그렇지 않음(1), 그렇지 않은 편임(2), 그런 편임(3), 매우 그러함(4)
	나의 진로를 당신의 생각대로 이루려고 하신다.	
	나의 진로를 특정 방향으로 강요하려 하신다.	( $\alpha=0.858$ )
아버지의 진로 관여부족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전혀 그렇지 않음(1), 그렇지 않은 편임(2), 그런 편임(3), 매우 그러함(4)
	너무 바빠서서 나의 진로 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다.	
어머니의 출신국	더미변수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관련 요인과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학업적응, 성취동기)의 개념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후 구조회귀모형을 검증함으로써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간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추정량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며, 성취동기가 부모 관련 요인과 학업적응 사이에서 매개하는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한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표준오차값 산출 및 간접효과 검정을 위해 설정한 부트스트래프 샘플수는 1000개이며, 신뢰구간은 90%로 설정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주요변수에 대한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부모 관련 변수,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상관관계와 기술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변수들이 왜도의 절댓값 3이하, 첨도의 절댓값 10이하의 기준에 포함되어 분포의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김수영, 2016). 외국인어머니의 출신국은 중국 274명(26.2%), 베트남 27명(2.6%), 필리핀 281명(26.8%), 일본 421명(40.2%), 태국 44명(4.2%)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수(학업적응, 성취동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관측변수(측정 항목)의 요인적 재량(표준화계수)은 유의수준 0.001 이내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NFI, TLI, CFI)에 근거할 때, 모형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표 4>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 항목	t값	표준화 계수
학업적응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한다.	고정	0.7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듣는다.	22.85***	0.78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4.80***	0.86
	나는 선생님이 내주신 어려운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23.99***	0.82
성취동기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고정	0.68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20.86***	0.73
	나는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22.15***	0.78
	나는 나 스스로 학습목표를 결정한다.	19.28***	0.67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20.88***	0.73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19.43***	0.67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다.	21.07***	0.74
	나는 가족이나 주위사람의 기대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한다.	14.18***	0.48

주1) \*\*\*:  $p < 0.001$

주2) Model Fit Statistics:  $\chi^2 = 603.73 (p < 0.001, df = 53)$ ,  $\chi^2/df = 11.39$ , NFI=0.9, TLI=0.89, CFI=0.91

〈표 3〉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544**	1														
3	.091**	.048	1													
4	.103**	.096**	.126**	1												
5	.087**	.045	.246**	.282**	1											
6	.141**	.105**	.210**	.073*	.185**	1										
7	.200**	.279**	.122**	.073*	.127**	.349**	1									
8	.092**	.065*	.166**	-.007	.004	.023	.071*	1								
9	.086**	.044	.222**	.082**	.124**	.215**	.070*	.055	1							
10	.080**	.084**	.123**	.147**	.134**	.172**	.164**	-.011	.366**	1						
11	.285**	.250**	.060	.105**	.064*	.256**	.363**	.123**	.063*	.161**	1					
12	-.158**	-.124**	-.017	-.069*	-.081**	-.006	-.005	.028	.055	.008	.090**	1				
13	-.212**	-.216**	-.018	-.097**	-.068*	-.152**	-.246**	-.077*	-.021	-.110**	-.388**	.339**	1			
14	.238**	.251**	.111**	.077*	.095**	.254**	.317**	.107**	.078*	.080*	.634**	.103**	-.274**	1		
15	-.139**	-.104**	.003	-.027	-.019	-.023	-.023	-.001	.019	-.030	-.028	.628**	.369**	.124**	1	
16	-.159**	-.156**	-.045	-.046	-.059	-.157**	-.192**	-.013	-.055	-.088**	-.255**	.344**	.638**	-.294**	.379**	1
N	1047	1047	1047	1047	1047	1047	1047	1047	1047	1047	1047	1047	1047	1047	1047	1047
평균	3.45	3.02	274.77	2.45	1.91	2.20	3.77	3.23	2.33	1.51	2.81	1.85	1.80	2.67	1.82	1.89
표준편차	0.77	0.44	117.01	0.88	0.88	0.77	1.19	0.61	0.61	0.54	0.67	0.66	0.67	0.71	0.69	0.71
왜도	-0.38	-0.08	1.60	0.41	1.17	0.55	-0.15	-0.32	0.26	1.02	-0.51	0.56	0.44	-0.48	0.57	0.36
첨도	0.61	1.31	7.77	-0.41	1.32	-0.32	-0.39	0.20	0.25	0.64	0.64	-0.13	-0.34	0.25	-0.17	-0.40

주1) \*\*: p<0.01, \*: p<0.05

주2) 1: 학업적응, 2: 성취동기, 3: 가구소득, 4: 아버지 학력, 5: 어머니 학력, 6: 부모와의 활동, 7: 부모와의 대화, 8: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9: 어머니의 자녀 성적 관련 노력, 10: 어머니의 자녀 학교활동 참여, 11: 어머니의 진로 지지, 12: 어머니의 진로 간섭, 13: 어머니의 진로 관여 부족, 14: 아버지의 진로 지지, 15: 아버지의 진로 간섭, 16: 아버지의 진로 관여 부족



본 연구는 잠재변수의 집중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의 값을 도출하였고, AVE와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잠재변수 학업적응의 CR은 0.89, AVE는 0.66으로 나타났고, 성취동기의 CR은 0.95, AVE는 0.71로 나타나 잠재변수들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잠재변수의 상관관계와 판별타당도는 <표 5>,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집중타당도를 보여주는 AVE 값보다 상관계수의 제곱값(0.3)이 0.2 이상 작게 나왔으므로 잠재변수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표 5〉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학업적응	성취동기
학업적응	1	
성취동기	0.54**	1

주) \*\*:  $p < 0.01$

〈표 6〉 잠재변수의 판별타당도

	학업적응	성취동기
학업적응	AVE: 0.66	
성취동기	상관계수의 제곱: 0.3	AVE: 0.71

### 3. 구조모형의 측정결과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공분산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NFI, TLI, CFI)에 근거할 때, 모형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구조모형 검정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구조모형 검정 결과, Coleman(1988)이 제시한 재정자본, 인적자본에 해당하는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과 관련된 요인에서는 부모와의 대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진로 관련 행위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성취동기는 향상되며, 이는 다시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와 관련되어 하는 행위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임으로써 학업적응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확인되었다. 반면에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에 간섭하는 태도를 취할수록 자녀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이 낮아지며, 자녀의 성취동기를 낮춤으로써 학업적응을 낮추는 간접효과도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 진로 관여 부족은 성취동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취하는 태도는 비록 어머니만큼 중요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아버지의 자녀 진로에 대한 지지적 태도는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임으로써 학업적응을 향상시키는 간접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성취동기가 학업적응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oleman(1988)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가족배정(재정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중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서 사회자본이 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일반가정에 비해 재정자본과 인적자본이 부족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부모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가능성이 큰 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의 교육성과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와의 대화 및 진로에 대한 태도가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육태도, 유대감 등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일정부분 지지한다(박현선, 2016; 임후남, 2020). 또한 부모와의 대화 및 진로 관련 태도가 성취동기를 통하여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성취동기를 높임으로써 학업적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연구 결과들을 일정부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박명희, 2017; 이형하, 2020).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가 취하는 태도, 특히 어머니의 태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어머니의 자녀 진로에 대한 지지적 태도는 자녀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 모두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진로에 대한 간섭이나 관여 부족은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구조모형 검정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구소득	성취동기	0.01		0.01
	학업적응	0.031	0.005	0.037
아버지 학력	성취동기	0.016		0.016
	학업적응	0.029	0.008	0.038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어머니 학력	성취동기	0.027		0.027
	학업적응	0.029	0.014	0.043
부모와의 활동	성취동기	-0.039		-0.039
	학업적응	0.024	-0.021	0.004
부모와의 대화	성취동기	0.214***		0.214***
	학업적응	-0.032	0.113**	0.081*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	성취동기	0.032		0.032
	학업적응	0.04	0.017	0.056
어머니의 자녀 성적 관련 노력	성취동기	0.018		0.018
	학업적응	0.049	0.01	0.059
어머니의 자녀 학교활동 참여	성취동기	0.035		0.035
	학업적응	-0.027	0.018	-0.008
어머니의 진로 지지	성취동기	0.093*		0.093*
	학업적응	0.157***	0.049	0.206**
어머니의 진로 간섭	성취동기	-0.113**		-0.113**
	학업적응	-0.102**	-0.06**	-0.162**
어머니의 진로 관여 부족	성취동기	-0.087*		-0.087*
	학업적응	-0.007	-0.046	-0.053
아버지의 진로 지지	성취동기	0.148***		0.148***
	학업적응	0.015	0.078**	0.093*
아버지의 진로 간섭	성취동기	-0.054		-0.054
	학업적응	-0.032	-0.028	-0.06
아버지의 진로 관여 부족	성취동기	0.049		0.049
	학업적응	0.015	0.026	0.041
중국	성취동기	-0.091		-0.091
	학업적응	0.086	-0.048	0.038
베트남	성취동기	-0.028		-0.028
	학업적응	0.052	-0.015	0.037
필리핀	성취동기	0.012		0.012
	학업적응	0.067	0.007	0.073
일본	성취동기	-0.133		-0.133
	학업적응	0.059	-0.07	-0.011
성취동기	학업적응	0.528***		0.528***

주1) \*\*\*:  $p < 0.001$ , \*\*:  $p < 0.01$ , \*:  $p < 0.05$

주2) Model Fit Statistics:  $\chi^2 = 828.12 (p < 0.001, df = 233)$ ,  $\chi^2/df = 3.55$ , NFI = 0.93, TLI = 0.91, CFI = 0.95

주3) 어머니의 출신국 기준변수: 태국

## V.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 관련 요인들과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자본, 인적자본에 해당하는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자본과 관련된 요인 중 부모와의 대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진로 관련 행위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성취동기는 향상되며, 이는 다시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에 간섭하는 태도를 취할수록 자녀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 진로 관여 부족은 성취동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녀 진로에 대한 지지적 태도는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임으로써 학업적응을 향상시키는 간접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녀의 성취동기는 학업적응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자녀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있어서 중요함을 시사한다. 고등학생 시기는 청소년기 후기로서 성인의 독립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 청소년에게 부모의 공감과 조언이 많이 필요하며, 부모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은 과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고, 이는 그들의 학업적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정 실태조사(최윤정 외, 2019)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초·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와 하루에 30분 미만으로 대화하는 비율이 22%, 아버지와 하루에 30분 미만으로 대화하는 비율이 39.5%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시기는 입시준비로 인해 학업량이 많아 부모와 자녀의 대화시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다문화가정의 특성 상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대화를 통해 소통과 공감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할수록 외국인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신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측면에서

도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언어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언어의 문제로 외국인어머니와 대화가 부족할 경우, 아버지가 자녀와 더욱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자녀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을 고양시킬 수 있음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겠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의 진로에 대하여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자녀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나타났다. 고등학생 시기에 성인기 삶의 방향을 정하는 진로가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자녀의 진로에 대한 지지적 태도, 즉, 자녀가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주고, 자녀에게 가능한 진로들의 선택에 대해 조언해주며, 진로 분야의 체험기회에 대해 알려주는 자세를 가질 것을 교육 및 권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어머니의 진로 지지는 학업적응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아버지의 진로 지지는 성취동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성취동기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학업적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동기가 낮아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가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자녀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개입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특정 진로를 강요하는 등 간섭하는 것은 자녀의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어머니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진로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본국 문화적 사고와 지식에 기반 하여 자녀의 진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어머니가 자녀의 진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진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인아버지와 외국인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이 고등학생이지만, 샘플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패널데이터로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시작하여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진학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 2, 3 학년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업적응을 분석해볼 것을 제언한다.

외국인 부모로 구성된 가정의 청소년이나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인아버지와 외국인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과 이질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그들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친부모와 함께 살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한국 학교에서 학업과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외국인 부모로 구성된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도 언어와 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이들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체류불안정성을 가지며 이는 이들의 학업이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성취동기를 낮추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나 외국인 부모로 구성된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교적응에 실패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비행에 빠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승미 외, 2017).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적 배경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외국인 부모로 구성된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을 분석해볼 것을 제언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7). 경제 사회·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9a).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기획 보장과.
- 교육부(2019b). 2019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세종: 교육안전 정보국 교육통계과.
- 구인회·김정은(2015).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42(3), 27-49.
- 김민경·김희영(2015).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 대처전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0(2), 367-385.
- 김수영(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정남(2013).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교적응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497-517.
- 김현주·이병훈(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 도금혜(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의사소통 유형 및 아동의 성취동기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4), 139-155.
- 문은식·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박명희(2017).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10(4), 27-54.
- 박희훈·오성배(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35-57.
- 배경희·이수천(2014). 개인·친구·부모·학교요인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7(0), 219-246.
- 심우엽(2009). 다문화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4), 27-47.
- 안선정·이현철·임지영(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오승환(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1-21.
-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이규미(2004). 중·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부적응 행동지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0), 227-241.

- 이규미·김명식(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래혁·장혜립(2018).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행복감의 매개효과-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6(4), 17-26.
- 이승미·이혜웅·이화용(2017).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이옥주(200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77-85.
- 이운경·도현심(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3), 43-59.
- 이인정·최해경(200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파주: 나남출판.
- 이중섭·이용교(2009).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26, 159-192.
- 이형하(2020).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25(4), 197-205.
- 이혜숙(2016).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임후남(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2), 433-448.
- 전경숙(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가출경험 학업 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정승현·심미영(2014). 청소년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4(9), 275-284.
- 정택용(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8), 253-279.
- 주동범(2009).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2), 25-43.
- 차상숙(2003). 초등부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가족기능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김이선·선보영·동제연·정해숙·양계민·이은아·황정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탁과제.
- 최지원·박영숙(2011).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MMPI-A 특성 및 학교생활적응 수준. 청소년학연구, 18(9), 265-284.
- 최충옥·모경환·김연권·박성(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파주: 양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 현정미·신효식·이선정(2014). 남녀 청소년의 가족배경변인, 자아존중감 및 가족건강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3), 1-15.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rosnoe, R. & Elder, G. H. (2004). Family dynamics, supportive relationships, and educational resilienc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25(5), 22-34.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yde, J. S., & Kling, H. K. (2001). Women, motivation, and achievemen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5, 364-378.
- Liebkind, K, Jasinskaja-Lahti, I., & Solheim, E. (2004). "Cultural identity,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arental support as determinants of immigrants' school adjustments: Vietnamese youth in Finland." *Journal of Adolescence Research*, 19(6), 645-656.
- McClelland, D. C. (1963). Motivational patterns in Southeast Asi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hinese case. *Journal of Social Issues*, 19(1), 6-19.
- Mehrabian, A. (1969). Measures of achieving tendenc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9, 445-451.
- Ployhart, R. E. & Bliese, P. D. (2006). Individual adaptability theory: Conceptualizing the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daptability. In Burke, C. S., Pierce, L. G. & Salas, E. (Eds.), *Understanding adaptability: A prerequisite for effective performance within complex environments* (pp.3-39). Bingley: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Super, D. E., Osborne, W. L., Walsh, D. J., Brown, S. D. & Niles, S. G. (1992). Developmental career assessment and counseling: The C-DAC model.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1), 74-80.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related Factors,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Adaptation of High School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Yu, Seunghee

This study analyzed how parent-related factors affected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adaptation of high school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ata were collected from 1,047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were born in South Korea, using the 7th wave (2017)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For the analysi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As a result, the more conversation parents and children had, the higher achievement motivation was, and it affected learning adaptation positively. Mother's supportive attitude to children's career path raised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adaptation, whereas their interference in the children's career path lowered them. Also, lack of mother's involvement in children's career path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achievement motivation. Father's supportive attitude to children's career path affected learning adaptation positively by increasing their achievement motivation.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had direct and positive effects on learning adapt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recommended practical improvements to increase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Adolescents, Parents, Motivation, Learning

논문 투고일	2020. 09. 24
논문 심사일	2020. 11. 05
게재 확정일	2020. 11. 18

#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신혜숙 · 박주형\*

## 국문초록

본 연구는 OECD TALIS 2018 초등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관련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도출하여 교사의 입직 이전 특성과 직무 관련 경험, 학교특성 등으로 유형화하고,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문화 교원양성교육 경험, 다문화 교육관련 교원연수 경험, 다문화 교수법의 적용 등이었다. 이 외에도 교사의 성별, 교직경력, 교직선택동기, 수업분위기, 교사협력 등도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교원양성과정에 다문화 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둘째,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관련 교원 연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학교 차원에서 글로벌 이슈를 포함하는 다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교수효능감, 다문화 교원양성교육, 다문화 교사연수, 다문화 교육과정, TALIS 2018

\* 제1저자,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I. 서론

전세계적으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와 문화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의 문화적 다양성을 학교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및 수업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다(OECD, 201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특성과 교육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들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일반학생과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양계민·정진경, 2008; 차윤경, 2014).

다문화학생의 증가와 이에 따른 학교교육의 개선 필요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교육적 관심사이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교육부, 2020), 2016년 전체 학생 중 0.86%(55,780명)를 차지하던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2019년 2.51%(137,225명)로 3년 만에 크게 증가하였다. 그 중 초등학교생인 다문화학생의 수는 10만 여명으로 전체 학생비율의 76%에 달한다. 따라서 다문화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초등학교생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다문화 학생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매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교육부, 2020). 지난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구하라·모경환, 2019).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교문화를 다문화 수용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는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일반학생이 다문화 환경에서 다문화학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환경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학교 외에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이 다양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정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 등이 그 예시이다(교육부, 2020).

이러한 대책 중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은 교사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최충옥·모경환, 2007; Gay, 2010). 이는 다문화에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일반 학생의 다문화 환경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교사는 다문화 학생이 겪는 학교 부적응 문제나 집단 따돌림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실에서 다문화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학급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교사의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환경에서 수업을 얼마나 잘 진행할 수 있는가이다(최충옥·모경환, 2007). 학생들의 문화적 환경이 이질적인 다문화 환경에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학급의 학생의 학력격차가 심하거나 학생들의 배경이 다양한 경우,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박철휘·박주형·김왕준, 2016). 최근 변화되는 수업의 형태가 강의식과 같은 일방향적인 것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간, 그리고 학생과 학생간 상호작용과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질적인 구성은 수업의 진행에 더욱 큰 장애요인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적 교육환경에서 교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신감인 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적 효능감(최충옥·모경환, 2007)이라고도 불리는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방식의 적용을 통해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도하는 자신감을 의미한다(최충옥·모경환, 2007).

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대한 현실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되어 왔다. 초창기 연구라 할 수 있는 최충옥과 모경환(2007)의 연구는 다문화적 효능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옥장흠(2009)은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대한 교사의 하위집단별 분석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유아교사(김혜진 외, 2014), 음악교사(신혜경, 2019), 초등교사(이기용·강경구, 2019)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교사집단별로 진행한 세 연구들은 모두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정한 잠재변수(다문화 감수성, 신념, 재도, 인식, 역량 등)와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관련된 교육맥락변수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관련 영향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2011년 이후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현황이나 인식을 탐색하거나, 교사 개인의 특

성 등 일부 제한적인 변수에 대한 영향요인의 탐색에 그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사효능감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을 넘어 학교수준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교사협력 학교풍토(구하라·김두섭, 2018), 교원양성기관의 다문화교육(구하라, 모경환, 2019) 그리고 학교장의 문화감응적 교수리더십(송효준 외, 2019)을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초기 연구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연구 중 구하라와 김두섭(2018)의 연구나 송효준 외(2019) 연구의 경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진다. 이 두 연구는 다문화 중점학교 자료에 기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다른 일반학교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반면 구하라와 모경환(2019)의 연구는 대규모 연구자료인 OECD TALIS 2018 자료를 활용하여 교원양성기관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TALIS 2018 자료에 포함된 다양한 교사 차원 및 학교 차원의 영향요인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TALIS 2018 조사의 초등교사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관련 요인을 다양하게 추출하여 교사의 개인 특성과 교직 입직 이전의 교육경험, 교직 경험, 그리고 관련 학교특성으로 유형화하고,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예비교사의 교육 및 선발 단계, 교직 수행 중의 전문성 향상 단계,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학교교육의 초기단계에서의 적응이 이후의 적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오정숙, 2019).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개념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다문화 학생이 포함된 교실에서 수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옥장흠, 2009; 최충옥 · 모경환, 2007)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자기 효능감은 “교사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혹은 신념”(이동엽 외, 2019: 38)을 의미하며, 이는 효과적인 수업을 예측하는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교사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는 교수 학습 능력, 학생 생활 지도 능력, 학급 경영 능력으로 나뉘는데 이를 비추어 생각하면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다문화 학생이 포함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문화 교수효능감을 갖춘 교사는 개별학생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수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최성보 · 김영학,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Gay(2010)가 학생들의 문화배경과 지식을 교실 수업에서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수업이라고 정의한 문화적합 수업(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과 유사성을 가진다.

문화적합 수업은 높은 기대(high expectations) 문화 역량(cultural competencies), 비판적 의식(critical consciousness)으로 구성된다(Gay, 2010). 교사가 수업 중 높은 기대를 보여준다는 것은 학생들이 동료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교실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역량을 갖춘 교사는 학생들의 지역사회와 가정에서의 삶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합 수업을 하는 교사는 교실에서 사회 정의나 인종불평등의 이슈를 다룸으로써 학생의 비판적 의식을 높여 주는 교사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Byrd, 2016)에 의하면 학생들이 인식한 문화적합 수업 중 문화 역량을 강조한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역사 과목에 대한 문화적합 수업 역시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Martell, 2013). 또한 문화적합 수업은 학생들의 긍정적 행동과 연관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Larson, et al., 2018).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다문화교육 실체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성은 · 방은령, 2014).

최근 OECD에서 TALIS 2018 조사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다문화 환경에서의 수업’이라는 영역 아래 교사의 다문화 수업 경험이나 다문화 교수효능감, 그리고 학교의 다문화행사 수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이동엽 외, 2019). 특히 교사들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 환경에서의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문항을 포함하였는데, ‘다문화 학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한다’, ‘교수법을 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적합하게 맞춘다’, ‘이민 배경이 있는 학

생과 없는 학생들 간 함께 협력하는지를 확인한다', '학생들 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학생들 간 다른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한다' 등이 그것이다.

## 2.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잠재적 구조를 탐색하는 연구(김혜진 외, 2014; 이기용·강경구, 2019)와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구하라·김두섭, 2018; 구하라·모경환, 2019; 송효준 외, 2019; 최성보·김영학, 2014)가 있다. 이 중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본 연구의 모형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먼저,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대한 학교장 요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송효준 외, 2019; 최성보·김영학, 2014). 최성보와 김영학(2014)의 연구에서는 초등교사가 지각한 학교장의 다문화 교육 인식(교육환경, 교사역할, 교사교육, 교육과정)이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통제변수로 교사의 성별, 경력, 교육수준, 연수경험, 지도경험, 학년군으로 포함한 바 있다. 그리고 송효준 외(2019)의 연구에서는 학교장의 문화감응적 교수리더십과 교사의 다문화적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모형에서 학교수준 변수로 전문적 협력문화, 이주배경 학생 비율, 학교급, 설립유형, 학교의 사회경제적 수준 그리고 교사수준으로 전문성개발 참여정도, 성별, 이주배경 학생 지도경험, 교직경력, 학력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교사교육과 관련하여 예비교원 단계에서의 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구하라와 모경환(2019)는 교원양성기관에서의 다문화 관련 교육의 포함 여부가 다문화적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성별, 교직경력, 최종학력, 주당 수업시간, 교사효능감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협력에 초점을 두어 다문화적 교사효능감과 관계의 관계를 탐색한 논문(구하라·김두섭, 2018)에서는 교사수준 변수로 성별, 교직경력, 최종학력, 다문화학생 교수경험, 다문화교육 교사연수 이수시간 그리고 학교수준으로는 교사협력 학교풍토, 사회경제적 지위, 다문화학생 비율, 설립유형, 학생-교사비율을 포함하였다.

이외, 다문화 교수효능감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장선희, 2020)에서 활용된 요인들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다문화 교수효능감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은 변수들로는 교직선택동기, 학급 수업분위기, 학교 소재지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모형에서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변수들은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OECD TALIS 2018 질문들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다. 교사 설문 중 학교에서 수행되는 내용으로써 '전 교육과정에 걸쳐 글로벌 이슈를 통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적용한다'는 질문과 학교장에 대한 질문으로 다문화 학교풍토 등은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연구모형과 연구결과 및 OECD TALIS 2018 자료가 제공하는 다문화 관련 문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 다음의 변수들을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우선 교사 특성과 입직 이전 교육경험 영역에서는 성별, 최종학력, 교직경력, 교직선택동기(사회적 유용성), 다문화 교원양성 교육경험을 포함하였으며, 교사 직무 경험 영역에서는 수업분위기, 다문화화관련 전문성 연수 경험, 교사협력을 포함하였고, 학교특성으로 다문화 교수법적용, 교장리더십, 다문화 학교풍토, 학교 소재지를 포함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교사 및 학교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OECD 교원 및 교직원환경 국제비교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이하 TALIS)의 2018년도 한국 초등교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8년에 처음 시작된 TALIS는 교원의 배경정보와 직무 만족도, 교직 동기, 교원양성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교원의 수업 실천, 학교풍토, 교장의 리더십 등 교원 관련 주요 배경과 교육실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참여국의 교원 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동엽 외, 2019; OECD, 2019).

특히 2018년에는 다양성 부분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어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교육 실천과 정책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8년 조사부터 초등자료가 추가적으로 수집됨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관련 교육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전체 교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단위 확률표본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일반학교 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서 182개 초등학교의 총 3,207명의 교사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다문화 교수효능감 관련 정보가 존재하는 교사 자료로 한정하였을 때, 181개교의 1,323명의 교사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 2. 분석변수

### 1) 종속변수: 다문화 교수효능감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다문화 학생이 포함된 교실에서 수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옥장흠, 2009; 최충욱·모경환, 2007)으로, TALIS 2018 교사설문의 '다문화 환경에서의 수업' 영역에서 '45. 다문화 학습에서, 선생님께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어느 정도 수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문항(다문화 학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한다, 교수법을 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적합하게 맞춘다, 이민 배경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들 간 함께 협력하는지를 확인한다, 학생들 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학생들 간 다른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한다)을 활용하였다.

본 문항의 5개 세부문항에 4단 척도(1=전혀 할 수 없다, 2=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 3=상당히 잘 할 수 있다, 4= 아주 잘 할 수 있다)의 평균을 다문화 교수효능감으로 활용하였으며, 신뢰도는 .913이다. 종속변수의 문항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1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교사 개인 특성 및 교직 입직 이전 교육 경험, 교사 직무경험, 그리고 학교 특성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교사의 개인 특성 및 입직 이전 교육경험에는 교사성별, 최종학력, 교직경력, 교직선택동기, 그리고 다문화 관련 교원양성교육경험이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교사가 1, 여교사가 0으로 구분되었다. 최종학력은 교사설문 3번 문항을 바탕으로 전문대학과 대학은 0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1로 코딩하여 석사 학위 여부에 대한 변수로 변환하였다. 교직경력은 교사로 근무한 총 연수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1에서 6점 사이로 변환하였다. 즉, 근무연수가 초임 이후부터 5년 미만은 1, 6년 이상 10년 미만은 2,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4,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5, 25년 이상은 6의 값을 부여하였다. 교직선택동기는 교사설문 7번 문항의 하위 문항 중 사회적 유용성과 관

련되는 3개의 문항(교수-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발전에 기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삶 개선에 기여', 그리고 '사회기여')의 평균으로 신뢰도는 .876이다. 다문화 관련 교원양성교육경험은 교원교육 당시 '다문화 또는 다언어 환경에서의 교수법'이 교육내용에 포함된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둘째, 교사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수업분위기와 다문화연수경험, 교사협력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업분위기는 학급분위기와 관련한 3개의 문항('수업 시작시 학생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이 학급은 매우 시끄럽다')을 역코딩하여 평균함으로써 긍정적인 수업분위기를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신뢰도는 .869이다. 다문화연수경험은 TALIS 2018 교사설문지의 전문성 영역에서 최근 12개월 동안 참여한 전문성 개발 활동 중 '다문화 또는 다언어 환경에서의 수업'에 대한 주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교사협력은 교사협력의 형태들로 간주할 수 있는 8가지 활동('한 학급에서 한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수업하기',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 '다른 학습 및 학년 간의 공동 활동에 참여하기', '수업교재를 동료들과 교환', '특정 학생들의 학습발달에 관해 토의하기', '학생들의 향상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 평가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 학교의 다른 교사들과 협력하기', '팀 킴퍼런스에 참여하기', '협력적 전문 학습활동에 참여하기')의 평균값이며, 신뢰도는 .784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특성과 관련하여 다문화교수법적용, 교장리더십과 다문화학교풍토, 도시규모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다문화교수법적용은 소속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에 걸쳐 글로벌 이슈를 통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이다. 교장리더십은 교장설문지 26번 문항의 11개 하위문항의 평균값으로, 학교 내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서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한 배분 및 참여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도는 .876이다. 다문화 학교풍토는 교장설문지의 40번 문항의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소속 학교 교사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신뢰도는 .907이다. 도시규모는 학교의 소재지 중 농어촌과 면, 군을 읍면지역으로 통합하여 대도시 중소도시와 함께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후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모형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변수의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변수 설명

변수		변수 설명 및 측정방법	신뢰도
종속 변수	다문화 교수효능감	다문화 상황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관련된 5개 문항의 평균값	.913
	성별	남교사(1), 여교사(0)	NA
	최종학력	석사 이상 하위 소지(1), 그 외=(0)	NA
교사 특성 및 입직 이전 경험	교직경력	초임~5년 미만(1), 5년 이상~10년 미만(2), 10년 이상~15년 미만(3), 15년 이상~20년 미만(4), 20년 이상~25년 미만(5), 25년 이상(6)	NA
	교직 선택동기	교직선택의 사회적 유용성 3문항(학생들 발전에 기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삶 개선에 기여, 사회기여)에 대한 평균값	.876
	다문화 교원양성	교원양성교육 중 다문화 또는 다언어 환경에서의 교수법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NA
	수업분위기	학급에서의 수업과 관련된 3문항의 평균값	.869
직무 경험	다문화연수 경험	다문화 또는 다언어 환경에서의 수업과 관련한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여부	NA
	교사협력	교사협력 관련 8개 세부문항의 평균값	.784
학교 특성	다문화 교수법적용	소속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에 걸쳐 글로벌 이슈를 통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NA
	교장리더십	학교 내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서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한 부여방법에 대한 11개 문항의 평균값	.876
	다문화 학교풍토	교장이 인식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동의 수준	.907
	도시규모	학교가 위치한 소재지(농어촌, 면, 군, 대도시, 중소도시) 중 농어촌과 면, 군을 통합하여 3개 지역으로 구분함	NA

### 3.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변수의 기술통계값은 <표 2>와 같다. 다문화 학급에서 수업을 한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2.63으로,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다(2점)’와 ‘상당히 잘 할 수 있다(3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급에서 수업을 한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중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특성 및 입직 이전 교육경험을 보면, 연구대상 중에 남교사의 비율은 21%이고, 전체의 36% 교사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의 평균은 3과 4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는 각각 ‘10년 이상 15년 미만’과 ‘15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한

다. 교직선택동기를 보면 사회적 유용성을 목적으로 교직에 입직한 정도는 3.21로서 다소 고려함(3점)과 많이 고려함(4점) 사이였다. 전체 교사 중 교원양성 교육 단계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의 비율은 46%였다.

직무경험 요인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응답한 수업분위기의 평균은 2.84점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중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사의 절반 정도인 47%가 다문화 교육 관련 전문성 계발 연수경험이 있었고, 교사협력 정도는 3.4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학교특성과 관련하여, 소속 학교에서 다문화 교수법을 적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비율은 56%였다. 학교업무 전반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교장리더십 수준과 다문화 학교풍토는 각각 3.60과 3.71로 높은 편이었다. 전체 47%와 38%의 교사가 각각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표 2〉 분석변수의 기술통계값

	변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 변수	다문화 교수효능감	1539	1.00	4.00	2.63	0.66
교사 특성 및 입직 이전 경험	성별	1540	0.00	1.00	0.21	0.40
	최종학력	1538	0.00	1.00	0.36	0.48
	교직경력	1540	1.00	6.00	3.60	1.60
	교직 선택동기	1528	1.00	4.00	3.21	0.72
	다문화 교원양성경험	1531	0.00	1.00	0.46	0.50
직무 경험	수업분위기	1399	1.00	4.00	2.84	0.63
	다문화 연수경험	1526	0.00	1.00	0.47	0.50
	교사협력	1533	1.00	6.00	3.40	0.91
학교 특성	다문화 교수법적용	1302	0.00	1.00	0.56	0.50
	교장리더십	1335	2.73	4.00	3.60	0.36
	다문화 학교풍토	1329	2.00	4.00	3.71	0.44
	대도시	1337	0.00	1.00	0.47	0.50
	중소도시	1337	0.00	1.00	0.38	0.49

## 4.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교사의 특성 및 입직 전 교육경험, 교직 경험, 그리고 소속된 학교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up>1)</sup>. 이 중 중다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Y_i = & b_0 + b_1(\text{성별})_i + b_2(\text{최종학력})_i + b_3(\text{교직경력})_i + b_4(\text{교직선택동기})_i \\
 & + b_5(\text{다문화 교원양성경험})_i + b_6(\text{수업분위기})_{ij} + b_7(\text{다문화 연수경험})_i \\
 & + b_8(\text{교사협력})_i + b_9(\text{다문화 교수법 적용})_i + b_{10}(\text{교장리더십})_i \\
 & + b_{11}(\text{다문화 학교풍토})_i + b_{12}(\text{대도시})_i + b_{13}(\text{중소도시})_i + e_i
 \end{aligned}$$

위 모형에서  $Y_i$ 는 종속변수로서 교사  $i$ 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이다.  $b_0$ 은 절편이고,  $b_k$  ( $k = 1, \dots, 13$ )는 13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로서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때 독립변수가 더미변수인 경우, 이에 대응하는 회귀계수는 두 집단간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나타낸다. 독립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 이때 회귀계수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기대되는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증가분이다.

## IV. 연구결과

### 1.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분석변수간의 상관관계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특성과 교직경험, 학교환경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최종학력과 교직경력, 교직선택동기, 다문화 교원양성 교육경험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즉,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

1) TALIS 2018은 학교단위로 표집하여 학교당 2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보통 다층모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체 설문 응답 교사 중 다문화 학급에서의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므로 교사가 학교에 내재된 원래의 다층구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층모형이 아닌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지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사회적 유용성을 목표로 교직을 선택한 정도가 높을수록, 교원양성교육 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의 직무경험과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업분위기와 다문화 연수경험, 교사협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즉, 전반적인 수업분위기가 좋을수록, 다문화 관련 전문성 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반적인 학교 내 교사 협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학교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와 관련하여 학교 차원의 다문화교수법 적용과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즉 학교차원에서 글로벌 이슈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교사들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은 편이었다. 그 외에 교장리더십이나 다문화 학교풍토, 학교소재지는 교사들의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표 3〉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관련변수와의 관계

구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040	.081**	.131**	.218**	.156**	.186**	.167**	.270**	.202**	.010	.000	-.018	.020
(2)	1	.089**	-.157**	-.033	.073**	-.041	.069**	-.100**	.014	.037	.005	-.142**	.008
(3)		1	.259**	.031	-.025	.042	.074**	.045	.086**	.022	.031	.035	-.061*
(4)			1	.039	-.172**	.090**	.038	.117**	.122**	-.024	.002	.171**	-.105**
(5)				1	.155**	.108**	.102**	.204**	.113**	.035	.013	.001	.014
(6)					1	.016	.168**	.114**	.182**	.037	.035	-.027	-.009
(7)						1	.048	.073**	.031	.000	-.031	-.042	.011
(8)							1	.131**	.186**	.139**	.058*	-.013	-.048
(9)								1	.197**	-.012	-.044	.039	.062*
(10)									1	.061*	.046	.023	-.028
(11)										1	.428**	.009	-.064*
(12)											1	.158**	-.203**
(13)												1	-.736**

\* $p < .05$ , \*\* $p < .01$ , \*\*\* $p < .001$

(1) 다문화 교수효능감, (2) 성별, (3) 최종학력, (4) 교직경력, (5) 교직선택동기, (6) 다문화 교원양성경험, (7) 수업분위기, (8) 다문화연수 경험, (9) 교사협력, (10) 다문화 교수법적용, (11) 교장리더십, (12) 다문화 학교풍토, (13) 대도시, (14) 중소도시

## 2.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때 교사특성 및 교직 이전 교육경험, 교사 직무 경험, 학교 특성과 관련한 변수들의 영향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교사 특성 및 입직 이전 교육경험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과 교직경력, 교직선택 동기, 다문화 교원양성 교육경험이 교사들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하여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았고, 교직경력이 높아질수록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았다. 또한 사회적 유용성을 목표로 교직을 선택한 정도가 높을수록, 교원양성교육 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교사의 직무경험과 관련하여, 수업분위기와 다문화 연수경험, 교사협력이 교사들의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즉 수업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재직 중 다문화 관련 교원 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았다. 그리고 교사들간의 협력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들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은 편이었다.

<표 4>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영향 요인 탐색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수	계수	SE	베타	t값	p값
	절편	1.12	0.25		4.49	.000
교사 특성 및 입직 이전 경험	성별	0.10	0.05	0.06	2.10	.036
	최종학력	0.05	0.04	0.03	1.12	.262
	교직경력	0.04	0.01	0.11	3.36	.001
	교직 선택동기	0.11	0.03	0.12	4.00	.000
	다문화 교원양성경험	0.13	0.04	0.10	3.27	.001
직무 경험	수업분위기	0.15	0.03	0.14	4.77	.000
	다문화 연수경험	0.12	0.04	0.09	3.00	.003
	교사협력	0.14	0.02	0.20	6.47	.000
학교 특성	다문화 교수법적용	0.10	0.04	0.08	2.66	.008
	교장리더십	-0.04	0.06	-0.02	-0.68	.498
	다문화 학교풍토	0.01	0.05	0.01	0.27	.786
	대도시	-0.05	0.06	-0.04	-0.85	.396
	중소도시	0.00	0.06	0.00	0.01	.988



학교특성과 관련하여 다문화교수법적용이 초등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즉 학교 차원에서 전 교육과정에 걸쳐 글로벌 이슈를 통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교사들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았다. 이외에 교사들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소속 학교의 교장리더십이나 다문화 학교풍토, 학교 소재지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 V. 요약 및 결론

학교 내 다문화 학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언어문제, 학력격차를 해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과 다문화 학생간의 조화로운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문화 관련 교육정책의 집행자로서 교사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이들의 다문화 역량은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오래전부터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학생의 학업적 측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는데(장선희, 2020) 이를 다문화 교육환경에 적용하면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최충욱 · 모경환,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OECD TALIS 2018 초등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선택한 후 이를 교사 특성 및 입직 이전 교육경험, 교사 직무 경험, 학교특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에 포함시킨 후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교사들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4점 척도에서 2.63점으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TALIS 2018 전체 표본 3,155명 중에서 다문화 학급에서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1540(48.00%)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만약 우리나라 전체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수업효능감을 조사한다면 이보다 더 낮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등교사에게 다문화 수업의 진행 또는 참관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 배경특성 및 입직 이전 교육 경험과 다문화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교사에 비하여 남교사가,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용성 관련 교직선택동기

가 높을수록, 교원양성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 중 정책적으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유용성 관련 교직선택동기와 교원양성과정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효과이다. 교사 효능감 연구에서 제시(장선희, 2020)된 바 있는 교직선택동기(사회적 유용성)의 긍정적 효과는 다문화 교수효능감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는 교원 선발 과정에서 교사 지원자의 교직선택동기를 좀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교원양성 과정에서 예비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또한 교원양성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을 수강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다문화 교수효능감을 보인다는 사실은 구하라와 모경환(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교원양성과정에서 다문화교육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 등에서는 학생들에게 다문화 환경을 이해시키고 다문화 환경에서의 수업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문중은·주미경, 2010; 어성연·정진희, 2011)들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교사들의 학교근무 경험과 다문화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학교 수업분위기가 좋을수록, 다문화 관련 전문성 계발 연수 경험이 있을수록, 전반적인 교사들의 협력 정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교사의 전문성 계발 참여정도와 학교의 전문적 협력문화가 다문화적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송효준 외(2019)와 구하라 및 김두섭(2018)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 이 두 연구는 다문화 중점학교 데이터만을 활용하였지만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문화 교수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교사연수와 교사의 협력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교사들에게 다문화 교육 관련 교수법 연수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내 교사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 교수효능감 관련 학교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문화교수법 적용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차원에서 전 교육과정에 걸쳐 글로벌 이슈를 통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적용하는 경우 교사들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교장리더십의 긍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교장리더십 성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송효준 외, 2019)의 결과와 일부 상충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TALIS 2018 조사에서 교장리더십에 대한 정보

가 교장설문지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이 포함되었고 그 결과 변수 자체의 분산이 작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적 환경의 조성이나 학교풍토에 대한 교장 리더십의 영향을 고려해볼 때, 이후 교장의 자기보고식 외에 교사나 학생들의 응답결과에 기반한 교장리더십 정보 수집을 통한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사들의 다문화 교수 효능감이 높았는데, 이러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은 교장의 역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장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는 다문화 관련 일회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20).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구하라·모경환(2019). 교원양성기관 다문화교육의 효과 분석: TALIS 2018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2(3), 91-115.
- 구하라·김두섭(2018). 교사협력 학교풍토가 다문화적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중점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5(2), 343-366.
- 김혜진·김미진·손유진(2014). 유아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 분석: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신념, 다문화교육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4(6), 255-274.
- 문성은·방은령(2014). 유아교사의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교육 실재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285-314.
- 문종은·주미경(2010). 다문화수학교사교육 강의 운영 사례연구: 수학과 예비교사의 다문화적 역량 변화에 대한 효과. *교육과정평가연구*, 13(3), 103-132.
- 박철희·박주형·김왕준(2016).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의 교육현실과 과제: 서울 서남부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9(2), 173-201.
- 송효준·김재현·함승환(2019). 학교장의 문화감응적 교수리더십과 교사의 다문화적 교수효능감: 전문적 협력문화의 매개효과. *교육행정학 연구*, 37(3), 167-192.
- 신혜경(2019). 음악교사의 다문화 교육태도 및 다문화 교수효능감. *미래음악연구*, 4(2), 1-21.
- 양계민·정진경(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어성연·정진희(2011). 교육대학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가족 관련 교양과목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29(1), 61-82.
- 오정숙(2019).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관한 연구: 유, 초, 중등 학교급별 비교. *교육문화연구*, 25(5), 1099-1123.
- 옥장흠(2009).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6(4), 191-221.
- 이기용·강경구(2019).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 역량, 다문화 태도, 다문화 교수효능감 간의 구조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409-428.
- 장선희(2020). 중학교 교사의 효능감 영향 요인 및 잠재프로파일 분석 :TALIS 2018 한국과 일본의 결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차윤경(2014). 선진국의 다문화교육. *교육개발* 2014 Winter.
- 최성보·김영화(2014). 교사가 지각한 학교장의 다문화 교육 인식이 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7(3), 153-169.
- 최충욱·모경환(2007). 경기도 초,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대한 조사 연구. *시민교육*

연구, 39(4), 163-182.

- Byrd, C. M. (2016). Does culturally relevant teaching work? An examination from student perspectives. *SAGE Open*, 6(3), 1-10.
- Gay, G. (2010).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Larson, K. E., Pas, E. T., Bradshaw, C. P., Rosenberg, M. S., & Day-Vines, N. L. (2018). Examining how proactive management and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relate to student behavior: Implications for measurement and practice. *School Psychology Review*, 47(2), 153-166
- Martell, C. C. (2013). Race and histories: Examining culturally relevant teaching in the U.S. history classroom.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41(1), 65-88.
- OECD(2019). TALIS 2018 Results (Volume I): *Teachers and School Leaders as Lifelong Learners*, TALIS, OECD Publishing, Paris.

〈ABSTRACT〉

##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Shin, Hye Sook · Park, Juh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the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using OECD TALIS 2018 elementary data. For this, various variables related to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prior studies, categorized into characteristics of teachers before employment, job-related experiences, and school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ship was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actors influencing the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multicultural teacher training, multicultural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ulticultural curriculum. In addition, teachers' gender, teaching experience, teaching choice motivation, class atmosphere, and teacher cooperation were also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outcome.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curriculum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teacher training course, and multicultural professional development should be provided to teachers, and multicultural curriculum should be operated at the school level.

### Key words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Multicultural Teacher Training, Multicultural Professional Development, Multicultural Curriculum, TALIS 2018

논문 투고일	2020. 10. 18
논문 심사일	2020. 11. 05
게재 확정일	2020. 11. 05

---

신혜숙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teatim02@gmail.com

박주형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 경인교육대학교  
edukorea@ginue.ac.kr

#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현정\*\* · 유두련\*\*\*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90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매개효과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다문화수용성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 다문화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베이비부머가 새롭게 접하게 되는 다문화 사회의 적응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있어서도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주제어** 베이비부머,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상징적 상호작용, 다문화수용성

\* 이 결과물은 2018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제1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가족상담복지학과 강의전담교수

\*\*\* 교신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가족상담복지학과 교수

## I.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베이비부머 집단은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집단으로서, 가구주 연령기준으로 약 712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구의 약 2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경희·이소정·이윤경·김수봉·선우덕·오영희·김경래·박보미·유해영·이은진, 2010).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장년기에서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들 세대는 전통적 가족중심제도에서 성장하였으며,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나타나는 심리적 연대감은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문화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한유화, 2007). 집단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망 안에서 개인의 자기개념을 가지게 되며, 대인관계에서의 관계유지는 자아존중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조공호, 2003).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국인의 자아존중감은 집단주의 문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지경·박수애·이훈구, 1999; 최태을, 2017).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시기를 보냈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노년기의 빈곤층 확대 등의 문제와 함께 개인의 은퇴 이후 준비부족, 노인복지정책 미흡, 노인부양비의 증가, 세대 간 갈등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이해영, 2015).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세계화에 따른 인적교류의 증가와 자본의 이동으로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과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제결혼 건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http://www.kosis.kr>). 한국 사회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이미 다문화사회로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 양상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증감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는 현재 한국의 저출산과 베이비부머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백의 대안으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김현정·유두련, 2020).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지금의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와 다문화사회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다문화인구의 증가로 인한 우리사회의 갈등과 이러한 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적 논의는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김현정, 2019; 안상수·민무숙·김이선·김금미·이명진, 2015; 유두련, 2019; 이태상·김현정, 2019; 이정아, 2016; 황정미, 2010).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에 있는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 성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오성배, 2007).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인구 집단을 차지하고,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의 다문화수용성을 다룬 연구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다양한 외적 요인 즉, 해외여행유무, 해외체류경험, 이주민 접촉빈도, 미디어 노출유무 등과 사회인구학적 배경인 성별, 연령, 종교, 학력, 거주지 등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와 다문화인식 및 개선을 위한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연구(김경근·황여정, 2012; 안상수 외, 2012; 안상수 외, 2015; 이지영, 2013)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수용성의 외적요인과 관련된 연구에 비해 개인의 내적요인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현정, 2019; 이태상·김현정, 2019). 지금까지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내적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가 정체성 또는 민족성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양계민, 2009; 오수웅, 2013; 윤인진·송영호, 2011; 전혜경·김근태, 2012; 최안복·이윤옥, 2010). 이들 연구를 통해 개인이 가진 국가정체성과 민족성에 따라 다른 문화와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타문화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정도는 개개인의 가치관 즉 내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태상·김현정, 2019). 다문화수용성의 내재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초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김인숙·이수진, 2017; 김현정·이태상, 2015)로서 관련 변인의 단편적인 영향력에 관한 설명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인들 간의 매개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김현정·유두련, 2020).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 및 다문화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인구집단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다문화수용성의 내적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인식개선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문화 사회에서 베이비부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우리사회의 다문화적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특별한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예기치 못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서서히 적응해 가며 자신의 조부모 혹은 신세대 조부모, 기존 노년층 또는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며 적응하는 신 노년층으로서 변화를 받아들이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현 상황을 베이비부머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이 혼재하는 상황으로 정의내리며,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베

이비부머 상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김현정·유두련, 2020). 와일리(Wylie, 1979)는 상징적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상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일단 발달된 자아존중감은 인간 관계의 행동에 중요한 동기부여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크로커와 루흐타넨(Crocker & Luhtanen, 1990)은 자아존중감을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개인자아존중감이 개인적인 정보처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집단자아존중감은 집단 간 평가와 비교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며 집단 간에 발생하는 차별과 편견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였다. 특히 노인의 경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다문화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노인의 경우 수직적 개인주의 가치가 높게 나타나 향후 남성노인의 가치특성상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이미란·김선희·배은석, 2016). 자아존중감이란 중요한 타인에 의한 영향으로 형성되는 개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특히 한국인의 자아존중감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대인관계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김지경 외, 1999; 조궁호, 2003), 베이비부머가 새로운 다문화사회 환경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향후 다문화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또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다문화개방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행동적 개방성과 정서적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노미희, 2012)를 참고로 하여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서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과의 관련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새롭게 접하게 되는 다문화 사회의 적응을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향후 다문화사회에 대한 배려 및 공존과 화합을 위한 사회통합에 기여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상징적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들이 현재의 빠른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에 대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채택하였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인간은 그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그 상황을 또는 그 상태를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가며, 그렇게 만들어진 상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며, 공동체로 하여금 이를 수용하고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조적 틀을 제공하게 된다(유계숙 · 최연실 · 성미애, 2003).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인간이 어떠한 사고를 통해서 상징적 세계를 만들어가며, 이렇게 형성된 상징적 세계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행동을 형성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유계숙 외, 2003). 상징적 상호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인 미드(Mead)는 자아의 형성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강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타자의 반응을 접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타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춘기, 2019). 즉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아를 경험하게 된다. 상징적 상호작용에서 자아는 하나의 과정적 현상이며, 개인의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는 일종의 상호작용이며, 이는 의미 있는 상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민춘기, 2019). 인간은 충동이나 자극에 대해 기존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구성하게 된다(김기현, 2018; 재인용). 따라서 고령화 또는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의 역할이나 사회규범 또는 사회적 제도에 대하여서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관점에서 파악해볼 수가 있다. 가령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의 고령화 또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기존의 다른 시대적 변화와 변함없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즉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고령 다문화사회를 살아가고 이끌어갈 베이비부머 삶의 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하는 행동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게 되며, 그 의미를 통해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그 과정에서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게 된다(김정환 · 이선이, 2014). 허터(Hutter, 1985)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이 사회적 다양성에 집중하면서도, 사회계층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그러한 의미 부여와 해석이 사회나 문화와 같은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고령 다문화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방법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민춘기, 2019).

## 2.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표현 방법 또한 다문화수용성 외에 문화적 수용성, 간문화 유능성, 문화간 유능성 혹은 비교문화 유능성, 간문화 적응성 혹은 비교문화 적응성, 다문화인식, 다문화 효능성, 문화간 감수성, 문화간 민감성, 다문화 유능성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김현정, 2019).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 개발연구(민무숙·안상수·김이선·김금미·류정아·조영기, 2010)에서 다문화수용성이란 자신과 타문화·타구성원에 대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서로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박재옥(2013)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이란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조화로운 공존을 형성하려는 태도와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미진(2010)은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에 대하여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행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지적요인이란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편견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며, 정서적 요인이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적 요인이란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지영(2013)은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다른 인종,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집단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베리와 카린(Berry & Kalin, 1995)은 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때 그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이 부재할 경우 타 종족집단이나 타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며, 이로 인하여 그들 전반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 편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안상수 외, 2015). 호프스(Hoopes)는 문화유능성 모델에서 수용성을 문화 간 학습 과정으로 설명하였으며(Hoopes, 1979), 이 모형에서 호프스(Hoopes)는 개인이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때 각 개인의 문화 학습 과정에 따라 특정한 발달단계를 거친다고 가정하고 ‘자민족중심주의’, ‘인식’, ‘이해’, ‘수용·존중’, ‘음미·가치부여’, ‘선택적 채택’, ‘다문화주의’ 등 7개의 단계를 제시하였다(안상수 외, 2015). 이 중에서 4번째 단계인 ‘수용 및 존중’을 통해 다문화수용성 개념을 설명하였다(안상수 외, 2015).

한편 베넷(Bennett, 1993)은 문화 간 감수성 발달모델(DMIS :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베넷은 문화 간 감수성 발달모델(DMIS)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를 경험할 때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적응과정을 통해 타문화가 자신의 일부로 통합되어간다는 문화 간 유능성의 연속적인 발달단계를 제시하였다. 즉 부정/ 방어/최소화/ 수용/적용/통합 이라는 6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가정하였다(Bennett, 1993). 베넷(Bennett, 1993)이 제시한 6개의 문화 간 감수성 발달모델 중에서 ‘수용(acceptance)’은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자신들만이 가진 삶의 방식과 문화적 가치가 세상에서 유일한 선이거나 최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취했으며, 자신이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 문화가 갖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하였다(안상수 외, 2015). 따라서 다문화수용성은 우리 모두가 세계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적 사고로 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 인정 및 평등 등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포괄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 3.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다문화수용성과의 관련성

공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과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Batson & Coke, 1981). 공감능력 연구에서 박지수(2010)는 공감이란 ‘개인이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마치 본인이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과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로저스(Rogers, 1975)는 공감능력이란 타인의 심리상태나 특정 한 감정 그리고 내적인 경험을 마치 본인이 실제 겪은 것처럼 이해하고 그 순간을 함께 느끼며 서로 간에 상호 의사소통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박지수, 2010; 노미희, 2012 재인용). 일반적인 공감 또는 공감능력에 대한 개념을 다문화 사회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에 적용해보면, 공감능력이란 타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여러 문화적 변인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공감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민족과 집단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협력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겠다(박순희·유지형, 2017).

공감능력을 단일 개념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보았던 학자는 Davis(1980)이다. Davis(1980)는 공감이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의 두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위 구성요소 중에서 인지적 요소에는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 정서적 요소에는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을 변별할 수 있는 특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Davis, 1980). 다른 한편으로 공감에는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 및 사회적 요소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박성희, 2004).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공감능력은 타인의 상황을 통한 자신의 정서적 반응으로 보고 자기가 상대방이 처한 조건이나 상황 또는 상태에 대해 이해할 때 그것에 일치 또는 부합하는 정서적 상태이며, 따라서 공감능력은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Hoffman, 1984).

로젠버그(Rosenberg, 1965)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을 특별한 하나의 개체로 여기며 자신이 자기스스로를 존경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로 느끼는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란 하나의 특별한 개체로서 자아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와일리(Wylie, 1979)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 상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인간관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노인의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최문정, 2010) 결과를 살펴보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능력과 타인이 지닌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위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늘 실패를 두려워하고, 타인을 대할 때 필요 이상으로 과한 신경과 의존심을 가지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문정, 2010). 사회정체감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개인적 정체감 즉, 개인자아존중감(personal self-esteem)을 높이고자 하며 또한 집단적 정체감 즉, 집단자아존중감(collective self-esteem)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성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Crocker & Luhtanen, 1990). 개인자아존중감이 자기 자신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 평가라면, 집단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 자체의 중요성이나 그 집단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지경·박수애·이훈구, 1999).

먼저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에 대한 다문화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아동(김경근·황여정, 2012; 김현정·이태상, 2015; 이정아, 2016), 성인(김주찬, 2012; 안범희, 1993; 한준수, 2000), 노인(김현정, 2019; 이미란 외, 2016) 대상의 연구가 있으며 베이비부머대상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간 내면의 긍정적인 감정으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찬, 2012). 김현정·이태상(2015)은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은 다른 내재적 요인에 비해 다른 문화와 타인의 수용에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공감능력은 다양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김민정, 2015)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이타적인 행동인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은 개인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타인에 대한 인식, 태도와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베이비부머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은 다문화사회의 수용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즉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이정아, 2016; 김현정, 2019).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서로 공유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내적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Batson & Coke, 1981). 공감능력은 다른 문화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타문화권 대상자를 대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노미희, 2012). 김현정(2019)의 노인의 다문화수용성 연구에서 노인의 경우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도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외집단에 대해 관용적이며, 수용적인 좋은 전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Berry, 2004). 장은화(2012)도 관련 연구를 통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타민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이태상·김현정, 2019)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대상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어렵고, 더구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자아

존중감은 타인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는 타민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다문화수용성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현정·유두련, 2020).

###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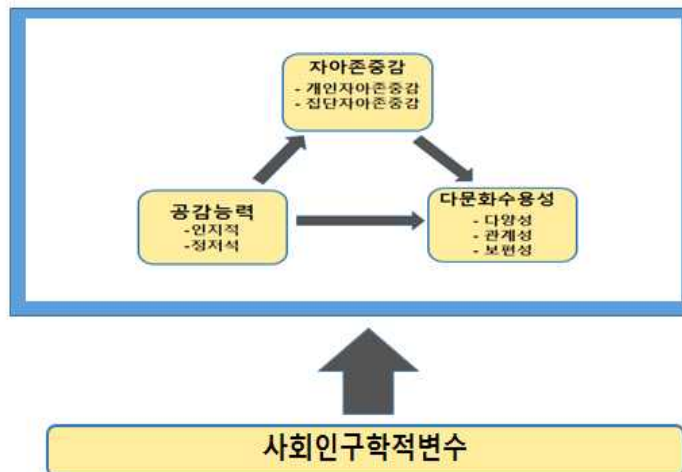
####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고령 다문화사회에서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어떠한가?

##### 2)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인 1955년부터 1963년생이다.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비확률 표본추출 중 임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본 조사 전에 예비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설문 문항에 대한 척도의 신뢰성여부를 검증하였다. 예비조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대구지역의 시니어 가요교실 2곳, 요가교실 2곳에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후 질문 문항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분석 결과 척도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1월 20일에 전문 기관인 「OOO빅데이터 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시에는 대상자가 베이비부머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연구대상자가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할지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연구의 의도를 잘 설명하고 설문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 질문지 답변 중에서 의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연구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설문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주었다. 또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글을 읽을 수 없는 설문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은 전문 설문요원들이 설문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를 대신 읽어드려 설문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조사를 위하여 문화센터, 대형마트, 시니어 가요교실, 요가교실, 주간보호센터, 일자리센터, 산악회, 교회, 사찰 등 총 32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나 결측치가 많은 자료를 제외한 290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sup>1)</sup>.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다문화수용성의 척도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감능력 척도는 데이비스(Davis, 1983)가 개발한 자기-보고형 질

2) 김현정·유두련(2020). 베이비부머의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복지과 문화다양성 연구, 12(1)의 자료 재사용.

문지인 대인 반응성 지수(Intet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사용하였다. 이 중 두 가지 하위 척도인 관점 수용(perspective taking)척도와 공감적 염려(empathic concern) 척도를 각각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공감 영역이 각각 7개 문항이지만 박지수(2010)의 연구와 김현정(2019)의 노인대상 연구에서 활용되어 신뢰도를 인정받은 척도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인 베이비부머라는 대상에 맞게 각각 5개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2) 베이비부머의 자아존중감

베이비부머의 자아존중감은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Rosengerg)가 1965년에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이며, 이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척도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척도문항 중 개인자아존중감은 긍정문항 5개와 부정문항 5개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집단자아존중감 척도는 크로커와 루흐타넨(Crocker & Luhtanen, 1990)의 척도이며, 이후 김혜숙(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 대상인 베이비부머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베이비부머의 다문화수용성

본 연구에 사용된 베이비부머의 다문화수용성 척도는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안상수 외, 2012; 2015)의 진단도구(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for adult : KMCI)를 사용하였다. 하위변인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며, 다양성(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은 15문항, 관계성(일방적 동화기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은 11문항, 보편성(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은 9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역문항의 경우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4. 자료의 처리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베이비부머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다문화수용성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한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 관계에서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분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다문화수용성과 관련한 질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수치가 공감능력 전체 .852, 인지적 공감능력 .857, 정서적 공감능력 .844이며, 자아존중감 전체 .897, 개인자아존중감 .757, 집단자아존중감 .897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다문화수용성 .918, 하위변인별로 다양성 .898, 관계성 .809, 보편성 .767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 1. 베이비부머의 주요변인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320명으로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고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290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 1>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여성(45.5%), 남성(54.5%)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59세가 2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출생연도는 55년생부터 63년생으로 58세부터 66세까지였다.

응답자의 종교가 있는 경우가 34.8%이며, 없는 경우가 65.2%로 나타났으며, 직업을 가진 응답자는 166명 (57.2%)로 나타나 베이비 부머의 경우 연령적 특성으로 인해 아직 현직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 수준은 주로 '보통이다(75.2%)'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무학이 4%인데 비해 고졸이 43.4%로 학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5명(70.7%)이며, 이주민 접촉이 있는 경우는 281명(96.9%)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디어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75명(94.8%)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구분		빈도	%	응답자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158	54.5	최종 학력	무학	4	1.4	
	여성	132	45.5		초졸	31	10.7	
연령	(63년생)58세	50	17.2		중졸	71	24.5	
	(62년생)59세	60	20.7		고졸	126	43.4	
	(61년생)60세	40	13.8		대졸이상	58	20.0	
	(60년생)61세	30	10.3					
	(59년생)62세	26	9					
	(58년생)63세	25	8.6		종교	유	205	70.7
	(57년생)64세	29	10			해외 여행 유무	무	85
	(56년생)65세	19	6.6		직업			
(55년생)66세	11	3.8	무	124		42.8		
경제 수준	낮음	60	20.7	이주민 접촉	유	281	96.9	
	보통	218	75.2		무	9	3.1	
	높음	12	4.1	미디어 노출	유	275	94.8	
			무		15	5.2		

주: N=290

## 2. 베이비부머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다문화수용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베이비부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다문화수용성(다양성, 관계성, 보편성)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2〉와 같다.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 다문화수용성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은( $r=.446, p<.01$ )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 전체는( $r=.279, p<.01$ ), 하위요인별로는 다양성( $r=.302, p<.01$ ), 관계성( $r=.146, p<.05$ ), 보편성( $r=.248, p<.01$ )로 정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 전체는( $r=.370, p<.01$ ), 하위요인 별로는 다양성( $r=.295,$

$p < .01$ ), 관계성( $r = .291, p < .01$ ), 보편성( $r = .338, p < .01$ )으로 정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 전체는( $r = .297, p < .01$ ), 하위요인 별로는 다양성( $r = .302, p < .01$ ), 관계성( $r = .146, p < .05$ ), 보편성( $r = .284, p < .01$ )으로 정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다문화수용성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①	1	.189**	-.120*	-.046	-.112	-.005	-.058	-.038	.161**	.111	.057	.107	.063	.105
②	.189**	1	-.208**	-.011	.104	.293**	.009	-.030	.218**	.272**	.074	.038	.141*	.123
③	-.120*	-.208**	1	.244**	.233**	-.082	.020	-.030	.028	.080	.079	.075	.129*	.073
④	-.046	-.011	.244**	1	.297**	.305**	.067	.025	.019	.157**	.125*	.036	.123*	.111
⑤	-.112	.104	.233**	.297**	1	.370**	-.080	-.141*	.100	.199**	.179**	.246**	.076	.234**
⑥	-.005	.293**	-.082	.305**	.370**	1	.086	.107	.226**	.350**	.188**	.082	.137*	.173**
⑦	-.058	.009	.020	.067	-.080	.086	1	.348**	.115*	.003	.079	.049	.101	.120
⑧	-.038	-.030	-.030	.025	-.141*	.107	.348**	1	.105	.041	.084	-.027	.206**	.079
⑨	.161**	.218**	.028	.019	.100	.226**	.115*	.105	1	.446**	.295**	.291**	.338**	.370**
⑩	.111	.272**	.080	.157**	.199**	.350**	.003	.041	.446**	1	.302**	.146*	.284**	.279**
⑪	.057	.074	.079	.125	.179**	.188**	.079	.084	.295**	.302**	1	.750**	.531**	.945**
⑫	.107	.038	.075	.036	.246**	.082	.049	-.027	.291**	.146*	.750**	1	.455**	.883**
⑬	.063	.141*	.129*	.123	.076	.137*	.101	.206**	.338**	.284**	.531**	.455**	1	.682**
⑭	.105	.123	.073	.111	.234**	.173**	.120	.079	.370**	.279**	.945**	.883**	.682**	1

① 성별, ② 종교, ③ 직업, ④ 경제수준, ⑤ 학력, ⑥ 해외여행, ⑦ 이주민 접촉여부, ⑧ 미디어 노출여부, ⑨ 공감능력, ⑩ 자아존중감, ⑪ 다양성, ⑫ 관계성, ⑬ 보편성, ⑭ 전체 다문화수용성

\*  $p < .05$ , \*\*  $p < .01$ , \*\*\*  $p < .001$

### 3.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개인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1단계에서 인지적공감능력은 매개변인인 개인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212, p<0.001$ ), 2단계에서 인지적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148, p<0.001$ ).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인지적공감능력과 매개변인인 개인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인인 개인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다( $\beta=.273, p<0.01$ ). 결과적으로 개인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설명력이 2단계( $\beta=.148$ )보다 3단계에서 줄어들었고( $\beta=.124$ ), 개인자아존중감은 인지적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을 알아보면 인지적공감능력은 9.3% ( $F=21.368, p<0.001$ )의 설명력을 보였지만 개인자아존중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19.7%( $F=27.982, p<0.01$ )의 설명력으로 증가되어 인지적공감능력이 통제된 후에도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개인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였다. 둘째, 1단계에서 정서적공감능력은 매개변인인 개인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235, p<0.001$ ), 2단계에서 정서적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169, p<0.001$ ).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서적공감능력과 매개변인인 개인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인인 개인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beta=.330, p<0.001$ ). 결과적으로 개인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설명력이 2단계( $\beta=.169$ )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였으며( $\beta=.146$ ), 개인자아존중감은 정서적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을 살펴보면 정서적공감능력은 17.2%( $F=26.371, p<0.01$ )의 설명력을 보였지만 개인자아존중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29.2%( $F=32.433, p<0.001$ )의 설명력으로 증가되어 정서적공감능력이 통제된 후에도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개인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였다.

〈표 3〉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 관계에서 개인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분석

준거 변인	예측 변인		경로	B	$\beta$	t	R <sup>2</sup>	F
다문화수용성	인지적공감능력	1단계	인지적공감능력 → 개인자아존중감	.256	.212	4.455***	.221	42.954***
		2단계	인지적공감능력 → 다문화수용성	.163	.148	3.084***	.093	21.368***
		3단계	인지적공감능력 → 다문화수용성	.137	.124	2.101*	.197	27.982**
			개인자아존중감	.289	.273	4.064**		
다문화수용성	정서적공감능력	1단계	정서적공감능력 → 개인자아존중감	.279	.235	5.172***	.316	53.784***
		2단계	정서적공감능력 → 다문화수용성	.188	.169	3.503***	.172	26.371**
		3단계	정서적공감능력 → 다문화수용성	.159	.146	2.147*	.292	32.433***
			개인자아존중감	.343	.330	4.012***		

다음으로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집단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1단계에서 인지적공감능력은 매개변인인 집단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256, p<0.001$ ), 2단계에서 인지적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161, p<0.001$ ).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인지적공감능력과 매개변인인 집단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인인 집단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beta=.261, p<0.01$ ). 결과적으로 집단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설명력이 2단계( $\beta=.161$ )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였고( $\beta=.143$ ), 집단자아존중감은 인지적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을 알아보면 인지적공감능력은 12.5%( $F=24.173, p<0.001$ )의 설명력을 보였지만 집단자아존중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22.0%( $F=29.164, p<0.01$ )의 설명력으로 증가되어 인지적공감능력이 통제된 후에도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였다. 둘째, 1단계에서 정서적공감능력은 매개변인인 집단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301, p<0.001$ ), 2단계에서 정서적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214, p<0.001$ ).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인지

적공감능력과 매개변인인 집단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인인 집단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beta=.356, p<0.001$ ). 결과적으로 집단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설명력이 2단계( $\beta=.214$ )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였고( $\beta=.173$ ), 집단자아존중감은 정서적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을 알아보면 정서적공감능력은 19.6%( $F=31.484, p<0.001$ )의 설명력을 보였지만 집단자아존중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31.5%( $F=33.742, p<0.001$ )의 설명력으로 증가되어 정서적공감능력이 통제된 후에도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집단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였다.

〈표 4〉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 관계에서 집단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분석

준거 변인	예측 변인		경로	B	$\beta$	t	$R^2$	F
다문화수용성	인지적공감능력	1단계	인지적공감능력 → 집단자아존중감	.289	.256	4.764***	.245	45.763***
		2단계	인지적공감능력 → 다문화수용성	.195	.161	3.375***	.125	24.173***
		3단계	인지적공감능력 → 다문화수용성	.165	.143	2.547**	.220	29.164**
			집단자아존중감	.292	.261	4.178**		
다문화수용성	정서적공감능력	1단계	정서적공감능력 → 집단자아존중감	.311	.301	5.591***	.338	59.668***
		2단계	정서적공감능력 → 다문화수용성	.221	.214	3.837***	.196	31.484***
		3단계	정서적공감능력 → 다문화수용성	.182	.173	2.479**	.315	33.742***
			집단자아존중감	.367	.356	4.735***		

$p^* < .05, p^{**} < .01, p^{***} < .001$

또한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절대값이 1.96이상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표 5〉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Sobel test)

준거변인	예측변인	매개변인	a(Sa)	b(Sb)	Z
다문화수용성	인지적공감능력	개인자아존중감	.60(.07)	.30(.06)	3.07***
다문화수용성	정서적공감능력	개인자아존중감	.60(.07)	.08(.03)	3.34***
다문화수용성	인지적공감능력	집단지아존중감	.06(.07)	.05(.04)	3.47***
다문화수용성	정서적공감능력	집단지아존중감	.06(.07)	.037(.09)	3.85***

P\*\*\* < .001

## V. 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령 다문화사회에서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인지적공감능력, 정서적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개인자아존중감, 집단자아존중감),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다문화수용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베이비부머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타인의 입장과 관점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그들과의 의사소통과 친사회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과 같이 다문화수용성에 대하여 영향력이 있다(이정아, 2016). 노인의 경우에도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정서적 공감능력은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 둘 다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김현정, 2019).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 증진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주며, 이는 베이비부머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수용성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개인자아존중감은 다문화수용성의 하위변인 중에서 다양성에 집단자아존중감은 다문화수용성의 하위변인 중에서 관계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정 · 유두

런, 2019)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는 타인종, 타문화에 대한 태도, 인식, 수용여부 등에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박영주·이주은, 2013; 박혜숙·원미순, 2010; 조미성, 2014; 최성보·임지영·주현준, 2011)들과 같은 의미로 이해 할 수 있겠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수준이 높다고 한 임소연(2008)의 연구결과와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긍정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사회에서 타문화와 타민족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공감능력과 정서적공감능력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성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정·유두련, 2019)는 연구 결과와 같이 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과 관련성이 높으며,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김인숙·이수진, 2017; 홍미옥, 2018)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타문화 배경의 타인에게 공감하면 관계적 측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이태상·김현정, 2019)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개인자아존중감은 인지적공감능력과 정서적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집단자아존중감도 인지적공감능력과 정서적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공감능력 또는 정서적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다양성, 관계성, 보편성)간의 관계에서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보다는 개인자아존중감, 집단자아존중감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이 증진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배려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한다는(이태상·김현정, 2019)의 연구결과와 같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각 변인들은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 그리고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의 연구가 각각 보고되고 있으나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심리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베이비부머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에 대한 주요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의 자아존중감은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사람의 가치관이나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수준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다문화수용성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첫째, ‘베이비부머 대상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동이 힘든 베이비부머를 위해서 ‘찾아가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별상담’ 통해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자아존중감 성장을 위한 효율적 개입이 좀더 강화 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한 베이비부머의 자아존중감 증진은 타민족과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다문화시대 베이비부머를 위한 긍정적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의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수용성 하위변인 중 보편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노출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며, 특히 이 미디어 노출빈도는 노인의 다문화수용성 중 보편성과 상관관계가 높다(김현정, 2019)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인쇄매체, 인터넷 매체 등 미디어의 노출이 보편성에 영향을 받는다(유두련, 2019)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미디어 활용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보편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V프로그램 노출 정도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접촉이 많을수록 미디어가 보여주는 현상을 시청자들이 실제 현실로 받아들여 그와 동일시하는 태도와 인식을 갖게 된다(Gerbner et al, 1980)는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베이비부머의 수준에 맞는 다문화 관련 TV프로그램,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베이비부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보편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고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단자아존중감이 높은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우 긍정적 미디어 프로그램이나 친밀한 다문화 접촉 프로그램이 다문화수용성 다양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김현정 · 유두련, 2020)는 연구결과와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베이비부머의 다양성 증진은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낮추어 향후 전체 노인세대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에서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보다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이 증진된다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힌 것은 베이비부머의 고령 다문화사회의 적응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고령 다문화사회에서 베이비부머가 타 문화에 대한 인정에 그치지 않고 자아존중감 향상을 바탕으로 이해의 단계를 넘어 서로 수용하고 화합과 공존에 기여함에 있어서도 시사 하는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 전체 베이비부머로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전기 베이비부머 세대와 후기 베이비부머 세대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부적 차이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하여 두 집단 간의 다문화수용성 비교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와 양적 연구 외에 내재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경근·황여정(2012). 초중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 39(1), 87-117.
- 김기현(2018).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적인식에 따른 상징적 상호작용 경험에 관한 사례 분석 연구. *공공정책연구*, 25(1), 105-135.
- 김미진(2010).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2015).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 및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이수진(2017). 남·여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공감능력,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24(11), 1-32.
- 김정환·이선이(2014). 한국 30대 고학력 남성들의 아버지상과 아버지 역할 실천방식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6(3), 71-104.
- 김주찬(2012). 교인들의 자아존중감이 용서 수준에 미치는 영향: 공감 능력을 매개변인으로.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경·박수애·이훈구(1999). 개인 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가 집단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3(1), 53-64.
- 김현정(2019). 노인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현정·이태상(2015).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2), 479-498.
- 김현정·유두련(2019). 노인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2(3), 37-71.
- \_\_\_\_\_ (2020). 베이비부머의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복지와문화다양성 연구*, 12(1), 27-57.
- 김혜숙(1994).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지:사회*, 8(1), 103-116.
- 노미희(2012). 중학생의 성별과 공감능력이 다문화 개방성과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무숙·안상수·김이선·김금미·류정아·조영기(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민춘기(2019).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연계를 위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재조명. *문화와 융합*. 41권 4호, 1305-1330.
- 박성희(2004). *공감학*. 서울: 학지사.
- 박수경·양심영(2017).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친사회적 행동, 공감능력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17(6), 142-152.

- 박순희·유지형(2017).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5(4), 499-510.
- 박영주·이주은(2013).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24, 285-310.
- 박재욱(2013). 통합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아의 다문화수용성 및 창의적 놀이행동,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수(2010).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공감능력과 교유관계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숙·원미순(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303-332.
- 안범희(1993). 학교학습심리학. 경기: 양서원.
- 안상수·민무숙·김이선·김금미·이명진(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연구보고 2012-02).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연구보고 2015-55). 서울: 여성가족부.
- 양계민(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23, 59-79.
- 오수용(2013). 다문화 사회에서 이민과 국가정체성 : 루소의 사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6(4), 225-248.
- 유계숙·최연실·성미애(2003).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서울: 하우.
- 유두련(2019).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73, 54-85.
- 윤인진·송영호(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이미란·김선희·배은석(2016). 노인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 성향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 10(1), 155-179.
- 이정아(2016).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태상·김현정(2019). 아동의 배려와 다문화 수용성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1281-1300.
- 이혜영(2015). 노인복지론. 서울: 창지사.
- 임소현(2008). 자아존중감이 다민족·문화의 수용에 끼치는 영향: 동남아시아인 및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화(2012). 아동의 자아개념 및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재(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전혜경 · 김근태(2010).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위한 한국-베트남 설화에 나타난 민족성 비교연구 -. 동아시아고대학, 23, 725-770.
- 정경희 · 이소정 · 이윤경 · 김수봉 · 선우덕 · 오영희 · 김경래 · 박보미 · 유혜영 · 이은진(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30-18.
- 조금호(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 틀. 서울: 나남출판사.
- 조미성(2014).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문정(2010). 미술활동이 노인의 우울증 개선과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 요양병원 수용노인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보 · 임지은 · 주현준(2011).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구조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4), 305-330.
- 최안복 · 이윤옥(2010).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국가정체성 및 인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 47, 159-192.
- 최태을(2017). 도시지역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http://www.kosis.kr>
- 한유화(2007). 개인주의 - 집단주의 차원을 반영하는 자아존중감 척도의 제작,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준수(2000). 개인특성과 친사회적행동 간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홍미옥(2018).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관점에서. 아세아 연구, 53(4), 152-18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tson, C. D., & Coke, J. S. (1981). Empathy :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for helping. In Rushton, J. P., & Sorrentino, R. M. (Eds.),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social, personality,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167-187. Hillsdale, NJ: Erlbaum.
- Bennett, M. J. (1993).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Paige, R. M. (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2nd

- ed.),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Inc.
- Berry, J. W. (2004). *Fundamental Psychological progress in Intercultural reation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Thousand Oaks, CA: SagePublications.
- Berry, J. W., & Kalin, R. (1995). Multicultural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An overview of the 1991 national surve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7(3), 301-320.
- Crocker, J., & Luht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55-66.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3), 85-104.
- Gerbner, G., Gross, L., Signorielli, N., & Morgan, M. (1980). Aging with Television: image ontelevision drama and conception of socialre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30(1), 171-180.
- Hoopes, D. S. (1979),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ncepts and the psychology of intercultural experience. In Pucsh, M. (Ed.), *Mutlicultural education : A cross-cultural training approach*, 9-39.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 Hutter, M. (1985).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study of the family. In H. A. Farberman & R. S. Peringbanayagam (Eds.), *Foundation of interpretive sociology: Original essays in symbolic interaction*(Suppl. 1). Greenwich, CT:JAI Press.
- Rogers. C. R. (1975).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2), 2-1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ylie, R. C. (1979). *The self-concept, 12,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Revised Edition).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ABSTRACT〉

**Effect of Baby Boomer's Empath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Kim, Hyun-Jung · You, Doo-Ry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baby boomers' empathy ability, self-respec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self-resp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is, we will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with low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look for ways to improve multicultural awareness based on this. We conducted a survey on 290 baby boomers living in Daegu through a questionnaire. We performed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ed effect analysis using SPSS. First, the baby boomer's empathic ability, self-respec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re found to be correlated. Second, the baby boomer's self-respect is shown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study suggests that increasing self-esteem among baby boomers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creases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ontributes to social integration.

**Key words**

Baby Boomer, Empathy Ability, Self-Esteem, Symbolic Interaction, Multicultural Acceptance

논문 투고일	2020. 10. 04
논문 심사일	2020. 11. 10
게재 확정일	2020. 11. 20

---

김현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455  
kabi1975@naver.com

유두련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dryou@cu.ac.kr



# 선교사 자녀의 유학생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이보람\* · 박미숙\*\*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선교사 자녀들의 해외 유학경험에서 나타난 적응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선교사 자녀들의 현지 적응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는 해외유학경험이 있는 선교사자녀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유학경험에 대하여 근거이론의 패러다임과정에 따라 중심현상, 인과적조건, 맥락적조건, 중재적조건, 상호작용과정, 결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중심현상은 선교사 자녀들이 유학생생활에 적응하는 것이다. 중심현상에 따른 원인인 인과적 조건은 부모의 선교로 인한 이주이며 맥락적 조건은 유학생생활 적응경험과정에서 접한 다양한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과 상황을 중재하는 조건은 현지에서의 학업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선생님들의 배려가 있었고 선교사 자녀들 또한 메시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응해나갔다. 상호작용은 부모님들과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고 스스로 학업에 집중하고 현지 생활에 몸으로 부딪혀 적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들로 나타난 결과는 환경 적응능력이 향상되었고 새로운 언어의 습득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자기성장을 이루어나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선교사자녀들의 유학생생활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시대에 맞게 선교사자녀들의 육체적 현지적응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적응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선교사자녀, 유학경험, 학교생활, 적응과정, 근거이론

\* 제1저자, 인하대학교 교육학전공 박사과정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연구교수

## I. 서론

이민, 난민, 해외 취업, 유학, 해외여행 등 문화접촉의 기회는 세계화에 걸맞게 변화, 증가하고 있다(Sam & Berry, 2006).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맞게 선교사들의 해외 진출도 늘어가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28,039명의 선교사가 171개국에 파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각국에 파송되어 선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선교사 자녀들의 문제이다. 특히 선교지가 대부분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개발도상국이나 개발국가에 부모들이 파송되다보니 선교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도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자녀들은 정체성 혼란, 교육 문제, 모국어의 상실, 부모와의 갈등,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임숙경, 2006). 더불어 선교사 자녀들은 잦은 다른 문화권의 이동으로 새로운 환경에 매번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과 잦은 이별과 상실 경험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고독감과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한다(백애경, 2000). 그러나 이들은 문화 간 이동을 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다문화 접근성 때문에 언어능력, 사회관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Gaw, 2000). 이처럼 선교사 자녀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가족관계, 대인관계, 인종차별 뿐 아니라 문화적응, 학교적응 등 적응에 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도 한다(강희숙·김동선·문영주, 2010).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에 의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Germain & Gitterman, 1996). 심리적 적응은 당면한 스트레스 사건에서 적응적인 사고과정을 거쳐 목표를 내면화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다(Schroevers, Kraaij, & Garnefski, 2007). 스트레스 사건에 당면하여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 것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며, 개인은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에 당면하여 목표를 재정의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면서 적응해 나아간다(Tedeschi & Calhoun, 2004).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접근에서는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의 영향까지도 고려하여 더 넓은 관점에서 문화 변화에 따른 개인의 적응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 적응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자아존중감으로 설명되는 심리적 적응과 새로운 문화에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유능성을 발휘하는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의 성격, 생활의 변화, 대처양식, 통제소재, 관계의 만족감, 정체감, 심리적 안녕감 등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 지식, 의사소통 능력, 상호작용방식 등은 사회문화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Ward & Kennedy, 1999).

따라서 유학생의 관점에서 적응이란 학교생활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추거나 변화시켜 수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해외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적응과정이 잘 형성되었을 때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 다양한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외유학경험에서 나타난 적응 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선교사 자녀들의 현지 적응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하고 이들의 유학생생활 적응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선교사 자녀들의 유학생생활에서 나타나는 적응 과정에 대한 접근은 이들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선교사 자녀의 특성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란 선교사를 부모로 둔 사람들을 의미하며 부모의 뜻에 따라 어릴 때부터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 아이들을 지칭한다. 한국의 선교사 자녀들은 1980년대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2020)의 발표에 의하면 2019년 선교사 자녀의 수는 18,545명으로서, 이는 2006년 발표한 10,433명보다 약 1.8배 증가하였다. 한국 선교사 자녀의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선교사 자녀 중 19세 이하는 6,411명(52%), 20세 이상은 6,89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선교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는 5,835명이고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은 3,115명, 그 외 유학 등으로 제3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1,695명으로 나타났다.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선교지를 옮겨 다니며 다문화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제 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로 칭하기도 한다(박정은 · 김영주 · 김소현, 2013). 이에 David C. Pollock(1999)는 제 3문화의 아이는 성장기의 중요한 시기에 부모의 문화권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서 자라며 나라에 따른 문화들과 관계를 맺지만 어느 문화에도 충분히 소속감을 갖지 못하다보니 유사한 배경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처럼 제 3문화 아이들은 안정된 문화적 배경에 정착하기 위해 자신만

의 규칙이나 행동의 가치들을 통해 배우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문화권의 이동으로 새로운 환경에 매번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과 잦은 이별과 상실경험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고독감과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백애경, 2000). 또한, 선교사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간다. 이로 인해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우울, 슬픔, 분노를 가지고 있으며 소속감 결여와 결속력 약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한다(윤다운, 2014).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적응 부분과 정체성의 문제, 잦은 이별에 대한 상실감 외에도, 아동으로서 당연히 부모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선교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심리적인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최주혜, 2013). 이처럼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의 선교활동으로 동반 이주하여 심리, 정서적으로 학교생활은 물론 일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

## 2. 유학생 자녀들의 생활적응

유학생 자녀들은 익숙했던 자신의 환경을 떠나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므로 당연히 여러 가지 적응문제를 경험하기 마련이고, 언어문제, 학비 및 경제문제, 사회적응문제, 고국에 대한 향수, 다양한 역할에서의 갈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Mallinckrodt & Leong, 1992). 이런 어려움은 직접적으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여부는 또한 학업에 대한 성취와 진로, 심지어 사회생활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학생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남순현, 2010).

생활적응은 어느 발달 시기에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청소년기는 정체성 확립에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적응은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예견해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옥주, 2003)이다. 특히 학교는 학생에게 단체생활의 규칙을 익히게 하고 성취감과 협동심을 익히게 하며, 바람직한 자아개념, 사회관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며, 사회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Elliot, 1972).

An(1984)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유학생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일차적인 공간으로써 친구들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써 또래집단과 어울려 생활하는 가운데 각종 규칙, 규율 등을 배우고 이를 토대로 초기사회화를 형성하는 곳으로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정완·문한식, 2013).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에 있어 개인의 요구에 맞게 변화를 이끌어내며, 바람직하게 환경을 수용하여 학교생활 전반에 만족스러운 상태가 유지되는 것(고효순, 2003)을 의미한다. 즉 학생이 학교생활과 조화를 이루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학교에서 대인관계나 규칙준수, 학습활동 등에 있어 적절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때, 학교생활에 있어 적응을 잘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이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키워가며, 올바른 사회규범과 가치 및 태도를 익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미래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정미영·문혁준, 2007).

### 3. 선행연구 분석

한국 선교사의 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선교사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선교사 자녀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부모와 함께 이국적인 땅으로 동반 이주하는 선교사 자녀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선교사 자녀들이 적응에 관한 연구(권민영·강연정, 2014; 김혜정, 2016; 박은주, 2018; 김혜정·이수경, 2019)이다. 이러한 연구 중 박은주(2018)는 선교사 자녀가 겪는 정서적 혼란감과 부적응에 대해 자녀의 개인 요소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각 체계를 살펴본 결과 잦은 환경의 변화와 사역의 일부분으로 과중한 책임감, 또래와의 관계 어려움, 바쁜 부모님과의 불안정한 애착 등 사회문화 종교 등의 미시, 중간, 거시체계들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선교사 자녀들은 정서적 혼란과 환경 속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이를 돕기 위해 각 체계 속에서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선교사 자녀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장은진, 2006; 권민영·강연정, 2014; 윤다운·권경인, 2015; 박은주, 2018; 지혜정·한유진, 2018)이다. 장은진(2006)은 선교사 자녀들의 특성 및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정도를 살펴본 결과 선교사 자녀들은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일반아동보다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현지인 학교를 다닐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선교지에 머문 기간이 길수록 선교사를 희망하는 정도가 클수록 가정환경 및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였다.

셋째, 선교사 자녀의 교육에 관한 연구(조용성, 2002; 김은미, 2004; 차재국, 2009; 박정은·김영주·김소현, 2013; 최정희·김정남·김성운, 2013; 고경국·함영주, 2019)이다. 박정은 외(2013)는 필리핀 소재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에 대한 불완전한 부분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어가 불완전하게 발달된 특징이 나타났으며 모어인 한국어 접촉이 감소되었으며 한국어 능력은 재학하는 학교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어 문법과 민족정체성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교육기간과 한국어 사용기간, 한국체류기간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선교사자녀로서 유학생할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같이 제 3문화의 아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선교사 자녀들이 겪는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선교사 자녀들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서 경험하는 제 3문화의 아동을 이해하는데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교사 자녀들의 유학생할 경험을 통하여 해외생활 적응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축코딩과정인 패러다임 분석과정을 따르고자 한다. 근거이론 방법론은 질적, 귀납적 연구방법으로 자료로부터 잘 발전된 범주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에 대한 진술을 통해 어떤 연관된 사회, 심리, 혹은 기타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시한다(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2004; Strauss & Corbin, 1998). 그러므로 다양한 과정을 살펴보기에 적합하고 특히 패러다임 분석은 질적연구에서 과정을 분석하기에 적합하게 구조화되어 있어 선교사 자녀들의 유학생할 적응과정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첫째, 부모님이 선교사인 사람, 둘째, 부모님의 선교활동을 따라 해외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셋째, 부모님과 해외 이주 후 외국의 학교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넷째, 현재 부모님 선교활동 때문에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섯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으로 정하고 이 모든 항목에 충족한 사람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표집방법은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 합당한 모든 국가의 참여자를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어, 본 연구 주제에 관심이 있고 직접 참여의사를 밝힌 연구참여자를 중심으로 국내 한 선교센터의 소개로 최초 연구참여자를 소개받고 이후 눈덩이 표집(Gall, Borg, & Gall, 1996)을 통해 7명의 연구참여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참여자	나이	성별	유학 국가	유학기간	사용언어
A	13	남	인도	5년 정도	힌디어, 영어
B	19	남	인도	4년 10개월	힌디어, 영어
C	14	남	중국	5년 정도	중국어
D	20	여	중국	4년 4개월	중국어
E	15	여	사우디아라비아, 남수단	7년	아랍어
F	17	남	필리핀	5년	영어
G	14	여	필리핀	5년	영어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국가에서의 유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나이는 13세부터 20세까지 주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다. 성별은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며 유학 기간은 짧게는 4년 4개월에서 길게는 7년까지이었다. 유학 국가는 인도 2명, 중국 2명, 사우디아라비아와 남수단에 중복 거주한 사람 1명, 필리핀 2명이다. 이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해외로 이주하여 살았으며 청소년기와 학교생활을 해외에서 경험하였다. 이들은 현재는 해외 선교 업무기간이 끝나 귀국한 연구참여자도 있고, 국가의 특성상 종교적인 문제로 더 이상 현지 거주 불가능하여 갑작스럽게 귀국한 연구참여자도 있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지에서 학교생활이 불가능하여 귀국하여 한국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지내고 있다. 연구참여자가 유학을 간 국가는 인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이다. 인도는 남아시아 국가로서 힌두교가 국민의 79%를 차지한다. 언어는 힌디어를 사용하며 2019년 기준 남아시아 활동 선교사 수는 1,662명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동아시아 국가에 속한다. 언어는 중국어를 사용하며 동북

아시아에 파송된 선교사 수는 5,479명으로 집계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이고, 이슬람 국가에서도 더욱 보수적인 국가이다.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하고, 중동지역에 파송된 선교사 수는 1,116명으로 집계되었다. 남수단은 아프리카에 있는 내륙국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이다. 종교는 토착 신앙과 기독교이고 북아프리카의 활동 선교사 수는 461명으로 집계되었다. 필리핀은 서태평양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섬나라로 언어는 필리핀 현지 언어인 타갈로그어와 영어를 사용한다. 종교는 가톨릭이 가장 많으며 동남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는 6,021명으로 집계되었다(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20).

##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심층면담은 2020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1인당 면담 시간은 50분에서 100분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하에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먼저 부모님에게 문자 혹은 전화를 통해 면담에 관한 내용은 전달하고 면담 장소에 대해 약속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동의서를 만들어 면담 전에 면담 참여자와 부모가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연구의 목적, 내용, 절차, 연구윤리,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구참여자가 생활하는 교회 사무실 혹은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실명이 들어가지 않도록 참여자들은 알파벳으로 표기하였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기로 녹취하였다. 녹취하는 동안 연구참여자의 반응이나 행동들을 필사하였고 필사한 자료를 연구문제와 함께 지속해서 발견하고 기록하였다. 면담에서 수집하지 못한 자료는 면담 종료 후 추가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전화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모든 면담을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파일은 분석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전사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질적연구의 한 방법인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8)의 축코딩 단계인 패러다임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을 위해 녹음한 파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면담을 요약하였다. 그 다음 녹취록을 작성하여 자료들을 다시 반복하여 읽으면서 학생들의 유학생황에서 나타나는 적응과정에 대한 경험에 관련된 이슈들을 찾아 나갔다.

연구자는 조기유학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 면담, 모임을 통하여 자료 안의 의미에 반응하는 능력인 이론적 민감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자료분석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교하기와 질문하기를 통하여 개념을 생성하고, 범주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는 녹

음된 면담 내용을 직접 축어록으로 작성하였으며, 녹음에 드러나지 않는 비언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며 분석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면담 내용에 대한 전사과일을 연구참여자에게 보내어 면담의 의미를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받았다. 또한, 사전에 구성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선교사 자녀 연구 전문가에게 1차 피드백을 받아 내용을 구성하였고, 질적연구를 수행한 관련 분야 교수 1인과 박사학위 전공자 1인에게 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면담 질문지의 내용을 2차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걸쳐 완성하였다.

####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부모님의 선교활동을 따라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된 자녀들의 현지 학교생활 적응과정을 Strauss & Corbin(1998)의 패러다임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Strauss & Corbin(1998)이 주장하는 근거이론의 분석과정은 크게 중심현상에 따른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 이를 중재하는 중재적 조건과 상호작용 전략, 그에 따른 결과로 구성된다. 본 연구를 분석과정에 따라 정리하면 중심현상은 부모님 선교활동 따라 유학가서 현지생활 적응하기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인과적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조건, 상호작용,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선교사 자녀들의 유학생생활 적응 과정 패러다임 분석

패러다임	중주제	내용
인과적조건 (부모의 선교)	국외로 이주	외국 간다니까 좋음. 막연한 기대감, 당황스러움
	부모님과 여행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놀러가는 기분, 해외여행
맥락적조건 (적응 관련 상황)	낯선 환경에 부딪힘	자료 없는 남수단, 시골 작은 도시, 지진, 갠지스강, 폭설
	문화차이로 인한 두려움	컬쳐쇼크, 인도사람의 정서, 사우디 문화
중심현상 (유학생생활에 적응하기)	한국과 다른 학교분위기	군사학교 같은 중국학교, 인도학교 시스템, 학교환경
	친구들의 놀림	중국인이라 놀림, 무시당함, 친구들의 장난
	언어 장벽	언어로 인한 어려움, 무서움, 아무것도 못 알아들음

패러다임	중주제	내용
중재적조건 (원활한 적응을 위한 지지지원)	학업수행 능력을 지원	선생님의 특별대우,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 선생님의 배려
	메사에 수용적인 태도	언어의 소통, 자부심, 아이들과 소통, 새로운 친구들의 놀림 수용
작용/상호작용 (적응의 어려움 극복)	부모의 지지	엄마의 수고, 부모의 학업지도, 부모의 노력, 정서적 안정
	먼저 다가온 친구들	친구들이 다가옴, 순박한 친구들, 같이 놀아준 친구
	적응하기 위한 노력	과외, 특별반 수업, 친구들과 대화 시도, 실천에 도전
결과 (적응을 통한 변화)	환경 적응능력 향상	현지생활, 환경에 적응, 한국보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음
	원활한 이중 언어 구사	언어의 어려움 없어짐, 언어를 통한 자부심, 이중언어, 현지어
	다양한 문화의 이해	현지 문화 이해, 문화에 대한 감수성 향상, 문화 인식 확대

## 1. 인과적 조건: 부모의 선교

### 1) 국외로 이주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의 선교활동을 선택함에 따라 국외로 이주를 경험한다. 자녀들은 대부분 학령기 아동이다 보니 부모로 인해 비자발적인 이주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동의를 구하기보단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선교사 부부들이 자녀를 동반하여 해외로 이주를 결심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이주하게 된다. 참여자 F는 한국의 다른 지역보다 외국으로 이주한다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하였으며 참여자 D는 해외를 가면 막연하게 펼쳐질 일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 부모가 모두 다른 나라로 가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신도 가야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와같이 자녀들은 부모들의 제시에 부모님과 여행 간다는 기분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가 그때 우리 사우디에 갈건데 괜찮아? 라고 물어 봤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6살밖에 안 되었으니까 제주도도 가도 외국은 가본 적이 없어서. 특히 그때 제가 시골에 살 때였는데 시골에 살면 친구들이 서울에 나가는 것도 말이 나오니까 외국간대 그러면 헐 대박 이런 분위기니까. 그니까 쫘 으쓱했어요.” (F참여자)

“처음에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갑자기 다른 나라를 가야 되는 거니까. 당황하긴 했는데 근데 또 뭔가 막연하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라면 가야지 어차피 엄마 아빠가 다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니까.” (D참여자)

## 2) 부모님과 여행

부모를 따라 이주하는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이다보니 부모님을 따라 이주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도 만족감을 느낀다. 이들은 해외 이주에 대해 부모님과 여행 가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무방비한 상태로 부모에게 의지한다. 성년이 아닌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이 필요하므로 부모의 결정에 따라 부모와 함께 한다. 부모님과 해외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참여자 D와 같이 부모가 떠나고 혼자 남는 것에 대한 힘듦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F는 필리핀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부모님과 함께 놀러가는 것쯤으로 생각하였다. 참여자들은 해외로 이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외여행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이처럼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의 선교활동에 동반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적대감 없이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가 다른 나라로 가면은 제가 한국에 남는다고 해도 딱히 제가.. 혼자 한국에 혼자 남으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가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야지하는 생각이었어요.” (D참여자)

“처음 간다는 소리 들었을 때는 그냥 해외여행 가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좋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니예요.” (G참여자)

## 2. 맥락적 조건: 동기

### 1) 낯선 환경에 부딪힘

선교지역들이 대부분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발도상국이나 개발국가이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 E는 자세한 자료조차 찾아볼 수 없는 난생처음 들어보는 국가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참여자 B는 갠지스강물에 대해 과거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도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폭설이 내리는 환경 등생소환 환경은 이들에게 신기하기만 했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된 청소년기 참여자들에게 문화 적응이란 쉽지 않았다.

“남수단은 외국인들이 자료가 없다보니까 기아인구 조사하거나 그런 것 조사해도 항상 자료 누락되고 그런 곳이라 아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 무섭잖아요. 잘 안 들어가서 외국인이 많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보는 사람이 하얗게 생기면 귀신인 줄 알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E 참여자)

“인도사람들은 갠지스강물을 성스러운 물이라고 해요. 그 물을 마시고 샤워하고. 근데 그 갠지스강은 모든 죄를 사한다는 뜻이 있대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샤워하고 마시고.” (B참여자)

## 2) 문화차이로 인한 두려움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 문화권에 놓이게 된다. 다양한 문화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경험해보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한다. 참여자들은 처음 들어보는 조선족 선생님들의 강한 어투에 놀라기도 하고 인도에서 교육을 받게 된 참여자 B는 한국과 다른 인도의 정서와 모습에 문화차이를 직면하기도 하였다. E 참여자는 사우디 국가의 문화 때문에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주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즐거움이나 호기심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인도사람들은 정서 자체가 속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내가 잘 속이면 그만큼 내 능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속는 사람이 문제지, 속이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주의라서 속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B참여자)

“사우디에서는 여자가 차 운전하면 안 되고 여자 혼자서 길거리 돌아다녀도 안 되고 외국인은 더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혼자는 절대 못나가고 엄마랑 둘이 나가도 위험해서 집에서 5분 거리 마켓 가는데도 막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E 참여자)

## 3. 중심현상: 유학 생활에 적응하기

### 1) 한국과 다른 학교 분위기

참여자들은 기존에 경험했던 혹은 경험한 적은 없지만 ‘학교’라고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된다. 한국의 학교와 다른 환경과 분위기로 인해 처음에는 적응하기

에 바빴고 이를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D 참여자는 등교할 때 줄을 맞춰 교문을 들어가는 문화에 놀라웠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떠들 수 없는 한국 학교 문화와는 너무 다른 환경을 맞게 되었다. 또한, B 참여자의 학교 급별을 나누지 않는 한국과 다른 교육과정 시스템에 적응하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과는 다른 문화적 차이가 뚜렷하게 국가별로 나타났다.

“아침에 등교할 때도 라인이 있어요. 처음에 등교할 때는 줄이 있으면 고등학생 줄, 중학생 줄 이렇게 줄서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체조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체조 마치면 진짜 중국 군사들처럼 팔을 직각으로 올리고 걸어가야 되고, 그걸 또 딱 딱 맞춰서 들어가야 되요. 그거 안 맞으면 이름불리면서 똑바로 하라고 하고 그래요.” (D참여자)

“인도학교 시스템 자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뉘지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붙어 있어 한 학교에서 다 다니거든요.” (B참여자)

## 2) 친구들의 놀림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향한 눈총이나 따돌림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방인으로서 해외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기 학교문화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또래 관계에서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탐색기간이 필요하듯이 처음 만난 친구들은 자신과 다른 외모, 언어 등 외형적인 특성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참여자들도 이주하여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의 놀림은 수위가 넘을 때가 많았다. 특히 참여자 G는 인종과 관련하여 놀림을 많이 받았으며 A참여자도 이주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놀림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따돌림이나 다름에서 나오는 눈총은 너무 익숙해져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알게 되었다. 이처럼 선교사 자녀들은 또래관계 형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적으로 생겨서 저희 보면 저희 얼굴이 중국인이나 아니면 네팔 쪽 중국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팔인이나 중국인이라고 놀리고, 근데 놀리는 게 되게 심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G참여자)

“놀리는 것도 많이 있었죠.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런 거랑 중국인, 중국인 그러고 아직도 그래요. 중국인이라고. 장난으로.” (A참여자)

### 3) 언어 장벽

참여자들의 많은 어려움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는 단연 언어 문제이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언어를 배우고 직접 사용해야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타국으로 이주한 모든 사람에게 언어와 관련된 문제들은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 참여자들 역시 언어로 인한 어려움은 이들이 적응하는데 가장 어려운 요인이었다. 참여자 D의 경우는 언어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게 되었고 이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고 하였다. 참여자 B는 친구들의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때문에 친구들이 놀리는 상황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같이 이주국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내던져진 참여자들은 언어로 인해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전 최소한의 언어를 습득하고 선교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책이 필요함이 알 수 있었다.

“언어 쪽으로 장벽이 딱 생기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거? 말을 못하니까 물건 사는 것도 못하고, 혼자 나갈 수도 없고 버스타는 거 이런 것도 너무 무섭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D참여자)

“저는 유학 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겠지만 언어. 언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친구들의 문제라던가 그런 건 제가 무시하면 되고 제가 워낙 그런 걸 무시를 잘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애들이 놀리고 그런 거는. 언어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힌디도 그렇고, 선생님이 써서 보여줘도 모르고.” (B참여자)

## 4. 중재조건

### 1) 학업수행 능력을 지원

타 문화권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각국의 학교에서는 나름의 방식으로 최대한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따라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었다. 참여자는 차별이라고 표현했지만, 인도 선생님의 배려를 통해 현지 적응능력을 보다 빨리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F 참여자의 학교는 외국인에게 해당 국가의 언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학생의 적응을 도왔다. 또한, 참여자 A의 학교 선생님들도 외국인 학생들을 특별히 대해주시며 그들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도왔다. 이처럼 선교사 자녀들은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학교와 교



사의 지원 때문에 학업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

“별거는 없고 따갈로어(필리핀 현지언어) 시험 볼 때 필리핀 애들은 질문이 따갈로 어거든요? 근데 저나 외국인들한테는 질문을 영어로 해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배려 되는 것 같아요.” (F참여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4학년까지 특별히 대해줬어요. 1학년 때는 못 알아듣고 그냥 앉아 있다가 멍 때리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했어요. 근데 선생님도 아니까 아무 말 안하셨고, 2학년 때부터 좀 봐주고 3학년 때까지도 봐주고 4학년부턴 좀 따라가고, 그럴 수 있게 봐주셨어요.” (A참여자)

## 2) 매사에 수용적 태도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지만, 자신들이 이주국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태도가 변화된다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어차피 살아가야 한다면 자신이 변화되어야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인지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G 참여자는 필리핀에서 한국에서보다 쉽게 언어를 터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 참여자 B는 낯선 외국인들을 향해 말도 걸어주고 친근하게 다가와 주는 인도 현지 학생들과 더욱더 친하게 지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현지 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이는 자신감으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제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쉽게 못 배웠을 것 같은데 내가 벌써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약간 자부심이 생겼어요.” (G참여자)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좀 큰 학교거든요. 옮기는데 애들이 한 번 더 놀리더라고요. 근데 그 때는 좀 영어를 알고 힌디를 알았으니까 이젠 이런 식으로도 놀리는구나 생각도 하고.” (B참여자)

## 5. 상호작용

### 1) 부모의 지지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지지를 보내듯이 선교사 부모들도 자녀들이

낮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낮선 환경에서의 적응은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학령기 아이들에게도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자녀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선교사 부모들은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참여자 C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매일 도시락을 준비해주어 이주국의 음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식을 위해 노력하였고 참여자 G의 부모님은 한국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한국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공부를 아이와 함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선교사 자녀들은 다른 유학생들과 다르게 부모들의 지지와 지원으로 이주국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일 것이다.

“저는 매운 것도 안 좋아해서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도 안 먹고 그래서 그게 힘들었어요. 입에 맞는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저랑 웬만하면 다 친해서 조금 달라고 하면 조금주고. 정말 너무 굶어서 엄마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반찬을 하나 해주셨어요.” (C참여자)

“영어 배우는 것은 시간 지나가면서 익혀지는데 한국 수학이 힘들었어요. 엄마가 한국 수학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필리핀 수학은 배운 거니까 한국 수학을 배우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G참여자)

## 2) 먼저 다가온 친구들

대부분 청소년기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은 친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은 물론 이주국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들에게 친구들은 나쁜 친구보다 좋은 친구들이 더 많아 이들이 낮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참여자 D의 친구들은 순수한 모습 그대로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친구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기도 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였다. 참여자 B의 친구들 또한 먼저 다가와 쥐서 같이 놀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친구들의 배려는 참여자들이 유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들과의 관계 형성은 이들의 유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구들이 다 착해가지고 애들이 순박하다 그래야 되나? 순박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잘해줬어요. 애들이 조선말을 잘 못쓰고 중국말만 좀 하고 그러는데 저랑은 아예 소통이 잘 안되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가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말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처럼 저한테 시도를 하고 그랬어요.” (D참여자)

“저는 친구를 사귀었다는 개념보단 친구가 저한테 먼저 다가와 줬어요. 신기하니

까. 매일 데리고 나가서 놀자고 하고. 좋은 것이라기 보단 신기하니까 그냥 같이 나가서 놀자? 같이 뭔가를 하지는 그런 게 있었죠.” (B참여자)

### 3) 적응하기 위한 노력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노력했는지는 또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선교사 자녀들은 현지 적응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이를 수행하였다. 먼저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위해 언어습득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교사와 친구들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이 필요했다. 참여자 A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익히기 위해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 E는 현지 부족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한국의 게임을 보디랭귀지를 하면서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자 D는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실전에서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다. 이처럼 선교사 자녀들은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무던히 노력하여 현재의 위치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도에서는 과외를 많이 가요. 저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애들도 공부를 할 아이들은 좀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 학교에서 2시 반 끝나고 나서 4시 반까지 특별반도 있어요.” (A참여자)

“부족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친구들이랑 아예 대화가 안 되었어요. 근데 제가 바디랭귀지가 되게 뛰어난가 봐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서 같이 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얼음땡도 술래잡기도 하고 그랬어요.” (E참여자)

“애들과 대화가 잘 안되면 집에 와가지고 엄마에게 한국말로 어떻게 해? 하면서 종이 가져와서 적어달라고 하고. 영어로 엄마 써주고 그랬어요.” (D참여자)

## 6. 결과

### 1) 환경적응능력 향상

해외 이주를 통해 선교사 자녀들은 새로운 환경에 통합적으로 적응하면서 학교생활은 물론 현지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었다. 한국과 다른 환경에서 선교사 자녀들은 나름의 방법을 터득하고 적응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연한 적응성은 이들이 또 다른 환경에 접하

게 되어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이 살아가는 데 커다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여자 E는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참여자 C는 현지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이들의 유학생화에 적응한 결과들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었고 이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이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어나서 닭장 열어주고 오리장 열어주고, 그거를 아빠가 했거든요. 그럼 저도 같이 가서 그거 구경하고 같이 다니면서 오리 나는 거 구경하고 토끼장 가서 맨날 토끼 만지고, 소 움직이는 거 매일 소장 가서 보고 염소랑 양이랑 풀 먹는 거 보고, 풀 먹여 주고 이러면서 거기는 항상 동물이랑 놀면서 시간 보내고 또 거기 부족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E참여자)

“제가 워낙 적응을 잘해가지고 오히려 애들보다 더 잘했어요. 애들보다 조선어는 당연히 우리나라말이니까 더 잘하고, 수학도 뭐, 개네보다 잘했고, 나중에 가서 중국어는 못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더 잘했어요. 외운 걸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응용하면서 더 잘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올백을 맞았어요.” (C참여자)

## 2) 원활한 이중언어 구사

선교사 자녀들의 강점은 이중언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의 관계가 발생할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강점을 갖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한국의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이주국의 언어 이외에도 원활한 영어 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선교사 자녀들의 특성이다. 이처럼 참여자들 역시 선교지의 언어를 습득하고 원활히 구사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처음 언어를 배울 때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언어를 습득한 후에는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하였고 제 2, 제3의 언어도 습득할 기회가 되었다. D 참여자는 조선족 학교에서 한족 학교로 옮기면서 언어의 향상이 있었고, 참여자 G는 필리핀에 있으므로 한국에서보다 더 빠른 언어적 성장이 있었다고 보고한다. 참여자 B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상급반이 되면서 제2의 언어도 습득할 수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영어는 물론 현지어까지 다양한 언어를 원활히 구사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게 되었다.

“나중에 한족학교로 옮겼거든요? 옮기면서 언어는 확실히 늘었어요. 애들이 맨날 중국말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어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언어의 어려움이 없어

졌어요.” (D참여자)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우고 나니까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쉽게 못 배웠을 것 같은데 내가 벌써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 생겨요.” (G참여자)

“저희학교는 잉글리쉬 책들인데 가르치는 건 힌디어로 가르치다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배우고 인도 11학년과 12학년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B참여자)

### 3) 다양한 문화를 이해

선교사 자녀들은 처음 선교지를 통해 접하게 된 문화들을 이해하기에 어려웠지만,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다보니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 해외의 다양한 문화들은 이들에게 호기심보다 두려움이었으나 자신의 노력과 현지인들과의 생활을 통하여 이들의 문화가 왜 이렇게 형성되었는지, 왜 이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등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E의 경우 한국과는 다른 남수단의 화장실 문화를 보고 처음에 놀라기도 했지만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 F는 자신이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다양한 부분에서 본인이 괴롭기 때문에 종교에 따라 이해하게 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유학생활을 통하여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문화를 배척하기보다는 수용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남수단은 그 변기에 신발자국이 있어요. 거기 가면 표지판에 위에 올라가서 싸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싸는거다’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길가다가 마려우면 그냥 길에서 싸요. 그러다보니까 길에서 그냥 변을 보다 보니까 신발 벗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니까 그게 당연히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E참여자)

“그 나라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랑 다르다보니까 조금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하면은 끝까지 짜증만 나거든요. 좀 ‘그냥 그런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는 그런 종교니까.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고 짜증만 나고 그럼 내가 더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편한 것 같아요.” (F참여자)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선교사 자녀들의 유학 경험에서 나타난 적응과정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드러난 특성과 어려움, 지지자원 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선교사 자녀들의 해외생활 적응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선교사 자녀 7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고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과정에 따라 중심현상, 인과적조건, 맥락적조건, 중재적조건, 상호작용, 결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현상은 한국과 전혀 다른 유학생생활에서의 더 원활한 적응을 하는 것이다. 이들의 인과적 조건은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해외로 나가게 된다. 선교사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부모와 함께 선교지로 이동하여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문화 간 이동을 하며 성장한다. 이처럼 제3의 아이들은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의 문화 사이에서 제 3의 문화를 소유하게 된다(Bikos et al, 2009).

이들이 유학생생활을 적응하며 경험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는 맥락적 조건은 한국과 다른 환경에 처음 접해보면서 경험하는 것과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선교사 자녀들은 잦은 이동을 하며 익숙한 사람이나 환경 속에 잦은 이별을 경험하면서 안정감이 부족하다. 이런 잦은 이동과 이별은 대상과의 이별에서 적절한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아픔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반복경험으로 인해 선교사 자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김종성, 2001).

이들이 다른 문화에 더욱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조건은 학업수행 능력을 지원받는 것과 매사의 수용적인 태도를 스스로 지니는 것이다. 학교 입학 후 현지 학업 수준에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하여 현지 학교와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할 수 있었다. 또한, 선교사 자녀들 스스로 매사에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현지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상호작용 전략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들의 빠른 적응을 위한 부모님들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바뀐 환경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노력은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부모들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생활교육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인격교육, 바른 성서적 가치관을 지니게 해야 하는 역할을 한다(봉원영, 2013).

또 현지 친구들은 낯선 이방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으며 이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선교사 자녀들 또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이처럼 현지 학교수업의 적응을 위해 특별히 과외를 받거나 특별반 수업을 듣기도 하였고 현지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실전에서 배우는 언어 공부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현지 환경적응 능력이 향상되었다. 더불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게 되어 언어에서 느껴지는 콤플렉스가 사라졌으며 자부심도 얻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며 한국 이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문화에 대한 감수성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선교사자녀들이 해외유학생활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사 자녀들의 타문화 적응을 위해 선교단체 및 한국교회들의 심리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선교사자녀들의 현지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지에 익숙한 선교사 가족 모임을 통하여 먼저 온 선교사 자녀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선교사 자녀들을 멘토링 해준다거나 가족끼리 결연을 맺어 도와주는 등 현지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처음 접하는 국가와 현지 언어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큰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역을 가기 전 선교지의 언어를 미리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현지 학교 적응과 또래관계 형성에도 용이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교를 떠나기 전 선교지에 대한 최대한 정보와 선교지의 언어를 미리 익히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선교단체에서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육되어야 한다.

셋째,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선교를 떠나게 된다. 선교사 자녀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선교사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의 무방비함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에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자녀들의 심리적 부분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선교사 자녀들의 유학적응 경험을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선교사 자녀들의 적응에 있어 교육 및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과 지역을 더욱 세부적으로 들어가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희숙·김동선·문영주(2010). 나홀로 조기유학생의 유학적응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청소년 복지연구, 12(3), 119-142.
- 고경국·함영주(2019). 교리교육이 선교사 자녀의 신앙발달에 미치는 영향. ACTS 신학저널, 42, 119-156.
- 고효순(2003). 초등학교 학생들의 또래집단 형성과 학교생활만족도 및 학교폭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민영·강연정(2014). 선교사 자녀의 영적 안녕감, 긍정적 사고, 부모-자녀관계가 현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1), 9-35.
- 김은미(2004). 외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국인 선교사 자녀들이 타문화권에서 겪는 경험에 관한 인식. 복음과 교육, 1, 215-247.
- 김정완·문한식(2013). 스포츠 참여가 재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교육학회, 20(1), 89-105.
- 김종성(2001). 선교사 자녀교육. 선교와 현장, 6, 85-108.
- 김혜정(2016). 선교사 자녀들(MK)의 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2), 37-64.
- 김혜정·이수경(2019). 귀국청소년 선교사 자녀의 적응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26(4), 61-76.
- 남순현(2010). 중국유학생의 학년별 학교생활적응유형분석 및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정체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4(4), 977-998.
- 박은주(2018). 선교사 자녀가 겪는 정서적 혼란과 부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상담코칭연구, 9, 29-48.
- 박정은·김영주·김소현(2013). 해외 선교사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 변인 연구. 이중언어학, 51, 81-110.
- 백애경(2000). 선교사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서울에 거주하는 한국 선교사 자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봉원영(2013).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의 이해와 교육적 적용. 기독교교육정보, 38, 207-233.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윤다운(2014). 한국인 선교사 자녀의 상담요구조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다운·권경인(2015). 한국인 선교사 중고생 자녀의 상담요구조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2), 103-137.
- 이옥주(200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77-85.



- 임숙경(2006). 한국 청년 선교사자녀들의 국내적응을 위한 교육적 필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진. (2006). 선교사 자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연구: 중동지역 선교사자녀들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6(2), 69-90.
- 정미영 · 문혁준(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정진경 · 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조용성(2002). 선교사와 자녀교육.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18, 108-114.
- 지혜정 · 한유진(2018). 선교사 자녀의 적응유연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학교적응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423-431.
- 차재국(2009).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홈스쿨링의 운영에 관한 연구. 고신선교, 5, 189-228.
- 최정희 · 김정남 · 김성운(2013). 터키 거주 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모국어 숙달도에 관여하는 변인 연구. 선교신학, 34, 363-397
- 최주혜(2013). 한국 목회자 자녀의 수치심. 신학과 실천, 36, 389-415.
- 한국세계선교협의회(2020). 2019년도 선교사 파송집계. 2020년 01월.
- An, Y. B. (1984).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s variables of adjustive and maladjustive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uk University, Seoul, Korea
- Bikos, L. H., Kocheleva, J., King, D., Chang, G. C., McKenzie, A., Roenicke, C., & Eckard, K. (2009). A consensual qualitative investigation into the repatriation experiences of young adult, missionary kids. *Mental Health, Religion and Culture, 12*(7), 735-754.
- David C. Pollock, Ruth E. Van Reken. (1999). *The Third Culture Kid Experience*. Maine Yarmouth: Intercultural Press
- Elliot, D. S. (1972). *Delinquency and the school*. Washington D. C.: Youth Development and Delinquency Prevention Administration.
- Gall, M. D., Borg, W. R., & Gall, J. P. (1996). *Educational research: An introduction*. Longman Publishing.
- Gaw. K. F. (2000). Reverse culture shock in student returning from overse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83-104.
- Germain, C. B., & Gitterman, A. (1996). *The life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Advances in theory & practice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allinckrodt, B., & Leong, F. T. (1992).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1), 71-78.
- Sam, D. L., & Berry. J. W. (2006). *Introduction to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D. L. Sam & J. W. Berry(eds.), *Cambridge handbook of accutluration psycholog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roevers, M., Kraaij, V., & Garnefski, N. (2007). Goal disturbance, cognitive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o different types of stressful life ev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2), 413-423.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 York: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Ward, C., & Kennedy, A.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Special Issue: Theory and research on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

〈ABSTRACT〉

## A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the Missionary Kids to Studying Abroad

Lee, Boram · Park, Mi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daptation experiences of the Missionary kids who have study abroad experiences.

The study i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missionary kids who have studied abroad experience, and analyzed the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according to the paradigm process of grounded theory, the central phenomenon, causal conditions, contextual condition, interventional condition, interaction process, and results. According to the study, the central phenomenon is that the children of missionaries adjust to their study abroad life. As an intervening condition, teachers were considerate to improve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the field, and the Missionary kids also showed a receptive attitude and adjusted.

The interaction was with the help of parents and friends, and I tried to focus on my studies and adapt myself to the local life. As a result of these processes, the ability to adapt to the environment was improved and the acquisition of a new language. In addition, he achieved self-growth by understanding various cultures.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era of globalization, studies for psychological adaptation as well as helping physical adaptation for overseas Missionary kids should be conducted.

### Key words

Missionary Kids, Study Abroad Experience, School life, Adjustment Process, Grounded Theory

논문 투고일	2020. 10. 15
논문 심사일	2020. 11. 10
게재 확정일	2020. 11. 24

---

이보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47번길 83 205호

514lbr@naver.com

박미숙 인천 계양구 효서로 381 현대2차 215동 308호

altnr9631@naver.com



# 낭트-순천 한불 국제문화교류 사례 탐구: 순천만 콘텐츠 중심으로

전영국\*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낭트에서 개최한 한국의 봄 축제에서 순천시의 생태문화와 관련된 융합형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공연 콘텐츠를 소개한 사례를 통하여 지자체 단위의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2019년 3월부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공모 사업에 신청하기, 선정 후 준비하기 및 사업 진행 후에 후속 연계 활동을 총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심층적인 부분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 기법을 차용하여 제안서 및 보고서 등 문서와 사진, 동영상 자료 외에도 개인의 메모와 대화 자료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질적 자료의 분석을 거친 후에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천시가 기존이 구축한 낭트시와의 국제교류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봄 축제의 장에 참가함으로써 민관학 모델 기반의 문화예술에 관한 교류를 활성화시켰다. 둘째, 순천시가 전개한 2019 순천만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생태관광에 관련된 남도음식, 순천만에 관련된 동영상 및 사진 다류 등을 소개함으로써 순천시의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셋째,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의 생태문화를 대표할 만한 공연 콘텐츠로서 흑두루미 이야기를 토대로 창작한 융합형 공연 콘텐츠를 시연함으로써 프랑스인들과 교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알려진 낭트시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탐방하고 낭트 시민들과 교류함으로써 후속 교류활동에 관한 토대를 쌓는 결실을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주제어** 낭트 축제, 생태문화, 국제교류, 순천만 생태예술, 흑두루미춤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ycjun@sunchon.ac.kr

## I. 들어가며

### 1. 연구의 배경 및 맥락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문화예술에 관한 콘텐츠가 국제교류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이면을 보면 각 나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류가 많아지는 소위 세계화(이아름, 2019)라는 현상과 IT 기술의 혁신이 서로 맞물려서 문화를 매개로 하는 매력적인 이미지 창출이 한 몫을 하고 있다. 2017년에 제정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따르면 ‘국제문화교류’는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 증진 등을 통해 타 국가와 문화적 역량을 상호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을 교류의 중심에 두고 정부가 민간의 교류활동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띠고 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였던 국제교류 활동을 살펴보면 우호 또는 자매 도시를 상대로 방문을 통해 행정 및 경제와 관련된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김정수 외, 2018). 관 주도의 국제교류는 자칫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국제교류가 진행되는 한계를 떨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상대측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상호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식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호 또는 자매도시에 대하여 그 지역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배우는 가운데 상호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작업의 연장선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토대로 창의적 공연과 전시 작업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배경에서 시행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사업은 민간을 중심으로 상대측 도시와 교류하면서 지자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공연 또는 전시를 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 매우 의미있다.

이 연구는 이 사업의 공모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다양성을 토대로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류하였던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연구자는 순천시와 노리단과 협력하여 2019년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지원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순천시를 대표하는 자연환경 및 생태에 관한 생태관광 및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여 낭트시에서 개최하는 ‘한국의 봄’ 축제(이중수, 2017)에서 교류하였던 일련의 과정과 성과를 사례 연구(Yin, 2009)로 다루고자 한다.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던 동기, 지역의 탐방 및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 콘텐츠의 준비 및 공연, 혜택 등을 다룸으로써 국제교류의 사례에 대하여 현장감 있게 소개하고 향후에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자 한다.

먼저, 질적 사례 연구의 일환으로 순천시와 낭트시에 대한 교류의 배경과 맥락을 소개하고 연구자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을 소개한다. 프랑스 낭트시는 도시재생을 토대로 하여 문화예술 콘텐츠를 장기간에 걸쳐 창의적으로 개발하면서 유럽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1989년부터 2012년까지 23년간 리더십을 발휘한 장마르크 에로(Ayrault) 시장의 비전<sup>1)</sup> 아래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디자인, 건축, 미술, 음악, 무용 등)들이 모여서 조선소의 낙후된 건물과 크레인 등을 리모델링하면서 낭트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낭트 출신의 쥘베른(Jules Verne)의 소설에 나오는 상상 속의 아이디어를 각종 재질(쇠, 나무 등)로 구현하여 낭트 코끼리, 회전목마 등을 구경하는 관광객이 연 20만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거대한 코끼리와 회전목마는 쥘베른의 소설 수증기 주택(La Masion a Vapeur)과 해저 2만리(Vingt Mille Lieues sous les Mers)에서 각각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낭트시와 순천시의 문화교류에 정원이 매개 역할을 하였다. 낭트시는 녹색정책을 꾸준히 펼치면서 한국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순천시가 자원하여 2006년경부터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낭트시의 공원 안에 한국의 정원이 조성되었으며 그 이후로 낭트시는 매년 9월에 낭트-코레안 협회와 함께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한국 음식 소개 및 베틀시장 등을 열고 문화행사를 하게 되었다.

그 화답으로 낭트시는 순천만습지공원 안에 낭트의 전통 목선인 빨래배를 설치하였으며<sup>2)</sup> 순천만국가정원 안에 프랑스 정원을 조성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또한 2018년에는 낭트보자르미술대학의 아시아 분교를 순천만정원 안에 설립하는 등 활발한 상호교류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봄에 낭트보자르미술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2차에 걸쳐 약 한 달씩 머물면서 순천 인근의 지역을 탐방하고 역사문화에 대하여 자료 수집을 한 후에 포착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그림, 사진, 설치미술 등의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일종의 프로젝트 기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순천대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연구자는 그들이 추진하였던 작품과 미술 전시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프랑스 낭트시에 대한 교류의 필요성과 축제에 대한 호기심을 더 느끼게 되었다.

1) 1989년에 당선된 에로 시장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국제물류센터를 짓는 낭트섬 재개발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낭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산업 유산들을 보존하는 일이 낭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 비전을 가지고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정책을 구사하여 유럽의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성과를 내었다.

2) 낭트의 빨래배 참고, <https://scbay.suncheon.go.kr/wetland/information/0003/0004/>.

## 2. 관련 연구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우호 또는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 비즈니스,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실적을 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시정의 행정 인력간의 상호 교류 및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체와의 네트워크 결성을 통한 교류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부속 행사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겸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이정주, 최외출, 김한양, 2013). 국제교류 활동은 개인차원에서 타문화 이해와 교류를 통하여 창조적인 자극을 얻게 되며 더 나아가 사회, 국가차원으로 확장되어 문화적 발전을 성취하는 등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박신의, 2012).

그 중에서 문화도시 개발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제문화교류를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한국문화원을 활용한 문화외교에 관한 연구(김중찬, 2015)와 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연구(김세미, 2016; 이종수, 2017), 한류를 연계한 문화협력(박신의, 2012),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국제교류 정책에 대한 조망(정종원, 2016)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많은 부분을 각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 단체, 문화예술 관련기관들이 직접 교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해 왔다. 이것은 국가 또는 중앙정부부처가 국제문화교류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국제문화교류의 정책적인 방향 설정과 한류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큰 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제공하였다.

그에 비하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지자체와 민간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김정수 외, 2018). 그 결과 2018년부터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의 제공과 더불어 우수 지자체의 경우에 차년도에 후속 지원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지자체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일회성의 공연을 지양하고 상대측 지자체와 함께 문화예술 활동 또는 축제에 관한 협력적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모델을 뒷받침해 주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을 제공하고 있었다.

문화예술 활동의 교류에 관하여 협력 프로젝트를 새로이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의 축제(예, 아비뇽 페스티벌)와 연계하여 교류를 하는 일종의 플랫폼 개발과 연관시키는 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류정아, 2011).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주므로 한류의 흐름과 맞물려서 축제(예, 아비뇽 페스티벌)



의 참가하여 상대측 시민 또는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모델은 상당한 장점과 매력을 지니고 있다(류정아, 2011). 이 경우에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서애영, 2015).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교류 활동은 크게 전통예술과 기타 예술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전통예술이 갖는 고유성과 희소성을 바탕으로 일회성의 공연을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국제문화교류에서 전통공연예술의 시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감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 춤교류 활동에 나타난 한국무용 공연의 양상을 보면 개인무용단은 전통성과 민속성이 나타난 전통무용을 선호하고 유럽지역의 세계민속무용축제에 주로 참가하는 반면에 단체무용단은 문화교류의 목적을 통해 전통성을 강조하기보다 국가 간 융합할 수 있는 창작무용을 하는 공연이 많았다(고경희·정재환, 2017).

선행 연구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지방정부의 국제문화교류의 사례 제시는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하여 과정과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함의나 학술적 고찰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문화교류 대상지를 선택했는지,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교류 내용을 진행하였으며 후속 교류 활동 등에 관한 사례를 탐구함으로써 국제문화예술 교류 활동의 방향과 의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다른 논문과 차별성이 부각된다. 또한 이들 문화교류 형태가 지자체와 민간협력 교류주체와 어떠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전영국·이아름, 2018).

## II. 연구의 절차 및 방법

### 1. 연구의 맥락 및 교류 대상 선정 과정

전라남도에 위치한 순천대학교 두루미과학예술센터는 순천만 흑두루미와 두루미 등의 생태와 스토리텔링을 주요 소재로 과학과 예술을 융합하여 아동, 청소년, 가족,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 전시, 공연을 아우르는 융복합 공연 단체이다. 또한 이 센터는 환경융합예술학과의 교수진과 협업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두루미에 관련된 과학탐구와 예술을 접목하여 융합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봄(Printemps Coreen)’ 축제는 2013년부터 매해 5~6월 낭트 축제 조직위원회와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문화에 관한 종합축제이다(이중수, 2017). 연구자는 청소년 대상 캠프 및 예술활동을 전개하던 노리단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에 부천시외 쓰레기 소각장을 재생시켜 ‘B39’로 개관한 이후에 진행된 미디어아트 워크숍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매핑 워크숍에도 참석하는 등 교류를 하면서 낭트시의 ‘한국의 봄’ 축제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순천시와 교류하고 있는 여러 도시 중에서 낭트시를 교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도시재생의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로 부각한 측면이 크게 작용되었다. 지난 2006년과 2009년, 한불수교 120년 기념으로 낭트와 순천시는 양 도시에 상호 풍경을 재현한 정원을 조성한 것을 계기로 교류의 싹을 틔웠다. 낭트시는 1970-80년대에 걸쳐 도시의 경제를 떠맡고 있던 조선업의 쇠락을 겪고, 성공적인 도시 재생으로 현재는 프랑스를 넘어 유럽의 대표적인 창조문화도시, 유럽의 녹색수도로 부활하였다. 순천시에서 볼 때 그 간의 교류 주제들을 다시 정립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환경수도인 낭트와 생태 기반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협업을 본격적이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순천시의 생태문화와 관광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 산업의 글로벌화와 관광객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가치가 높다는 전망을 갖게 되었다.

## 2. 연구참여자로써의 축제 연행자

연구제안서는 제출 후에 발표 평가를 거쳐 2019년 4월 중순경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후에 프랑스 낭트의 축제측과 노리단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프로그램 선정과 인원 등을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다. 순천 컨퍼런스 와 공연 콘텐츠 개발과 진행을 위한 팀원의 구성은 순천만 생태와 흑두루미에 관한 문화예술 및 음식에 조예가 깊은 지역민들 중에서 물색하였다. 순천시 문화예술과의 팀장 1인을 비롯하여 두루미과학예술센터장인 연구자가 연극 배우 2인, 무용가 2인, 국악연주가 2인, 흑두루미 스토리와 관련된 그림 및 조명 담당 각 1인 외에 요리사 2인을 섭외하였다. 이와 별도로 광주에서 활동하는 옷칠 공예가 1인이 합류하였다.

낭트시를 방문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발대는 2019년 5월 14일에 낭트에 도착하여 개막식 케이터링(음식) 준비를 하였으며 낭트국제교류센터인 코스모폴리스 내부에 홍보책자 등 부스를 설치하였고 공연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튿날인 15일에 후

발대가 도착하여 현지에서 공연 리허설과 음식 만들기에 협력하는 한편 현지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16일에 열린 개막식에 케이터링을 제공하였으며 17일부터 18일까지 코스모폴리스에서 순천 컨퍼런스를 열고 발표 및 공연을 각각 2회 개최하였다. 그리고 낭트 시청에서 음식 및 공예 워크숍을 별도로 이어나갔다. 그 외에 약간의 여유 시간에 낭트 시내의 도시재생 관련 명소를 방문하면서 낭트의 시민과 예술가들과 교류하였다.

사례 연구로 일환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참여자는 순천시에서 파견되는 순천 컨퍼런스의 발표자 및 공연단원들로 한정하였다. 그 외의 협력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노리단, 낭트의 축제 관련자 등의 활동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의 봄 축제 기간 중 2019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순천 컨퍼런스에서 수행한 음식 만들기 워크숍, 순천만 스토리텔링 발표 및 공연 프로그램에 한정되는 사례이다.

###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면담과 기타 질적 자료를 혼합하여 서로 보완하는 연구 방법을 도입하였다(전영국·이아름, 2018). 사례 연구 기법(Yin, 2009)을 차용하여 제안서 및 보고서 등 문서와 사진, 동영상 자료 외에도 개인의 메모와 대화 자료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 내내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면서 작성한 메모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 평가자의 관점에서 수행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평가단이 제출한 서술식 총평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환경융합예술학과 교수진)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 전반에 대한 검토 회의(2019년 6월) 및 연구참여자와 내부 검토 회의(2019년 7월)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개인별 면담을 실시(2020년 10월 3일~11일)한 자료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외에도 내부자적 관점에서 행사 진행시 기억하였다가 메모한 자료와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검토하여 국제문화교류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창의적 활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상적인 부분을 참고하였다.

자료 분석은 중간 및 최종 보고서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평가 하위 요소에 따라 부여된 점수 및 서술식 결과를 반성적으로 고찰하면서 내부자적 관점에서 국제문화교류의 성과 외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탐색하고 해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통합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의 결과를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문가 1인에게 요청하여 구성원 검토를 마쳤다. 최종적으로 드러난 해석의 결과에 따라 사례 제시 형태로 글쓰기를 하였으며 독자들이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활동 전개와 특징을 포착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III. 국제교류의 사전 준비

#### 1. 목적 및 추진 방향

이 사례는 ‘2019년 순천시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순천만의 생태 자원과 문화를 주제로 하는 공연예술, 관광 등의 분야에서 프랑스간의 상호 문화(예술, 관광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컨퍼런스를 열고 융복합 공연을 시행하는 등의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만의 습지공원과 대표적인 깃대종인 흑두루미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생태문화, 예술, 관광을 겸하여 공연단원과 낭트시의 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 및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자 계획을 세웠다. 또한 낭트시 한국의 봄 축제 협회가 구축한 예술가-창제작자-생태전문가-시민 등과 실질적인 문화교류를 통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두루미 관련 예술문화 콘텐츠를 확산하고 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유입 효과를 기대하였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순천시 문화관광국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의 두루미과학예술센터 및 노리단과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2019년 제7회로 운영 중인 낭트시의 ‘한국의 봄’ 축제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노리단>과 프랑스 낭트 현지인들로 구성된 <한국의 봄 협회> 등 전문가 그룹과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sup>3)</sup>.

#### 1) 순천 컨퍼런스 준비

생태문화관광 중심의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순천 컨퍼런스에 참가할 주요 영역을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봄’ 축제를 공동으로 기획하였던 노리단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순천시의 우수한 콘텐츠를 포함하되 낭트시의 축제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낭트 축제측은 한국문화에 관한 음악 공연, 전시를 기본으로 하면서 무용 퍼포먼스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었으며 그 외 낭트 시민들이 참가할 수

3) 낭트 한국의 봄 축제 개최의 현황과 내용에 대하여 류효봉의 2019년 문화관광 웹진 10월호 글 “밖에서 안을 보는 것, 안에서 밖을 보는 것” 참고 바람.

있는 워크숍 개최, 프랑스 예술가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 등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였다. 또한 개막식에서 한국의 음식을 선보이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에 순천시의 콘텐츠로서 남도음식, 순천만의 생태문화관광을 주제로 하는 사진/영상 콘텐츠, 순천만 흑두루미를 주제로 하는 무용 및 스토리텔링 퍼포먼스 등을 준비하였다. 낭트시의 공연 장소를 고려하여 대금을 비롯한 국악 연주가를 섭외하였으며 그 외에 지역에서 순천만과 흑두루미 보전에 대한 노력과 공감을 많이 해 왔던 전문가들을 섭외하였다. 대금 연주가와 다도를 겸한 요리는 이미 2006년도에 낭트에서 국제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공연과 차 시연을 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먼저 순천만의 생태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림 콘텐츠 제작과 사진, 영상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순천시의 협조를 얻어서 준비하였다.<sup>4)</sup> 그리고 남도음식의 메뉴 중에서 축제의 개막식에 사용될 간단한 남도음식을 선정하여 재료의 구입과 워크숍에 사용될 레시피 등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순천만 컨퍼런스 행사 관련 팸플릿을 국문과 불어로 제작하였다.



[그림 1] 순천시 생태관광 홍보 불어 동영상 및 리플릿

## 2) 공연 콘텐츠 준비

흑두루미에 관련된 지역의 두리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TV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실제 인물(수의사, 순천만 지역민 등)과 공연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무용수, 연극배우 등을 섭외하였다. 다리를 다친 흑두루미가 12년 동안 초등학교의 닭장 속에서 갇혀 있다가 발견된 이후로 자연방사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수의사는 순천만 보전에도 많은 활약을 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개발 위기에 처했던 순천만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과정에서 흑두루미 두리 프로젝트는 철새와 자연환경에 대하여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4) <https://www.youtube.com/watch?v=ZGpygILWVsE> (순천만 홍보 영상 - 불어).



[그림 2] 흑두루미 두리의 실화에 관한 다큐멘터리 개요 (자료 제작 및 발표: 김영대)

이런 배경을 토대로 연구자와 연극 배우가 협력하여 흑두루미 공연 콘텐츠에 대한 대본을 작성하였으며 참가자 중 교사가 전체 줄거리를 그림책 형태로 준비하였다. 낭트 축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던 미라 보테즈는 한글 지문을 불어로 섬세하게 번역하여 보내 주었으며 순천 컨퍼런스에서 불어 통역까지 맡아서 해 주었다.



[그림 3] 흑두루미 두리 이야기에 관한 소개 (그림: 연규형)

국제 공연인 점을 고려하여 흑두루미 두리에 관한 세세한 표현을 하기보다 두루미의 사계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구성과 안무를 기획하였다. 공연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다.

- 1막: 봄을 기다리는 시베리아의 흑두루미 (국악연주) 알을 품은 흑두루미가 드디어 부화 (이야기꾼 배우 등장)
- 2막: 새끼 흑두루미의 여름나기, 새끼흑두루미의 작은 날개 깃을 시작으로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장면, 새끼흑두루미와 다른 무리의 두루미가 어우러지며 엮이는 움직임 표현
- 3막: 순천만의 가을, 스산한 가을 들녘, 가을걷이 끝낸 순천만 들녘 위 하늘을 무대로 수십만 철새들의 아름다운 군무. 그러나 다리를 다쳐 쓰러진 흑두루미의 고난을 표현
- 4막: 아듀! 겨울의 순천만. 인간의 관심과 노력으로 고난을 딛고 일어서 드디어 비상하게 되는 흑두루미 두리가 자연과 환경, 인간이 공존함을 표현함

아래 사진을 보면 봄에 두루미가 시베리아에서 짝짓기 이후에 알을 낳고 새끼가 태어나서 약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을에 순천만으로 날아온 흑두루미가 길을 잃고 힘들어 하다가 점차 사람의 도움으로 회복하여 날아간다는 안무를 구성하였다. 두 명의 배우

가 언어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몸짓과 표정으로 내용을 전달하도록 일종의 무용극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순천 흑두루미 공연팀의 리허설 장면 (사진: 서근석)

## IV. 국제문화교류 실행

### 1. 축제의 장에서 교류하다

#### 1) 한국의 봄 축제 개막 및 순천 컨퍼런스 개최

한국의 봄 축제 개막은 코스모폴리스 안에서 열렸다. 낭트 시민들은 홍보 자료를 보고 찾아와서 간간이 전시회장을 둘러보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었다. 순천 참가자들이 준비한 한국음식과 새 모양의 튀김과자를 비롯하여 김밥, 잡채 등을 케이터링 방식으로 제공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낭트시 관계자 외에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파리 지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거문고, 첼로 및 전통무용 등의 콜라보 공연으로 개막을 알렸다.



[그림 5] 한국의 봄 축제 포스터 및 개막식 광경 (사진: 서근석)

이튿날부터 순천 컨퍼런스가 시작되면서 한국 참가자들은 생태수도인 순천시를 널리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순천 방문의 해에 대한 소개 자료를 동영상 및 팸플릿으로

준비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는 관광공사 파리 지사에서 나온 직원들과 함께 낭트 시민들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 자원과 순천만 습지의 생태관광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S 사진 작가는 순천만습지가 있는 마을에 사는 원주민이며 지역의 생태사진가로 활동하면서 있다. 매년 흑두루미는 10월20일경 따뜻한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며 이듬해 3월말까지 순천만 갯벌과 농경지를 오가며 겨울을 보낸다. 그는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부터 밤의 잠자리까지 흑두루미의 일상을 15년째 사진으로 담아오고 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엄선한 사진을 슬라이드 영상으로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림 6] 한국의 봄 축제에서 순천 컨퍼런스 진행 (사진: Anizon)

이어서 연구자는 컴퓨터를 전공하는 대학교수로서 흑두루미춤을 추게 된 동기와 과정에 대하여 발표하였다(전영국, 2020). 그는 순천만 습지를 찾는 흑두루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서 지역의 학생들과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흑두루미춤을 창작하여 공연하게 된 여정을 생태문화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7] 순천만 흑두루미 사진 작품 발표-가을과 겨울 (사진: 서근석)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기술교사 Y는 생태환경에 무관심하였던 한 대학교수가 점차 반대의 길로 가게 되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마치 새로운 생명의 악동을 느꼈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12년을 닭장 속에서 보낸 두리가 새로운 날개짓으로 비상하는 듯한 감정을 <너 그럴 때면...> 노래에 담아 불렀다.





[그림 8] 흑두루미 이야기와 춤꾼에 관한 스토리텔링 (그림/노래: 연구형)

### 3) 흑두루미춤 퍼포먼스 공연

이 공연 콘텐츠는 순천만의 흑두루미 두리의 이야기를 토대로 영상, 인형 놀이와 흑두루미 창작춤을 혼합한 마당놀이 형태의 퍼포먼스 공연으로 창작되었다. 흑두루미춤 퍼포먼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도깨비들이 신명나는 가락에 맞춰 노래하며 등장한다. 흑두루미 둥지를 발견한 도깨비들. 그들의 임무는 흑두루미 알을 둥지에 놓아두는 일이다. 하지만 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매우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러던 중 머지않은 곳에서 알을 찾게 된다. 도깨비들이 알을 둥지에 놓아놓자 저 멀리에서 흑두루미 한 마리가 알을 품기 위해 등장한다. 흑두루미는 천적의 공격에도 알을 지켜내며 알이 부화하기만을 기다린다. 드디어 알은 부화하고 어린흑두루미와 춤을 추며 즐거운 때를 보낸다.

어느덧 흑두루미는 성장해 순천만을 향해 날아온다. 긴 여정이라 지칠 대로 지친 흑두루미. 힘들어 하던 흑두루미는 순천만의 아름다움과 호기심으로 신이나 다시 날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행복도 잠시 흑두루미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쓰러지고 만다.

잠시 후 쓰러져 있는 흑두루미를 발견한 도깨비들. 흑두루미를 억압했던 것들을 풀어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금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힘을 얻은 흑두루미는 높게 날개를 펴고 다시 날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람들과 이별하며 순천만을 떠나 시베리아로 향한다.



[그림 9] 대금 연주와 흑두루미 창작 퍼포먼스의 일부 (사진: 서근석)

이 공연은 순천만 흑두루미 춤과 인형놀이를 겸한 융합형 공연으로서 순천만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흑두루미 두리 이야기(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독창성이 있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먼저 순천만의 사진, 그림책 이야기의 소개에 이어 배우의 안내에 따라 관객 참여형 방식으로 무용 퍼포먼스를 하였다. 공연 후에 관객들은 순천만의 생태문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공연단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10] 흑두루미 창작춤 퍼포먼스의 일부 (사진: 서근석)

#### 4) 워크숍 진행 및 낭트시 탐방을 통한 교류

이번 축제에서 진행한 워크숍은 한국음식 만들기와 공예 워크숍(탈 만들기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먼저 두 명의 담당자가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 온 식재료에다 현지 시장에서 구입한 부재료를 사용하여 낭트 시청에서 제공한 조리실에서 시청 소속의 셰프들과 함께 한국 음식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순천 참가자들이 귀국(2019년 5월 18일)한 이후에 또 다른 워크숍에서 광주 출신의 공예 예술가가 한국의 탈 만들기를 진행하여 낭트 시민들로부터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체험하는 즐거운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그림 11] 낭트 시민과 함께 진행한 음식 아틀리에 워크숍 (사진: 서근석)

순천 컨퍼런스 외의 여유 시간에 참가자들은 낭트시가 그동안 추구해 온 도시재생 관련 명소를 탐방하였다. 낭트 '한국의 봄' 축제 관계자들이 미리 준비해 둔 일정에 따라 제철소에서 사용하던 대형 크레인(crane)을 비롯하여 루와르 강변에서 원형의 조명등을 겸한 재생 설치 작품과 바나나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비즈니스 구역 등을 방문하였다. 문

화탐방지의 마지막 코스는 그랑볼로트로 공원 안에 자리잡은 한국의 정원이다. 한국의 산천과 풍경을 재현한 ‘순천동산’은 순천시가 후원하여 한옥 기술자가 직접 체류하면서 2006년 9월에 완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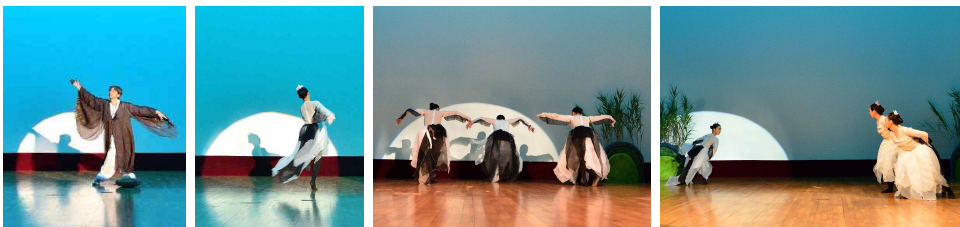


[그림 12] 낭트시 도시재생 시설 및 낭트시 순천 정원 탐방 (사진: 전영국)

## 2. 후속 교류 활동

### 1) 중간 점검 및 8월 후속 공연

순천시의 문화예술과 팀장을 비롯하여 두루미과학예술센터 주축의 문화예술 참가자들은 낭트시에서 진행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검토(2019년 6월 4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중간 점검(6월 14일)을 실시하였다. 순천 공연단의 내용이 생태환경과 관련된 풍부한 스토리를 갖고 있어 새로운 작품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공연예술 퍼포먼스에 대한 보완점을 지적 받아서 공연장에서의 연출 및 음악, 무용, 조명을 보완하였다. 그 이후 8월 18일에 생태 관련 국제학술회 개막식에서 순천 시민과 학술회 참가자들 대상으로 후속 공연을 진행하였다.



[그림 13] 후속 교류 활동 - 순천대학교 우석홀 공연 (사진: 서근석)

흑두루미 두리의 이야기를 좀 더 확장시켜 두리와 주변 생태, 다른 흑두루미 무리들과의 교감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무용수를 추가하였으며 조명과 국악 악기(해금, 아

쟁, 건반 등)를 보강하였다. 어린 두리의 등장에 이어서 경쾌한 춤동작과 역경에 처한 두리가 새 장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순천만에 방사된 이후에 견제하는 흑두루미 무리와 대립하고 충돌하다 서로 마음을 열고 화합의 춤으로 마무리 하였다.

## 2) 그림책 발간

낭트시에서 개최한 한국의 봄 축제에 참가하면서 현지 예술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교감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그 중에 하나는 프랑스에서 공연하는 한국 전통 내지 창작 물에 대하여 기록과 비평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 전통 공연을 중국의 아류로 인식한다는 현지 한국인의 날카로운 지적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공연의 주제와 구성, 비평에 관한 글을 현지어인 프랑스로 출판해야 한국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말은 귀국 후에도 내내 귓가를 맴돌았다. 마침내 연구지는 순천 컨퍼런스에서 발표용으로 사용하였던 그림책인 <어설픈 춤꾼>을 원저자와 협의 끝에 한국어 외에 영어와 불어로 번역하여 정식 출판하였다. 10월 중순에 순천시에 개최되었던 유네스코 습지도 시 네트워크에 참가하였던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의 지자체 시장 일행들에게 영어 및 불어판 그림책을 나누어줌으로써 국제문화교류의 후속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림 14] 불어판 그림책 LE DANSEUR MODESTE 발간 (그림: 연규형)

## 2.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관한 전반적 평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주관 하에 순천시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토대로 순천대학교의 두루미과학예술센터 및 노리단이 협력함으로써 타 지자체와 달리 민관학 모델 기반의 국제교류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의 봄(Printemps Coreen)' 축제 담당자와 노리단이 이끄는 민간 주도의 축제에 순천시의 생태문화를 표방하는 스토리 및 공연 콘텐츠를 가지고 참가함으로써 국제교류의 성과를 거두었다. 프랑스의 협력 기관은 낭트 한국의 봄 협회,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파리 지부, 낭트시 녹지관리국을 포함하였다.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에서 인지도가 높은 시민 위주의 낭트 <제7회 한국의 봄> 축제와 연계하여 순천의 생태관광과 관련된 컨퍼런스, 전시, 공연 및 워크숍, 남도 음식 케이터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순천 문화예술을 대규모로 홍보하고 순천의 우수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낭트시의 한국의 봄 행사 조직 위, 주 프랑스문화원, 파리관광공사와의 업무협력 및 홍보협조를 통해 순천의 생태문화 콘텐츠를 확산 하는데 기여하였다.

낭트시 한국의 봄 축제 참가자, 현지 프랑스 관객 및 파리 거주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순천 생태 콘텐츠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에 대하여 현지에서 대담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흑두루미 스토리를 통하여 순천만의 생태관광과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남도 음식 워크숍과 순천만의 생태환경에 대한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교류를 희망하였다.

Denis(프랑스 미술가): “흑두루미의 의상이 멋졌으며 한국 음악에 맞추어 춘 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Marine(프랑스 관객): “통역 없이 춤 동작만 보아도 무엇을 표현 할려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순천만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서 감동적이었어요.”

프랑스 주부: “아이들과 함께 보았는데요 아이들도 무척 공연을 좋아 하였구요. 한국적인 내용과 두루미 퍼포먼스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잘 전달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국의 봄’ 축제 행사에서 진행하였던 순천 컨퍼런스는 생태관광을 주제로 다루면서 ‘두루미’라는 자연적 아이টে을 지역적 환경과 결부지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만들고자 하는 대안적인 현대 예술 프로그램을 제시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생태환경과 관련된 콘텐츠로 스토리텔링 및 미디어, IT 등 다양하게 확장 가능한 융복합 콘텐츠이다. 또한 두루미라는 철새가 생태환경의 질을 가늠하는 멸종위기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관련된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수준의 콘텐츠로 확산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형성평가의 결과 순천시의 역할이 더 긴밀하게 보완되어야 하며 낭트 현지의 한국의 봄 협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낭트시 현지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에 순천시가 현지 기관(낭트의 봄 축제 협회)과의 사업 기획, 추진, 홍보 등 단계별 역할을 분담하여 한불 교류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민관학의 모델을 도입하여 순천시의 우수한 생태문화 및 관광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낭트시의 ‘한국의 봄’ 축제(이종수, 2017)에서 발표 및 공연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토대로 상호 이해를 해 나가는 데 기여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낭트시민들은 순천만의 생태문화에 대한 스토리와 공연을 감상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재발 한국인 및 프랑스 예술가 외에 입양아 가족 등과 자연스레 만남의 장을 가지는 등 교류의 혜택을 얻게 되었다. 관람객들 중 프랑스 고등학생들과 입양아 가족 등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생태환경에 관한 창작 콘텐츠를 감상함으로써 다문화 다양성에 관한 교육적 가치(전영국·이아름, 2018; 정석원·정진철, 2012)를 향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하여 공연에 사용되었던 스토리를 한국어 외에 영어 및 불어로 번역하여 그림책으로 발간하는 등 기록물의 확산에도 기여하였다(김중찬, 2015).

2019년에 시행된 낭트시 한국의 봄 축제는 무용 프로그램에 비중을 많이 두면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알리는 특성과 내용을 반영하였다. 창작 무용의 관점에서 보면 순천시는 전통 음악을 사용하면서 연극적 요소와 스토리텔링을 융합한 창작춤 공연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무용 분야의 국제교류 프로그램(고경희, 정재환, 2017)과 차별화 된다. 또한 프랑스 내에서 순천만 고유의 생태에 관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시연함으로써 프랑스의 다른 도시(예, 아미앵)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순천-낭트시 국제교류의 경우에 문화예술 담당자의 인식 변화, 국제교류 전담 부서와의 협조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주·최외출·김한양, 2013, p44).

전반적으로 순천시는 민관학 차원에서 낭트시가 가진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 퍼포먼스 등의 교육 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창작 활동과 교류가 서로 맞물리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 결과 연구자는 2020년 1월에 낭트시의 습지를 방문하여 생태교육문화관광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제문화교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문화교류의 유형이 일회성보다 지속적인 활동의 양상을 띠면서 기존의 콘텐츠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적 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작하는 경우에 시간과 노력 등이 더 들어가는 점을 고려한 사업의 유연한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2023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순천시는 생태도시로서의 전략적 토대 위에서 낭트시와

교류하면서 생태관광 및 문화예술 기반의 융복합 콘텐츠를 창작하고 전시 및 공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 셋째, 국제문화교류의 과정과 공연 콘텐츠에 대하여 기록물로 남기고 타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한류의 정책과 KOFICE 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발전적인 체계를 구축하기를 제안한다.

이 사업은 민관학 모델을 토대로 낭트시의 창의적인 축제 플랫폼을 활용하여 순천시의 우수한 생태문화 콘텐츠를 프랑스에 소개하고 낭트시의 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낭트시 출생의 공상 소설가인 쥘베른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순천만 갈대를 이용하여 왜가리(황새, 두루미 등)을 주제로 하는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전영국, 2016)을 개발하거나 한불 예술가들이 협업하는 창작 아틀리에를 진행해 보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향후에 순천시는 유럽의 문화도시(김세미, 2016)로 거듭난 낭트시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생태 관련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순천시민들에게 환류함으로써 문화도시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순천시는 2020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서애영, 2015)를 차년도로 연기한 상황에 놓여있다. 아마도 이 논문에서 다룬 사례가 동아시아권역에서 자연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융복합형 문화예술 콘텐츠로 교류하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의 후속으로 민관학 모델에 해당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의 본질적 측면을 탐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경희·정재환(2017). 국제 춤교류 활동에 나타난 한국무용 공연 특성 분석. 한국스포츠학회지, 15(4), 229-237.
- 김세미(2016). 유럽 문화도시 환경조성에서 나타난 국제문화교류 거버넌스 연구: 2008 리버풀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ECoC) 사례. 다문화사회연구, 9(1), 127-164.
- 김정수 외(2018). 한류와 문화정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김중찬(2015). 한류문화 확대를 위한 해외한국문화원 활용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정아(2011). 공연예술축제를 구성하는 “예술성”과 “축제성”의 특성 분석 -아비뇽 페스티벌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22, 253-285.
- 박신의(2012). 한류글로벌 팬덤현상을 통해 본 문화소통 및 교류의 전망. 문화예술경영, 2, 23-37.
- 서애영(2015). 지역커뮤니티를 통한 한·중 문화예술교류의 발전적 방안연구: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에 의한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아름(2019).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주·최외출·김한양(201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 분석: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25-48.
- 이종수(2017). 한국문화 해외홍보의 새로운 실험- 주프랑스 한국 문화원의 <낭트시 ‘한국의 봄’ 축제> 사례 연구 -. 프랑스문화예술연구, 62, 307-332.
- 전영국(2016). APEC 에듀테인먼트 교류 기반의 필리핀 다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적용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5), 561-574.
- \_\_\_\_\_ (2020). 흑두루미춤 창작 동기, 과정 및 공연에 관한 자전적 사례 탐구. 무용역사기록학, 57, 167-191.
- 전영국·이아름(2018). 다문화 글로벌브릿지 체험 학습용 STEAM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형성 평가. 교육문화연구, 24(1), 527-547.
- 정석원·정진철 (2012). 청소년의 다문화 교육경험과 사회적 친밀감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5(1), 51-68.
- 정종원(2016).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정책의 현황 분석 및 방향 모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39, 131-161.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신경식·서아영 역(2011). 사례 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ABSTRACT〉

**Exploring the Case of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Nantes and Suncheon:  
Focused on Suncheon Bay Contents**

Youngcook J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are the process and results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by exploring a case of eco-cultural performance contents while offering a Suncheon conference at the Printemp Coréen (Korean Spring) Festival held in Nantes. The author had tried to explore several aspects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by applying for the KOFICE project fund and providing follow-up activities since the proposal was accepted in March 2019. By borrowing case study techniques, data collection included documents such as reports, photographs, video data as well as personal memo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everal features of this case study were revealed as a successful extension of international exchanges with Nantes city based on adopting the city-university-private sector model. Second, Suncheon city's exemplar eco-tourism contents turned out to contribute to the mutual cultural understandings by exploring historical and creative places in Nantes with festival staffs. Third, the Korean delegation's successful performance for Suncheon bay contents promoted actively interacting with French people based on the story of hooded cranes as part of representative performance repertoires in Suncheon city, an ecological capital in Korea. Finally, the follow-up efforts based on formative evaluation ended up with producing the improved versions of performance and publishing picture books.

**Key words**

Nantes Festival, Eco Culture, International Exchange, Suncheon Bay Ecological Art, Hooded Crane Dance

논문 투고일	2020. 10. 18
논문 심사일	2020. 11. 04
게재 확정일	2020. 11. 18

# 공감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 연구

김윤정\*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감 프레젠테이션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정서이론, 공감 기반 설득 화법 교육 요소를 바탕으로 통합적 의사소통의 과정으로써 공감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의 교육 범주와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레젠테이션 교육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를 실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발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교사,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파워포인트 작성 교육을 담당하는 컴퓨터(정보)교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제작에 있어 디자인적 측면과 관련성이 있는 미술 교사,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마케팅 실무 담당자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관련 인식을 조사하여 전문가와 학습자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통합적 의사소통의 과정으로써 공감 프레젠테이션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설득 커뮤니케이션, 공감 프레젠테이션, 사회정서이론, 의사소통 역량, 공감 기반 설득 화법

\* 이화여자대학교 시간강사

## I. 서론

본 연구는 공감 프레젠테이션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 원리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정서이론과 공감 기반 설득 화법 교육 요소를 바탕으로 통합적 의사소통의 과정으로써 공감 프레젠테이션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프레젠테이션 교육 관련 전문가와 학습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학교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레젠테이션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이벤트로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청중에게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 표현한다는 점에서 ‘화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말할 내용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글로 정리한 후 슬라이드를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작문’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청자 자료와 같은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매체’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프레젠테이션의 목적도 다양하다. 비즈니스나 회사 업무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은 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주장하는 바를 ‘설득’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이 실행하는 프레젠테이션은 과제나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로써 ‘설명’의 목적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연이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은 ‘설명’, ‘설득’과 더불어 ‘자기 표현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의 통합적인 특성을 전제하되,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프레젠테이션 교육에 접근하고자 한다. 프레젠테이션은 그 성격이 설명적이든, 설득적이든, 자기표현적이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청중의 태도 변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 학문적인 연구가 다소 미미한 상황이다. 박준홍(201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어교육, 화법교육에서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연구 성과물(황혜진 외, 1998; 조재윤, 2004; 김미림, 2006; 나은미, 2007; 도원영, 2008; 유혜원, 2009; 백혜선 외, 2013)은 주로 발표와 결부되어 교육 내용이 협소하게 제시되고 있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과제나, 발표 수업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입사를 위한 면접시험에서도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젠테이션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직접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고, ‘발표’, ‘발표 자료 만들기’, ‘매체 자료 활용’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이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프레젠테이션의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를 하지만 정작 프레젠테이션의 내

용 구성 방식이나,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사회에 나가게 된다. 물론 초등학교 창체 시간이나 방과 후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컴퓨터 시간에 파워포인트 활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는 프로그램 사용을 익히는 기능적 측면의 교육일 뿐이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체계적 발표 내용 구성 방식, 파워포인트 디자인 선택 방법, 효과적인 도식화 방법, 언어적·비언어적 발표 전략, 청중을 고려하는 의사소통과 같은 통합적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레젠테이션은 다루는 영역에 따라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프레젠테이션 관련 국내 연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총체적인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보면서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교육으로서 프레젠테이션 교육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대학 교양 교육이나 취업 준비 교육과 연계하여 대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인식, 교육전략, 교육 내용, 평가 등을 다루고 있다(오현진, 2015; 강속희, 2016; 서수현 외, 2018; 김현주, 2018; 김윤정, 2020; 이연주·임경수, 2020). 이러한 연구들은 프레젠테이션의 실용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실제 대학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나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의사소통 역량 관점에서 보면서 발표 슬라이드 작성, 내용 구성 방식, 원고 작성 방식, 스토리텔링 방식 등을 다루기도 한다(윤경선, 2017; 김지연 2018; 정효진, 2019; 박현이, 2020).

현재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전면적으로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관련 중등학교의 연구는 복합 문식성 관련 연구(백혜선 외, 2017), 중학생 프레젠테이션 텍스트 쓰기 연구(한경숙, 2018) 이외에는 거의 없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의 확산성을 고려했을 때, 관련 교육은 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통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이 개발되고 수업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프레젠테이션의 다각적 특성을 고려하여 융합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전체 이야기의 흐름 정리, 슬라이드 내용 구성, 발표에서는 국어과 관련 교육 내용이 요구된다. 슬라이드 작성 시 필요한 배경 화면, 서체, 글자 크기, 도식화 등에 있어서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 또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기능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ICT 활용 능력도 요구된다. 그러므로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국어, 미술, 컴퓨터 영역에서의 교육 내용들이 융합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둘째, 프레젠테이션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써 청중의 태도 변화를 목표로 두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은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 설득적 말하기, 설명적 말하기, 자기 표현적 말하기의 특징을 지닐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청중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이 언어와 문자를 통해 청중에게 전달되는 통합적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청중의 태도 변화를 위한 융합 교육으로써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레젠테이션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를 실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발표를 비롯하여 통합적 의사소통 교육과 가장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어교사,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파워포인트 작성 교육을 담당하는 컴퓨터(정보) 교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제작에 있어 디자인적 측면과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술 교사,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마케팅 실무 담당자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레젠테이션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개념,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통합적 관점에서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 개발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실제적인 주체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교육 관련 인식을 조사하고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의사소통의 실제성에 기반한 프레젠테이션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전제

### 1. 의사소통 역량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역량(Communicative Competence)을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의사소통 역량은 일상생활에서 화자와 청자가 적절한 의사소통 수행을 위해 지녀야 하는 언어 문법성(grammar), 소통 적절성(appropriateness), 용인 가능성(acceptability)을 포괄하는 통합 능력이다(Hymes, 1972). 이때 핵심은 바로 타인과의 관계성인

데, 고프만(Goffman)의 견해에서 본다면 의사소통 역량은 자신과 타인의 체면을 고려하며 상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개인의 능력(ability)이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특정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며, 타인이나 스스로에 의해 언어와 비언어적 방식으로 평가받는다(Goffman, 1968). 즉 의사소통은 공공장소에서의 행위(behavior in public place), 상호적 의례(interaction ritual)로써 사회를 바라보는 총체적이며 핵심적인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역량은 개인 내적 능력과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작용까지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인지하는 통찰력(capability perceptiveness)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 사람들은 직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은 상호작용관여(interaction involvement)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상호작용관여는 한 사람이 사회환경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관여하는 정도로 다른 사람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각하며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타인 지향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관여는 지각력, 주의력, 반응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 (Cegala, et al., 1982; 강태완·장혜순, 2003).

의사소통 역량은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 참여하면서 그 범위가 확장된다. 개인 내적인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작용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역량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화자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사실이나 내용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자신의 내적 능력을 보여주는 통합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2. 공감 기반 설득 화법 교육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갈등을 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설득하며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경쟁과 협력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특정 기능이나 전략에 치우치는 교육이 아닌 의사소통의 과정을 두루 반영하며 다양하게 변경,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타인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설득의 목적이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인지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호 경쟁적이거나 이타적이 아닌 상호 교섭적, 공존,

협력적 태도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균형을 이룬 공감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강태완(2010)은 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청자의 내면적 가치, 열망, 욕구와 관련된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서, 가장 적극적 형태의 공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동일한 상태로 움직일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를 ‘동기화(motivation)’라고 하는데 이러한 파토스적인 메시지는 청자의 마음을 화자의 마음만큼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윤정(2018)에서는 ‘공감 기반 설득 화법’을 이성을 포함한 감성적 설득 방식을 활용하여 청자의 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화법으로 마음의 울림, 공동의 심적 파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화법으로 정의하였다. 즉 공감을 기반으로 한 설득 화법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타자 지향적인 관점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의 태도로 감성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공감 기반 설득 화법의 관계적 측면의 교육 내용 요소인 ‘내적 의사소통, 상대 존중, 감성적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공감 프레젠테이션의 교육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공감 기반 설득 화법의 관계적 측면의 내용 요소(김윤정, 2018)

내용 요소	특징
내적 의사소통	- 자신의 욕망과 의도를 명확하게 인식 - 스스로 설득이 되고, 타인과 외부 사회와 소통하며 자신의 의도를 접철시키는 과정 - 주체로서의 나→객체로서 나와 상호작용→통찰적 주체로서의 발전
상대 존중	- 청자를 존중과 이해의 대상,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 - 타자지향적 관점으로 상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성을 포함
감성적 상호작용	- 화자와 청자 간 이성적 부분,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함. - 상대방의 다양성을 존중 - 갈등 조절을 위해 언어활동 하는 능력 - 타인과 관계 맺기, 협력, 협상, 갈등 해결 능력 포함

### 3.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정서역량(social-emotional competence)을 증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정찬우, 2013). 사회정서학습은 정서 지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뇌과학 영역에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CASEL(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ASEL<sup>1)</sup>)에서 제시한 정의가 가장 일반적이다. 여기에서는 다섯 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기 인식’은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알고 이것



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고, '자기관리'는 여러 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 사고,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고, '사회적 인식'은 타인의 입장을 취하고 공감하는 것이며, '관계 관리'는 다른 개인 및 집단과 더불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사적 행위 및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해 생산적이고 정중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정서학습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생산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들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CASEL website). 즉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가를 포함한 '삶의 기술(skills)'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정서학습에서는 정서 지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골먼(Daniel Goleman, 1995)은 정서 지능을 '사회적 지능의 한 하위 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인식하고,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정서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자기 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관계 관리로 제시하였다. 바온(Bar-On, 2000: 37)은 정서 지능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비파괴적 방식으로 표현하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이해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기, 정서가 자신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절하기, 변화를 관리하고 개인적이고 대인 관계적 성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자기 동기부여를 위해 긍정적인 정서 표출하기를 제안하였다. 메이어(Salobey & Mayer, 1990)는 정서 지능을 사회적 지능의 한 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인식하고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프레젠테이션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 청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설득 전략뿐 아니라 감성적 설득 전략도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정서적 유능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습자들은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청자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프레젠테이션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자료 분석, 슬라이드 작성과 같은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과정으로써 사회정서학습과 연계된 사회 정서적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1) 1994년에 설립된 미국의 '학업 및 사회정서학습 협회.

###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실제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써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학습자 인식 분석 조사로 진행되었다.

#### 1. 델파이 조사

##### 1) 조사 대상자

전문가 총 45명<sup>2)</sup>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과 방법의 중요도에 대한 델파이 설문<sup>3)</sup>을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표 2〉 조사 대상자

집단	참여 인원(명)	특징
국어교육 전문가	30 (초·중·고 각 10명)	초·중·고 전·현직 교사로 토론이나 말하기, 화법 수업에 관심이 많고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
컴퓨터 교육 전문가	5	학교 현장에서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파워포인트 관련한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경력 5년 이상의 교사
미술 교육 전문가	5	학교 현장에서 미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과 관련한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경력 5년 이상의 교사
실무 관련 전문가	5	실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고 활용한 경험이 있는 광고, 홍보, 마케팅 관련 전문가

##### 2) 조사 내용과 방법

조사<sup>3)</sup>는 2020년 1월 10~11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고, 연구 대상자는 비확률적 표집 중 의도적 표집의 방식을 사용하여 모집하였다. 국어교육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본 연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표본을 선정하여 문건모집을 작성하고 문건모집에 링크를 게재하면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조

2) 델파이 기법에 필요한 전문가의 수는 최소한 10명 이상으로(Ewing, 1990), Ziglid(1996)의 연구에서는 10~15명의 소집단의 전문가만으로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45명을 대상으로 델파이를 실시하였는데, 탈락률 20~30%를 고려하더라도 31~36명을 확보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자 없이 총 45명의 자료가 모두 반영되었다.

3) 본 연구에서는 2018 연구재단 선정 과제 보고서 작성(김윤정, 2020)을 위해 실시된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사 내용 및 방법으로는 텔파이 형식으로 의사소통 역량의 개념 및 주요 특징, 프레젠테이션 교육에 관한 인식, 문제점과 보완점 등을 주관식, 객관식 문항으로 온라인 설문<sup>4)</sup>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수학습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그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온라인 설문<sup>4)</sup>은 1차 서면으로 먼저 작성 후 이를 Google 온라인 폼으로 입력하고 변환시켜 작성하였다.

조사 항목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개념, 교육 내용 중요도, 교수학습 방법 중요성, 향후 프레젠테이션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관한 내용이었다.

## 2. 학습자 인식 분석

### 1) 조사 대상자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위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화법과 작문, 실용 국어)에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실려 있으며 졸업 후 대학이나 취업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에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학습자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3〉 수업 대상 학습자 정보

학교	지역	인원	시기
고등학교	강북구	총 36명 (남:19/여:17)	2월 10일~2월 14일 (하루 2 차시씩 총 10 차시)

### 2) 조사 내용 및 방법

학습자 인식조사는 학습자들의 프레젠테이션 수업 전 사전 요구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습자들은 총 10 차시에 걸쳐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받았는데, 요구조사는 1 차시에 진행되었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인식, 개별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자가진단한 내용이 설문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은 교사 강의-개별 프레젠테이션 작성과 실습-동료 및 교사 평가의 방식으로 진행

4) <https://docs.google.com/forms/d/1A457C4mSP4HYgAyJyfVr2PmOAeonKYQIWHCqMibP2-o/edit>

되었고, 학습자들이 실시한 프레젠테이션 장면을 녹화한 것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프레젠테이션 관련 강의 듣기, 유능한 프레젠테이터 특징 분석하기, 프레젠테이션 주제에 따라 슬라이드 제작하기, 프레젠테이션 리허설, 프레젠테이션 실시 및 동료 평가, 프레젠테이션 메타 분석 실시, 평가 및 마무리 토론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방법과 양적 분석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전문가 인식조사 자료는 기술적(descriptive) 분석(Tesch, 1990)에 기반하여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주관식 항목의 내용을 전사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 주요 핵심 용어나 내용을 바탕으로 세그먼트(segment)를 파악하고 코딩하여 전문가가 생각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델파이 조사 결과

#### 1) 프레젠테이션 능력에 관한 정의

본고에서는 각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 수 있고, 이것이 프레젠테이션의 교육적 적용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내용, 방법, 능력을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 전문가별 답변

	내용(무엇을)	방법(어떻게)	능력(어떠한)
국어 전문가	- 자기 의견, 주장, 의사, 생각(13) - 지식(3)/정보 - 근거(2) - 특정 주제(3)	- 공감 - 매체·도구 활용(3) - 상대 눈높이에 맞게 - 타인이 이해할 수 있게(3) - 상황·맥락 파악(3)	- 보여주는 능력 - (효과적/명확히/간결하게/ 깔끔하게) 전달하는 능력(10) - 설명하는 능력 - 설득하는 능력(6) -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능력(3) - 자료 제작 능력(2)/기술적 능력 - 의사소통 능력/표현 능력/예의를 갖춰 표현하는 능력(2)

	내용(무엇을)	방법(어떻게)	능력(어떠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컴퓨터) 활용 능력(5)</li> <li>- 핵심 내용 선별능력</li> <li>- 말하기 능력(언어, 비언어, 반어의 포함) (3)</li> <li>-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융통성</li> <li>- 요약능력</li> <li>- 스토리텔링 능력</li> <li>- 대답 능력/-종합적 능력/-구두 발표보다 고차원적 능력</li> </ul>
컴퓨터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의견, 주장, 의사, 생각(13)</li> <li>- 지식(3)</li> <li>- 근거(2)</li> <li>- 전달하고자 하는 것, 특정 주제(3)</li> <li>-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소리 조절-지루하지 않게 상호작용을 통해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머릿속에 구조화하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과적) 전달능력</li> <li>-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능력</li> <li>- 스토리 짜는 능력</li> <li>- 함축적이고 정확하게 표시하는 능력</li> <li>- 의사전달 능력/정확한 전달 능력(발음, 목소리 등)(2)</li> <li>- 자신감 있게 설득하는 능력</li> <li>- 매체 자료 선정 능력</li> </ul>
미술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2)</li> <li>- 능력</li> <li>- 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득 능력</li> <li>- 공감(이끌어 내는) 능력</li> <li>-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능력( 적절하게 전달하는 능력)</li> <li>-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능력</li> <li>- 적절한 비유 사용</li> <li>- 요약하는 능력</li> <li>- 다양한 프로그램 사용 능력</li> </ul>
마케팅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달하고자 하는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 청중의 수준과 눈높이를 맞춰 핵심 메시지를 선별해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만의 특별한 비주얼을 만드는 능력</li> <li>- 공감 이루며 발표하는 능력</li> <li>- 공감과 설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li> <li>- special함으로 makeup 할 수 있는 장치</li> <li>-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li> <li>-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는 능력</li> </ul>

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적 측면'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의 의견, 생각, 주장'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적 측면으로 주장, 설득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방법적 측면에서는 '대중, 청중 고려'와 연관된 답변의 빈도가 높았는데,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 청중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상대 눈높이에 맞게, 다양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와 같이 청자와의 관계적 측면을 중요하게 언급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프레젠테이션이 어떠한 능력인가에 대해서는 '설득 능력, 매체 활용 능력, 명확한 전달 능력, 내용 구성 능력' 등이 답변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말하기, 쓰기, 매체 활용 능력 등이 결합된 통합적인 능력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마케팅 전문가 집단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나의 스토리 구성으로 보고,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듣는 이로 하여금 공감과 설득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감’과 ‘설득’이라는 단어가 답변에 높은 빈도로 등장했는데,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설득과 공감’ 능력을 프레젠테이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 중요도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총 48개의 교육 내용들을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교육 내용으로 변형한 후 전문가들에게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으로서의 적절성과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5점 만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인 4.4점 이상을 받은 11개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평정 결과

교육 내용		분야별 전문가 집단				
		전체	국어	컴퓨터	미술	실무자
공감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한다.	4.4	4.34	4.43	4.45	4.5
매체 활용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4.64	4.59	4.67	4.69	4.3
경청	말하는 이와 말의 내용에 집중하며 듣는다.	4.58	4.51	4.67	4.72	4.8
태도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	4.44	4.31	4.57	3.49	4.7
근거 제시	근거를 제시하며 발표한다.	4.44	4.37	4.57	4.59	4.6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질문한다.	4.42	4.37	4.53	4.55	4.7
답변 전략	답변 전략을 이해하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답변한다.	4.49	4.43	4.53	4.52	4.6
내용 구성	자료를 정리하여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4.67	4.69	4.7	4.59	4.6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4.56	4.89	3.9	4.9	4.8
청중 고려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한다.	4.51	4.49	4.53	4.52	4.7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4.67	4.66	4.77	4.76	4.7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으로 교과서에서 제시된 것들은 발표와 관련된 자료 구성, 매체 활용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교육 내용들은 ‘청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 공감, 경청, 언어 예절과 같이 상대에 대한 고려, 태도에 관한 부분들이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다.

### 3) 교수·학습 방법의 중요도

프레젠테이션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중요도 및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 34개를 제시한 후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6〉 프레젠테이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전문가 중요도 평정 결과

내용	분야별 전문가 집단				
	전체	국어	컴퓨터	미술	실무자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b>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b> 한다.	4.4	4.37	4.47	4.48	4.5
프레젠테이션 관련하여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다양한 목적의 대화 상황에서 언어적 표현을 보강하는 <b>표정, 몸짓, 말투를 선택</b> 해서 말해 보도록 지도한다.	4.31	4.2	4.33	4.31	4.6
프레젠테이션 관련하여 매체 자료의 활용에 대해 지도할 때에는 <b>발표할 내용과 발표를 듣는 대상의 특성, 발표 상황을 고려</b> 하여 적절한 자료를 알맞게 활용하게 하여 발표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4.56	4.54	4.53	4.52	4.5
프레젠테이션 수행에 있어서 <b>청자가 청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b>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47	4.51	4.57	4.59	4.4
프레젠테이션 관련하여 말하기 불안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지도할 때에는 <b>학습자의 말하기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피드백</b> 을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말하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공식적 말하기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실제로 연습해 보도록 한다.	4.38	4.31	4.43	4.45	4.5
프레젠테이션 관련하여 상황과 대상에 맞게 대화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내용 자체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상황과 대상에 적절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이해하게 하여, <b>대화에서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여 말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b> 한다.	4.40	4.34	4.43	4.45	4.5
프레젠테이션이 <b>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학습 내용</b> 을 지도할 때에는 긍정적인 자기 표현적 말하기,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	4.31	4.23	4.37	4.38	4.5

내용	분야별 전문가 집단				
	전체	국어	컴퓨터	미술	실무자
화를 하게 함으로써 <b>자아가 성장되는 경험</b> 을 하게 한다.					
프레젠테이션 관련하여 <b>진정한 듣기</b> 는 상대방이 전하는 메시지를 귀와 함께 눈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여 <b>공감하며 듣는 태도</b> 를 기르도록 한다.	4.36	4.26	4.40	4.41	4.5
화법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를 기르는 학습 내용을 지도할 때에는 의사소통 윤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b>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b>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38	4.31	4.43	4.45	4.5
프레젠테이션 관련하여 <b>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b> 하고, <b>건전한 화법 문화 발전에 참여</b> 하는 태도를 기르는 학습 내용을 지도할 때에는 담화 관습이 지닌 규범성이 화법 능력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b>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고려하여 의사소통</b>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38	4.31	4.47	4.48	4.5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프레젠테이션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면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나 전략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 대한 이해, 상황 분석, 말하기 불안 대처, 말하기 윤리나 공동체 담화 관습, 태도와 같은 ‘정의적 측면’, 화법의 ‘본질적 측면’, 구체적인 피드백이나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과 같은 ‘실제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프레젠테이션 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

##### (1) 프레젠테이션 교육 시기

프레젠테이션 교육 시작 시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은 초등 고학년(5학년 이상)이 50%로 가장 많았고, 초등 저학년(23.9%) > 중학교 이상(19.6%) > 고등학교 (6.5%) 순이었다.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ICT 능력을 가지게 되며, PPT 활용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매체를 잘 다룰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프레젠테이션 교육에 적당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프레젠테이션은 실생활에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대학 교양 교육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 단계적 교육 내용 개발을 통해 교육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2)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문제점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 시스템의 문제, 양방향적 소통 방



식 수업의 부재, 실제 연습할 수 있는 실습 기회 부족, 다양한 교과에서의 관심과 교사들의 인식 재고 부족과 같은 시스템적인 문제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과의 내용적 요소에 치중되어 있어 태도와 가치, 기능 측면에서 제대로 프레젠테이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어과에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교과에서의 관심과 교사들의 인식 재고가 필요함.” (국어교사 A)

“현재 교육에서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교사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가 직업 프레젠테이션을 함으로써 지식의 구성, 정리, 의사소통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총체적인 교육이나, 학습자와 교사 개인의 능력 및 물적, 시간적 자원으로 부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초등교사 B)

“가이드라인, 기술 등이 잘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스스로 해보도록 하는 방식, 프레젠테이션 스킬 개선의 여지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전문가 C)

### (3) 프레젠테이션 교육 개선 방안

프레젠테이션 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방법 연구, 개인의 능력 신장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의사소통 태도에 대한 교육, 다양한 교과와의 융합적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의 요구를 이해하는 교육, 정확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신장, 수행평가를 프레젠테이션 과정 수업에 적용, 정보 교과, 미술 교과 연계한 융합 교육’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점수를 받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그 주제에 대해 발표를 시켰을 때 모든 학생이 집중하며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보다는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보교사 D)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위한 목적으로 비평적 태도를 갖추는 것이 의사소통 역량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라 생각한다.” (미술교사 E)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은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스킬에 대한 교육이나 기능교육으로 생

각하지 않고, 통합적 의사소통 역량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의 특정한 기술이나 전략을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융합 교육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 신장의 측면에서의 교육 운영이나 방식에 대한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2. 학습자 인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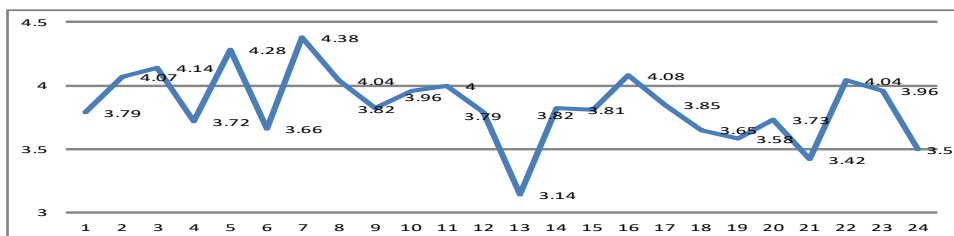
### 1)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개념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발표하는 것, 시청각 이벤트, 시각적 이벤트나 시각자료, 설명하는 행동, PPT 발표’라고 답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일반적인 발표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시청각적인 자료 즉 매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말하기 능력, 자신감’이라고 답하였다. 학습자들은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적인 측면, 청자 고려나 공감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전문가와 학습자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 2)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에 대한 평가

학습자들의 대부분은 PPT 작성 능력, 자료 조사 능력이 우수하다고 답하였고, 발표 시 긴장감,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하였으며 스스로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5점 만점에 3.09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능력에 대한 자신의 세부 능력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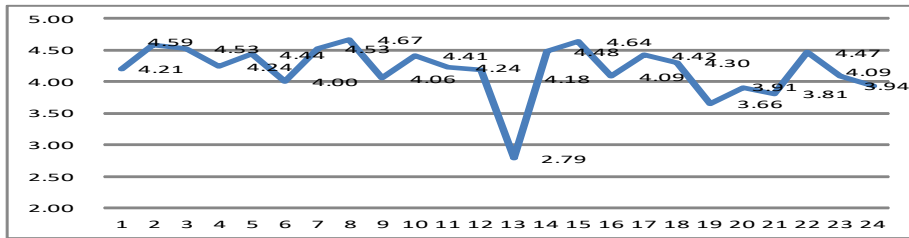


[그림 1] 학습자들의 프레젠테이션 능력 평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능력은 1번(다양하고 풍부한 내용, 새로운 내용 찾기), 4번(청자 분석), 6번(상대의 반박이나 질문 가능성 생각하며 프레젠테이션 하기), 12번(논리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기), 13번(감정에 호소하며 프레젠테이션 하기), 17번(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프레젠테이션 하기), 19번(상대의 주장이나 입장에 대한 내용이 옳은지 판단하며 듣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하기), 21번(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기)이다. 학습자들은 특히 청자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기와 같은 감성적인 측면, 태도 관련 내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 3)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 중요성

프레젠테이션 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중요도 평정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 중요성

학습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은 8번(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 15번(적절한 발음, 속도, 말의 높낮이), 2번(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 조직), 3번(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PPT에 표현하기), 7번(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프레젠테이션 하기), 14번(상대에게 신뢰감 주면서 프레젠테이션 하기), 22번(매체 자료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5번(프레젠테이션 목적 생각하며 프레젠테이션 임하기)이다. 학습자들은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하여 앞서 개방형 문항에서 대답한 바와 같이 내용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프레젠테이션 관련 수업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료 구성하는 방법’,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방법’과 같이 실습이나 구체적 피드백을 통한 실제적 측면에 대한 교육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프레젠테이션 교육이 발표 교육의 안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다 보니 학생들은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발표 잘 하는 능력, 말

잘하는 능력, 자료 잘 만드는 능력'과 같이 편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전문가들의 프레젠테이션 인식과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프레젠테이션 교육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던 결과이기도 하다.

#### 4. 공감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방향성

##### 1) 공감 프레젠테이션의 정의와 교육 범주

앞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조사, 공감 기반 설득 화법 및 사회정서이론을 기반으로 공감 프레젠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공감 프레젠테이션이란 청자의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설득적으로 표현하는 화법**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청중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내적 능력**을 보여주는 **통합적 의사소통 과정**이다.

위 개념 정의에서와 같이 공감 프레젠테이션은 청자의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득 화법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청중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통합적 의사소통이다. 일반 프레젠테이션은 자료의 조직이나 시청각 매체 활용과 같은 내용 구성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공감 프레젠테이션은 화자와 청중과의 관계성을 고려했다는 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능력보다 화자의 내적 능력을 보여주는 통합적 의사소통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공감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표 7〉 공감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 범주화

내적 의사소통을 통한 소통능력	감성적 상호작용을 위한 사고 능력	상대 존중을 통한 관계성 고려 능력
- 구어 표현력 - 전략 구사 능력	- 문제해결력 - 매체 문식성	- 청중에 대한 개방성과 유연성 있는 태도

내적 의사소통을 통한 소통능력은 언어, 비언어 표현과 같은 구어 표현력과 프레젠테이션 의도성과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황에 따라 이성적, 감성적 설득 전략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 구사 능력을 포함한다. 감성적 상호작용을 위한 사고 능력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자료를 구성하고 제작하는 문제해결력,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매체 문식성을 포함한다. 상대 존중을 통한 관계성 고려 능력은 청자에 대

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개방성과 유연성 있는 태도로 상대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감 프레젠테이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자의 이성적, 감성적 측면을 고려한 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상대에 대한 공감적 태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셋째, 문제해결에 있어서 목적을 명확히 하고 통합적으로 정보를 조직한다. 넷째, 적절하게 자료를 변형, 융합, 활용하며 다각적으로 매체를 활용한다.

각각의 하위 요소를 기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변형,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8〉 공감 프레젠테이션 교육 범주에 따른 하위 요소

범주	핵심 능력	특징	하위 요소
소통 능력	명확한 표현력	-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 유창한 스피치 - 비언어 표현
	적절한 전략 구사	- 이성적,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고 화자의 공신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	-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전략 - 효과적 감정 표현 - 공신력/자기 조정/자기점검 - 규칙 준수 - 준비/적극성/논리력/타당성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	- 목적 지향적 태도를 바탕으로 인지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력 - 통합적으로 정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 내용 분석/문제해결 - 근거제시 /자료 정리 및 구성 - 내용 구성/판단 - 비판적 분석/다각적 시각
	매체 문식성	- 적절한 매체를 선정, 변형, 융합, 활용하는 능력	- 매체 활용/매체 선정 - 응용력
관계성 고려 능력	화자와 청자에 대한 고려와 이해	- 상대에 대한 공감적 태도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표현	- 겸손/예의 - 공감적 태도 - 상대에 대한 인정과 수용/상대의 감정 고려/존중과 배려

## 2) 공감 프레젠테이션의 범주별 교육의 방향성

### (1) 소통능력과 관련된 교육 내용

소통능력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명확한 표현력, 적절한 전략 구사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명확한 표현력의 경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한다. 적절한 전략 구사에 대한 교육 내용은 이성적,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프레젠테이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기,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프레젠테이션 내용으로 활용하기를 포함한다.

〈표 9〉 소통능력 관련 교육 구체적 교육 내용

명확한 표현력	적절한 전략 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 마주침, 손짓, 자신감 있는 말투 등 비언어 요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li> <li>- 듣는 이를 바라보며 상대(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시선을 떨구지 않고 말한다.</li> <li>- 상황에 적절한 손짓과 몸짓을 사용한다.</li> <li>- 부적절한 말투(웅얼거림, 따지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성적 설득 전략의 특징과 감성적 설득 전략의 특징을 알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li> <li>- 화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이성적,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한다.</li> <li>- 상황에 맞는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 이성에 호소하는 경우) 효과적인 언어, 비언어 전략을 사용하여 말한다.</li> <li>-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으로 활용한다.</li> <li>-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점검하고 조직하며 듣고 말한다.</li> <li>-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감(친밀성, 신뢰성 등), 청자의 관심사, 청자의 태도 등 청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한다.</li> </ul>

## (2) 사고 능력과 관련된 교육의 방향성

사고 능력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문제해결력과 매체문식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해결력의 경우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자료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구성하며 자신만의 관점을 프레젠테이션에 녹여내는 구체적 내용들을 포함한다. 매체문식성의 경우 다양한 매체를 관리하고 조직하면서 프레젠테이션에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구성하는 것, 매체 사용 윤리에 대해서 아는 것과 같은 교육 내용을 포함한다.

〈표 10〉 사고 능력 관련 교육 구체적 교육 내용

문제해결력	매체문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레젠테이션 준비 과정에서 이해하기, 표현하고 조직화하기, 계획하고 실행하기의 과정을 거쳐 대안을 탐색한다.</li> <li>- 탐색한 대안이나 필요한 전략, 방안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는다.</li> <li>-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매체 자료에 대해 알고 매체를 관리하고 조작하는 기능을 익힌다.</li> <li>-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안다.</li> <li>- 매체를 활용하여 설득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다.</li> </ul>

문제해결력	매체문식성
<p>성한다. (구체적 근거의 예 : 다양한 상황, 관련 정보, 경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를 정리하여 말할 내용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류한 후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다.</li> <li>- 핵심 정보를 파악한 후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이 구성하여 발표한다.</li> <li>-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을 생각하여 흐름에 맞도록 핵심 정보를 조직하여 말한다. (메타인지능력)</li> <li>- 뉴스나 책에서 본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사건이나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자기만의 관점을 정리하면서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를 사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한다.</li> <li>- 매체를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발표)를 하고 매체 효율성에 대해 평가한다.</li> <li>- 매체 사용 윤리에 대해 안다.</li> <li>- 프레젠테이션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체 활용법을 익히고 사용한다.</li> </ul>

### (3) 관계성 고려 능력 교육의 방향성

관계성 고려 능력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상대방의 프레젠테이션에 경청하고 집중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는 것과 같이 ‘청중’을 고려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들이다.

〈표 11〉 관계성 고려 능력 관련 교육 구체적 교육 내용

공감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상황(대화, 협상, 토의)에서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li> <li>-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설득을 할 때 남을 비하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li> <li>- 상대가 발표할 때 끼어들어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li> <li>- 화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심을 담아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li> <li>- 신뢰성을 지닐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말한다.</li> <li>- 프레젠테이션할 때 남을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li> <li>- 공격 말하기(공개토론, 공청회 등)의 바르지 못한 태도나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li> <li>- 프레젠테이션할 때에는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감, 청자의 관심사나 태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한다.</li> <li>- 말하는 이와 말의 내용에 집중하며 듣고 내용을 확인한다.</li> <li>- 집중하며 들으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듣고 원인과 결과가 드러난 담화 상황을 표현한다.</li> <li>- 상대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자신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다.</li> </ul>

## IV. 결론 및 제언

공감 프레젠테이션 교육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요구와 과제를 충족시키려는 요구-지향적(demand-oriented)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때 관계성을 고려한 공감 프레젠테이션은 일방향적 설득이 아닌 청자를 고려한 쌍방향적 상호작용이 될 수 있다.

둘째,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통해 다중적이며 복합적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국어과 핵심역량에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으로 제시된 매체 문식성은 학습이나 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소통하기 위해 정보 기술 특히 ICT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소통하고 협력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정보를 인출, 평가, 저장, 생산, 표현, 교환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로 일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통해 이러한 매체 문식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셋째,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 학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정보를 읽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읽기와 쓰기 교육, 설득력 있게 말하는 말하기 교육과 연계되어 있다. PPT 화면 내용을 구성하고 도식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술 교육, 디자인 교육과도 연계되어 있다. 또한 파워포인트나 프레지 프로그램의 기능을 익히고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컴퓨터 교육과도 연계되어 있다.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융합형 교육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본연구는 공감 프레젠테이션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교육의 원리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실제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과서 활동 구성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과 전문가들의 요구 분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등학교에서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교육 뿐 아니라 취업을 앞둔 대학생, 취업 이후 실제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 개발을 함에 있어 수용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고 있고, 미래에 그 중요성과 활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발표와



같이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의 특징을 교육 내용에서 잘 반영하기 못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프레젠테이션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프레젠테이션의 본질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산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의 특징을 지닌 구체적 교육 내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강숙희(2016).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전략에 대한 대학생들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6(1), 869-886.
- 강태완(2010).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하는 설득의 9 가지 비밀 설득의 원리.
- 강태완·장해순(2003). 대학생들의 토론학습동기와 인지욕구가 토론능력, 상호작용관여 및 논쟁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7(6), 249-278.
- 고광모 율김(2004). 프레젠테이션의 기술. 서울: 지식공작소. (Jennifer Rotondo, Mike Rotondo. 2001. Presentation Skills for Managers, New York: McGraw-Hill.)
- 김미림(2006).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화법교육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은·윤태진(2013). 한국사회 내 프레젠테이션 문화의 출현과 그 의미. 한국소통학보, 20, 150-187.
- 김윤정(2018). 공감 기반 설득 화법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20). 의사소통 역량 신장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교육 연구: 대학생들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11, 67-93.
- 김지연(2018). 효과적 발표 교육을 위한 '333 말하기'프로그램의 설계: 소통의 경험과 윤리적 발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지도 방안의 모색. 사고와표현, 11(3), 59-85.
- 김현주(2018).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문서작성 교육에 관한 연구-기획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12), 333-342.
- 나은미(2007).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의 조건 및 평가에 대한 고찰. 화법연구, 11, 35-66.
- 도원영(2008). 말하기에서의 동작 언어에 대한 고찰-자기소개와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9, 191-221.
- 박준홍(2014).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 비교 연구-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24(단일호), 137-169.
- 박현이(2020).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와 말하기 연계 교육 연구. 문화와 융합, 42, 193-227.
- 백혜선·이규만(2013). 프레젠테이션에 나타나는 복합양식 문식성 실행 양상 분석-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6, 391-413.
- 백혜선·이규만·박소희(2017). 국어 교과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기'단원의 매체 및 복합양식 교육 내용 분석. 청람어문교육, (61), 181-211.
- 서수현·유상희·김지연·김희동·옥현진(2018). 디지털 기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과정에 나타난 인지 작용 양상: 대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제작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0(3), 511-552.
- 오현진(2015).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교육 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분석적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1, 299-328.

- 유혜원(2009). 프레젠테이션 평가 내용을 통한 교육 내용의 모색에 관한 고찰-대학 말하기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44, 213-244.
- 윤경선(2017). 스피치(프레젠테이션)를 위한 글의 내용 생성과 표현. *화법연구*, 36, 87-116.
- 이연주·임경수(2020). 대학생의 프레젠테이션 능력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양교육연구*, 14(2), 265-275.
- 정창우(2013). 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체계와 도덕 교육적 함의. *도덕·윤리와 교육 연구*, 38, 153-172.
- 정효진(2019). 스피치 교육에서 내러티브 사고와 표현 학습의 의의와 효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보*, 18(3), 67-112.
- 조재윤(2004). 프리젠테이션 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화법연구*, 7, 1-24.
- 한경숙(2018). 중학생의 프레젠테이션 텍스트 쓰기 수행 양상 연구. *리터러시연구*, 9(1), 341-366.
- 황혜진·조계숙(1998).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에 관한 연구. *비서학논총*, 7, 125-142.
- Cegala, D. J., Savage, G. T., Brunner, C. C., & Conrad, A. B. (1982). An elaboration of the meaning of interaction involvement: Toward the development of a theoretical concept. *Communications Monographs*, 49(4), 229-248.
- M. J. Elias, P. Gager, & S. Leon (1997). "Spreading a warm blanket of prevention over all children: Guidelines for selecting substance abuse and related prevention curricular". *Journal of School Health*, 65, 2.
- Bar-On, R. (2000),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in R. Bar-On, & J. D. A. Parker, *The Hand 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 Cegala, D. J. (1981). Interaction involvement: A cognitive dimens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Communication Education*, 30(2), 109-121.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Goffman, *Interaction Ritual*, p. 5./ Goffman, E. (1968). *Asylums: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AldineTransaction.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sociolinguistics*, 269-293.
- Petty, R. E., & Cacioppo, J. T. (1986).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of persuas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123~205.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Tesch, R. (1990). *Qualitative analysis: Analysis types and software tools*. London: Falmer.

〈ABSTRACT〉

## Empathy Presentation Education Content Study

Kim Yune Jung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empathy presentation and to present educational content. Based on social sentiment theory and empathy-based persuasive speech, the goal of empathy presentation education is set as an integrated communication process, and the educational categories and educational contents of present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school classes are suggested.

To this end, Delphi was conducted for experts who are related to presentation education. A Korean language teacher who is highly related to presentation education in a presentation format at school, a computer (information) teacher who is in charge of teaching the creation of PowerPoint used for presentations, an art teacher who is related to the design aspect in the production of PowerPoint slides, presentations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a group of people in charge of marketing in charge of conducting business by directly using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perceptions related to presentations targeting learners, who are the subjects of presentation education,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experts and learners were analyzed, and the needs of learners were reflected.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present the educational content of the empathy presentation.

### Key words

Persuasive Communication, Empathy Presentation, Social Emotional Theory, Communication Skills, Empathy-based Persuasive Speech

논문 투고일	2020. 10. 18
논문 심사일	2020. 11. 06
게재 확정일	2020. 11. 06

# K-뷰티 문화코드를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 광고이미지 제작 연구

김혜균\*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령머드화장품의 촬영 컨셉과 모티브로 어떠한 K-뷰티 문화코드를 형성하여 전달력을 높일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뷰티 작품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보령머드화장품이 전속모델을 시도하면서 첫째, 지역 자원으로 보령머드의 산업화와 문화축제에서 산업축제로의 전환시키기 위하여 해외바이어 초청행사, 축제 현장에 머드 화장품 판매부스를 설치, 학술세미나, 보령머드축제 피부미용경진대회 보령머드의 효과와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보령머드화장품의 제품과 마케팅 역량을 진화 시켰다. 둘째, 환경디자인의 개념이 반영된 에콜로지 디자인을 살펴보고 소비자가 천연소재에 관심을 갖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믹스 앤 매치(mix & match) 스타일을 선호하면서 공존의 바탕에서 다른 트렌드를 만들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유연하고 다변적인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셋째, 보령머드화장품 컨셉 활용을 통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머드의 특성을 반영하되 자연과 어우러지는 점점으로 요소의 특성을 선정하여 구상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컨셉은 다음과 같다. Concept1 키비주얼(Key Visual)은 자연주의 흙느낌, Concept2 얼터너티브(Alternative)는 믹스 앤 매치를 통하여 실험성을 높이고 강한 자극과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문화적으로 확장성을 시각화 하였으며, Concept3 프로모션(Promotion)은 제품에 신뢰를 주는 이미지로 진행하게 되었다.

**주제어** K-뷰티, 문화코드, 화장품 브랜드

\*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경영학과 교수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보령머드는 [그림 1]과 같이 세계 5대 머드로 제품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임형두, 2018) 이스라엘 사해머드와 비교우위를 본다면 서해안 갯벌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청정성이 더 우수하다는 대내외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1] 세계 5대 갯벌(보령시청 홈페이지)

보령머드 화장품의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를 비롯하여 한국화장품 제조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1996년 아모레와 원광대 연구진은 머드화장품 국내최초 개발에 성공하였고 ‘보령머드’는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되어 국제화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켰다. 이어서 화장품 산업 육성과 홍보전략으로 화장품 광고 제작이 요구되었고, 기존의 화장품 광고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소비자들은 광고 속 모델이 주는 시각정보와 메시지에 노출된 후 자극과 감각을 통하여 지각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광고 속 모델이 전달하는 제품 속성으로 브랜드와 관련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긍정적인 정보를 수용할 경우 브랜드 구매 또는 호감가는 이미지와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볼수 있었다(최문희, 2013).

본 연구에서는 보령머드화장품의 촬영 컨셉과 모티브로 어떠한 K-뷰티 문화코드를 형성하여 전달력을 높일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뷰티작품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 및 방법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열풍은 지역 산업이 고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건강과 젊음,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 불고 있는 감성적 트렌드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고기능성 위주의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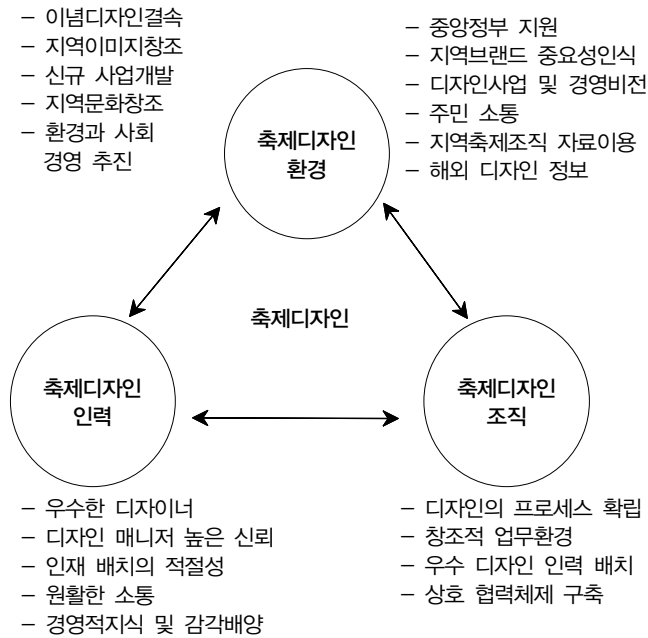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브랜드의 가치 상승을 도모하고 K-뷰티의 시각정보 전달 도구로서 뷰티 이미지의 가치를 살펴보고, 천연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광고 모델의 메이크업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령머드화장품 지역브랜드의 진화와 한계와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노력을 알아본다. 둘째, 메이크업(Make-up)의 정의와 종류, 화장품 광고 모델 현황을 분석하고 화장품 모델 광고소구 에콜로지(Ecology) 스타일 믹스 앤 매치(mix & match)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보령머드화장품 컨셉 활용을 통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머드의 특성을 반영하되 자연과 어우러지는 점점으로 요소의 특성을 선정하여 구상 및 제안하였으며 주요 컨셉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 II. 지역자원과 뷰티문화산업

### 1. 지역 자원

#### 1) 보령의 머드 산업화

시각적 이미지는 지역문화축제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해당 브랜드의 조직과 주최자(공급자), 관람자(참가자), 상징적 이미지가 참가자의 축제 체험, 상징성에 대한 체험, 기능성에 대한 체험 등에 나타나는 가치를 결정한다. 지역문화 축제브랜드의 디자인에 관한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할 수 있다. 지역문화축제는 지역문화의 속성인 지역성, 문화성, 주체성, 교환성과 축제의 속성인 흥미성, 오락성 등을 시각 이미지로 관람자(참여자)에게 지역문화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일련의 통합적인 조형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 지역축제디자인경영 전략 구성 요소(정찬영, 2011)

[그림 2]와 같이 지역축제디자인경영 전략 구성 요소는 축제디자인 인력, 환경, 조직의 전방위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리된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을 때 지역문화축제가 브랜드로 가치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윤홍렬, 2007).

이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를 확인하고, 중장기적 제품 시장(홍보) 경쟁력의 강화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령머드를 인지한 경로를 조사하여 향후 효율적인 홍보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제품별 인지도와 연상 키워드를 조사하여 집중 홍보 대상을 설정하고 성공적인 제품 홍보를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중들의 인지도를 토대로 향후 제품 홍보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 브랜드디자인의 개념과 가치는 Fakeye와 Gunn(1972)이 제시한 유기적, 유인적 이미지와 종합적 이미지(Complex image) 사이의 관계와 지역문화축제 또는 관광목적지 선택과정에서 이미지 역할을 설명하였다(P. C. Fakeye and L. John, 1991). 머드테라피와 놀이가 함께하는 보령머드 축제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연속성의 의미를 유지하고자 언택트 머드페스티벌로 진행되었다.



## 2) 문화축제에서 산업축제로의 전환

국내 대부분의 축제는 문화예술 축제이다. 국내 축제 중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성숙기에 도달한 축제라면 연관성을 유지하되 해외 바이어가 찾아오는 산업축제로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지역 역량이 총집합하는 축제 기간 중에 바이어에게 체험과 동시에 산업적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면 계약 달성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외전시회에서 컨택한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통하여 친밀감을 높이면서 지자체의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 해외바이어 초청행사는 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조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좋은 기회이다. 먹고 즐기는 문화 축제에서 바이어가 찾아오는 산업축제로 전환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보령머드 축제는 매해 7월에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 여름축제로 대한민국 명예대표 축제로 선정되어 명성을 높이고 있다. 주력하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실시하여 계약까지 연결되는 성과를 올리고 학술세미나, 보령머드축제 피부미용경진대회 등을 개최 및 지원하여 보령머드의 효과와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무엇보다 축제 현장에 머드화장품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문화축제를 산업축제로 자리매김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2. 보령머드화장품

보령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보령머드의 탄생과 머드축제의 유래가 서술되어 있다. 1990년대 초반 대천해수욕장은 진흙 때문에 지저분한 바닷물로 심해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던 위기의 해수욕장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보령지역의 탄광이 폐쇄됨으로써 지역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성장 키워드는 '천연성'과 '고급성'이었으며, 글로벌 시장은 2017년 주요 트렌드인 천연재료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기록했다. 친환경 및 천연원료 기반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은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선도하였고, 2위 헤어케어 제품, 3위 색조화장품의 기록으로 뒤를 이었다. 친환경·유기농, 천연원료,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의 확대 등이 선진시장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천연성분을 활용한 주름개선 외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및 소비가 확대되었고, 가격과 브랜드뿐 아니라 환경친화적 제조과정, 천연원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영향도 소비자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일우, 2019).



[그림 3] 보령머드화장품 패키지디자인(이건영, 2019)

[그림 3]과 같이 신제품을 출시하며 보령머드화장품은 온라인 보령머드축제를 기념하고 비대면 판로 확대를 위해 선보인 머드파우더와 머드팩으로 구성된 집콕 머드체험키트를 출시하는 등 시대변화에 따른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 Ⅲ. 메이크업과 소통

#### 1. 메이크업(Make-up)의 정의와 종류

##### 1) 메이크업의 정의

메이크업(Make-up)의 정의에 대해 메이크업은 조명을 받으며 곧 무대에 오를 배우의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데 준비과정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조작 및 절차로 정의하기도 한다 (George Vitaly, 1955).

또한 메이크업(Make-up)은 배우의 중요한 의사전달 및 이미지전달 수단으로서 배우의 풍모를 감추거나 왜곡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필요한 성격적 사실을 이해시키려는 수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Mireille Berne, 1988).

##### 2) 메이크업의 종류

메이크업은 인물의 개성과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으로, 영상 메이크업, 무대 메이크업, 노인 메이크업, 사극 메이크업, 판타지 메이크업 및 기타 분장 등이 여기 포함되며, 특수 효과 메이크업은 신체 각 부위 또는 여러 형상에 기술적인 노하우(Know-how)를 더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뷰티 메이크업이나 메이크업이 주로 색을 사용한 평면적인 표현이라면, 특수메이크업은 나름대로의 기술과 노하우를 사용하여, 신체나 특정 형상을 대본에서 설정하는 대로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라이프 마스크(Life Mask), 라텍스 및 폼 마스크(Latex

& Foam Mask), 눈알, 이빨, 송곳니, 틀니, 손, 발, 머리, 코, 귀, 상처, 내장, 표피 등 신체의 모든 부위 또는 일부를 제작하거나 각종 전시용(Display Form) 형상등을 제작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각종 효과를 연출하는 것 등이 특수 메이크업의 영역에 포함된다(이상훈, 2000).

## 2. 화장품 모델 광고소구

### 1) 에콜로지(Ecology) 스타일

이들은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또한 자연식을 선호하며, 요가, 명상, 스파, 헬스 등을 즐기고 자연스러운 화장, 에콜로지(ecology)스타일인 천연소재, 자연의 색상, 자연스러운 실루엣 등 다양한 감각즐기고 연출한다(박혜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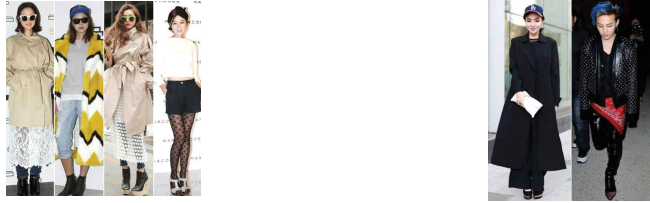


[그림 4] 에콜로지(Ecology) 스타일 디자인(홍정환, 2003)

환경디자인의 개념이 반영된 에콜로지 디자인은 [그림 4]의 좌측 의자는 이탈리아 브랜드가 상품화한 브라질 가구이다. 우측의 대나무가 원재료인 프라스틱은 버려진 뒤 6개월 후 땅으로 돌아간다. 소비자는 소재의 기능성에 눈을 뜨고 있고 소비자로서 책임을 실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 2) 믹스 앤 매치(Mix & Match)

이런 공존 속에서 다른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더하여 독특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믹스 앤 매치(mix & match)가 유행했다. 종래와 다른 ‘부적당한 조화’를 피함으로써 의외성을 부여했다(박혜원, 2006).



[그림 5] 믹스 앤 매치(Mix & Match) 스타일 디자인(홍정환, 2003)

믹스 앤 매치(Mix & Match)는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섞어 새로운 멋을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로 디자인의 요소 중 변화와 통일의 요소를 이용한 것이다. 잘 차려입은 정장에 스포티한 야구 모자를 쓴다든지, 서양 드레스에 동양적인 한복 저고리를 걸친다든지, 상의와 하의의 컬러를 달리하면서도 패턴을 통일시키거나 반대로 컬러는 비슷하지만 패턴을 다르게 코디할 수 있다(홍정민, 2015). [그림 5]의 패션은 서로 다른 재질과 색상 그리고 대조적인 이미지가 새로운 멋을 추구하고 있다.

#### IV. 작품제작

컨셉이 강한 메이크업디자인 보령머드의 전속모델 체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그림 6]과 같이 국내외 모델을 영입하여 전속계약을 하고 국내외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의 소비자 점점 이미지로 활용되었다. 해외모델로는 러시아에서 모델로도 활동한 바 있는 유학생이며, 초기의 생활속의 머드화장품이라는 이미지에서 한발 전진하여 머드 컨셉이 강렬한 디자인을 도입하여 강한 인상을 주기로 하였다.



[그림 6] 보령머드 전속모델 촬영



본 연구의 작품 제작방법은 자연주의 보령머드의 천연성을 중심으로 컬러적 특성인 색채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특성이 반영된 키비주얼(Key Visual), 얼터너티브(Alternative), 프로모션(Promotion) 3가지 카테고리의 작품을 제작하였고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작품의 소재, 모티브, 색채, 제작의도를 정리하였다.
- 둘째, 디자인 아이디어를 메이크업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 셋째, 정리된 내용을 모델에 시연하여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켰다.
- 넷째, 국내외 모델에 시연방법을 시술하여 실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 CONCEPT 1 - 키비주얼(Key Visual)

친환경 안전한 제품의 컨셉을 전달하기 위하여 키비주얼은 자연주의에 최대한 부합하는 이미지로 설정하였다. 모델의 얼굴에 붓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색칠하여 얼굴과 머드 이미지만 강조 시켜서 제품의 속성이 잘 나타나도록 하였다. 특히 화이트머드와 블랙머드를 조합하여 무채색의 머드가 가진 비인공적 자연스러운 흠느낌으로 시각적 임팩트를 주었다. 키비주얼은 자연주의에 가까우며 자연 대상을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대의 자연주의는 미세먼지와 도심의 매연 공해로 부터 벗어나 도시의 일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생존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반영한다.

〈표 1〉 보령머드 키비주얼 작품제작

예시안	시술 과정		시연 작품
			
	소재	머드화장품, 헤어 핀	
	색채	흰색, 회색	

[그림 7]은 국내모델의 화이트머드, [그림 8]은 다크그레이 머드로 동양인의 얼굴과 자연소재인 흠을 매칭하여 내추럴리즘을 연출하였다.



[그림 7] 국내모델, 화이트머드






[그림 8] 국내모델, 블랙머드

## 2) CONCEPT 2 - 얼터너티브(Alternative)

기존의 정해진 틀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파격적이고 쇼킹하면서 그 안에서 신선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터너티브의 특징이다.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요소는 믹스 앤 매치를 통해 수용자에게 개성 표현과 모던한 감각을 줄 수 있다. 산업화가 고속화되고 사회가 강력범죄에 노출되고 매체가 혼돈스러워지면서 더욱 강한 자극과 초현실주의 아름다움이 주는 강한 인상이 요구되고 있다.[그림 9, 10, 11, 12]참고

〈표 2〉 보령머드 얼터너티브 작품제작

예시안	시술 과정	시연 작품
		
	소재	머드화장품, 기타메이크업, 헤어 핀, 오브제
	색채	검은색, 흰색



[그림 9] 국내모델, 화이트 얼터너티브 오브제 활용

대중성 보다 실험과 파격을 추구하여 일반성보다 독창적인 면에서 아방가르드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입체적인 조형성은 실험적인 실루엣과 무채색의 스타일로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추구한다는 본질은 같다. 그리고 자유로운 상상을 추구하며 기존의 복식에서 탈피하여 전위적인 표현방식으로 형태와 변화를 이끌어 내는 부분에서 초현실주의 패션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림 10] 해외모델, 화이트 얼터너티브 오브제 활용



[그림 11] 해외모델, 화이트 얼터너티브1



[그림 12] 해외모델, 블랙 얼터너티브

### 3) CONCEPT 3 – 프로모션(Promotion)

프로모션 촬영은 대중 매체를 활용하는 프로모션 수단이고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활동이다. 프로모션 촬영 모델은 전시, 의전, 홈쇼핑 등 마케팅행사에 활용되는 인력이며 제품이미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므로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식은 줄이고 단정하고 심플한 컬러로 메이크업 한다. 머드의 연상 이미지로 채도가 낮은 원피스를 입고, 프로필 사진을 연상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제품이미지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조명도 중간톤을 유지한다. [그림 13, 14]참고

〈표 3〉 보령머드 프로모션 작품제작

예시안	시술 과정	시연 작품
		
	<p><b>소재</b>    머드화장품, 기타메이크업, 헤어 핀, 캐주얼의상, 정장의상</p>	
	<p><b>색채</b>    검은색, 흰색</p>	



[그림 13] 국내모델, 프로모션1



[그림 14] 국내모델, 프로모션2

## V. 결론

미용 소비시장에서 보령머드의 경쟁 제품과 브랜드로서 해양 머드를 이용한 화장품이라는 점에서 보령머드제품은 국내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기존 단일브랜드인 '머드랑' 이후 새로 론칭하는 브랜드들은 과거와 달리 여러 면에서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령머드화장품이 전속모델을 시도하면서 첫째, 지역 자원으로 보령머드의 산업화와 문화축제에서 산업축제로의 전환시키기 위하여 해외바이어 초청행사, 축제 현장에 머드화장품 판매부스를 설치, 학술세미나, 보령머드축제 피부미용경진대회 보령머드의 효과와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보령머드화장품의 제품과 마케팅 역량을 진화시켰다.

둘째, 환경디자인의 개념이 반영된 에콜로지(Ecology) 디자인을 살펴보고 소비자가 천연소재에 관심 있는 시대에 산다는것을 알 수 있으며 믹스 앤 매치(mix & match) 스타일을 선호하면서 공존 속에서 또 다른 트렌드를 만들어 가며 전혀 다른 이미지를 더해 세



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유연하고 다변적인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셋째, 보령머드화장품 컨셉 활용을 통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머드의 특성을 반영하되 자연과 어우러지는 점점으로 요소의 특성을 선정하여 구상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컨셉은 다음과 같다.

Concept1 키비주얼(Key Visual)은 머드가 가진 비인공적 자연스러운 흠느낌으로 시각적 임팩트를 주었고, Concept2 얼터너티브(Alternative)는 믹스 앤 매치를 통하여 실험성을 높이고 강한 자극과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문화적으로 확장성을 시각화 하였으며, Concept3 프로모션(Promotion)은 긍정적인 제품이미지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조명도 중간톤을 유지하며 연출하였다. [그림 17]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광고안으로 마스크팩 등의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어 시즌 동안 전속모델 계약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7] 최종안 광고 응용안

화장품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 지역브랜드 연상력 강화, 지역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소비자 접점(Point-Of-Connection)을 확대하고 지역브랜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작품제작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지역브랜드의 이미지 구축과 가치창출을 위한 이미지 제작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박일우(2019). 글로벌 화장품시장 규모 6.1% 오른 552조. CMN, 2019.03.03. 보도자료.
- 박혜원 외(2006). 현대패션디자인. 교문사, 218.
- 윤홍렬(2007). 지역문화축제 브랜드디자인의 상징 표현이 미치는 영향성과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2-73.
- 이건영(2019). 보령머드화장품, 더 고급스러워졌다. 전국매일신문, 2019.07.23. 보도자료.
- 이상훈 외(2000). 분장의 세계. 교문사, 2.
- 임형두(2018). 보령머드축제, <https://www.yna.co.kr/view/AKR20180718122700805?input=1195m> 2018.08.08
- 정찬영(2011). 디자인경영 전략을 통한 지역축제 발전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
- 최문희(2013). 프리미엄 브랜드 런칭을 위한 광고 모델 사진촬영 분장 디자인, 브랜드디자인학 연구, 11(4), 289-298.
- 홍정민(2015). 믹스 앤 매치로 스트릿을 점령하라. Korea Fashion News, 2015.12.11. 보도자료.
- 홍정환(2003). ECOLOGY DESIGN LIFE 1. 디자인정글, 2003.10.07. 보도자료.
- George Vitaly(1955), Maquillage de theatre, Paris : Edition del'Amical Librairie Theatrale, 15.
- Mireille Berne (1988), Le Maquillage, Paris : Edition de ia Beaute, 5.
- Mark Blair, Richard Armstrong, Mike Murphy (2003). The 360 Degree Brand in Asia, 1-51.
- P. C. Fakeye and L. John (1991). 30:11
- 보령축제관광재단, <http://www.mudfestival.or.kr/intro/view>
- Rock Metal Story, <http://blog.daum.net/coreabodyguard/6113365>

〈ABSTRACT〉

## A Study on the Globalization Strategy Using Regional Resources and K-Beauty Culture Codes

Kim Hye Kyun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amine what K-beauty cultural codes could be formed to enhance transmission power with the concept and motif of filming of Boryeong Mud Cosmetics, and to develop various and creative beauty works based on them.

As Boryeong Mud Cosmetics attempted to be an exclusive model, first of all, in order to convert Boryeong Mud's industrialization and cultural festival into an industrial festival, Mud Cosmetics sales booths were set up at the festival site, academic seminars, Boryeong Mud Festival Skin Beauty Contest, and Boryeong Mud Cosmetics products and marketing capabilities were developed through continuous support. Second, we looked at the echolocation design reflecting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design, and we could see that consumers are living in an era where they are interested in natural materials, and we looked at flexible and diverse trends that create new images by creating another trend in coexistence while preferring a mix and match style. Lastly, thirdly, we produced a work through the use of Boryeong mud cosmetics concep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s were selected and propos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d but by the interface that blends with nature, and the main concepts were as follows. Concept1 Key Visual has a naturalist soil feel, Concept2 Alternative visualizes cultural scalability that increases experimentality through mix and match and conveys strong stimulus and surreal beauty, Concept3 Promotion has an image that gives trust to the product, and Concept4 Spa has a mud product.

### Key words

Boryeong Mud, Local Resources, K-beauty, Cultural Code, Globalization

논문 투고일	2020. 10. 18
논문 심사일	2020. 10. 26
게재 확정일	2020. 11. 16

# 한국 조산사 자연출산관리 교육의 표준화지침 구축을 위한 임상실무 프로토콜 분석\*

강남미\*\* · 박현순\*\*\* · 이신영\*\*\*\* · 김옥잔\*\*\*\*\* · 김상진\*\*\*\*\* · 문갈남\*\*\*\*\* · 이찬희\*\*\*\*\*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조산원 및 조산사 수련기관 포함 조산사로 구성된 종합병원의 조산술을 파악하여 조산사 자연출산관리 교육의 임상실무 프로토콜(CPP) 표준화 지침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내 활성화 중인 조산원(n=13), 조산사로 구성된 종합병원(n=2)을 대상으로 자연출산 관리 임상실무 내용을 양적, 질적으로 탐색한 횡단적 혼합설계 연구이다. 자료 분석 중 양적분석은 SPSS Ver. 23.0을 사용하여 양적자료는 기술통계분석하였고, 복수응답은 문항에 따라 이분형과 순위형 다중응답분석으로 제시하였다. 질적분석은 WHO의 조산사 교육 행동 강령 틀과 조산원대표들의 자연출산 관리 내용을 1, 2차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CPP 설계 및 확산에 대한 의미 프레임워크 코딩 과정을 거쳐 내용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양적분석 결과에서 산모상담 적절 시기가 조산원은 20~24주, 병원은 6~12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 내 적정 산후관리 기간으로 조산원은 출산 후 6시간(46.2%), 병원은 2박 3일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사례와 고위험 산모분류체계에서는 병원 이송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신, 출산, 신생아 관리 및 가족 상담에서 산전·후 운동프로그램, 산후 아 기건강관리, 모유수유, 영양관리 등에서 조산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

\*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7R1D1A1B03034270; No. 2020R1A2C1005082).

\*\* 제1저자, 건국대학교 의료생명대학 의료생명연구소 간호학과 교수

\*\*\* 교신저자, 강원관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공동저자, 명지대학교 인문교양 객원교수

\*\*\*\*\* 공동저자, 아기탄생조산원 원장

\*\*\*\*\* 공동저자, 열린가족조산원 원장

\*\*\*\*\* 공동저자, 일신기독병원 간호부원장

\*\*\*\*\* 공동저자, 화명일신기독병원 간호부장

다. 질적분석 결과로 대분류 12개 영역, 중분류 24개 항목, 소분류 90개의 세부항목이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조산원의 자연출산 관리 임상실무 프로토콜 표준화 지침마련은 조산사 및 조산원, 출산 관련 의료기관의 질 향상과 국내 모자보건사업의 교육 혁신 확산에 기여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주제어** 조산원, 조산사, 자연출산, 임상실무프로토콜, 혁신확산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조산원의 조산술은 보다 안전성을 추구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조산원의 자연출산관리 임상실무프로토콜(ClinicalPractice Protocol, CP) 개발은 산발적인 조산술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기반으로 자연출산원리 및 출산방법 등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산술을 체계적으로 혁신 확산하는데 있다(Hader, White, Lewis, Foreman, McDonald, & Thompson, 2007).

조산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은 의료적 개입 없이 비침습적인 자연출산 그대로이다. 한국의 출산문화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적용을 기점으로 병원분만이 급증하게 되면서 형성되었고 출산개념과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20). 국내 조산원에서의 자연출산율은 시설분만에 비하면 그 비중은 매우 저조한편이다. 그 이유는 분만과정이 조산원 출산보다 첨단의료기구와 위생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병원시설의 분만만이 출산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산사의 출산기술 및 지식이 산모와 태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낙후된 기술이라고 여기게 된 출산문화의 의미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고 있다(Park et al., 2015). 이와 함께 개업조산사인 조산원의 수 감소, 불충분한 시설, 과거 산파에 대한 고정관념, 출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조산사의 업무기능약화, 응급상황 대처에서의 불안감 등 조산원에 대한 일반인 및 타 의료인의 인식부재와 조산원의 소극적인 홍보 역할도 조산원 출산비중 감소에 작용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Lee,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산원의 자연출산관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병원출산에서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자기주도적 자연출산 방식 선호도가 약 6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Park et al., 2018). 이러한 자기주도적 출산 방식은 저출산 시대에서도 기계에 의존하는 병원출산 방식보다 조산사가 추구하는 자연출산 방식을 꾸준히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Kim et al., 2013).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의 급격한 발달로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면서 침습적인 병원분만 방법에 대한 회의와 함께 자연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Phillippi & Avery, 2014). 그 변화는 조산원의 장점인 전 출산과정의 돌라(doula) 역할 동참 및 해산을 돕는 조산술, 인격적인 간호와 믿음, 아기와 가족 중심의 출산 경험 등 조산사와 조산술 신뢰가 여전히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산원에서의 여성친화적 출산방식은 병원분만이 가지는 진통제, 항생제 약물사용이나 회음절개, 관장, 면도, 제왕절개 등 외과적 개입의 침습적인 출산문화를 지양하는 대안으로 새롭게 거론되고 있어 조산원과 조산사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

조산사의 수는 2009년 8,603명에서 2016년 8,328명으로 감소했다.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이후 면허신고 한 조산사의 수도 2015년 총 831명으로 병원 종사자 조산사 641명 중 종합병원급 이상이 427명으로 집계되어 조산사의 77.1%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산사의 배출현황은 2018년 20명, 2019년 14명, 2020년 12명 배출에 그쳐 점차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2020). 이러한 현상은 현 출산문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과 조산사의 법률규정이나 규제 장벽이 조산사의 진료접근을 방해한다(Walker et al., 2014)

현장실무에서 조산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려면 조산원 설립 확산 및 조산사의 현 법적 제도에 책임과 권한이 확실하게 갖추어지고 있을 때 직무만족도는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Her et al., 2012). 조산사의 임상실무 자율성 보장은 전문성 발휘를 향상시키며, 직무만족 또한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조산사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공식적인 업무규정 방안이 필요하며, 조산사의 전문성 발휘 확대를 위해서는 조산원에서 시행되는 자연출산의 임상실무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무지침 모델 프레임 워크를 기반(Hader et al., 2007)으로, 국내 조산원 및 조산사 수련병원 포함 조산사로 구성된 종합병원에서 제공하는 조산사의 자연출산관리 현황 데이터를 주제별로 탐색 분석하여,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각 조산원의 자연출산관리 임상실무프로토콜 표준화 기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추후 임신부와 영아건강관리 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마코드 추적관리시스템 연계 연구에서 증재 시 근거기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조산원 및 조산사 수련기관 포함 조산사로 구성된 종합병원의 조산술을 질적, 양적으로 파악하여 조산사 자연출산관리 교육의 임상실무 프로토콜(CPP) 표준화 지침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조산원 및 조산사 수련기관 포함 조산사로 구성된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출산관리 영역의 임상실무 중재 내용을 탐색한다.

둘째, 조산사 자연출산관리 영역의 임상실무 내용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조산사 자연출산관리의 임상실무 프로토콜 표준화 지침을 구축한다.

## 3. 용어정리

### 1) 조산원(Midwifery Center)

조산사의 전 이름을 의미하였으나, 현재는 ‘출산을 돕는 곳’을 의미한다(Song, 2019).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현재 국내에서 조산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조산원을 의미한다.

### 2) 조산사(Midwife)

조산사란 의료법 제1장 제2조(의료인), 제6조(조산사 면허)에 의거하여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 장관이 인정하는 조산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조산사 면허를 득한 자를 의미한다(Korea Health Perso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2020).

### 3) 자연출산(Natural birth)

자연분만은 의료적 개입 안에 자연스럽게 질을 통해 아기를 낳는 그 과정만을 의미한다(MedicalSubjectHeadings, 2020). 본 연구에서 자연출산은 조산원에서 이루어지는 의학적 개입없이 비침습적인 자연스러운 중력의 원리에 따라 진통시 조산사의 과학적 의료 전문지식 및 암묵적 지식의 손기술과 밀착된 둘라 역할인 상담, 교육을 통해 산전부터 산 후관리까지 1:1 맞춤형 서비스로 관리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조산술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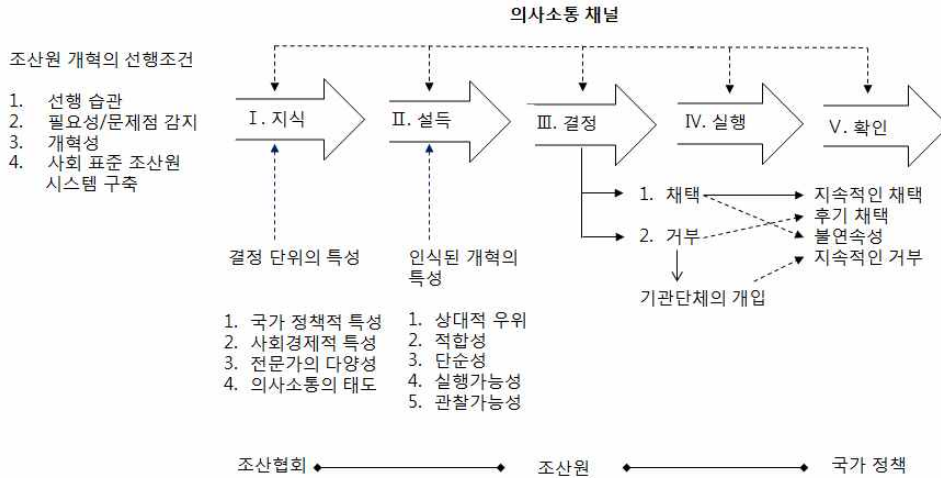
#### 4) 임상실무 프로토콜(Clinical Practice Protocol, CPP)

프로토콜이란 임상에서 다루어지는 의학적 또는 생의학적 문제의 연구를 위해 데이터나 메시지를 서면으로 원활히 주고받기 위한 일련의 상세한 규약체계를 의미한다(Medical Subject Headings, 2020). 본 연구에서는 조산원 및 조산사 수련기관 포함 조산사로 구성된 종합병원에서 다루어지는 자연출산관리 임상실무 지침 및 조산협회 보수교육 자료, 의료법(조산사 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자료, 국제, 국내외 문헌고찰을 근거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목록화한 내용을 의미한다.

## II. 조산원 자연출산관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에서 제시한 ‘Universal Health Coverage 2030의 조산사 교육 강화 행동 틀(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을 기반으로 조산원 자연출산관리 CPP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조산원 CPP에 대한 표준화 지침의 혁신확산(Diffusion of Innovation, DOI)에서는 Hader et al. (2007)의 연구에서 Rogers(1995)의 기술혁신 확산 모델을 기반으로 의사들의 임상실무 실천요강 평가에 대한 임상실무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CPG)을 제시한 바, 본 연구에서도 Rogers(1995)의 혁신확산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산원의 임상실무 프로토콜(Clinical Practice Protocol, CPP) 확산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결정변인 채택요인들은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2] 자연주의 출산 임상실무 가이드라인 채택 의사결정 과정

이에 본 연구에서 조산원 자연출산관리 CPP에 대한 표준화 지침 구축을 위해 국내·외 문헌고찰 및 가이드라인 탐색과 조산원에서 실시하는 자연출산 관련 교육지침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인 조산원의 자연출산관리 CPP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WHO의 ‘Universal Health Coverage 2030 조산사 교육 강화 행동 틀’에서는 조산사의 교육 강화 및 관리로 50개 이상의 결과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첫째, 모성 사망률·신생아 사망률, 사산·주산기 사망률·영아 사망률·유산이 감소하였고, 둘째, 여성과 신생아의 불리한(harm) 측면인 말라리아, HIV를 포함한 감염, 빈혈증, 통증, 경련, 자간전증, 산후출혈, 회음부 외상, Rh 동종면역 등 심각한 이환율이 감소되었고, 신생아 측면에서는 조산, 저체중아, 낮은 아프가 점수, 저체온증, 혈청 빌리루빈, 신경관 결함, 낮은 임신 연령, 감염, 갑상선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전염 등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셋째, 심리적 결과 개선에서는 분만진통에 따른 불안, 산후 우울증, 신생아의 보챔이 감소되었고, 통증 완화에 대한 만족, 분만 시 자기조절감, 출산 만족도, 산모와 아기의 상호작용 등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산사의 간호중재 관리로 노동력 증대, 약리학적 진통제 사용, 새로운 도구 출현, 제왕절개, 전염병, 회음절개, 자궁출혈, 수혈, 41주 이상의 임신이 감소되었고, 자연출산은 증가하였다. 다섯째, 공중보건개선에는 임신 후기 흡연이 감소되었으며, 모유수유 시작 및 기간, 출생 간격, 피임약 사용, 예방접종 투여 등은 증가 추이 변화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 성과부분에서는 산과병동 입원기간, 신생아 입원기간, 신생아 입원환자 수, 7일 이상 입원이 감소하는 개선 변화를 보였고, 합병증에 대한 설명 및 교육, 분만참여, 조산사 가정방문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국의 문헌에서는 조산술 저널지(Midwifery Journals)에 실린 ‘조산사의 자연출산관리’ 내용 부분(Nieuwenhuijze & Leahy-Warren, 2019) 및 일본의 조산사 실무지침(Japanese Nursing Association, 2018) 중 자연출산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자연출산 방법에는 Spinning childbirth(스피닝 분만법: 골반근육이완 운동법), Hhypo-birthing(히프노버딩 분만법: 최면 출산), Sophrology birth(소프롤로지 분만법: 근육이완), Leboyer birth(르보이에 분만법: 인권분만), Lamaze birth(라마즈 분만법: 호흡, 이완, 연상, 마사지), Water birth(수중분만법: 통증 완화), Bradley birth(브래들리 분만법: 자연스러운 분만), Dick-Read birth(딕-리드 분만법: 자연주의 출산), Roma birth wheel(그네분만법), Gym ball exercise(짐볼운동법), Family delivery(가족분만법), Aromatheraphy (아로마 향과 마사지), Music therapy(음악요법) 등 진통완화를 위한 자연출산 방법 등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Park et al., 2018).

문헌 및 자료 탐색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국내의 경우는 자연출산 문헌고찰 및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의 조산사 국가고시 시험과목 내용 파악 및 대한조산협회 2010 ~ 2019년까지의 보수교육 교재 내용 파악과 Marshall & Raynor(2014)의 조산학 교재에서 언급되는 자연출산관리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그 외 조산원에서 사용 중인 조산원 ‘진료기록지’, ‘진찰과정기록지’, ‘신생아기록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되는 ‘초보 아빠수첩’ 등 관련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하였다.
- 2단계: ‘수가’ 부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조산원의 청구내역 지침서 내용을 탐색하였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7).
- 3단계: ‘조산원 개설’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2020).
- 4단계: 1 ~ 3단계의 자료분석 결과 탐색된 조산원에서 다루어지는 자연출산관리 CPP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대분류 12개 영역에서, 중분류 24개 항목, 소분류 90개의 세부항목으로 분석되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 조산원 및 조산사 수련병원 포함 조산사로 구성된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출산관리 임상실무 내용을 양적, 질적으로 탐색한 횡단적 혼합설계(mixed methods)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자

대상자 선정기준은 한국 조산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과 대한조산협회(2020)에 등록된 조산원 수 총 19개 기관 중 폐업했거나 폐업 중인 기관 6개는 연구대상자 선정 기관에서 제외하여 조산원 자연출산이 활성화 중인 13곳(서울 2개, 제주 1개, 경기 8개, 경북 2개)의 대상기관 대표자로 선정하였다.

조산사 수련병원의 경우는 대한조산협회에서도 인정한 경남지역의 I 종합병원 본원, 분원 2곳의 간호부 대표자로 선정하였다. 해당 기관은 국내 유일 조산사 수련병원으로 1952년부터 현재까지 2,662명의 조산사 수련생을 배출하였으며, 조산사가 직접 자연출산관리에 기여하고 있어 조산사 근무 대표 병원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 3.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임상실무에서 활용 중인 자연출산 프로토콜 및 설문도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료원을 수집하였으며, 이들 자료원을 상호 비교하는 삼각검증법을 적용하였다(Krefting, 1991).

본 연구도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서는 대한조산협회 임원 및 개업조산사 4명과 조산사 경력 25년 이상의 임상유경험자 4명, 여성건강간호학 전공 교수자 2명, 스피닝 교육 프로그램 연구교수자 1명을 통해 전문가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분석된 도구는 10회 이상의 공동연구자 워크숍을 통해 자연출산관리 범위의 시기별 분류, 순서 등 적절성과 항목 중복성, 항목 간 내용의 상호배타성도 검토하는 등 독립적 검토의 노력도 기울였다.

#### 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대한조산협회의 도움을 받아 자연출산관리가 활성화 중인 전국 조산원 대표자 및 조산사 수련병원 간호부 대표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본 연구설계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였다. 설문도구 및 자연출산관리 임상실무 내용에 대한 자료원은 조산원 13곳 및 조산사 수련병원 1곳 및 조산사로 구성된 종합병원 1곳에서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외 조산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모진찰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출산기록지, 신생아기록지 등도 함께 수집하였다. 횡단적 외생변수 통제에 대해서 연구자는 Bias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상자 간 이해상충관계가 무관한 연구자가 전국 개업조산원단체의 SNS에 초대되어 직접 연구목적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서면 동의는 1:1로 직접 수령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조산업무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1차 상담 및 심층 상담 시 조산원 대표에게 사전 방문연락 후 도구적 접근도 시도하였다. 원거리 기관의 경우 전화상담 및 이메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조산원 및 조산사 수련병원 포함 조산사로 구성된 종합병원의 경우 직접 기관에 연구계획서와 설문도구 및 동의서를 보내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졌다.

연구동의서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연구 참여의 자율성 및 이점과 손해, 연구 철회 가능성, 사생활 보호, 비밀보장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 후 자발적 서면 동의를 직접 득하였다. 면담장소는 각 조산사가 근무하는 개업 조산원 현장 또는 기관장이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설문도구 활용시간은 조산원 및 조산사 수련병원 포함 조산사로 구성된 종합병원에서 제공하는 자연출산관리의 임상실무 전반에 대한 양적, 질적 내용으로 조산술을 탐색하는데 약 6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방문횟수 1 ~ 2회 설문 조사 후 심층상담 내용이 필요한 경우 재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 5. 자료 분석방법

##### 1) 양적자료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연출산관리 등의 수집된 양적 자료 모두 SPSS Ver. 23.0을 사용하여 빈도(Frequency analysis),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으며, 복수응답(multiple response)의 경우 문항에 따라 이분형과 순위형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으로 제시하였다.

## 2) 질적자료 분석

질적자료 분석방법은 WHO(2019)의 ‘Universal Health Coverage 2030 조산사 교육 강화 행동 틀’을 기반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method)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그동안 조산원 자연출산관리에 대해 왜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 연구가 실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이러한 프로토콜 과정이 일반적 모델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를 조사하여 CPP 개념 분석을 목표로 정성적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연구자들은 임상실무 프로토콜에 대한 혁신확산 모델을 조산원 및 의료기관 조산사들에게 유의미하게 수용되는지, 그리고 현재 실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출산관리의 임상실무 프로토콜 설계 및 수용에 대한 의미 프레임워크를 코딩 후 분석방법에 따라 내용을 도출하였다.

##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따라 연구기관에 연구목적 및 방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워터마크가 기입된 연구 설문지와 동의서를 사용하여 자료 수집하였다(IRB No. 3-21201447-A-N-01).

# IV. 연구 결과

## 1. 국내 조산원 및 종합병원의 자연출산관리 중재 현황

자연출산관리 현황은 한국 조산원(n=13) 및 조산사 수련병원(n=1), 종합병원(n=1)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산사의 일반적 특성 중 나이는 50대(53.3%)가 가장 많았으며, 월수입은 300 ~ 400만원 이하(73.3%)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졸업자(66.7%)가 대학원 졸업자(33.3%)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산사의 간호경력은 평균 15.3년으로, 간호사 무경력자(33.3%)도 있었다. 조산사경력은 평균 26.7년으로 최소 10년에서 최대 43년까지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조산원은 서울, 경기, 인천(66.6%)의 수도권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병원은 부산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종교(80.0%)는 대부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산정수가의 적절성에는 ‘산정수가가 부족하다(86.7%)’고 응답하였다. 병원의 경

우 모두 ‘매우 적음’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초기 상담을 위해 기관 방문의 적절 시기는 20 ~ 24주(46.7%)가 가장 높았다. 조산원 및 병원 설립이유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는 ‘자연출산의 긍정적 측면지지(40.0%)’가 가장 많았으며, ‘미래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임산부 건강’ 등 ‘모자보건을 위해(26.7%)’가 가장 많았다. ‘주도적 간호가능(13.3%)’, ‘개원 희망(15.4%)’, ‘침습적인 병원 출산의 부정적 경험에 따른 출산문화 개선(6.7%)’을 위한 응답도 있었다. 조산원 총 운영기간은 평균 18.9년, 월별 평균 출산 건수는 약 12.8건으로 나타났다<표 1>.

출산 전 관리에서 조산원 관리 주된 산전교육 프로그램은 평균 교육시간은 ‘분만교육’, ‘모유수유’, ‘신생아 돌봄 교육’, ‘운동’, ‘임산부 영양’, ‘태교’ 교육 내용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기타 남편교육, 좋은 부모되기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자연출산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을 순위형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출산의 관련 교육’, ‘운동’, ‘분만’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모의 ‘규칙적인 운동’은 대상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권장 운동종류 중 유산소운동(41.7%)과 유연성 운동(38.9%)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운동교육을 담당 대상은 조산사(46.7%), 전문운동강사(33.3%) 순서였고, 자가로 남편과 함께 운동 실시 권장하는 곳도 3곳(20.0%)이나 있었다. 주당 1회 이상 진행되는 규칙적인 프로그램에는 병원(100.0%)과 조산원(23.1%)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다태임신관리는 ‘병원분만 권장(66.7%)’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산모의 체중 등을 관리하며 ‘정상과 유사관리(23.1%)’하는 경우와 ‘지도의사 의뢰’ 등 기타 방법(15.4%)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또한 분만에정일 지연 시 대처방법으로는 41주 이후에 ‘병원출산 권유(26.7%)’와 ‘기다림(26.7%)’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응급사례, 정기검진, 산전검사, 고위험 산모분류체계, 분만시 간호중재’의 5가지 항목의 다중응답 분석결과, 13곳 전체 조산원에서 발생했던 ‘응급사례’는 ‘잔류태반, 지연분만’ 등의 ‘태반문제’와 ‘아두골반불균형’의 문제로 병원 이송 사례(66.7%)가 가장 많았으며, ‘태아가사(60.0%)’, ‘산모 출혈(53.3%)’ 사례도 비교적 많이 나타났으며, ‘산모가 병원 분만을 원해서’, ‘병원후송 사례 없음’으로 응답한 조산원(13.3%)도 있었다.

조산원 자연출산관리에서 ‘고위험 산모 분류 적용 기준’으로 산모의 ‘심장병, 고혈압’ 유무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하는 분류기준 이었고 그 외 ‘신장병, 당뇨병, 성병’ 등도 거의 모든 기관에서 채택하는 주요 분류 기준이었다. 모든 조산원 및 병원에서 체크하는 산전검사 항목은 ‘성병, HIV항체, 빈혈, A형-B형 간염’이었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검진



항목으로는 ‘임신주수, 체중, 혈압, 부종, 도플러, 태위, 내진, 초음파’가 있었다.

조산원에서 적절한 산후관리 기간은 출산 후 6시간이 적당하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병원에서는 2박 3일이라고 응답하였고, ‘1주 이상’, ‘산모가 원하는 만큼’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응답자(23.1%)도 있었으며, 입원부터 퇴원까지 산모가 조산원에 머무는 평균 시간은 약 3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시 간호중재 항목으로 ‘내진, 가족 지지, 호흡, 운동, 분만환경(조명과 음악), 분만 자세’의 6개 항목을 모두 실시하고 있었으며, ‘진통제’는 모든 조산원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병원에서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진’은 모든 대상기관의 중재항목이지만 ‘산모가 원할 때나 필요시, 3번 이내, 5번 이내’ 실시 순으로 응답하여 산모를 배려하는 간호중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타 항목으로 ‘마사지, 대체요법, 찜질, 수중분만’ 등으로도 간호중재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2>.

〈표 1〉 자연출산관리 대상기관 및 대표 조산사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or M±SD			구분	n(%) or M±SD				
		조산원(n=13)	병원(n=2)	전체(n=15)		조산원(n=13)	병원(n=2)	전체(n=15)		
일반적 특성	연령 (년)	40~49	1(7.7)	1(50.0)	2(13.3)	종교	유	11(84.6)	1(50.0)	12(80.0)
		50~59	7(53.8)	1(50.0)	8(53.3)		무	2(15.4)	1(50.0)	3(20.0)
		60~69	4(30.8)	-	4(26.7)	산모초기 상담 적절시기 (주)	6~12	4(30.8)	2(100.0)	6(40.0)
		70 over	1(7.7)	-	1(6.7)		16	1(7.7)	-	1(6.7)
		M±SD	53.85±7.68	45.00±7.07	52.67±7.99		20~24	7(53.8)	-	7(46.7)
	월수입 (만원)	200~300 미만	1(7.7)	-	1(6.7)		26	1(7.7)	-	1(6.7)
		300~400 미만	9(69.2)	2(100.0)	11(73.3)		M±SD	17.54±5.61	6.00±0.00	16.00±6.59
		≥400	3(23.1)	-	3(20.0)	없음	4(30.8)	1(50.0)	5(33.3)	
	학력	대학졸	9(69.2)	1(50.0)	10(66.7)	<10	3(23.1)	-	3(20.0)	
		대학원졸	4(30.8)	1(50.0)	5(33.3)	간호경력 (년)	10~20 미만	-	-	-
		지역	서울	2(15.4)	-		2(13.3)	20~30 미만	2(15.4)	1(50.0)
	경기		6(46.2)	-	6(40.0)		≥30	4(30.8)	-	4(26.7)
	인천		2(15.4)	-	2(13.3)		M±SD	16.08±16.70	10.50±14.85	15.33±16.08
	경북		2(15.4)	-	2(13.3)		기관설립 이유	자연출산 지지	6(46.2)	-
	부산		-	2(100.0)	2(13.3)	개원 희망		2(15.4)	-	2(13.3)
	제주	1(7.7)	-	1(6.7)	자기주도적 간호	2(15.4)		-	2(13.3)	
	조산경력 (년)	10~15	4(30.8)	-	4(26.7)	출산문화 개선		1(7.7)	-	1(6.7)
		15~35	4(30.8)	2(100.0)	6(40.0)	모자보건을 위해		2(15.4)	2(100.0)	4(26.7)
		≥35	5(38.5)	-	5(33.3)	총운영기간 (년)	Range	1~40	21~68	1~68
		M±SD	27.00±12.61	24.50±6.36	26.67±11.83		M±SD	14.92±13.95	44.50±33.23	18.87±18.81
산정수가 적절성	매우 적음	10(76.9)	2(100.0)	12(80.0)	월평균출산 건수(회)	Range	2~11	47~75	2~75	
	약간 적음	1(7.7)	-	1(6.7)		M±SD	5.45±2.86	60.83±19.80	12.83±20.37	
	보통	2(15.4)	-	2(13.3)						

M=Mean; SD=Standard deviation

〈표 2〉 자연출산관리 및 교육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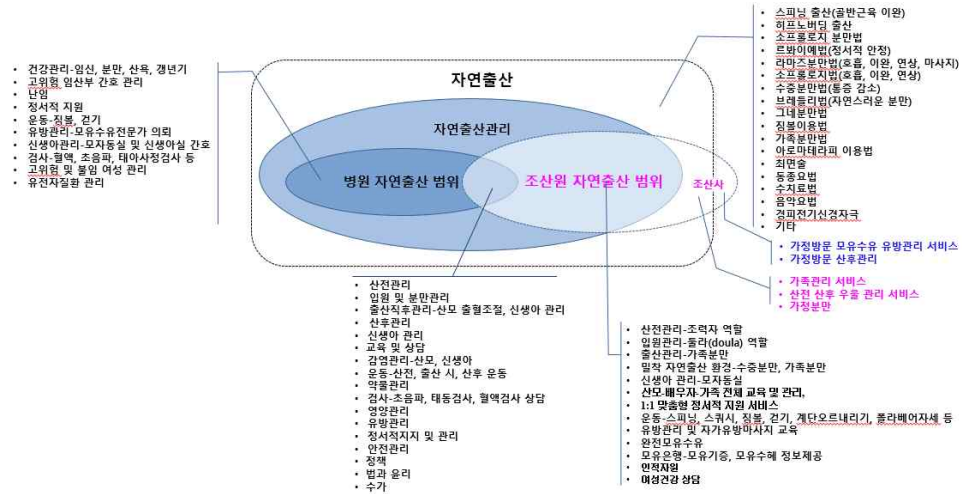
	구분	n(%) or M±SD			구분	n(%) or M±SD				
		조산원(n=13)	병원(n=2)	전체(n=15)		조산원(n=13)	병원(n=2)	전체(n=15)		
출산전관리	산전교육시간(분)	분만교육	73.85±36.18	90.00±42.43	76.00±35.82	*응급사례	산모출혈	7(53.8)	1(50.0)	8(53.3)
		운동교육	50.77±30.13	60.00±0.00	52.00±28.08		태아가사	7(53.8)	2(100.0)	9(60.0)
		태교교육	49.23±30.13	-	42.67±32.83		태아기형	3(23.1)	1(50.0)	4(26.7)
		신생아돌봄	56.92±32.25	30.00±42.43	53.33±33.31		태반문제	9(69.2)	1(50.0)	10(66.7)
		임산부영양교육	66.92±35.21	-	47.33±40.61		CPD	9(69.2)	1(50.0)	10(66.7)
		모유수유	53.08±46.08	20.00±28.28	60.67±37.31		기타(없음)	2(15.4)	-	2(13.3)
		기타교육	30.77±24.37	-	46.00±46.57		임신주수	15(100.0)	태위	15(100.0)
			1위	2위	3위	체중	15(100.0)	태동	14(93.3)	
	*교육순위	분만교육	5(33.3)	-	7(46.7)	혈압	15(100.0)	골반경사	10(66.7)	
		운동교육	-	11(73.3)	2(13.3)	두통	12(80.0)	단백뇨	13(86.7)	
		태교교육	3(20.0)	1(6.7)	1(6.7)	현운	11(73.3)	당뇨	13(86.7)	
		영양교육	3(20.0)	2(13.3)	3(20.0)	시아이상	12(80.0)	초음파	15(100.0)	
		기타	4(26.7)	1(6.7)	2(13.3)	부종	15(100.0)	도플러	15(100.0)	
		유산소	13(100.0)	2(100.0)	15(41.7)	출혈	13(86.7)	내진	4(26.7)	
근력		3(23.1)	-	3(8.3)	배뇨장애	13(86.7)	태동체크	12(80.0)		
*권장운동	유연성	12(92.3)	2(100.0)	14(38.9)	자궁저높이	12(80.0)	복부촉진	12(80.0)		
	기타	2(15.4)	2(100.0)	4(11.1)	태아심음청취	14(93.3)	NST	8(53.3)		
	규칙적 프로 그램 (1회/주)	유	3(23.1)	2(100.0)	5(33.3)	성병	15(100.0)	비타민D	3(20.0)	
운동교육자	유 무	유	3(23.1)	2(100.0)	5(33.3)	HIV 항체	15(100.0)	C형간염	11(73.3)	
		무	10(76.9)	-	10(66.7)	*산전검사 항목	풍진	14(93.3)	클라미디아	9(60.0)
		조산사	5(38.5)	2(100.0)	7(46.7)		빈혈	15(100.0)	CMV	8(53.3)
		전문운동강사	5(38.5)	-	5(33.3)		A,B형 간염	15(100.0)	톡소플라스마증	9(60.0)
기타(산모, 남편)	3(23.1)	-	3(20.0)	태아기형선별	13(86.7)		GBS	9(60.0)		
다태관리	정상시 유지관 리	유	3(23.1)	-	3(20.0)	*고위험 산모분류	신장병	13(86.7)	혈액질환	12(80.0)
		병원분만권장	8(61.5)	2(100.0)	10(66.7)		심장병	15(100.0)	간염	6(40.0)
		기타	2(15.4)	-	2(13.3)		고혈압	15(100.0)	약물복용여부	6(40.0)

	구분	n(%) or M±SD			구분	n(%) or M±SD				
		조산원(n=13)	병원(n=2)	전체(n=15)		조산원(n=13)	병원(n=2)	전체(n=15)		
분만에정일 지연 대처	기다림	4(30.8)	-	4(26.7)	당뇨병	13(86.7)	정신과질환	10(66.7)		
	병원출산권유	4(30.8)	-	4(26.7)	수혈경험	8(53.3)	성병	13(86.7)		
	출산운동대처	1(7.7)	-	1(6.7)	갑상선기능장애	6(40.0)	부인과질환	9(60.0)		
	초음파검진	3(23.1)	-	3(20.0)	천식	9(60.0)	수술시사고	10(66.7)		
	유도분만	1(7.7)	2(100.0)	3(20.0)	결핵	11(73.3)	주사/약부작용	6(40.0)		
분 만 / 출 산 후 관 리	제모	3(20.0)	운동(스피닝)	15(100.0)	10시간	1(7.7)	-	1(6.7)		
	관장	5(33.3)	촉진제	8(53.3)	12시간	4(30.8)	-	4(26.7)		
	*분만시 간호중재 항목	회음절개	4(26.7)	환경(조명음악)	15(100.0)	입원기간	24시간	5(38.5)	-	5(33.3)
		내진	15(100.0)	아로마	8(53.3)		72시간 이상	3(23.1)	2(100.0)	5(33.3)
	관 리	정서적지지	14(93.3)	진통제	2(13.3)	M±SD	30.77±24.37	72.00±0.00	36.27±26.82	
		가족지지	15(100.0)	분만자세	15(100.0)	기관내 적정 산후관리 기간	출산 후 6시간	6(46.2)	-	6(40.0)
		호흡	14(93.3)	기타	3(20.0)	1박 2일	3(23.1)	-	3(20.0)	
						2박 3일	1(7.7)	2(100.0)	3(20.0)	
						기타(원하는만큼)	3(23.1)	-	3(20.0)	

M=Mean; SD=Standard deviation; CPD=Cephalopelvic disproportion; GBS=Group B Streptococcal infection; CMV=cytomegalovirus; NST=Non Stress Test;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

## 2. 자연출산관리 영역 분석

본 연구 범위 내에서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조산원에서 충족되지 않은 영역에는 ‘고위험 임신부 관리’, ‘혈액검사’, ‘난임 및 불임’, ‘유전’ 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조산원 임상실무 프로토콜의 연구명제 간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3].



[그림 3] 근거기반 자연출산관리 영역 내용분석

## 3. 조산사 자연출산관리 내용분석에 따른 임상실무 프로토콜 개발

조산원 자연출산관리 대분류 12개 영역에서는 ‘출산관리지원의 산전관리, 입원관리, 출산관리(출산, 출산 시, 출산직후/1시간 이내, 출산 후/24시간 이내, 신생아관리), 산후 관리/24시간 이후, 산전·후 관리, 영양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지원, 환경적 지원, 인적 지원, 경제적 지원(수가)’ 등이 도출되었다.

중분류 24개의 영역에서는 ‘검사, 운동, 약물, 상담, 입원시점관리, 출산 전(잠재기, 활동기, 이행기), 출산 시(태아만출기), 출산직후(태반만출기), 출산 후(출혈조절기), 신생아관리(분만직후 신생아 간호, 신생아 간호), 산후출혈관리, 고위험관리, 애착형성, 감염 관리, 모유수유, 정신건강관리, 영양, 교육, 맞춤형 산후관리 서비스, 안전한 환경 및 시설, 인력, 수가, 기록, 법과 윤리’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 중 조산원만의 고유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자연출산관리에서는 ‘수중통증관리 및 밀착된 돌라 역할, 완전모자동실, 애착형성 기반 신생아간호, 맞춤형유방간호, 완전모유수유관리, 산모-배우자 가족 전체 교육

및 관리, 1:1 맞춤형 정서적 지원서비스, 운동(산전, 출산시, 산후운동)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고, '지역사회 내 조산사 가정방문 서비스 기능'과 '산후 우울관리'는 현재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들이 조산원에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모유수유 관리'와 '산후돌봄관리사 파견 기능 서비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과의 공통영역에서는 '산전-출산-출산직후-산후관리', '교육', '출산관련 운동', '산모-신생아 감염', '상담', '약물', '검사(초음파, 태동검사, 병원 혈액검사 상담)', '영양', '기록' 관리 및 '법과 윤리'로 나타났다.

자연출산관리 임상실무프로토콜 하위영역에는 90개 항목이 도출되었다<표 3>. 산전관리 항목인 '검사'으로 임신주수에 따른 산전검사, 임신단계별 초음파 검사, 전자태아감시 검사 내용이 분석되었고, 운동에는 스피닝, 요가, 스쿼트, 런지, 걷기, 폴라베어(polar bear) 등 운동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에는 고위험 임부 약물관리 및 상담, 임신-분만 상담, 신생아 관리 상담, 가족 상담으로 나타났으며, 상담 중 고위험 임부인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관리 시점에는 초산모 3분 34초 이상, 경산모 8분 27초 이상 자궁수축 2 ~ 3분 간격 주기일 때, 양수과수(완전·부분과수)시, 산모 불안도가 높을 때, 내진 시 경부 4cm 이상 개대될 때 조산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산관리에서는 잠재기(0 ~ 4cm 개대) 때 유선 상 가정간호 및 이상증상 코칭과 보호자 역할지도 교육, 산모 이완법 유도 코칭, 산모-보호자에게 출산근접 상태를 관찰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기(5 ~ 7cm 개대)에는 입원시점과 호흡법 코칭, 보호자 역할지도 및 교육, 산모 이완유도, 출산근접 상태 관찰, 가벼운 접촉(light touch)과 마사지, 적극적 진통관리, 불안감 해소, 수분·영양·변의·탈수·운동·이상증상(태아심음·출혈·양수과수 등) 체크 및 분만준비를 위해 산모의 취향(조용한 음악·아로마요법·어두운 조명·수중요법·자세변경)을 적극 반영하여 배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행기(8cm ~ 전개대)에는 출산 때까지 1:1 밀착된 돌라 역할과 태아골반진입 상태관찰, 보호자 역할지도, 적극적 진통관리·불안감 해소, 변의 체크(아두 진입), 10cm 전개될 때까지 힘주기 자세, 힘주기 방법 교육(산모·남편), 출산진행과정 평가(정상/비정상), 태아자세 이상시 태아회전(fetal rotation)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기부터 이행기까지 계속 관리되는 내용에는 복식호흡, 라마즈 호흡, 산모 취향 배려와 산모-배우자 정서적 지지 및 자신감 격려, 이완유도·마사지, 수분·영양공급, 교육 등이 도출되었다. 태아만출기 관리로 적절한 출산시기에 남편이 산모의 등받이 자세로 앉아 함께 효과적인 힘주기·힘빼기, 호흡유도, 출산시기와 방법 설명, 회음부 열상방지 최소화 및 회음부 마사지, 태아의 안전한 출

산유도, 자연의 중력 원리에 따른 태아만출까지의 기다림, 급속분만진행 자제, 신생아 응급처치 준비, 안전한 만출, 양수흡인 관리, 산모-신생아 호흡조절 관리, 신생아 응급조치 대처 등의 내용이 도출되었다. 태반만출기 관리에는 2시간 이내 태반박리까지 출혈 위험을 파악하면서 기다림, 모유수유 및 유두자극을 통해 태반만출 촉진, 산후출혈 가능성 예측, 관찰, 평가와 함께 필요시 응급상황 대처 준비까지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혈조절기 관리에는 자궁수축·자궁저부·출혈여부·산후 2 ~ 3시간동안 자연배뇨 체크, 자궁마사지·자궁저부 냉찜질, 활력징후·어지러움증·회음부 열상 체크, 산모의 전반적인 상태 관찰, 패드 카운트·오로 양·색깔 체크, 모유수유 출산직후 빠른 젖물림 실시, 응급 시 정맥주사 준비하여 전원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관리에는 출산직후 신생아 사정 및 관리, 태맥이 멈춘 후 탯줄관리, 남편 또는 큰아이가 제대 결찰, 흡인·아기상태 평가, 기형 등 이상증상 사정 및 평가, 필요시 신생아 응급처치가 관리되었다.

산후관리에서 산후출혈관리는 활력징후·자궁수축·자궁초음파 체크·자궁마사지, 자궁저 부위·회음절개부위·얼음주머니 공급, 모유수유·유두자극과 고위험 산모관리는 조기진통·고령임부·다태임신·출산·출혈·고혈압·당뇨·질과 자궁내 근종 등 상담, 예측형성을 위해서는 모자동실·엄마·아기·아빠 피부접촉의 캣거루 케어, 임산부·신생아 감염관리, 모유수유·유방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관리는 산전·후 전 과정에서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정서적 지지에 조산사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산모-배우자-가족 전체의 교육과 밀착 관리가 임신을 통한 산모의 정서적 변화에 대처하고 있어 산모의 산후우울 극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험 여성 및 가족 관리 및 상담까지 조산사가 관리하고 있었다. 식이측면에서 영양은 임신 시작부터 산후까지 교육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다. 조산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내용에는 임신·분만·태교·임부영양·안전한 출산·산후관리·고위험 관리, 모유수유·유방마사지 관리 교육, 산모-배우자-가족지원자 모두에게 신생아 돌봄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안전한 환경 및 시설에는 진료실·분만실·입원실·회복실·거실·산전교육·운동 및 프로그램실·조리실·소독실·산후조리원 등이 구성되어있었다. 인력은 최소 1 ~ 3인 이상의 직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급상황까지 고려해 기본 3인 이상이 요구되었다. 수가부분에서는 출산비용에서 정상출산·고위험출산 수가 산정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장시간의 밀착 상담·정서적 지원·모유수유 및 유방마사지 관리 부분에서는 별도의 추가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기록에서는 진료기록지·진찰과정기록지·신생아기록지를 활용하고 있었고, 조산사의 자연출산관리가 조산사법과 윤리적인 신념을 기반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조산

사 자연출산관리 임상실무프로토콜(CPP)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조산사 자연출산관리 임상실무프로토콜 개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전관리	검사	임신 단계별 산전검사(초음파/태아사정검사)
	운동	운동 프로그램 교육(스피닝/요가/스쿼트/런지/걷기/플라베어 등)
	약물	고위험 임부 약물관리 및 상담
	상담	임신/출산/신생아 관리/가족 상담 고위험여성(임신성 고혈압/당뇨/유전/염색체 이상/난임) 상담
입원관리	입원시점	초산모 3분 34초 이상 자궁수축이 2~3분 간격 주기적일 때
		경산모 8분 27초 이상 자궁수축이 2~3분 간격 주기적일 때
		양수과수시(완전/부분과수)
		산모 불안도가 높을 때
		경부 4cm이상 개대시
출산관리 지원	잠재기 (0~4cm 개대)	유산상 가정간호/이상증상 코칭
		보호자 역할지도 교육
		산모 이완법 유도 교육
	활동기 (5~7cm 개대)	출산근접 상태 관찰 교육(산모/보호자)
		입원시점/호흡법 코칭
		보호자 역할지도 및 교육
		산모 이완유도
		출산근접 상태 관찰
		가벼운 터치 및 마사지
		적극적 진통관리, 불안감 해소
출산관리	출산전	수분/영양/변의/탈수/운동/이상증상(태아심음/출혈/양수과수 등) 체크
		산모 취향 배려(조용한 음악/아로마요법/어두운 조명/수중요법/자세변경)
출산관리	이행기 (8cm~ 전개대)	출산 때까지 둘라 역할(1:1 밀착케어)
		복식호흡과 라마즈 호흡
		산모 & 남편 정서적 지지 및 자신감 격려
		이완유도/마사지
		태아근접 상태관찰
		보호자 역할지도
		산모 취향 배려(조용한 음악/아로마요법/어두운 조명/수중요법/자세변경)
		적극적 진통관리/불안감 해소
		수분 영양공급
		변의 체크(아두 진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출산시	태아 만출기	10cm 전개될 때까지 힘주기 제지
		힘주기 방법 교육(산모/남편)
		진행과정 평가(정상/비정상)
		태아자세 이상시 태아외회전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힘주기/힘빼기, 호흡유도
		남편-산모에게 백허그
		앉아서 함께 힘주기/힘빼기
		출산시기 알려주고 방법 설명
		회음부 열상방지 최소화 및 마사지
		태아의 안전한 출산유도
		중력에 따른 태아만출까지 기다림
		급속분만진행 자제(자연스럽게 진행)
		신생아 응급처치 준비
안전한 만출/아기 받음		
양수흡인 관리		
출산 직후	태반 만출기	호흡조절 격려
		신생아 응급조치 대처
		태반바리까지 출혈 위험 파악하면서 기다림(2시간 이내)
모유수유 및 유두자극을 통해 태반만출 촉진		
출산 후	출혈 조절기	산후출혈 가능성 예측/관찰/평가
		응급상황 준비 대처
		자궁수축/자궁저부/출혈여부/자연배뇨 체크(산후 2~3시간)
		자궁마사지/자궁저부 얼음주머니 공급
		마이탈사인/어지러움증/회음부 열상 체크
		산모 전반적인 상태 관찰
패드 카운트/오로 양, 색깔 확인		
모유수유 분만직후 실시		
신생아 관리	분만직후 신생아 간호	응급시 정맥주사 준비/전원
		출산직후 신생아 사정 및 관리
	신생아 간호	태맥이 멈춘 후 탯줄관리
		제대 결찰(아빠 → 큰아이 → 형제자매)
산후관리	산후출혈관리	흡인/아기상태 평가(아프가 점수)
		신생아 응급처치/이상증상 사정 및 평가
	고위험 관리	활력증후/자궁수축/자궁초음파 체크/자궁마사지
		자궁저 부위/회음절개부위(필요시) 얼음주머니 공급
애착형성	애착형성	모유수유/유두자극
		고위험 산모관리(조기진통/고령임부/다태임신, 출산/출혈/고혈압/당뇨/질과 자궁내 근종 등) 상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전 / 산후관리	감염	모자동실/켁거루 케어(산모-아기-아빠 피부접촉)
	모유수유	임산부와 신생아 감염관리 모유수유/유방관리
	정신건강 관리	정서적지지/조력자(돌라) 역할
		산전/산후 우울관리
영양지원	영양	배우자/가족관리 고위험 출산여성 및 가족관리
교육지원	교육	임신/고위험 임신/분만/태교/임부영양/안전한 출산/산후관리 등 교육
		모유수유/유방관리/유방마사지 교육
		산모/배우자/가족지원/신생아 돌봄 교육
지역사회 지원	맞춤형 산후관리 서비스	조산원 내 산후조리 기능 서비스
		조산사 가정방문 서비스 기능
		산후돌봄관리사 파견 기능 서비스
		모자보건 응급 콜 서비스 기능
환경적 지원	안전한 환경 및 시설	진료실/분만실/입원실/회복실/거실/산전교육/운동프로그램실/조리실/소독실 모유은행 관리실 희망(지역사회 기증·수혜자 모유관리 기능)
인적지원	인력	적정 직원 구성(응급까지 고려)
경제적 지원	수가	출산비용(정상출산/고위험출산)
		밀착 상담/정서적 지원/모유수유 수가 산정 희망
기타	기록	진료기록지/진찰과정기록지/신생아기록지
	법률, 윤리	법/윤리/정책

## VI.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조산원에서 제공하는 자연출산관리의 임상실무 프로토콜을 탐색하여 표준화 지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조산원마다 사례별 서비스 및 운영에 따라 산전관리 초기 개입부터 산후관리 이후까지 출산 전문가의 산모 개인별 맞춤형 자연출산관리가 행해지고 있어 조산원을 신뢰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조산원 기능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조산원의 고유한 특성과 자연출산 프로그램의 가치가 대상자 및 기관 단체를 통해 홍보되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 조산사가 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산사 및 조산원의 역할 확대 범위는 현재 매우 저조한 편이다. 조산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연출산관리는 ‘암묵적 지식’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재적 지식에 대한 체계화와 조산원의 혁신확산이 필요하다(Polanyi, 2019). 그러나 이러한 요인이 조산사의 책임 영역, 서비스 범위 및 역량의 한계점에서 병원출산의 경쟁력보다 열악한 묘사와 조산사 배출 부족은 물론 조산원 혁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공적 혁신은 개인 및 집단적 전문성에 달려있으며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 및 각 기관의 다양한 창의력과 창조적 기술을 기반 한 지식이 서로 병합되어야 한다(Leonard & Sensiper, 1998). 이에 성공적인 조산사 임상프로토콜 확산 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채널로 기관 및 단체 활용도 가능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조산원에서 관리되어지는 주된 산전교육 프로그램에는 ‘임신, 출산, 운동, 태교, 신생아 돌봄, 임신부 영양, 모유수유’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소요된 프로그램은 ‘분만교육(76분)’과 ‘조산사의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조산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라마즈, 소프롤로지, 스피닝 등 운동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대상자에게 자연출산에 기여함과 동시에 신뢰하고 있어 스피닝 출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Park et al., 2018)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모유수유 교육 내용에 모유기증, 수혜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들을 한국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맞게 고찰 조사하여 임신부와 영아 건강증진을 위한 추적관리 질 표준화 관리 운영지침 모델을 한국형으로 설계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산원의 ‘자연출산 필요성과 남편교육’ 부분에서는 조산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부재가 나타나 이를 개선하고 자연출산의 가치와 안전성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조산원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산원에서 추구하는 자연출산의 원리는 산모의 골반과 아두의 상관관계 간 최적화된 기점을 찾기 위해 균형, 중력, 움직임으로 골반근육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자연출산을 유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태아 및 태반만출까지 자연출산의 기다림, 태백이 멈춘 후 태출관리, 태아자세 이상시 태아회전에 도움을 주는 행위, 밀착된 돌라 역할 및 상담, 맞춤형 교육 및 운동프로그램 등도 조산원 자연출산관리의 주된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산원 내 산후조리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는 결과에서는 조산사의 돌봄 성향이 병원분만과 다른 형태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조산사를 조력자로 의지하고 있다는 결과(Lee, 2015)를 지지하였다.

조산원의 고위험 관리는 임상실무 프로토콜 내용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면 고령임부와 쌍태아 출산까지는 조산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고위험 임신부관리에서 37주 이전 조기진통, 다태임신, 임신 합병증 등이 진단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연계된 상급종합병원으로

출산 권장 및 전원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상황 발생시 조산원 위치와 가장 가까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것으로 실시 간 체계적인 U-안심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전국 조산원의 실시 간 응급체계 지원 구축망 설립에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산원은 미연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사전 진료연계 체계 시스템 구축 마련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기록, 초음파 자료 공유 및 119, 보건소 등의 협력적 의사소통이 요구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현재 국내 출산장소 부족실정은 시·군 45%가 산부인과도 없거니와 병원분만을 하지 않아 5곳 중 1곳은 아이 낳을 곳이 없어 차로 1시간 이내 분만 가능한 주변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보고되고 있다(Hong & Hur, 2019). 이에 조산원의 기능이 지역사회 내 접근성에서 자연출산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서 홍보 및 정책적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본 임상실무 프로토콜과 국내외 모아건강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표준지침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Kim et al, 2014)을 토대로 간호 실무측면에서 조산원 및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조산사들의 간호서비스 간 차이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며, 조산사의 출산관리 서비스 질 향상 및 업무 규범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기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지역사회 조산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연출산 관리는 여성전문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임상실무지침과 분만 중 중재방법, 분만지연 대처방법 등에서 초점이 달랐다. 조산원 영역은 병원과 다르게 산모는 물론 가족간호중재 서비스까지 치료적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사회 모자보건사업 확대 방안에 적합한 인력으로 기여 가능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전부터 산후간호까지 1:1 맞춤형 산전·후 방문간호 서비스 기능, 대상자와 가족 지지 교육에 따른 신뢰감 형성 및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적 의사소통 유지 등 모자보건 상담자로서 본 영역에서의 역할 기능은 기대할만하다. 그러므로 병원분만과 공통적인 기능 이외의 추가적인 밀착형 정서지원 및 가정방문 서비스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수가산정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산원 기능 장점은 지역사회 의료취약지구의 자연출산 시설 확대 관리가 가능하며, 조산원의 자연출산 관리 임상실무 프로토콜 표준화 지침마련이 지역사회 조산원 혁신 확산에 기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국내 저출산 문화와 맞물려 조산사 및 조산원 혁신은 국내 모자보건사업 확산에 촉진자 역할로 기여할 것으로 보여 현실적인 교육과정 법률 개정과 국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한 국내 조산원의 임상실무 프로토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임신부와 영아 건강증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근간으로 한 표준화 관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추후 바코드 트래킹시스템을 활용한 추적관리 프로그램과 시스템 개발은 조산원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한 임신부와 영아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기반으로 임신부와 영아건강증진을 위한 조산원 및 조산사 역할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조산사 측면에서는 종합병원 및 여성전문병원, 지역 보건소 내 모자보건센터에 출산관련 전담 상담사 역할에 조산사 필수 인력 의무 배치 도입을 제언한다.

둘째, 조산원 측면에서 지역사회 출산전문 의료기관으로서 공공기관과 협회 간 조산원의 자연출산 장점에 대해 공동 홍보 노력이 필요하며, 조산사의 지속적인 질 향상 또한 요구된다.

셋째, 조산협회 측면에서 조산사 확대 배출 및 확산 방안 마련, 분만취약지역의 조산원 인프라 구축 및 전국 홍보 확대, 조산원 인력채용 지원 확대, 개업조산원 지원, 보수교육 질 향상, 국가 정책 마련에 원활한 소통, 체계적인 응급시스템 구축 및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조산원 임상실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바코드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한 체계적인 임신부와 영아건강관리 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Hader, J. M., White, R., Lewis, S., Foreman, J. L., McDonald, P. W., & Thompson, L. G. (2007). Doctors' views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 qualitative exploration using innovation theory. *Journal of Evaluation in Clinical Practice*, 13(4), 601-606.
-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7). *Medical institution claim tota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evaluation [Internet]*. Wonju: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 \_\_\_\_\_ (2020a). *Find by hospital and pharmacy [Internet]*. Wonju: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 \_\_\_\_\_ (2020b).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ealth Insurance Statistic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Her, S., Kim, K. H., & Oh, H. S. (2012). A study on work condition, stress,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infection control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24(4), 327-338.
- Hong, J. G., & Hur, S. W. (2019). *1 out of 5 cities·counties has no place to have delivery [Internet]*. 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3/201907130016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3/2019071300168.html)
- Japanese Nursing Association. (2018). *Midwifery in Japan*. Tokyo, Japanese Nursing Association(pp. 1-28).
- Kim, E. M., Yu, M. L., Hyang, Y., Ko, J. W., Cho, E. Y., & Kim, E. S. (2014). Development of nursing handoff practice guideline and standards for Korean hospital.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 1-14.
-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KHPLEB). (2020). *Midwife examination guide [Internet]*. Seoul, Korea: KHPLEB.
- Korea Midwifery Association. *Midwifery curriculum guide [Internet]*. (2020). Seoul: Korea.
- Krefting, L. (1991).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The assessment of trustworthiness.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5(3), 214-222.
- Lee, I. H. (2015). A study on the role and decline of the midwife as female childbirth professional. *Korean Oral History Association*, 6(1), 121-161.
- Lee, S. H., & Lee, M. O. (2013). Characteristics, motivation of choice and childbirth experience of women who selected delivery at midwifery center.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6(1), 1-10.
- Leonard, D., & Sensiper, S. (1998). The role of tacit knowledge in group innov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0(3), 112-132.

Marshall, J., & Raynor, M. (2014). *Myles textbook for midwives 16th ed.* London, United Kingdom: Elsevier(pp. 4-27).

Medical Subject Headings. *Clinical Protocol [Internet]*. (2020).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United States of America.

Medical Subject Headings. *Natural birth [Internet]*. (2020).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United States of Americ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9 Delivery vulnerability support project guide(final) [Interne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Medical law enforcement rules [Internet]*. (2020). Sejong: Legislation.

Nieuwenhuijze, M., & Leahy-Warren, P. (2019). Women's empowerment in pregnancy and childbirth: A concept analysis. *Midwifery*, 78, 1-7.

Park, C. S., Kim, H. J., & Yeoum, S. G. (2015). Experienc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ttended to delivery practice at midwifery clinic.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1(2), 115-127.

Park, H. S., Kim, Y. S., & Chung, S. M. (2017). Exploring the Meaning of Social Practice in the Midwife Life Histor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1), 501-527.

Park, H. S., Moon, G. N., & Lee, S. Y. (2018). Exploration of the meaning of spinning education program on naturalistic birth and nursing intervent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5), 609-627.

Phillippi, J. C., & Avery, M. D. (2014). The 2012 American College of Nurse-Midwives core competencies for basic midwifery practice: history and revision. *Journal of Midwifery & Women's Health*, 59(1), 82-90.

Polanyi, M. (2019). *Facility standards & clinical practice parameters for midwife-led birth centres*. College of Midwives of Ontario(pp. 5-41).

Rogers, E. M. (1995). *Diffusion of innovations, 4th ed.*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Free Press(pp. 10-35).

Song, J. Y., & Park, Y. J. (2020). Opening status of the Korea midwifery birthing centers and development of midwifery practice guidelin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0(4), 583-598.

Spector, J. M., Agrawal, P., Kodkany, B., Lipsitz, S., Lashoher, A., Dziekan, G., Bahl, R., Meriardi, M., Mathai, M., Lemer, C., & Gawande A. (2012). Improving quality of care for maternal and newborn health: prospective pilot study of the WHO safe childbirth checklist program. *PLoS one*, 7(5), e35151.

Walker, D., Lannen, B., & Rossie, D. (2014). Midwifery practice and education: curr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19*(2).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6). *Standards for improving quality of maternal and newborn care in health facilities*. Geneva: WHO(pp. 1-84).

\_\_\_\_\_ (2019). *Strengthening quality midwifery education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2030 [Internet]*. Geneva: WHO(pp. 7-11).



〈ABSTRACT〉

## Clinical Practice Protocol for the Standardization of Guidelines for Korean Midwifery Natural Fertility Management

Kang, Nam Mi · Park, Hyunsoon · Lee, Shin Young · Kim, Ok Jin  
· Kim, Sang Jin · Moon, Guil Nam · Lee, Chan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clinical practice protocol (CPP) of natural birth management education for midwives by identifying midwives in general hospitals consisting of midwives including midwives and midwives training centers in Korea. This study used a cross-sectional mixed-method design to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explore clinical practices on natural birth management in Korean women's healthcare hospitals (n=2) having midwives and maternity centers (n=13). For quantitative data analysis, this study used frequency analysi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using SPSS ver. 23.0. Multiple response questions were analyzed with dichotomies and weight-categories multiple response analysis. Qualitativ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content on natural birth management among directors of maternity centers by involving data coding of meaning framework on the design and spread of CPP gathered from primary, secondary in-depth interviews based on WHO's midwives code of conduct. The finding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revealed that the appropriate time to commence initial counseling for mothers were 20-24 weeks (53.8%) in maternity centers and 6-12 weeks (100.0%) in hospitals. Moreover, the proper duration of maternal care in the postpartum period was 6 hours (46.2%) after the birth in maternity centers and three days-two nights (100.0%) in hospitals. Hospital transfer accounted for the largest percentage of all emergency cases in the high-risk classification system of pregnant women. Furthermore, the aid of midwives was found to be an essential service required to assist exercise programs in the pre and postnatal periods, healthcare of newborn infants, breast-feeding, and nutritional management in pregnancy, childbirth, newborn care, and family counseling. In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analysis, the data on CPP analysis were classified into 12 sub-items in major group, 24 sub-items in sub-major group, and 90 sub-items in minor group. In conclusion,

the establishment of the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clinical practice protocol for natural birth management in maternity centers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midwives, maternity centers and childbirth-related health facilities and expanding the educational innovation of domestic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grams.

**Key words**

Midwifery Clinic, Midwife, Natural Birth, Clinical Practice Protocol, Diffusion of Innovation

논문 투고일	2020. 10. 19
논문 심사일	2020. 11. 09
게재 확정일	2020. 11. 18

---

**강남미**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nmkang03@kku.ac.kr

**박현순** 강원도 태백시 대학길 97 강원관광대학교  
sshsp@hanmail.net

**이신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eshinyoung@hanmail.net

**김옥진** 경기 의왕시 포일로 21 아기탄생조산원  
ojkim80@hanmail.net

**김상진** 경기 부천시 부흥로 260 열린가족조산원  
ksj916@naver.com

**문길남**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27 일신기독병원  
guilnam@hanmail.net

**이찬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4 화명일신기독병원  
nrchanhee@hanmail.net

# 한국어 보조용언과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연구

왕용라 · 김선정\*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 보조용언과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대조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 보조용언과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통사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통사적 특징을 대조한 결과에 따르면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동사나 형용사인 본용언 앞에 위치하고 보조적 연결어미가 없으며 문장 속에서 생략할 수 없다. 또한 본용언만 대응이 가능하고 대응되는 표현이 연속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중국어의 대응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다음으로, 의미적 특징을 대조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한국어 보조용언을 의미 범주로 분류한 32개 중, 중국어에 대응되는 표현이 있는 경우는 한국어 보조용언이 22개가 해당되었으나 대응되는 관계가 1대1(一對一)이 아니라 1대다(一對多)의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보조용언에 일부의 의미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의 경우는 한국어 보조용언 중 8개가 해당되었고,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이 없는 경우는 한국어 보조용언 중 2개가 해당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의 보조용언 교육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보조용언, 한국어, 중국어, 중국어 능원동사, 대조 분석

\* 제1저자, 계명대학교 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계명대학교 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과 교수

## I. 머리말

이관규(1992)에서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심리적 태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화자 혹은 주체의 심리적 태도를 잘 나타내는 보조용언<sup>1)</sup>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미세한 심리적 태도를 잘 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은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보조용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문법 범주로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나 ‘능원동사’가 있기는 하지만,<sup>2)</sup> 한국어 보조용언과 같은 개념의 문법 범주가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보조용언의 개념을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무엇인지와 두 언어의 대응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보조용언과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연구를 보면 이영(2006)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보조용언 기술 방안과 교육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어 보조용언을 중국어 능원동사로 대응하여 한·중 보조용언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대조·분석하였다. 최영(2014)는 한국어 보조용언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교육 모형을 설계하기 위하여 한국어 보조용언을 의미 기능별로 제시하고 중국어와 대응되는 표현을 고찰하였다. 임소정(2016)은 한국어 보조용언 ‘놓다’의 중국어 대응 양상을 연구하였다. 무소립(2017)은 한국어 보조동사 ‘-(어) 버리다’, ‘-(어) 내다’, ‘-고 나다’와 중국어의 대응 양상을 대비하였다. 고은성(2019)는 한국어의 ‘-고 있다’, ‘-어 있다’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을 대조 연구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제한된 수의 한국어의 보조용언을 선정하여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대조한 연구가 많은 편이고 한국어의 보조용언을 전반적으로 중국어의 표현과 대조하고 체계화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보조용언을 선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타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정수(1980), 남기심·고영근(1985), 이관규(1992)를 바탕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문법 평정 목록에서 활용도가 높은 보조용언 30개를 선

1) 최현배(1937)는 보조용언의 개념을 최초로 밝혔는데, 홀로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선행용언에 연결되어 그 의미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2) 马建忠(1983). 如‘可’,‘得’,‘足’,‘能’等字, 则谓之助动词, 以其常助动字为功也。(‘可’,‘得’,‘足’,‘能’과 같은 어휘는 조동사라고 부를 수 있다. 항상 동사의 기능을 표현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조동사’를 ‘능원동사’라고도 한다.

정하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 제시한 보조용언의 의미 기술을 고려하여 보조용언의 의미 범주를 15개로 설정하였다.<sup>3)</sup> 아래 <표 1>은 한국어 보조용언을 등급과 의미 범주로 분류한 것이다.<sup>4)</sup>

<표 1> 한국어의 보조용언

의미 범주	형태	등급
희망	-고 싶다	1 급
	-고 싶어 하다	3 급
당위	-아/어야 되다	1 급
부정	-지 않다	1 급
	-지 못하다	1 급
	-지 말다	2 급
피동	-게 되다	2 급
	-아/어 지다	3 급
상태	-고 있다, <sup>5)</sup>	1 급
	-아/어 있다	2 급
봉사	-아/어 주다	2 급
	-아/어 드리다	3 급
사동	-게 하다	3 급
추측	-(으)ㄹ까 보다	2 급
	-나 보다	3 급
	-나 싶다, <sup>6)</sup>	4 급
	-(으)ㄴ가 보다	3 급
시도	-아/어 보다	2 급
	-고 보다	4 급
짐작	-아/어 보이다	3 급
반복	-아/어 대다	4 급
진행	-고 있다, <sup>7)</sup>	1 급
	-아/어 가다	3 급
	-아/어 오다	3 급
회의	-나 싶다, <sup>8)</sup>	4 급

3)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문법 평정 목록에는 보조용언의 대표형만 제시되어 있지만 본고는 보조용언 교육을 염두에 두어 보조용언의 모음 교체형을 함께 제시한다. 그리고 보조용언 ‘-고 있다’의 경우에는 ‘상태’와 ‘진행’의 의미 범주로, ‘-나 싶다’는 ‘추측’과 ‘회의(懷疑)’의 의미로 나누어 제시한다.

4)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보조용언의 등급을 제시하였다.

의미 범주	형태	등급
종결	-고 나다	3 급
	-고 말다	3 급
	-아/어 버리다	4 급
	-아/어 치우다	6 급
보유	아/어 놓다	3 급
	아/어 두다	3 급
	-아/어 가지고 <sup>9)</sup>	3 급

위와 같이 분류한 한국어 보조용언과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통사적인 특징과 의미적인 특징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대조하고자 한다.<sup>10)</sup>

## II. 한국어 보조용언과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연구

### 1. 통사적 특징 대조

#### 1) 보조용언의 위치

한국어 보조용언은 앞에 오는 동사나 형용사인 본용언과 결합하여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동사나 형용사인 본용언 앞에 위치한다.<sup>11)</sup>

- 5) '저는 지금 치마를 입고 있어요.'에서처럼 '입다, 신다, 쓰다, 끼다, 벗다' 등의 동사와 결합하여 어떠한 동작이 끝난 결과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보조용언이다.
- 6)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이다. 예) 옷이 크지 않나 싶다.
- 7)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보조용언이다. 예) 철수가 책을 읽고 있다.
- 8) 회의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이다. 예) 내가 왜 그러나 싶다.
- 9)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문법 평정 목록에서 제시된 대로 연결어미 '고'와 결합된 형태이다.
- 10) 본고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예문은 대부분 사전에서 추출하였고, 일부는 한국어 교재에서 추출한 것이다.
- 11) 한국어 보조용언은 용언인 동사나 형용사 뒤에 오기 때문에 종결어미와 결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정된 한국어 보조용언 중 '-고 나다'와 '-아/어 가지고'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하여 연결어미와 결합한다. 한국어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대부분 본용언 앞에 오고 문장 끝에 오지 못하지만 보조용언 '-아/어 놓다', '-아/어 두다', '-아/어 버리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동사 뒤에 위치한다. 이는 한국어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중국어에서 동사를 보조하는 기능을 하지 않고 부여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 (1) a. 철수는 기차표를 사고 싶어 한다.  
 b. 哲秀(철수)想(-고 싶어 하다)买(사다)火车票(기차표)。
- (2) a. 그 시험은 어렵지 않다.  
 b. 那个(그)考试(시험)不(-지 않다)难(어렵다)。

예문 (1a)와 (1b)는 동사인 본용언, 예문 (2a)와 (2b)는 형용사인 본용언을 보조하여 한국어 구문에서는 본용언 뒤에 오는 반면에 중국어 구문에서는 본용언 앞에 온다.

### 2) 보조용언의 보조적 연결어미 사용 여부

보조용언은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서술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한국어의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 ‘-게’, ‘-지’, ‘-고’로 연결된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보조용언과 본용언을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없다.

- (3) a. 나는 빵을 먹고 싶다.  
 b. \*나는 빵을 먹 싶다.  
 c. \*나는 빵을 먹어 싶다.
- (4) 我(나)想(싶다)吃(먹다)面包(빵)。

위에 예문 (3a)는 보조용언과 본용언 간에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어미 ‘고’를 사용하여 문장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 (3b)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없고 (3c)는 다른 연결 보조적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비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는 예문 (4)와 같이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과 본용언을 연결하는 문법적 장치가 없다.

### 3) 보조용언의 생략 가능성 여부

배수자(2007)에 의하면 한국어에서는 보조용언을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가 변화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고 하였다. 즉, 보조용언이 쓰인 구문에서 선행하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분리해서 생략할 수 없으며, ‘본용언 + 보조용언’의 서술어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전체를 생략할 수 없고,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된 것을 생략할 수는 없다.

- (5) a. 언니는 중국을 가고 싶어 하고, 동생은 미국을 가고 싶어 한다.  
 b. 언니는 중국, 동생은 미국을 가고 싶어 한다.

- c. ?언니는 중국을 가고, 동생은 미국을 가고 싶어 한다.
  - d. \*언니는 중국을 싶어 하고, 동생은 미국을 가고 싶어 한다.
- (6) a. 姐姐想去中国, 妹妹想去美国。  
(언니는 중국을 가고 싶어 하고, 동생은 미국을 가고 싶어 한다.)
- b. \*姐姐中国, 妹妹想去美国。  
(언니는 중국, 동생은 미국을 가고 싶어 한다.)
  - c. \*姐姐去中国, 妹妹想去美国。  
(언니는 중국을 가고, 동생은 미국을 가고 싶어 한다.)
  - d. \*姐姐想中国, 妹妹想去美国。  
(\*언니는 중국을 싶어 하고, 동생은 미국을 가고 싶어 한다.)

예문 (5b)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전체 서술어구 ‘가고 싶어 하고’가 생략되어 비문이 아니지만 (5c)는 보조용언 ‘싶어 하고’ 생략되었으며 (5a)와 의미가 다르고 (5d)는 본용언 ‘가다’가 생략되어 비문이다. 그러나 중국어 문장 (6b)는 ‘想去(가고 싶어 하다)’, (6c)는 ‘想(-고 싶어 하다)’, (6d)는 ‘去(가다)’가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 4) 보조용언의 대용 가능성 여부

이관규(1992)는 한국어에서 본용언은 대용<sup>12)</sup>이 가능하고, 보조용언은 대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용언만 대용이 가능하다.

- (7) a. 나는 책을 읽고 싶다.
- b. 나도 그러고 싶다.
- c. \*나도 책을 읽고 그러다.
- (8) a. 我想读书。(나는 책을 읽고 싶다.)
- b. 我也想那样。(나도 그러고 싶다.)
- c. \*我也读书那样。(\*나도 책을 읽고 그러다.)

예문 (7a)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같이 쓰인 문장이고 (7b)는 본용언을 ‘그러’로 대용하여 쓴 문장이다. (7c)는 보조용언을 분리하고 ‘그러’로 대용하여 완성된 문장은 비문이다. 이와 같이 (8a)와 (8b)는 가능한 문장이 되지만 (8c)는 비문이다. 이는 보조용언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의존의 성질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보조용언이 대용이 불가능하다는

12) 대용(代用)이란 반복되어 쓰인 요소를 형식상 간략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 문장에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일컫는다. 대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설명한 연구로는 김명희(1984)와 이관규(1992) 등이 있다.



것은 보조용언이 문장 속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특성을 나타낸다.

### 5) 보조용언의 반복 가능성 여부

손세모돌(1992)은 한국어의 보조용언은 동일한 보조용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두 개의 보조용언이 연속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보조용언이 연속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일한 보조용언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 (9) a. 이 치마를 한번 입어 봐봐.  
b. 그를 한번 연락해 봐 주세요.
- (10) a. \*我们得得帮助他。(우리는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b. 我们不应该帮助他。(우리는 그를 도와줘야 하지 않는다.)

위에서 한국어에서는 (9a)와 같이 동일한 보조용언 ‘-아/어 보다’가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고, (9b)처럼 보조용언 ‘-아/어 보다’와 보조용언 ‘-아/어 주다’가 연속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10a)와 같이 ‘得(-아/어야 하다)’이 반복적으로 쓰인 구문이 비문이 된다. 그러나 (10b)는 중국어 표현 ‘不(-지 않다)’, ‘应该(-아/어야 하다)’를 연속적으로 사용해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 2. 의미적 특징 대조

한국어 보조용언은 본용언과는 다르게 특수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보조용언이 단순히 본용언의 의미를 돕는 역할로 한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 보조용언과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의 의미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한국어 보조용언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의 보조용언과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의 의미적 대조 분석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외국어 교육과 연구 출판사의 『现代韩中·中韩词典(현대 한중·중한 사전)』, 계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북경대학교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보조용언 문법 설명을 참고하였다.

보조용언과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의 의미적 특징은 첫째, 한국어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이 있는 경우, 둘째, 한국어 보조용언에 부분적으로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 셋째, 한국어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이 없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대조 분석한다.

## 1) 한국어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이 있는 경우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보조용언 32개 가운데 한국어의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있는 보조용언은 22개이다.<sup>13)</sup> 본 절에서는 보조용언의 의미 범주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이 있는 보조용언을 의미 범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lt;표 2&gt;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이 있는 보조용언 목록

보조용언 의미 범주	한국어 보조용언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sup>14)</sup>
희망	-고 싶다	想
	-고 싶어 하다	
당위	-아/어야 되다	必须(得), 应该
부정	-지 않다	不
	-지 못하다	没能(没), 不能(不)
	-지 말다	不要(别)
피동	-아/어 지다	被, 变得
상태	-고 있다 <sub>1</sub>	着
봉사	-아/어 주다	给, 为
	-아/어 드리다	
사동	-게 하다	使(让, 叫)
추측	-(으)ㄹ까 보다	可能(担心, 害怕, 恐怕), 打算
	-나 보다	可能(好像, 也许, 大概)
	-나 싶다 <sub>1</sub>	
	-(으)ㄴ가 보다	
시도	-아/어 보다	试试, ……一下, ……过
집작	-아/어 보이다	看起来
반복	-아/어 대다	一直(不停地)
진행	-고 있다 <sub>2</sub>	在(正在)
종결	-고 나다	以后(之后)
	-아/어 치우다	完(光, 掉),
보유	-아/어 가지고	后, 用, 所以

13)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문법 평정 목록에서 보조용언 30개를 선정하였지만 이 중 보조용언 '-고 있다', '-나 싶다'는 각 두 개의 의미로 제시한다. 따라서 의미 범주로 분류된 보조용언은 총 32개이다.

14) 대응되는 중국어에 비슷한 말(parasynonyms)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위에 제시한 의미 범주에 따라 한국어 보조용언의 의미와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1) 희망 보조용언

‘-고 싶다’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함을 나타내는 표현 이고, ‘-고 싶어 하다’는 말하는 사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희망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보조용언이다. 그러나 중국어의 경우에는 자신의 바람인지, 타인의 바람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想’으로 표현된다.<sup>15)</sup>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 a. 나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我想去旅行。  
b.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人们都想健康得生活。

위의 예문(1a, b)에서 한국어의 경우, 주어가 1인칭인지, 3인칭인지에 따라 사용된 보조용언이 다르지만 중국어의 경우에는 주어의 인칭에 상관없이 모두 ‘想’을 사용한다.

### (2) 당위 보조용언

보조용언 ‘-아/어야 되다’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당위나 의무, 필요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문형이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必须(得)’, ‘应该’이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2) a. 우리는 교통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我们必须好好遵守交通规则。/我们得好好遵守交通规则。<sup>16)</sup>  
b. 약을 먹고 꼭 쉬어야 돼요.  
吃了药应该好好休息。

15) 다만, 한국어 보조용언과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想’은 동사를 보조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동사 자체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문장을 구성할 때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어 문장 ‘我想家了’에서 처럼 ‘家(집, 가족)’ 앞에 ‘想’이 오고, 다른 동사가 오지 않으면, 한국어의 ‘-고 싶다’에 대응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능원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이므로 ‘나는 가족을 그리워한다.’로 번역된다.  
16) 한국어 보조용언과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에서 동의어와 유의어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같이 제시하였다.

위의 예문 (2a)에서처럼 교통 규칙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나타낼 때 중국어에 대응되는 표현은 ‘必须(得)’이다. 예문 (2b)는 약을 먹고 꼭 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어에서는 ‘应该’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강제성이 있으면 ‘必须(得)’, 강제성이 없고 조언을 하는 것이라면 ‘应该’로 표현할 수 있다.

### (3) 부정 보조용언

보조용언 ‘-지 않다’는 앞선 행위나 상태를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앞선 행위에 대해 중립적으로 단순히 부정하거나 앞선 행위를 할 주어의 의지나 의도가 없음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 중국어에서는 ‘不’로 표현된다.

#### (3) 이 책은 어렵지않다.

这本书不难。

그러나 한국어의 ‘-지 않다’는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와 같이 주어의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여 부정문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의미상 주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견디다’ 같은 동사와도 함께 쓰일 수도 없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나 상태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주어의 능력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지 못하다’를 써야 한다(변정민, 2006). 아래 예문을 보자.

#### (4) a. \*네가 말해 줄 때까지 나는 그 일을 알지않았어.

在你告诉我之前, 我都不知道那件事。

#### b. 네가 말해 줄 때까지 나는 그 일을 알지못했어.

在你告诉我之前, 我都不知道那件事。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지 않다’는 주어의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 ‘알다’와 함께 쓰일 수 없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不’를 ‘知(알다)’와 함께 써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중국어 학습자는 한국어의 보조용언 ‘-지 못하다’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모국어의 영향으로 ‘-지 않다’를 사용하여 잘못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보조용언 ‘-지 못하다’는 능력이 없거나 의지대로 되지 않음을 나타내거나 어떤 상태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중국어의 ‘没能(没)’, ‘不能(不)’과 대응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 a. 시간이 모자라 몇 문제를 풀지 못했다.  
 时间不够, 没能做几道题。/时间不够, 没做几道题。  
 b. 매워서 먹지 못한다.  
 太辣了不能吃。/太辣了吃不了。

위의 예문 5(a, b)는 어떤 상황에 의해 주어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어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지 못하다’를 사용한 예이다. 중국어의 경우 과거 시제에서는 항상 부정 표현 ‘没能(没)’를 사용하고 현재나 미래 시제에서는 부정 표현 ‘不能(不)’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과거 시제에서는 중국어의 ‘没能(没)’로 대응되고, 현재나 미래 시제에서는 중국어의 ‘不能(不)’으로 대응된다.

보조용언 ‘-지 말다’는 어떤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경우 중국어에서는 ‘不要(别)’로 표현된다.

- (6) 여기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请不要在这里拍照。/请别在这里拍照。

다만, 한국어의 ‘-지 말다’는 명령문과 청유문에만 쓰인다. 따라서 아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평서문과 의문문에 ‘-지 말다’가 쓰이면 잘못된 표현이 된다.

- (7) a. \*울지 말았어.  
 别哭。  
 b. \*밤늦게 떠들지 말았니?  
 能别在晚上吵闹吗?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지 말다’가 서술문과 의문문에 쓰이면 잘못된 표현이 되지만 중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한국어의 ‘-지 말다’에 해당하는 중국어의 ‘不要(别)’는 서술문과 의문문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 (4) 피동 보조용언

보조용언 ‘-아/어 지다’는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거나 어떠한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본용언이 동사인 경우에는 중국어의 ‘被’로 대응되고, 본용언이 형용사인 경우에는 ‘变得’으로 대응된다. 아래 예문을 보자.

- (8) a. 접시가 깨어졌다.  
盘子被摔碎了。  
b. 내 친구는 예전보다 예뻐졌다.  
我朋友变得比以前漂亮了。

### (5) 상태 보조용언

보조용언 ‘-고 있다1’는 ‘입다, 신다, 쓰다, 끼다, 벗다’ 등의 착용동사 뒤에 붙어서 그러한 동작이 끝난 결과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경우에는 중국어의 ‘着’로 대응되는데 다음 예문을 통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9)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잘 보이네요.  
戴着眼镜, 所以看得很清楚。

위의 예문 (9)는 뒤의 문장 ‘잘 보인다’의 내용으로 보아 현재 안경을 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어에서는 ‘着’이 사용된다.

### (6) 봉사 보조용언

보조용언 ‘-아/어 주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그 행위가 미치는 대상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보조용언 ‘-아/어 드리다’는윗사람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두 경우 모두 중국어에서는 ‘给’이나 ‘为’로 대응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0) a. 민호 씨를 바꿔 줄까요?  
给你把珉浩换了? / 为你把珉浩换了?  
b. 어머니께 선물을 사 드릴 거예요.  
要给妈妈买礼物。/ 要为妈妈买礼物。

위에 제시한 예문(10a, b)에서 사용된 한국어 보조용언은 ‘-아/어 주다’와 ‘-아/어 드리다’로 서로 다르지만 중국어에서는 둘 다 ‘给’나 ‘为’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 (7) 사동 보조용언

보조용언 ‘-게 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

현이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물건인 경우 어떤 작동을 하도록 만드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허락함을 나타낸다. 이 경우 중국어에서는 ‘使(让, 叫)’로 표현된다.

- (11) a. 지민이는 떠드는 아이들을 순식간에 조용히 하게 했다.  
 志民使吵闹的孩子瞬间安静了。  
 b. 윤정이는 친구를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  
 允静让朋友待在自己家。/允静叫朋友待在自己家。

### (8) 추측 보조용언

보조용언 ‘-(으)ㄹ까 보다’는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형이다. 어떤 사실이나 상황으로 미루어 그럴 것 같다고 추측을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문맥에 따라 ‘可能(担心, 害怕, 恐怕)’이나 ‘打算’으로 표현된다.

- (12) a. 아기가 아플까 봐 약을 준비했어요.  
 担心孩子会生病, 所以准备了药。/害怕孩子会生病, 所以准备了药。  
 b. 체육대회 하는 날에 비가 올까 봐 걱정이예요.  
 担心运动会那天可能会下雨。

고가유(2015)는 아직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나 그 행동을 할 마음이나 생각이 있음을 나타낼 때 중국어에서 ‘可能’이나 ‘打算’과 바꿔 쓸 수 있다고 하였다.

- (13)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갈까 봐.  
 大学毕业以后可能去留学。/大学毕业以后打算去留学。

한국어의 보조용언 ‘-나 보다, -나 싶다<sup>1</sup>, -(으)ㄴ가 보다’는 추측의 뜻을 나타내고 중국어에서는 ‘可能(也许, 大概, 好像)’으로 표현될 수 있다.

- (14) a. 저 사람은 아는 것이 참 많네. 책을 많이 읽었나 봐.  
 那个人知道的真多, 可能读了很多书。/那个人知道的真多, 也许读了很多书。/  
 那个人知道的真多, 大概读了很多书。  
 b. 옷이 크지 않나 싶다.  
 衣服好像大。  
 c. 애들이 밖에서 노는가 봐요.

孩子们好像在外面玩。

### (9) 시도 보조용언

보조용언 ‘-아/어 보다’는 어떤 행위를 한번 시도하거나 경험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 ‘试试’, ‘……一下’, ‘……过’로 표현된다.

- (15) a. 저에게 그 일을 맡겨 보세요.  
请把那件事交给我试试吧。
- b. 그 음식을 먹어 보고 얘기합시다.  
吃一下那个食物再说吧。
- c. 사업을 해 본 사람은 내 어려움을 알 거야.  
创过业的人会懂我的难处。

위의 예문 (15a)는 말하는 사람에게 한번 시험 삼아 일을 맡겨 달라는 것이며, 예문 (15b)는 그 음식을 시험 삼아 한번 먹은 후에 이야기하자는 의미이다. 예문 (15c)는 이전에 사업을 한 경험이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试试’, ‘……一下’, ‘……过’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0) 짐작 보조용언

보조용언 ‘-아/어 보이다’는 어떤 대상에 대해 짐작하거나 판단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어떤 대상에 대해 겉으로 볼 때 그러하다고 느끼거나 짐작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에서는 ‘看起来’로 표현된다.

- (16) 그 사람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네.  
他的脸色看起来非常好。

### (11) 반복 보조용언

보조용언 ‘-아/어 대다’는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어떤 행동을 계속하여 그 정도가 심하거나 지나치게 반복적일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주로 부정적인 뜻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一直(不停地)’으로 표현된다.

- (17) 아이는 과자를 달라고 줄라 댔다.  
孩子一直缠着要零食。/孩子不停地缠着要零食。



(12) 진행 보조용언

보조용언 ‘-고 있다’는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중국어에서는 ‘在(正在)’로 표현된다.

- (18) 철수 씨는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哲秀在宿舍吃饭。<sup>17)</sup>/哲秀正在宿舍吃饭。

(13) 종결 보조용언

한국어의 보조용언 ‘-고 나다’는 어떤 행위를 끝내고 다른 행위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일어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중국어의 ‘以后(之后)’로 표현된다.

- (19) 숙제를 하고 나서 나가 놀아라.  
 做完作业以后出去玩吧。/做完作业之后出去玩吧。

한국어의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는 어떤 행위의 결과가 남지 않도록 빠르게 완전히 끝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중국어에서는 ‘完(光, 掉)’으로 표현된다.

- (20) a. 우리가 남은 음식을 다 먹어 치웠어요.  
 我们把剩下的食物都吃光了。/我们把剩下的食物都吃掉了。  
 b. 철수는 30분 만에 숙제를 해 치우고 밖으로 놀러 나갔어요.  
 哲秀30分钟就做完作业出去玩了。

위에 제시한 예문 (20a)는 음식을 다 먹어 남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20b)는 숙제를 빨리 다 해 버렸음을 나타낸다. 문맥에 따라 중국어의 ‘光’이나 ‘掉’, ‘完’에 대응된다.

(14) 보유 보조용언

한국어 보조용언 ‘-아/어 가지고’는 앞뒤 행위가 순차적으로 일어남을 나타내거나 앞선 행위나 상태가 뒤 상황의 방법이나 수단, 원인, 이유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중국어에서는 상황에 따라 ‘后’, ‘用’, ‘所以’로 표현된다.

17) 중국어 ‘在’는 개사와 동사일 수 있다. 刘春卉(2011)은 ‘在+장소+동작’인 경우 ‘在’는 개사가 아니고 동사인데 이 경우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 (21) a.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  
在家做了紫菜卷后去吧。
- b. 저는 돈을 모아 가지고 차를 샀어요.  
我用攒的钱买了车。
- c. 어제 잠을 못 자 가지고 아주 피곤해요.  
昨天没睡好, 所以很累。

예문 (21a)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집에서 김밥을 만든 다음 간다’는 의미이다. 중국어에서 ‘后’로 표현될 수 있다. 예문 (21b)는 앞선 행위나 뒤 상황의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국어의 ‘用’로 표현된다. 예문 (21c)는 앞선 행위와 상태가 뒤에 이루어지는 행위나 상태의 원인이나 이유가 되며, 중국어의 ‘所以’에 대응된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두 언어의 대응 관계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보조용언을 교육할 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한국어 보조용언에 부분적으로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한국어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일부의 의미가 있는 중국어 표현이 있는 보조용언은 8개이다. 이들을 의미 범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보조용언에 부분적으로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이 있는 보조용언 목록

보조용언 의미 범주	한국어 보조용언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sup>18)</sup>
피동	-게 되다	变得
		-
상태	-아/어 있다	着
		-
시도	-고 보다	先……再说
		-
진행	-아/어 가다	快……了, ……下去, 渐渐(越来越)
		-
	-아/어 오다	一直, 渐渐(越来越)
		-

보조용언 의미 범주	한국어 보조용언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sup>18)</sup>
종결	-아/어 버리다	完, 光, 掉
		-
보유	-아/어 놓다	好
		-
	-아/어 두다	好
		-

다음으로 의미 범주에 따라 한국어 보조용언의 의미와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피동 보조용언

보조용언 ‘-게 되다’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거나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어떤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 보조용언 ‘-게 되다’ 앞에 형용사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어의 ‘变得’으로 표현된다. 앞에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어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22) a. 소파를 바꾸었더니 집안 분위기가 다르게 되었어요.

换了沙发以后, 家里的氛围变得不一样了。

b. 결국 박 사장은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다.

结果林社长的公司倒闭(关门)了。

위의 예문 (22a)는 소파를 바꿔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나타낸다. 이 문장에서의 ‘-게 하다’는 중국어에서 ‘变得’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문 (22b)는 사장의 의도와 달리 회사 문을 닫았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사장은 회사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경제적 상황 때문이든, 인력난 때문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달리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 중국어에서는 ‘变得’으로 표현될 수 없다. 중국어에서 ‘결국 박 사장은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다’와 ‘결국 박 사장은 회사의 문을 닫았다’가 같은 문장으로 번역된다.

18)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없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 (2) 상태 보조용언

보조용언 ‘-아/어 있다’는 어떤 행위가 끝난 후 그 상태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앞에 일반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중국어의 ‘着’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아/어 있다’가 ‘가다’, ‘오다’ 등 왕래 발착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중국어의 ‘着’으로 나타낼 수 없고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23) a. 가방 안에 책과 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书包里放着书和钱包。

b. 철수는 부산에 가 있어요.

哲秀去釜山了。<sup>19)</sup>

예문 (23a)는 누군가가 책과 지갑을 가방에 넣었는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됨을 나타낸다. 이 경우 중국어의 ‘着’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예문 (23b)에서는 철수가 이미 부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 중국어에서 ‘着’과 함께 표현될 수 없다. 중국어에서 ‘철수는 부산에 가 있어요.’와 ‘철수는 부산에 갔어요.’가 같은 문장으로 번역된다.

## (3) 시도 보조용언

보조용언 ‘-고 보다’는 먼저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그 결과나 나머지 일에 대해 생각할 것을 제안하거나 명령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중국어의 ‘先……再说’에 대응된다. 하지만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처 몰랐지만 행위를 한 이후 혹은 그 결과로 뒤에 오는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새삼 깨닫게 됨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없다.

(24) a. 밥부터 먹고 봅시다.

先吃饭再说吧。

b. 처음엔 화가 많이 났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되었다.

开始很生气, 听了这些话理解了。

19) 岳中奇(2006)는 중국어 ‘了’는 시간 보어와 결합하지만 ‘상태 유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어 문장 ‘他去釜山三年了(그는 부산에 간 지 3년이 되었다).’에 구체적인 시간 보어인 ‘三年(3년)’이 있어 ‘了’는 상태 유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문 (23b)에는 시간부사가 없으므로 ‘了’는 ‘-아/어 있다’에 대응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예문 (24a)는 다른 일들도 있지만 먼저 밥을 먹은 뒤에 다른 일을 하자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중국어에서는 ‘先……再说’로 표현된다. 그러나 예문 (24b)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는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이해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에는 중국어의 ‘先……再说’로 대응될 수 없다. 중국어에서 ‘처음엔 화가 많이 났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되었다.’와 ‘처음엔 화가 많이 났는데,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었다.’가 같은 문장으로 번역된다.

#### (4) 진행 보조용언

보조용언 ‘-아/어 가다’는 어떤 행위나 상태, 상태 변화가 계속되거나 진행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본용언이 동사인 경우 중국어에서는 ‘快……了’나 ‘下去’로 표현된다. 특히, ‘下去’의 경우에는 미래까지 상태 변화가 계속되거나 진행됨을 나타낸다(宀平, 2015). 본용언이 형용사인 경우 중국어에서는 ‘渐渐’이나 ‘越来越’로 표현된다. 그러나 ‘-아/어가며’, ‘-아/어 가면서’의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위를 하면서 다른 행위를 계속함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快……了’나 ‘下去’, ‘渐渐’이나 ‘越来越’에 대응되지 못한다.

##### (25) a. 일이 다 끝나 간다.

事情快结束了。

##### b.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해 갈 것이다.

经济会迅速发展下去。

##### c. 밤이 깊어 간다.

夜渐渐深了。/夜越来越深了。

##### d. 우리는 술을 마시 가면서 밤새 이야기를 했다.

我们一边喝酒一边聊天,聊了一整夜。

##### e. 사무실 분위기를 봐 가며 전화해라.

看着办公室的氛围打电话吧。

예문 (25a)는 각각 행위가 계속 진행되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데, 이처럼 본용언이 동사이고 특별히 ‘다’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중국어의 ‘快……了’로 표현된다. (25b)는 ‘-아/어 가다’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으)ㄴ 것이다’와 결합하여 미래까지 발전이 계속됨을 나타내므로 宀平(2015)의 주장대로 중국어의 ‘下去’로 표현된다. (25c)는 상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용언이 형용사 ‘깊다(深)’이다. 따라서 중국어의 ‘渐渐(越来越)’와 대응된다. 예문 (25d)는 술 마시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예문 (25e)는 이런저런 분위기를 파악하고서 전화를 하라는 것

이다. 이 경우 중국어의 ‘快……了’나 ‘下去’, ‘渐渐’이나 ‘越来越’로 대응되지 못한다. 중국어에서 (25d)는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밤새 이야기를 했다.’와 같은 문장으로 번역되고 (25e)는 ‘사무실 분위기를 보며 전화해라.’와 같은 문장으로 번역된다.

보조용언 ‘-아/어 오다’ 역시 어떤 행위나 상태, 상태 변화가 계속되거나 진행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본용언이 동사인 경우 중국어의 ‘一直’, ‘下来’로 표현된다. 卍瀾(2013)은 ‘동사+下来’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적인 상태 변화가 계속되거나 진행됨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본용언이 형용사인 경우에는 ‘渐渐(越来越)’으로 표현된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말하는 사람에게 일어남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 (26) a. 그들은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내 온 이웃이야.  
他们是从很久以前开始一直相处融洽的邻居。
- b. 힘든 세월을 잘 견뎌 왔어요.  
艰苦的岁月很好地坚持下来了。
- c. 결정의 순간이 가까워 온다.  
决胜的瞬间渐渐近了。/决胜的瞬间越来越近了。
- d. 그가 나에게 뭘 먹겠냐고 물어 왔어.  
他问我要吃什么。

위의 예문을 보면 예문 (26a)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26b)는 오랫동안 힘든 세월을 참아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의 ‘一直’, ‘下来’로 표현된다. 예문 (26c)는 결정할 때가 가까워짐을 나타내는데 본용언이 형용사 ‘가깝다(近)’이므로 중국어의 ‘渐渐(越来越)’와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26d)는 말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함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 중국어의 ‘一直’, ‘下来’, ‘渐渐(越来越)’로 대응되지 못한다. 중국어에서 ‘그가 나에게 뭘 먹겠냐고 물어왔어.’와 같은 문장으로 번역된다.

##### (5) 종결 보조용언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는 어떤 행위를 완전히 혹은 이미 끝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 결과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나 부담을 덜게 되었거나 아쉬움이 남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 대부분 중국어의 ‘完’, ‘光’, ‘掉’으로 표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李明花(2010)은 한국어의 동사 ‘서다, 앉다’는 모두 ‘-어 버리다’와 결합될 수 있으나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손세모들(1996)에서는 형용사 가운데 변화의 자질을 가진 형용사, 즉, '밝다, 크다, 낡다' 등의 형용사 뒤에는 '-아/어 버리다'가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어의 경우에는 본용언이 형용사인 경우에는 '完', '光', '掉'와 함께 사용되지 못한다.

- (27) a. 나는 돈을 다 줘 버렸다.  
 我把钱都给完了。/我把钱都给光了。  
 b.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나니 맘이 편하다.  
 解决掉那个问题后, 心情很舒畅。
- (28) a. 날이 벌써 밝아 버렸네.  
 天已经晴了。

위의 예문 (28c)를 통해 중국어에서는 '밝다(晴)'와 같은 형용사와 '完', '光', '掉'가 함께 사용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중국어에서 '날이 벌써 밝았네.'와 같은 문장으로 번역된다.

## (6) 보유 보조용언

보조용언 '-아/어 놓다'는 어떤 행위를 끝내고 난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거나, 앞선 상태의 지속을 강조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본용언이 동사인 경우 중국어의 '好'<sup>20)</sup>로 표현된다. 국립국어원(2005)를 보면, 아래 예문 (29b)와 같이 본용언이 형용사인 경우도 있으나 중국어에서는 이 경우 '好'를 사용하지 못한다.

- (29) a. 외출할 때 난방을 꺼 놓았다.  
 出去的时候把暖气关好了。  
 b. 가격이 그렇게 비싸 놓으니 팔릴 리가 없다.  
 价格那么贵所以卖不出去。

예문 (29a)는 앞선 행위를 끝낸 상태가 지속되고 본용언이 동사이므로 중국어에서 '好'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29b)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용언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중국어에서는 '好'로 표현할 수 없다. 중국어에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니 팔릴 리가 없다.'와 같은 문장으로 번역된다.

보조용언 '-아/어 두다'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른 일에 대비해 어

20) 중국어에서 '好'는 형용사와 보어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되지만 여기서 '好'는 형용사가 아닌 보어 중 결과 보어로 본다.

면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중국어에서는 ‘好’로 표현된다. 그러나 黄伯荣, 廖旭东(2011)에 따르면, 결과 보어인 ‘好’는 동사 바로 뒤에 와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어에서 ‘好’는 동사 뒤에서 개사<sup>21)</sup> 등 다른 성분과 함께 결합할 때 사용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보자.

(30) a. 우리는 문을 꼭 잠가 두었다.

我们一定锁好了门。

b. 그 일을 저에게 맡겨 주세요.

请把那件事交给我。

위의 예문 (30a)는 문을 잠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경우 중국어의 ‘好’와 대응된다. 그러나 예문 (30b)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일을 맡기라고 부탁하는 정중한 명령문이다. 중국어에서 동사 ‘交’ 뒤에 개사 ‘给(에게)’이 있으므로 ‘交给好’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중국어에서 ‘그 일을 저에게 맡기세요.’와 같은 문장으로 번역된다.

다음은 한국어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이 없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3) 한국어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이 없는 경우

한국어 보조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없는 보조용언에는 ‘-나 싶다<sup>2)</sup>’와 ‘-고 말다’가 있다.

#### (1) 회의 보조용언

보조용언 ‘-나 싶다<sup>2)</sup>’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중국어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31) 내가 왜 이러나 싶다.

我为什么要这样。

예문 (31)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회의나 불만족을 나타낸다.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어에서는 ‘내가 왜 이러나 싶다.’와 ‘내가 왜 이

21) 중국어의 개사(介词)는 동사 뒤에 결합하여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허사(虚辞)이고 개사 뒤에 항상 시간이나 방식, 대상 등이 나온다.



렇게 해요.’가 같은 문장으로 번역된다.

## (2) 종결 보조용언

보조용언 ‘-고 말다’는 강한 의지를 포함하여 어떤 일을 아주 힘들게 이루어냈거나 어떤 일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찾기 어렵다.

(32) a. 다음에 경기에서 꼭 우승하고 말겠습니다.

下次比赛一定要胜利。

b. 옷에 커피를 쏟고 말았어요.

咖啡洒衣服上了。

위의 예문 (32a)는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32b)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위의 예문 모두가 중국어에 대응되는 표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각각의 문장이 ‘다음에 경기에서 꼭 우승하겠습니다.’,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와 같은 문장으로 번역된다.

## Ⅲ. 마무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보조용언과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통사적인 특징과 의미적 특징으로 나누어 대조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사적 대조 결과, 첫째 한국어 보조용언은 동사나 형용사인 본용언 뒤에 결합되지만 중국어에 대응되는 표현은 동사나 형용사인 본용언 앞에 결합한다. 둘째, 한국어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지만 중국어에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없다. 셋째, 한국어 보조용언이 쓰인 구문에서 선행하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분리해서 생략할 수 없으며, ‘본용언+보조용언’의 서술어구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전체를 생략할 수 없고 분리하여도 생략할 수 없다. 넷째, 한국어에서 보조용언을 사용하는 구문에서 선행 본용언을 분리하여 대응 가능하고 중국어에서도 본용언만 대응이 가능하다. 다섯째, 한국어에서는 동일한 보조용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두 개의 보조용언

이 연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연속되기는 가능하지만 동일한 보조용언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의미적 대조 결과 선정된 한국어 보조용언을 의미 범주로 분류한 후 총 32개 중국어에 대응되는 한국어 보조용언 22개가 있었지만, 대응되는 관계는 모든 1대1(一對一)이 아니라 1대다(一對多)의 관계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보조용언에 부분적으로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있는 경우는 한국어 보조용언 8개가 있었고,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 보조용언 2개가 들어가 있었다.

이처럼 한국어의 보조용언과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은 통사적 특성으로 보나 의미적 특성으로 보나 공통점만큼이나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보조용언을 교육할 때에는 양 언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 후 이를 교수 학습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계명대학교 한국어학당(2008). 살아있는 한국어 1-4. 계명대학교 출판부.
- 고가유(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의문문 종결어미+보다/싫다/하다' 구문표현의 교수 방안 연구 : '-나/은가/는가/을까'와의 결합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은성(2019). 한국어 '-고 있다', '-어 있다'와 중국어 대응 표현 대조 연구 : 중국인 학습자 오류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_\_\_\_\_ (2005).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김명희(1984). 국어 동사구 구성에 나타나는 의미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기심 · 고영근(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무소립(2017). 한국어 종결상 보조동사와 중국어 대응 양상 대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수자(2007). 현대국어 보조용언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정민(2006). 언어 변화의 의미적 특성 - '아니'와 '못'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3(1), 67-82.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1-6. 투판즈.
- 서정수(1980). 보조용언에 관한 연구(I) : 비합성적 보조용언. 한국언어문화, 2, 63-87.
-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安炳浩 외(2011). 标准韩国语(표준한국어) 1-4. 北京大学出版社.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한국어 1-6.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관규(1992). 국어 대등구성 연구.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 李明花(2010). 한국어 '-어 버리다'와 중국어 '掉'의 대조 연구. 동아인문학, 18, 279-301.
- 이영(200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용언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소정(2016). 한국어 보조용언 '놓다'의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11), 77-78.
- 최영(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용언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 刘春井(2011). 现代汉语时态歧义结构及时态区分手段. 宁夏大学学报, 5, 63-67.
- 李武英 외(2004). 现代韩·中韩词典(현대 한중·중한 사전).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马建忠(1983). 马氏文通. 商务印书馆.

关平(2015). 现代汉语趋向补语“下来”“下去”的语义特征考察. 语文学刊, 40(3), 19-23.

岳中奇(2006). 时量补语句中“了。”的语法功能考释. 韶关学院学报·社会科学, 27(5), 24-28.

卫澜(2013). 汉语趋向补语构式“动词+下来”分析. 西川师范大学学报, 40(3), 108-112.

黄伯荣·廖序东(2011). 现代汉语增订五版下册. 高等教育出版社.

## 〈ABSTRACT〉

## A Study on the Korean Auxiliary Predicates and the Corresponding Chinese Expressions

Wang Yongli · Kim Seon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orean auxiliary predicates and corresponding Chinese express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syntactic contrast and semantic contrast between Korean auxiliary predicates and corresponding Chinese expressions. First, as a result of syntactic contrast, the expressions corresponding to Chinese among Korean auxiliary predicates are combined in front of the verb or adjective, and there is no auxiliary connective ending and can not be omitted in the sentence. In addition, the corresponding expressions can be corresponded only to the original words and the corresponding expressions can be continued, but the corresponding expressions of the same Chinese can not be repeatedly expressed. Second, the semantic contrast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32 Korean auxiliary terms selected as semantic categories, there were 22 Korean auxiliary in the case of expressions corresponding to Chinese, In the case of some corresponding Chinese expressions of Korean auxiliary terms, there were 8 Korean auxiliary terms, and 2 Korean auxiliary in the case of no corresponding Chinese expressions.

### Key words

Korean Auxiliary Predicates, Korean, Chinese, Chinese Auxiliary Verb, Contrastive Analysis

논문 투고일	2020. 10. 18
논문 심사일	2020. 11. 09
게재 확정일	2020. 11. 18

---

왕용리 대구 달서구 도원동 산새마을아파트 708동 103호  
milky0422@naver.com

김선정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영암관 243-1  
kimsj@kmu.ac.kr



# 언어권별 삽입모음의 유형과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ㅡ’ 모음의 발음 양상 연구

윤영혜\*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ㅡ’ 모음의 특성과 언어권별 삽입모음의 유형, 그리고 ‘ㅡ’ 모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발음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언어권별로 삽입모음의 유형을 예측해 볼 수 있었고 예측한 내용과 학습자들의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예측한 삽입모음의 유형과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i/가 삽입모음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지만 실제 중국어 화자들은 [i]로 발음하였다.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i/가 삽입모음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지만 실제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은 [ə]로 발음하였다. 다음으로 예측한 삽입모음의 유형과 학습자들이 발음이 같은 경우인데 몽골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몽골어는 /i/가 삽입모음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고 실제 몽골어 화자들도 [i]로 발음하였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러시아어 또한 삽입모음으로 /i/를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i]로 발음하였다.

**주제어** ‘ㅡ’ 모음, 삽입모음, 중국어 화자, 일본어 화자, 인도네시아어 화자, 몽골어 화자, 프랑스어 화자, 독일어 화자, 러시아어 화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시간강사

##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ㅡ’ 모음의 특성과 언어권별 삽입모음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 ‘ㅡ’ 모음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 (1) 한국어 ‘오늘’

중국어 화자 : [오늘]	일본어 화자 : [오늘]
몽골어 화자 : [오닐]	프랑스어 화자 : [오닐, 오닐]
인도네시아어 화자 : [오닐]	

모국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ㅡ’ 모음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 양상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i]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 [a]로 발음하는 경우, [u/w]로 발음하는 경우, [i]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어 ‘ㅡ’ 모음의 음운적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언어권별로 삽입모음의 유형을 살펴본 후 한국어 ‘ㅡ’ 모음에 대한 언어권별 학습자들의 발음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ㅡ’ [i] 모음의 실체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삽입에 대한 논의로는 신상기(1990), 김성화(1992), 정연찬(1999) 등이 있고 기존의 논의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로는 신승용(1999)과 허용(1990, 2003, 2007)이 있다. 허용(1990)에서는 지배 음운론의 관점에서 한국어 ‘ㅡ’ 모음의 성격과 그에 따른 음운현상을 살펴 구간 내부의 것이든 구간 경계를 넘어선 것이든 빈 음절핵이며 빈 음절핵의 원리와 음절머리 사이의 지배관계에 의해 설명된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허용(2003)에서도 한국어 ‘ㅡ’ 모음은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교체모음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체는 기저구조에서 빈 핵으로 존재하는 음절핵이 적정지배에 의해 음성적으로 실현될 때 나타나는 음이라는 것이다. 허용(2007)에서는 순수 한국어 단일어에 나타나는 ‘ㅡ’ 모음의 실체를 살펴 한국어 ‘ㅡ’ 모음은 어휘적 성격을 가진 소리라기보다는 음운적 성격을 가진 소리, 즉 크게 보아 매개모음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였다.

한국어 ‘ㅡ’ 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로는 중국어 화자의 발음 연구(조문우, 2006): 노채환, 2017; 윤영해, 2018), 일본어 화자의 발음 연구(조성문, 2004: 심보 토모코, 노채환, 2009; 윤영해, 2018), 몽골어 화자의 발음 연구(김정효, 2008; 이중진, 2010; Sh. Bolormaa, 2013), 인도네시아어 화자의 발음 연구(피트리 메우티아, 2013), 프랑스어



화자의 발음 연구(박호은, 2012), 러시아어 화자의 발음 연구(윤영해, 2005; 백소영, 2009)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한국어와 학습자 모국어의 대조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고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살피는 연구와 실험음성학적으로 접근하여 학습자의 발음과 한국어 발음을 대조하는 연구, 학습자 발음교육에 대해 논하면서 모음의 오류를 살펴보는 연구로 나뉜다. 모두 ‘ㄹ’ 모음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의 모음 발음 양상 중 하나로 살펴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한국어 ‘ㄹ’ 모음의 특성과 언어권별 삽입모음의 유형을 살피고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발음 양상에 대해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본 연구자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 ‘ㄹ’ 모음의 발음양상이 학습자들의 언어권별로 다양하게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다른 모음과 달리 언어권별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삽입모음인 ‘ㄹ’가 과연 학습자 언어에서 나타나는 삽입모음으로 발음이 대치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삽입모음 유형의 관점에서 한국어 ‘ㄹ’ 모음의 특성과 학습자 모국어에 나타나는 삽입모음의 유형을 알아보고 실제 학습자들의 발음 양상을 분석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음의 양상을 살펴볼 한국어 학습자들은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화자들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언어권 화자들의 발음의 양상들이 다 다르고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II. 삽입모음의 유형

### 1. 유표성 제약에 따른 삽입모음의 유형<sup>1)</sup>

Lombardi(2003)은 음성 자질 유표성에 의한 위계인 혀의 높이, 혀의 앞뒤 위치, 원순성의 위계를 설정하여 3모음 체계와 5모음 체계 그리고 그 이상의 모음 체계에 적용하였다. 그는 정해진 유표성 제약을 통하여 유표성 위계를 최소한으로 조정함으로써 삽입모음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모음의 유표성 상관관계와 삽입모음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표성 제약에 따른 삽입모음의 유형에 관한 논의는 허용(2010)을 재인용하였음.

- (2) 모음의 유표성 상관관계(Lombardi, 2003:5)
- a. 저설성(low)과 비저설성(non-low)의 유표성은 언어에 따라 다르다.  
저모음이 무표적일 경우에는 /a/가 삽입모음이 된다.
  - b. 비저모음(non-low vowel)이 무표적일 경우에 대한 제약은 아래와 같다.
    - i) 후설모음은 전설모음에 비해 무표적이다.
    - ii) 중모음은 유표적이다.
    - iii) 원순모음은 유표적이다.
- (3) 삽입모음의 유형(Lombardi, 2003:5)
- a. 해당 모음 체계에 /i/ 모음이 있으면 /i/가 삽입모음이 된다.
  - b. 해당 모음 체계에 /i/가 없고 /ə/가 있으면 /ə/가 삽입모음이 된다.
  - c. 해당 모음 체계에 /i/와 /ə/가 없으면 /i/가 삽입모음이 된다.

## 2. 구성원소 이론에 따른 삽입모음의 유형

허용(2010)에서는 삽입모음 유형에 대한 Lombardi(2003)의 주장은 삽입모음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분절음들에 대해 제약 위반 정도를 서로 비교해 보아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언어의 삽입모음을 한 번에 알아내기 어렵다고 하면서 지배음운론(Government Phonology)과 의존음운론(Dependency Phonology) 등에서 말하는 구성원소 이론(Element Theory)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왜 자연언어에서 /i, ə, i, a/가 삽입모음이 될 수 있고 다른 모음들은 어려운지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자연언어의 삽입모음 유형의 원리와 삽입모음의 내적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자연언어에서의 삽입모음 유형의 원리(허용, 2010:338)
- a. 자연언어에서 선택되는 삽입모음은 원칙적으로 중립 구성원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b. 삽입모음의 우선순위는 아래 (i) ~ (ii)의 순서로 하되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모음부터 선택된다.
    - i. 주 구성원소에 중립 구성원소(∅)를 가진 모음
    - ii. 종 구성원소에 중립 구성원소(∅)를 가진 모음

## (5) 삽입모음 /i, ə, i, a/의 내적구성

i	ə	i	a
ø	ø	I	A
ø	A	ø	ø

위에서 제시한 (4)과 (5)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자연언어의 삽입모음은 무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허용(2010:338)에서는 삽입모음의 유형과 관련하여 /a, i, u/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연언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모음인 5모음 체계 이하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i, ə/는 나타나지 않고 삽입모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분절음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u/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삽입모음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a/와 /i/ 중에서 삽입모음으로 /a/보다 /i/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다.<sup>2)</sup>

### Ⅲ. 언어권별 삽입모음의 유형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어 ‘ㅡ’ 모음의 특성과 학습자 언어권별 삽입모음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국어 ‘ㅡ’ 모음의 특성

한국어 ‘ㅡ’ 모음이 삽입모음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앞서 II장에서 제시한 원리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Lombardi(2003)이 제시한 삽입모음의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모음 중 단모음은 모두 7개로 /a, ə, o, u, i, e/이다.<sup>3)</sup> 7모음 체계 안에 /i/ 모음이

2) 허용(2010:338)에 따르면 Kitto & de Lacy(1999:84)에서 /i/ 모음을 삽입모음으로 하는 언어가 /a/ 모음을 삽입모음으로 하는 언어보다 두 배가 많다고 하였고 de Lacy(2006:289)에서도 22:13으로 Kitto & de Lacy의 분석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Lombardi(2003)에서도 이 비율은 비슷하게 확인되며 Rose(1993)는 삽입모음의 선택 순서로 중설모음(/i, ə/)이 가장 우선하며 그 다음은 설정성(즉, 전설)평순모음 /i, e/이며 /a/는 예외적이라 하였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삽입모음이 된다.

다음으로 구성원소 이론으로 삽입모음의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어 ‘ㄱ’ 모음 즉, /i/(ø, ɔ)는 중립의 구성원소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삽입모음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주 구성원소와 종 구성원소 모두 중립의 구성원소(ø)를 가지기 때문에 가장 무표적인 모음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중립적이고 무표적인 특성 때문에 한국어 ‘ㄱ’ 모음은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쉽게 탈락하는 특성이 있고 차용어를 표기할 때에도 한국어의 음소배열에 맞지 않는 자음이 배열될 때에 ‘ㄱ’ 모음이 삽입된다.<sup>4)</sup> 또한 한국어 내에서도 한국어의 음소배열제약에 어긋날 경우 ‘ㄱ’ 모음이 삽입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 가. 크다, 예쁘다, 쓰다  
 나. 트럭, 프랑스, 프로그램  
 다. 그늘, 한글, 틈, 쯤, 뜨면, 흐려요, 느려요  
 나오면, 괜찮으면

(6) ‘가’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쉽게 탈락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고 (6) ‘나’는 차용어에서 한국어의 음소배열에 맞지 않아 ‘ㄱ’이 삽입된 예이다. 즉, ‘ㄱ’을 중심으로 앞 자음 /ㄷ, ㅍ, ㅂ, ㄱ/ 모두 뒤 자음 /ㄹ/보다 자음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음소배열제약인 앞 자음이 뒤 자음보다 강하면 안 된다면 것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두 자음 사이에 삽입모음 ‘ㄱ’이 삽입이 되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마지막 음절 ‘스’에서 /ㅅ/는 한국어의 종성에 허용되는 자음이 아니기 때문에 모음이 삽입되어 ‘스’가 되는 것이다. (6) ‘다’는 한국어 내에서 음소배열제약에 어긋나 ‘ㄱ’이 삽입된 예이다. 차용어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 ‘다’에 있는 단어들도 앞 자음이 뒤 자음보다 강도가 강하여 한국어의 음소배열제약에 어긋하기 때문에 모음을 삽입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하는 것이 한국어의 삽입모음에 대해 외국인 학습자들의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발

3) 물론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10모음 체계, 8모음 체계로 보지만 본고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양상에 대해 논하기에 현실 발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모음 체계도 현실 발음을 기준으로 7모음체계로 보고자 한다.

4) 한국어의 음소배열제약은 다음과 같다(허용, 김선정, 2006:214).

첫째, 한국어에서 연속되는 두 자음 중 앞 자음은 뒤 자음보다 자음 강도가 클 수 없다.

둘째, 한국어의 자음 강도: 유음 < 비음 < 장애음

음을 살필 단어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음을 만났을 때 쉽게 탈락하는 특성을 보여 주는 용언의 어간에 쓰인 ‘-’와 차용어에 쓰인 ‘-’, 한국어의 음소배열제약에 어긋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 삽입된 ‘-’의 세 가지 경우로 제한하고자 한다.

## 2. 학습자 언어권별 삽입모음의 유형

### 1) 중국어 삽입모음의 유형

김정욱(2009:24)에 따르면 한국어의 단모음에 대응하는 것이 중국어의 원음(元音)이다. 이 원음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결합한 형태와 한 개 이상의 원음과 보음이 결합한 형태를 운모라 한다. 권성미(2017:25)에 따르면 중국어 화자들은 중국어 음절 구조 특성상 운미 없는 운모인 단모음 운모 즉 단운모를 단모음처럼 인식한다. 중국어의 단운모 중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단모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6개로 [i], [y], [u], [ɛ], [o], [a]이다.

II장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중국어의 삽입모음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삽입모음의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어 모음 체계에는 /i/와 /ə/가 없기 때문에 /i/가 삽입모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성원소 이론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어에서 중립의 구성원소(ø)를 가진 모음은 /i/와 /a/이기 때문에 이 두 모음이 삽입모음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II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언어에서 /i/와 /a/ 중 삽입모음으로 선택되는 비율이 /i/가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어에서 /a/보다는 /i/가 삽입모음이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 2) 일본어 삽입모음의 유형

일본어의 모음은 5개로 /i, e, a, u, o/이다. 한국어에 비해 단모음의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II장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일본어의 삽입모음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삽입모음의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본어에는 /i/와 /ə/가 없기 때문에 /i/가 삽입모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성원소 이론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어에서 중립의 구성원소(ø)를 가진 모음은 /i, a, u/이기 때문에 이 세 모음이 삽입모음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어는 5모음 체계인 관계로 II장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연언어에서 삽입모음으로 선택되는 비율이 더 높은 /i/가 삽입모음이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 3) 인도네시아어 삽입모음의 유형

인도네시아어의 단모음은 철자 표기상으로는 5개이지만 실제 7개의 음성으로 실현된다. 철자 표기상 단모음은 /a, i, u, e, o/이지만 /e/가 [e], [i], [ə]로 발음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의 단모음은 모두 7개이다(피트리 매우티아, 2013:26)⁵).

삽입모음의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인도네시아어 모음 체계에는 /e/[i]가 있기 때문에 /e/[i]가 삽입모음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성원소 이론으로 삽입모음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 구성원소와 종 구성원소에 중립의 구성원소를 가진 모음은 /e/[i]가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어에서 삽입모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음은 /e/[i]이다.

### 4) 몽골어 삽입모음의 유형

몽골어의 단모음은 모두 7개로 /a, ə, ɪ, o, y, ɵ, ʏ/이고 국제음성기호로 나타내면 [a, e, i, ə, o, ö, ü]이다(Sh. Bolormaa, 2013:18,19).

Lombardi(2003)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몽골어의 경우 모음 체계 내에 /i/와 /ə/가 없기 때문에 /i/가 삽입모음이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소 이론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i/와 /ə/가 종의 구성원소로 중립의 구성원소(ɵ)를 가지기 때문에 둘 다 삽입모음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II장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보다는 /i/가 자연언어에서 더 선호되는 삽입모음의 유형이다. 따라서 몽골어에서 삽입모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음은 /i/가 된다.

### 5) 프랑스어 삽입모음의 유형

프랑스어의 모음은 모두 15개로 비모음 4개 /ɛ̃, œ̃, ɑ̃, ɔ̃/ 와 구강모음 11개 /i, e, ɛ, y, ø, œ, a, ɔ, o, u/로 이루어져 있다(박세희, 2012:15).

삽입모음의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프랑스어에는 /i/와 /ə/가 없기 때문에 /i/가 삽입

5) 피트리 매우티아(2013:27)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9년 46호의 인도네시아어의 철자법 규정에 의한 단모음 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혀의 앞뒤 위치 입술모양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혀의 높낮이						
고모음	i					u
중모음	e		ə/i			o
저모음	ɛ		a			

모음이 될 수 있다. 또한 구성원소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봐도 중립의 구성원소를 주 구성성분으로 가지는 모음은 없고 종의 구성성분으로 가지는 모음이 /i/이기에 이것이 삽입모음이 될 수 있다.

## 6) 독일어 삽입모음의 유형

독일어 모음은 단모음 8개 /ɪ, ε, a, ʏ, œ, ə, ʊ, ɔ/와 장모음 8개 /i:, e:, a:, y:, ø:, u:, o:/, 복모음 /ai, au, ɔy/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모음은 7개와 Schwa-/ə/로 이루어져있다. (박세진, 2012:2)

삽입모음의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일어에는 /i/가 없고 /ə/가 있기 때문에 /ə/가 삽입모음이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주 구성성분으로 중립의 구성원소(ø)를 가진 모음 /ə/가 존재하기 때문에 독일어에서 삽입모음은 /ə/가 될 수 있다.

## 7) 러시아어 삽입모음의 유형

러시아어의 기본 모음은 5개로 /ɪ, ə, a, o, y/가 있고 이를 국제음성기호로 나타내면 [i, e, a, o, u]으로 학자에 따라 /ɨ/[y]를 포함한 6모음 체계로 보기도 한다(윤영해, 2005:11).

삽입모음의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어 모음체계에는 /i/와 /ə/가 없기 때문에 /i/가 삽입모음이 됨을 알 수 있다.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중립의 구성원소를 주 구성성분에 가진 모음이 없기에 종의 구성성분에 중립의 구성성분을 가진 모음을 살펴보면 /i/가 있어 러시아어의 삽입모음은 /i/가 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삽입모음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의 경우 /i/가 삽입모음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i/가 삽입모음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고 독일어의 경우 /ə/가 삽입모음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언어권별 삽입모음의 유형

언어권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삽입모음의 유형	/i/	/i/	/i/	/i/	/i/	/ə/	/i/

## IV. 한국어 학습자들의 ‘ㅡ’ 모음 발음 양상

본 장에서는 먼저 연구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발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권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ㅡ’ 모음의 발음 양상을 살펴보고 앞서 예측해 본 언어권별 삽입모음의 유형과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 1. 연구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 1)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자료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학습자들의 발음을 녹음, 수집하였다. ‘ㅡ’ 모음이 포함된 단어와 문장을 한 번씩 읽게 하였고 사전에 연습할 기회는 따로 주지 않았다.<sup>6)</sup> 분석은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직접 듣고 ‘ㅡ’ 모음의 발음 양상을 전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음의 다양한 양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단어별 발음의 양상을 다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사하였다.

####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7개국의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발음을 녹음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초급 학습자들로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과 서울 소재 대학 한국어 학당(중국, 일본)과 학부(몽골, 러시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 2. /ㅡ/ 모음의 발음 양상 분석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 양상을 분석한 결과 앞서 살펴본 언어권별 삽입모음의 유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양상을 보인 언어권 학습자들도 있었고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언어

6) 학습자들에게 단어와 문장을 한 번씩만 읽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단어는 앞서 III장 1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른 모음과 만났을 때 쉽게 탈락하는 경우와 차용어에 쓰인 경우, 한국어의 음소배열제약에 위배되어 삽입된 경우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가 최소 5개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어를 제시한 후에 세 번씩 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단어를 여러 개 제시하였고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도 읽게 했기 때문에 한 번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권 학습자들도 있었다. 중국어 화자들과 일본어 화자들,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의 경우 예측한 삽입모음의 유형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언어권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중국어 화자의 발음 양상

중국어 화자들은 /-/ 모음을 [u]로 발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III장 2절에서 예측한 중국어 삽입모음의 유형 /i/가 아닌 다른 유형으로 발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언어권 화자들에 비해 /-/ 모음의 발음 양상이 다양하지 않았고 [u]로 발음하는 양상도 몇몇 단어에만 국한되어 나타났다. 중국어 화자들의 발음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7) /-/ → [u]

은[운], 프로그램 [푸로그램], 서두르면 [서두루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중국어 화자들은 한국어 /-/ 모음을 발음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모국어 삽입모음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의 삽입모음을 발음하였다기보다 한국어 /-/와 비슷한 발음으로 대체하여 [u]로 발음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일본어 화자들의 발음 양상

일본어 화자들 또한 중국어 화자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일본어 화자들은 한국어의 /-/를 [u]로 발음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일본어 화자들의 경우도 앞서 예측한 삽입모음의 유형과는 다른 양상으로 발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어 화자들의 발음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 /-/ → [u]

그늘 [구늘], 주름[주름], 예쁘다[예뿌다], 프로그램[푸로구렘]

III장 2절에서 살펴본 일본어의 삽입모음의 유형은 /i/였으나 일본어 화자들의 발음에 나타난 양상은 대부분이 [u]였다. 일부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i]와 [u]의 중간소리 정도로 발음하기도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어 화자들은 한국어의 /ɾ/를 발음할 때 원순성이 없는 [ɯ]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와 /ɾ/를 혼동하여 발음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 결과 한국어 /-/를 발음할 때 일본어에서 삽입모음으로 선택될 것이라 예측한 [i]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ɾ/와 혼

동하여 [u]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 3)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의 발음 양상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은 한국어의 /ㅡ/를 [ə], [ɨ], [i]로 발음하였다. 특히, [ə]로 발음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는데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의 발음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ㅡ/ → [ə], [ɨ], [i]

스물[서물], 하늘[하닐], 흐려요[허려요]

은[으은], 그늘[그으닐], 크다[크오다], 트럭[트으럭]

프로그램[피로그램], 쓰다[씨다]

Ⅲ장 2절에서 살펴본 인도네시아어 삽입모음의 유형은 /e/[ɨ]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은 한국어의 /ㅡ/ 모음을 발음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대로 발음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학습자들의 발음에 나타난 양상은 [ə]가 가장 두드러졌고 [ɨ]로 [ɨ]를 연이어 발음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i]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중국어 화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어 화자들도 앞서 예측한 인도네시아 삽입모음의 유형과는 다른 양상으로 발음하였다.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의 발음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Ⅲ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어에는 /e/가 [e], [ɨ], [ə]로 발음된다. 피트리 메우티아(2013)에 따르면 한국어 단모음과 인도네시아어 단모음을 국제음성기호를 기준으로 대응시켰을 때 한국어 /ㅡ/는 인도네시아어 [ɨ] 또는 [ə]에 대응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제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의 발음에서 [ə]로 발음하는 양상과 [ɨ]를 연이어 발음하여 [ɨɨ]로 발음하는 양상은 모국어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4) 몽골어 화자들의 발음 양상

몽골어 화자들은 한국어의 /ㅡ/ 모음을 [i]로 발음하였다.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과 달리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단어에서 [i]로 발음하는 양상을 보였다. 몽골어 학습자들의 발음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ㅡ/ → [i]

느껴요[니껴요], 하늘[하닐], 그늘[그닐], 트럭[티럭], 뜨면[띠면]

몽골어 화자들의 발음에 나타난 양상은 Ⅲ장 2절에서 살펴본 삽입모음의 유형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삽입모음의 유형과 구성원소 이론을 기준으로 살펴본 삽입모음은 /i/였고 실제 학습자들의 발음에서도 /-/를 [i]로 발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몽골어 화자들의 발음에 나타난 특이한 점은 다른 언어권 화자들과 달리 다른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 5) 프랑스어 화자들의 발음 양상

프랑스어 화자들은 한국어의 /-/를 [i], [ii], [u], [ə]로 발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i]로 발음하는 양상이 두드러졌고 다음으로는 [ii]로 발음하는 양상이 많았다. 프랑스어 화자들의 발음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I) /-/ → [i], [ii], [u], [ə]

여름[어림], 쓰다[씨다], 서두르면[서두리면], 느껴요[니껴요]

뜨면[뜨으면], 늘[늘을], 크다[크오다], 트럭[트으럭], 프로그램[프로로그램],

드려요[두려요], 프랑스[푸랑스], 요즘[요쭈]

예쁘다[예빠다], 늦어요[넛어요], 쓰다[씨다], 웃음[우썸]

프랑스어 화자들의 발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i]로 발음하는 양상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Ⅲ장 2절에서 살펴본 프랑스어 삽입모음의 유형인 /i/와 일치했다. [ii]로 발음하는 양상도 많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의 발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발음의 양상이다. 또한 [u]나 [ə]로 발음하는 양상도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서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으로 다 발음하는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어 화자들의 발음에 나타난 특이한 사항은 첫 번째 음절에 ‘-’ 모음이 오는 경우 발음의 양상이 다양하였다는 점이다.

### 6) 독일어 화자들의 발음 양상

독일어 화자들은 한국어의 /-/를 [i], [ii], [ə], [a], [iə], [ii]로 발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에 비해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i]로 발음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ii]로 발음하는 것이었다. 이는 프랑스어 화자들의 발음 양상과도 같다. 독일어 화자들의 발음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2) /-/ → [i], [ii], [ə], [a], [iə], [ii]  
 은[인], 서두르면[서두리먼], 스스로[시시로], 그[기], 들으면[딜이먼],  
 흐려요[히려요]  
 스물[스으물], 쓰다[쓰으다], 드려요[드으려요], 크다[크으다], 한글[한그을]  
 트릭[트으릭]  
 스물[서물], 예쁘다[예빠다]  
 나오면[나아먼], 으레[아래]  
 스물[스어물], 그[그어]  
 쓰다[쓰이다], 쓰세요[쓰이세요]

Ⅲ장 2절에서 살펴본 독일어 삽입모음의 유형은 /ə/였고 실제 독일어 화자들의 발음에서도 [ə]로 발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발음의 양상은 [i]였다. Ⅲ장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일어 단모음은 7개로 /ə/는 Schwa이기 때문에 /i/가 삽입모음이 될 수 있고 이는 실제 학습자들의 발음에 나타난 양상과 일치한다. 독일어 화자들의 발음에 나타난 독특한 양상은 [ii], [iə], [ii]와 같이 모음을 중복해서 발음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어 화자들과 프랑스어 화자들의 발음에서도 [ii]로 발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iə]나 [ii]와 같이 두 모음을 중복해서 발음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독일어 화자들의 발음에 나타난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고 복모음 /ai, au, oy/가 있는 독일어의 영향이라 해석할 수 있다.

## 7) 러시아어 화자들의 발음 양상

러시아어 화자들은 한국어의 /-/를 [i], [e], [ə], [u]로 발음하는 양상을 보였다. [i]로 발음하는 양상이 가장 두드러졌고 다음으로는 [e]로 발음하는 양상이었다. 러시아어 화자들의 발음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3) /-/ → [i], [e], [ə], [u]  
 웃음[우짐], 요즘[예짐], 으레[이레]  
 크다[케다], 뜨면[테먼], 쓰다[쎄다]  
 늦어요[너어요], 쓰세요[쎄세요]  
 서두르면[서두루먼]

러시아어 화자들은 [i]로 발음하는 양상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Ⅲ장 2절에서 살펴본 삽입모음의 유형인 /i/와 일치한다. 다른 언어권 화자들의 발음 양상에 비해 독특한 점은 [e]로 발음했다는 것이다. 이는 7개의 언어권 중 유일하게 나타난 양상으로 러시아

어 모음 체계 내에서 대체해 발음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러시아어 모음 체계에는 /ə/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ㅡ/를 [ə]로 발음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어 모음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발음의 양상을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어의 삽입모음 /ㅡ/를 발음할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모국어의 삽입모음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에 대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학습자들은 삼분의 이 정도가 모국어의 삽입모음으로 대체하여 발음하였으나 그 외에 학습자들은 다른 모음으로 발음하였다. 예측한 삽입모음과 다르게 발음한 학습자들은 중국어 화자들과 일본어 화자들과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이었다.

둘째, 한국어의 삽입모음 /ㅡ/를 발음할 때 대체되는 모음으로는 [i]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ə], [u], [a] 순이었다.

셋째, 단모음의 발음을 연이어서 발음하는 양상이 인도네시아어 화자들과 프랑스, 독일어 화자들의 발음에서 나타났다. 특히 독일어 화자들은 다른 언어권 화자들에 비해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졌다.

넷째, 다른 모음에 비해 오류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권별로도 앞서 예측한 삽입모음의 유형과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서너 개씩의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 V. 결론

지금까지 유효성 제약에 따른 삽입모음의 유형과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 ‘ㄱ’ 모음의 특성과 언어권별 삽입모음의 유형, 그리고 ‘ㅡ’ 모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발음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먼저 학습자 언어권별로 삽입모음의 유형을 예측해 볼 수 있었고 예측한 삽입모음의 유형과 학습자들의 발음이 실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예측한 삽입모음의 유형과 같은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먼저, 중국어의 경우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은 이론을 바탕으로 삽입모음의 유형을 살폈을 때 /i/가 될 것이라 예측하였지만 실제 중국어 화자들은 [u]로 발음하여 모국어 삽입모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어 화자들의 발음에서

도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i/가 삽입모음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지만 실제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은 [i]로 발음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예측한 삽입모음의 유형과 학습자들이 발음 양상이 같은 경우인데 몽골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몽골어는 /i/가 삽입모음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고 실제 몽골어 화자들은 [i]로 발음하였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러시아어 또한 삽입모음으로 /i/를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 발음에서 [i]로 발음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물론 독일어 화자들의 경우 다양한 발음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예측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 언어권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삽입모음의 유형과 학습자들의 발음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자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언어권별로 발음 교육의 방법과 연습 등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더 많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발음의 양상을 면밀히 살펴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남겨 두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권성미(2017).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글과크.
- 김성화(1992). 삽입모음 ‘으’의 기능. 국어학, 22, 87-155.
- 김정욱(200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수 방안 연구 - 한국어와 중국어 모음 체계 대조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효(2008).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음소 인지 오류에 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24, 379-392.
- 노채환(2019).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습득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5, 229-250.
- 노채환·심모 토모코(2009). 일본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습득에 대한 고찰. 언어와 언어학, 제44집, 107-125.
- 박세진(2012).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의 독일어모음에 대한 발음오류 - e-, ö-, ü- 음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제57집, 1-19.
- 박세희(2012). 프랑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및 습득 패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호은(2013).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소영(2009). 러시아어권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상기(1990). 매개 모음 ‘-으’에 대한 몇 가지 문제. 국어학 논문집. 태학사.
- 신승용(1999). ‘-으X~-X’계 어미의 기저구조. 국어학, 34, 3-29.
- 윤영해(2005). 러시아어 화자들의 중간언어 음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영해(2018). 한국어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모음 연구 - 중국어, 일본어 화자의 발음 양상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4권 1호, 175-194.
- 이중진(2010). 청취와 음성 산출 실험을 통한 몽골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오류 연구. 한국어교육, 21-3, 197-207.
- 정연찬(1999). ‘으, 으’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국어학, 20.
- 조문우(200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순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 중국어문학지, 21, 365-387.
- 조성문(2004).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 음성과학, 11(3), 69-81.
- 피트리 메우티아(2013). 한국어교육을 위한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단모음의 대조와 /ㅈ/, /ㄱ/

습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허용(1990). 지배음운론에서 본 ‘ㅡ’ 모음. 말소리, 19(20), 58-87.

\_\_\_\_\_(2003). ‘ㅡ’ 모음의 기저구조와 음운론적 해석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27, 407-424.

\_\_\_\_\_(2007). 한국어 ‘ㅡ’ 모음의 음운론적 실제 연구. 언어와 언어학, 제39집, 235-255.

\_\_\_\_\_(2010). 자연언어에서의 삽입모음의 유형 연구. 언어와 언어학, 제49집, 325-348.

허용·김선정(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de Lacy, P. (2006). Markedness : reduction and preservation in phonology. CUP.

Kitto, C. & de Lacy, P. (2006). Correspondence and epenthetic quality. *Proceedings of Austronesian Formal Linguistic Association VI*, 181-200.

Lombardi, L. (2003). Markedness and the typology of epenthetic vowels. Rutgers Optimality Archive 575.

Rose, S. (1993). Coronality and Vocalic Underspecification, Toronto Working Paper in Linguistics 12, 155-177.

Sh, Bolormaa. (2013). 몽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단모음 발음 교육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BSTRACT〉

## A Study on the Types of Epenthetic Vowels by Language and the Aspect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 Pronunciation

Yoon Young H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 vowel pronunciation pattern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 vowels were identified and the types of vowels were classified by language.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predict the type of epenthetic vowel for each languages and see how these predictions differ from the learners' pronunciation. As a results, Some languages show that the predicted vowels by language based on this study actually differ from native speaker's pronunciation. For example, /i/ was predicted as a epenthetic vowel in Chinese and Japanese, but Chinese speakers and Japanese speakers pronounced it as[u]. The same goes for Indonesian. / i / was expected as a epenthetic vowel, but Indonesians pronounced it as [ə]. On the other hand, some languages have the same expected the epenthetic vowel type and actual pronunciation. Mongolian is representative. Mongolian was predicted to be an insertion vowel /i/, and real Mongolian speakers pronounced [i]. In addition, French, German and Russian are the same cases.

### Key words

The Vowel /i/, Epenthetic Vowel, Chinese Speaker, Japanese Speaker, Indonesian Speaker, Mongolian Speaker, French Speaker, German Speaker, Russian Speaker

논문 투고일	2020. 10. 17
논문 심사일	2020. 11. 09
게재 확정일	2020. 11. 09



# 한반도 후기구석기시대 현생인류의 수렵도구 다양성 연구\*

이헌종\*\* · 박성권\*\*\*

## 국문초록

문화교류는 사람의 이동에 따른 문화접촉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국 문화의 전파나 확산은 인적이동과 연관성이 높다. 인적이동으로 인해 문화가 전파되면서 동일문화가 확대되고 점진적인 확산으로 기존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기구석기시대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돌날, 세형돌날과 같은 석기문화 역시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이미 한반도에 자리한 집단들에 문화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플라이스토세 말에 보이는 D-O 혹은 HE와 같은 주기적인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현생인류가 유입된 유일한 근거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주기적인 기후변화는 돌날석기문화, 세형돌날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집단들이 중국 북부지역과 아무르강 유역 등지에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후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돌날석기문화(40-30ka), 세형돌날문화(25-20ka)가 유입되는 시기, 그리고 양면박리 기술이 보편화되는 시기(20-15ka)에 돌날과 세형돌날문화를 갖고 있던 현생인류의 유입이 한반도로 촉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생업활동은 환경에 따른 수렵전략과 도구유형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후기구석기시대 기후변화의 다양성은 그 기후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수렵전략에 영향을 주었고 그에 따른 수렵도구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이 다양성은 현생인류가 지역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각 수렵도구의 효율성을 높여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며 분화된 결과물이다.

\* 본 논문은 2019년 목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연대보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 뒤에 'uncal BP'나 'BP'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보정연대의 경우에는 연대 뒤에 'cal BP'를 명시하여 구분하였다.

\*\* 제1저자,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 교신저자,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특히 후기구석기시대 최말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은 수렵도구에 더욱 폭넓게 나타난다. 이러한 수렵도구의 다양화는 인류의 이주 메커니즘과 연관되어 있으며, 각 시기별 기술체계의 범주에서 나타난다.

**주제어** 후기구석기, 기후변화, 현생인류, 문화전파, 수렵도구의 다양성

## I. 머리말

문화교류는 사람의 이동에 따른 문화접촉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국 문화의 전파나 확산은 인적이동과 연관성이 높다. 인적이동으로 인해 문화가 전파되면서 동일문화가 확대되고 점진적인 확산으로 기존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기구석기시대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돌날, 세형돌날과 같은 석기문화 역시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이미 한반도에 자리한 집단들에 문화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기구석기시대의 수렵채집사회는 식량자원의 영역변화에 따라 이동생활을 하는 유동성이 큰 사회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양상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후기구석기 시대는 대략 40-10ka의 시기로 중기구석기시대 이래로 지속된 격지석기군, 돌날석기문화와 세형돌날문화의 등장 등 다양한 석기문화가 공존하는 구조를 보인다(이현종, 2010, 2015b). 이 시기의 문화구조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생계활동에 따른 환경 적응 과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

최종빙기(Last Glacial Period, LGP)가 시작된 이래, 중기구석기시대에서 후기구석기시대로 이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양상은 인류의 이주<sup>1)</sup>와 지역적 환경에 적응하는 생계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플라이스토세 말에 보이는 단스가드-오슈가[Dansgaard-Oeschger, D-O]

1) 이주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것을 뜻한다. 본고에서는 수렵채집 집단들이 생업환경에 따라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기존의 집단들에 문화전파가 이루어지고 문화적 영향을 받은 집단 역시 근거지를 이동함에 따라 다른 집단들로 문화가 광역적으로 전파된다는 개념으로 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혹은 하인리히[Heinrich, H] 이벤트와 같은 주기적인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집단들이 유입하게 된 확실한 근거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주기적인 기후변화는 돌날석기문화·세형돌날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집단들이 중국 북부지역과 아무르강 유역 등지에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세형돌날문화는 약 25ka를 전후한 시기에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최종빙기 극성기(Last Glacial Maximum, LGM)의 기후환경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까지 얻어진 절대연대 값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세형돌날문화를 이끈 인류는 25-24ka에 나타나 후기구석기시대 말기까지 돌날석기문화를 확산시킨 현생인류와 공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LGM이 끝날 무렵과 보링-엘러로드(Bolling-Allerod, B-A)의 급격한 온난기, 그리고 국지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한랭기의 영겨 드라이어스(Younger Dryas, YD)와 같은 기후환경변화는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들이 근거지나 계절적 방문지로서 다양한 집단들이 유입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면박리 찌르개는 이 시기 중에 시베리아 스텝지대와 극동지역에 확산되어 있던 양면박리기반의 유연형 찌르개를 사냥도구로 활용했던 현생인류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른 홀로세 온난기(Early Holocene Warming, EHW)에 이르면 연안이 도래하게 된다. 이에 주변자원이 풍부해지고 점차 거주기간이 연장되면서 정주에 필요한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며, 후기구석기시대 최말기 유적에서 확인되는 소형 유경찌르개 혹은 화살촉은 초창기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그 유형이 더욱 다양해진다.

결국 돌날석기문화와 세형돌날문화의 등장, 그리고 두 문화의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수렵도구의 등장은 환경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주와 그에 따른 문화접촉과 관련된 증거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와 유적 형성시기의 연관성, 그리고 수렵도구의 기술·형태적 다양성을 검토하고 환경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구의 복잡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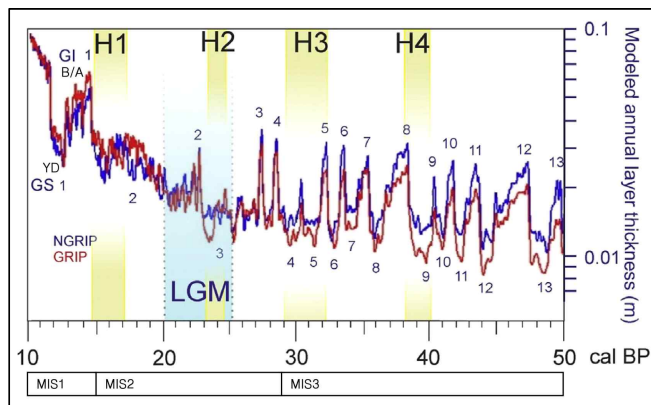
## II. 후기구석기시대 기후환경변화

후기구석기시대 환경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구의 다양화와 문화적 복잡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시기의 기후환경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후기구석기시대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세형돌날문

화의 등장기와 양면박리 기술체계가 적용된 사냥도구의 확산 시기의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린란드 빙하 프로젝트(Greenland Ice Sheet Project, GISP)에 따르면, 최종빙기가 시작된 이래, 단기간 기후가 급격히 온난해지는 주기인 단스가드-오슈가(D-O) 이벤트가 있었고(Meese et al. 1997; Lisiecki and Raymo 2005), 이런 급격한 기후 순환의 일부로서 한랭기인 하인리히 이벤트(HE)가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와 D-O의 주기는 밀란코비치 순환(Milankovitch Cycle)<sup>2)</sup>으로 인한 태양입사열(Insolation) 변화로 온도를 상승시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Wilson et al. 1999)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나 D-O에서 확인된 급격한 온도 상승이 북미대륙에 자리한 로렌타이드 빙하(Laurentide ice sheet)를 녹이면서 많은 양의 담수가 북대서양에 유입되고, 이때 북대서양의 열염분순환(Thermohaline Circulation)이 약화되면서 북대서양 고위도 지역 일대의 기후를 춥게 만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남극 빙하코어 산소동위원소 값이 그린란드와 서로 반대되는 양극성 시소(bipolar seesaw)가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나타내고 있어, 이후에는 반구(半球)간 잔여 열을 상호교환하면서 남반구에도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기후 순환과정 속에서 D-O의 급격한 온난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 10ka-50ka(cal BP) 동안 고기후 변동  
(Rybin et al. 2016, 수정 후 인용)

2) 밀란코비치 순환(Milankovitch Cycle)은 지구의 공전궤도(이심율[Eccentricity], 자전축의 경사각[Obliquity], 자전축의 세차운동[Precession]) 변화에 의해 태양 입사열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현상이다.

그린란드(Johnsen et al., 2001) 및 북그린란드(Andersen et al., 2006) 빙하코어의 자료를 동아시아(Wang et al., 2001; Zhou et al., 2014) 자료와 상호 비교하면, 그린란드 단계(Green-land Stadial, GS)9, 즉 GS9는 동아시아에서는 H4(40-38ka cal BP)와 겹친다. 또한 GS5와 H3(32-29ka cal BP)이 시작되면서 온난한 기후가 급격히 서늘해지고, 이후 LGM이 시작되는 GS3과 H2(24,5-23ka cal BP), GS2와 H1(14,5-17ka cal BP)에 다시 한랭해진다.

특이할 점은 MIS3에서 보이는 그린란드 아간빙기(Green-land Interstadials, GI)의 뚜렷한 주기가 MIS2기에 이르러서는 상대적으로 점점 약해진다는 점이다. 이런 점진적인 한랭화는 빙하를 가장 크게 발달시키는 LGM을 초래하고, 결국 GI에 해당하는 B-A(14,68-12,9ka cal BP)가 시작하기 전까지 H1에 해당하는 한랭기(Oldest Dryas)가 도래한다.

B-A의 급격한 온난기가 지나고 대략 12,9-11,5ka cal BP에는 북대서양과 북극해의 열염분순환 장애로 YD(GS1)에 해당하는 급격한 한랭화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다(Broecker et al., 1989; Teller et al., 2002; Broecker 2006; Murton et al., 2010). 그린란드 빙하코어 산소동위원소 분석에 의하면 YD 동안에는 현재보다 약 15°C 정도 더 한랭했고, 세계적으로 이전 시기보다 약 2-6°C 정도 기온이 하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uffey et al., 1995; Severinghaus et al., 1998; Alley 2000; V. Rull et al., 2015). 일본의 스이게츠(水月)호 코어기록에 따르면(Nakagawa et al., 2003), 동아시아에서는 북대서양의 YD보다 0,25-0,4ka 정도 늦게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전 기온보다 약 2-4°C 하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YD가 끝나는 11,5ka cal BP 즈음 마지막 아간빙기에 해당하는 급격한 기온 상승이 시작되고 점차 온난해지는 EHW에 이르면서 기후가 개선되기 시작한다.

이 같은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그리고 지역적 규모 식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동물상의 변화가 야기되면서 동·식물상 군락분포에 변화를 초래한다. 식물은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생육범위를 이탈하게 될 경우 생존이 허용되지 않는다. 동물의 경우 생태환경에 따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출토된 동물화석 분석을 바탕으로 당시의 환경 및 동물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식물상의 변화가 당시 수렵채집민의 생업활동에 따른 이동, 그리고 유적점유 시기와 거시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환경을 복원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에 돌날석기문화(40-30ka)와 세형돌날문화(25-20ka)가 유입되는

시기, 그리고 양면박리 기술이 보편화되는 시기(20-15ka)에 현생인류의 유입이 한반도로 촉진되었을 가능성을 갱신세 후기 동·식물상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40-30ka

아산 풍기동에서는 약 43ka 이전에는 온대낙엽활엽수림이 우점했고, 43-38.6ka에는 한랭침엽수림이 분포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상현 외, 2006). 이는 대체로 40ka를 전후로 서늘했던 기후가 점차 추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무안 피서리에서는 43.1-32.9ka를 전후로 한랭한 온대의 낙엽성활엽수림이 우점했던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서늘하며 건조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철환 외 2005). 대략 35ka를 기준으로 초본류가 증가하고 난대종의 산출량이 뚜렷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전후로 더욱 한랭 건조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MIS3의 남부 동해안 식생은 현재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냉온대 북부·고산지형 침·활엽혼합림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성길 외, 2003).

MIS3에 출토된 동물화석을 살펴보면, 용곡 1호 동굴의 9층(2문화층)과 냉정 동굴 10층에서 더운 열대성기후에 서식하는 대형동물인 큰쌍코뿔이, 물소와 함께 온난한 기후에 사는 사슴, 멧돼지등과 추운 기후에 사는 동굴하이에나 등이 확인된다(한창균, 2008). 절대연대값은 52-43ka를 지시하며, 두 유적간의 출토된 동물상의 분포양상이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후환경에 서식하는 동물화석의 출토는 LGM 이전의 한랭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기온 상승, 즉 D-O에 따른 기후 변화양상과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1〉 MIS3의 동물상(한창균 2008, 수정 후 인용)

유적명	지층 (문화층)	절대연대값(ka)	동물화석
용곡 1호 동굴	9(2)	44.3±2(U/Th)[♣] 49.9±2(U/Th)[♣]	여우, 너구리, 큰곰, 오소리, 들말, 사슴, 멧돼지, 산양, 동굴하이에나, 노루, 물소, 땅쥐, 복작노루, 간단이빨쥐, 큰갈발쥐, 룡곡산쥐, 조선갈발쥐, 범, 큰쌍코뿔이, 누렁이
냉정 동굴	10	43(TL)[석순] 52(ESR)[석순] 46(U/Th)[♣]	표범, 동굴하이에나, 큰쌍코뿔이, 들말, 말, 사슴, 물소, 들소, 멧돼지, 누렁이



## 2. 25-20ka

천안 성정동의 I 화분대(22.3-20.1ka)에서 한랭침엽수림이 우세하게 확인되었고(김혜령 외 2012), 무안 피서리의 III 화분대(28.7-18ka), 그리고 제주도 하는 분화구의 화분 분석(21.8-14.4ka)에서는 초본류가 목본류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참나무속이 우세하였다(정철환 외, 2004). 이 시기의 우리나라 남부지역은 초본식물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수목은 비교적 소림으로 분포하였을 것이다. LGM에 이르면서 기후는 더욱 한랭건조해지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초지가 우세했던 환경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영산강하류 평야지역에 위치한 나주 장동리 용동의 AT층 아래의 화분대에서는 초본류보다 수목류가 우세한 것으로 볼 때, 당시 이 지역은 한랭한 기후임에도 상당히 습윤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정철환 2006; Volikhovskays, N. S., 2004). 이 같은 분석결과는 같은 기후대에 속하더라도 지리 및 지형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3. 20-15ka

속초 영랑호의 퇴적물의 화분분석 결과, 17-15ka에는 한랭 건조한 기후로 아한대 침엽수림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이며, 산지에는 한랭성 수목이 소림으로 분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塚田松雄 et al, 1977; 安田喜憲 et al., 1980; 윤순옥, 2007; 최기룡, 2007). 이후 16-12ka에 해당하는 청원 소로리 I·II 화분대에서는 침·활엽혼합림이 확인되어 이전보다 기후가 점진적으로 온난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김주용 외, 2003, 2006a, 2006b; 이용조·우중윤, 2003). 이 같은 침·활엽혼합림은 LGM 이전의 D-O와 같은 급격한 온난기와 이후 찾아오는 한랭기 같은 뚜렷한 주기가 LGM을 기점으로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MIS2에 출토된 동물화석을 살펴보면, 평창 기화리 쌍굴의 9층(2문화층)에서 사슴, 노루, 산양, 큰쌍코뿔이 등이 확인되며, 출토된 동물뼈의 절대연대값이 49.9-44.3ka를 지시하고 있다(한창균, 2008). 남한에서 확인되는 MIS3과 MIS2의 동물상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MIS2에는 고라니, 산양, 개 등 추운 기후의 동물들이 확인된다(조태섭, 2015).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전체적인 기후 양상은 급격한 기후변화보다는 MIS3보다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한랭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MIS3과 MIS2의 동물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다는 점은 중·대형의 유제류가 기후변화와는 상관없이 수렵채집민의 생계

전략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추정케 한다.

〈표 2〉 MIS2의 동물상(손보기 1975; 박영철 외 2014, 수정 후 인용)

유적명	지층 (문화층)	절대연대값(ka)	동물화석
평창 기화리 쌍굴	Ⅲ층	15,820±290(AMS)[숫] 19,790±120(AMS)[뼈] 20,500±300[뼈]	꽃사슴, 사슴, 말사슴, 노루, 고라니, 곰, 코뿔이, 산양, 사향노루, 코뿔이, 곰, 산달, 호랑이, 표범, 원숭이
제천 점말 용굴	Ⅵ층	13,700±700(14C)[숫]	산양, 대륙사슴, 우수리사슴, 오소리, 꽃사슴, 개, 호랑이, 여우

이후 대략 13-10ka에는 한랭 건조한 기후하에 초본류가 우점하고 사초과의 초지가 넓게 분포했다. 최종빙기가 끝나는 무렵, 천안 성정동 Ⅲ화분대(10.3-9.4ka)에서는 목본류의 비율이 증가하고, 오리나무속이 우세해진다. 게다가 속초 영랑호 화분대에서 보이는 아한대 침엽수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플라이스토세 최말기에 이르면서 EHW에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온난 다습한 환경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Ⅲ. 돌날석기문화 수렵도구의 등장

수렵채집민의 이동성은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식량자원의 영역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을 이용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났을 것이다. 급격한 혹은 점진적인 기후변화는 수렵채집민의 생업활동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지역들이 근거지나 방문지로서 이용되는데, 이때 다양한 집단들이 유입되면서 문화가 확산되고 발전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후기구석기시대 문화의 확산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현중, 1997, 2006, 2010, 2015a, 2015b, 2016; 성춘택, 2005, 2009, 2019; Lee, 2018; 이현중 외, 2018; 성춘택·김태경, 2020). 특히 앞서 II장에서 연구한 자료에 근거할 때,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기후변화는 현생인류의 한반도 유입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는 중기구석기시대 이래 지속되는 격지석기군 그리고 돌날석기문화, 세형돌날문화 등 다양한 석기문화가 시기에 따라 동시에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들이 나타난다(이현중, 2010, 2015b). 이 같은 공존모델(coexistence model)이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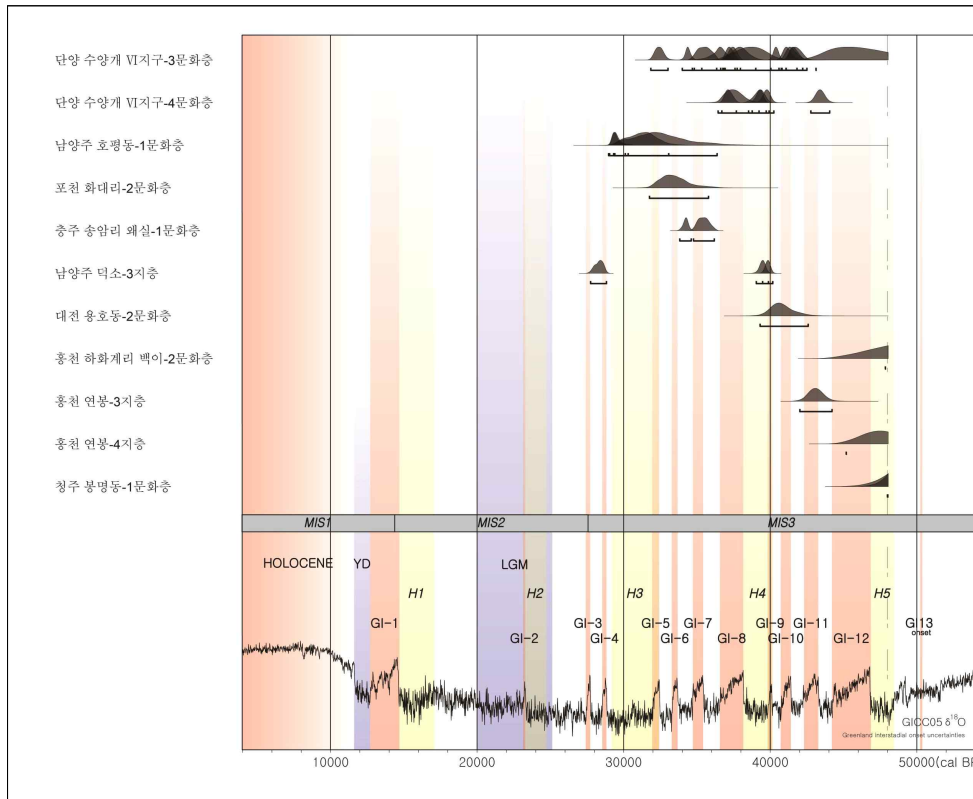
용된 문화양상은 이주 메커니즘에 기인한 것으로 여러 문화집단이 갖고 있는 기술체계와 보수적인 생계전략이 지역에 따른 다양한 생업활동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표 3〉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 네 문화갈래와 공존모델(이현종 2015b)

	45ka	30ka	25ka	15ka
몸돌석기가 포함된 격지석기 전통				
격지석기 전통				
돌날석기문화				
세형돌날문화				

돌날석기문화의 등장과 확산기에 해당하는 MIS3에는 기후 순환과정 속에서 D-O에 의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D-O 주기가 MIS2보다 상대적으로 뚜렷한 점은 기후변화 주기에 따라 여러 집단이 한반도로 유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금굴 유적, 단양 수양개 유적 등에서 돌날석기가 확인된 이후, 1990년대 후반 밀양 고례리 유적, 순천 죽내리 유적 등이 발굴되면서 실질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진안 진그늘 유적과 남양주 호평동 유적, 포천 화대리 유적, 곡성 오지리 유적, 충주 송암리 왜실 유적 등이 조사되면서 돌날석기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장용준, 2001, 2007, 2015; 이현종, 2004, 2008; 성춘택, 2006; 이현종·임현수 2008; 배기동, 2009; 이기길, 2012; 이현종·이상석, 2013, 2014; 서인선 2015)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돌날석기문화의 시기를 절대연대와 유적에서 확인되는 석기 기술·형태적 특징 그리고 석기군의 양상에 따라 두 시기(1기: 40-30ka, 2기: 30-15ka)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략 40-15ka를 전후로 돌날석기문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이현종·이상석, 2013,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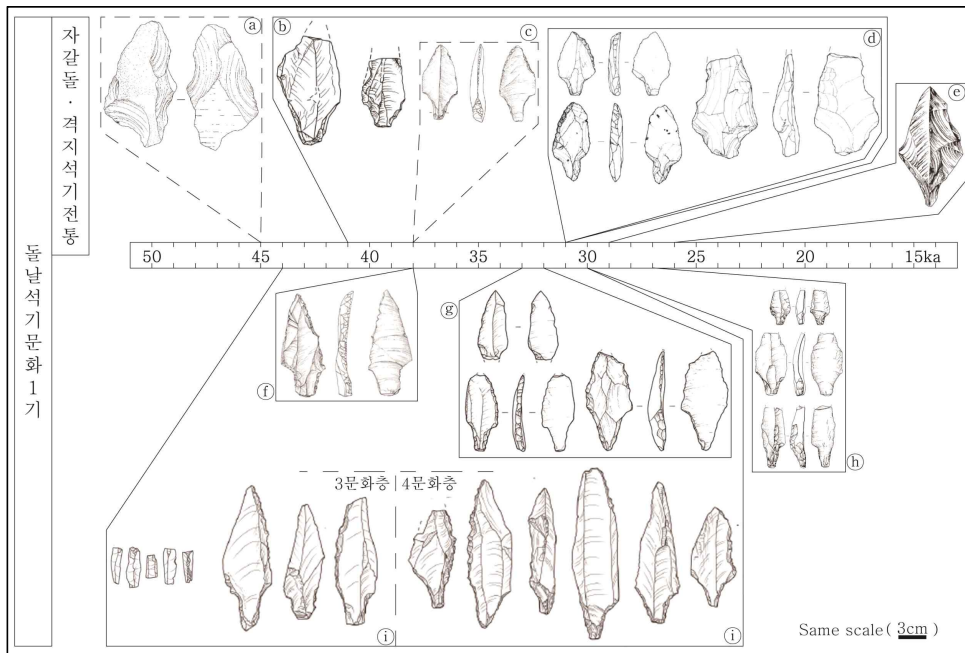


[그림 2] 45-30ka 전후 절대연대 측정값에 따른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 유적형성시기와 기후변화<sup>3)</sup>

돌날석기문화가 등장하는 40-30ka에는 청주 봉명동 유적, 홍천 연봉유적, 홍천 하화계리 백이 유적 등 일부 자갈돌 석재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기구석기시대부터 이어진 자갈돌석기 전통이 공존한다. 일부 전형적인 돌날몸돌이 확인되나, 측면몸돌을 근간으로 한 1타격면 1작업면의 몸돌이 주를 이룬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돌날석기문화 유적은 포천 화대리 유적, 남양주 호평동 유적, 남양주 덕소 유적, 충주 송암리 왜실 유적과 단양 수양개 유적(VI지구), 대전 용호동 유적 등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 확인된 돌날몸돌의 경우 타격면이나 작업면 및 하단부 조정의 흔적이 확인되나 일부 유물을 제외하고 대체로 정형성은 보이지 않는다. 주로 수직박리를 통해 떼어진 중·소형의 돌날이 확인되며,

3) 그림 2·4에 삽입된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의 절대연대는 OxCal v4.3.2로 보정하고, 빙하기 후센터에 의해 발표된 GICC05(Green Ice Core Chronology 2005: NGRIP, GRIP, and DYE-3의 서로 다른 코어의 기록이 많이 겹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빙하코어 기록들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를 활용하여 편집하였다.

슴베찌르개와 같은 돌날석기가 확인된다. 이 시기의 자갈돌석기 전통 유적들에서도 돌날  
 몸돌 기술체계를 갖춘 몸돌들과 종장형 격지들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은 장착기술의 등장이다. 이 기술은 스펀석기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Lee, 2018).



[그림 3] 45-30ka 전후 절대연대 측정값에 따른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 수렵도구

- (a) 화순 사창-1문화층[54-45ka], (b) 전주 봉곡(Ⅰ-5지구)-2·3지층[41-31ka], (c) 대전 용호동-3문화층[38ka], (d) 포천 화대리-2문화층[31ka], (e) 거창 정장리(Ⅲ지구)-2지층[29-26ka], (f) 대전 용호동-2문화층[38ka], (g) 충주 송암리 왜실-1문화층[33-32ka], (h) 남양주 호평동-1문화층[30-27ka], (i) 단양 수양개(Ⅵ지구)-3·4문화층[44-30ka]

45-40ka 후기구석기시대 초기 알타이지역에서는 르발루아 기법이 유지되면서 찌르개의 장착방식이 스펀 부분 없이 하단부에 잡이를 끼우는 형태로 확인된다(Derevianko 2005). 찌르개와 같은 수렵도구는 사냥감에 적응했을 때 박히는 과정에서 석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수렵도구가 손상되었을 때, 다른 대체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손상정도에 따라 재가공을 하겠지만, 나중엔 성형이 용이한 석기소재를 양산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했을 것이다. 결국 르발루아 기법의 수직박리와 같은 기술적 형태는 점차 길고 좁아지는 종장형 격지를 박리하는 기술로 발전되고, 종장형 격지를 양

산하기 위해 돌날석기 제작기술로 그 기술적 전이가 이루어진다(이현중, 2009).

돌날석기문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에는 르발루아 찌르개와 같은 유형의 수렵 도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종장형 격지와 돌날을 활용한 스페찌르개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스페석기는 스페찌르개뿐만 아니라 장착용 도구라는 범주의 석기군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갈돌석기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격지석기 전통의 유적들에서도 스페가 형성된 격지석기들이 발견된 점은 석기의 스페 부분을 만들고 그 부분을 다른 매개물에 고정하는 방식의 기술체계가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 다른 석기제작 기술체계를 가진 인류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돌날석기문화가 등장하는 40-30ka에 해당하는 후기구석기시대 전기의 유적에서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확인되는 르발루아 기법과 연관된 유적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자갈돌석기 전통을 기반으로, 전형적인 돌날은 아니지만 양질의 자갈돌에서 종장형 격지를 떼어내는 기술이 일부 유적들에서 확인되며, 돌날석기문화 유적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세일이나 혼펠스 같은 양질의 석재를 유적과 근접한 곳에서 획득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갈돌 석재처럼 주변에서 획득하기 쉬운 석재를 가지고 석기를 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돌날석기와 같은 체계화된 석기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석재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때는 기존의 석기제작기술 적용을 시도하였으며, 양질의 석재가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돌날석기 제작과 같은 기술적 선택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후기구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격지상 기부가공을 한 스페찌르개가 일부 유적에서 확인되는 점은 유적주변에서 획득 가능한 석재에 따라 몸체가 항상 돌날과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돌날석기문화가 유입되면서 받아들인 사냥기술의 일부가 자갈돌석기 전통을 바탕으로 주변상황에 맞게 새로운 유형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다량의 스페찌르개가 단양 수양개 유적에서 발견된 이후, 대전 용호동 유적, 포천 화대리 유적, 남양주 호평동 유적 등에서 돌날석기와 함께 스페찌르개가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단양 수양개 유적의 VI지구(3·4문화층: 44.1-30.3ka)가 조사되어 적어도 돌날석기문화가 등장하는 40ka를 전후에 스페찌르개가 등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양 수양개 유적의 VI지구(3·4문화층)에서 확인된 스페찌르개는 스페만 손질된 경우, 대부분 양측면이 손질된 양상이 확인된다(大谷薰, 2019). 이는 주지한 바와 같이 스페부분을 손질하여 다른 매개물에 결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스펀지처럼 침두부 혹은 인부의 손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펀지 부분이 양측면보다 한쪽측면에 손질이 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점은 파손된 몸체를 재가공하거나 스펀지처럼 형태를 잡는 동시에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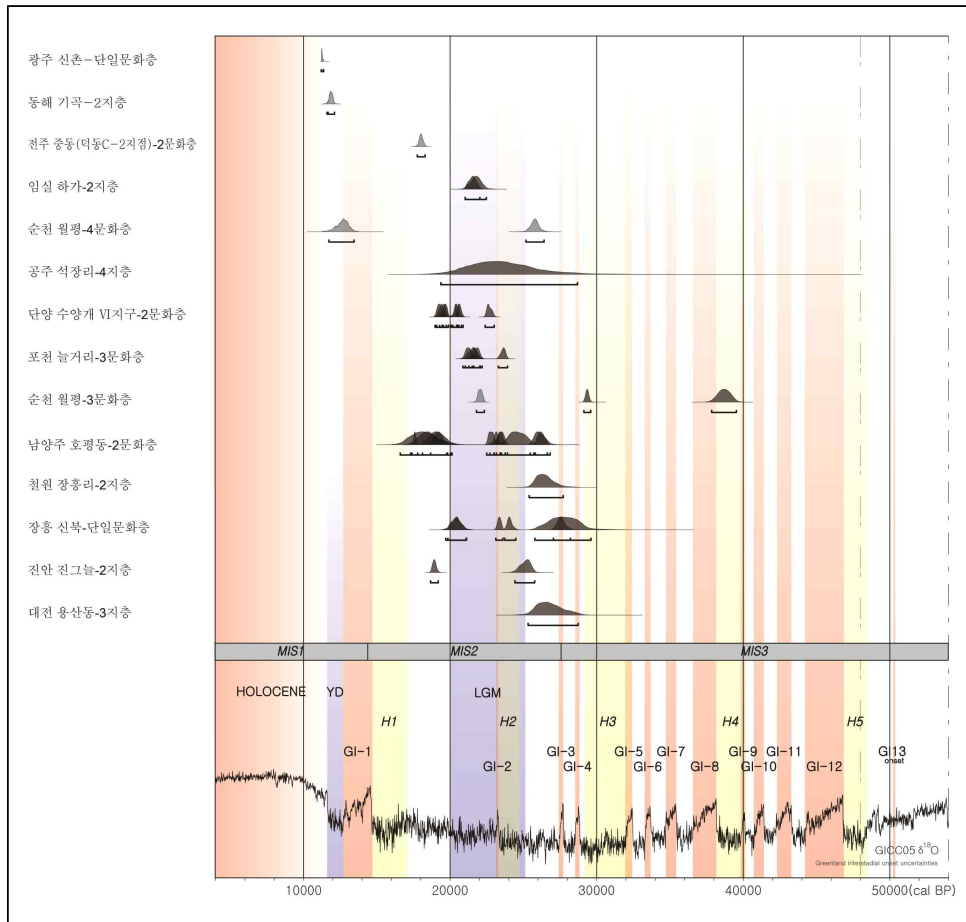
#### IV. 세형돌날문화 수렵도구의 확산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40ka를 전후한 시기에 돌날석기문화 집단들의 유입 이후, 돌날 석기문화와 함께 세형돌날문화가 약 15ka까지 공존한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세형돌날 제작기술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르강 유역의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셀렙 자 유적군에서 확인된 양면박리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원 장흥리 유적, 남양주 호평동 유적, 단양 수양개 유적(VI), 공주 석장리 유적, 대전 노은동 유적, 진주 집현 유적, 장흥 신북 유적 등에서 얻어진 절대연대값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25ka를 전후로 양면박리 원칙의 세형돌날 제작기술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형돌날문화의 경우 등장(1기: 25-20ka), 확산(2기: 20-15ka), 절정·전환기(3기: 15-10ka)의 세 시기로 구분이 가능하다(이헌종, 2010, 2015a, 2015b).

특히, 단양 수양개 유적(VI지구)의 3문화층에서 중·소형의 돌날과 돌날몸돌 그리고 소형돌날이나 세형돌날을 떼기 위한 비체계적인 원시형태의 세형돌날몸돌이 확인된다. 이처럼 돌날석기문화와 세형돌날문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문화유형은 알타이 지역의 카라콜 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현생인류의 이주와 문화 확산에 대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형돌날문화가 등장하는 25-20ka에는 대체로 전형적인 양면박리 원칙의 기술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돌날몸돌, 돌날 상에 만들어진 다양한 석기 그리고 켜기형의 전형적인 세형돌날몸돌뿐만 아니라 기술·형태적으로 다양한 몸돌들이 나타난다(Derevianko and Zelin, 1995; Lee 1995; Derevianko et al.,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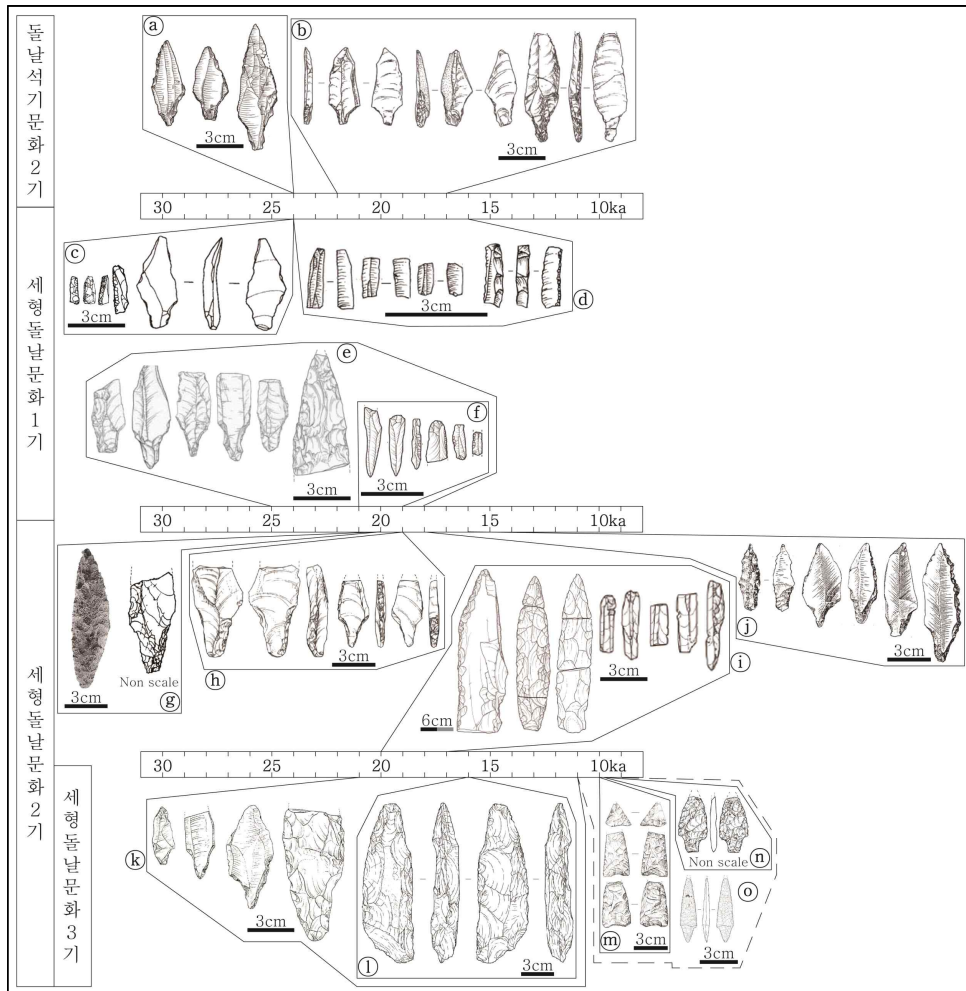


[그림 4] 25-10ka 전후 절대연대 측정값에 따른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 유적형성시기와 기후변화

20-15ka에 이르면 양면박리 원칙의 세형돌날 몸돌뿐만 아니라 격지를 활용한 세형돌 날몸돌이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몸돌이 등장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후기구석기시대 전기에 나타난 스페찌르개 이외에 유엽형의 양면박리 찌르개가 나타난다. 이러한 양면박리 원칙의 수렵도구는 대략 15ka를 전후한 세형돌날문화 2기의 말기에 확산되는데, 스페찌르개와 함께 사용되어졌다. 동북아시아의 초원지대를 중심으로 넓게 확산된 유엽형의 양면박리 찌르개가 순천 월평 유적, 임실 하가 유적, 공주 석장리 유적 등에서 확인된 점은 동북아시아 일대의 세형돌날문화 집단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문화가 전파되었듯, 시베리아 스텝지대와 극동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사냥기술의 일부가 유입되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양면박리 기술은 다양



한 기술적 확장 속에서 후기구석기시대 최말기까지 유지되어 결국 제주 고산리 유적과 같은 초창기 신석기시대까지 이어진다.



[그림 5] 25-10ka 전후 절대연대 측정값에 따른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 수렵도구

(a) 대전 용산동-3지층[24ka], (b) 진안 진그늘-2지층[22-17ka], (c) 철원 장흥리-2지층[24ka], (d) 남양주 호평동-2문화층[24-16ka], (e) 장흥 신북-단일문화층[25-18ka], (f) 포천 늘거리-3문화층[21-19ka], (g) 공주 석장리-4지층[20ka], (h) 임실 하가-2지층[19ka], (i) 단양 수양개(Ⅵ지구)-2문화층[20-17ka], (j) 단양 수양개(Ⅰ지구)-4지층[18-16ka], (k) 순천 월평-4문화층[21-10ka], (l) 전주 중동(덕동C-2지점)-1문화층[14ka], (m) 동해 기곡-2지층[10ka], (n) 광주 신촌-단일문화층[9.8ka], (o) 익산 서두리2-3지층[35ka≥])

## 1. 25–20ka

우리나라 세형돌날문화는 절대연대값을 기준으로 25-20ka에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는 LGM에 해당하는 시기로, 25-20ka cal BP 즈음에는 대체로 한랭·건조하였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매우 혹독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Kuzmin and Keates 2018). 세형돌날문화가 시작되는 25ka를 기점으로 대전 용산동 유적(3지층: 24ka), 진안 진그늘 유적(2지층: 22-17ka) 등과 같이 전형적인 돌날석기제작 유적들이 발견되어 돌날석기문화가 세형돌날문화와 공존하였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의 돌날석기문화 유적들은 돌날을 근간으로 기부 및 첨두를 조정한 형태의 전형적인 스페찌르개가 나타난다. 또한, 남양주 호평동 유적(2문화층: 24-16ka) 등에서 출토된 다량의 세형돌날은 결합식 찌르개와 같은 새로운 수렵도구가 이 시기에 확산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략 20ka에 이르면 격지활용 원칙과 양면박리 원칙의 세형돌날몸돌과 함께 공반되는 모습이 확인되며, 이는 양면박리 원칙의 제작기술이 정착되면서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돌날석기문화가 정착되고 세형돌날문화가 등장해서 확산하기 시작하는 25-20ka까지 스페찌르개는 지속되며, 새롭게 등장한 세형돌날을 활용한 결합식 수렵도구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세형돌날 제작기술을 보유한 집단들의 유입이 약 25ka 전후에 있었고, 기존의 돌날석기문화에서 파생된 기술적 전략이 세형돌날문화와 만나면서 나타났을 여지가 있다.

## 2. 20–15ka

세형돌날문화 2기는 LGM 이후 B-A의 급격한 온난기가 도래하기 이전까지의 한랭기(Oldest Dryas)에 포함된다. 이 시기에는 GI의 주기가 상대적으로 점점 약해지면서 점진적인 한랭화가 유지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의 문화는 복잡하게 공존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세형돌날석기 문화가 등장한 뒤 LGM을 기점으로 그동안 지속되었던 격지석기 전통 및 돌날석기문화가 점차 쇠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문화양상은 수렵도구에서도 확인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20ka를 전후로 시베리아 스텝지대와 극동지역에서 확인되는 양면박리기반의 찌르개가 등장하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던 돌날석기문화의 스페찌르개가 15ka를 전후로 점차 쇠퇴한다.

슴베찌르개의 경우, 20-15ka에는 주로 단면 방향으로 잔손질이 이루어지며, 인부의 일부 혹은 한쪽 날 전체 잔손질에서 점차 양쪽날을 잔손질하는 경향이 보인다. 대략 15ka에 이르면 기부에 간단한 잔손질을 베풀어 타격면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U형태에서 점차 U형태 또는 V형태로 변화되며 이전의 돌날석기문화기와 비교하여 그 크기가 점차 작아진 모습이 확인된다. 이 같은 모습은 양면박리 제작기술이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눌러떼기 기술이 보다 정교해지면서 돌날이나 종장형 격지의 타격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찌르개의 두께 조정 측면에서 점차 기부의 모습이 V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약 15ka를 기점으로 단양 수양개 유적 VI지구(2문화층: 20-17ka), 포천 늘거리 유적(3문화층: 21-19ka), 순천 월평 유적(4문화층: 21-10ka), 전주 중동 유적(덕동C-2지점 1문화층: 14ka)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점차 유연형의 양면박리 찌르개가 확산되고 세형돌날의 결합식 찌르개와 함께 사용되면서 스펀찌르개를 대체하게 된다. 또한, 단양 수양개 유적 I 지구(4지층: 18-16ka)와 광주 삼리 유적, 임실 하가 유적에서 각추상석기 혹은 그와 유사한 추형 찌르개가 확인된 점으로 볼 때, 점차 다양한 수렵도구가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3. 15-10ka

15ka 이후 양면박리 제작기술이 보편화되고 확장되면서 종장형 격지나 소형의 격지들을 가공하면서 양면박리 찌르개는 그 종류가 더욱 다양해진다. 이러한 양상은 LGM 이후 점차 기후가 회복되는 동안 한랭기에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으로 파악되며, H1의 한랭기를 지나 GI1에 이르면 양면박리 찌르개는 점차 소형화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광주 신촌 유적(9.8ka), 익산 서두리2 유적-3지층(하부 8지층: 35ka), 곡성 오지리 유적 등에서 출토된 다양한 소형 유경찌르개는 정교한 눌러떼기의 양면박리 전통이 후기구석기시대 최말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형 유경찌르개와 같은 화살촉은 동해 기곡 유적(2지층: 10ka)에서 확인되는 삼각형, 내만형과 같은 무경식 화살촉과 함께 정착되어 사용된다. 이후 YD를 지나 B-A와 같은 급격한 기온 상승이 시작되고 점차 온난해지는 EHW에 이르면서 수렵도구는 더욱 다양해진다.

이처럼 15-10ka 어간의 후기구석기시대 최말기를 지나 초창기 신석기시대에 이르면 소형의 유연형 찌르개와 함께 삼각형, 만입형, 추형 등 무경식 화살촉과 유경식 화살촉 등 다양한 수렵도구로 분화되어 양면박리 기술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이 같은 모습은 현생인류의 수렵전략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후가 회복되면서 지역에 따라 중·대형 동물에서 중·소형 동물로 수렵대상이 변하고, 연안이 도래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렵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는 중기구석기시대 이래 지속되는 격지석기군 그리고 돌날석기문화, 세형돌날문화 등 다양한 석기문화가 시기에 따라 동시에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들이 나타난다. 이 같은 공존모델(coexistence model)이 적용된 문화양상은 결국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응 결과로 다양한 집단들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플라이스토세 말에 보이는 D-O 혹은 HE와 같은 주기적인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현생인류가 유입된 유일한 근거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주기적인 기후변화는 돌날석기문화, 세형돌날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집단들이 중국 북부지역과 아무르강 유역 등지에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후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돌날석기문화(40-30ka), 세형돌날문화(25-20ka)가 유입되는 시기, 그리고 양면박리 기술이 보편화되는 시기(20-15ka)에 돌날과 세형돌날문화를 갖고 있던 현생인류의 유입이 한반도로 촉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생업활동은 환경에 따른 수렵전략과 도구유형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후기구석기시대 기후변화의 다양성은 그 기후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수렵전략에 영향을 주었고 그에 따른 수렵도구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이 다양성은 현생인류가 지역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각 수렵도구의 효율성을 높여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며 분화된 결과물이다. 특히 후기구석기시대 최말기에 접어들면서 도구제작 인식이나 인지능력 또한 향상되면서 기술체계 간 기술적 호환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수렵도구에 폭넓게 나타난다.

이러한 수렵도구의 다양화는 현생인류의 이주 메커니즘과 연관되어 있으며, 각 시기별 기술체계의 범주에서 나타난다. 특히 세형돌날제작 기술체계를 가진 집단들이 한반도 유입된 이후에는 세형돌날을 활용한 결합식 도구가 아틀라틀(Atlatl)류와 한반도에 일찍 정착된 스페르르개 기술이 수렵도구로써 한반도 전역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그리고 세형돌

날문화가 들어온 이후에 양면박리체계 기술을 가진 집단들의 유입이 다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5ka 이후 나타나는 석창류와 화살촉류의 수렵도구제작의 기반이 되었다. 이 기술은 세형돌날문화의 상징적인 아틀라틀류의 수렵도구와 함께 폭넓게 분화하였다.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에 보이는 문화적 복잡성은 중기구석기시대 이래로 이미 정착해있던 집단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보수적인 생계전략이 새로운 문화집단의 이주에 따른 접촉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문화집단이 갖고 있는 전통과 보수적인 생계전략은 새로운 환경과 만나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변화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후기구석기시대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서로 얽혀 공존하는 복잡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화양상은 수렵도구의 다양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보고서

- 강원고고학연구소(2001). 장흥리 구석기유적.  
 \_\_\_\_\_(2005). 포천 화대리 쉼터구석기유적.  
 \_\_\_\_\_(2005). 동해시 망상동 기곡 구석기유적.  
 \_\_\_\_\_(2007). 홍천 연봉 구석기유적.  
 \_\_\_\_\_(2009). 홍천 백이·돌터거리·송정 유적.  
 경남고고학연구소(2002). 진주-집현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시굴조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4). 거창 정장리 구석기유적 I.  
 기전문화재연구원(2008). 남양주 호평동 구석기유적 I.  
 \_\_\_\_\_(2008). 남양주 호평동 구석기유적 II.  
 기호문화재연구원(2016). 포천 중리 늘거리 유적.  
 마한문화재연구원(2008). 곡성 오지리유적.  
 수원대학교 박물관(2008). 남양주 덕소 유적.  
 연세대학교 박물관(2014). 평창 기화리 쌍굴유적.  
 제주대학교박물관(1998). 제주 고산리유적.  
 \_\_\_\_\_(2003). 제주 고산리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2000). 순천 죽내리유적.  
 \_\_\_\_\_(2002). 순천 월평유적-1998년 1차 발굴.  
 \_\_\_\_\_(2004). 순천 월평유적-2001년 2차 발굴.  
 \_\_\_\_\_(2008a). 임실 하가유적-2006년 1차 발굴.  
 \_\_\_\_\_(2008b). 장흥 신복 구석기유적.  
 \_\_\_\_\_(2009). 순천 월평유적-2005년 3차 발굴.  
 중앙문화재연구원(2007). 대전 용산동 구석기유적.  
 한국선사문화연구원(2014). 충주 송암리 왜실 유적.  
 \_\_\_\_\_(2018). 단양 수양개 구석기유적(I·VI지구).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2017). 대전 용호동 구석기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2007). 화순 사창유적.  
 \_\_\_\_\_(2008). 전주 봉곡 구석기유적.  
 \_\_\_\_\_(2011). 광주 신촌유적.

\_\_\_\_\_ (2013). 익산 서두리2·보삼리 유적.

\_\_\_\_\_ (2013). 전주 중동 구석기유적.

## 2. 단행본

손보기(1993). 석장리 선사유적. 동아출판사.

\_\_\_\_\_ (2009). 석장리 유적과 한국의 구석기 문화. 학연문화사.

조태섭(2005). 화석환경학과 한국 구석기시대의 동물화석. 해안.

Derevianko, A. P. (ed) (2005). *The Middle to Upper Paleolithic transition in Eurasia: hypotheses and facts* (Novosibirsk: lzd, IAE SB & RAS, 2005b).

Derevianko, A. P., Zenin, V. N. (1995). *Paleolit Selemdzhi: po materialam stoianok Ust'-Ul'ma I-III* (Novosibirsk: lzd, IAE SB & RAS, 1995).

Derevianko, A. P., Volkov, P. V., & Lee, H. J. (1998). *Selemdjinskaya Pozdne paleoliticheskaya Kultura* (Novosibirsk: lzd, IAE SB & RAS, 1998).

Lee, H. J. (1995). *Pozdnepaleoliticheskie kompleksi uga rossiiskogo Dalinego vostoka i sopredelinyikh territorii (Na osnove materialov arkheologicheskikh pamyitnikov Selemdgi)* (Novosibirsk: lzd, IAE SB & RAS, 1995).

Wilson, R. C. L., Drury, S. A., & Chapman, J. A. (1999). *THE GREAT ICE AGE: climate change and life* (Routledge & The Open University, London, 1999).

## 3. 논문

김주용·이용조·양동윤·김종찬·봉필윤·박지훈(2006). 청원 옥산 소로리 구석기 유적 제4기 지층 형성과정. 시기 및 식생사. 중원지역의 구석기문화. 학연문화사.

김주용·이용조·오근창·류은영·장수범·류새한(2006). 중원지역 선사시대 강가 한데 유적과 동굴 유적의 형성환경과 시기고찰: 소로리 유적과 구낭굴 유적을 중심으로. 중원지역의 구석기문화. 학연문화사.

김주용·이용조·양동윤·김종찬·봉필윤·박지훈(2003). 청원 옥산 소로리 구석기 유적 제4기 지층 형성 환경·시기 및 식생사. 구석기인의 생활과 유적. 학연문화사.

김혜령·윤순옥·황상일·이병철(2012). 천안 성정동 지역의 화분분석 결과를 통한 Pleistocene 후기 고환경복원. 대한지리학회지, 47(2).

배기동(2009). 한반도 후기구석기공작의 기원과 편년의 문제점. 아시아문화연구, 16.

서인선(2015). 석장리유적 돌날과 줌돌날 제작의 기술학적 재검토: 돌감, 제작방법과 떼기기술을 중심으로. 한국구석기학보, 31.

성춘택(2005). 유럽 중·후기 구석기시대의 전이에 대하여: 구석기시대 문화변화를 보는 시각.

- 호남고고학보, 21.
- \_\_\_\_\_ (2006). 한국 후기구석기 문화 유형론. 한국고고학보, 59.
- \_\_\_\_\_ (2009). 수렵채집민의 이동성과 한반도 남부의 플라이스토세 말~홀로세 초 문화변동의 이해. 한국고고학보, 72.
- \_\_\_\_\_ (2019). 수렵채집민의 광역교류네트워크와 한국 후기 구석기시대 점유밀도의 변동. 한국고고학보, 112.
- 손보기(1974). 한국 구석기시대의 자연: 특히 점말동굴의 지층별 꽃가루분석과 기후의 추정. 한불연구, 1.
- 윤순옥·황상일(2009).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최종빙기 최성기 자연환경. 한국지형학회지, 16(3).
- 이기길(2004a). 진안 진그늘유적 구석기문화층의 성격과 의미. 호남고고학보, 19.
- \_\_\_\_\_ (2004b). 진안 진그늘유적의 습베짜르개 연구-제작기법, 형식, 크기를 중심으로. 한국사고사학보, 73.
- \_\_\_\_\_ (2012). 한국 후기구석기시대 석기군의 종류와 성격. 호남고고학보, 41.
- 이상헌·김주용·오근창·양동윤·류은영·오규진(2006). 화분분석을 이용한 아산시 풍기동 지역의 후기 플라이스토세 고환경. 지질학회지, 42(1).
- 이용조·우종윤(2003). 구석기시대의 '소로리법씨'와 토탄층. 구석기인의 생활과 유적. 학연문화사.
- 이용조·공수진(2002). 수양개유적의 습베연모에 대한 새로운 연구. 한국구석기학보, 6.
- 이용조·홍미영(1999). 청주 봉명동유적 I 지구 발굴조사 개요. 연보, 8.
- 이현중(1997). 동북아시아 세형돌날문화의 기원문제에 대한 시고. 박물관연보, 5.
- \_\_\_\_\_ (2004).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 측면몸돌과 돌날석기문화와의 기술적 맥락에 대한 연구. 고문화, 63.
- \_\_\_\_\_ (2006). 동북아시아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 전환기의 해체과정과 통합의 제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학보, 12.
- \_\_\_\_\_ (2008). 곡성 오지리유적과 후기구석기 후기의 돌날석기문화 연구. 역사학연구, 33.
- \_\_\_\_\_ (2009). 동북아시아 현생인류의 등장과 사냥도구의 지역 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구석기학보, 20.
- \_\_\_\_\_ (2010). 한국 후기구석기시대 문화갈래의 복잡성 시고. 제15회 국제학술대회 수양개와 그 이웃들. 한국선사문화연구원.
- \_\_\_\_\_ (2015a). 우리나라의 돌날과 세형돌날문화의 기원과 확산 연구. 한국구석기학보, 31.
- \_\_\_\_\_ (2015b). 우리나라 후기구석기문화 '공존모델'의 특징과 문화복잡성 연구. 한국구석기학보, 32.
- 이현중·손동혁·权乾坤(2016). 북중국 세형돌날문화의 특징과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상관성 연



- 구. 한국구석기학보, 33, 한국구석기학회.
- 이현종·손동혁·이상석(2018). 시베리아와 그 주변지역 돌날석기문화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한국시베리아연구, 22(1), 한국시베리아 센터.
- 이현종·이상석(2013). 우리나라 돌날석기문화연구. 제18회 국제학술대회 수양개와 이웃들. 한국선사문화연구원.
- \_\_\_\_\_ (2014). 우리나라 돌날몸돌 제작기술체계의 특징과 변화 시고. 한국구석기학보, 29, 한국구석기학회.
- 이현종·임현수(2008). 시베리아 돌날석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한반도 자갈돌석기 전통의 연속성. 한국시베리아연구, 12(2), 한국시베리아 센터.
- 장용준(2001). 후기구석기 중엽의 박리기법 연구. 한국구석기학보, 4, 한국구석기학회.
- \_\_\_\_\_ (2007). 한반도와 일본 구주지역의 후기 구석기문화의 교류: 슴베찌르개(박편첨두기)를 중심으로. 한국상보사학보, 58, 한국상보사학회.
- \_\_\_\_\_ (2015). 한국과 일본출토 석인과 세석인의 비교 연구. 한국구석기학보, 31, 한국구석기학회.
- 정철환(2006). 화분 분석에 의한 고식생 및 고기후 연구. 영산강 유역의 구석기 고고학과 4기 지질학. 학연문화사.
- 정철환·윤호일·이승현(2004). 제주도 서귀포지역 제4기 퇴적층에서 산출된 포자·화분의 고기후적 의미. 한국지구과학회지, 25(5), 한국지구과학회.
- 정철환·이현종·임현수·김정빈(2005). 전라남도 무안군 피서리지역 후기 제4기 퇴적층에서 산출된 포자·화분 연구. 한국지구과학회지, 26(6), 한국지구과학회.
- 조태섭(2015). 우리나라 후기 갱신세시기의 동물과 기후변화. 백산학보, 103, 백산학회.
- 차미애(2007). 진안 진그늘유적 후기구석기시대 석기의 공간 분포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길·신현조·박지훈(2003). 화분분석으로부터 본 한반도 남동부해안의 최종 간빙기 해성단구. 대한지질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초록집, 78, 대한지질학회.
- 한창균(2008). 한국의 후기 구석기시대 자연환경. 한국고고학보, 66, 한국고고학회.
- 大谷薫(2019). 슴베찌르개와 한·일 찌르개문화. 한국구석기학보, 39, 한국구석기학회.
- 安田喜憲·塚田松雄·金遵敏·李相泰(1980). 韓國における環境變遷史と農耕の起源. 文部省學術調査報告.
- 塚田松雄·金遵敏·任良宰·洪淳喆·安田喜憲(1977). 韓國環境變遷史 I : 束草における植生變遷史 第4紀. 學會講演要旨集, 6.
- Alley, R. B. (2000). The Younger Dryas cold interval as viewed from central Greenland. *Quaternary Science Reviews* 19, 213-226.
- Andersen, K. K., Svensson, A., Johnsen, S. J., Rasmussen, S. O., Bigler, M. (2006).

- Röthlisberger, R., Ruth, U., Siggaard-Andersen, M.-L., Steggensen J.P., Dahl-Jensen, D., Vinther, B.M., Clausen, H.B., "The Greenland Ice Core Chronology 2005, 15-42ka, Part 1: constructing the time scale. *Quaternary Science Reviews* 25, 3246-3257.
- Broecker, W. S. (2006). Was the Younger Dryas Triggered by a Flood?. *Science* 312, 1146-1148.
- Broecker, W. S., Kennett, J. P., Flower, B. P., Teller, J. T., Trumbore, S., Bonani, G., and Wolfi, W. (1989). Routing of meltwater from the Laurentide Ice Sheet during the Younger Dryas cold episode, *Nature* 341, 318-321.
- Cuffey, K. M., Clow, G. D., Alley, R. B., Stuiver, M., Waddington, E. D., & Saltus, R. W. Large Arctic Temperature Change at the Wisconsin-Holocene Glacial Transition. *Science* 270(195), 455-458.
- Derevianko, A. P. (2005a). Formation of Blade Industries in Eastern Asia. *Archaeology, Ethnology & Anthropology of Eurasia* 4(24) (Novosibirsk: Izd, IAE SB & RAS, 2005a).
- Johnsen, S. J., Dahl-Jensen, D., Gundestrup, N., Steffensen, J. P., Clausen, H. B., Miller, H., Masson-Delmotte, V., Seveinbjornsdottir, A. E., & White, J. (2001). Oxygen isotope and palaeotemperature records from six Greenland ice-core stations: Camp Century, Dye-3, GRIP, GISP2, Renland and NorthGRIP. *Journal of Quaternary Science* 16(4), 299-307.
- Kuzmin, Y. V. & Keates, S. G. (2018). Siberia and neighboring regions in the Last Glacial Maximum: did people occupy northern Eurasia at that time?. *Archaeol Anthropol Sci* 10, 111-124.
- Lee, H. J. (2018). The Study on Cultural Dynamics of Appearance and Dispersal of Modern Human of Initial Upper Paleolithic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the Korean Palaeolithic Society* 38, 21-41. (in Korea).
- Lisiecki, L. E., & Raymo, M. E. (2005). A Pliocene-Pleistocene stack of 57 globally distributed Benthic  $\delta^{18}\text{O}$  records, *Paleoceanography* 20(PA1003), 1-17.
- Meese, D. A., Gow, A. J., Alley, R. B., Zielinski, G. A., Grootes, P. M., Ram, M., Taylor, K. C., Mayewski, P. A., and Bolzan, J. F. (1997). The Greenland Ice Sheet Project 2 depth-age scale: Methods and result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02(C12), 26,411-26,423.
- Murton, J. B., Bateman, M. D., Dallimore, S. R., Teller, J. T., and Yang Z. (2010). Identification of Younger Dryas outburst flood path from Lake Agassiz to the Arctic Ocean. *Nature* 464, 740-743.
- Nakagawa, T., Kitagawa, H., Yasuda, Y., Tarasov, P. E., Nishida, K., Gotanda, K., Sawai, Y. (2003). Yangtze River Civilization Program Members., Asynchronous Climate

- Changes in the North Atlantic and Japan During the Last Termination. *Science* 299, 688-691.
- Rull, V., Vegas-Vilarrúbia, T., Montoya, E. (2015). Neotropical vegetation responses to Younger Dryas climates as analogs for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s and lessons for conservation. *Quaternary Science Reviews* 115, 28-38.
- Rybin, E. P., Khatsenovich, A. M., Gunchinsuren, B., Olsen, J. W., Zwyns, N. (2016). The impact of the LGM on the development of the Upper Paleolithic in Mongolia. *Quaternary International* 425, 69-87.
- Severinghaus, J. P., Sowers, T., Brook, E. J., Alley, R. B. and Bender, B. L. (1998). Timing of abrupt climate change at the end of the Younger Dryas interval from thermally fractionated gases in polar ice. *Nature* 391, 141-146.
- Svensson, A., Andersen, K. K., Bigler, M., Clause, H. B., Dahi-Jensen, D., Davies, S. M., Johnsen, S. J., Muscheler, R., Rasmussen, S. O., Röthlisberger, R., Steffensen, J. P., & Vinther, B. M. (2006). The Greenland Ice Core Chronology 2005, 15-42ka. Part 2: comparison to other records. *Quaternary Science Reviews* 25, 3258-3267.
- Teller, J. T., Leverington, D. W., Mann, J. D (2002). Freshwater outburst to the oceans from glacial Lake Agassiz and Their Role in climate change during the last deglaciation, *Quaternary Science Reviews* 21, 879-887.
- Volikhovskaya, N. S. (2004). Pollen analysis results of Jangdong ri site deposits", In: Lee, H.J. (ed), *A study of Field Research of Paleolithic Sites and paleoenvironmental Reconstruction in Lower Youngsan River Basin*. (Research Center for Humanities, Mokpo National University).
- Wang, Y. J., Cheng, H., Edwards, R L., An, Z. S., Wu, J. Y., Shen, C.-C., & Dorale, J. A. (2001). A High-Resolution Absolute-Dated Late Pleistocene Monsoon Record from Hulu Cave, *China*. *Science* 294, 2345-2348.
- Zhou, H., Zhao, J., Feng, Y., Chen, Q., Mi, X., Shen, C.-C., He, H., Yang, L., Liu, S., Chen, L., Huang, J., & Zhu, L. (2014). Heinrich event 4 and Dansgaard/Oeschger events 5-10 recorded by high-resolution speleothem oxygen isotope date from central China. *Quaternary Research* 82(2), 394-404.

〈ABSTRACT〉

## The Study on the Diversity of Hunting Tools of Homo Sapiens in the Upper Paleolithic in Korea

Lee, Heonjong · Park, Sungkwen

So far, periodic climate change such as D-O or HE which happened at the end of the pleistocene cannot be seen as the only reason for the migration of Homo sapiens to our country. However, such periodic climate change may have led to the migration of new groups connected to blade tool industry and microblade industry from northern China and the Amur River basin to Korean peninsula. In line with such periodic climate change, Homo sapiens seems to have influenced groups that used existing heavy weight tools by using various regions of Korea as home bases or living floor. A variety of reasons have been suggested to explain why it happened, but it is highly likely that at least three migrations of modern humans across 40-30 ka appearing the blade tool industry, 25-20 ka featuring the microblade industry, and 20-15 ka, where bifacial flaking technique was common, occurred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climate change. In general,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human's living activity and hunting strategies and tool types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In the Upper Paleolithic, the diversity of climate change influenced the hunting strategie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adapting the climate and resulted in the diversification of hunting tools. This diversity is the result of mutual supplementation and differenti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hunting tools in the process of modern humans adapting to the local environment. This phenomenon was widely appeared in hunting tools as it entered the end of the Upper Paleolithic. On the other hand, this diversification of hunting tools is associated with the migration mechanism of Homo sapiens and appears in the categories of technological systems of each period.

### Key words

Upper Paleolithic, Climate Change, Homo Sapiens, Culture Diffusion, Diversity of Hunting Tools

논문 투고일	2020. 10. 10
논문 심사일	2020. 11. 06
게재 확정일	2020. 11. 06

---

**이현종**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인문대학(B15) 고고문화인류학과  
ruslee@mokpo.ac.kr

**박성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푸른솔로 45 5층, 한국문화유산연구원  
psk5505@gmail.com



■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 499

■ 심사 규정 / 502

■ 투고 및 발행 규정 / 507

■ 학문윤리 규정 / 513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편집위원회는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발행을 위해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이 추천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부회장 1명 및 이사 8-10명을 포함하여 최대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선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위원회는 연 3회 이상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가지며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할 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조(편집위원 자격 및 임기)** 편집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편집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이상이거나 교육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 최근 5년간 문화 및 교육관련 학술지(KCI)급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KCI급 학술지 발행하는 학회에서 논문발표자(사회자나 토론자 가능)로서 경력이 3회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 임무)** 위원회는 학술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의 발간 및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및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에 대한 제반 사항등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2. 논문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규정, 논문 투고규정 및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논문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5. 기타 외와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학회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다룬다.

**제8조(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로서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심사위원 추천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분야 제 3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5. 편집위원 본인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에서 배제한다.

**제9조(편집원칙)**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편집원칙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심사자의 심사평에 의거하여 수정된 논문의 완성도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게재될 논문을 선정한다.
3. 기한 내에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논문게재 심의를 다음호로 연기한다.
4. 게재를 심의할 때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1편만을 게재대상 논문으로 선정한다.
5. 동일 필자가 2회 연속으로 논문을 제출할 경우, 단독저자 또는 책임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2회 연속게재가 가능하나 필자가 어떠한 저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3회 연속 게재는 불가 한다.

**제10조(편집구성)**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학술지 발행 시 목차를 기획할 수 있으며,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심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학술지(“학회발표대회 논문집” 포함)의 공정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1. 심사 대상 논문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각 호의 원고 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투고된 논문에 한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들의 제목을 수합한 뒤 익명으로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전공에 부합하는 심사위원 추천을 받도록 한다.
3.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분야와 주제를 고려하여 해당 논문별로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익명의 투고 논문, 심사기준표, 심사의견서에 따라 온라인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5. 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최종판정 이후 각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제3조(심사위원의 임무 및 해촉)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 및 수정여부에 대한 결정 등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이 10일 이후에도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제4조(심사기준)

1. 투고논문 심사는 형식요건 심사와 내용 심사로 구성된다.
2. 형식요건 심사는 투고논문이 본 학술지의 「투고규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3. 내용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논문의 주제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에 부합하며 의미가 있는가
  - ② 논문의 제목이 논문의 내용과 적합한가

- ③ 연구의 문제의식과 목표가 분명하게 기술되었는가
  - ④ 연구의 방법이 명확하게 기술되었으며 제시된 방법에 따라 연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⑤ 논문에서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⑥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기존연구와 차별점이 있는가
  - ⑦ 논문의 인용과 참고문헌 표기가 적합한가
  - ⑧ 논문의 기대효과가 타당하고 학계에 기여하는가
  - ⑨ 논문이 논리적으로 전개되는가
  - ⑩ 외국어 초록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4. 심사위원은 위의 10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심사 총평 난에 「계재 가」,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사」, 「계재 불가」의 판정과 함께 그 사유를 명시한다.

#### 제5조(논문심사 방법 및 판정 후 처리)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2. 편집위원회는 원고 제출 마감 후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여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논문별로 동일분야 전공자 각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논문과 소정의 ‘논문심사서’를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탑재하고 온라인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심사 의뢰 논문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투고자의 신원을 기입하지 않는다.
5.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와 편집위원의 검토의 총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6. 심사위원은 온라인의 ‘논문심사서’ 양식에 맞춰 심사결과를 ‘계재 가,’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사,’ ‘계재 불가’ 중 하나로 종합 평가한다.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한다.
  - ① 계재가 : 수정할 내용이 거의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 ② 수정후 계재 : 수정할 내용이 구성이나 표현, 어휘의 선택, 오타자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논문
  - ③ 수정후 재심사 :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
  - ④ 게재불가 :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7. 편집위원회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판정하고 심사위원의 심사 소견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한 수정원고의 완성도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게재논문이 많을 경우 심사위원 3인의 총점 순위에 준하여 게재논문을 결정하고, 차기호로 연기될 수 있다.
8. 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종합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9.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게 <논문심사서>를 통보하여 논문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수정 제의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본과 수정보완대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본과 수정보완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10.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본래의 심사위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을 의뢰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제4의 심사자에게 의뢰 또는 편집위원회에게 게재여부 판정을 의뢰한다. 재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면 최종 게재를 불허한다.
11.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 중 심사자의 게재불가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12.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논문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최종 게재 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13. 한 호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는 전체 투고 원고수의 6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4. 소속이 동일기관인 투고논문의 게재는 총 게재 논문 수의 30%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논문게재는 학회지 각 호별 주저자 기준 1인당 논문 1편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논문인 경우 혹은 재심사 논문이 이월되어 2편이 게재가 판정을 받을 경우 게재시기를 저자의 의견을 들어 편집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16. 논문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는 심사료·게재료 입금 영수증 및 논문게재 예정증명서(확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심사 이의)**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재심사)** 재심사 논문은 새로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하며 재심사 결과의 준한 심사판정의 처리에 대해서는 심사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투고자에게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증명서 발급)** 게재가로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위원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게재를 위한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9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해당하는 논문은 1항에 해당하는 재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심사결과 게재되는 논문은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 게재되는 논문 중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인쇄된 쪽수로 20쪽이 넘을 경우에는 1쪽 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별쇄본은 투고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인쇄비 3만원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투고 및 발행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의 투고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제2조(학회지 명칭)

본 학회지의 명칭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이하 학회지)으로 한다.

영문으로는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로 표기한다.

### 제3조(발간 횟수와 시기)

본 학회지는 2020년 2월 28일, 5월 30일, 7월 30일, 9월 30일 11월 30일 연 5회 발행하고 2021년부터 1월 30일, 3월 30일, 5월 30일, 7월 30일, 9월 30일 11월 30일 연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모집 시기는 논문발행 30일 전 까지로 한다.

### 제4조(게재논문의 종류)

본 학회지의 게재할 논문은 문화교류와 다문화, 교육의 전반에 걸친 학술논문으로 한다.

### 제5조(투고 자격)

1. 석사학위 이상 연구자로 하며 박사학위 소유자와의 공동연구는 예외로 한다.
2. 특정기관 소속 저자의 논문이 게재예정 총 논문의 20%를 넘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논문투고는 학회지 각 호별 주저자 기준으로 1인당 논문 1편으로 하되, 공동저자의 경우에도 2편을 초과할 수 없다.
4. 투고 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고, 공동 논문의 경우 전원이 회원이어야 한다.
5. 본 학술지와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으며, 연구내용의 전부 혹은 핵심이 이미 게재된 논문을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6조(논문접수)**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처리한다.
2. 논문이 투고된 이후 투고논문과 관련된 투고자와의 접촉은 편집위원회를 통한다.
3. 투고논문은 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이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규정에 현저하게 어긋난 경우 반송하며, 이 때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한다.
4. 투고논문이 제출된 시점에서 저작권과 복제전송권이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한다.

**제7조(논문작성)**

**1. 원고작성**

- ① 원고는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www. kaice.kr)에 제출한다.
- ② 논문의 문장은 한글 및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기하거나 ( )속에 원어를 표기하며,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 ③ 원고의 분량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편집기준 적용 용지 20매 이내로 작성한다. 20매를 초과할 경우 1매 초과 당 1만원의 인쇄료가 별도로 부가된다.

**2. 용지 설정 및 여백**

용지종류	용지여백		용지방향
사용자 정의 폭: 188mm 길이: 257mm	위쪽	17mm	세로
	아래쪽	23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3mm	
	꼬리말	0	
	제본	0	

## 3. 편집 기준

구 분		문단모양			글자모양			비 고
		정 렬	줄간격	들여쓰기	크 기	서 체	모 양	
본문(바탕글)		혼합	170	10	10,8	신명조	장평100	
논문제목		가운데	160	0	19	신명조	진하게	
성명/소속		오른쪽	160	0	10	신명조	보통	
장제목	I.	혼합	160	10	14	신명조	진하게	위2행/ 아래1행 띄움
절제목	1.	혼합	160	10	12	신명조	진하게	위/아래 1행 띄움
항제목	1)	혼합	160	10	11,5	신명조	진하게	위 1행 띄움
목제목	(1)	혼합	160	10	10,8	신명조	진하게	위 1행 띄움
〈 표〉 [그림]	내용	가운데	160	0	9	신명조	보통	표의 위
	제목	가운데	160	0	9	신명조	보통	표의 아래
각주		혼합	130	내어쓰기 10	9	신명조	보통	
참고문헌		혼합	160	내어쓰기 25	10	신명조	보통	
인용문		혼합	160	0	10	신명조	보통	왼쪽여백 20
국문초록		혼합	160	10	10	신명조	보통	
영문 초록	제목	가운데	160	0	13,7	신명조	진하게	
	저자명	오른쪽	160	0	10	신명조	보통	
	본문	혼합	160	10	10	신명조	보통	

## 4. 제목의 번호부여

- 1단계: I, II, III .....등의 로마자 표기  
 2단계: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 표기  
 3단계: 1), 2), 3) .....등의 반괄호 숫자로 표기  
 4단계: (1), (2), (3) .....등의 적각 괄호문자로 표기  
 5단계: ①, ②, ③ .....등의 전각 원문자로 표기  
 6단계: - 전각 기호로 표기  
 7단계: • 불릿 기호로 표기

## 5. 각주와 참고문헌

-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순으로 열거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영문도서 및 저널은 이탤

릭체로 표기한다.

- ② 같은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 ③ 출판예정 저술을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대신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 ④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 ⑤ 같은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로 나열한다.
- ⑥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야 한다.
- ⑦ 본문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age별로 각주(숫자)로 표시하고 내용을 첨가한다. 각주의 인용자료 기입 시에는 도서 또는 논문의 해당 쪽수를 기재한다.
- ⑧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APA 양식을 따른다.

예) (홍길동, √1991:√23√참조)

※ √표는 띄움 표시입니다.

#### [참고문헌 작성 예시]

- 김문화 · 정교육(2016). 한국과 중국문화에 나타난 교사들의 다문화인식에 관한 신념.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2), 25-45.
- 이미연(2012).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마케팅에 나타난 교육적 실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순영(2014). 질적연구의 이해. 선학사.
- 법무부(2015).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월보. 2015년 02월.
- Fletcher, G. J. O., & Ward, C. (1988). Attribution theory and proces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M. H. Bon (Ed.), *The Cross-cultural Challenge to Social Psychology* (pp. 230-244). Newbury Park, CA: Sage.
- Clark, M. C., Nguyen, H. T., Bray, C., & Levine, R. E. (2008). Team-based learning in a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3*(3), 111-117.
- Gerstner, L. V. (1994). Reinventing education. 김용구 외(역)(2001).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 서울: 미래경영개발연구원.

#### 6. 표와 그림

- ① 그림은 인쇄용 원고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작성해서 첨부한다.
- ②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는 < >와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표의 제목은 상단에 표시하며, 그림은 [ ]와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표시한다.

- ③ 표와 그림 파일은 논문 파일 내에 붙여야 하며, 다른 파일로의 경로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 7. 인용

- ①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한다.  
 (예 1) 이 이론에 대한 실증적 증거로서 홍길동(2005)은.....  
 (예 2) “최근에는 비만의 ... 법이 이용되고 있다”(김원현, 2005: 128).
- ② 저자가 3인 이상이고 첫 인용일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되, 두 번째부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국문 예) 홍길동 외(2004)  
 (영문 예) Hair et al.(1998)
- ③ 3행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 8. 저자의 표기

- ① 주저자는 논문 내의 저자 명단에서 가장 앞부분에 표기한다.
- ② 공동저자(들)의 경우 논문 내의 저자 명단에서 주저자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1) 저자의 소속이 동일할 경우, 김교육·김문화·김연구(대한대학교)  
 (예 2) 저자의 소속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김교육(대한대학교)·김문화(민국대학교)

## 9. 초록

- ① 국문원고인 경우 국문요약을 논문 맨 앞에 영문요약을 맨 뒤에 제시하고, 영문원고인 경우 영문요약을 논문 맨 앞에 국문요약을 맨 뒤에 제시한다.
- ② 국문과 영문요약문 모두 연구목적, 연구문제,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의 내용을 포함한다.
- ③ 논문제출 시에 1000자 이내의 국문요약과 300단어 이내의 영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주제어(key word)는 45개로 규정한다.

## 10. 논문 구성 및 순서

- ①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4-5개), 내용,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저자(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②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영문저자(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4-5개), 영문내용, 영문

참고문헌, 국문제목, 국문저자(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③ 영문주제어 다음에 논문 투고일, 논문심사일, 게재확정일을 표기한다.
- ④ 마지막에 투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소속, 주소, 이메일주소)을 기입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학문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의무를 정하여 본 학회의 활동과 회원의 개인행동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제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학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2. 본 학회의 사업과 연구를 수행함에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연구와 저작에 있어서 표절이 없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는 금지하며, 그 외 부당한 저자 표시, 위조, 변조 등 연구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연구 과정, 논문 작성, 논문 게재의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조(연구 윤리 위반 행위의 의미와 유형)**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적절 행위'를 연구 윤리 위반 행위로 정의한다.

1.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의 유형에는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 '연구물과 저작의 문구', '제작된 자료수집 도구', '분석된 데이터', '고유한 연구결과'의 출처를 학술 인용방식에 맞게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2.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 작성 과정에서 기여한 정도에 적절하지 않게 저자가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
3. '위조'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연구 과정이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4. '변조'란 연구 과정에서 연구 수행 방법, 연구 자료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윤리위원회 구성과 기능)** 편집위원장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내에 학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윤리 위반의 제소와 판정)**

1. 표절과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위조, 변조 등의 제소는 학회장 또는 윤리위원장에게 제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윤리 위반의 제소가 접수되면, 학회장이나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윤리위원장·편집위원장·윤리위원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3주 이내에 소집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3. 윤리 위반의 제소자와 피의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학회장 또는 윤리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윤리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소명 기회와 비공개 심의)**

1. 윤리위원회는 제소 당한 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 당사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윤리위원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위조, 변조 등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 경고’, ‘3~5년 간 투고 금지’, 3게재 취소와 게재 논문 목록에서 삭제’, ‘제명’, ‘소속 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소와 판정)** 기타 윤리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제소, 심사, 판정, 제재는 위의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개정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